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7-39-01  
연구보고 17-R17



#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Ⅳ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책임연구원 **장근영**

공동연구원 **성은모 이경상 진성희 최효선 김균희**

# NYPI



##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V : IEA ICCS 2016 -총괄보고서-

- ▶ 책임연구원 : 장근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성은모(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이경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진성희(한밭대학교·교수)  
최효선(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연구원)  
김균희(인하대학교·연구원)
- ▶ 연구보조원 : 이재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위촉연구원)



## 발 간 사 ■ ■ ■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는 21세기 오늘의 지식정보화 사회는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역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발맞추어 미래사회에서 핵심인력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청소년의 역량과 이를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에 대한 관심도 점차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로 이어지는 삶에서 일상생활 및 직업생활 등 생활전반에 걸쳐 필요한 역량은 과연 무엇인지 규명하고 이를 육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미래사회를 주도할 청소년의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제 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넘어 제 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으로 추진해야 하는 기로에 서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역량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과학적이고 경험적인 자료들을 생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청소년 정책과제를 발굴 및 추진해야 하는 국가적 책무가 막중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시대적 변화와 정부의 청소년 정책기조를 받들어 보다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국가정책연구기관으로써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원은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를 위하여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의 수준과 실태를 진단하고, 청소년의 역량을 국제적으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청소년 역량을 국제적 수준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EA ICCS 2016'라는 정책 연구 과제를 발굴하여 2014년부터 2018년도 까지 진행되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V: ICCS 2016'의 4차 년도 연구과제는 2014년~2016년 수행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을 경험·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청소년 역량 측정도구를 재검증하고,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점수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통계적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을 IEA의 국제 청소년 시민성 및 시민의식 비교조사(ICCS 2016)를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국제수준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해 우리 사회가 개선해야 할 정책 및 제도적 부분을 점검하고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2017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송병국 드림



## 국 문 초 록

지식과 기술전수 중심의 교육에서 역량(competencies) 개발 중심의 교육으로의 전환은 OECD, UNESCO 등의 국제기구에서 추진하는 미래세대 육성정책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이다. 본 연구의 개발과 추진에는 이와 같은 추세가 반영되어 있다. 본 연구 보고서는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EA ICCS 2016' 정책연구의 4차 년도 연구이자 2016년도 3차 년도 연구의 후속연구이다. 올해 연구에서는 지난 연구를 통해 측정된 우리나라 청소년의 역량의 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민주적 역량의 국제비교를 위한 IEA ICCS 2016 본 조사 결과를 개요 하였다. 2016 청소년 역량지수의 실태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의 초·중·고등 학생과 대학생을 모집단으로, 초등학생 2,836명, 중학생 2,710명, 고등학생 3,500명 (총 9,046명) 및 대학생 1,041명으로 구성된 총 10,087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우선 5대 청소년역량 영역인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의 측정결과의 문항의 정규성과 신뢰성과 함께 청소년 역량지수 단축문항 측정도구의 일관성을 재확인하였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에 대한 연도별 비교분석 결과, 전체적으로는 유사한 양상을 확인하였다. 단, 2017년 청소년 역량에 있어 2015년과 2016년 대비 전체적인 평균 점수가 소폭 상승한 반면,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은 감소하고 진로개발역량은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또한 성별에 따른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의 차이를 확인했다. 특히 역량군 별로 성별차이가 유의미했는데, 생애학습역량과 진로개발역량은 남자가, 생활관리역량과 대인관계역량에서는 여자가 더 높았다.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 시기에 따른 청소년 역량지수 저하현상을 다시한번 확인하였으나 연령별 격차는 전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그리고 진로개발역량의 점수는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으나 대인관계역량은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 역량의 지역 차이도 발견되었으나 그 원인이 다양하게 작동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보다 조심스러운 해석이 요구되며, 그 원인을 심도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

청소년 역량지수의 연도별 추세를 살펴본 결과, 생애학습역량 지수는 2014년부터 2016년

까지 점차 증가하다, 2017년 조사에서는 감소했으며, 특히 학습적응성역량은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관리역량 지수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7년 조사에서는 유지하는 양상을 보였다. 진로개발역량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17년에 대폭 상승하였으며,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특히 초등학생의 진로개발역량지수가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고, 반면 고등학생은 미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역량의 경우 조사년도가 갈수록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기할 것은 학교급별 대인관계역량 변화추이가 서로 달랐다는 점이다.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에 대한 문항반응이론(IRT) 분석결과, 청소년의 발달시기별 청소년 역량측정 문항에 반응이 상이함을 확인하였다. 청소년 역량지수는 청소년의 성장시기별 발달적 특성이 반영되어 측정되었기 때문에 청소년의 발달시기별 청소년 역량측정 문항에 반응이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교급별 평균 점수를 단순히 비교분석하기 보다는 학교급에 따른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의 요인 동일성을 확보하는 작업을 우선 실시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특히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은 학교급별 반응이 상이함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시점별 동일성 모형의 적합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였다.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의 성별에 따른 차별기능문항(DIF) 분석결과,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 측정문항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별문항들을 확인하였다. 각 역량영역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에 남녀 청소년들에게 각각 유리한 문항들이 발견되었다. 특히 '지적도구 활용'의 '정보통신활용능력'에 해당하는 문항 중 일부가 차별기능문항이었으며 생활관리역량지수 측정문항 중 일부와 진로개발역량지수 영역의 '진로설계'의 '진로 준비'에 해당하는 문항중 일부가 초, 중, 고등학생과 대학생 집단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차별기능문항으로 확인되었다.

전 세계 25개국이 참여하는 2016년도 국제시민의식 및 시민성 비교연구(ICCS 2016)는 한국에서 총 106개 중학교 2학년 학생 3,004명과 담당교사 1368명, 교장 106명을 대상으로 IEA의 조사절차를 준수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IEA의 규정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1차 분석결과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개요 하였다. 특히 2016년 ICCS는 2009년에 실시했던 동일한 조사와의 시계열 비교가 포함되어 좀 더 많은 시사점을 제공했다. 2016년 조사결과, 2009년 대비 한국 청소년(중학교 2학년)들의 민주시민역량의 인지영역에 해당하는 '시민지

식 점수'는 소폭 향상되었으나 그 수치는 보다 많은 향상을 기록한 스웨덴, 홍콩, 대만 등의 국가들에 비해서는 적었다. 특히 대만은 아시아 국가로서는 HDI가 낮으면서도 매우 높은 수준의 시민지식 점수 성취도를 나타낸 예외적인 사례로서 추후 대만의 사례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벨기에는 시민지식 점수가 높으면서도 남녀간 성차이가 1점 내외로 매우 적어서 추후 연구에서 시민교육의 양성평등성을 달성한 사례로 주목된다. 청소년 민주시민역량의 정의적-행동적 영역 분석 결과, 청소년들의 SNS를 통한 정치참여 현상은 조사 참여 국가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었으며, 성인이 되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나 적극적인 정치참여의사 등은 남자 청소년들에게서 더 뚜렷했다. 청소년들의 교내 시민참여수준은 2009년에 비해 매우 크게 향상된 반면, 학교밖 시민참여 경험은 좀 더 향상될 여지가 발견되었다. 전반적으로 시민지식 수준이 낮을수록 적극적 정치참여의사가 높은 경향이 발견되었는데 이 결과의 시사점과 정책 대응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청소년 정책 및 활동프로그램 현황분석 결과, 생애학습역량의 경우 많은 정책들이 '지적도구활용' 역량에 편중되어 있었으며, 생활관리역량의 경우 '건강관리'와 '상황대처' 역량 분야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개발역량의 경우, 정책들이 '진로설계'와 '여가활용' 영역에 편중되어 개척정신 영역에 대한 정책이 요구되었다. 대인관계역량의 경우, '관계형성' 영역에 정책이 편중되어 있는 반면 가장 부족한 '리더십'이나 '협동' 역량에 관한 정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참여역량의 경우, 정책들이 '개인시민성'과 '세계시민성' 영역에 편중된 반면 현재 청소년들에게 가장 부족한 '공동체시민성'에 관한 정책적 관심 요구되었다. 청소년시설의 활동프로그램에 대한 역량영역별 현황 분석 결과, 생애학습역량의 경우, 사고력과 지적도구활용 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요구되었으며, 생활관리역량의 경우, 상황대처와 정서조절 관련 프로그램들이 공통적으로 부족했다. 진로개발역량의 경우, 개척정신 관련 프로그램들이 가장 부족했다. 대인관계역량 범주의 경우, 특히 리더십 영역에 대한 활동프로그램의 개발이 청소년들의 역량개발에 있어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사회참여역량의 경우, 특히 공동체시민성 관련 활동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조사 결과의 논의 이후에 이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핵심어: 청소년역량, ICCS 2016,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사회참여역량



## 연구 요약

### 1. 연구의 배경

- 본 연구는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의 목표인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우리나라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음.
- 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함께 지식과 기술의 유효기간이 감소됨에 따라 교육의 목표를 지식 전달에서 역량의 강화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OECD는 DeCeCo 프로젝트(OECD, 2005)를 통해 핵심역량을 정의하고 이를 미래교육의 목표로 제시, 뉴질랜드는 2007년부터 *Shifting the Frame* 정책으로 기존의 교과체계를 핵심역량중심으로 과감하게 통합·개편, 유럽연합(EU)은 2014년부터 Erasmus+ 사업으로 비형식 교육형태의 모든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을 통합, 2020년까지 18조원의 예산을 투입예정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역량교육의 목표와 그 달성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역량지표를 개발하고, 이 지표를 토대로 현재 한국청소년들의 역량 실태를 측정함으로써 청소년 역량 개발 정책의 구체적인 도구를 준비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역량을 '청소년이 현재와 미래(성인기)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요구되는 핵심행동특성으로서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에서 경험하고 충족시켜야 할 능력(지식, 기술, 태도)'으로 정의
  - 청소년 역량의 핵심요인으로 생애학습역량(사고력, 지적도구활용), 생활관리역량(건강관리, 과제관리, 상황대처, 정서조절), 진로개발역량(진로설계, 여가활용, 개척정신), 대인관계역량(관계형성, 리더십, 협동), 그리고 사회참여역량(개인 시민성, 공동체 시민성, 세계 시민성) 등 5개의 역량군과 16개의 하위역량 지수체계를 제시하고 측정도구를 개발했음.
- 4차 년도인 본 연구에서는 학령별 역량지수의 변화를 문항반응이론 등의 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역량지수의 연령별 변화양상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와 함께 역량지표의 연령별 타당화를 위한 기초작업을 진행하였음.
- 또한 본 연구의 두 번째 주요 목적인 시민역량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ICCS 2016)에 참여하여 한국 청소년들의 역량실태 국제비교 결과를 개요하고 검토하였음.

## 2. 연구 목적

- 2015년에서 2017년까지 실시한 청소년역량지표 측정결과의 심층 분석과 이론적 함의를 탐색하고 2018년 최종 지표 확정과 연령별 타당화를 위한 탐색연구를 실시
- 사회적 역량 중 민주시민 역량 분야에 해당하는 국제 비교연구인 IEA ICCS 2016 본조사 결과를 개요하고 한국청소년들의 민주시민역량 실태에 대한 국제적-객관적 자료 축적
- 각 시도별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사례들을 역량영역별로 분류하고 정리하여 향후 청소년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개발 정책의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 축적
- 사회참여역량의 국제비교를 위해 2009년도와 2016년도에 측정한 ICCS ARM(아시아지역모듈)을 통하여 한국 청소년의 아시아 시민의식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2009년도 측정결과와 비교함으로써 한국 청소년의 사회참여역량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 본 연구에서 수행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역량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인하고 향후 역량지표의 개발방향 설정
  - 국내 조사와 국제 비교연구를 통한 한국 청소년의 역량 수준 진단
  - 청소년 역량개발 정책의 우선순위와 시급성을 판단할 근거자료 제시
  -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해 추진해야 할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정책 및 제도적 측면에 대한 기초자료 축적

## 3. 연구내용

### 1) 2016년 청소년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전국 규모의 본조사 실시 및 자료분석

- 선행 연구 결과에 대해 제기된 주요 의문 중 하나는 청소년 연령의 증가에 따른 역량측정결과의 변화 추세에 대한 해석의 문제였음.
  - 청소년 역량의 많은 하위 영역에서 연령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가 발견되었으며 이것이 실제 역량의 감소인지, 아니면 역량지표가 측정하는 구인이 연령대에 따라 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음
- 이에 따라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를 요인간 관계모형 분석 및 문항반응 이론에 따라 분석하여 연령대에 따른 변화양상에 대한 타당한 해석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2015년부터 3년에 걸쳐 축적한 청소년역량지표 측정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역량의 시계열적 변화양상을 포함한 심층 분석을 실시

## 2) 사회적 역량 중에서 민주시민역량의 국제비교를 위해 참여한 ‘청소년 국제시민성 및 시민의식조사연구’ (IEA ICCS 2016)의 결과 개요

- ICCS 2016은 국제교육성취도 평가협회(IEA)에서 25개국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민주시민 의식과 사회적 역량을 객관적으로 비교·측정하여 각국의 시민교육의 성과를 평가하고 미래지향적인 청소년 역량 향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한 사회적 역량 특히 민주시민역량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국제비교조사임
- ICCS 2016 조사의 결과가 올해 말에 발표됨에 따라 예비분석 보고서에 제시된 결과들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개요하고 검토하였음

## 3)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을 위한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정책의 방향 제시

- 국내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현황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실시
  - 현재 각 시도 청소년시설에서 운영 중인 한국의 청소년활동프로그램들을 일별하고, 이들 프로그램을 본 연구에서 설정한 청소년역량의 5대 영역과 그 하위영역별로 분류, 분석 실시하고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검증
  -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분야를 발굴 제안
  -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전문가와 중앙정부의 정책실무자들이 참여한 FGI를 통해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관련 정책 의견수집 및 제안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관련 우선순위, 신규 프로그램안 등을 제시

## 4) 아시아 청소년 시민의식 요인모형 및 ICCS 2016 ARM 분석

- ICCS에 포함된 ARM을 적용하여 수집한 2009년도와 2016년도 통합자료를 바탕으로 청소년 시민의식 요인모형을 탐색하였으며, 이 모형에 따라 ICCS 2016 한국 측정결과를 분석하고, 한국 청소년의 시민의식 수준이 관련 영향요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확인하였다. 개인요인(2개), 가정환경요인(2개), 학교 밖/내 요인(5개)을 관련 배경요인으로 설정하여 분석
- 청소년 시민의식 모형을 적용하여 한국 청소년 시민의식 상의 2009년도와 2016년도 간의 차이를 분석하고, 이러한 차이에 관련 배경요인의 영향력 분석.
- 배경요인 수준에 따른 청소년 시민의식의 차이분석 결과, 시민의식의 종단적 차이분석 및 배경요인과의 관계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청소년의 시민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적, 사회문화적, 학문적 시사점을 제시.

#### 4. 연구추진체계

-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5개년 계획으로 구성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EA ICCS 2016’의 4차 년도 연구과제임
- 연도별 연구목적과 내용·방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1단계 (2014년)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역량 표준 설정</li> <li>·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li> </ul>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및 해외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li> <li>· 청소년 역량 개념화 및 지표체계 구축</li> <li>· 청소년 역량지표 구성체계의 타당화</li> <li>· 청소년 역량 측정도구 1차 프로토타입 개발</li> <li>· IEA ICCS 2016 조사 연구기관과의 국제협력체계 구축</li> </ul>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헌연구, 2차 자료 분석, 전문가 FGI조사, 전문가협의회</li> <li>· 집단검사, 출장면담조사</li> <li>· 청소년 역량 측정도구 개발 타당성 조사, 통계분석</li> </ul>
2단계 (2015~2016년)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역량의 국제비교(PISA, PIAAC, ICCS)를 통한 청소년 역량의 현황분석</li> <li>· 청소년 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역량중심 청소년 정책 및 역량증진 교육프로그램 개발 추진방안을 위한 실천적 전략 제시</li> <li>· 역량중심 청소년 정책 및 역량증진 교육프로그램 개발</li> </ul>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정지표체계에 대한 평가와 수정</li> <li>· 전국규모 조사를 통해 청소년 역량 진단</li> <li>· 청소년 역량의 국제비교(IEA ICCS 2016 참여)</li> <li>· 역량중심 청소년 정책체계 구축을 위한 로드맵 제시</li> <li>· 청소년 발달단계에 따른 역량중심 교육프로그램 개발 방안 제시</li> </ul>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헌연구, 2차 자료 분석, 전문가 FGI조사, 전문가협의회</li> <li>· 집단검사, 출장면담조사</li> <li>· 전국 규모 청소년 역량 진단조사(통합조사, ICCS 2016)</li> <li>· 청소년 역량의 국제비교분석(PISA, PIAAC, ICCS)</li> </ul>
3단계 (2017~2018년)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역량의 국제수준 비교 분석</li> <li>· 역량중심 청소년 정책 및 역량증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효과성 분석</li> <li>· 청소년 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청소년 역량성과 분석</li> </ul>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역량의 국제비교(PISA, PIAAC, ICCS)를 통한 청소년 역량의 현황분석</li> <li>· 청소년 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청소년 역량성과 분석</li> </ul>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헌연구, 2차 자료 분석, 전문가 FGI조사, 전문가협의회</li> <li>· 집단검사, 출장면담조사</li> <li>· 전국 규모 생애핵심역량 진단조사, 통계분석</li> </ul>

- 본 연구는 청소년 정책 뿐만 아니라 교육정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연구로서 교육 정책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한국교육개발원'과 협력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협동연구과제임
  - 연구수행에 있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개발 및 국제 비교 연구를 총괄하며, 5개의 청소년 역량지수 중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 역량, 대인관계역량 관련 측정도구 개발을 담당하고, 협동기관으로써 한국교육개발원이 사회참여역량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여 연구과제를 수행함
  - ICCS 2016의 추진에 있어서 2009년도 ICCS 조사를 수행하였던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책임자와 공동으로 참여, KEDI에서는 조사 진행을 위한 국제회의 참석과 자료 준비, 교사워크샵 등에 자문역할을 수행, 본원은 실제 조사 수행과 자료제출 절차를 수행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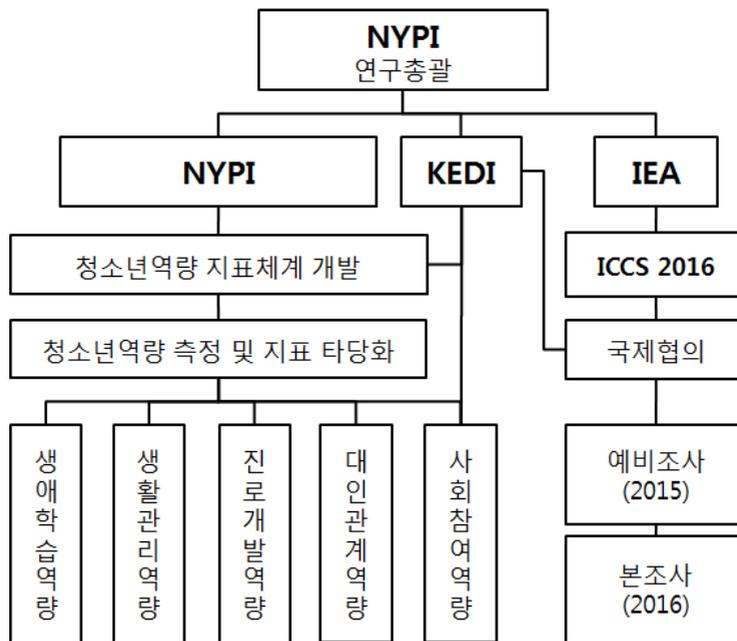


그림 1. 연구추진체계 개요

## 5. 연구결과

### 1)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 정규성 분석

-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의 타당성과 신뢰성 규명
  - 청소년 역량지수 5대 영역인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의 측정결과의 문항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
  -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그리고 대인관계역량 측정문항이 정규성(왜도<2. 침도<7)을 확보하였고, 측정문항간 상관관계계수도 양호하며, 신뢰도 계수도 양호한 것으로 확인
- 청소년 역량지수 단축문항 측정도구의 일관성 재확인
  -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이 2014년도 개발된 이후 2015년, 2016년, 그리고 2017년도에 이르기 까지 청소년의 역량을 타당하게 측정하고 있으며, 그 측정결과가 일관성 있게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유용한 측정도구임을 재확인

### 2) 2017청소년 역량지수 종합분석 결과

-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영역별 평균
  - 2017 청소년 역량지수 평균은 2.99(4점 만점, SD=43) 으로 2015년도 2.92, 2016년 2.92에 비해 다소 높아 진 것으로 나타났음
  - 청소년 역량군별로는 생활관리역량이 3.08로 가장 높고 진로개발역량과 대인관계역량이 3.01, 생애학습역량이 가장 낮은 2.86로 나타났음.
-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에 대한 연도별 비교분석
  -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 2015년, 2016년도 대비 일부 변화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유사한 점수를 보였음
  - 2017년 청소년 역량에 있어 2015년과 2016년 대비 전체적인 평균 점수는 소폭 상승하였음
  -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나 진로개발역량은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되었음
- 성별에 따른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의 차이 확인
  - 2017 청소년 역량 전체 평균점수에서는 성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음
  - 역량군별로는 생애학습역과 진로개발역량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고, 생활관리역량과 대인관계역량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음.

-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 시기에 따른 청소년 역량지수 저하현상 확인, 격차 감소
  -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따른 학교급별 성장시기의 역량점수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역량 점수가 대학생의 역량점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초등학생시기가 가장 높게 나왔고 중학생시기에 낮아지며, 고등학생과 대학생 시기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음
  -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그리고 진로개발역량의 점수는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으나 대인관계역량은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
- 청소년 역량지수와 학업성취도, 가정의 경제적 수준의 관계 확인
  - 청소년역량지수가 높을수록 학업성취도는 뚜렷이 높았음
  - 청소년역량지수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높았음
- 청소년 역량지수의 지역별 차이는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음
  - 부산, 서울, 대전, 인천지역 등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역량이 강원, 제주, 전북, 경북 지역 등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역량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지역에 따른 역량차이는 그 원인이 다양하게 작동될 수 있기 때문이 이에 대해서는 보다 조심스러운 해석이 요구되며, 그 원인을 심도 있게 다룰 필요가 있음

### 3)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영역별 실태조사 분석결과

-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 분석
  - 생애학습역량에서는 사고력(2.99)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학습적응성(2.90), 지적도구활용능력(2.78)로 나타났음
  -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서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청소년 보다 높았고, 초등학생이 중·고·대학생 역량보다 높게 났으며, 학업성취수준과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높았음
-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 분석
  - 생활관리역량에서는 건강관리(3.19)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상황대처(3.12), 정서조절(3.00), 과제관리(2.97)로 나타났음
  -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서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청소년 보다 높았고, 초·중등학생이 고등·대학생 역량보다 높게 났으며, 학업성취수준과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높았음
-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 분석
  - 진로개발역량에서는 여가활용(3.16)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진로설계(3.03), 개척정신(2.74)로 나타났음

-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서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청소년 보다 높았고, 초등학생이 중·고·대학생 역량보다 높게 났으며, 학업성취수준과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높았음

○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 분석

- 대인관계역량에서는 관계형성(3.09)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협동(3.04), 리더십(2.88)로 나타났음
-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서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청소년 보다 높았고, 중·고·대학생이 초등학생 역량보다 높게 났으며, 학업성취수준과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높았음.

**3) 2014~2017 청소년 역량지수 변화추이 비교분석결과**

○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변화추이(2014~2017)

-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지수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점차 증가하다, 2017년 조사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성장시기별(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의 생애학습역량지수는 지속적으로 소폭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었으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2015년이 가장 높고 이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생애학습역량군의 사고력의 경우 2015년 이후 조사 결과가 유사한 양상을 보였으며, 초등학생의 경우 2016년이 가장 높았으나 2017년과 유사한 수준이고, 중학생은 2017년 조사결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은 2016년보다 2017년 사고력 지수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지적도구활용역량은 2015년에 비해 2016년과 2017년이 낮은 것으로 나타으며, 전체 결과 변화추이는 초등학생의 변화와 유사하였으며, 중학생과 학생의 경우도 2015년 보다 이후 점차 낮아진 것으로 확인
- 학습적응성역량은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초, 중, 고 성장시기별(학교급별) 변화추이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변화추이(2014~2017)

-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지수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7년 조사에서는 유지하는 수준이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생활관리역량 지수는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으며, 중학생의 경우 소폭 증가하다가 2017년에는 2016년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건강관리역량의 경우 2014년에 비해 2015년에 증가하였다가 2016년과 2017년에는 감소한 경향을 보였으며, 초등학생의 건강관리역량은 계속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2014년에 비해 2015년에 증가하였다가 2016년과 2017년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과제관리역량은 2014년에 비해 2015년에 급격히 감소하였다가 2016년과 2017년에는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초등학생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중학생은 2014년에 비해 2015년에 급격히 감소하였다가 2016년과 2017년에는 감소폭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의 경우는 2015년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가 2016년과 2017년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상황대처역량의 경우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2017년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정서조절역량도 마찬가지로 모든 학교급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음

○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변화추이(2014~2017)

-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17년에 대폭 상승하였으며,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특히 초등학생의 진로개발역량지수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고, 반면 고등학생은 미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진로설계역량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진로설계역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진로설계역량 점수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고등학생의 진로설계역량지수는 해마다 증가 및 감소를 반복한 것으로 나타남
- 여가활용지수의 변화 추이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17년에 증가하였으며,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여가활용지수가 감소하다가 증가하였고, 반면 고등학생의 여가활용역량지수는 해마다 증가 및 감소를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남
- 청소년 개척정신역량은 2014년에서 2015년에 감소하다가 이후 2017년까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7년도에 대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2015년에 감소하다가 이후 2017년까지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음

○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변화추이(2014~2017)

-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학교급별 대인관계역량 변화추이는 다소 다른 경향을 보이는데, 초등학생의 경우, 2014년에 비해 2017년 대인관계역량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생의 경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초등학생에 비해 감소하는 폭이 적었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대인관계역량 중 관계형성역량은 증가하고, 리더십 및 협동역량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4) 성장시기별(학교급별) 청소년 역량지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심리 및 외부환경 요인의 조절효과분석 결과

○ 2017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에서의 개인심리 및 외부환경변인 조절효과 분석

-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에 있어 학교급은 정적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며, 학교급과 생애학습역량을 조절하는 변인은 가능한 자아와 학업스트레스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 가능한 자아 변인은 학교급이 생애학습역량에 미치는 부적 영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점차 진급할수록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차이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학업스트레스의 경우는 학교급이 생애학습역량에 미치는 정적 영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생애학습역량이 증가하는 폭이 큰 것으로 확인

○ 2017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에서의 개인심리 및 외부환경변인 조절효과 분석

-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에 있어 학교급은 정적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며, 학교급과 생활관리역량을 조절하는 변인은 가능한 자아와 학업스트레스인 것으로 확인
- 가능한 자아 변인은 학교급이 생활관리역량에 미치는 부적 영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더욱이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점차 진급할수록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차이는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학업스트레스의 경우는 학교급이 생애학습역량에 미치는 정적 영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생활관리역량이 증가하는 폭이 큰 것으로 확인

○ 2017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에서의 개인 심리 및 외부환경변인 조절효과 분석

-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에 있어 학교급은 정적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며, 학교급과 생활관리역량을 조절하는 변인은 자율성과 가능한 자아 변인 것으로 확인
- 자율성 변인은 학교급이 생활관리역량에 미치는 정적 영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초등학교에서 대학생으로 진급할수록 자율성이 높은 집단은 진로개발역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반면, 가능한 자아 변인은 학교급이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부적 영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중학생,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점차 진급할수록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차이는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가능한 자아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진로개발역량을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

○ 2017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에서의 개인심리 및 외부환경변인 조절효과 분석

-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에 있어 학교급은 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며, 학교급과 대인관계역량을 조절하는 변인은 자아개념, 가능한 자기, 부모양육태도인 것으로 확인
- 자아개념이 증가할수록 학교급이 대인관계역량에 미치는 영향은 강화되었는데, 이는 학교급이 높은 집단이 자아개념에 따른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
- 자아개념 수준이 낮은 것은 자아개념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의미하므로, 낮은 자아개념의 부정적 효과가 초기 청소년보다 중기 및 후기 청소년에게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 가능한 자기 및 부모양육태도 점수가 증가할수록 학교급이 대인관계역량에 미치는 영향은 약화되었음. 이는 학교급이 낮은 집단일수록 가능한 자기 및 부모양육태도에 영향을 더 받는 것을 의미함. 즉, 학교급이 낮은 집단은 높은 집단에 비해 미래에 대한 모습이 긍정적일수록, 부모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대인관계역량이 높았다음

5)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에 대한 문항반응이론(IRT) 분석결과

○ 청소년의 발달시기별 청소년 역량측정 문항에 반응이 상이함을 확인

- 청소년 역량지수는 청소년의 성장시기별 발달적 특성이 반영되어 측정되었기 때문에 청소년의 발달시기별 청소년 역량측정 문항에 반응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됨
-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그리고 대인관계역량 모두에서 요인 구조 동일성 모형의 적합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였음

- 현재의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은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의 영향으로 인하여 동일한 문항이라 다르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
- 학교급별 평균 점수를 단순히 비교분석하는 것은 큰 오해의 소지를 가질 수 있으며, 학교급별로 비교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에 따른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의 요인 동일성을 확보한 후에 학교급별 비교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은 학교급별 반응이 상이함을 확인
  - 시점별 동일성 모형의 적합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임. 즉, 청소년 역량의 측정문항은 시점에 따라 다른 요인 구조를 가진다고 판단할 수 있고, 시점별 역량 점수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므로 시점별 역량 점수 비교에도 제약이 따름
  - 청소년들은 발달 시점에 따른 동일한 문항에 대해 다르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시점별 단순 평균비교는 성격이 다른 영역의 점수를 동일한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요구됨
  - 성장시기별 비교분석보다는 동일시점 내에서의 비교분석이 보다 더 타당함

## 6)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의 성별에 따른 차별기능문항(DIF) 분석결과

-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 측정문항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별문항 확인
  - 생애학습역량지수 측정문항에서 초등학생 집단에서는 10개 문항이 여자 청소년에게 더 유리한 반면, 중등학생과 대학생 집단에서는 각각 15개, 17개, 5개 문항이 남자 청소년에게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음.
  - ‘지적도구 활용’의 ‘정보통신활용능력’에 해당하는 2(11)번 문항(“나는 컴퓨터(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한글,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 그림판 등을 이용해 문서, 그림, 동영상 등을 작성하거나 편집할 수 있다”)은 초, 중, 고등학생과 대학생 집단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차별기능문항으로 선정되어 향후 검사의 목적과 내용 타당도를 고려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 측정문항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별문항 확인
  - 생활관리역량지수 측정문항에서 초등학생과 대학생 집단에서는 16개, 12개 문항이 여자 청소년에게 더 유리한 반면, 중학생 집단에서는 23개 문항이 남자 청소년에게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음

- 고등학생 집단의 경우 여자 청소년에게 유리한 문항은 12개, 남자 청소년에게 유리한 문항은 11개(상황대처 중심)로 여자 청소년에게 약간 유리한 경향을 보였다. '건강관리'의 '신체 관리'에 해당하는 10(4)와 10(5)번 문항, '상황대처' 중 '폭력행동'에 해당하는 13(1), 13(2), 13(3), '정서조절'의 '감정절제'에 해당하는 14(4)과 '조절 실패'에 해당하는 14(5), 14(6) 문항은 초, 중, 고등학생과 대학생 집단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차별기능문항으로 확인됨

○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 측정문항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별문항 확인

- 진로개발역량지수 측정문항에서 초등학생 집단에서는 4개 문항이 여자 청소년에게 더 유리한 반면, 중등학생과 대학생 집단에서는 각각 11개, 12개, 3개 문항이 남자 청소년에게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음
- '진로설계'의 '진로 준비'에 해당하는 4(6)번 문항("나는 자신의 직업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멋있다고 생각한다")은 초, 중, 고등학생과 대학생 집단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차별기능문항으로 확인되었음

○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 측정문항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별문항 확인

- 대인관계역량지수 측정문항에선 초, 중, 고등학생 집단에서는 각각 8개, 15개, 14개 문항이 여자 청소년에게 더 유리한 반면, 대학생 집단에서는 3개 문항이 남자 청소년에게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남

## 7) IEA ICCS 2016 결과 분석

○ 청소년 민주시민역량의 인지적 영역 분석

- 2016년 조사결과, 2009년 대비 한국 청소년(중학교 2학년)들의 민주시민역량의 인지영역에 해당하는 '시민지식 점수'는 551점에서 565점으로 14점 향상되었음
- 그러나 스웨덴(42점 향상), 홍콩(39점 향상), 러시아(38점 향상), 노르웨이(25점 향상) 벨기에(23점 향상), 대만(22점 향상) 등의 국가에서 시민지식 점수의 증가량이 더 높아 2009년 대비 2016년 조사에서의 국가순위는 낮아졌음
- IEA의 조사결과에서 시민지식 점수는 HDI와 같은 국가별 국민생활수준 지표와 연동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대만은 아시아 국가로서는 HDI가 낮으면서도 매우 높은 수준의 시민지식 점수 성취도를 나타낸 예외적인 사례로서 추후 대만의 사례 분석이 필요하다 판단됨
- 전반적으로 남자 청소년들의 시민지식 점수가 여자 청소년들에 비해 낮은 경향이 있었으나 벨기에에는 시민지식 점수가 높으면서도 남녀간 차이가 1점 내외로 매우 적어서 추후

연구에서 시민교육의 양성평등성을 달성한 사례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 민주시민역량의 정의적-행동적 영역 분석

- 2009년 조사에서는 청소년들의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였으나 2017년 조사에서는 신뢰수준이 부분적으로 향상되었음
- 청소년들의 SNS를 통한 정치참여 현상은 조사 참여 국가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었으며, 성인이 되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나 적극적인 정치참여의사 등은 남자 청소년들에게서 더 뚜렷했음
- 청소년들의 교내 시민참여수준은 2009년에 비해 매우 크게 향상된 반면, 학교밖 시민참여 경험은 좀 더 향상될 여지가 발견되었음
- 전반적으로 시민지식 수준이 낮을수록 적극적 정치참여의사가 높은 경향이 발견되었는데 이 결과의 시사점과 정책 대응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음

8) 청소년 정책 및 활동프로그램 현황분석 결과

○ 청소년정책에 대한 역량영역별 현황 분석 결과

- 생애학습역량의 경우 많은 정책들이 '지적도구활용' 역량에 편중되어 있으며, 학습적응성과 사고력 분야에 대한 정책은 거의 없었음
- 생활관리역량의 경우 '건강관리'와 '상황대처' 역량 분야에 편중된 반면, '과제관리'나 '정서조절' 영역의 정책은 거의 없었으므로 과제관리나 정서조절 부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함
- 진로개발역량의 경우, 정책들이 '진로설계'와 '여가활용' 영역에 많고, '개척정신' 부분에는 거의 없었으므로 개척정신 영역에 대한 정책이 필요함
- 대인관계역량의 경우, '관계형성' 영역에 편중되어 있는 반면 '리더십'이나 '협동' 역량에 관한 정책은 거의 없었는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가장 부족한 대인관계역량이 '리더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 판단됨
- 사회참여역량의 경우, 정책들이 '개인시민성'과 '세계시민성' 영역에 편중된 반면 '공동체 시민성' 부분에는 아주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의 사회참여역량 측정결과에서는 세계시민성 > 개인시민성 > 공동체시민성 역량의 순으로 나타났으므로 향후에는 공동체 시민성 부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판단됨

○ 청소년시설의 활동프로그램에 대한 역량영역별 현황 분석 결과

- 생애학습역량의 경우,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에서는 사고력과 지적도구 활용 부분에, 관련 프로그램의 숫자가 많지 않은 특화시설, 유스호스텔에서는 사고력, 지적도구활용, 학습적응성 부분 모두에 관련 프로그램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 생활관리역량의 경우, 청소년수련원에서는 상황대처와 정서조절 부분에, 관련 프로그램 수가 많지 않은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특화시설에서는 건강관리, 과제관리, 상황대처와 정서조절 부분 모두에, 유스호스텔에서는 과제관리, 상황대처와 정서조절 부분에 관련 프로그램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 진로개발역량의 경우,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특화시설, 유스호스텔 모두 개척정신 부분에 관련 프로그램들이 부족했으며 이 연구의 진로개발역량 측정결과에서는 여가활용 > 진로설계 > 개척정신 역량의 순으로 나타났으므로, 향후 개척정신 부분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판단됨
- 대인관계역량 범주의 경우, 청소년수련원에서는 리더십 부분에, 문화의집에서는 협동 부분에, 특화시설에서는 리더십과 협동 부분에, 유스호스텔에서는 관계형성 부분에 관련 프로그램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리더십 영역에 대한 활동프로그램의 개발이 청소년들의 역량개발에 있어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사회참여역량의 경우, 청소년수련원에서는 공동체시민성 부분에,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에서는 세계시민성 부분에, 특화시설에서는 개인시민성 부분에, 유스호스텔에서는 개인시민성과 공동체시민성 부분에 관련 프로그램들이 부족했으며, 특히 공동체시민성 관련 활동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됨

○ 전문가 FGI 결과

- 대인관계 역량 범주의 관계형성 부분의 공감 및 배려 영역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음
- 정책으로는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동단위로 소규모화해 청소년기관에서 운영하는 체계로의 발전 방안이 제안되었음
-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해서 진로개발역량과 생애학습역량의 함양 필요성이 제시되었음
- 활동프로그램을 공모하고 만들 때 관련 역량의 정보를 청소년과 부모에게 제공하는 방안, 청소년 활동시설 유형별로 중점 역량들을 구분해서 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방안 등이 제안되었음

## 9) ICCS ARM 분석결과 (협동연구)

- 시민의식 전체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시민의식 수준이 높았으며, 기타 배경요인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시민의식의 수준이 높았고 학교 밖 이슈 공유활동의 경우에는 일부 배경요인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확인됨.
- 단 아시안 정체성의 경우, 학교 밖 이슈 공유활동, 학교 밖 집단 참여활동이 높은 집단일수록 아시안 정체성이 낮아지는 경향 발견.
-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의 경우, 교실개방성 수준이 높아질수록 아시아적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는 경향 발견.
- 2009년도와 2016년도 아시아 청소년 시민의식 수준간의 차이를 배경요인에 따라 분석 결과 전체 시민의식은 2009년보다 2016년 측정결과가 더 높았음.
- 구체적으로 보면 2009년에 비해 2016년의 한국 청소년들은 정부의 민주적, 합법적 역할 수행의 필요성을 더 요구하고 있고, 권위에 덜 복종적이며,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필요성을 더 강하게 인식하며, 바람직한 시민 차원에서의 도덕성에 대한 중요성을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단, 이전에 비해 법체계에 대한 낮은 신뢰 수준을 보였고, 정치인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수준이 낮아졌으며, 아시아 지역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더 강하게 인식했음.
- 응답자의 기대학력 수준과 학교 밖 집단 참여활동은 권위에의 복종적 태도상의 시계열적 차이에 영향을 주었는데,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다양한 사회문화적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가 증가하므로써 이전에 비해 학생들의 탈권위 경향성이 강해졌다고 해석할 수 있었음. 교실개방성 또한, 학생들의 탈권위 경향성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음.
- 미래 지향적인 시각에서 자주적이고 적극적으로 사회적 참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 제도 변화, 학교 내 활동 설계, 실제 추진 가능한 교육 주체들간의 역할 정립과 인프라 지원을 제안하였음

# 목 차

I.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2017년 4차 년도 연구 주요 내용 .....	7
3. 연구추진체계 .....	9
II. 이론적 배경 .....	11
1. 청소년의 역량 개념 및 구성체계 .....	13
2.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의 현황 및 실태 .....	15
3. 청소년 역량지수 국제비교를 위한 ICCS 2016 본 조사 개요 .....	15
4. 청소년 역량관련 국내 정책현황에 대한 분석 .....	16
5. 청소년 역량지수의 측정결과 해석을 위한 청소년의 개인심리 및 외부환경 변인 분석 .....	17
6. ICCS 아시아지역모듈(ARM) 청소년 시민의식 측정 .....	17
III. 연구방법 .....	21
1.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ICCS 2016 본 조사 개요 .....	23
2. 문헌 분석 .....	25
3. 전문가 평가 및 의견조사 .....	28
4. 정책협의회 .....	29
5.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조사 .....	30
6. 청소년 역량 관련 교육프로그램 분석 및 정책분석 .....	53
7. 2017년도 ICCS 2016 본 조사 .....	53
8. ICCS 2016 아시아지역모듈(ARM) 조사 .....	59

IV. 청소년역량지표 측정 결과 .....	65
1.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방향 정규성 분석 .....	67
2.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 종합분석 .....	74
3. 2017 청소년 역량지수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분석 .....	84
4.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결과에 대한 심층 분석 및 해석 .....	136
V. ICCS 2016 조사결과 .....	267
1. ICCS 2016 개요 .....	269
2. ICCS의 인지영역 조사결과 .....	270
3. ICCS의 정의-행동 영역 조사결과 .....	278
VI. ICCS 아시아 지역모듈 측정결과 분석 .....	293
1. 아시아 청소년 시민의식 요인모형 .....	295
2. 2016년 한국 청소년의 아시아 시민의식 .....	299
3. 2009년-2016년 한국 청소년의 아시아 시민의식 비교 .....	312
VII. 청소년 역량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특성 분석 .....	317
1. 청소년 역량관련 지방자치단체 정책현황 .....	319
2. 청소년 역량관련 청소년 활동시설 프로그램의 경향적 특성 .....	387
VIII. 논의 및 정책제언 .....	415
1. 청소년 역량지표 측정결과와 정책적 함의 .....	417
2. ICCS 2016 조사결과와 정책적 함의 .....	426
3. 청소년활동프로그램 분석결과와 정책적 함의 .....	428
4. 아시아지역모듈 분석결과와 정책적 함의 .....	454

참고문헌 .....	459
부    록 .....	479
【부록 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를 위한 선행문헌 분석 ..	479
【부록 2】 2017 청소년(초·중·고등학생) 모집단 분석 및 표본설계 .....	505
【부록 3】 2017 후기 청소년(대학생) 모집단 분석 및 표본설계 .....	518
【부록 4】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설문문항-초등학생용 .....	521
【부록 5】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설문문항-중고등학생용 .....	533
【부록 6】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설문문항-대학생용 .....	547

# 표 목 차

〈표 II-1〉	청소년 역량지수의 구성체제 .....	13
〈표 II-2〉	2016년 ICCS의 민주시민역량 개념구성 .....	16
〈표 II-3〉	2CCS ARM 측정 틀 .....	18
〈표 III-1〉	2017 청소년 역량관련 선행문헌분석 내용 .....	27
〈표 III-2〉	전문가 FGI 참여자의 기본적인 특성 .....	28
〈표 III-3〉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을 위한 초·중·고등학생 모집단크기 및 표본집단 크기 .....	31
〈표 III-4〉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학교수 표본크기 .....	32
〈표 III-5〉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학생수 표본크기 .....	33
〈표 III-6〉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조사를 위한 대학생 모집단크기 (시도별, 계열별) .....	34
〈표 III-7〉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을 위한 지역별 대학생 표본학교 수 ..	35
〈표 III-8〉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을 위한 지역별 계열별 대학생 표본크기 ..	36
〈표 III-9〉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설문문항의 구성체계 .....	39
〈표 III-10〉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조사절차 .....	41
〈표 III-11〉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조사에서 수집된 지역별·학교급별 초·중·고등학생 수 .....	42
〈표 III-12〉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조사 참여 초·중·고등학생 수 .....	43
〈표 III-13〉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조사에서 수집된 학제별·학제별·계열별 학생수 .....	44
〈표 III-14〉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조사 참여 대학생 수 .....	45
〈표 III-15〉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조사에 참여한 학생수 .....	46
〈표 III-16〉	청소년 역량지수 차별기능문항 분석대상의 성별 사례수 및 비율: 학교급별 .....	52
〈표 III-17〉	ICCS 2016 조사참여학교 현황 (괄호 안은 전체 학교수) .....	58

〈표 III-18〉	ICCS 2016 조사 응답자 현황	59
〈표 III-19〉	ICCS ARM 측정 틀	60
〈표 III-20〉	ICCS 2009 ARM 개요	61
〈표 III-21〉	ICCS 2016 ARM 개요	61
〈표 III-22〉	ICCS 2016 ARM 측정문항	62
〈표 IV-1〉	2017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측정문항 정규성 분석 결과	68
〈표 IV-2〉	2017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측정문항 정규성 분석 결과	69
〈표 IV-3〉	2017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측정문항 정규성 분석 결과	71
〈표 IV-4〉	2017년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측정문항 정규성 분석 결과	73
〈표 IV-5〉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전체 측정결과 종합분석 결과	74
〈표 IV-6〉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성별 측정결과 종합분석 결과	75
〈표 IV-7〉	2017 청소년 역량지수 학교급별(청소년시기별) 측정결과 종합분석 결과	76
〈표 IV-8〉	2017 청소년 역량지수 학업성취수준별 측정결과 종합분석 결과	78
〈표 IV-9〉	2017 청소년 역량지수 경제수준별 측정결과 종합분석 결과	79
〈표 IV-10〉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지역별 측정결과 종합분석 결과	81
〈표 IV-11〉	2017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기술통계분석 결과	85
〈표 IV-12〉	2017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하위역량 상관관계 분석	86
〈표 IV-13〉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 하위역량의 세부역량 상관관계 분석	86
〈표 IV-14〉	청소년의 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른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차이분석	87
〈표 IV-15〉	2017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사고력 역량 차이분석	90
〈표 IV-16〉	2017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지적도구활용 역량 차이분석	92
〈표 IV-17〉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학습적응성 역량 차이분석	94
〈표 IV-18〉	2017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96
〈표 IV-19〉	청소년 건강관리역량 하위역량 상관관계 분석	97
〈표 IV-20〉	청소년 건강관리역량 하위역량의 세부역량 상관관계 분석	98

〈표 IV-21〉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차이분석 .....	99
〈표 IV-22〉	2017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건강관리 역량 차이분석 .....	102
〈표 IV-23〉	2017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과제관리 역량 차이분석 .....	105
〈표 IV-24〉	2017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상황대처 역량 차이분석 .....	107
〈표 IV-25〉	2017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정서조절역량 차이분석 .....	109
〈표 IV-26〉	2017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기술통계분석 결과 .....	111
〈표 IV-27〉	2017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하위역량 상관관계 분석 .....	112
〈표 IV-28〉	2017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하위역량의 세부역량 상관관계 분석 ..	113
〈표 IV-29〉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차이분석	114
〈표 IV-30〉	3027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역량 차이분석 .....	117
〈표 IV-31〉	2017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여가활용 역량 차이분석 .....	120
〈표 IV-32〉	2017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개척정신 역량 차이분석 .....	123
〈표 IV-33〉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기술통계분석 결과 .....	125
〈표 IV-34〉	2017 청소년 대인관계의 하위역량 상관관계 분석 .....	126
〈표 IV-35〉	2017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하위역량의 세부역량 상관관계 분석 ..	127
〈표 IV-36〉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차이분석 ..	128
〈표 IV-37〉	2017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관계형성 역량 차이분석 .....	130
〈표 IV-38〉	2017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리더십 역량 차이분석 .....	132
〈표 IV-39〉	2017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협동역량 차이분석 .....	134
〈표 IV-40〉	2014~2017년 성장시기별(학교급별)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지수 변화 .....	138
〈표 IV-41〉	2014~2017년 성장시기별(학교급별) 청소년 사고력 역량지수 변화 .....	139

〈표 IV-42〉	2014~2017년 성장시기별(학교급별) 청소년 지적도구활용 역량지수 변화 .....	140
〈표 IV-43〉	2014~2017년 성장시기별(학교급별) 청소년 학습적응성역량지수 변화 .....	142
〈표 IV-44〉	2014~2017년 성장시기별(학교급별)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지수 변화 .....	144
〈표 IV-45〉	2014~2017년 성장시기별(학교급별) 청소년 건강관리역량지수 변화 .....	145
〈표 IV-46〉	2014~2017년 성장시기별(학교급별) 청소년 과제관리 역량지수 변화 .....	147
〈표 IV-47〉	2014~2017년 성장시기별(학교급별) 청소년 상황대처 역량지수 변화 .....	148
〈표 IV-48〉	2014~2017년 성장시기별(학교급별) 청소년 정서조절 역량지수 변화 .....	149
〈표 IV-49〉	2014~2017년 성장시기별(학교급별)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지수 변화 .....	151
〈표 IV-50〉	2014~2017년 성장시기별(학교급별) 청소년 진로설계 역량지수 변화 .....	153
〈표 IV-51〉	2014~2017년 성장시기별(학교급별) 청소년 여가활용 역량지수 변화 .....	155
〈표 IV-52〉	2014~2017년 성장시기별(학교급별) 청소년 개척정신 역량지수 변화 .....	156
〈표 IV-53〉	2014~2017년 성장시기별(학교급별)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지수 변화 .....	158

〈표 IV-54〉	2014~2017년 성장시기별(학교급별) 청소년 관계역량지수의 변화 .....	160
〈표 IV-55〉	2014~2017년 성장시기별(학교급별) 청소년 리더십역량지수 변화 .....	162
〈표 IV-56〉	2014~2017년 성장시기별(학교급별) 청소년 협동역량지수 변화 .....	163
〈표 IV-57〉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에 대한 학교급과 개인심리적 요인 및 외부환경요인의 조절효과 .....	166
〈표 IV-58〉	청소년 사고력역량에 대한 학교급과 개인심리적 요인 및 외부환경요인의 조절효과 .....	168
〈표 IV-59〉	청소년 지적도구활용역량에 대한 학교급과 개인심리적 요인 및 외부환경요인의 조절효과 .....	170
〈표 IV-60〉	청소년 학습적응성역량에 대한 학교급과 개인심리적 요인 및 외부환경요인의 조절효과 .....	172
〈표 IV-61〉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에 대한 개인심리 및 외부환경요인의 조절효과 .....	174
〈표 IV-62〉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건강관리역량에 대한 개인심리 및 외부환경요인의 조절효과 .....	176
〈표 IV-63〉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과제관리역량에 대한 개인심리 요인 및 외부환경요인의 조절효과 .....	178
〈표 IV-64〉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상황대처역량에 대한 개인심리 및 외부환경요인의 조절효과 .....	180
〈표 IV-65〉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정서조절역량에 대한 개인심리 및 외부환경요인의 조절효과 .....	182

〈표 IV-66〉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에 대한 개인심리 요인 및 외부환경요인의 조절효과 .....	184
〈표 IV-67〉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역량에 대한 개인심리 및 외부환경요인의 조절효과 .....	186
〈표 IV-68〉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여가활용역량에 대한 개인심리 및 외부환경요인의 조절효과 .....	189
〈표 IV-69〉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개척정신역량에 대한 개인심리 및 외부환경요인의 조절효과 .....	191
〈표 IV-70〉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에 대한 개인심리 및 외부환경요인의 조절효과 ..	194
〈표 IV-71〉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관계형성역량에 대한 개인심리 및 외부환경요인의 조절효과 .....	196
〈표 IV-72〉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리더십역량에 대한 개인심리 및 외부환경요인의 조절효과 .....	199
〈표 IV-73〉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협동역량에 대한 개인심리 및 외부환경요인의 조절효과 .....	201
〈표 IV-74〉	청소년 역량지수 모형 비교를 통한 학교급별 요인 동일성 검정 결과 .....	204
〈표 IV-75〉	청소년 역량지수 모형 비교를 통한 시점별 요인 동일성 검정 결과 ..	206
〈표 IV-76〉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 측정문항에 대한 학교급별 차별기능문항 분석 결과 .....	208
〈표 IV-77〉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 측정문항에 대한 학교급별 차별기능문항 분석 결과 .....	209
〈표 IV-78〉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 측정문항에 대한 학교급별 차별기능문항 분석 결과 .....	211

〈표 IV-79〉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 측정문항에 대한 학교급별 차별기능문항 분석 결과 .....	212
〈표 IV-80〉	성별에 따른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 하위역량별 역량 차이: 학교급별 .....	214
〈표 IV-81〉	초등학생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IRT-LR test 결과: 모든 문항을 anchor로 사용 .....	215
〈표 IV-82〉	초등학생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IRT-LR test 결과: non-DIF 문항을 anchor로 사용 .....	216
〈표 IV-83〉	초등학생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DIF 문항 내용 .....	217
〈표 IV-84〉	중학생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IRT-LR test 결과: 모든 문항을 anchor로 사용 .....	218
〈표 IV-85〉	중학생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IRT-LR test 결과: non-DIF 문항을 anchor로 사용 .....	219
〈표 IV-86〉	중학생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DIF 문항 내용 .....	220
〈표 IV-87〉	고등학생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IRT-LR test 결과: 모든 문항을 anchor로 사용 .....	221
〈표 IV-88〉	고등학생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IRT-LR test 결과: non-DIF 문항을 anchor로 사용 .....	222
〈표 IV-89〉	고등학생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DIF 문항 내용 .....	223
〈표 IV-90〉	대학생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IRT-LR test 결과: 모든 문항을 anchor로 사용 .....	224
〈표 IV-91〉	대학생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IRT-LR test 결과: non-DIF 문항을 anchor로 사용 .....	225
〈표 IV-92〉	대학생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DIF 문항 내용 .....	225

〈표 IV-93〉	성별에 따른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 하위역량별 역량 차이: 학교급별 .....	227
〈표 IV-94〉	초등학생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IRT-LR test 결과: 모든 문항을 anchor로 사용 .....	228
〈표 IV-95〉	초등학생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IRT-LR test 결과: non-DIF 문항을 anchor로 사용 .....	230
〈표 IV-96〉	초등학생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DIF 문항 내용 .....	231
〈표 IV-97〉	중학생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IRT-LR test 결과: 모든 문항을 anchor로 사용 .....	232
〈표 IV-98〉	중학생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IRT-LR test 결과: non-DIF 문항을 anchor로 사용 .....	234
〈표 IV-99〉	중학생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DIF 문항 내용 .....	235
〈표 IV-100〉	고등학생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IRT-LR test 결과: 모든 문항을 anchor로 사용 .....	236
〈표 IV-101〉	고등학생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IRT-LR test 결과: non-DIF 문항을 anchor로 사용 .....	238
〈표 IV-102〉	고등학생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DIF 문항 내용 .....	239
〈표 IV-103〉	대학생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IRT-LR test 결과: 모든 문항을 anchor로 사용 .....	240
〈표 IV-104〉	대학생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IRT-LR test 결과: non-DIF 문항을 anchor로 사용 .....	242
〈표 IV-105〉	대학생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DIF 문항 내용 .....	243
〈표 IV-106〉	성별에 따른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 하위역량별 역량 차이: 학교급별 .....	244

〈표 IV-107〉 초등학생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IRT-LR test 결과: 모든 문항을 anchor로 사용	245
〈표 IV-108〉 초등학생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IRT-LR test 결과: non-IRT 문항을 anchor로 사용	246
〈표 IV-109〉 초등학생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DIF 문항 내용	246
〈표 IV-110〉 중학생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IRT-LR test 결과: 모든 문항을 anchor로 사용	247
〈표 IV-111〉 중학생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IRT-LR test 결과: non-DIF 문항을 anchor로 사용	248
〈표 IV-112〉 중학생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DIF 문항 내용	249
〈표 IV-113〉 고등학생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IRT-LR test 결과: 모든 문항을 anchor로 사용	250
〈표 IV-114〉 고등학생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IRT-LR test 결과: non-DIF 문항을 anchor로 사용	251
〈표 IV-115〉 고등학생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DIF 문항 내용	252
〈표 IV-116〉 대학생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IRT-LR test 결과: 모든 문항을 anchor로 사용	253
〈표 IV-117〉 대학생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IRT-LR test 결과: non-DIF 문항을 anchor로 사용	254
〈표 IV-118〉 대학생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DIF 문항 내용	254
〈표 IV-119〉 성별에 따른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 하위역량별 역량 차이: 학교급별	256
〈표 IV-120〉 초등학생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IRT-LR test 결과: 모든 문항을 anchor로 사용	257

〈표 IV-121〉 초등학교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IRT-LR test 결과: non-IDF 문항을 anchor로 사용	258
〈표 IV-122〉 초등학교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DIF 문항 내용	258
〈표 IV-123〉 중학생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IRT-LR test 결과: 모든 문항을 anchor로 사용	259
〈표 IV-124〉 중학생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IRT-LR test 결과: non-DIF 문항을 anchor로 사용	260
〈표 IV-125〉 중학생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DIF 문항 내용	261
〈표 IV-126〉 고등학교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IRT-LR test 결과: 모든 문항을 anchor로 사용	262
〈표 IV-127〉 고등학교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IRT-LR test 결과: non-DIF 문항을 anchor로 사용	263
〈표 IV-128〉 고등학교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DIF 문항 내용	264
〈표 IV-129〉 대학생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IRT-LR test 결과: 모든 문항을 anchor로 사용	265
〈표 IV-130〉 대학생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IRT-LR test 결과: non-DIF 문항을 anchor로 사용	266
〈표 IV-131〉 대학생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DIF 문항 내용	266
〈표 V-1〉 ICCS 2017 참여국가별 시민지식점수 측정결과 (점수순)	270
〈표 V-2〉 ICCS 2009 대비 2016 시민지식점수 차이 (향상도 순)	272
〈표 V-3〉 ICCS 2016 시민지식점수의 성별에 따른 차이 (격차 순)	274
〈표 V-4〉 ICCS 2016 참여국가별 시민지식의 수준별 분포	276
〈표 V-5〉 ICCS 2016 참여국가별 공공 신뢰 수준 분포	279
〈표 V-6〉 인터넷과 SNS를 통한 시민참여 현황	280
〈표 V-7〉 2009년 대비 2016년 정치적 자기효능감 측정치의 차이	281

〈표 V-8〉	성차, 관심수준, 지식수준에 따른 정치적 자기효능감의 차이	283
〈표 V-9〉	ICCS 2016 참여국가별 정치-사회참여 단체 가입 경험	285
〈표 V-10〉	ICCS 2016 참여국가별 교내 시민참여 경험	287
〈표 V-11〉	미래 선거운동 참여의사	288
〈표 V-12〉	부모학력, 정치적 관심, 시민지식 수준과 미래 선거운동 참여의사	289
〈표 V-13〉	적극적 정치참여 의사	290
〈표 V-14〉	성별, 정치적 관심, 시민지식 수준에 따른 적극적 정치참여의사	292
〈표 VI-1〉	아시아 청소년 시민의식 하위요인과 문항	295
〈표 VI-2〉	ARM 문항 요인별 가중치	296
〈표 VI-3〉	ARM 요인별 제목과 구성 문항 일람	297
〈표 VI-4〉	관련 배경요인	299
〈표 VI-5〉	기대학력에 따른 시민의식 기술통계량	300
〈표 VI-6〉	부모 학력 수준에 따른 시민의식 기술통계량	302
〈표 VI-7〉	성별과 부모의 정치 사회적 관심도에 따른 시민의식 기술통계량	303
〈표 VI-8〉	국제/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학교 밖 활동)에 따른 시민의식 기술통계량	305
〈표 VI-9〉	학교 밖 집단 활동 참여에 따른 시민 의식 기술통계량	306
〈표 VI-10〉	학교 내 활동(교실개방성)에 따른 시민 의식 기술통계량	308
〈표 VI-11〉	성별과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학교 내 활동)에 따른 시민 의식 기술통계량	309
〈표 VI-12〉	성별과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학교 내 활동)에 따른 시민 의식 기술통계량	311
〈표 VI-13〉	집단별 기술통계치 요약	313
〈표 VI-14〉	집단 간 통제변인 별 전체 시민의식 수준 평균차이 검증결과 요약	315
〈표 VII-1〉	생애학습역량 관련 정책들	323

〈표 VII-2〉	생활관리역량 관련 정책들 .....	334
〈표 VII-3〉	진로개발역량 관련 정책들 .....	357
〈표 VII-4〉	대인관계역량 관련 정책들 .....	375
〈표 VII-5〉	사회참여역량 관련 정책들 .....	381
〈표 VII-6〉	청소년수련원 프로그램 평가결과 .....	390
〈표 VII-7〉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평가결과 .....	394
〈표 VII-8〉	문화의집 프로그램 평가결과 .....	398
〈표 VII-9〉	특화시설 프로그램 평가결과 .....	402
〈표 VII-10〉	유스호스텔 프로그램 평가결과 .....	406
〈표 VIII-1〉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차이 종합분석 .....	420
〈표 VIII-2〉	청소년 역량 증진 및 강화를 위한 6대 정책과제와 세부추진과제 .....	432
〈표 VIII-3〉	융합창의역량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 실시 정책제안 개요 .....	433
〈표 VIII-4〉	정보통신활용역량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 실시 정책제안 개요 .....	434
〈표 VIII-5〉	정서조절 강화 프로그램 실시 정책제안 개요 .....	435
〈표 VIII-6〉	개척도전정신 강화 활동프로그램 실시 정책제안 개요 .....	436
〈표 VIII-7〉	리더십 강화 활동프로그램 실시 정책제안 개요 .....	437
〈표 VIII-8〉	인터넷, 모바일 매개 소통합리성 체험 활동프로그램의 실시 정책제안 개요 .....	438
〈표 VIII-9〉	사회적 관계에서의 공감능력 배양프로그램의 실시 정책제안 개요 .....	439
〈표 VIII-10〉	물질기부 체험학습 프로그램의 실시 정책제안 개요 .....	440
〈표 VIII-11〉	진로탄력성 강화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정책제안 개요 .....	443
〈표 VIII-12〉	과제관리역량 강화프로그램 실시 정책제안 개요 .....	445
〈표 VIII-13〉	상황대처역량 강화프로그램 실시 정책제안 개요 .....	447
〈표 VIII-14〉	친구관계 강화형 체험활동프로그램 실시 정책제안 개요 .....	450

# 그림 목 차

【그림 Ⅰ-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협동연구추진체계 개요	10
【그림 Ⅲ-1】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조사 절차	24
【그림 Ⅲ-2】	ICCS 2016 본 조사 절차	25
【그림 Ⅳ-1】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 종합분석	75
【그림 Ⅳ-2】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성별 측정결과 종합분석	75
【그림 Ⅳ-3】	2017 청소년 역량지수 학교급별(청소년시기별) 측정결과 종합분석	77
【그림 Ⅳ-4】	2017 청소년 역량지수 학업성취수준별 측정결과 종합분석	78
【그림 Ⅳ-5】	2017 청소년 역량지수 경제수준별 측정결과 종합분석	80
【그림 Ⅳ-6】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지역별 측정결과 종합분석	81
【그림 Ⅳ-7】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지역별 생애학습역량 측정결과 종합분석	82
【그림 Ⅳ-8】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지역별 생활관리역량 측정결과 종합분석	82
【그림 Ⅳ-9】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지역별 진로개발역량 측정결과 종합분석	83
【그림 Ⅳ-10】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지역별 대인관계역량 측정결과 종합분석	83
【그림 Ⅳ-11】	2017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평균 점수 비교	85
【그림 Ⅳ-12】	2017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평균 점수 비교	97
【그림 Ⅳ-13】	2017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평균 점수 비교	112
【그림 Ⅳ-14】	2017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평균 점수 비교	126
【그림 Ⅳ-15】	2014~2017년 성장시기별(학교급별)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 변화	138
【그림 Ⅳ-16】	2014~2017년 성장시기별(학교급별) 청소년 사고력 역량지수 변화	139
【그림 Ⅳ-17】	2014~2017년 성장시기별(학교급별) 청소년 지적도구활용역량 지수 변화	141
【그림 Ⅳ-18】	2014~2017년 성장시기별(학교급별) 청소년 학습적응성 역량 지수 변화	142

【그림 IV-19】	2014~2017년 성장시기별(학교급별)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 변화 .....	144
【그림 IV-20】	2014~2017년 성장시기별(학교급별) 청소년 건강관리역량지수 변화 .....	146
【그림 IV-21】	2014~2017년 성장시기별(학교급별) 청소년 과제관리역량 지수 변화 .....	147
【그림 IV-22】	2014~2017년 성장시기별(학교급별)청소년 상황대처역량 지수 변화 .....	148
【그림 IV-22】	2014~2017년 성장시기별(학교급별) 청소년 정서조절역량 지수 변화 .....	150
【그림 IV-23】	2014~2017년 성장시기별(학교급별)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 변화 .....	152
【그림 IV-24】	2014~2017년 성장시기별(학교급별) 청소년 진로설계 역량지수 변화 .....	153
【그림 IV-25】	2014~2017년 성장시기별(학교급별) 청소년 여가활용역량 지수 변화 .....	155
【그림 IV-26】	2014~2017년 성장시기별(학교급별) 청소년 개척정신역량 지수 변화 .....	156
【그림 IV-27】	2014~2017년 성장시기별(학교급별)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 변화 .....	158
【그림 IV-28】	2014~2017년 성장시기별(학교급별) 청소년 관계형성역량지수 변화 .....	160
【그림 IV-29】	2014~2017년 성장시기별(학교급별) 청소년 리더십역량지수 변화 .....	162

【그림 IV-30】	2014~2017년 성장시기별(학교급별) 청소년 협동역량지수 변화 .....	164
【그림 IV-31】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에 대한 개인심리 및 외부환경 변인의 조절효과 .....	166
【그림 IV-32】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사고력역량에 대한 개인심리 및 외부환경 변인의 조절효과 .....	168
【그림 IV-33】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지적도구활용역량에 대한 개인심리 및 외부환경 변인의 조절효과 .....	170
【그림 IV-34】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학습적용성역량에 대한 개인심리 및 외부환경 변인의 조절효과 .....	172
【그림 IV-35】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에 대한 개인심리 및 외부환경요인의 조절효과 .....	174
【그림 IV-36】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건강관리역량에 대한 개인심리 및 외부환경요인의 조절효과 .....	176
【그림 IV-37】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과제관리역량에 대한 개인심리 및 외부환경요인의 조절효과 .....	178
【그림 IV-38】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상황대처역량에 대한 개인심리 및 외부환경요인의 조절효과 .....	180
【그림 IV-39】	청소년 정서조절역량에 대한 개인심리적요인 및 외부환경요인의 조절효과 .....	182
【그림 IV-40】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에 대한 개인심리 및 외부환경요인의 조절효과 .....	185
【그림 IV-41】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역량에 대한 개인심리 및 외부환경요인의 조절효과 .....	187

【그림 IV-42】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여가활용역량에 대한 개인심리 및 외부환경요인의 조절효과	190
【그림 IV-43】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개척정신역량에 대한 개인심리 및 외부환경요인의 조절효과	192
【그림 IV-44】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에 대한 개인심리 및 외부환경요인의 조절효과	194
【그림 IV-45】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관계형성역량에 대한 개인심리 및 외부환경요인의 조절효과	197
【그림 IV-46】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리더십역량에 대한 개인심리 및 외부환경요인의 조절효과	199
【그림 IV-47】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협동역량에 대한 개인심리 및 외부환경요인의 조절효과	202
【그림 IV-48】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예)	203
【그림 V-1】	ICCS 시민지식 점수와 HDI 지수간의 관계	271
【그림 V-2】	ICCS 2009 대비 2016년 시민지식 점수의 차이	273
【그림 V-3】	시민지식 점수의 남자 대비 여자 점수의 격차	275
【그림 V-4】	국가별 시민지식의 수준(level)별 분포	277
【그림 V-5】	2009년 조사 대비 2016년 청소년 자기효능감의 변화량	282



# 제 I 장

---

##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2017년 4차 년도 연구 주요 내용
3. 연구추진체계



제 I 장  
서론<sup>1)</sup>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속도는 갈수록 빨라진다. 인터넷과 함께 시작된 실시간 양방향 통신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기 시작한 지 20년이 넘어가지만 그 이후로도 세상은 사람들의 예상을 넘어선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첫 아이폰이 출시되었던 10년 전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작은 단말기를 들고 다니며 전 지구적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타인들과 영상·음성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일상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세상이 도래할 거라고 예측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비트코인이 처음 소개되었던 2009년에 공유 연산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채굴’한 데이터가 가장 안전한 화폐로 인정받아 국경 없는 거래의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 예상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불과 2년 전인 2016년 2월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바둑’이라는 가장 복잡한 게임에서 사람을 능가하는 사건이 벌어질 것임을 예상하지 못했다.

기술의 발전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사회와 문화, 그리고 산업구조의 변화가 이를 따르는 속도 역시 빨라지지만, 아직 우리는 그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인터넷을 통해 국가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마침내 모두가 한마음으로 소통하는 지구촌이 완성될 것으로 여겨졌지만, 현재 세계는 오히려 문화 간, 종교 간의 갈등, 지역 간의 분리와 반복이 더욱 심화되는 것처럼 보인다. 중동의 혼란이 난민을 통해 유럽으로 전파되고, 미국의 우경화는 물론이고 박애와 평등의 정신으로 민주주의기틀을 다졌던 유럽의 선진국에서 극우 민족주의 정치세력들이 힘을 얻고 있으며, 스페인에서와 같은 분리 독립에의 요구까지 분출되고 있다. 실시간으로 모두가 같은 플랫폼에서 소통하는 사회에서 오히려 경제적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사람들이 느끼는 서로간의 장벽이 더 높아진다. 진보한 기술과 변화하는 세상이 사회구성원들에게 새로운

1) 이 부분은 장근영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도전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2017년 1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의 ‘일자리의 미래 보고서’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세대의 65%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갖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버드대 사회과학연구소의 아브스만(S.Arbesman)은 인류가 보유한 지식이 시작되어 증축되고 마침내 붕괴해가는 과정인 지식의 생명주기에 주목했다. 그는 자신의 책 <지식의 반감기>를 통해 지식의 절반이 틀린 것으로 드러나는 데 걸리는 기간인 ‘지식의 반감기’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공식에 따르면 현재 심리학 분야에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지식 중 절반은 7.2년 후에는 틀린 것으로 확인되어 새로운 지식으로 대체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에 따르면 이 지식의 반감기는 경제학 분야에서는 9.4년, 수학에서는 9.2년이며, 물리학 분야의 지식이 가장 수명이 길지만 그 조차도 절반의 지식이 붕괴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13.1년에 불과하다. 지금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과 기술은 그들이 학교를 졸업해서 직업을 가지려 할 때 쯤에는 거의 대부분이 쓸모없어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이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교육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에 착수했다. 지식과 기술 중심의 교육에서 역량(competencies) 중심의 교육으로의 전환이 그것이다. 역량은 지식과 기술의 배후에 존재하는, 자신에게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발견하고 이를 습득하여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용하는 인간의 능력을 의미한다. 지식과 기술은 반감기가 있지만, 역량은 한 개인이 살아가는 평생 동안 그 유효성이 유지된다. 역량을 키우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나타나도 이를 배우고 활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역량은 단지 학교에서 시험을 보거나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낯선 생각과 문화를 수용하고, 가족과 공동체를 꾸리고, 변화하는 사회에서 유능한 시민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이 역량이다.

OECD의 DeCeCo 프로젝트(OECD, 2005)를 비롯하여 UNESCO는 2015년부터 Learning Matrix 프로젝트를 통하여 역량 중심의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국가교육과정의 틀을 역량중심 학습체제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다(성은모 외, 2015).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과 학습체제로 전환하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생활전반에 걸쳐 한 개인의 성공은 특정 교과목의 수행수준보다 훨씬 넓은 개념의 ‘역량(Competency)’에 의해 좌우된다는 가정에 기초한다(Rychen & Salganik, 2003). 이 역량은 시대적 요구와 특정 사회의 맥락적 특성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각 사회의 맥락적 특성에 부합하는 역량을 도출하고 그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시대적 요구와 우리나라 사회의 맥락적 특성에 부합하는 청소년의 역량이 무엇인지 그 개념과 구성요인을 구체적으로 규명하려는 연구와 정책이 수행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08~2010년 청소년의 생애핵심역량의 구성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였고(김기현 외, 2010),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2013년부터 학생역량지수의 구성요인과 측정도구를 개발하였으며(김창환 외, 2013), 교육부에서도 2013년부터 인성역량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청소년 역량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면, 2008~2010년 청소년의 생애핵심역량 연구는 국가적 수준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요구되는 청소년 역량을 다루었고, 학생역량과 인성역량의 경우에는 학교교육과정 및 제도개선이라는 학교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는 것이다(성은모 외 2014; 성은모 외 2014; 성은모 외, 2015).

이처럼 미래의 개인과 사회를 위해 현재 우리 청소년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그 역량이 무엇이며,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보다 크게 제기되고 있다. 물론 지금까지 국내에서 청소년 역량지표 관련 연구가 전무했었던 것은 아니다. 국내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교육과정과 관련된 핵심역량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윤현진, 김영준, 이광우 전제철, 2007; 이광우, 민용성, 전제철, 김미영, 김혜진, 2008; 이근호, 광영순, 이승미, 최정순, 2012),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학생역량지표 개발 연구를(김창환, 엄문영, 김기현, 김종민, 박종효, 박현정, 이광현, 이상, 201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청소년 관련 핵심역량 개발 연구를 수행해 왔다(김기현, 장근영, 조광수, 박현준, 2010).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핵심역량의 하위 영역들을 도출해내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청소년기는 변화와 발달의 속도가 빠른 시기이고, 현재 전세계적으로 진행되는 기술과 사회문화적 환경 역시 매우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청소년 역량연구는 매우 시급한 과제이자 동시에 장기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과제이다. 고유한 인간성과 가치관에 근거하되,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어 적응해야 할 미래사회의 비전을 반영하여 역량의 개념의 정의를 하고 이를 측정 혹은 지표화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변환하는 작업은 단번에 결론으로 도달 할 수 없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역량지표의 내용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지속적인 수정보완이 필요하며, 역량 지표의 타당성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 작업 역시 단시간에 완료될 수 없다. 또한 국제적인 흐름을 반영하기 위한 국가간 비교작업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청소년 역량 연구의 필요성과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에 의거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보다 구체화하고 연속적이면서 일관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5개년(2014-2017) 연구계획을 수립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EA ICCS 2016’라는 정책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본 연구는 이 정책연구의 4차 년도 연구로서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정의하고 측정함으로써 현재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역량발달에 요구되는 정책과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 연구(성은모 외, 2014)’를 기반으로 청소년 역량지표를 개발하여 타당화 검증을 진행하였고, 청소년 역량개발에 관련된 국내외 주요 정책들을 정리하였으며, 민주시민 역량의 국제비교를 위한 2016년도 IEA ICCS(Inter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Study 이하 IEA ICCS) 본조사에 참여하여 엄정한 국제비교 절차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올해에는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역량 개발 프로그램들을 역량 영역별로 분석하고, ICCS 2016 조사를 통해 수집된 국제비교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역량에 대한 현황에 대한 과학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방향과 프로그램평가 방향에 대해 논의하며, 마지막으로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해 우리 사회가 개선해야 할 정책 및 제도적 요소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또한 전년도까지 개발한 청소년 역량지표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 역량 영역별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2016년 조사결과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2017년의 전국적인 실태조사와 사례조사를 통해 시계열적 변화를 확인하고 다면적인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고자 한다.

## 2. 2017년 4차 년도 연구 주요 내용

본 연구는 5개년 계획의 4차 년도에 해당하며 연도별 연구목적과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단계 (2014년)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역량 표준 설정</li> <li>·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li> </ul>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및 해외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li> <li>· 청소년 역량 개념화 및 지표체계 구축</li> <li>· 청소년 역량지표 구성체계의 타당화</li> <li>· 청소년 역량 측정도구 1차 프로토타입 개발</li> <li>· IEA ICCS 2016 조사 연구기관과의 국제협력체계 구축</li> </ul>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헌연구, 2차 자료 분석, 전문가 FGI조사, 전문가협의회</li> <li>· 집단검사, 출장면담조사</li> <li>· 청소년 역량 측정도구 개발 타당성 조사, 통계분석</li> </ul>
2단계 (2015~2016년)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역량의 현황분석</li> <li>· 청소년 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역량중심 청소년 정책 및 역량증진 교육프로그램 개발 추진방안을 위한 실천적 전략 제시</li> <li>· 역량중심 청소년 정책 및 역량증진 교육프로그램 개발</li> </ul>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정지표체계에 대한 평가와 수정</li> <li>· 전국규모 조사와 국제비교 조사를 통해 청소년 역량 진단</li> <li>· 역량중심 청소년 정책체계 구축을 위한 로드맵 제시</li> <li>· 청소년 발달단계에 따른 역량중심 교육프로그램 개발 방안 제시</li> </ul>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헌연구, 2차 자료 분석, 전문가 FGI조사, 전문가협의회</li> <li>· 집단검사, 출장면담조사</li> <li>· 전국 규모 청소년 역량 진단조사</li> <li>· 청소년 역량의 국제비교(ICCS 2016) 조사 실시</li> </ul>
3단계 (2017~2018년)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역량의 국제수준 비교 조사결과 분석(ICCS 2016)</li> <li>· 역량중심 청소년 정책 및 역량증진 교육프로그램 현황 및 효과성 분석</li> <li>· 청소년 역량지표의 타당화와 개념구조 확정</li> <li>· 청소년 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역량중심 청소년정책의 효과 분석 및 실천적 전략 제시</li> </ul>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정지표체계에 대한 타당도 신뢰도 평가와 수정</li> <li>· 전국규모 조사를 통해 청소년 역량 진단</li> <li>· 청소년 역량의 국제비교(ICCS 2016) 조사결과 분석</li> <li>· 역량중심 청소년 정책체계 구축을 위한 로드맵 제시</li> <li>· 청소년 발달단계에 따른 역량중심 교육프로그램 개발 방안 제시</li> </ul>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헌연구, 2차 자료 분석, 전문가 FGI조사, 전문가협의회</li> <li>· 전국 규모 청소년 역량 진단조사 및 사례조사</li> <li>· 청소년 역량의 국제비교(ICCS 2016) 조사 결과 심층 분석</li> </ul>

## 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의 검증과 분석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2016년에 실시한 청소년역량조사는 매우 주목할 만한 결과를 제공했다. 전반적인 청소년의 역량이 초등학교 시기에 가장 높고, 그 이후로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에 맞춰 일부 문항을 삭제하고 간략화한) 초등학교용 측정도구의 차이 효과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일관적이었다. 더욱 특기할 것은 여자청소년들의 역량 감소가 더욱 급격했다는 점이다. 남자 청소년들은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는 여자청소년들보다 역량 지수측정치가 전반적으로 낮았지만, 여자 청소년 역량의 빠른 감소로 인해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연령대에서 이 차이가 반전되며, 특히 대학생 시기에는 남자청소년들은 일부 역량이 고등학교 시기보다 높아지는데 반해서 여자청소년들은 계속 감소하여 남녀간의 역량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졌다. 2015년과 2016년의 조사결과를 종합한 결과 이는 한국 청소년들의 역량이 실제로 연령에 따라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본 조사 결과는 청소년역량 측정지표의 타당성을 재검증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지표의 특정 항목이 연령에 따라 유리하거나 불리할 수도 있으며, 초등학교 대상 측정지표의 보정이 편향을 제공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척도의 타당성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현재 측정항목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타당도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척도의 간략화 작업도 실시하고자 한다. 역량을 지필검사로 측정하는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만큼, 지필검사로 측정가능한 역량과 다른 평가수단이 필요한 역량을 이론적으로 구분할 필요도 있다.

## 2) 국제시민성 및 시민의식조사연구(ICCS 2016)의 본조사 결과 분석

본 연구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국제교육협의회(IEA)에서 주관하는 국제 시민성 및 시민의식 조사연구(ICCS 2016)에 참여하여 한국청소년들의 시민역량수준을 측정하고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것이다. ICCS 는 학업능력과 성취도를 중심으로 측정하는 PISA, TIMMS, PIRLS와 함께 민주시민교육수준에 대해서는 가장 오랫동안 충분히 개발된 측정 도구와 축적된 참여국 데이터를 보유한 세계 최대의 국제비교조사라고 할 수 있다.

2016년에 실시한 ICCS 2016 국제비교조사 결과는 IEA의 데이터 처리절차를 거쳐서 올해 하반기 이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EA에서 발표한 최종 데이터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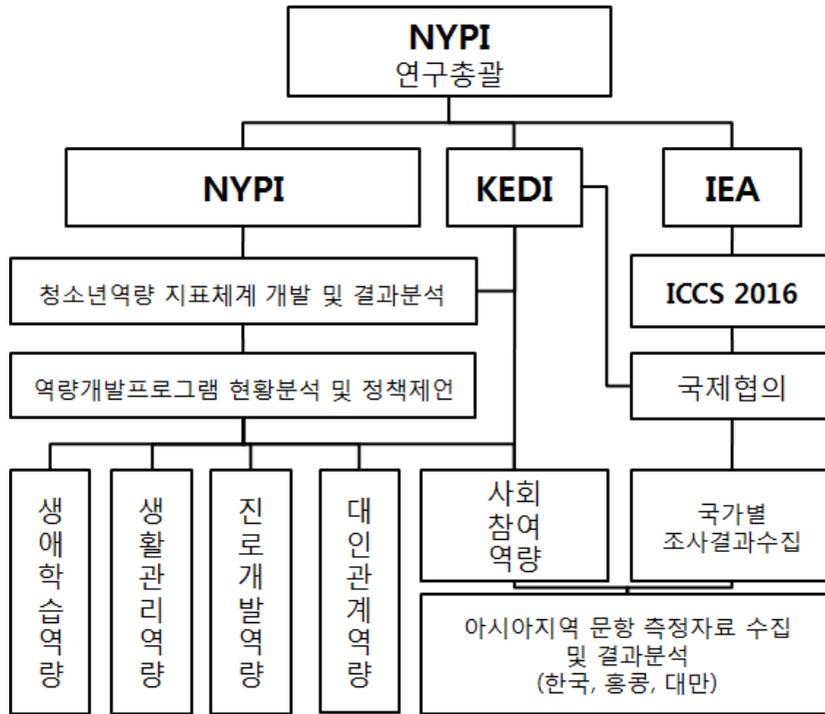
기초분석을 실시함과 함께 자체적으로 분석이 가능한 일부 데이터에 대한 심층분석을 병행할 예정이다.

### 3) 청소년의 역량개발 프로그램 현황 분석

현재 한국에서는 여성가족부, 교육부를 비롯해 여러 부처에서 청소년들의 다양한 역량을 개발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실행 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학교와 청소년시설을 포함해 청소년들이 접하는 다양한 기관과 시설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역량 프로그램의 현황을 질적 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질적 분석은 주로 각 프로그램들이 목표로하는 역량의 내용을 본 연구에서 상정한 5대 역량영역별로 분류하고,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숫자와 효과에 대한 메타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메타 분석에는 각 역량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인원수, 성비, 연령대별 분포, 비용 등에 대한 분석이 포함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역량개발 프로그램들이 주로 어떤 역량에 집중되어 있는지, 반면에 어떤 역량 영역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거나 방기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요약될 수 있다. 이는 전년도 조사결과에서 발견된 한국 청소년들의 역량 불균형과 발달단계별 역량퇴보 현상을 이해하는 단서가 될 것이다. 또한 이를 근거로 향후 개발되어야 하는 역량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3. 연구추진체계

본 연구과제는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청소년 역량의 국제비교 연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협동연구과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ICCS와 지속적으로 청소년의 민주시민 사회역량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를 수행하여온 한국교육개발원을 파트너로 하여 협동연구 과제로 진행하고 있다.



【그림 1-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협동연구추진체계 개요

협동 연구로 진행되는 연구의 특성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개발 및 국제 비교 연구의 총괄을 담당한다. 연구수행에 있어 청소년 역량지수의 5대 역량 영역(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사회참여역량) 중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관련 측정도구 개발과 타당화 및 결과 분석을 담당하고, 기존 민주시민 사회역량과 중첩되는 사회참여 역량에 대한 부분을 한국교육개발원이 담당하는 형식으로 협동연구과제를 수행해 왔다. 아울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한국교육개발원이 연구협조체계를 바탕으로 IEA와의 긴밀한 국제 협력을 통하여 ICCS 2016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올해 연구에서는 이렇게 수집된 결과의 분석을 분담할 예정이다. 이에 덧붙여 한국교육개발원은 ICCS 2016 조사에 참여한 아시아지역 3개국(도시)인 한국, 대만, 홍콩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시아지역 모듈(ARM) 데이터의 수집 및 통합비교작업을 담당할 예정이다.

## 제 II 장

#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역량 개념 및 구성체계
2.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의 현황 및 실태
3. 청소년 역량지수 국제비교를 위한  
ICCS 2016 본 조사 개요
4. 청소년 역량관련 국내 정책현황에 대한  
분석
5. 청소년 역량지수의 측정결과 해석을  
위한 청소년의 개인심리 및 외부환경  
변인 분석
6. ICCS 아시아지역모듈(ARM) 청소년  
시민의식 측정



# [ 제 II 장 이론적 배경2 ]

## 1. 청소년의 역량 개념 및 구성체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2014년부터 청소년 역량지수를 개발하였다. 청소년 역량지수의 구성체계는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그리고 사회참여역량 등과 같이 5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인 구성체계는 <표 II-1>과 같다(성은모, 최창욱, 김혜경, 오석영, 진성희, 2013;2014;2015).

**표 II-1**    **청소년 역량지수의 구성체계**

대분류	중분류	하분류
생애학습역량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감성적 사고력
	지적도구활용	언어능력
		수학 능력
		과학능력
		정보통신활용능력
	학습 적응성	변화수용력
		지적호기심
		학습주도성

2) 이 장은 장근영 선임연구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성은모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경상 선임연구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진성희 교수(한밭대학교), 최효선 박사(서울대학교), 김균희 연구원(인하대학교)이 공동으로 집필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 1]에 제시하였음.

대분류	중분류	하분류
생활관리역량	건강관리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신체관리
		위생관리
	과제관리	목표 및 계획수립
		수행 및 평가
	상황대처	중독행동
		폭력행동
		중독인식
		폭력회피
	정서조절	감정인식
		분노행동
		감정절제
조절실패		
진로개발역량	진로설계	자기탐색
		직업탐색
		직로준비
		진업가치관
	여기활용	여가태도
		여가유능감
		여기몰입
		여기만족 (경험)
	개척정신	차별화태도
		도전정신
대인관계역량	관계형성	자기 개방성
		친화성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
	리더십	의사결정
		집단활동관리
	협동	추진력
		집단촉진
사회참여역량	개인 시민성	팔로워십
		갈등문제 해결
		권리·책임의식
	공동체 시민성	민주적 절차 및 의식
		정치 관심 및 정치적 자아 효능감
		공적실천
		사회적 신뢰
	세계 시민성	적극적 의견개진
교실 개방성		
성 인지		
이민자에 대한 태도		
	국가 및 역사의식	
	국제관계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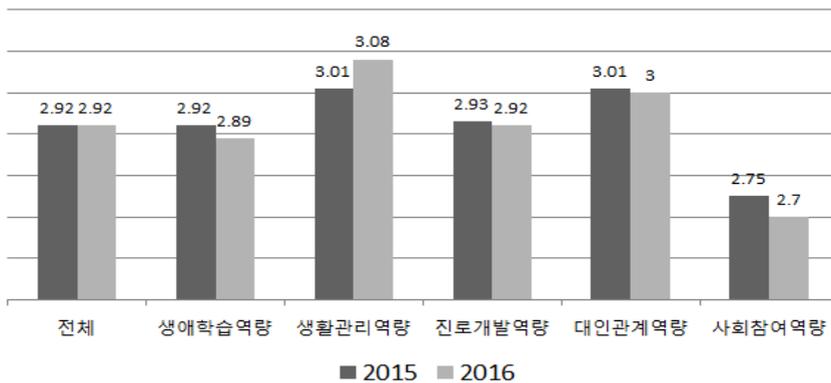
※ 출처: 성은모, 백혜정, 진성희 (2014, pp.198-199 재인용)

## 2.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의 현황 및 실태

2016 청소년 역량지수의 실태 조사(장근영, 성은모, 이경상, 진성희, 최효선, 김균희, 2016)는 전국 17개 시도의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모집단으로 선정하고 초·중·고등학생 10,319명 대학생 1,000명 등 총 11,319명이 참여하였으며,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2014년도 1차년도 연구를 통해 청소년 역량지수 5개 역량군에 대해 234문항이 개발되어, 이에 대한 자료의 정규성과 측정문항의 신뢰도 및 타당도 등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2015년도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6년도에 축약문항으로 재검증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은 검증되었다.

2016년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의 전체 평균은 2.92(SD=.31)로 2015년도 조사와 동일하였다. 청소년 역량군별로 살펴보면, 생애학습역량 평균은 2.89(SD=.37), 생활관리역량 평균은 3.08(SD=.38), 진로개발역량 평균은 2.92(SD=.40), 대인관계역량 평균은 3.00(SD=.45), 그리고 사회참여역량 평균은 2.70(SD=.35)로 나타났다.



## 3. 청소년 역량지수 국제비교를 위한 ICCS 2016 본 조사 개요

국제 시민성 및 시민의식 비교조사(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Study, 이하 ICCS 2009)는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의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이하 IEA)에서 조직한 청소년대상 국제 비교조사 중의 하나이다.

이 조사의 목적은 2010년대에 살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의 청소년들이 시민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현재 한국을 포함해 총 28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해당국가의 정규교육을 받는 135세 학생들을 조사대상 모집단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학교 2학년이 여기에 해당한다. ICCS 2016은 다음과 같은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조사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년도 보고서와 IEA에서 발간하고 본 연구에서 번역하여 부록으로 발간한 ICCS 평가틀(Assessment Framework)에서 기술하였다.

표 II-2 2016년 ICCS의 민주시민역량 개념구성

	차원		상등		상등		상등		상등	
			핵심	측면	핵심	측면	핵심	측면	핵심	측면
2016	인지 차원	지식	시민들 정부기관 시민기관	평등, 자유 공동체의식 법질서	의사결정 영향력 행사 공동체 참여	시민의 자아상 시민 유대감				
		추론과 분석								
2016	정의/ 행동 차원	태도	정부기관 및 체계에 대한 태도	민주시민사회의 원리에 대한 태도	시민참여에 대한 태도	공동체와 개인들에 대한 태도 등				
		행동 의도	정치적 주제에 대한 항의와 표현을 위한 시민참여 의도 성인으로서의 미래 시민참여 의도 학생으로서 학교에 대한 시민참여 의도 등							

#### 4. 청소년 역량관련 국내 정책현황에 대한 분석

청소년 역량에 관련된 국내 정책 분석 결과, 현행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청소년 역량 개발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은 정책목표로 청소년의 역량 함양 및 미래 핵심인재를 선정하고,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 청소년의 인성 및 민주시민교육 강화와 같은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를 정책범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역량정책 범주인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사회참여역량을 세부적으로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의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는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다 세밀한 역량정책 범주를 정책범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수행 중인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에서는 비슷한 정책들을 여러 부처에서 동시에 작게 진행하고 있다. 청소년 정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비슷한 작은 정책들을 한 부처에서 모아 규모를 크게 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또 매년 청소년 정책들 중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진행해야 할 정책을 지정해서 청소년 정책수행의 과급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 5. 청소년 역량지수의 측정결과 해석을 위한 청소년의 개인심리 및 외부환경 변인 분석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가 2014년부터 2017년 지금까지 4차년도에 걸쳐 수행되면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에 대해 가장 큰 논의 사항은 청소년들의 역량 점수가 학교급, 즉 청소년의 성장시기에 따라 낮아지는 현상과 더불어 성별차이에 대한 격차가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해석이었다.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이 청소년이 성장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외부환경 요인에 대한 개인심리적 요인의 발달과 변화에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며,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이 청소년의 특정시기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역량지수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그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2017년 4차 년도 연구의 핵심문제라 할 수 있다.

이에 청소년이 성장하면서 역량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수 있는 청소년의 개인심리적 핵심요인과 외부환경의 핵심요인에 대해 선행문헌을 우선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개인심리적 요인은 자아개념, 자율성, 자기효능감, 그리고 가능한 자아 등의 요인이 확인되었고, 외부환경 요인으로는 학업스트레스와 부모의 양육태도 등의 요인이 확인되었다.

## 6. ICCS 아시아지역모듈(ARM) 청소년 시민의식 측정

본 연구는 IEA가 주관한 2009년도와 2016년도 ICCS에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 청소년의 시민 의식 수준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2009년도 ICCS 본조사에서는 지역 간 존재하는 사회적,

문화적 차별성을 고려하여 조사 지역을 크게 유럽 지역, 라틴 지역, 아시아 지역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Schulz, Ainley, Fraillon, Kerr, & Losito, 2010).

본 조사를 위하여 사전에 아시아 지역의 사회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ARM을 개발하였다. 개발과정에서 아시아 참여국의 대표 연구진들이 자국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특성들을 분석하고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공통 요소를 식별하여 이를 반영하였으며, 이후 ARM은 수정 및 보완 작업을 거쳐 ICCS 2009 국가연구정관회의에서 확정되었다(조영하, 김태준, 2010). <표 II-1>에 제시된 바와 같이, ARM은 측정 문항을 2개의 차원으로 분류하여 개념적으로 구분하였다. 우선, 개념적 범주는 시민 사회와 체계(Civic Society and System), 시민 원리(Civic Principles), 시민 참여(Civic Participation), 시민 정체성(Civic Identities)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념적 준거는 가치 신념과 태도로 구성되어 있다(Fraillon, Schulz, & Ainley, 2012).

표 II-3 2CCS ARM 측정 틀<sup>3)</sup>

	시민사회와 체계	시민원리	시민참여	시민정체성
가치 · 신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에 대한 인식</li> <li>• 권위에 대한 복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출과 공공행정</li> <li>• 전체를 위한 개인 희생</li> <li>• 타인 배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시아정체성</li> <li>• 바람직한 시민상</li> <li>• 사회화합 대 체면</li> </ul>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보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른 공경</li> <li>• 빈부의 차</li> <li>• 비민주적 행위의 인정</li> <li>• 자국 법제에 대한 신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정부패</li> <li>• 정치인의 필요 속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시아 국가들간 관계</li> <li>• 자국의 전통문화</li> </ul>

본 연구의 ICCS ARM 분석에서는 청소년들의 시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다음을 제안하고 있다.

### 1) 개인수준의 영향요인

청소년의 사회참여적 시민의식은 개인적 수준에서의 학생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여러 선행연구는 성별에 따른 사회정치적 참여 인식상에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고하고 있다(강영혜 외, 2011; 구정화, 2010; 김태준 외, 2015; 모경환, 김명정, 송성민, 2010). 구정화(2010)는

3) 2009, 2016년도 모두 동일한 측정 틀을 활용함

초등학생들의 사회적 이슈 인식에 대한 연구를 통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도 및 중요성 인식 수준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김태준, 오민아, 이영훈(2015)은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배경요인과 사회적 참여역량간의 관계성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주적 절차의식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으며, 정치사회적 관심도는 학교급 수준에 따라 남녀간의 차이가 달라졌다. 초등학교와 대학교 수준에서는 남학생이,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여학생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또한, 투표참여 의지에 있어서는 중등학교 수준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음을 확인하였다. 모경환 외(2010)는 전국 5개 지역(서울, 대전, 광주, 부산, 강원)의 중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민의식 조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전반적인 시민의식 수준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성별과 같은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시민의식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 2) 가정환경 수준의 영향요인

청소년의 시민의식 형성에 가정환경적 요인은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사회경제적 가정환경 특성에 따른 시민의식 수준 차이 연구에서 모경환 외(2010)는 가정환경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시민의식의 하위요인 중 참여의식, 내적 정치효능감, 준법의식 수준이 높은 것을 발견하였다. 박윤경, 이승연(2015) 또한, 학생집단 내부에 존재하는 가정환경적 특성 차이가 시민의식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경험의 차이로 전이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실제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도 및 관련 경험 수준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손경애, 이혁규, 옥일남, 박윤경(2010)은 전국 5개 지역(서울, 경기, 충청, 경상, 전라)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주시민의식을 조사하여 경제적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민주주의 지식, 민주주의 가치 및 태도, 민주주의 참여 및 실천 수준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청소년의 사회참여역량에 대한 연구(김태준, 오민아, 이영훈, 2015)에서는 부모의 학력수준이 청소년의 사회참여역량 수준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민주시민의 권리 및 책임의식, 민주적 절차의식, 정치사회적 관심, 투표 참여의지, 시민활동의 중요성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학교 밖/내 사회적 영향요인

임정재, 강정한, 김상돈(2011)은 학교 밖 활동으로서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를 통한 상호작용이 사회자본의 여러 차원 중 신뢰와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였는데,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참여활동은 신뢰와 사회참여라는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집단적 온라인 토론과 학교 밖 활동이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신뢰를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박윤경, 이승연(2015)은 초중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교실 내 토론활동에 대한 인식과 실태조사에서 정치사회적 이슈와 이에 대한 토론활동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에 비해 실제 교실 내에서 이러한 이슈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기회나 경험을 갖지 못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를 접하고 이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학교 내 활동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김태준, 장근영(2010)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자본 조사결과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시민성 조사결과를 재분석한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정치사회적 참여의식 수준이 갈수록 낮아지고 이와 관련한 교육의 효과성이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사회참여적 시민역량의 지속적인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적 시스템의 구축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시민역량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각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내용과 활동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제 Ⅲ 장

---

# 연구방법

1.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ICCS  
2016 본 조사 개요
2. 문헌 분석
3. 전문가 평가 및 의견조사
4. 정책협의회
5.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조사
6. 청소년 역량 관련 교육프로그램 분석  
및 정책분석
7. 2017년도 ICCS 2016 본 조사
8. ICCS 2016 아시아지역모듈(ARM)  
조사



## 제 III 장 연구방법<sup>4)</sup>

### 1.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ICCS 2016 본 조사 개요

본 연구는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CCS 2016’의 5개년(2014~2018) 연구과제이며, 4차년도 연구과제에 해당된다. 2017년도 4차년도의 과제는 2014~2016년, 1~3차년도 연구과제의 후속연구과제로서 3개년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지수의 현황과 실태를 측정하여 비교분석하고,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를 해석하기 위하여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의 심층분석을 통한 재검증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2017년도에는 2016년도 3차년도에 수행한 ICCS 2016 국제비교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외적으로 본조사가 진행하였다.

#### 1) 2017 청소년역량지수 측정

국내 조사인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조사’는 2016년도에 개발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단축문항과 측정점수의 심층분석을 위한 개인심리적 변인과 외부환경 변인 문항을 추가하여 최종문항을 산출하였다. 최종문항을 산출하는 과정에 있어 청소년의 응답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참여 역량지수문항은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이유는 사회참여역량지수는 2017년도 국제비교를 위한 본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었으며, 사회참여역량지수 측정문항의 제외로 인하여 청소년들이 충분한 시간동안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후 설문조사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우리나라 청소년의 학교급별 모집단을 대상으로 표본샘플을 통계적으로 추출하여 표본학교를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의 입력결과에 대한 검증과 클리닝 작업은 연구진이 직접 수행하였다.

4) 이 장은 장근영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성은모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경상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진성희 교수(한밭대학교), 최효선 박사(서울대학교), 김균희 연구원(인하대학교)이 공동으로 집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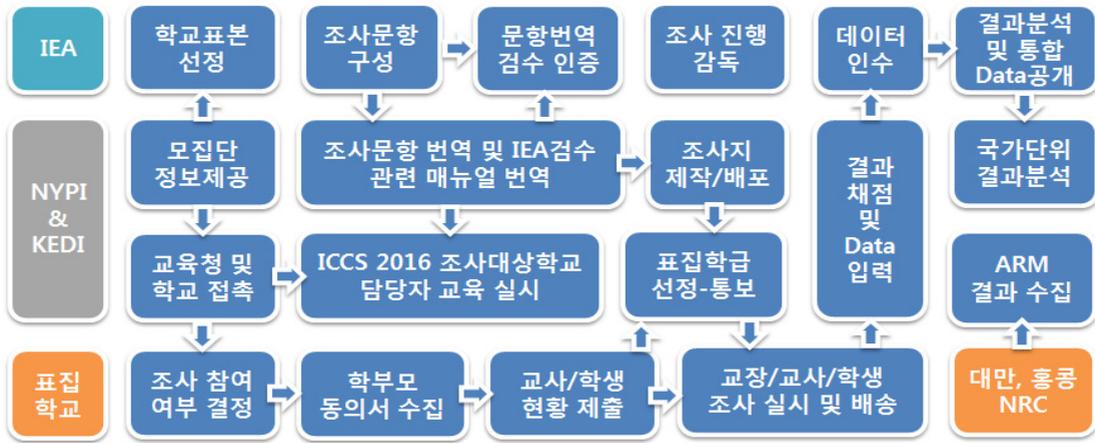
## 2) ICCS 2016 본조사

ICCS 2016 본조사는 IEA의 조사 규정을 엄정하게 준수하여 실시하였다. ICCS 조사는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인지능력검사(45분)과 시민의식에 대한 설문조사(45분)와, 조사대상학교의 2학년 담당교사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사대상 설문, 그리고 해당학교의 책임자(교장 혹은 교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교장 설문의 3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별로 조사대상 학급의 선정과 학생배정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조사 진행 담당 교사가 필요하다. 또한 조사대상학교는 IEA에서 선정한 표본(대체표본 포함)을 대상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조사대상 학교에게는 조사를 거부할 권한이 있음을 공지하여야 하고, 1차 조사대상 학교가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IEA에서 선정한 2차 및 3차 대체 학교를 대상으로 추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 조사의 수행을 위해서 시·도교육청의 협조를 얻어 서울·경기·강원, 호남·충청, 영남·부산 지역의 3개 권역별로 조사대상학교의 조사담당 교사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여 조사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절차를 숙지시켰다. 또한 조사지 번역의 동등성 검증을 위해서 조사문항 번역내용·조사문항의 배치·최종 조사지 편집내용에 대한 IEA 본부의 검증과 최종 승인절차를 거쳤다. 조사결과 중 주관식 응답의 채점과 코딩은 IEA에서 제시한 매뉴얼을 따랐으며, 이를 수행하는 채점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따로 실시하였다. 조사지 인쇄와 배포, 결과 수집과 자료입력은 전문조사기관에 위탁하였다. 2016년에 실시한 ICCS 2016 본조사 결과는 위의 절차를 거쳐 IEA 본부에 전달되었으며, 2017년에 IEA 측에서 국가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예비 분석과 분석용 데이터 세트를 제공하였다.

국내조사인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조사’와 국제조사인 ‘ICCS 2016 본 조사’의 진행 절차는 [그림 III-1]과 [그림 III-2]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그림 III-1】2017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조사 절차



【그림 Ⅲ-2】ICCS 2016 본 조사 절차

## 2. 문헌 분석

### 1) 생애역량 및 청소년역량 관련 선행문헌 분석

청소년 역량과 관련된 선행문헌 분석은 청소년 역량의 구성체계,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 및 논의, 청소년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개인심리 및 외부환경 요인, 청소년 역량관련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현황 및 특성 분석, 그리고 청소년 역량관련 국가정책에 대해서 체계적 리뷰(systematic review)를 통해 이루어졌다.

첫째, 청소년 역량의 구성체계를 다시 한 번 분석하였다. 2016년도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을 단축형으로 개발하면서 발생하게 될 수 있는 문제들을 재확인하였으며, 이를 설문조사문항 개발 및 수집된 자료의 심층분석을 위한 연구방법에 대한 방향성을 수립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둘째,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에 대한 실태를 재분석하였다. 2015년도와 2016년도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 어떠한 차이점이 주요하게 발생하였는지를 면밀히 분석하였다. 또한 성별에 따른 차이에 대해서 어떠한 역량지수에 있어 주요하게 발생하였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에 대한 심층분석을 위하여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을 분석하였다. 청소년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역량 차이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의 심리적 변인과 외부환경 변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 2) 지자체별 청소년역량 현황관련 자료분석

지방정부 청소년 역량관련 정책의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여 청소년 역량관련 정책적 시사점을 얻기 위해 문헌자료를 수집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지방정부의 청소년 역량관련 정책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활용된 문헌자료는 여성가족부의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2013~2017): 2016년도 시행계획(지방자치단체) 자료(여성가족부, 2016a, 2016b)이다.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2013~2017): 2016년도 시행계획(지방자치단체) 자료(여성가족부, 2016a, 2016b)는 각 지방정부에서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2013~2017)(관계부처합동, 2012)의 일환으로 2016년도에 시행할 청소년정책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자료이다. 이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청소년 역량관련 정책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할 때에는 지방정부의 청소년 정책들 중 청소년 역량과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 정책들을 이 연구의 역량분류체계인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사회참여역량 범주에 재배치하는 방식을 통해 지방정부의 청소년 역량관련 정책 현황 및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은 청소년 역량관련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데 활용되었다.

## 3) 청소년역량 프로그램 현황분석

다음으로 청소년활동프로그램들이 수행되고 있는 청소년 활동시설(야영장과 이용시설은 제외)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특화시설, 유스호스텔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의 역량관련 경향적 특성을 분석하여 청소년 역량관련 정책적 시사점을 얻기 위해 문헌자료를 수집하였다. 애초에는 해당 시설에서 실시한 청소년 활동프로그램들의 역량관련 경향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각 해당 시설에서 2016년 1년 동안 진행한 활동프로그램들의 내역이 담겨있는 사업보고서를 수집할 계획이었으나,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해당 시설에서 사업보고서를 정식으로 발간하지 않아 사업보고서 수집을 중도에 포기하였다. 대신 2017년 현재 각 해당 시설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활동프로그램들의 내용을 다운로드하여 분석대상 문헌자료로 활용하였다. 이들 중 숫자가 많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은 각 전체 시설의 10%를 표집하여 분석대상 문헌자료로 구축하였고, 숫자가 많지 않은 특화시설, 유스호스텔은 각 전체 시설의 전수를 분석대상 문헌자료로 구축하였다. 분석대상으로 구축된 문헌자료의 프로그램 개수는 총 1,041개였다. 이들 문헌자료들을 바탕으로 각 청소년 활동시설 프로그램들의 청소년 역량관련 경향적 특성을 분석할 때에는 역량관련 활동프로그램 전문가들의 평가를

통해 각 청소년 활동시설 프로그램들을 이 연구의 역량분류체계 범주인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 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사회참여역량에 재배치하여 각 청소년 활동시설 프로그램들의 청소년 역량관련 경향적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도 역시 청소년 역량관련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데 활용되었다.

#### 4) ICCS 2016 조사결과 보고서 분석

ICCS 조사의 의의와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청소년의 국제 시민성 및 시민의식에 대한 조사절차와 국제비교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기초자료들의 번역과 예비결과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본 보고서에 반영했다. 구체적으로는 ICCS 2016의 소개, 조사목적, 조사내용 및 영역 자료 및 조사절차 매뉴얼과 연구의 Framework 에 대한 자료를 번역하였다. 단, 본 조사에 사용된 문항과 채점기준, 조사매뉴얼은 ICCS 조사결과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서 공개하지 않는다는 IEA의 방침을 존중하여 보고서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ICCS 조사의 기반인 개념구조와 역사에 관한 보고서는 전문을 번역하여 본 보고서의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표 III-1 2017 청소년 역량관련 선행문헌분석 내용**

분석내용
1. 청소년 역량의 구성체계의 재분석
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에 대한 실태 재분석
3. 청소년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개인심리 및 외부환경 요인에 대한 분석
4. 청소년 역량과 관련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현황 분석
5. 청소년 역량과 관련된 행문헌
6. 청소년 역량지수 국제비교를 위한 ICCS 2016의 개요

### 3. 전문가 평가 및 의견조사

#### 1) 청소년활동프로그램 내용 평가

앞에서 살펴 본 전국의 청소년 활동시설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특화시설, 유스호스텔에서 전수 혹은 10% 표집을 통해 수집된 총 1,041개의 활동프로그램들을 이 연구의 역량분류체계 범주인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사회참여역량에 재배치하여 각 청소년 활동시설 프로그램들의 청소년 역량관련 경향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전문가 평가방법을 활용하였다. 전문가들은 대학교, 연구기관, 청소년 활동시설의 관련 전문가들 중 총 30명의 전문가를 선발하여 평가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이들 전문가들에게 평가대상 활동프로그램들을 제시한 후, 청소년 활동프로그램들의 내용이 이 연구에서 제시한 청소년 역량지수의 구성체계의 하위 범주의 여러 역량들 중 어떤 역량의 함양에 주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표기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전문가 평가결과를 통해 도출된 청소년 활동프로그램들의 역량관련 경향적 특성은 정책적 시사점을 통해 청소년 역량관련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이렇게 수행된 청소년 활동시설의 프로그램들에 대한 전문가평가를 통해 살펴 본 청소년 활동프로그램들의 역량관련 경향적 특성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의 정책적 제언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청소년시설의 전문가 FGI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FGI에 참가한 청소년 시설 전문가들의 성별, 나이, 거주지역, 직장 등 기본적인 특성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III-2 전문가 FGI 참여자의 기본적인 특성

연번	이름	성별	나이	거주지역	직장	비고
1	참여자A	남	35	서울	○○청소년수련관	
2	참여자B	남	29	서울	청소년○○○○센터	
3	참여자C	남	36	경기	○○청소년문화의집	
4	참여자D	남	45	서울	○○청소년수련관	

전문가 FGI는, 이 연구의 역량분류 범주인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사회참여역량의 구성체제에 대해 설명하고, 청소년 활동시설의 프로그램들에 대한 전문가평가를 통한 청소년 활동프로그램들의 역량관련 경향적 특성에 대한 분석결과를 각 시설유형별로 제시한 다음, 현장 전문가 입장에서 각 시설유형별 분석결과에 동의하는 지, 그리고 향후 청소년 역량지수의 구성체계표에 나타난 청소년들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 향후 어떤 프로그램들이 보완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현재 수행중인 청소년활동 프로그램들 중 없애야 할 것과 강화해야 할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역량중심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편성에 대해 현장전문가의 입장에서 하실 말씀이 있는 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전문가 FGI에서 제시된 의견은 이 연구의 정책적 제언에 부분적으로 활용하였다.

#### 4. 정책협의회

이 연구에서는 현재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는 역량관련 청소년 프로그램들이 이 연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역량지표들의 내용을 얼마나 내포하고 있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 현재 관련시설에서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는 역량관련 청소년 프로그램들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의 수행을 위한 계획수립과 관련하여 3월에 2차례에 걸쳐 관련공무원, 청소년정책전문가, 교사 등을 모시고 역량관련 청소년 프로그램 전문가 평가에 대한 정책실무협의회를 실시하였다.

이 정책협의회에서는 학교 안팎에서 역량관련 청소년 활동프로그램들이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지? 이들 청소년 활동프로그램들은 어떤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으며 시간은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 예산, 시간 등 현실적 제약요건을 감안하여 고려중인 전문가 평가방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여 역량관련 청소년 프로그램 평가계획 수립에 반영하였다.

또한 10월에 청소년 정책 및 역량관련 정책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립된 정책적 제언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는 정책실무협의회를 실시하였다. 이 정책실무협의회에서 검토된 결과는 최종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데 유용하게 반영되었다.

## 5.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조사

### 1) 연구참여대상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조사는 청소년들의 역량 수준을 진단하고, 다양한 특성변인에 따라 역량 수준의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청소년의 성장시기와 성별에 따른 역량지수 측정 점수에 대한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청소년 역량지수 4개 영역(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 역량)에 따른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과 성장시기별 역량지수 측정점수 차이에 대한 심층분석을 위해 개인심리 변인(자아개념, 자율성, 자기효능감, 가능한 자아)과 외부환경 변인(학업스트레스, 부모 양육태도)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졌다.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조사는 설문조사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이루어졌다. 본 조사가 연속과제라는 점을 고려하여 조사 결과의 안정성을 위해 이전 조사 시 표본 배분과 유사하게 모집단을 대상으로 표본수를 추출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청소년을 모집단으로 하여 초·중·고등학생 각 3,000명씩 총 9,000명, 그리고 대학생 1,000명 이상의 표본수를 확보함으로써 통계결과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 선정은 2017년 4월 기준 우리나라 17개 시·도 초등학교 4, 5, 6학년,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 그리고 대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모집단으로 하여 표본샘플을 추출하였다. 표본샘플 추출방식에 의거하여 초등학교생 2,600명, 중학생 2,905명, 고등학생 3,494명으로 총 8,999명이었으며, 대학생은 1,000명이 추출되어 총 9,999명 이상이 본 연구조사에 참여하게 될 표본샘플로 추출되었다.

이와 같은 표본샘플을 바탕으로 청소년 역량지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초등학교생 2,836명, 중학생 2,710명, 고등학생 3,500명으로 총 9,046명이 참여하였으며, 대학생은 1,041명이 참여하여 최종적으로 총 10,087명이 이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다.

5)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조사’에서는 사회참여역량지수 측정문항을 제외하였다. 사회참여역량지수는 2017년도 국제비교를 위한 본 조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었으며, 사회참여역량지수 측정문항의 제외로 인하여 청소년들이 충분한 시간동안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어 보다 응답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1) 초·중·고등학생 표본설계<sup>6)</sup>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조사에 참여를 위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의 모집단 수는 초등학생 1,294,448명(28.9%), 중학생 1,446,158명(32.3%), 고등학생 1,739,458명(38.8%) 등 총 4,480,064명이었다. 모집단 수를 바탕으로 학급별로 단순비례배분으로 추출한 결과, 초등학생 2,600명(28.9%), 중학생 2,905명(32.3%), 고등학생 3,494명(38.8%)으로 <표 III - 3>과 같이 추출되었다. 이때 모비율의 추정에 대하여 예상되는 표본오차는 단순임의추출을 가정하는 경우 95% 신뢰수준 하에서 약  $\pm 1.0\%P$ 이다. 층화집락추출의 상황 하에서의 실제 표본오차는 이보다 조금 더 크게 되겠지만 일반적인 기준에서 볼 때 충분히 허용할만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표 III-3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을 위한 초·중·고등학생 모집단크기 및 표본집단 크기**

학교급		학년	모집단크기		표본집단크기	
초등학교		4	429,879	1,294,448 (28.9%)	2,600 (28.9%)	
		5	414,916			
		6	449,653			
중학교		1	467,388	1,446,158 (32.3%)	2,905 (32.3%)	
		2	457,645			
		3	521,125			
고등학교	유형 1 (일반고)	1	418,200	1,238,897 (27.7%)	2,489 (27.7%)	3,494 (38.8%)
		2	405,945			
		3	414,752			
	유형 2 (자율고)	1	46,570	136,969 (3.1%)	275 (3.1%)	
		2	45,614			
		3	44,785			
	유형 3 (특성화고)	1	112,918	334,651 (7.5%)	672 (7.5%)	
		2	109,702			
		3	112,031			
	유형 4 (특수 목적고)	1	9,847	28,941 (0.6%)	58 (0.6%)	
		2	9,910			
		3	9,184			
합계			4,480,064 (100.0%)		9,000 (100.0%)	

\* 출처: 이 표는 2017년도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합조사의 설계를 담당한 강현철 교수(호서대학교)가 작성하였음.

6) 초·중·고등학생 표본집단의 크기를 추출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써 지역, 학교급, 그리고 학년별로 학교수와 학생수의 분포 및 추출방법은 [부록 2]에 제시하였다.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조사를 위하여 모집단의 목표표본 표집설계에 따라 16개 시·도 표본학생수와 학급수를 추출하였다. 조사내용의 특성과 모집단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모집단을 기초로 하여 지역구분(16개 광역 시도, 세종은 충남에 포함), 학교구분(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학년구분(초등학교 4, 5, 6학년, 중고등학교 1, 2, 3 학년)을 층화변수로 고려하였다. 그 결과, 초등학교 109개 학교, 중학교 104개 학교, 고등학교 120개 학교 등 총 333개 학교가 표집 할당되었으며, 지역별로는 <표 III-4>에 자세하게 제시되었다. 목표표본 표집에 따른 학교할당은 층화집락추출법(지역\*교급\*학교유형)을 적용하였다. 각 층화 기준 광역 내 교급별 학급당 평균학생 수를 기준으로 적정 추출학교 수를 결정하였고, 규모기준 정렬 학교리스트에서 학교 계통 추출하였으며, 고교의 경우 학교유형구분(일반고, 자율고, 특목고, 특성화고)을 추가 고려하였다. 학급선정에 있어서는 표본 선정 학교에서 1개 학년 1개 학급 추출하며, 학급은 해당 학년에서 무작위 추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16개 시·도별 표본 학교수를 추출한 결과는 <표 III-4>에 제시하였으며, 표본 학생수의 추출결과는 <표 III-5>에 각각 제시하였다.

표 III-4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학교수 표본크기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서울	17.9	17.1	12.8	1.5	7.5	2.6
경기	29.3	27.1	23.2	2.2	3.3	
인천	6.2	5.9	4.3			
강원	3.2	3.1	2.7	1.5	3.7	
충북	3.4	3.3	2.2			
충남	5.3	4.8	3.5			
대전	3.5	3.4	2.4			
경북	5.1	5.0	3.9	2.5	8.8	
경남	7.4	7.1	5.9			
부산	6.2	6.2	4.2			
대구	5.2	5.3	3.5			
울산	2.6	2.5	2.0	1.5	2.6	
전북	4.0	4.1	3.3			
전남	3.8	3.8	2.6			
광주	3.7	3.7	3.0			
제주	1.6	1.5	1.0			
합계	108.3	103.8	80.3	9.2	25.8	2.6

\* 출처: 이 표는 2017년도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합조사의 설계를 담당한 강현철 교수(호서대학교)가 작성하였으며, 통합조사에 참여한 과제에서 공통으로 수록하였음.

학교수 표본크기를 바탕으로 초·중·고등학생의 학생수의 표본크기를 추출하였다. 그 결과, 표집학생의 표본수는 초등학생 2,600명, 중학생 2,905명, 고등학생 3,494명(일반고 2,498명, 자율고 275명, 특성화고 672명, 특수목적고 59명) 등 총 8,99명이 표집 되었으며, 지역별로는 <표 III-5>에 자세하게 제시되었다.

**표 III-5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학생수 표본크기**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서울	430	479	396	45	195	59	
경기	704	760	719	67	85		
인천	149	165	132				
강원	76	88	84	45	96		
충북	82	92	67				
충남	126	135	107				
대전	84	95	74				
경북	123	140	120	74	229		
경남	178	198	182				
부산	148	173	130				
대구	125	148	110				
울산	63	70	63				
전북	97	114	103	44	67		
전남	91	106	81				
광주	88	103	92				
제주	38	41	31				
합계	2,600	2,905	2,489	275	672		59

\* 출처: 이 표는 2017년도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합조사의 설계를 담당한 강현철 교수(호서대학교)가 작성하였음.

(2) 대학생 표본설계<sup>7)</sup>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조사를 위한 대학생의 모집단은 2017년 1학기에 등록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17개 광역 시도별, 계열별(대계열), 학제별(대학교/전문대학) 학생수 및 학교수를 추출하였다. 대학생의 모집단 크기는 2,831,169명이었으며, 대학생이 2,133,955명, 전문대학생이 697,214명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17개 시도별 대학생 모집단 크기를 시도별, 학제별, 그리고 계열별로 추출한 결과는 <표 III-6>에 제시하였다.

표 III-6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조사를 위한 대학생 모집단크기(시도별, 계열별)

시도	재적학생수								학제별 학생수		학제별학교수	
	전체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약	예체능	4년제 대학	전문 대학	4년제 대학	전문 대학
전체	2,831,169	276,733	755,591	133,899	786,385	302,360	246,116	330,085	2,133,955	697,214	201	138
서울	562,690	88,379	164,664	21,834	143,749	62,373	17,792	63,899	504,301	58,389	39	9
부산	258,579	27,899	72,204	9,595	78,542	24,711	18,518	27,110	205,026	53,553	13	9
대구	123,536	8,994	28,130	6,400	36,839	14,343	16,112	12,718	67,530	56,006	4	7
인천	70,023	4,353	17,131	4,765	29,377	6,699	1,996	5,702	46,615	23,408	4	3
광주	113,624	10,973	26,276	8,111	28,489	12,466	16,067	11,242	87,712	25,912	11	6
대전	147,795	14,490	37,543	5,859	42,559	17,921	15,542	13,881	118,180	29,615	11	4
울산	34,540	2,292	6,602	398	14,016	3,840	4,222	3,170	23,194	11,346	2	2
세종	24,247	2,077	7,071	255	6,340	1,502	140	6,862	19,249	4,998	1	1
경기	461,255	37,063	123,133	16,568	138,549	39,590	27,738	78,614	247,092	214,163	29	31
강원	132,608	9,862	38,510	6,420	29,461	19,259	18,163	10,933	108,199	24,409	9	9
충북	129,138	9,223	34,288	10,482	33,190	15,331	13,174	13,450	106,054	23,084	11	5
충남	202,721	20,065	57,252	9,130	51,641	19,256	17,413	27,964	176,915	25,806	15	6
전북	126,832	10,457	28,608	8,016	30,726	16,102	16,845	16,078	101,193	25,639	11	9
전남	79,167	3,916	18,364	4,979	21,381	6,948	16,199	7,380	50,569	28,598	10	9
경북	211,544	15,638	57,595	10,870	56,794	21,743	27,604	21,300	165,700	45,844	18	16
경남	122,471	8,194	28,802	8,235	40,230	15,239	15,146	6,625	88,471	34,000	11	10
제주	30,399	2,858	9,418	1,982	4,502	5,037	3,445	3,157	17,955	12,444	2	2
합계	5,662,338	553,466	1,511,182	267,798	1,572,770	604,720	492,232	660,170	4,267,910	1,394,428	402	276

\* 출처: 이 표는 2017년도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합조사의 설계를 담당한 강현철 교수(호서대학교)가 작성하였음.

7) 대학생 표본집단의 크기를 추출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써 지역별 대학생 모집단 크기에 대한 내용 및 표본설계의 자세한 내용은 [부록 3]에 제시되었다.

대학생 표본크기는 17개 시도별 대학을 8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대학 유형별(대학, 전문대학), 학년별(1-4학년), 계열별(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학, 예체능) 특성을 고려하여 하여 단순비례배분방식으로 1,000명을 목표표본으로 표집 되었다<sup>8)</sup>. 그 결과, 대학 201개교, 전문대학 138개교 등 총 339개 학교가 되었고, 할당표본학교수는 대학교 26개교, 전문대 17개교가 할당 되어 총 43개의 학교가 표집되었다. 이를 8개 권역별로 1개교를 우선 할당한 후에 표본 대학교 수를 기준으로 비례 배분한 후에 대학과 전문대학을 비례배분법으로 할당을 계산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III-7>에 제시되었다.

**표 III-7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을 위한 지역별 대학생 표본학교 수**

시도	학생 수			학교수		할당표본학교수		
	전체	대학교	전문대	대학교	전문대	전체	대학교	전문대
전체	2,831,169	2,133,955	697,214	201	138	43	26	17
서울	562,690	504,301	58,389	39	9	7	5	2
경인	531,278	293,707	237,571	33	34	8	4	4
충청	503,901	420,398	83,503	38	16	6	4	2
전라	319,623	239,474	80,149	32	24	5	3	2
경북	335,080	233,230	101,850	22	23	6	3	3
경남	415,590	316,691	98,899	26	21	6	4	2
강원	132,608	108,199	24,409	9	9	3	2	1
제주	30,399	17,955	12,444	2	2	2	1	1

\* 출처: 이 표는 2017년도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합조사의 설계를 담당한 강현철 교수(호서대학교)가 작성하였음.

대학생의 표본학교 수는 43개교를 기준으로 1,000명 목표표본을 추출한다고 할 경우, 대학생이 754명, 전문대 학생이 246명이 된다. 이를 기준으로 1차 추출단위인 학교를 추출하되, 학교급별 학생 수의 차이를 고려하여, 전문대는 1개 학교당 15명, 4년제 대학교는 30명을 조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와 같이 계산할 경우, 대학생 26개교, 전문대학은 17개교 등 총 43개교를 대상으로 추출할 경우, 총 1,035명이 조사대상으로 표집 되었다. 이를 권역별로 계열별로 비례배분

8) 대학생 집단을 병행비례배분 방식으로 표집 할 경우, 표본샘플 수가 급증하게 되고 이에 다른 비용 부담이 상당하게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권역과 학교유형, 계열을 중심으로 단순비례배분하여 1,000명을 표집목표로 정하여 표집 하였다.

한 결과, 권역별로는 서울 180명, 경인 180명, 충청 150명, 전라 120명, 경북 135명, 경남 150명, 강원 75명, 제주 45명이 표집 되었다. 계열별로는 인문계열 1,035명, 사회계열 1000명, 교육계열 275명, 공학계열 51명, 자연계열 283명, 의학계열 113명, 예체능계열 94명 등 총 1,035명이 표집 되었다. 자세한 결과는 <표 III-8>에 제시하였다.

**표 III-8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을 위한 지역별 계열별 대학생 표본크기**

권역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약	예체능	합계
전체	1,035	100	275	51	283	113	94	119
서울	180	28	53	7	46	20	6	20
경인	180	14	47	7	57	16	10	29
충청	150	14	40	8	40	15	14	19
전라	120	10	28	8	30	13	18	13
경북	135	10	34	7	38	15	17	14
경남	150	14	38	7	48	16	14	13
강원	75	6	21	4	17	11	10	6
제주	45	4	14	3	7	7	5	5

\* 출처: 이 표는 2017년도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합조사의 설계를 담당한 강현철 교수(호서대학교)가 작성하였음.

## 2) 연구도구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조사를 위한 측정도구는 2016년 3차 년도에 개발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단순문항(장근영, 성은모, 이경상, 진성희, 최효선, 김균희, 2016)을 활용하였다. 또한 생애주기별 청소년 역량지수의 변화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역량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인심리적 변인과 외부환경 변인을 추가하여 측정문항을 개발하였다.

먼저,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의 문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생애학습역량 측정도구는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사고력 6문항(비판적 사고력 3문항, 감성적 사고력 3문항), 지적도구활용 12문항(언어능력, 3문항, 수학능력 3문항, 과학능력 3문항, 정보통신활용능력 3문항), 학습적응성 6문항(변화수용력 2문항, 지적호기심 2문항, 학습주도성 3문항)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 계수는 사고력 Cronbach's  $\alpha=.642$ , 지적도구활용 Cronbach's  $\alpha=.831$ , 그리고 학습적응성 Cronbach's  $\alpha=.741$ 이었다.

생활관리역량 측정도구는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건강관리 8문항(위생관리 3문항, 신체관리 2문항,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3문항), 과제 관리 6문항(목표 및 계획 수립 3문항, 수행 및 평가 3문항), 상황대처 12문항(중독인식 3문항, 중독행동 3문항, 폭력행동 3문항, 폭력회피 3문항), 정서 조절 9문항(분노행동 2문항, 감정절제 2문항, 조절실패 2문항, 감정인식 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 계수는 건강관리 Cronbach's  $\alpha=.760$ , 과제관리 Cronbach's  $\alpha=.873$ , 상황대처 Cronbach's  $\alpha=.849$ , 그리고 정서조절 Cronbach's  $\alpha=.763$ 이었다.

진로개발역량 측정도구는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진로설계 9문항(자기탐색 2문항, 직업탐색 3문항, 직업가치관 2문항, 진로준비 2문항), 여가활용 11문항(여가태도 3문항, 여가유능감 3문항, 여가만족 2문항, 여가몰입 2문항, 여가경험 1문항), 개척정신 5문항(차별화태도 2문항, 도전정신 2문항)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 계수 진로설계 Cronbach's  $\alpha=.846$ , 여가활용 Cronbach's  $\alpha=.886$ , 그리고 개척정신 Cronbach's  $\alpha=.757$ 이었다.

대인관계역량 측정도구는 총 29문항이었다. 관계형성 12문항(자기개방성 3문항, 친화성 3문항, 의사소통 3문항, 공감 및 배려 3문항), 리더십 9문항(의사결정 3문항, 집단활동 관리 3문항, 추진력 3문항), 협동 8문항(집단추진 3문항, 팔로워십 2문항, 갈등문제해결 3문항)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 계수는 관계형성 Cronbach's  $\alpha=.887$ , 리더십 Cronbach's  $\alpha=.903$ , 협동 Cronbach's  $\alpha=.887$ 이었다.

다음으로 청소년 역량지수의 성장 및 발달에 따른 성장시기별 차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역량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변인에 대한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청소년의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선행문헌 분석결과, 청소년의 개인심리적 변인으로써 자아개념, 자율성, 자기효능감, 그리고 가능한 자아 변인이었으며, 외부환경 변인으로는 학업스트레스와 부모 양육태도 변인이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도출되었다.

자아개념은 자기 자신(다른 사람의 지각 인식, 잠재력, 본성 등)에 대한 지각을 의미한다. 자아개념에서는 다른 변인들(자기결정성, 자기효능감)과의 중복성을 탈피하여 사회적 자아개념을 중심으로 문항을 도출하였다. 사회적 자아개념은 중요타인인 부모, 교사, 또래 집단의 평가를 통해 형성되는 지각으로 사회적 상황에 적응하는 정도에 대한 지각을 의미한다(김동호, 라종민, 2015; 송인섭, 1987). 사회적 자아개념은 김동호와 라종민(2015)이 개발한 문항 중 “나는 친구들과 사이에서 혼나 남겨진 기분이 든다.”와 “나는 부모님, 형제/자매들과 함께 있으면 즐겁다.” 등의 2문항을 선정하여 수정·보완하여 활용하였다. 자아개념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737$ 이었다.

자율성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율성(행동의 주체의식), 유능성(능력에 대한 지각), 관계성(대인 관계정도 인식)에 대한 지각을 의미한다. 자율성성 변인에서도 다른 변인들과의 중복성을 피하기 위하여 자율성을 중심으로 문항을 도출하였다. 자율성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Niemiec & Ryan, 2009), 자율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욕구와 역량을 잘 파악하여 자신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며, 자기 유지를 위해 우선순위를 적절히 정한다고 한다(Deci & Ryan, 2000). 자율성 문항은 김소현과 김아영(2012)이 개발한 문항 중 “어떤 일을 할 때 내 생각대로 일하기보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을 따를 때가 많다.”와 “나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등의 2문항 선정하여 수정·보완하여 활용하였다. 자율성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786$ 이었다.

자기효능감은 청소년이 과제수행에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지, 성공에 대해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를 의미하며(Bandura, 1977), 개인의 과업 수행을 시작하고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안혜진, 정미경, 2015). 자기효능감의 문항은 안혜진과 정미경 (2015)이 개발한 문항 중 “나의 친구들이 나보다 모든 일에서 뛰어난 것 같고, 나는 친구들 보다 모든 면에서 못하는 것 같다.”와 “나는 어려운 일이 생겨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등의 2문항을 선정하여 수정·보완하여 활용하였다. 자기효능감의 신뢰도도 계수 Cronbach’s  $\alpha=.802$  이었다.

가능한 자아(Possible selves)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인식정도로써 자신이 될 수 있거나 되고 싶거나, 되기 두려워하는 미래 상태를 표상화한 것이다(Markus & Nurius, 1986). 청소년이 자신의 역량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데에 있어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가능한 자아는 Markus (1987)가 개발한 “나는 미래에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것 같다.”, “나는 미래 생활이 우울 할 것 같다.”, “나는 미래에 사랑받으며 생활 할 것 같다.”, 그리고 “나는 미래의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 같다.” 등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가능한 자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745$ 이었다.

학업스트레스 학업에 대한 긴장상태와 심리적 부담감의 정도로써 학업스트레스란 학교 공부와 성적으로 인하여 공부가 너무 힘겹고 하기 싫거나 귀찮다고 생각되어 겪게 되는 정신적 부담과 긴장, 근심, 공포, 우울, 초조함 등과 같은 편하지 못한 심리상태를 의미한다(오미향, 천성문, 1994).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심리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보고되고 있다. 학업스트레스 측정문항은 오미향과 천성문 (1993)이 개발한 문항 중 “나의 부모님은 내 성적을 다른 아이들과 비교한다.”, “나는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나는 시험지만 받으면 떨어져 알았던 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 나는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른 채 공부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내 학교 성적이 창피하다." 등의 5문항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하였다. 학업스트레스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853$ 이었다.

부모양육태도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성향의 방향성을 의미하며, 아동 및 청소년의 안녕(well-being)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간주되고 있다(Darling, 1999). 부모의 양육태도는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를 중심으로 허묘연(1999)가 개발한 문항 중에서 "부모님께서는 나의 의견을 이해해 주신다.", "손님이 집에 오거나 밖에서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부모님(보호자)은 평소와 다르게 나를 대하신다.", "내가 나쁜 행동을 했을 때, 부모님께서서는 혼내기 전에 먼저 그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를 설명해주신다.",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일을 못 하게 하실 때가 많다." 등의 4문항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828$ 이었다.

마지막으로 설문응답자 인구통계학적 정보에 있어서는 성별, 생년(연령), 가족구성, 학업성취도 수준, 경제적 수준, 부모님(보호자) 학력 등 총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와 같이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은 총 13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설문문항은 동일하지만 청소년의 생애발달 수준에 부합하게 용어를 수정하여 초등학교용, 중·고등학교용, 그리고 대학생용 대상 설문지가 구분되어 개발되었다. 최종 개발된 설문문항의 구성체계를 제시하면 <표 III-9>와 같으며, 대상별 각 세부 설문문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 3]에 제시되었다.

**표 III-9**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설문문항의 구성체계

역량군	하위역량 및 수행변인	세부역량 및 수행변인	문항수
생애학습역량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3
		감성적 사고력	3
	지적도구활용	언어능력	3
		수학능력	3
		과학능력	3
		정보통신활용능력	3
		학습적응성	2
	학습적응성	변화수용력	2
		지적호기심	2
		학습주도성	2

역량군	하위역량 및 수행변인	세부역량 및 수행변인	문항수
생활관리역량	건강관리	위생관리	3
		신체관리	2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3
	과제관리	목표 및 계획 수립	3
		수행 및 평가	3
	상황대처	중독인식	3
		중독행동	3
		폭력행동	3
		폭력회피	3
	정서조절	분노행동	2
		감정절제	2
		조절실패	2
		감정인식	3
진로개발역량	진로설계	자기탐색	2
		직업탐색	2
		진로준비	2
		직업가치관	3
	개척정신	차별화태도	3
		도전정신	3
	여가활용	여가태도	3
		여가유능감	3
		여가만족	2
		여가몰입	2
대인관계역량	관계형성	자기 개방성	3
		친화성	3
		의사소통	3
		공감 및 배려	3
	리더십	의사결정	3
		집단활동관리	3
		추진력	3
	협동	집단촉진	3
		팔로워십	2
		갈등문제 해결	3
조절변인	자아개념		2
	자율성		2
	자기효능감		2
	가능한자기		4
	학업스트레스		5
	부모양육태도		4
설문 응답자 인구통계학적 문항			6
전체 문항수			138

### 3)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조사일정

2017년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조사는 2017년 5월~7월까지 전문 설문조사업체에 의뢰하여 본조사가 진행되었다. 조사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III-10>에 제시되었다.

**표 III-10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조사절차**

단 계		내 용	기 간
조사기획	표본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부 모집단 자료를 제공받은 후 표본설계 실시</li> <li>표본추출 리스트를 연구원에 제출</li> </ul>	4월
	설문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사표 초안 검토</li> <li>사전조사 실시</li> <li>자문진과 연구진 검토를 거쳐 확정</li> </ul>	4월 ~ 5월
실사	조사원 모집 및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도권 및 지방 실사 조사원 모집</li> <li>7개 권역으로 나눠 조사원 집체 교육 실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강원, 제주)</li> <li>연구진의 교육현장 참관 및 모니터링 실시</li> </ul>	5월
	조사도구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문지 제작</li> <li>조사원지침서/조사안내자료/공문</li> <li>응답자 답례품 준비 등</li> </ul>	5월
	현장 실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방문조사 실시</li> <li>특이사항 있을 시 즉각보고</li> <li>연구진의 현장 모니터링 실시</li> </ul>	5월~7월
자료처리/ 보고	에디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사완료 설문지 에디팅</li> </ul>	8월
	코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원의 지침에 따른 코딩</li> </ul>	8월
	편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용 편칭 프로그램에 설문지 입력</li> <li>연구원의 자료입력 검증 실시</li> </ul>	8월
	데이터 클리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원 가이드에 따라 데이터 클리닝 실시</li> </ul>	8월
	가중치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중치 산출</li> </ul>	8월
	기초테이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초테이블 산출 및 차이검증 실시</li> </ul>	9월
	결과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사 완료 후 중간보고 실시</li> <li>최종 데이터 제출 후 최종 보고 실시</li> </ul>	9월

## 4) 자료조사 결과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을 위해 표집된 초·중·고등학생 표본샘플을 기반으로 전국 17개 시·도 청소년 역량지수를 측정 조사한 응답결과에 대해 데이터 검증을 통해 최종적으로 9,046명의 자료가 통계자료로 활용되었다. 자료분석을 위해 최종적으로 수집된 자료는 초등학생 2,836명, 중학생 2,710명, 고등학생 3,500명(일반고 2,347명, 자율고417명, 특성화고 587명, 특목고 149명) 등 총 9,046명이었으며, 지역별·학교급별 자세한 학생수 현황은 <표 III-11>에 제시되었다.

표 III-11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조사에서 수집된 지역별·학교급별 초·중·고등학생 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목고	전체
서울	365	389	330	74	135	28	1,321
부산	146	160	89	28	45	26	494
대구	141	161	74	63	27	0	466
인천	145	155	79	26	27	23	455
광주	317	80	96	0	27	0	520
대전	73	82	90	35	15	0	295
울산	66	83	97	0	113	0	359
세종	22	21	26	0	0	0	69
경기	772	802	694	49	52	49	2,418
강원	75	78	83	0	0	0	236
충북	77	77	89	56	51	0	350
충남	119	56	61	0	0	23	259
전북	71	97	90	0	46	0	304
전남	68	84	95	86	0	0	333
경북	148	149	76	0	49	0	422
경남	146	158	171	0	0	0	475
제주	85	78	107	0	0	0	270
전체	2,836	2,710	2,347	417	587	149	9,046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을 위해 참여한 초·중·고등학생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 4,700명, 여자 4,337명이었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2,611명, 중학생 2,916명, 고등학생 3,511명이었다. 보다 자세한 특성은 <표 III-12>에 제시되었다

표 III-12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조사 참여 초·중·고등학생 수

구분		사례수 명
▣ 전체 ▣		9,038
성별	남자	4,700
	여자	4,337
학교급	초등학교	2,611
	중학교	2,916
	고등학교	3,511
학업성취수준	상	2,199
	중	4,402
	하	2,375
가족구성	양부모	8,164
	한부모	662
	조손/기타	193
부모학력	부모대졸	3,026
	한분대졸	1,545
	고졸이하	1,853
경제수준	상	1,531
	중	6,083
	하	1,409
지역	서울	1,515
	부산	504
	대구	479
	인천	501
	광주	379
	대전	307
	울산	308
	세종	83
	경기	2,360
	강원	261
	충북	323
	충남	291
	전북	347
	전남	282
	경북	452
	경남	536
	제주	109

한편,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을 위해 표집된 대학생 표본샘플을 기반으로 전국 17개 시도 청소년 역량지수를 측정 조사한 응답결과에 대해 데이터 검증을 통해 최종적으로 1,041명의 자료가 통계자료로 활용되었다. 자료분석을 위해 최종적으로 수집된 자료는 대학생 786명, 전문대학생 255명이었다. 계열별로는 인문계열 99명, 사회계열 280명, 자연계열 116명, 공학계열 281명, 교육계열 51명, 예체능계열 118명, 의약계열 96명 등 총 1,041명이었으며, 지역별·학제별·지역별 자세한 학생수 현황은 <표 III-13>에 제시되었다.

표 III-13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조사에서 수집된 학제별·학제별·계열별 학생수

구분	학제구분		계열							전체
	대학교	전문대학	인문계열	사회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	교육계열	예체능계열	의약계열	
서울권	150	30	30	52	21	45	7	19	6	180
경인권	120	60	13	47	16	58	6	30	10	180
충청권	121	30	14	42	15	39	8	19	14	151
전라권	90	30	10	28	13	30	8	12	19	120
경북권	98	45	10	38	18	39	7	14	17	143
경남권	120	30	14	38	16	48	7	13	14	150
강원권	57	15	4	21	11	14	5	6	11	72
제주권	30	15	4	14	6	8	3	5	5	45
전체	786	255	99	280	116	281	51	118	96	1,041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을 위해 참여한 대학생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 521명, 여자 520명이었고, 학교유형별로는 4년제 대학생 785명, 2년제 대학생 137명, 3년제 대학생 120명이었다. 보다 자세한 특성은 <표 III-14>에 제시되었다

표 III-14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조사 참여 대학생 수

구분		사례수 명
▣ 전체 ▣		1,041
성별	남학생	521
	여학생	520
학교유형	4년제	785
	2년제	137
	3년제	120
학업성취수준	상	129
	중	657
	하	88
가족구성	양부모	899
	한부모	83
	조손/기타	58
부모학력	부모대졸	373
	한분대졸	228
	고졸이하	376
경제수준	상	96
	중	738
	하	206
지역	서울	207
	부산	106
	대구	29
	인천	27
	광주	44
	대전	92
	울산	168
	세종	49
	경기	54
	강원	40
	충북	29
	충남	44
	전북	94
	전남	47
	경북	11
	경남	536
제주	109	

이와 같이 2017년 청소년 역량지수 조사를 통해 이 연구에 참여하게 된 총 학생수는 초·중·고 등학생 9,046명, 대학생 1,041명 등 총 10,087명이었다. 이들의 응답결과를 바탕으로 2017 청소년 역량지수에 참여한 전체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 5,216명, 여자 4,871명이었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2,836명, 중학생 2,710명, 고등학생 3,500명, 대학생 1,041명이었으며, 학업성취수준별로는 상위 수준 3,625명, 중위 수준 3,835명, 하위 수준 2,392명이었다. 경제적 수준별로는 상위 수준 1,666명, 중위 수준 6,820명, 하위 수준 1,583명이었다. 보다 자세한 특성은 <표 III-15>에 제시되었다.

표 III-15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조사에 참여한 학생수

구분		사례수
전체		10,087
성별	남	5,216
	여	4,871
학교급	초등(초기 청소년)	2,836
	중등(중기 청소년)	2,710
	고등(중기 청소년)	3,500
	대학(후기 청소년)	1,041
학업성취도수준	상	3,625
	중	3,835
	하	2,392
경제적 수준	상	1,666
	중	6,820
	하	1,583
지역	서울	1,501
	부산	599
	대구	499
	인천	485
	광주	565
	대전	370
	울산	359
	경기	69
	강원	2,568
	충북	308
	충남	395
	세종	290
	전북	334
	전남	378
	경북	532
	경남	520
	제주	315

## 5) 자료분석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조사 결과의 자료 분석은 크게 두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진행되었다. 하나는 2017 청소년 역량지수의 수준과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초통계분석과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특성 변인에 따른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른 하나는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점수의 성장시기별(학교급별) 차이에 대한 원인을 심층분석을 실시하였다.

2017 청소년 역량지수의 수준과 실태분석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첫째,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에 대한 양호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측정문항의 평균 및 표준편차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바탕으로 정규성 분석, 전체문항 간의 상관계수분석(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 신뢰도 분석이 이루어졌다.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의 정규성은 왜도(skewness)는 절대값 2이하, 첨도(kurtosis) 절대값 7이하일 경우 정규성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Curran, etal, 1996). 또한 상관계수는 절대값 .30 이상(Field, 2009)을, 신뢰도 계수는 .70이상(Brace, Kemp, Snelgar, 2013)을 권장하고 있다.

둘째,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변인 특성에 따른 청소년 역량의 기초통계분석과 차이검증 하였다. 이를 위해 1차적으로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즉, 개인특성변인(성별, 학교 급), 학업성취수준, 가정환경특성변인(경제적 수준, 거주지역 변인)을 중심으로 독립표본 t-검 증과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그리고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점수의 성장시기별(학교급별) 차이에 대한 원인에 대한 심층분석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첫째, 청소년 역량지수 점수의 변화 추이를 2014년부터 2017년도까지 성장시기별(학교급별)로 분석하였다. 2014년부터 2017년도까지 청소년 역량지수 영역별(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평균과 하위역량의 평균을 초·중·고등학교 시기별로 변화 추이를 분석하여 시점 동일성을 확인하였으며,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변화 추이를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둘째,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결과가 청소년의 발달단계의 심리적 특성이 반영된 것인지를

9) 청소년의 학교급에 따른 역량 특성은 청소년 시기별 역량 특성으로 간주될 수 있다. 초기 청소년 시기는 초등학생에 해당되며, 중기 청소년 시기는 중고등학생, 후기 청소년 시기(청년기)는 대학생 시기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 시기별 역량 특성을 분석하는데 있어서는 학교급에 따른 역량 특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하기 위하여 개인의 심리적 변인(자아개념, 자율성, 자기효능감, 가능한 자아)과 외부환경 변인(학업스트레스, 부모양육태도)에 대한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개인의 심리적 변인과 외부환경 변인이 청소년 역량지수 점수에 성장시기별로 조절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은 3단계로 진행하였다. Baron과 Kenny(1986)은 변인의 조절효과를 밝히기 위한 다수의 연구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위계적 회귀분석 1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성장시기별 변인인 학교급을 투입하였다. 2단계에서는 학교급과 조절변인인 개인의 심리적 변인(자아개념, 자율성, 자기효능감, 가능한 자기), 외부환경변인(학업스트레스, 부모양육태도)을 투입하였다. 3단계에서는 개인의 심리적 변인과 외부환경변인이 학교급과 대인관계역량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밝히기 위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평균중심화한 값을 곱하여 상호작용항을 생성하여 투입하였다.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는 일정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데,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그대로 곱한 상호작용항을 투입했을 때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배병렬, 2015). 본 연구에서도 VIF 지수 10을 초과하여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조절효과 분석 시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평균중심화를 하거나 Z점수로 변화하는 방법이 있는데(배병렬, 2015), 본 연구에서는 평균중심화를 실시하였다. 평균중심화는 개별변수에서 평균값을 제외한 값이다. 또한 조절변인이 청소년 역량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지 밝힘으로써, 순수 조절변인인지 혹은 유사 조절변인인지 확인할 수 있다. 2단계에서 조절변인이 유의하지 않고, 3단계에서 상호작용항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면 이는 순수 조절변인이며, 2단계에서 조절변인이 유의함과 동시에 3단계에서 상호작용항이 유의하다면 유사조절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일현(2016)이 제공하고 있는 조절효과 그래프 툴을 이용하여 조절효과의 영향을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셋째, 청소년 역량지수는 청소년의 성장시기별 발달적 특성이 반영되어 측정되었기 때문에 청소년의 발달시기별 청소년 역량측정 문항에 반응이 상이한지를 문항반응이론(Item Response Theory: IRT)을 적용하여 그 실태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조사된 청소년 역량을 종단적 또는 시계열적 연구에 활용하거나 집단 간(대표적으로 학교급간) 비교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요인의 동일성이 확보될 필요성이 있다. 요인 동일성 연구는 주로 척도 및 모형의 집단 간 일반화 연구, 종단연구, 집단 간 차이 및 변화 연구 등에 활용된다(이순목, 김한조, 2011). 먼저, 척도 및 모형의 집단 간 일반화 연구에서는 남녀, 학년, 인종, 지역, 국가, 하위문화 등과 같은 특성에 따라서 집단이 나뉠 때,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타당화되어 개발된 척도가 다른 집단들과

차이가 없는 척도로서 동일한 개념과 구조를 가지고 측정할 수 있는 척도인지 검토를 위한 요인 동일성 검증을 하여야 한다(Byrne, 1989; Rensvold & Cheung, 1998; Taub & McGrew, 2004). 그리고 김정호 등(2005); 손원숙(2005) 등의 연구에서는 척도의 문항 제작 방식이 바뀌었을 때, 요인구조나 요인계수 등 공분산 구조에 동질성이 유지되는지를 검토하고, 평균구조까지 비교 검토하는 데에 동일성 검증이 활용되었다.

종단 연구에서는 시간적으로 집단을 구분하고, 이러한 시점에 따른 집단을 척도 및 모형의 집단 간 일반화 연구에서의 집단과 마찬가지로 가정하여 요인 동일성을 분석한다. 이와 같은 종단 연구에서는 요인 동일성 분석은 시점 간에 일반화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고자 할 때 활용되고, 시점이 바뀌어도 개념에 대한 이해, 개념을 수량 값으로 구체화 할 때의 단위, 또는 개념을 측정할 때의 출발점(눈높이) 등이 동일해야 일반화가 가능하다(이순목, 김한조, 2011). 따라서 여러 시점에 걸쳐서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동일성이나 변화에 대한 검증을 할 때는 반드시 요인 동일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Horn & McArdle, 1992; Vandenberg & Lance, 2000). Vandenberg & Lance(2000)에 따르면 종단적 변화를 분석하기 전에 시간변화에 따른 측정 동일성의 확보가 필수라고 강조하는데, 국내의 종단 연구에서는 아직 요인에 대한 측정 동일성에 대한 검토는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집단 간 차이 및 변화 연구에서는 앞서 두 가지 동일성 검증 활용 방식과는 반대로 두 집단 간에 일반화가 아니라 서로 상이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요인 동일성 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하나의 집단이 시점에 따라 변화할 때 그것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도 요인 동일성의 검증이 필요하고, 시점이 달라지면 자료의 모집단도 복수가 되므로 비교를 위해 요인 동일성이 검토되어야 한다(이순목, 김한조, 2011). 집단 간 차이 및 변화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연구 이외에도 문항반응이론에 기반한 문항 및 검사의 차별기능(DFIT: Differential Functioning Items and Tests) 분석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고, 차별기능 분석도 집단 간 차이를 중심으로 한 요인 동일성 연구로 볼 수 있다(Raju, Kim, Morris, Nering, & Oshima, 2009; Raju, Van der Linden, & Fleer, 1995).

이상의 요인 동일성 연구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집단 구분의 주요 기준인 학교급과 시점에 따라 집단을 나누고, 4개 학교급(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간에 요인 동일성과 2개 시점(2017년 자료와 이 자료의 문항이 확정된 2016년 자료) 간에 요인 동일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학교급 간 비교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 중 기본이 되는 확인적 요인분석모형을 여러 집단에 대하여 적용하는 다집단 확인적 요인분석모형으로 요인 동일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시점 간 비교에서는 학교급 간 비교와 마찬가지로 다집단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보다 구체적으로 개별 문항 수준까지의 요인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문항반응이론을 적용하여 차별기능문항 분석을 진행하였다.

한편, 2016년도와 2017년도 자료의 청소년 역량에서 시점 간에 차별기능문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먼저, 문항반응이론 모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문항들은 4점 리커트 척도이기 때문에 정/오답의 반응을 가지는 성취도 검사에서 활용되는 이분 문항반응이론 모형을 적용할 수 없고, 3개 이상의 반응에 대해 분석할 수 있는 다분 문항반응이론 모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분 문항반응이론 모형에는 대표적으로 일반화 부분점수 모형(*generalized partial credit model, GPCM*)과 등급반응모형(*graded response model, GRM*)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심리검사 등에서 리커트 척도를 사용할 때에는 등급반응모형을 그리고 성취도 검사에서 부분점수를 사용할 때에는 부분점수 모형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강태훈, 김명연, 2012), 본 연구에서도 등급반응모형을 적용하였다.

Samejima(1969)가 제안한 등급반응모형은 피험자의 반응을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대해 차등적인 점수를 부여하여 이를 토대로 피험자의 능력이나 속성을 추정하도록 제안된 수리적 모형으로, 예를 들면 대학생들의 학점과 같이 유목화된 채점이나, 태도에 대한 설문과 같은 리커트 척도, 부분 점수와 같은 채점 방식에 적용될 수 있다. 이 모형은 개별 문항에 대한 반응을  $C$ 개의 유형으로 나누고 개별 피험자의 능력이나 속성에 따라서 선택하는 확률을 수리적으로 추정하는 모형이다. 이 때 문항  $i$ 에 대하여 능력(혹은 잠재특성)수준이  $\theta$ 인 피험자가  $c(c = 1, 2, \dots, C)$ 번째 유형의 점수를 선택하거나 분류될 확률을  $P_{ic}(\theta)$ 라고 하면 등급반응모형은 다음 식과 같이 표현된다.

$$P_{ric}^*(\theta) = \begin{cases} 1 & (c = 0) \\ \frac{1}{1 + \exp\{-\alpha_i(\theta - \beta_{ic} - d_r)\}} & (c = 1, 2, \dots, C-1) \\ 0 & (c = C) \end{cases}$$

$$P_{ic}(\theta) = P_{i(c-1)}^*(\theta) - P_{ic}^*(\theta)$$

위 식에서  $\alpha$ 는 문항의 변별도로 문항이 능력 수준이 높은 피험자를 얼마나 잘 변별해내는지를 나타내고  $\beta$ 는 문항의 역치(threshold; 성취도 검사에서는 곤란도로 표현하는데 본 연구에서의 역량검사 문항은 심리검사 문항이므로 역치로 표현)를 나타낸다. 등급반응이론 모형에서는

차별기능문항 분석은 변별도와 역치에 집단간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게 된다. 차별기능문항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차별기능문항은 같은 능력 수준을 가진 피험자들이 그들이 속한 집단 특성 때문에 문항에 정답반응을 할 확률이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Camilli & Shepard, 1994; Clauser & Mazor, 1998). 차별기능문항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활용한 방법은 Wald Test로 두 집단 간의 문항특성곡선 함수의 모수가 동일하다는 가정(Cohen & Kim, 1993)을 두 집단의 문항 모수 추정치의 차이 벡터에 집단 간 문항 모수 추정치 차이의 분산-공분산 행렬(variance-covariance)로 가중치를 준 값, 즉 Wald 통계량(statistics)을 통해 검정하는 방식이다. Wald 통계량에 대해서 카이제곱 검정 결과, 문항간의 모수가 동일하다는 영가설이 기각되면, 두 집단 간에 문항모수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한편 Wald Test에서의 차별기능문항은 집단 간에 변별도, 역치의 차이와 둘을 합한 전반적 차이를 검정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역량 측정 결과가 청소년의 성장시기에 따라 성별차이가 현격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차별문항기능(Differential Item Function: 이하 DIF) 분석을 실시하였다. 2017년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지수 분석 결과,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 초등에서는 남자 청소년보다 역량이 높았으나, 중등과 고등을 지나 대학으로 갈수록 급격히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별에 따른 청소년 역량의 차이가 순수한 능력의 차이인지, 아니면 차별기능문항(DIF)이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DIF 분석을 실시하였다. DIF란 같은 능력수준을 지닌 피험자들이 그들이 속한 집단(예: 남성, 여성)의 특성 때문에 문항에 반응할 확률이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한국교육평가학회, 2004)으로, 검사도구의 타당도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될 수 있다.

DIF 문항을 찾아내기 위한 방법으로는 우도비 검정법(Likelihood Ratio Test: 이하 IRT-LR 방법) Mantel-Haenzel 방법, SIBTEST 방법 등이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유용성을 인정 받아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 중 하나인 IRT-LR 방법을 사용하였다. 'IRT-LR 방법'은 동일 제약모형(compact model)과 확장 모형(augmented model)에서 얻어지는 우도(likelihood)의 차이( $-2L_c - (-2L_A)$ )를 이용하여 DIF 문항을 찾는 방법이다. 이때 '동일 제약모형'은 모든 문항의 모수가 집단 간 동일하다고 보는 모형, '확장 모형'은 DIF 여부를 판단해야 할 한 개 이상의 연구 대상 문항(study item)만 집단별로 따로 문항 모수를 추정하는 모형이다(Thissen, Steinberg, & Gerrard, 1986; Thissen, Steinberg, & Wainer, 1988). 즉, IRT-LR 방법에서는 검사도구에서 DIF 여부를 조사하는 문항 이외의 다른 문항에서는 DIF가 없다는 가정하에, 다른 문항들을 연계(linking)를 위한 공통 문항(anchor item)으로 삼아 같은 척도 상의 능력 모수를 추정한다.

이 연구에서는 IRT-LR 방법을 적용하기 용이한 IRTLRFID 2.0 (Thissen, 200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DIF 문항을 탐색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우도비 LR을  $G^2$ 으로 산출하며, 우도비 검증시에는 연구 문항 모수의 수를 자유도(df)로 갖는 카이스퀘어 분포를 따르게 된다. 카이스퀘어 검증 결과 특정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다면 이는 확장 모형이 더 나은 모형이므로 두 집단 간 문항 모수(변별도(a), 난이도(b))가 유의미하게 다른 DIF 문항으로 판정할 수 있다. IRTLRFID의 경우 이분 자료(dichotomous data)를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이므로 분석 결과  $G^2$  값이 3.84(자유도=1)를 초과하게 되면 DIF 문항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 역량 측정 조사지의 경우 4점 척도로 개발되어 이러한 기준을 따르기 어려우므로, 이 연구에서는 Meade & Wright (2012)가 제시한 바와 같이 엑셀 프로그램의 chidist 함수를 이용해  $G^2$ 에 대한 유의확률 값을 별도로 계산하여 DIF 문항 여부를 탐색하였다.

DIF 분석을 실시하기 위한 일차원성 가정에 대한 검증은 요인 분석을 활용하였다. 참고로, 검사도구의 일차원성은 요인분석 결과 첫 번째 요인이 전체 검사점수 분산을 20% 이상 설명할 수 있으면 충족한다고 간주(Reckase, 1979)하며, 실제 요인 분석 결과 이 연구에서 활용된 네 가지 역량군(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에 대한 검사도구의 일차원성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종 DIF 분석시에는 하나 이상의 결측치를 갖는 피험자는 모두 제외하였으며, 학교급별 여자 청소년을 참조집단(reference group)으로, 남자 청소년은 연구 집단(focal group)으로 선정하였다. 최종 분석 대상을 학교급별로 성별에 따라 나타내면 <표 III-16>과 같으며, DIF 분석은 청소년 역량지수의 네 개 역량군별로 나누어 학교급 별로 실시하였다.

표 III-16 청소년 역량지수 차별기능문항 분석대상의 성별 사례수 및 비율: 학교급별

학교급	남자		여자		전체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초등학생	1,267	50.5	1,242	49.5	2,509	100.0
중학생	1,176	46.3	1,365	53.7	2,541	100.0
고등학생	1,901	56.5	1,465	43.5	3,366	100.0
대학생	500	50.3	495	49.7	995	100.0

## 6. 청소년 역량 관련 교육프로그램 분석 및 정책분석

여기에서는 청소년 역량관련 지방자치단체 정책현황과 청소년 활동시설 프로그램들의 경향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전년도에 청소년 역량관련 해외 주요 정책현황과 국내 중앙정부의 정책현황을 살펴 본 것에 이어, 올해에는 청소년 역량관련 지방자치단체 정책들의 현황은 어떠한 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청소년 역량관련 지방자치단체 정책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은 청소년정책들이 수행되고 있어 정책적 시사점을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이다. 다음으로 청소년 활동시설 프로그램들의 경향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청소년활동프로그램들이 수행되고 있는 청소년 활동시설(보호, 복지시설 제외) 중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특화시설, 유스호스텔(아영장과 이용 시설은 제외)의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청소년 활동시설 프로그램들의 경향적 특성을 살펴보는 것도 정책적 시사점을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이다.

## 7. 2017년도 ICCS 2016 본 조사

### 1) 조사 배경

국제 시민의식 및 시민성 교육 조사(이하 ICCS)의 목적은 2010년대에 살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의 청소년들이 시민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ICCS 2016 조사는 2009년에 처음 시작된 조사의 연장선상에 있다. 첫 ICSS 조사는 시민성과 시민의식에 대한 개념적 지식과 이해를 측정하는 검사를 사용해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파악했다. 이와 더불어 시민성과 시민의식과 관련된 가치관, 태도, 행동, 행동의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했다.

시민의식 및 시민성 교육에 관한 연구를 계속해야 할 필요가 대두되고 이 주제에 대한 정기적인 국제 조사를 구축하고자 하는 관심이 커지면서 IEA는 두 번째 ICCS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2016년에 데이터를 수집하기로 했다. 두 번째 ICCS 조사는 민주주의와 시민참여의 맥락이 계속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을 교육할 때 제기되는 새로운 과제 뿐만 아니라 오래된 난제를 함께 다루고자 했다. 새로운 과제로는 청소년이 시민참여의 통로로 소셜미디어를 점차

많이 활용하는 현상, 세계를 위협하는 새로운 요인의 등장,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관심, 청소년이 서로 평화롭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학교가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한 인식 확산 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시민역량은 일터에서 필요한 기술 중 핵심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나 지역사회 지도자뿐만 아니라 고용주도 시민역량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Gould, 2011). 산업계 지도자들은 전문적 기술(technical skills)의 중요성을 부인하지 않지만 오늘날의 세계경제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전문적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점차 더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21세기에는 고용주들이 사회변화, 문화간 이해(intercultural literacy), 윤리적 판단, 인도주의적 가치, 사회적 책임, 시민참여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고 승진시킬 것이다(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ICCS 2016은 시민의식 및 시민성 교육에 관련된 7년간(2009년부터 2016년까지)의 변화를 측정할 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최근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인해 시민의식 및 시민성 교육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측면을 조사한다. ICCS 조사의 도구는 이전 연구에서 사용된 다양한 검사와 설문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시민 지식, 태도, 참여 실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비교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ICCS 2009 조사에서 다루지 않았던 측면을 조사하기 위해 새로운 조사 항목이 개발되었다. 향후 실시될 ICCS 조사도 이와 유사한 방식을 취해서 조사 도구에 이전의 조사 도구와 새롭게 개발된 조사 도구를 함께 사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국가적, 국제적 수준에서의 변화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인지적 또는 정의적-행동적 측면의 추가적인 부분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2) ICCS 2016의 조사 프레임

IEA에서는 ICCS 2016의 조사 틀을 개발할 때 최근의 세계적인 동향과 지속적으로 고려해야 할 과제를 반영했다. 이를 위해 국제 사업팀이 전문가 및 국가별 대표자와 협력하여 시민의식 및 시민성 교육과 관련하여 최근에 이목이 집중되었거나 혹은 이전부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었으나 지금까지 ICCS 조사에서 상세하게 다루지 않았던 영역을 파악했다. ICCS 2009에서 어느 정도 다루었으나 ICCS 2016에서 보다 더 종합적이고 광범위하게 다룬 내용도 포함시켰다. 그 결과, 다음의 세 영역이 추가로 포함되면서 ICCS 2016 조사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1) 시민의식 및 시민성교육에서 지속가능성(environmental sustainability)의 비중 확대: 인간 활동이 환경(특히 세계 기후)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미래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발전에 관한 논의에서 핵심 사안으로 대두된 사회가 많고, 이 점은 많은 국제 선언에 반영되어 있다(관련 예는 UNESCO[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2015 참고). 책임 있는 시민의식은 환경에 대한 관심과 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장기적인 환경 보호를 포함해야 한다는 관점이 지난 수십 년간 점차 힘을 얻고 있으며 (Dobson, 2003; Dobson, & Bell, 2006; Ferreir, 2013; Hayward, 2006), 최근에는 환경보호 또는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시민교육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회가 많아지고 있다(Ainley, et al., 2013; Eurydice[Education Information Network in Europe, 유럽교육정보네트워크], 2012; Schulz, et al., 2016b).

(2) 학교의 사회적 역할: 여러 국가의 시민의식 및 시민성 교육과정을 살펴본 결과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많은 국가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참여나 관여(engagement), 사회적 상호작용 등과 같은 시민학습의 비형식적 측면을 강조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Ainley, et al., 2013; Eurydice, 2005; Schulz et al., 2010b). 보다 일반적 현상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학습의 중요성에 주목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Dijkstra, & de la Motte, 2014; Durlak, Weissberg, Dymnicki, Taylor, & Schellinger, 2011; Scheerens, 2011). 따라서 ICCS 2016 조사를 설계할 때 학교 내의 사회적 상호작용 관련 내용, 특히 갈등과 언어 및 신체적 학대(예를 들어 학교폭력)와 관련된 항목을 이전보다 조사도구에 더 많이 포함하였다(Merrell, Gueldner, Ross, & Isava, 2008; Rigby, & Smith, 2011; Smith, Morita, Junger-Tas, Olweus, Catalano, & Slee, 1998).

(3) 시민참여의 도구로서 소셜미디어의 활용: 소셜미디어(예를 들어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콘텐츠 공유 사이트(예를 들어 위키, 블로그, 토론포럼) 등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많아지고 있는데, 소셜미디어 활용은 청소년들의 시민 참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duiza, Jensen, & Jorba, 2012; Bachen, Raphael, Lynn, McKee, & Philippi, 2008; Banaji, & Buckingham, 2013; Kahne, Lee, & Feezell, 2011). ICCS 2009 조사 이후 소셜미디어 활용이 더욱 증가했고, 사회적, 정치적 문제에 대한 의사소통에서 소셜미디어가 갖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ICCS 2016 조사에서는 시민참여와 관련한 소셜미디어의 활용에 대한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다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더불어, IEA가 수행한 이전 연구에서 다루지긴 했지만 ICCS 2016 조사에서 보다 비중을 높여야 할 두 영역이 새로 결정되었다.

(4) 경제적 자각(economic awareness)과 시민의식: 학생의 경제적 지식은 시민의식 및 시민성 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될 수 있다(관련 예는 Citizenship Foundation, 2013; Davies, 2006, 2015; Davies, Howie, Managan, & Telhaj, 2002 참고). 경제적 인식은 경제적 문제가 시민의식에 영향을 주는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로 개념화할 수 있다(금융이해력이나 경제이해력 ICCS 2016의 조사대상 연령대(13세-14세)가 낮기 때문에 이들의 경제에 대한 지식과 인식을 측정하는 것이 어렵다. 경제적 인식이 시민의식 및 시민성 교육에서 중요한 이유는 경제가 정부 정책의 주요 사안이며, 경제적 여건이 시민활동(citizenship activities)에 제약을 줄 수 있고, 시민들은 사회의 경제적 안녕에 기여하고 경제와 관련된 문제와 해결책을 함께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5) 시민의식 및 시민성 교육에서 도덕성의 역할: 도덕성과 인성의 개념은 시민의식 및 시민성 교육 프로그램의 결과와 연결하여 언급될 때가 많다(Althof, & Berkowitz, 2006; Berkowitz, Althof, & Jones, 2008; Halstead, & Pike, 2006; Oser, & Veugelers, 2008). 도덕교육프로그램(moral education programs, 시민의식 및 시민성 교육과 통합되어 있는 경우도 많음)을 갖고 있는 국가가 많고, 도덕교육을 독립된 과목으로 다루는 경우도 적지 않다(Ainley, et al., 2013; Veugelers, 2011). 따라서 본 조사들에서는 ICCS 2016 조사도구에서 도덕성 관련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범위를 제시했다.

### 3) ICCS 2016의 조사 구성

ICCS 2009와 마찬가지로 ICCS 2016 조사도 8학년(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평균적으로 대략 만 14세 학생). 보통 8학년의 평균 연령이 만 13.5세 이상이기 때문에 8학년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8학년의 평균 연령이 13.5세 미만인 나라에서는 9학년을 조사대상 집단으로 정했다. 표본으로 추출된 학교에서 학급을 선정하고, 선정된 학급의 학생들은 모두 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조사대상 교사 선정 방식도 ICCS 2009 조사와 동일하다. 표본으로 추출된 학교에서 조사

대상 학년에게 정규 교과를 가르치는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하되, 조사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조사 대상 학년을 가르치고 있으며, 학년 초부터 해당 학교에 재직한 교사만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Zuehlke, 2011). 각 학교마다 ICCS 2016 조사에 참여할 교사를 선정한다. ICCS 조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사 도구가 사용된다.

① 국제비교용 학생용 인지검사지: 학생의 시민지식과 분석 및 추리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된다.

② 학생용 설문지: 학생의 배경 요인 및 학생의 인식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된다.

③ 지역모듈 학생용 설문지: 설문조사 방식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유럽 및 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만 시행되는 조사 도구이지만 한국과 대만과 홍콩은 2009년 ICCS 조사에서 사용한 아시아 지역 모듈을 자체적으로 조사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④ 교사용 설문지: 조사대상 학년에서 정규과목을 가르치는 교사 중에서 선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조사도구로, 교사의 배경 요인 및 해당 학교에서 실시되는 시민의식 및 시민성교육의 맥락에 관한 요인을 교사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한다. ICCS 2009와 마찬가지로 교사용 설문조사는 온라인을 통해 응할 수 있다.

⑤ 학교용 설문지: 학교의 특성과 시민의식 및 시민성교육 참여와 관련된 학교 관련 변인을 찾기 위해 표집된 학교의 학교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교사용 설문조사와 마찬가지로 일부 국가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본 설문조사에 응할 수 있다.

⑥ 국가맥락조사: 국가 센터의 전문가가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조사로, 해당 국가의 교육시스템, 시민의식 및 시민성 교육이 국가교육과정에서 차지하는 위치 및 최근 동향 등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 4) ICCS 2016 조사결과

2016년도 연구보고서(장근영 외, 2016)에 기술한 바와 같이, 조사는 IEA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시하였다.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의 협조를 얻어 IEA에서 선정한 표본학교들의 참여를 요청하였으며, 각 학교들은 조사 참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공지받은 상태에서 조사 참여여부를 결정하였다. 최종적으로 목표 표본인 150개 학교 중 총 106개 중학교가 참여하였다. 해당 학교의 중학교 2학년 학생 2,998명(학교당 1개 학급 표집)과 2학년 담당 교사 1369명 및

교장 10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본 조사의 응답율은 70.6%로 나타났다. 이는 IEA에서 국가 간 공식비교에 필요한 최소표집기준인 85%에 미달하는 결과로서 ICCS 결과 보고에서 한국 조사결과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었다.

학교들의 응답율이 낮았던 가장 큰 이유는 조사대상 중학교 교사들이 학생명단 전체를 제출해야 하고 그 중 단 1개 학급만 실시하며 총 2교시를 필요로 하는 본 조사의 운영규정이 부담되었거나, 학사일정상 조사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들이었다.

표 III-17 ICCS 2016 조사참여학교 현황 (괄호 안은 전체 학교수)

구분	중학교 전체	국립	공립	사립
서울	17 (384)	0 (2)	11 (273)	6 (109)
경기	28 (619)	0 (0)	24 (532)	4 (87)
인천	2 (134)	0 (0)	1 (123)	1 (11)
강원	2 (162)	0 (0)	2 (147)	0 (15)
충북	5 (128)	0 (2)	4 (107)	1 (19)
충남	3 (186)	0 (1)	3 (141)	0 (44)
대전	4 (88)	0 (0)	4 (72)	0 (16)
경북	7 (271)	0 (0)	5 (198)	2 (73)
경남	11 (265)	0 (1)	8 (188)	3 (76)
부산	6 (172)	0 (0)	5 (135)	1 (37)
대구	6 (125)	0 (1)	5 (90)	1 (34)
울산	0 (63)	0 (0)	0 (59)	0 (4)
전북	4 (209)	0 (0)	3 (160)	1 (49)
전남	6 (250)	0 (0)	6 (215)	0 (35)
광주	4 (90)	0 (1)	3 (64)	1 (25)
제주	1 (45)	0 (1)	1 (38)	0 (6)
합계	106 (3,209)	0 (9)	85 (2,560)	21 (640)

※ 출처: 장근영, 성은모, 이경상 외 (2016) p.57

표 III-18 ICCS 2016 조사 응답자 현황

구분	학생			교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서울	442	213	229	225	78	147
경기	839	437	402	368	116	252
인천	60	31	29	26	11	15
강원	57	28	29	25	8	17
충북	139	72	67	51	17	34
충남	93	49	44	36	10	26
대전	122	45	77	56	11	45
경북	199	130	69	96	33	63
경남	329	162	167	140	52	88
부산	155	97	58	64	19	45
대구	145	93	52	81	17	64
울산	-	-	-	-	-	-
전북	126	63	63	58	19	39
전남	166	95	71	67	15	52
광주	104	77	27	58	25	33
제주	28	28	-	17	6	11
합계	3004	1620	1384	1368	437	931

\* 출처: 장근영, 성은모, 이경상 외 (2016) p.58

## 8. ICCS 2016 아시아지역모듈(ARM) 조사

ICCS 에는 모든 참여국이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기본모듈 조사지와 지역 간 존재하는 사회적, 문화적 차별성을 고려하여 특정지역 참여국들만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추가 모듈 조사지가 있다. 2009년도 ICCS에서 유럽국가들은 유럽지역모듈(European Regional Module)을,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라틴아메리카지역모듈(Latin-American Regional Module)을, 그리고 아시아 지역국가 들은 아시아지역모듈(Asian Regional Module)을 개발하여 측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지역 국가들 간에 공유했다. 아시아지역모듈은 아시아 참여국의 대표 연구진들이 자국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특성들을 분석하고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공통 요소를 식별하여 이를 반영하였으며, 이후 ARM은

수정 및 보완 작업을 거쳐 ICCS 2009 국가연구정관회의에서 확정되었다(조영하, 김태준, 2010). <표 II-1>에 제시된 바와 같이, ARM은 측정 문항을 2개의 차원으로 분류하여 개념적으로 구분하였다. 우선, 개념적 범주는 시민 사회와 체계(Civic Society and System), 시민 원리(Civic Principles), 시민 참여(Civic Participation), 시민 정체성(Civic Identities)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념적 준거는 가치 신념과 태도로 구성되어 있다(Fraillon, Schulz, & Ainley, 2012).

표 III-19 ICCS ARM 측정 틀<sup>10)</sup>

	시민사회와 체계	시민원리	시민참여	시민정체성
가치 · 신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에 대한 인식</li> <li>• 권위에 대한 복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졸과 공공행정</li> <li>• 전체를 위한 개인 희생</li> <li>• 타인 배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시아정체성</li> <li>• 바람직한 시민상</li> <li>• 사회화합 대 체면</li> </ul>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보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른 공경</li> <li>• 빈부의 차</li> <li>• 비민주적 행위의 인정</li> <li>• 자국 법제에 대한 신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정부패</li> <li>• 정치인의 필요 속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시아 국가들간 관계</li> <li>• 자국의 전통문화</li> </ul>

그러나 2016년 조사에서는 2009년 아시아지역 참여국 중 인도네시아와 태국이 참여를 하지 않으면서 참가국이 한국, 대만, 홍콩의 3개 국(도시)으로 축소되어 ARM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IEA 본부에서 결정을 하였다. 이에 본원과 한국교육개발원의 주도로 3개 참가국(도시) 자체적으로 2009년과 동일한 ARM을 ICCS에 추가하여 조사하고 데이터를 공유하려는 노력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해당국가에서 ARM을 실시하는 성과를 얻었다. 단, 조사결과의 표준화를 위해서는 IEA 측의 협력이 필요했으며 이 절차가 지연되어 2017년 보고서에서는 각국의 자체적인 분석만 실시하고 국가간 비교는 차년도 연구에서 진행하고자 한다.

## 1) 조사방법과 절차

### (1) 2009년 ARM

2009년 ICCS 아시아지역모듈(Asian Regional Module) 조사가 수행된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10) 2009, 2016년도 모두 동일한 측정 틀을 활용함

표 III-20 ICCS 2009 ARM 개요

주요 요소	내용	참여국가
모집단	중학교 2학년 재학생	한국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태국
표집틀	각국의 중학생 사회인구학 통계자료	
표본수	국가별 3000명~5000명 사례	
표집방법	모집단 추정을 위한 비례대표추출(IEA DPC에서 담당)	
조사시기	2009년 11월 완료	
조사내용	시민사회와 체계, 시민원리, 시민참여, 시민정체성에 대한 가치와 신념, 태도	

(2) 2016년 ARM

2016년 ICCS ARM 조사가 수행된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표 III-21 ICCS 2016 ARM 개요

주요 요소	내용	참여국가
모집단	중학교 2학년 재학생	한국 대만 홍콩
표집틀	각국의 중학생 사회인구학 통계자료	
표본수	국가별 3000명~5000명 사례	
표집방법	모집단 추정을 위한 비례대표추출(IEA DPC에서 담당)	
조사시기	2016년 10월 완료	
조사내용	시민사회와 체계, 시민원리, 시민참여, 시민정체성에 대한 가치와 신념, 태도	

2) 조사도구

(1) 아시아지역모듈(ARM) 문항 구성

ICCS 2016 ARM을 측정하기 위하여 2009년 ICCS 국제연구조정관회의에서 확정된 ARM을 반복 활용하였다. ARM은 4점 척도를 적용한 총 5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세 문항은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다.

표 III-22 ICCS 2016 ARM 측정문항

번호	문항
1	정부는 부모가 아이를 돌보듯이 시민을 돌봐야 한다.
2	모든 사람이 부유함을 누릴 수 있다면 정부가 민주적이든, 비민주적이든 상관없다.
3	시민의 종교심 또는 신앙심을 고취시키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4	시민의 생각을 반영하고만 있다면 정부가 민주적이든, 비민주적이든 상관없다.
5	정부가 일을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 비민주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할 수 있다.
6	정부가 권력이 강할수록 시민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쉽다.
7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가 법을 위반하는 것을 용인할 수 있다.
8	내 의견이 다르더라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항상 어른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
9	사회적 조화를 위해서 우리는 이웃의 그릇된 행동도 참아야 한다.
10	내 의견이 다르더라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항상 당신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말을 따라야 한다.
11	내 의견이 다르더라도 항상 선생님에게 순종해야 한다.
12	사회적 화합을 위해서 동급생이나 직장동료들은 서로 싸우면 안 된다.
13	내 의견이 다르더라도 항상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
14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누군가의 체면을 세우는 일보다 중요하다.
15	나는 우리나라 전통 문화에 대해 배울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싶다.
16	우리나라 문화는 다른 나라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독특한 문화 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
17	우리나라 전통 문화가 우리문화유산을 대표하기 때문에 우리 전통 문화의 부분이 보존되어야 한다.
18	나는 우리전통문화를 보존하는 데에 책임감을 느낀다.
19	법은 돈과 권력이 있는 자들의 편이다.
20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21	정치인과 정부는 자주 법원의 결정에 간섭한다.
22	법원은 법을 공정하게 적용할 수 있다.
23	법체계에 부정부패는 없다.
24	일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정부관료에게 뇌물을 주는 것을 용인할 수 있다.
25	정치인들의 정직성과 도덕성은 그/그녀의 능력보다 중요하다.
26	공무원이 그/그녀가 일하는 기관에서 그/그녀의 이익을 위해 그 기관의 재원을 사용해도 상관없다.
27	정치적 지도자들은 도덕성의 역할모델이 되어야 한다.
28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것은 어른들의 일이므로 나오는 전혀 상관이 없다.

번호	문항
29	정치인들은 그들의 가족이 법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30	정치인들은 그들의 가족이 도덕적으로 행동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31	정치인들은 그들의 가족구성원이 범법행위를 하거나 비도덕적인 행동을 할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32	나는 나 스스로를 아시아의 시민이라고 생각한다.
33	나는 나 스스로를 세계의 시민이라고 생각한다.
34	아시아 국가들은 EU처럼 지역적인 협력을 위해 아시아연합 AU를 발달시켜야 한다.
35	나는 전반적으로 볼 때 아시아의 경제적 성장이 자랑스럽다.
36	나는 아시아인인 것이 자랑스럽다.
37	나는 아시아 문화와 전통이 자랑스럽다.
38	나는 전반적으로 볼 때, 아시아 민주주의의 발전이 자랑스럽다.
39	나는 전반적으로 볼 때, 아시아의 인권이 성장한 것이 자랑스럽다.
40	서양 국가들은 아시아 국가들보다 자랑스러워 할 것이 더 많다.
41	아시아의 몇몇 국가가 전체 아시아 사회의 발달을 결정 지을 것이다.
42	서양 국가들은 아시아 국가들에게서 배울 것이 많다.
43	나는 다른 아시아의 젊은이들과 공감대를 느끼는 것이 많다.
44	법을 준수하는 사람이 좋은 시민이다.
45	법은 준수하지만 도덕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좋은 시민이 아니다.
46	좋은 도덕성을 가진 사람만이 좋은 시민이 될 수 있다.
47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지식보다는 도덕성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
48	자기 수양은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의 하나이다.
49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정신적 성숙이 중요하다.
50	상황에 적절하게 행동하는 사람일지라도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좋은 시민이 될 수 없다.
51	선거에서 많은 후보자들이 있더라도 지역연고자 또는 고향 출신자에게만 투표해야 한다.
52	우리와 연고가 있는 후보자만이 당선 이후에도 진정 우리를 위해 일할 것이다.
53	만약에 어떤 후보자가 나의 친구나 친인척이라면 그/그녀가 그 일에 최적임자가 아니더라도 그/그녀를 뽑아야 한다.
54	공무원이 공공기관에 사람들을 고용할 때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을 용인할 수 있다.
55	공무원이 정부계약을 그 일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을 용인할 수 있다.



## 제 IV 장

# 청소년역량지표 측정 결과

1.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  
정규성 분석
2.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  
종합분석
3. 2017 청소년 역량지수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분석
4.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결과에  
대한 심층 분석 및 해석



## 제 IV 장 청소년역량지표 측정 결과<sup>11)</sup>

이 연구는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IV: ICCS 2016<sup>12)</sup>’로서 4차 년도 연구과제에 해당된다. 1차 년도 연구과제에서는 청소년 역량지수 구조와 측정문항을 개발하였고, 2차 년도 연구과제는 실제적인 청소년 역량지수를 국가수준에서 측정하였으며, 3차 년도 연구과제에서는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사용의 용이성을 위하여 단축문항을 개발하는 일련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4차 년도 연구과제인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다양한 통계분석방법을 적용하여 그 의미를 해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에 대한 정규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결과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후 청소년 역량지수의 생애주기에 따른 차이분석을 위해 청소년 심리적 요인에 따른 조절효과, 성별 차이 분석, 그리고 학교급별 차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 1.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 정규성 분석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 정규분석은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그리고 대인관계역량의 측정문항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문항-전체간 상관관계, 그리고 신뢰도 계수를 분석하였다.

11) 이 장은 성은모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진성희 교수(한밭대학교), 최효선 박사(서울대학교), 김균희 연구원(인하대학교)이 공동으로 집필하였음.

12) 2017년도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IV: ICCS 2016’ 4차년도 연구에서는 사회참여역량의 국제비교를 위한 ICCS 설문조사가 IEA와 협력하여 실시되기에 국내 사회참여역량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이를 대체하여 청소년의 사회참여역량지수를 측정하였다. 이에 2017 청소년 역량지수 국내조사 결과는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그리고 대인관계역량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 1) 2017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 측정문항 정규성 분석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은 2016년도 개발된 단축문항으로써 사고력 6문항, 지적도구활용 12문항, 학습적응성 6문항 등 총 24문항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1>에 제시하였다.

표 IV-1 2017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측정문항 정규성 분석 결과

역량	하위역량	번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문항-전체 간 상관관계	신뢰도 계수 (Cronbach $\alpha$ )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문_01	3.00	.629	-.260	.554	.610**	.642
		문_02	2.99	.648	-.235	.338	.571**	
		문_03	3.06	.719	-.307	.128	.566**	
	감성적 사고력	문_04	2.79	.858	-.142	-.632	.306**	
		문_05	3.26	.718	-.547	.138	.419**	
		문_06	2.86	.779	-.243	-.170	.244**	
전체			2.99	.436	-.294	.060	-	
지적도구활용능력	언어능력	문_01	2.77	.722	-.048	-.340	.597**	.831
		문_02	2.88	.777	-.164	-.335	.611**	
		문_03	2.68	.957	-.136	-.902	.474**	
	수학능력	문_04	2.76	.890	-.247	-.582	.571**	
		문_05	2.83	.813	-.243	-.335	.642**	
		문_06	2.52	1.048	-.016	-1.073	.516**	
	과학능력	문_07	2.55	.935	.047	-.761	.591**	
		문_08	2.46	.893	.101	-.608	.635**	
		문_09	2.63	.994	-.114	-.910	.563**	
	정보통신활용능력	문_10	3.19	.789	-.745	.257	.544**	
		문_11	2.98	.912	-.512	-.522	.491**	
		문_12	3.11	.934	-.845	-.127	.364**	
전체			2.78	.528	-.288	-.522	-	
학습적응성	변화 수용력	문_01	2.95	.687	-.278	.143	.547**	.741
		문_02	2.54	.781	.196	-.388	.395**	
	지적 호기심	문_03	3.21	.733	-.547	-.067	.520**	
		문_04	3.17	.758	-.466	.029	.508**	
	학습 주도성	문_05	2.61	.847	.084	-.577	.540**	
		문_06	2.93	.817	-.353	-.268	.561**	
전체			2.90	.510	-.234	-.192	-	

\*,  $\alpha < 0.05$ , \*\*,  $\alpha < 0.01$

<표 IV-1>에 의하면, 사고력 역량지수 측정문항의 전체 평균은 2.99(SD=.436)이었으며, 문항 평균 범위는 2.79(SD=.858)~3.26(SD=.718)로 나타났다. 사고력 역량지수 측정문항의 왜도는

-547~-142이고, 첨도는 -.632~.554로 정규성을 확보하였고, 문항-전체 상관관계 계수  $r=.244\sim.610$ ,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신뢰도계수 Cronbach  $\alpha=.642$ 로 나타났다.

지적도구활용 역량지수 측정문항의 전체 평균은 2.78(SD=.528)이었으며, 문항 평균 범위는 2.46(SD=.893)~3.19(SD=.789)로 나타났다. 지적도구활용 역량지수 측정문항의 왜도는 -.845~.101이고, 첨도는 -1.073~.257로 정규성을 확보하였고, 문항-전체 상관관계 계수  $r=.364\sim.642$ ,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신뢰도계수 Cronbach  $\alpha=.831$ 로 나타났다.

학습적응성 역량지수 측정문항의 전체 평균은 2.90(SD=.510)이었으며, 문항 평균 범위는 2.54(SD=.731)~3.21(SD=.733)로 나타났다. 학습적응성 역량지수 측정문항의 왜도는 -.547~-1.196이고, 첨도는 -.577~.143으로 정규성을 확보하였고, 문항-전체 상관관계 계수  $r=.395\sim.561$ ,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신뢰도계수 Cronbach  $\alpha=.642$ 로 나타났다.

## 2) 2017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 측정문항 정규성 분석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에 대한 측정문항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신뢰도 계수는 <표 IV-2>와 같다.

표 IV-2 2017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측정문항 정규성 분석 결과

역량	하위역량	번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문항-전체 간 상관관계	신뢰도 계수 (Cronbach $\alpha$ )
건강관리	위생관리	문10_1	3.17	.782	-.234	1.541	.469	.760
		문10_2	3.57	.670	-.533	6.424	.417	
		문10_3	3.25	.749	-.011	3.484	.485	
	신체관리	문10_4	2.96	.883	.264	2.554	.583	
		문10_5	2.76	.978	.169	.574	.468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문10_6	3.22	.759	.169	4.727	.482	
		문10_7	3.32	.692	-.026	4.164	.502	
		문10_8	3.26	.758	-.496	2.510	.422	
전체			3.19	.492	1.051	12.716	-	
과제관리	목표 및 계획 수립	문11_1	3.03	.732	.320	5.367	.673	.873
		문11_2	3.01	.758	.472	5.484	.720	
		문11_3	3.06	.735	.667	7.944	.672	
	수행 및 평가	문11_4	2.91	.804	.891	7.823	.725	
		문11_5	2.90	.826	.934	7.790	.713	
		문11_6	2.92	.809	.707	6.699	.716	
전체			2.97	.623	1.146	11.934	-	

역량	하위역량	번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문항-전체 간 상관관계	신뢰도 계수 (Cronbach $\alpha$ )
상황대처	중독인식	문12_1	2.46	1.189	.394	-.044	.491	.849
		문12_2	2.64	1.068	.535	1.620	.611	
		문12_3	2.73	1.093	.651	2.668	.584	
	중독행동	문12_4	2.90	1.024	.131	1.422	.670	
		문12_5	2.91	1.045	.075	1.304	.603	
		문12_6	3.26	.928	-.388	2.384	.614	
	폭력행동	문13_1	3.62	.656	-.941	6.176	.448	
		문13_2	3.68	.657	-1.409	6.967	.479	
		문13_3	3.41	.843	-.835	2.710	.478	
	폭력회피	문13_4	3.39	.778	-.132	4.705	.516	
		문13_5	3.16	.950	-.277	1.740	.441	
		문13_6	3.35	.884	-.325	3.655	.435	
전체			3.12	.583	.497	6.601	.854	
정서조절	분노행동	문14_1	2.99	.897	-.187	.507	.524	.763
		문14_2	3.45	.778	-.894	3.006	.533	
	감정절제	문14_3	3.32	.849	-.530	2.666	.595	
		문14_4	2.89	.988	-.107	.518	.508	
	조절실패	문14_5	2.76	.998	.119	.591	.502	
		문14_6	2.78	1.001	.195	1.429	.507	
	감정인식	문14_7	2.82	.930	.103	2.827	.304	
		문14_8	3.07	.876	-.328	2.783	.219	
		문14_9	2.95	.862	-.416	1.232	.178	
전체			3.00	.526	.822	9.455	-	

생활관리역량지수는 크게 건강관리, 과제관리, 상황대처, 정서조절의 네 가지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역량은 2~4개의 하위역량으로 이루어졌다. 즉, 건강관리 8문항(위생관리 3문항, 신체관리 2문항,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3문항), 과제 관리 6문항(목표 및 계획 수립 3문항, 수행 및 평가 3문항), 상황대처 12문항(중독인식 3문항, 중독행동 3문항, 폭력행동 3문항, 폭력회피 3문항), 정서 조절 9문항(분노행동 2문항, 감정절제 2문항, 조절실패 2문항, 감정인식 3문항)의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생활관리역량지수 측정문항의 정규성을 검토한 결과 왜도는 -1.409~.934로 절대값 2 보다 작은 값으로 나타났으며, 첨도는 -.044~7.944로 절대값 8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정규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생활관리역량지수 측정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건강관리 Cronbach's  $\alpha$ =.760, 과제관리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873, 상황대처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849, 그리고 정서조절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763으로 나타나 보편적 문항신뢰도가 확보되었다.

### 3) 2017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 측정문항 정규성 분석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의 세 하위역량을 측정하는 문항에 대한 정규성 분석 결과는 다음 <표 IV-3>과 같다.

표 IV-3 2017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측정문항 정규성 분석 결과

역량	하위역량	번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문항-전체 간 상관관계	신뢰도 계수 (Cronbach $\alpha$ )
진로설계	자기탐색	문4.(1)	3.10	.729	-.457	-.126	.578**	.846
		문4.(2)	3.09	.768	-.528	-.149	.554**	
	직업탐색	문4.(3)	2.69	.886	-.016	-.847	.518**	
		문4.(4)	3.06	.805	-.537	-.250	.575**	
	직업 가치관	문4.(5)	2.75	.830	-.157	-.595	.525**	
		문4.(6)	3.37	.713	-.976	.643	.488**	
	진로준비	문4.(7)	3.26	.738	-.784	.300	.519**	
		문4.(8)	2.97	.841	-.377	-.622	.543**	
		문4.(9)	2.90	.737	-.204	-.356	.526**	
소계			3.03	.541	-	-	-	
여가활용	여가태도	문5.(1)	3.30	.653	-.599	.280	.571**	.866
		문5.(2)	3.49	.585	-.816	.451	.537**	
		문5.(3)	3.32	.700	-.766	.193	.467**	
	여가 유능감	문5.(4)	2.74	.831	-.025	-.728	.547**	
		문5.(5)	3.04	.865	-.507	-.583	.515**	
		문5.(6)	2.74	.846	-.134	-.667	.482**	
	여가만족	문5.(7)	3.29	.706	-.704	.138	.587**	
		문5.(8)	3.12	.742	-.452	-.327	.608**	
	여가몰입	문5.(9)	3.09	.725	-.409	-.223	.610**	
		문5.(10)	3.40	.646	-.821	.511	.536**	
소계			3.16	.510	-	-	-	
개척정신	차별화 태도	문6(1)	2.66	.799	.098	-.620	.501**	.757
		문6(2)	2.70	.775	.056	-.578	.489**	
		문6(3)	2.71	.750	.079	-.540	.394**	
	도전정신	문6(4)	2.92	.808	-.228	-.669	.540**	
		문6(5)	2.89	.810	-.194	-.676	.536**	
		문6(6)	2.57	.879	.073	-.746	.286**	
소계			2.74	.557	-	-	-	

진로설계 역량지수 측정문항 9개의 문항 평균은 3.03(SD=.541)이고 평균의 범위는 2.69(SD=.886)~3.37(SD=.713)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의 정규성 분석결과 왜도는 -.976~-.016이고, 첨도는 -.847~.643으로 나타났다. 문항-전체 간 상관관계 계수의 범위는  $r=.488\sim.578$ 이고 유의수준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진로설계역량 측정문항에 대한 신뢰도 계수는  $\alpha=.846$ 으로 확인되었다.

여가활용능력 역량지수 측정문항 10개의 문항 평균은 3.16(SD=.510)이고, 평균의 범위는 2.74(SD=.831)~3.49(SD=.585)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의 정규성 분석 결과, 왜도는 -.821~-.025이고, 첨도는 -.728~.511로 나타났다. 문항-전체 간 상관관계 계수의 범위는  $r=.467\sim.610$ 이고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여가활용역량 측정문항에 대한 신뢰도 계수는  $\alpha=.866$ 으로 나타났다.

개척정신 역량지수 측정문항 6개의 문항 평균은 2.74(SD=.557)이고, 평균의 범위는 2.57(SD=.879)~2.92(SD=.808)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의 정규성 분석 결과, 왜도는 -.228~.098이고, 첨도는 -.746~-.540으로 나타났다. 문항-전체 간 상관관계 계수의 범위는  $r=.286\sim.540$ 이고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개척정신역량 측정문항에 대한 신뢰도 계수는  $\alpha=.757$ 로 나타났다.

각 문항에 대한 왜도의 절대값은 2이하이고 첨도의 절대값은 7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각 문항의 상관관계 계수 절대값은 .20이상으로 나타나 중간 수준의 효과 크기가 있으며 이는 유의수준  $p<.50$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개발역량을 측정하는 총 25문항에 대한 신뢰도 지수는 .912로 매우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2017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 측정문항 정규성 분석

2017년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는 2016년도 장근영 외(2016)가 청소년역량지수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단축형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 측정문항을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측정문항은 총 29문항으로 관계형성 12문항, 리더십 9문항, 협동 8문항이다. 관계형성은 자기개방성(3문항), 친화성(3문항), 의사소통(3문항), 공감 및 배려(3문항) 등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더십은 의사결정(3문항), 집단활동관리(3문항), 추진력(3문항) 등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협동은 집단추진(3문항), 팔로워십(2문항), 갈등문제해결(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IV-4>에서는 2017년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측정문항에 대한 분석과 정규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했다.

관계형성역량지수 측정문항 12개 문항의 평균은 3.09(SD=.50)이고 평균의 범위는 2.94(SD=.87)~3.22(SD=.6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뢰도 계수는  $\alpha=.887$ 로 확인되었다. 리더십 역량지수

측정문항 9개 문항의 평균은 2.88(SD=.55)이고, 평균의 범위는 2.64(SD=.85)~3.09(SD=.6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뢰도 계수는  $\alpha=.903$ 으로 확인되었다. 협동 역량지수 측정문항 9개 문항의 평균은 3.04(SD=.53)이고, 평균의 범위는 2.91(SD=.71)~3.28(SD=.6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뢰도 계수는  $\alpha=.887$ 로 확인되었다. 한편,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 역량 문항의 정규성 분석 결과, 왜도는  $-.81\sim.01$ 이고, 첨도는  $-.74\sim.62$ 로 나타났다. 즉, 왜도가 절대값 2, 첨도가 절대값 7을 초과하는 문항이 없어 정규성이 확보되었다.

**표 IV-4 2017년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측정문항 정규성 분석 결과**

역량	하위역량	번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신뢰도 계수 (Cronbach $\alpha$ )
관계형성	자기 개방성	문7_1	3.20	0.78	-0.81	0.33	.887
		문7_2	2.94	0.87	-0.46	-0.49	
		문7_3	3.13	0.77	-0.61	0.00	
	친화성	문7_4	2.84	0.86	-0.22	-0.74	
		문7_5	2.97	0.80	-0.42	-0.32	
		문7_6	3.10	0.79	-0.55	-0.21	
	의사소통	문7_7	3.14	0.72	-0.51	0.02	
		문7_8	3.19	0.70	-0.58	0.23	
		문14_9	3.04	0.75	-0.44	-0.12	
	공감 및 배려	문7_10	3.18	0.66	-0.50	0.41	
문7_11		3.12	0.70	-0.44	0.01		
문7_12		3.22	0.64	-0.47	0.40		
전체			3.09	0.50	-0.25	0.43	
리더십	의사결정	문8_1	2.89	0.69	-0.25	0.02	.903
		문8_2	2.97	0.68	-0.34	0.22	
		문8_3	3.09	0.65	-0.44	0.62	
	집단활동 관리	문8_4	2.64	0.85	0.01	-0.69	
		문8_5	2.85	0.73	-0.30	-0.06	
		문8_6	2.79	0.80	-0.19	-0.46	
	추진력	문8_7	2.88	0.71	-0.32	0.02	
문8_8		2.81	0.77	-0.18	-0.41		
전체			2.88	0.55	-0.16	0.47	
협동	집단촉진	문9_1	2.95	0.73	-0.33	-0.13	.887
		문9_2	2.95	0.70	-0.29	-0.04	
		문9_3	2.91	0.71	-0.29	-0.06	
	팔로워십	문9_4	3.28	0.64	-0.52	0.26	
		문9_5	3.16	0.69	-0.48	0.08	
	갈등문제 해결	문9_6	3.03	0.70	-0.38	0.10	
		문9_7	2.96	0.75	-0.36	-0.18	
		문9_8	3.06	0.71	-0.51	0.29	
전체			3.04	0.53	-0.27	0.61	

## 2.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 종합분석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역량 수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도식화하여 청소년 역량군 영역별(전체 평균,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성별(남자, 여자), 학교급별(초등: 초기 청소년, 중등: 중기 청소년, 고등: 중기 청소년, 대학생: 후기 청소년), 학업성취수준별(상, 중, 하), 경제수준별(상, 중, 하), 그리고 지역별(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세종,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을 비교분석하였다.

### 1)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영역별 측정결과 종합분석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전체 평균을 비롯하여 청소년 역량지수 역량군별(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평균 기술통계 분석 결과를 <표 IV-5>에 제시하였으며, 아울러 이를 도식화하여 【그림 IV-1】에 제시하였다.

표 IV-5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전체 측정결과 종합분석 결과

성별	전체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M	SD	M	SD	M	SD	M	SD	M	SD
전체	2.99	.43	2.86	.42	3.08	.39	3.01	.45	3.01	.47
	75%		72%		77%		75%		75%	

<표 IV-5>에 의하면,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전체 평균은 2.99/4.00(SD=.43)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100% 환산하면 7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학습역량 평균은 2.86(SD=.42)이고 72% 수준으로 나타났고, 생활관리역량 평균 3.08(SD=.39)이고 77% 수준이었으며, 진로개발역량 평균은 3.01(SD=.45)로서 75%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역량 평균은 3.01(SD=.47)로서 7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보면,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 생활관리역량이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진로개발역량과 대인관계역량이며, 생애학습역량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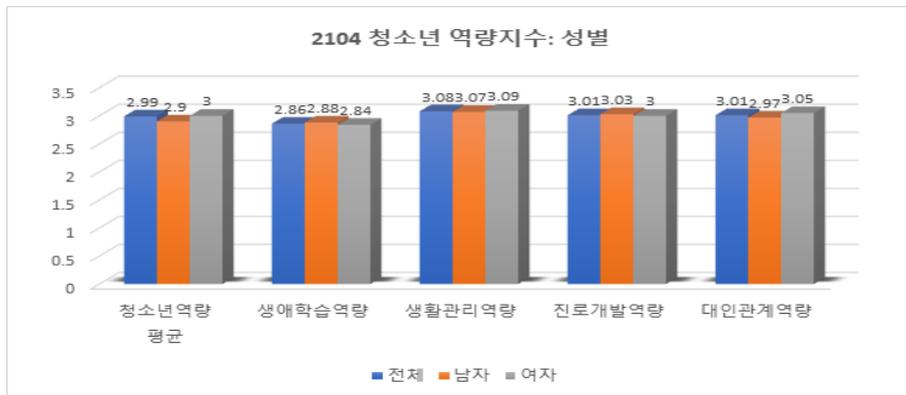
【그림 IV-1】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 종합분석

## 2)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성별 측정결과 종합분석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점수에 있어 성별(남자, 여자)에 따른 평균 기술통계 분석 결과를 <표 IV-6>과 【그림 IV-2】에 제시하였다.

**표 IV-6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성별 측정결과 종합분석 결과**

성별	전체 <sup>13)</sup>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M	SD	M	SD	M	SD	M	SD	M	SD
전체	2.99	.43	2.86	.42	3.08	.39	3.01	.45	3.01	.47
남자	2.99	.45	2.88	.44	3.07	.39	3.03	.47	2.97	.49
여자	3.00	.42	2.84	.40	3.09	.39	3.00	.43	3.05	.45



【그림 IV-2】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성별 측정결과 종합분석

13)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점수에 대한 성별 t-검증 결과,  $t=-.721,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2017 청소년 역량에 있어 남자 청소년 역량과 여자 청소년 역량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에 의하면, 2017 청소년 역량지수 남자 평균은 2.99(SD=.44)이고, 여자 평균은 3.00(SD=.42)로 나타났다. 청소년 역량지수 역량군별로 살펴보면, 생애학습역량지수 남자 평균은 2.88(SD=.44)이고, 여자 평균은 2.84(SD=.40)로 나타나,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생활관리 역량지수 남자 평균은 3.07(SD=.39), 여자 평균은 3.09(SD=.39)로 나타나,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진로개발역량지수 남자 평균은 3.03(SD=.47)이고, 여자 평균은 3.00(SD=.43)으로 나타나,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인관계역량지수 남자 평균은 2.97(SD=.49)이고, 여자 평균은 3.05(SD=.45)로 나타나,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보면,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전체 측정점수는 여자가 남자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하지만, 생애학습역과 진로개발역량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고, 생활관리역량과 대인관계역량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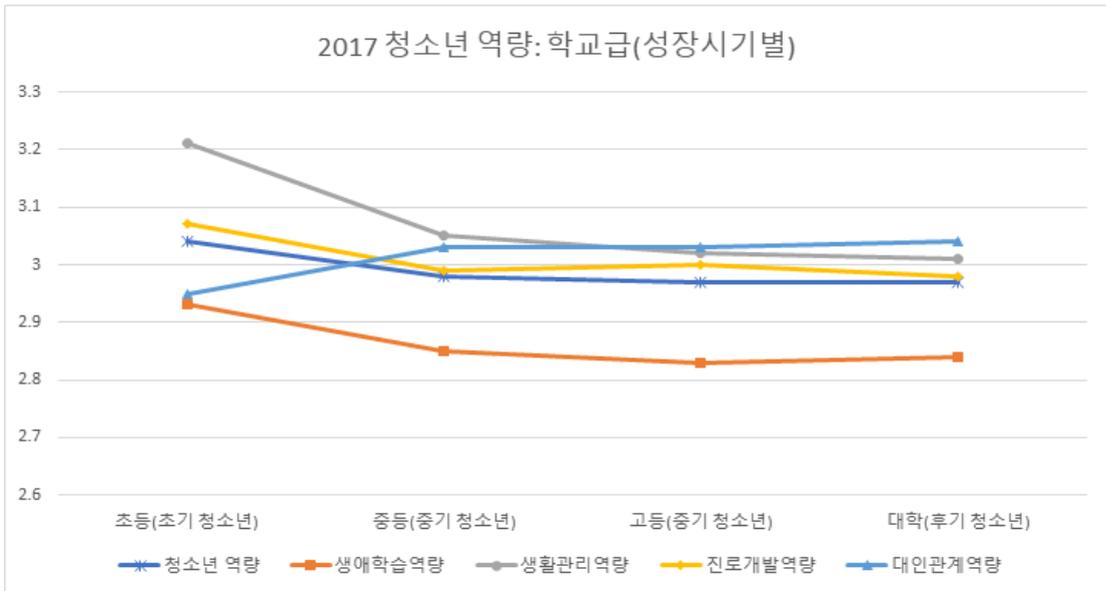
### 3) 2017 청소년 역량지수 학교급별(청소년시기별) 측정결과 종합분석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점수에 있어 학교급별(초등: 초기 청소년, 중등: 중기 청소년, 고등: 중기 청소년, 대학생: 후기 청소년) 기술통계 분석 결과를 <표 IV-7>과 【그림 IV-3】에 제시하였다.

표 IV-7 2017 청소년 역량지수 학교급별(청소년시기별) 측정결과 종합분석 결과

청소년 시기	전체 <sup>14)</sup>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M	SD	M	SD	M	SD	M	SD	M	SD
전체	2.99	.43	2.86	.42	3.08	.39	3.01	.45	3.01	.47
초등(초기 청소년)	3.04	.49	2.93	.48	3.21	.41	3.07	.50	2.95	.55
중등(중기 청소년)	2.98	.43	2.85	.42	3.05	.38	2.99	.44	3.03	.48
고등(중기 청소년)	2.97	.40	2.83	.40	3.02	.35	3.00	.42	3.03	.43
대학(후기 청소년)	2.97	.38	2.84	.34	3.01	.40	2.98	.42	3.04	.36

14)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점수에 대한 학교급별 변량분석(ANOVA) 결과,  $F=22.894$ ,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초등학생이 중고대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림 IV-3】 2017 청소년 역량지수 학교급별(청소년시기별) 측정결과 종합분석**

<표 IV-7>에 의하면,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초등(초기 청소년) 평균은 3.04(SD=.49)이고, 중등(중기 청소년) 평균은 2.98(SD=.43), 고등(중기 청소년) 평균은 2.97(SD=.40), 대학(후기 청소년) 평균은 2.97(SD=.38)로 나타나, 초등이 가장 높고, 그다음 중등이며, 고등과 대학 평균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생애학습역량에 있어서는 초등(초기 청소년) 평균이 2.93(SD=.48)이고, 중등(중기 청소년) 평균은 2.85(SD=.42), 고등(중기 청소년) 평균은 2.83(SD=.40), 대학(후기 청소년) 평균은 2.84(SD=.34)로 나타나, 초등이 가장 높고, 고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생활관리역량에 있어서는 초등(초기 청소년) 평균이 3.08(SD=.39)이고, 중등(중기 청소년) 평균은 3.21(SD=.41), 고등(중기 청소년) 평균은 3.05(SD=.35), 대학(후기 청소년) 평균은 3.01(SD=.40)로 나타나, 중등이 가장 높고, 대학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개발역량에 있어서는 초등(초기 청소년) 평균이 3.07(SD=.50)이고, 중등(중기 청소년) 평균은 2.99(SD=.44), 고등(중기 청소년) 평균은 3.00(SD=.42), 대학(후기 청소년) 평균은 2.98(SD=.42)로 나타나, 초등이 가장 높고 대학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대인관계역량에 있어서는 초등(초기 청소년) 평균이 2.95(SD=.55)이고, 중등(중기 청소년) 평균은 3.03(SD=.48), 고등(중기 청소년) 평균은 3.03(SD=.43), 대학(후기 청소년) 평균은 3.04(SD=.36)로 나타나, 대학이 가장 높고 초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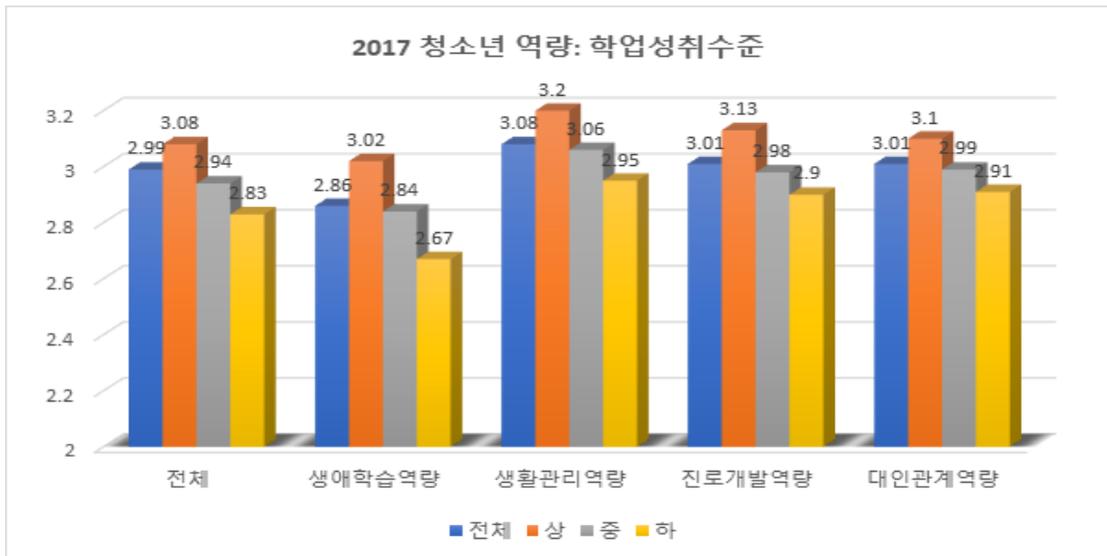
이를 종합하여 보면,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점수는 학교급별(청소년시기별) 초등학생시기가 가장 높게 나왔고 중학생시기에 낮아지며, 고등학생과 대학생 시기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그리고 진로개발역량의 점수는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으나 대인관계역량은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4) 2017 청소년 역량지수 학업성취수준 측정결과 종합분석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점수에 있어 학업성취수준별(상, 중, 하) 기술통계 분석 결과를 <표 IV-8>과 【그림 IV-4】에 제시하였다.

표 IV-8 2017 청소년 역량지수 학업성취수준별 측정결과 종합분석 결과

학업성취수준	전체 <sup>15)</sup>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M	SD	M	SD	M	SD	M	SD	M	SD
전체	2.99	.43	2.86	.42	3.08	.39	3.01	.45	3.01	.47
상	3.08	.44	3.02	.42	3.20	.40	3.13	.46	3.10	.49
중	2.94	.41	2.84	.38	3.06	.37	2.98	.43	2.99	.45
하	2.83	.42	2.67	.41	2.95	.35	2.90	.45	2.91	.46



【그림 IV-4】 2017 청소년 역량지수 학업성취수준별 측정결과 종합분석

15)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점수에 대한 학업성취수준별 변량분석(ANOVA) 결과,  $F=399.458$ ,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분석 결과, 학업성취 수준이 상/중/하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V-8>에 의하면, 2017 청소년 역량지수 학업성취수준별 상수준 평균은 3.08(SD=.44)이고, 중수준 평균은 2.94(SD=.41), 하수준 평균은 2.83(SD=.42)로 나타나, 학업성취수준이 높은 청소년이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생애학습역량지수 상수준 평균은 3.02(SD=.42)이고, 중수준 평균은 2.84(SD=.38), 하수준 평균은 2.67(SD=.41)로 나타나, 학업성취수준이 높은 청소년이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 측정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생활관리역량지수 상수준 평균은 3.20(SD=.40)이고, 중수준 평균은 3.06(SD=.37), 하수준 평균은 2.95(SD=.35)로 나타나, 학업성취수준이 중하 수준 청소년이 상수준의 청소년보다 생활관리역량지수 측정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진로개발역량지수 상수준 평균은 3.13(SD=.46)이고, 중수준 평균은 2.98(SD=.43), 하수준 평균은 2.90(SD=.45)로 나타나, 학업성취수준이 높은 청소년이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 측정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대인관계역량 상수준 평균은 3.10(SD=.49)이고, 중수준 평균은 2.99(SD=.45), 하수준 평균은 2.91(SD=.46)로 나타나, 학업성취수준이 높은 청소년이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 측정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보면, 2017 청소년 역량지수에 있어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그리고 대인관계역량지수 측정점수는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 5) 2017 청소년 역량지수 경제수준별 측정결과 종합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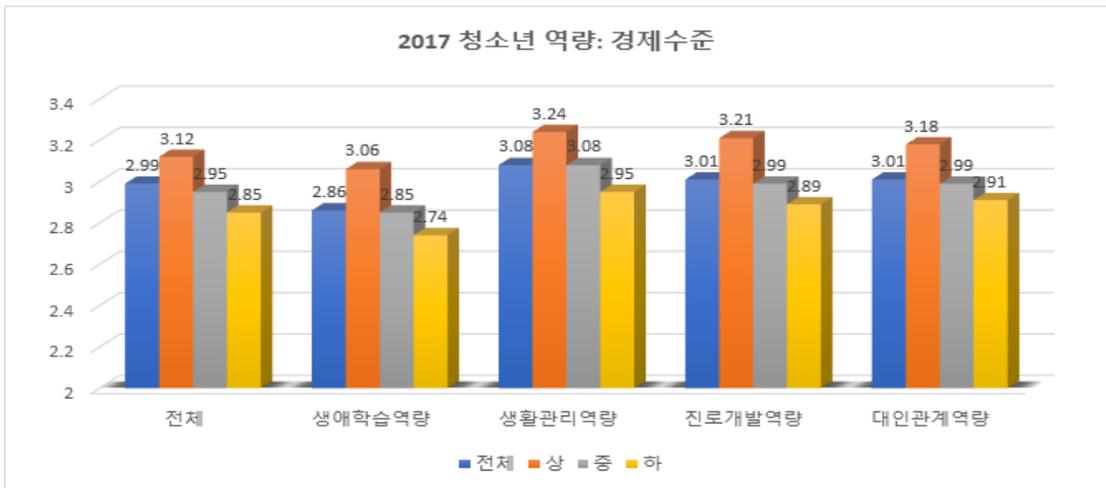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점수에 있어 경제수준별(상, 중, 하) 기술통계 분석 결과를 <표 IV-9>과 【그림 IV-5】에 제시하였다.

**표 IV-9 2017 청소년 역량지수 경제수준별 측정결과 종합분석 결과**

경제수준	전체 <sup>16)</sup>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M	SD	M	SD	M	SD	M	SD	M	SD
전체	2.99	.43	2.86	.42	3.08	.39	3.01	.45	3.01	.47
상	3.12	.45	3.06	.45	3.24	.42	3.21	.44	3.18	.50
중	2.95	.42	2.85	.40	3.08	.38	2.99	.44	2.99	.45
하	2.85	.43	2.74	.43	2.95	.35	2.89	.45	2.91	.49

<표 IV-8>에 의하면, 2017 청소년 역량지수 경제수준별 상수준 평균은 3.12(SD=.45)이고, 중수준 평균은 2.95(SD=.42), 하수준 평균은 2.85(SD=.43)로 나타나, 경제수준이 높은 청소년이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생애학습역량지수 상수준 평균은 3.06(SD=.45)이고, 중수준 평균은 2.85(SD=.40), 하수준 평균은 2.74(SD=.43)로 나타나, 경제수준이 높은 청소년이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 측정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IV-5】 2017 청소년 역량지수 경제수준별 측정결과 종합분석

생활관리역량지수 상수준 평균은 3.24(SD=.42)이고, 중수준 평균은 3.08(SD=.38), 하수준 평균은 2.95(SD=.35)로 나타나, 경제수준이 높은 청소년이 생활관리역량지수 측정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진로개발역량지수 상수준 평균은 3.21(SD=.44)이고, 중수준 평균은 2.99(SD=.44), 하수준 평균은 2.89(SD=.45)로 나타나, 경제수준이 높은 청소년이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 측정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대인관계역량 상수준 평균은 3.18(SD=.50)이고, 중수준 평균은 2.99(SD=.45), 하수준 평균은 2.91(SD=.49)로 나타나, 경제수준이 높은 청소년이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 측정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보면, 2017 청소년 역량지수에 있어 경제수준이 높은 청소년이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그리고 대인관계역량 지수 측정점수가 모두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16)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점수에 대한 경제수준별 변량분석(ANOVA) 결과,  $F=307.550$ ,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분석 결과, 경제 수준이 상)중)하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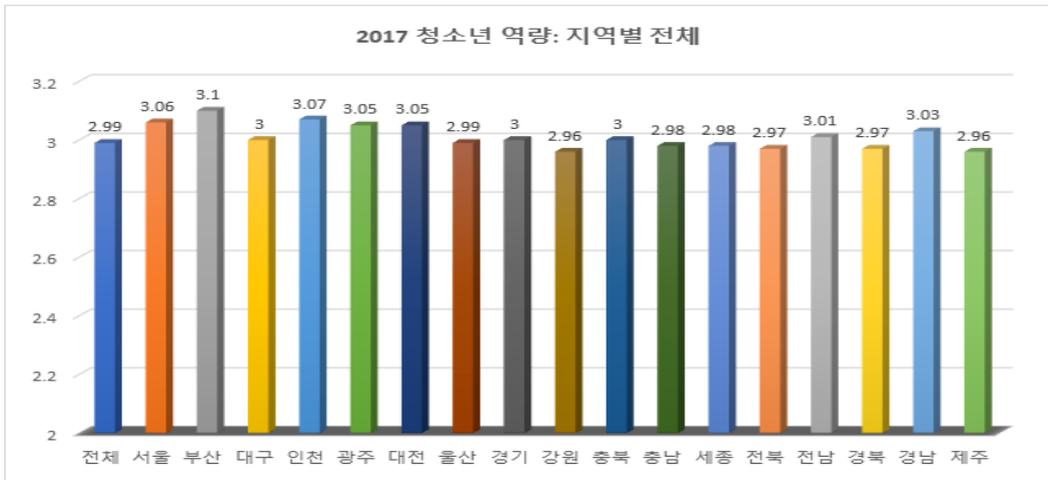
## 6)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지역별 측정결과 종합분석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점수에 있어 지역별(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세종,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술통계 분석 결과를 <표 IV-10>과 【그림 IV-6】 ~ 【그림 IV-10】에 제시하였다.

표 IV-10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지역별 측정결과 종합분석 결과<sup>17)</sup>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세종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전체	3.06	3.10	3.00	3.07	3.05	3.05	2.99	3.00	2.96	3.00	2.98	2.98	2.97	3.01	2.97	3.03	2.96	2.99
생애 학습	2.90	2.94	2.82	2.89	2.92	2.91	2.83	2.86	2.78	2.85	2.84	2.85	2.78	2.86	2.83	2.88	2.81	2.86
생활 관리	3.21	3.27	3.19	3.23	3.26	3.21	3.15	3.16	3.18	3.11	3.18	3.14	3.13	3.18	3.11	3.21	3.10	3.08
진로 개발	3.06	3.08	2.98	3.07	3.04	3.04	2.98	3.00	2.95	3.02	2.96	2.91	3.03	3.01	2.97	3.00	2.98	3.00
대인 관계	3.07	3.12	3.00	3.07	2.97	3.04	3.00	2.99	2.94	3.03	2.92	3.00	2.94	3.00	2.95	3.03	2.96	3.00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지역별 전체 평균은 부산 평균이 3.1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서울, 인천, 대전, 광주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강원과 제주 평균이 2.9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전북, 경북, 충남, 세종, 울산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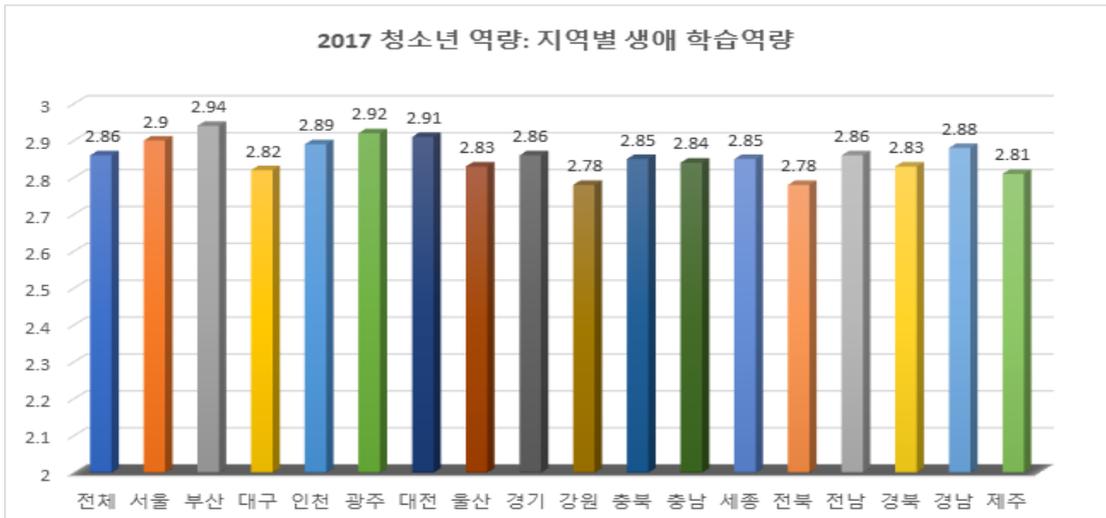


【그림 IV-6】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지역별 측정결과 종합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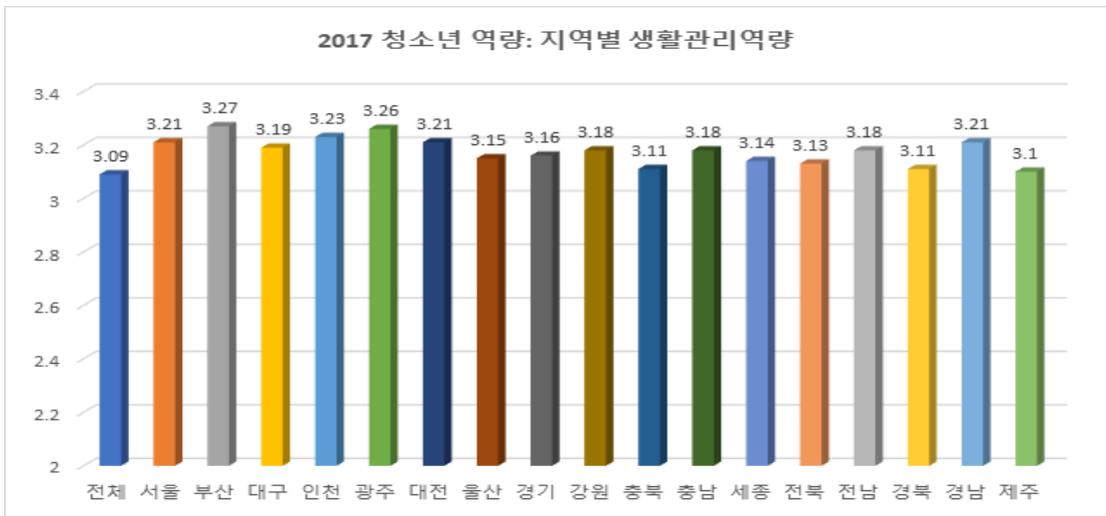
17)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점수에 대한 지역별 변량분석(ANOVA) 결과,  $F=7.055$ ,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분석 결과, 부산, 서울, 인천, 대전 지역 청소년 역량이 강원, 전북, 대구 지역 청소년 역량 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생애학습역량지수 측정점수에 있어서는 부산 평균이 2.9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광주 평균이 2.92, 대전 평균이 2.91로 나타났다. 한편, 강원과 전북 평균이 2.78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제주 평균이 2.81, 대구 평균이 2.82로 낮게 나타났다.

생활관리역량지수 측정점수에 있어서는 부산 평균이 3.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광주 평균이 3.26, 인천 평균이 3.23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주 평균이 3.1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충북과 경북 평균이 3.1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림 IV-7】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지역별 생애학습역량 측정결과 종합분석



【그림 IV-8】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지역별 생활관리역량 측정결과 종합분석

진로개발역량지수 측정점수에 있어서는 부산 평균이 3.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인천 평균이 3.07, 서울 평균이 3.06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종 평균이 2.91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제주 평균이 2.95, 충남 평균이 2.96으로 낮게 나타났다.

대인관계역량지수 측정점수에 있어서는 부산 평균이 3.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서울과 인천 평균이 3.07, 대전 평균이 3.04로 나타났다. 한편, 충남 평균이 2.92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강원과 전북 평균이 2.94, 경북 평균이 2.95로 낮게 나타났다.



【그림 IV-9】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지역별 진로개발역량 측정결과 종합분석



【그림 IV-10】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지역별 대인관계역량 측정결과 종합분석

### 3. 2017 청소년 역량지수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분석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와 종합분석에 따른 평균의 차이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청소년 역량지수 역량군 영역별로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청소년 역량지수 역량군 영역별(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하위역량에 대한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즉, 성별(남자, 여자), 학교급별(초등: 초기 청소년, 중등: 중기 청소년, 고등: 중기 청소년, 대학생: 후기 청소년), 학업성취수준별(상, 중, 하), 경제수준별(상, 중, 하), 그리고 지역별(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세종,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차이를 t-검증 및 F-검증을 통해 분석하였다.

#### 1) 2017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 측정결과 차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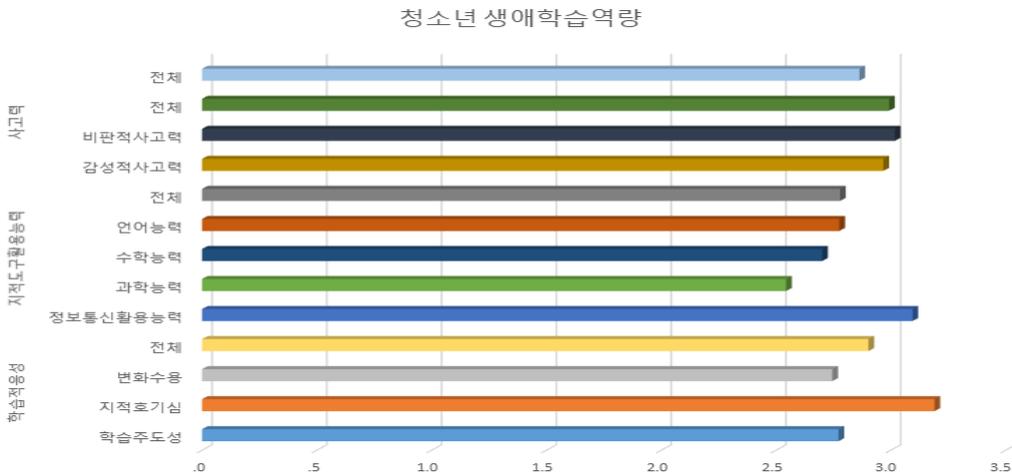
##### (1) 2017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은 사고력, 지적도구활용능력, 학습적응성 역량이 구성되었다. 사고력은 비판적사고력, 감성적사고력으로, 지적도구사용능력은 언어·수학·과학·정보통신활용능력, 학습적응성은 변화수용, 지적호기심, 학습주도성으로 하위역량이 구성되어 있다. 이에 대한 기초통계 결과는 <표 IV-11>과 같으며, 【그림 IV-11】로 제시하였다.

청소년의 생애학습역량 평균은 2.86(SD=.42)로 확인되었다. 사고력은 2.99(SD=.44), 지적도구활용능력은 2.78(SD=.53), 학습적응성은 2.90(SD=.51)로 나타났다. 세부역량별 기초통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비판적사고력의 경우 3.02(SD=.53), 감성적사고력의 경우 2.97(SD=.53)으로 확인되었다. 언어능력은 2.78(SD=.62), 수학능력은 2.70(SD=.75), 과학능력은 2.54(SD=.80), 정보통신활용능력은 3.09(SD=.70)으로 나타났다. 학습적응성의 하위역량인 변화수용은 2.75(SD=.59), 지적호기심은 3.19(SD=.62), 학습주도성은 2.77(SD=.51)로 나타났다.

표 IV-11 2017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기술통계분석 결과

역량군	역량	하위역량	M	SD
생애학습역량	전체		2.86	.42
	사고력	비판적사고력	3.02	.53
		감성적사고력	2.97	.53
		전체	2.99	.44
	지적도구활용능력	언어능력	2.78	.62
		수학능력	2.70	.75
		과학능력	2.54	.80
		정보통신활용능력	3.09	.70
		전체	2.78	.53
	학습적응성	변화수용	2.75	.59
		지적호기심	3.19	.62
		학습주도성	2.77	.72
		전체	2.90	.51



【그림 IV-11】2017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평균 점수 비교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중에서는 사고력 역량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학습적응성, 지적도구활용능력 순으로 확인되었다. 하위역량 중에서 가장 높은 평균을 보인 것은 지적호기심(M=3.19, SD=.62) 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정보통신활용능력, 비판적 사고력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생애학습역량군의 역량별로 비교하면, 사고력 역량에서는 비판적사고력이 감성적사고력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지적도구활용능력에서는 정보통신활용능력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언어능력, 수학능력, 과학능력 순으로 확인되었다. 학습적응성 역량에서는 지적호기심이 가장 높고 학습주도성과 변화수용 순이었다.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하위역량에 따라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특성에 따른 생애학습역량 차이 분석을 위해 먼저 하위역량 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고력, 지적도구활용능력, 학습적응력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표 IV-12>와 같다. 하위역량사이에는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하위역량에 따른 세부역량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13>과 같다. 9개의 하위 역량인 비판적 사고력, 감성적 사고력, 언어능력, 수학능력, 과학능력, 정보통신활용능력, 변화수용력, 지적호기심, 학습주도성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V-12 2017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하위역량 상관관계 분석**

역량	1	2	3
1. 사고력			
2. 지적도구활용능력	.548**		
3. 학습적응성	.497**	.550**	

\*,p<0.05, \*\*,p<0.01

**표 IV-13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 하위역량의 세부역량 상관관계 분석**

하위역량	1	2	3	4	5	6	7	8	9
1. 비판적 사고력									
2. 감성적 사고력	.353**								
3. 언어능력	.553**	.318**							
4. 수학능력	.433**	.190**	.431**						
5. 과학능력	.388**	.187**	.405**	.544**					
6. 정보통신활용능력	.362**	.257**	.380**	.302**	.245**				
7. 변화수용력	.372**	.252**	.375**	.280**	.286**	.288**			
8. 지적호기심	.378**	.258**	.398**	.306**	.330**	.239**	.437**		
9. 학습주도성	.443**	.223**	.411**	.336**	.350**	.237**	.401**	.449**	

\*,p<0.05, \*\*,p<0.01

(2)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특성에 따른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차이 분석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가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t-검증과 F검증을 실시하였다.

① 2017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차이 분석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전체 조사결과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차이 분석 결과는 <표 IV-14>와 같다.

표 IV-14

청소년의 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른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차이분석

구분		사례수	생애학습역량		역량					
					사고력		지적도구활용능력		학습적응성	
			M	(SD)	M	(SD)	M	(SD)	M	(SD)
전체		10,087	2.86	.42	2.99	.44	2.78	.53	2.90	.51
성별	남	5,216	2.88	.44	2.98	.46	2.81	.55	2.93	.53
	여	4,871	2.84	.40	3.00	.41	2.75	.50	2.87	.48
	합		5.028**		-2.321**		6.190**		5.925**	
학교급	초등(초기 청소년)(①)	2,836	2.93	.48	3.02	.50	2.86	.58	2.97	.56
	중등(중기 청소년)(②)	2,710	2.85	.42	3.00	.44	2.76	.52	2.88	.50
	고등(중기 청소년)(③)	3,500	2.83	.40	2.97	.40	2.74	.51	2.87	.48
	대학(후기 청소년)(④)	1,041	2.84	.34	2.98	.36	2.74	.44	2.88	.50
	합		30.155**		7.640**		28.270**		25.523**	
			①>②,③,④		①>③,④		①>②,③,④		①>②,③,④	
학업 성취도 수준	상(①)	3,625	3.02	.42	3.09	.45	2.99	.50	3.03	.52
	중(②)	3,835	2.84	.38	2.97	.40	2.75	.48	2.87	.48
	하(③)	2,392	2.67	.41	2.90	.44	2.52	.51	2.77	.49
	합		556.005**		153.384**		652.265**		220.544**	
			①>②>③		①>②>③		①>②>③		①>②>③	
경제적 수준	상(①)	1,666	3.06	.45	3.13	.49	3.01	.55	3.08	.52
	중(②)	6,820	2.85	.40	2.98	.41	2.76	.50	2.88	.50
	하(③)	1,583	2.74	.43	2.91	.45	2.62	.53	2.80	.50
	합		257.320**		117.699**		241.925**		136.128**	
			①>②>③		①>②>③		①>②>③		①>②>③	
17개 시도	서울(①)	1,501	2.90	.41	3.02	.42	2.81	.52	2.94	.50
	부산(②)	599	2.94	.43	3.05	.45	2.86	.51	2.97	.51
	대구(③)	499	2.82	.40	2.97	.44	2.72	.49	2.85	.48
	인천(④)	485	2.89	.43	3.02	.43	2.79	.54	2.96	.49
	광주(⑤)	565	2.92	.42	3.03	.43	2.84	.51	2.94	.49
	대전(⑥)	370	2.91	.41	3.01	.50	2.85	.51	2.91	.46
	울산(⑦)	359	2.83	.40	2.97	.35	2.73	.52	2.88	.45
	경기(⑧)	2,568	2.86	.45	2.99	.46	2.77	.56	2.89	.53
	강원(⑨)	308	2.78	.41	2.92	.41	2.68	.50	2.84	.58
	충북(⑩)	395	2.85	.40	2.97	.39	2.77	.50	2.90	.48
	충남(⑪)	290	2.84	.51	2.97	.57	2.76	.61	2.90	.69
	세종(⑫)	69	2.85	0.5	2.99	0.52	2.77	0.53	2.89	0.59
	전북(⑬)	334	2.78	.38	2.95	.40	2.67	.48	2.84	.46
	전남(⑭)	378	2.86	.46	3.00	.50	2.78	.56	2.89	.56
	경북(⑮)	532	2.83	.38	2.96	.37	2.74	.49	2.87	.44
	경남(⑯)	520	2.88	.39	3.01	.40	2.79	.48	2.91	.45
	제주(⑰)	315	2.81	.37	2.94	.39	2.73	.46	2.84	.46
		합		5.283**		3.078**		4.814**		3.297**
			①>②,⑤,⑥>⑨,⑬		②,⑤>⑨		②,⑤,⑥>⑨,⑬			

\*,p<0.05, \*\*,p<0.01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남자청소년의 경우 평균 2.88(SD=.44), 여자청소년은 2.84(SD=.40)으로 나타났다. 남녀의 차이는  $t=5.028$ ,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역량별 남녀 차이를 보면 사고력 역량은 남자청소년은 2.89(SD=.46), 여자청소년은 3.00(SD=.41)으로 나타나 여자청소년이 높았으며, 이 차이는  $t=-0.321$ ,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적도구활용능력과 학습적응성이 남자청소년이 높게 나타난 것과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지적도구활용능력은 남자청소년이 2.81(SD=.55), 여자청소년은 2.75(SD=.50), 학습적응성은 남자청소년 2.93(SD=.53), 여자청소년 2.87(SD=.48)로 확인되었다. 두 역량의 남녀 차이 모두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학습역량의 학교급별 차이를 초등(초기 청소년①), 중등(중기 청소년②), 고등(중기 청소년③), 대학(후기 청소년④)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평균을 학교급별로 확인하면, 초등학생은 2.93(SD=.48), 중학생은 2.85(SD=.42), 고등학생은 2.83(SD=.40), 대학생은 2.98(SD=.34)이다. 초등학생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F=30.155$ ,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도 수준별(상 ①, 중 ②, 하 ③) 차이를 보면 생애학습역량을 전체적으로 보면, 학업성취도가 상 수준 청소년의 평균은 3.02(SD=.42), 중 수준의 청소년은 2.84(SD=.38), 하 수준의 청소년은 2.67(SD=.41)로 나타났으며,  $F=556.005$ ,  $p<.01$  수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역량별로는 사고력의 경우, 상 수준 청소년 평균은 3.09(SD=.45), 중 수준은 2.97(SD=.40), 하 수준은 2.90(SD=.44)로 확인된다. 지적도구활용능력은 상 수준의 청소년은 2.99(SD=.50), 중 수준의 청소년 평균은 2.75(SD=.48), 하 수준의 청소년은 2.52(SD=.51)이었으며, 학습적응성은 상, 중, 하 각각 3.03(SD=.52), 2.87(SD=.48), 2.77(SD=.49)로 확인되었다. 세 가지 하위역량인 사고력, 지적도구활용능력, 학습적응성의 학업성취도 수준별 차이는 성적이 상 수준의 청소년이 중수준의 청소년보다, 중 수준의 청소년이 하 수준의 청소년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상(①), 중(②), 하(③)로 구분하여 통계적 차이를 분석하면 생애학습역량 평균은 상 수준인 경우 평균은 3.06(SD=.45), 중 수준은 2.85(SD=.40), 하 수준은 2.74(SD=.43)으로 나타났다.  $F=257.320$ ,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사고력은 경제적

수준이 '상'인 경우 3.13(SD=.45), '중'은 2.97(SD=.40), '하'는 2.90(SD=.44)였으며, 지적도구활용능력은 각각 2.99(SD=.50), 2.75(SD=.48), 2.52(SD=.51), 학습적응성은 3.03(SD=.52), 2.87(SD=.48), 2.77(SD=.49)로 나타났다. 세 가지 역량 모두에서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는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사후분석 결과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각 역량이 높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생애학습역량의 지역별 차이를 보면 부산 평균이 2.94(SD=.43), 광주 2.92(SD=.42), 대전 2.91(SD=.41)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북과 강원이 평균 2.7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생애학습역량의 지역별 차이는  $F=5.283$ ,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사후분석 결과,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지역이 강원 전북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고력의 지역별 차이는 부산이 평균 3.05(SD=.45), 광주(3.03, SD=.43), 서울(3.02, SD=.42), 인천(3.02, SD=.43)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F=3.078$ ,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후분석 결과 부산과 광주가 강원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적도구활용능력은 부산(2.86, SD=.51), 대전(2.85, SD=.51), 광주(2.84, SD=.51) 순으로 높은 평균이 나타났고,  $F=4.814$ ,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후분석결과 부산, 광주, 대전 지역이 강원과 전북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적응성은 부산이 평균 2.97(SD=.51), 인천(2.96, SD=.49), 광주(2.94, SD=.49), 서울(2.94, SD=.5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② 2017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사고력 역량 차이 분석

청소년의 생애학습역량 중 사고력 역량에 대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사고력 역량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표 IV-15>과 같다.

표 IV-15 2017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사고력 역량 차이분석

구분		사례수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감성적 사고력	
			M	(SD)	M	(SD)
전체		10,087	3.02	.53	2.97	.53
성별	남	5,216	3.03	.55	2.93	.56
	여	4,871	3.00	.51	3.00	.49
	합		2.833**		-6.713**	
학교급	초등(초기 청소년)(①)	2,836	3.04	.58	3.01	.59
	중등(중기 청소년)(②)	2,710	3.01	.55	2.99	.52
	고등(중기 청소년)(③)	3,500	3.01	.50	2.93	.49
	대학(후기 청소년)(④)	1,041	3.03	.45	2.93	.46
	합		2.154		12.939** ①,②,③,④	
학업 성취도 수준	상(①)	3,625	3.17	.54	3.01	.56
	중(②)	3,835	2.98	.50	2.95	.50
	하(③)	2,392	2.86	.52	2.94	.52
	합		271.819** ①>②>③		16.341** ①>②,③	
경제적 수준	상(①)	1,666	3.21	.57	3.05	.60
	중(②)	6,820	3.00	.51	2.96	.50
	하(③)	1,583	2.91	.55	2.92	.54
	합		155.751** ①>②>③		28.567** ①>②,③	
17개 시도	서울(①)	1,501	3.07	.52	2.97	.53
	부산(②)	599	3.07	.52	3.02	.55
	대구(③)	499	2.98	.55	2.96	.50
	인천(④)	485	3.05	.55	2.99	.51
	광주(⑤)	565	3.05	.53	3.02	.54
	대전(⑥)	370	3.07	.54	2.94	.66
	울산(⑦)	359	2.99	.47	2.95	.43
	경기(⑧)	2,568	3.01	.55	2.96	.55
	강원(⑨)	308	2.91	.47	2.92	.51
	충북(⑩)	395	3.00	.52	2.93	.46
	충남(⑪)	290	3.01	.65	2.93	.65
	세종(⑫)	69	3.02	.60	2.95	.57
	전북(⑬)	334	2.97	.50	2.92	.48
	전남(⑭)	378	3.01	.58	2.99	.56
	경북(⑮)	532	2.98	.48	2.94	.45
	경남(⑯)	520	3.03	.49	2.99	.47
	제주(⑰)	315	2.90	.47	2.98	.48
합		4.210** ①,②,③,⑤,⑨,⑰		1.549		

\*,p<0.05, \*\*,p<0.01

먼저 남녀의 특성 차이를 보면 비판적 사고력은 남자청소년 평균이 3.03(SD=.53), 여자청소년의 경우 3.03(SD=.51)으로 확인되었다. 여자청소년보다 남자청소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t=2.833$ ,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인 것으로 확인된다. 감성적사고력의 평균은 남자청소년이 2.93(SD=.56), 여자청소년은 3.00(SD=.49)로 여자청소년이 더 높았다.

학교급별 차이를 보면, 비판적사고력의 초등학생 평균은 3.04(SD=.58), 중학생은 3.01(SD=.55), 고등학생은 3.01(SD=.50), 대학생은 3.03(SD=.45)로 확인되었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감성적 사고력은 초등학생이 3.01(SD=.59), 중학생 2.99(SD=.52), 고등학생 2.93(SD=.49), 대학생 2.93(SD=.46)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고등학생과 대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F=12.939$ ,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로 확인된다.

학업성취도 수준별 차이를 보면 '상' 수준의 청소년의 비판적 사고력 역량 평균이 3.17(SD=.54), '중' 수준 청소년은 2.98(SD=.50), '하' 수준 청소년은 2.86(SD=.52)로 나타났다. 이는  $F=281.819$ ,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된다. 감성적 사고력은 상, 중, 하 수준의 학업성취도인 청소년 각각 3.01(SD=.56), 2.95(SD=.50), 2.94(SD=.52)로 나타났으며,  $F=16.341$ ,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후분석 결과 학업성취도 수준이 '상'인 청소년이 '중', '하' 수준의 청소년보다 높은 감성적 사고력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제적 수준 차이의 경우, 비판적 사고력 역량 평균은 경제적 수준이 상, 중, 하에 따라 각각 3.21(SD=.57), 3.00(SD=.51), 2.91(SD=.55)로 나타났으며  $F=155.751$ ,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된다. 감성적 사고력은 상, 중, 하에 따라 각각 3.05(SD=.60), 2.96(SD=.50), 2.92(SD=.54)였으며 경제적 수준이 '상'인 청소년이 '중', '하' 수준의 경우 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F=28.567$ ,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를 보면 서울과 부산, 대전지역 청소년의 비판적 사고력 평균이 3.07로 높게 나타났다. 비판적 사고력의 지역별 차이는  $F=4.210$ ,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후분석 결과 서울, 부산, 대구, 광주지역이 강원, 제주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감성적 사고력은 부산, 광주 지역 청소년의 평균이 3.02였고, 전북, 강원 지역이 2.92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감성적 사고력의 지역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 ③ 2017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지적도구활용 역량 차이 분석

지적도구활용 역량의 하위역량인 언어능력, 수학능력, 과학능력, 정보통신활용능력 별로 인구통계학적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16>과 같다.

표 IV-16 2017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지적도구활용 역량 차이분석

구분		사례수	지적도구활용능력							
			언어능력		수학능력		과학능력		정보통신활용능력	
			M	(SD)	M	(SD)	M	(SD)	M	(SD)
전체		10,087	2.78	.62	2.70	.75	2.54	.80	3.09	.70
성별	남	5,216	2.73	.65	2.78	.76	2.69	.80	3.05	.72
	여	4,871	2.83	.58	2.62	.73	2.39	.79	3.14	.68
	f값		-8.579**		10.646**		18.749**		-6.320**	
학교급	초등(초기 청소년)①	2,836	2.85	.69	2.90	.75	2.76	.79	2.91	.82
	중등(중기 청소년)②	2,710	2.75	.61	2.69	.74	2.46	.79	3.16	.66
	고등(중기 청소년)③	3,500	2.73	.59	2.58	.74	2.45	.82	3.19	.63
	대학(후기 청소년)④	1,041	2.79	.51	2.59	.66	2.50	.74	3.10	.61
	f값		21.688**		111.269**		95.381**		102.305**	
			①)④		①)②)③,④		①)②,③,④		②,③)④)①	
학업 성취도 수준	상①	3,625	2.95	.63	3.05	.67	2.80	.78	3.14	.73
	중②	3,835	2.76	.58	2.63	.70	2.50	.77	3.13	.68
	하③	2,392	2.55	.60	2.30	.70	2.23	.78	2.99	.69
	f값		316.435**		909.360**		398.478**		40.658**	
			①)②)③		①)②)③		①)②)③		①,②)③	
경제적 수준	상①	1,666	3.00	.65	3.03	.76	2.81	.85	3.19	.74
	중②	6,820	2.75	.60	2.68	.71	2.52	.78	3.08	.69
	하③	1,583	2.63	.63	2.45	.75	2.37	.80	3.05	.72
	f값		163.817**		273.969**		137.170**		18.406**	
			①)②)③		①)②)③		①)②)③		①)②,③	
17개 시도	서울①	1,501	2.82	.61	2.72	.75	2.54	.82	3.16	.67
	부산②	599	2.86	.60	2.75	.70	2.60	.78	3.23	.68
	대구③	499	2.74	.59	2.67	.67	2.40	.78	3.08	.71
	인천④	485	2.83	.64	2.66	.77	2.57	.81	3.12	.72
	광주⑤	565	2.83	.64	2.84	.73	2.73	.79	2.98	.71
	대전⑥	370	2.77	.61	2.81	.75	2.69	.81	3.13	.63
	울산⑦	359	2.70	.59	2.62	.71	2.50	.78	3.09	.67
	경기⑧	2,568	2.76	.65	2.71	.78	2.57	.83	3.06	.74
	강원⑨	308	2.73	.62	2.55	.71	2.38	.74	3.06	.73
	충북⑩	395	2.77	.57	2.73	.73	2.49	.80	3.11	.67
	충남⑪	290	2.77	.70	2.72	.82	2.50	.84	3.03	.80
	세종⑫	69	2.79	.68	2.68	.72	2.63	.78	2.97	.64
	전북⑬	334	2.71	.55	2.54	.72	2.36	.77	3.08	.68
	전남⑭	378	2.80	.63	2.64	.76	2.57	.88	3.09	.71
	경북⑮	532	2.70	.57	2.64	.72	2.56	.74	3.06	.70
	경남⑯	520	2.76	.59	2.73	.70	2.55	.73	3.13	.63
	제주⑰	315	2.76	.55	2.63	.68	2.40	.75	3.12	.64
		f값		2.976**		4.949**		6.876**		4.437**
			②,⑤,⑥)⑨,⑬		⑤)⑦,⑭,⑮,⑰)⑨,⑬		⑤,⑥,⑫)③,⑨,⑬,⑰		①)⑫	

\*,p<0.05, \*\*,p<0.01

먼저 남녀 차이를 보면 언어능력의 경우 남자청소년은 2.73(SD=.65), 여자청소년은 2.83(SD=.58)으로 여자청소년이 높게 나타났으며,  $t=8.579$ ,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활용능력의 경우도 남자청소년이 3.05(SD=.72), 여자청소년이 3.14(SD=.68)로 여자청소년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t=-6.320$ ,  $p<.01$ ). 수학능력과 과학능력의 경우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된다.

학교급별 차이를 보면, 언어능력은 초등학생 2.85(SD=.69), 중학생 2.75(SD=.61), 고등학생 2.73(SD=.59), 대학생 2.79(SD=.51)였다.  $F=21.688$ ,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사후분석결과 초등학생이 대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능력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각각 2.90(SD=.75), 2.69(SD=.74), 2.58(SD=.74), 2.59(SD=.66)으로 고등학생과 대학생보다 중학생이, 중학생보다 초등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과학능력은 초등학생의 평균이 2.76(SD=.79)로 나타났고 초등학생이 중, 고등, 대학생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F=95.381$ ,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보통신활용능력의 경우 초등학생이 2.91(SD=.82), 중학생이 3.16(SD=.66), 고등학생이 3.19(SD=.63), 대학생이 3.10(SD=.61)이었으며  $F=102.305$ ,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분석결과는 중, 고등학생이 대학생보다, 대학생이 초등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도 수준별 차이는 언어능력은 상, 중, 하 각각 2.95(SD=.63), 2.76(SD=.58), 2.55(SD=.60)으로 나타났고, 수학능력은 각각 3.05(SD=.67), 2.63(SD=.70), 2.30(SD=.70)으로, 과학능력은 각각 2.80(SD=.78), 2.50(SD=.77), 2.23(SD=.78)로 나타났으며 모두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정보통신활용능력은 학업수준이 '상'인 청소년은 3.14(SD=.73), '중' 수준은 3.13(SD=.68), '하' 수준은 2.99(SD=.69)로 확인되었으며  $F=40.658$ ,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 '중' 수준의 청소년이 '하' 수준의 청소년보다 정보통신활용능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는 언어능력, 수학능력, 과학능력, 정보통신활용능력 모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경제적 수준이 '상'인 청소년이 '중' 수준 청소년보다, '중' 수준의 청소년이 '하' 수준의 청소년보다 언어능력, 수학능력, 과학능력, 정보통신활용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언어능력의 경우 부산, 인천, 광주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부산, 광주, 대전의 경우 강원과 전북지역보다 언어능력 역량이 높게 확인되었다. 수학능력은 광주, 대전, 부산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부산 지역이 울산, 전남, 경북, 제주 지역보다 높고, 강원과 전북지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능력은 광주와 대전, 세종지역이 대구, 강원, 전북, 제주 지역보다 높았으며, 정보통신활용능력은 부산, 서울, 대전, 경남 지역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세종 지역이 가장 낮았다.

④ 2017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학습적응성 역량 차이 분석

학습적응성의 하위역량인 변화수용, 지적호기심, 학습주도성 역량별 인구통계학적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17>과 같다.

표 IV-17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학습적응성 역량 차이분석

구분		사례수	학습적응성					
			변화수용		지적호기심		학습주도성	
			M	(SD)	M	(SD)	M	(SD)
전체		10,087	2.75	.59	3.19	.62	2.77	.72
성별	남	5,216	2.77	.62	3.20	.64	2.83	.74
	여	4,871	2.72	.56	3.19	.60	2.72	.71
	합		4.995**		.824		7.698**	
학교급	초등(초기 청소년)①	2,836	2.75	.65	3.36	.65	2.81	.82
	중등(중기 청소년)②	2,710	2.74	.58	3.17	.61	2.73	.72
	고등(중기 청소년)③	3,500	2.74	.56	3.11	.59	2.75	.66
	대학(후기 청소년)④	1,041	2.76	.58	3.05	.61	2.84	.66
	합		.457		116.787** ①)②)③)④		9.169** ④)②	
학업 성취도 수준	상①	3,625	2.82	.62	3.36	.61	2.91	.75
	중②	3,835	2.72	.57	3.14	.60	2.75	.68
	하③	2,392	2.66	.56	3.02	.61	2.61	.70
	합		60.645** ①)②)③		244.920** ①)②)③		127.166** ①)②)③	
경제적 수준	상①	1,666	2.89	.64	3.38	.60	2.96	.75
	중②	6,820	2.73	.58	3.17	.62	2.75	.71
	하③	1,583	2.67	.57	3.08	.64	2.66	.70
	합		66.410** ①)②)③		112.676** ①)②)③		75.775** ①)②)③	
17개 시도	서울①	1,501	2.78	.59	3.21	.65	2.83	.71
	부산②	599	2.82	.61	3.23	.61	2.87	.70
	대구③	499	2.66	.57	3.15	.58	2.73	.69
	인천④	485	2.79	.56	3.26	.61	2.83	.70
	광주⑤	565	2.78	.58	3.23	.61	2.82	.74
	대전⑥	370	2.75	.57	3.18	.57	2.81	.68
	울산⑦	359	2.73	.54	3.16	.55	2.74	.63
	경기⑧	2,568	2.72	.62	3.20	.64	2.75	.75
	강원⑨	308	2.67	.69	3.13	.68	2.72	.76
	충북⑩	395	2.77	.57	3.15	.57	2.78	.77
	충남⑪	290	2.69	.72	3.24	.78	2.76	.90
	세종⑫	69	2.79	.60	3.12	.81	2.76	.75
	전북⑬	334	2.73	.56	3.11	.58	2.68	.68
	전남⑭	378	2.78	.63	3.13	.66	2.76	.76
	경북⑮	532	2.73	.52	3.17	.59	2.73	.68
	경남⑯	520	2.77	.55	3.19	.56	2.77	.68
	제주⑰	315	2.71	.51	3.16	.61	2.65	.64
합		2.766** ②,④)③,⑨		2.037** ④,⑪)②,⑬		3.085** ②)⑰		

\*, $p < 0.05$ , \*\*, $p < 0.01$

학습적응성의 남녀 차이를 보면, 먼저 변화수용성의 경우 남자청소년 평균은 2.77(SD=.62), 여자청소년은 2.72(SD=.56)로 남자청소년이 높았으며 이는  $t=4.995$ ,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적호기심은 남자청소년은 3.20(SD=.64), 여자청소년은 3.19(SD=.60)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학습주도성은 남자청소년이 2.83(SD=.74), 여자청소년은 2.72(SD=.71)로 남자청소년이 높았으며  $t=7.498$ ,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차이는 변화수용성의 경우, 대학생 평균이 2.76(SD=.58), 초등학생 2.75(SD=.65), 중학생 2.74(SD=.58), 고등학생 2.74(SD=.56)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지적호기심은 초등학생이 3.36(SD=.65), 중학생이 3.17(SD=.61), 고등학생이 3.11(SD=.59), 대학생이 3.05(SD=.61)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F=116.787$ ,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나타났다. 학습주도성은 대학생이 2.84(SD=.66), 초등학생이 2.81(SD=.82), 고등학생이 2.75(SD=.66), 중학생이 2.73(SD=.7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F=9.169$ ,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로 나타났으며 사후분석 결과 대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업성취도 수준별 차이는 상, 중, 하 각각 변화수용성은 2.82(SD=.62), 2.72(SD=.57), 2.66(SD=.56)으로 나타났고, 지적호기심은 3.36(SD=.61), 3.14(SD=.60), 3.02(SD=.61), 학습주도성은 2.91(SD=.75), 2.75(SD=.68), 2.61(SD=.70)으로 나타났다. 변화수용, 지적호기심, 학습주도성 모두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분석결과 '상' 수준의 청소년이 '중' 수준의 청소년보다, '중' 수준의 청소년이 '하' 수준의 청소년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도 '상' 수준의 청소년이 '중' 수준 청소년보다 '중' 수준의 청소년의 역량 평균이 '하' 수준의 청소년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별 차이를 보면, 변화수용성은 부산이 2.82(SD=.61), 인천 2.89(SD=.56), 세종 2.79(SD=.60)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F=2.766$ ,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분석결과는 부산과 인천지역 청소년의 변화수용성 역량이 대구와 강원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적호기심은 인천(3.26, SD=.61), 충남(3.24, SD=.78), 부산(3.23, SD=.61), 광주(3.23, SD=.61)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F=2.037$ ,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인천과 충남지역 청소년의 지적호기심 역량이 세종과 전북 지역의 청소년 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습주도성 역량은 부산 청소년 평균이 2.87(SD=.70), 인천 2.83(SD=.70), 서울 2.83(SD=.71) 순으로 나타났다.  $F=3.085$ ,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사후분석결과 부산지역 청소년의 학습주도성 역량이 제주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 2) 2017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측정결과 차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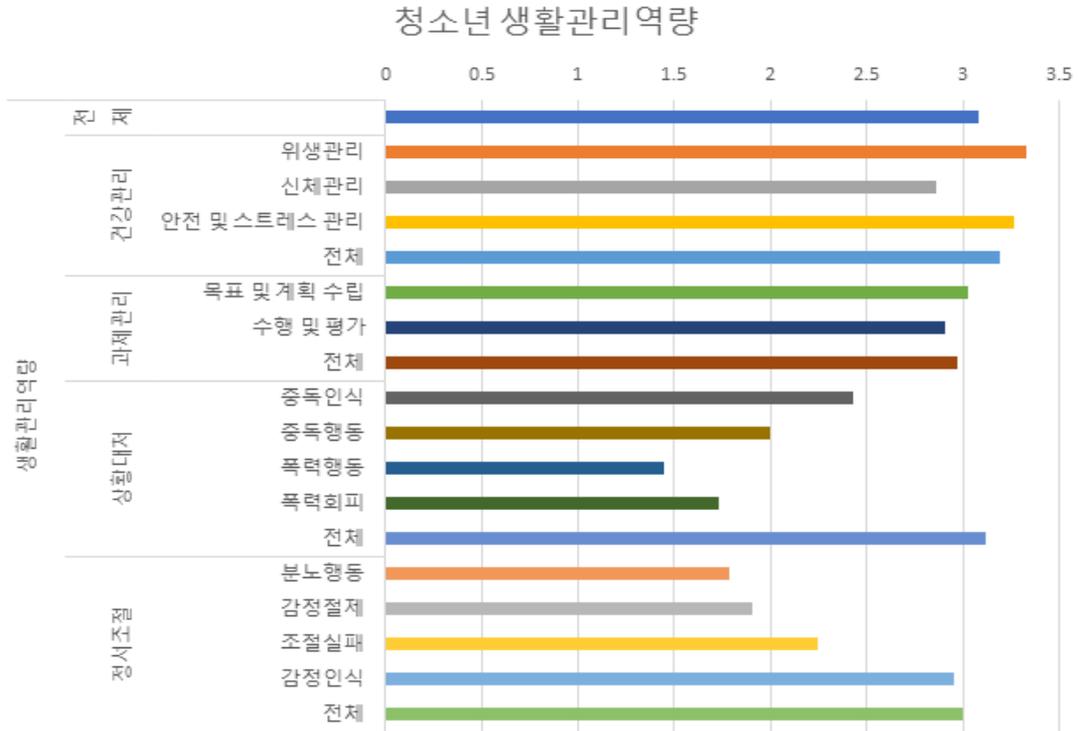
### (1) 2017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2017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는 건강관리, 과제관리, 상황대처, 정서조절 역량으로 구성되었다.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및 하위역량 평균 및 표준편차는 다음의 <표 IV-18>과 같다.

표 IV-18 2017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역량군	역량	하위역량	평균(M)	표준편차(SD)
생활관리역량	건강관리	전체	3.08	0.390
		위생관리	3.33	0.561
		신체관리	2.86	0.830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3.26	0.561
		전체	3.19	0.492
	과제관리	목표 및 계획 수립	3.03	0.635
		수행 및 평가	2.91	0.709
		전체	2.97	0.623
	상황대처	중독인식	2.43	0.936
		중독행동	2.00	0.866
		폭력행동	1.45	0.616
		폭력회피	1.73	0.734
		전체	3.12	0.583
	정서조절	분노행동	1.79	0.748
		감정절제	1.91	0.793
		조절실패	2.25	0.911
		감정인식	2.95	0.746
		전체	3.00	0.526

2017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전체 평균은 4점 척도 중 3.08(SD=.390)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생활관리역량의 네 가지 역량인 건강관리, 과제관리, 상황대처, 정서조절 모두 대체적으로 양호한 평균을 나타내었다. 생활관리역량군 중 건강관리 역량이 평균 3.19(SD=.492)로 가장 높았으며, 과제관리 역량이 평균 2.97(SD=.623)로 가장 낮은 편이었다. 상황대처 역량은 평균 3.12(SD=.748), 정서조절은 평균 3.00(SD=.526)으로 나타났다. 하위역량을 살펴보면, 건강관리의 하위역량인 위생관리가 평균 3.33(SD=.561)로 가장 높았으며, 상황대처의 하위역량인 폭력행동이 평균 1.45(SD=.616)로 가장 낮은 편이었다. 이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그림 IV-12]와 같다.



**[그림 IV-12] 2017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평균 점수 비교**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하위역량 간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IV-19>와 같이 모든 역량이 서로 정적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건강관리와 과제관리의 상관계수  $r=.419$ 로 가장 높았으며, 과제관리와 상황대처의 상관계수  $r=.166$ 으로 가장 낮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9 청소년 건강관리역량 하위역량 상관관계 분석**

역량	1	2	3	4
1. 건강관리	1			
2. 과제관리	.419**	1		
3. 상황대처	.243**	.166**	1	
4. 정서조절	.264**	.249**	.485**	1

\*,  $p<0.05$ , \*\*,  $p<0.01$

아울러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 하위역량의 세부역량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20>와 같다.

**표 IV-20** 청소년 건강관리역량 하위역량의 세부역량 상관관계 분석

하위역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위생관리	1											
2. 신체관리	.387**	1										
3.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452**	.419**	1									
4. 목표 및 계획 수립	.301**	.263**	.347**	1								
5. 수행 및 평가	.277**	.301**	.335**	.716**	1							
6. 중독인식	-.057**	-.145**	-.083**	.084**	.034**	1						
7. 중독행동	-.128**	-.163**	-.151**	.015	-.014	.654**	1					
8. 폭력행동	-.148**	-.005	-.154**	-.023*	-.001	.295**	.381**	1				
9. 폭력회피	-.186**	-.171**	-.192**	-.090**	-.072**	.275**	.368**	.540**	1			
10. 분노행동	-.150**	-.089**	-.173**	-.064**	-.056**	.277**	.342**	.488**	.362**	1		
11. 감정절제	-.153**	-.137**	-.181**	-.069**	-.068**	.259**	.360**	.392**	.424**	.643**	1	
12. 조절실패	-.124**	-.175**	-.157**	-.033**	-.058**	.275**	.336**	.289**	.353**	.488**	.635**	1
13. 감정인식	.130**	.048**	.171**	.238**	.192**	.114**	.038**	.007	.017	.027**	.041**	.121**

\*, p<0.05, \*\*, p<0.01

하위역량도 대부분은 서로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폭력행동과 감정인식, 폭력회피와 감정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에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관리의 하위역량과 과제관리의 하위역량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에 있었으며, 상황대처의 하위역량과 정서조절의 하위역량 중 감정인식을 제외한 모든 하위역량이 서로 정적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강관리의 하위역량과 상황대처의 하위역량은 모두 부적 상관관계에 있었으며, 정서조절의 하위역량 중 감정인식을 제외한 하위역량은 건강관리의 하위역량과 모두 부적 상관관계에 있었다. 정적 상관관계에 있는 하위역량 중 가장 높은 상관계수를 보인 하위역량은 과제관리의 두 가지 하위역량 간 상관계수  $r=.716$ 으로 가장 높았다. 부적 상관관계에 있는 하위역량은 대체적으로 낮은 상관계수를 보였는데, 그 중 건강관리의 하위역량인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와 상황대처의 하위역량인 ‘폭력회피’가 상관계수  $-.192$ 로 가장 높은 부적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특성에 따른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차이 분석

2017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가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t-검증과 F검증을 실시하였다.

① 2017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차이 분석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성별, 학교급별, 학업성취도 수준, 가정경제 수준, 지역에 따른 생활관리역량의 차이 분석은 <표 IV-21>과 같다.

표 IV-21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차이분석

구분	사례수	생활관리역량		역량							
		M	(SD)	건강관리		과제관리		상황대처		정서조절	
				M	(SD)	M	(SD)	M	(SD)	M	(SD)
전체		10,087	3.08 0.390	3.19	0.492	2.97	0.623	3.12	0.583	3.00	0.526
성별	남	5,216	3.07 0.390	3.21	.511	2.95	.638	3.08	.590	3.00	.526
	여	4,871	3.09 0.389	3.16	.469	2.99	.606	3.17	.573	3.00	.526
	F값		-2.978**	5.475**	-2.984**	-7.311**	.025				
학교급	초등(초기 청소년)①	2,836	3.21 0.414	3.30	0.525	2.92	0.736	3.38	0.559	3.10	0.533
	중등(중기 청소년)②	2,710	3.05 0.377	3.18	0.481	2.97	0.600	3.07	0.569	2.97	0.529
	고등(중기 청소년)③	3,500	3.02 0.349	3.13	0.456	3.00	0.553	3.01	0.543	2.95	0.499
	대학(후기 청소년)④	1,041	3.01 0.398	3.10	0.490	3.03	0.553	2.95	0.598	2.99	0.546
	F값		158.367**	81.149**	10.386**	278.815**	48.970**				
			①)②)③)④	①)②)③)④	③)④)②)①	①)②)③)④	①)②)③)④				
학업 성취도 수준	상①	3,625	3.20 0.396	3.31	0.490	3.08	0.657	3.25	0.577	3.11	0.534
	중②	3,835	3.06 0.373	3.16	0.480	2.96	0.591	3.09	0.566	2.98	0.508
	하③	2,392	2.95 0.352	3.06	0.464	2.83	0.571	2.99	0.575	2.88	0.514
	F값		321.175**	204.134**	130.028**	153.236**	138.690**				
			①)②)③	①)②)③	①)②)③	①)②)③	①)②)③	①)②)③	①)②)③		
경제적 수준	상①	1,666	3.24 0.418	3.38	0.499	3.17	0.653	3.27	0.635	3.11	0.569
	중②	6,820	3.08 0.378	3.18	0.476	2.95	0.609	3.12	0.572	3.01	0.511
	하③	1,583	2.95 0.349	3.03	0.488	2.85	0.605	3.00	0.535	2.88	0.511
	F값		236.395**	214.473**	120.019**	92.195**	82.537**				
			①)②)③	①)②)③	①)②)③	①)②)③	①)②)③	①)②)③	①)②)③		
17개 시도	서울①	1,501	3.08 0.368	3.21	0.477	3.02	0.600	3.10	0.566	3.00	0.512
	부산②	599	3.18 0.365	3.27	0.497	3.11	0.570	3.22	0.551	3.08	0.510
	대구③	499	3.09 0.344	3.19	0.416	2.92	0.561	3.16	0.541	3.02	0.487
	인천④	485	3.11 0.372	3.23	0.527	2.99	0.595	3.15	0.585	3.02	0.509
	광주⑤	565	3.15 0.383	3.26	0.545	3.00	0.664	3.23	0.581	3.05	0.478
	대전⑥	370	3.07 0.349	3.21	0.460	3.02	0.607	3.06	0.548	3.00	0.500
	울산⑦	359	3.05 0.357	3.15	0.457	2.95	0.541	3.05	0.545	3.02	0.495
	경기⑧	69	3.03 0.418	3.16	0.506	3.07	0.692	3.04	0.655	2.87	0.610
	강원⑨	2,568	3.08 0.398	3.18	0.483	2.92	0.644	3.14	0.571	3.00	0.531
	충북⑩	308	3.04 0.464	3.11	0.444	2.93	0.669	3.11	0.711	2.96	0.704
	충남⑪	395	3.08 0.442	3.18	0.534	3.01	0.696	3.10	0.675	3.00	0.598
	세종⑫	290	3.04 0.417	3.14	0.466	2.92	0.742	3.09	0.690	2.97	0.512
	전북⑬	334	3.01 0.344	3.13	0.468	2.93	0.599	3.06	0.535	2.90	0.508
	전남⑭	378	3.07 0.518	3.18	0.631	3.05	0.796	3.08	0.693	2.97	0.618
	경북⑮	532	3.03 0.347	3.11	0.446	2.93	0.515	3.07	0.532	2.99	0.469
	경남⑯	520	3.09 0.381	3.21	0.465	2.95	0.538	3.11	0.565	3.05	0.503
	제주⑰	315	3.04 0.371	3.10	0.562	2.96	0.555	3.10	0.545	2.98	0.496
F값			5.715**	4.921**	5.116**	4.279**	2.988**				
			②,④)③)①,⑦,⑨,⑩,⑪,⑬,⑮,⑰)⑤,⑥)⑧,⑫,⑭,⑯	①,②,⑤)③,⑭)④,⑤)⑥,⑨,⑪)⑦,⑧,⑩,⑫,⑬,⑯,⑰	②)①,④,⑦,⑧,⑩,⑪,⑬,⑭,⑯,⑰)③,⑨,⑫	⑤)②)③)⑦,⑫,⑭,⑯,⑰)①,⑪)⑥	③,⑥,⑰)⑬,②,⑤)⑭				

\*.p<.05, \*\*.p<.01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의 생활관리역량 차이를 검토하기 위해 실시한 t-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t=-2.978, p<.01$ ), 여자 청소년( $M=3.09, SD=.389$ )이 남자 청소년( $M=3.07, SD=.390$ )에 비해 평균 생활관리역량지수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생활관리역량지수를 구성하는 네 가지 역량에 대해서는 정서조절역량을 제외한 건강관리, 과제관리, 상황대처 역량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건강관리역량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으며( $t=5.475, p<.01$ ), 남자 청소년( $M=3.21, SD=.511$ )이 여자 청소년( $M=3.16, SD=.469$ )에 비해 높은 건강관리역량을 보였다. 반면, 과제관리와 상황대처역량의 경우,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높은 역량을 나타내었다. 과제관리역량에 대해 여자 청소년( $M=2.99, SD=.606$ )이 남자 청소년( $M=2.95, SD=.638$ ) 보다 높은 역량점수를 나타냈으며, 상황대처역량에서도 여자 청소년( $M=3.17, SD=.573$ )이 남자 청소년( $M=3.08, SD=.590$ )에 비해 높은 역량점수를 보였다. 정서조절에서는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의 역량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025, p<.05$ ).

학교급에 따라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역량 차이를 보였다. 전체적인 생활관리역량에서는 학교급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역량점수의 차이를 보였는데( $F=158.367, p<.01$ ), Tukey 사후검정 결과, 초기 청소년인 초등학생( $M=3.21, SD=.414$ )이 다른 학교급에 비해 높은 역량 점수를 나타내었으며, 그 다음으로 중기 청소년 중 중학생( $M=3.05, SD=.377$ ), 고등학생( $M=3.02, SD=.349$ ), 후기 청소년인 대학생( $M=3.01, SD=.398$ )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건강관리역량에서도 생활관리역량지수 전체와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81.149, p<.01$ ). 아울러, 사후검정결과에 의하면, 생활관리역량지수 전체와 마찬가지로 초기 청소년인 초등학생( $M=3.30, SD=.525$ )이 다른 학교급에 비해 높은 역량 점수를 나타내었으며, 그 다음으로 중기 청소년 중 중학생( $M=3.18, SD=.481$ ), 고등학생( $M=3.13, SD=.456$ ), 후기 청소년인 대학생( $M=3.10, SD=.490$ )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고,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과제관리역량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10.386, p<.01$ ). 그러나 사후검정결과, 다른 역량과 달리 후기 청소년인 대학생( $M=3.03, SD=.553$ ), 중기 청소년 중 고등학생( $M=3.00, SD=.553$ ), 중학생( $M=3.97, SD=.600$ ), 초기 청소년인 초등학생( $M=2.92, SD=.736$ ) 순으로 높은 역량 점수를 나타냈다. 이 중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상황대처역량에서도 학교급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278.815, p<.01$ ). 사후검정결과, 초기 청소년인 초등학생( $M=3.38, SD=.559$ ), 중기 청소년 중 중학생( $M=3.07, SD=.569$ ), 고등학생( $M=3.01, SD=.543$ ), 후기 청소년인 대학생( $M=2.95, SD=.598$ )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고, 학교급별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정서조절역량에서도 학교급별 통계적으로 유의한 역량 점수 차이를 보였다( $F=48.970, p<.01$ ).

사후검정결과, 다른 역량과 달리 초기 청소년인 초등학생( $M=3.10$ ,  $SD=.533$ )이 다른 학교급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역량 점수를 보였으며, 나머지 후기 청소년인 대학생( $M=2.99$ ,  $SD=.546$ ), 중기 청소년 중 중학생( $M=2.97$ ,  $SD=.529$ ), 고등학생( $M=2.95$ ,  $SD=.499$ )은 서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청소년의 학업성취도에 따라 생활관리역량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생활관리역량지수( $F=321.175$ ,  $p<.01$ ) 뿐 아니라 건강관리( $F=204.134$ ,  $p<.01$ ), 과제관리( $F=130.028$ ,  $p<.01$ ), 상황대처( $F=153.236$ ,  $p<.01$ ), 정서조절역량( $F=138.690$ ,  $p<.01$ ) 모두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사후검정 결과, 모든 역량에서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역량점수를 나타내었다.

학업성취도 수준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수준에 따른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점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모든 역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는 생활관리역량지수( $F=236.395$ ,  $p<.01$ ), 건강관리( $F=214.473$ ,  $p<.01$ ), 과제관리( $F=120.019$ ,  $p<.01$ ), 상황대처( $F=92.195$ ,  $p<.01$ ), 정서조절( $F=82.537$ ,  $p<.01$ ) 역량 모두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정결과에 의하면,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역량 점수를 보였다.

생활관리역량지수 전체와 네 가지 역량에 대해서 지역별 역량 점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역량 점수는 모두 지역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관리역량 전체의 경우, 지역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F=5.715$ ,  $p<.01$ ), 사후검정결과에 의하면, 부산( $M=3.18$ ,  $SD=.365$ )과 광주( $M=3.15$ ,  $SD=.383$ ), 인천( $M=3.11$ ,  $SD=.372$ )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생활관리역량 점수를 나타냈다. 반면, 경북( $M=3.03$ ,  $SD=.347$ ), 경기( $M=3.03$ ,  $SD=.418$ ), 충북( $M=3.04$ ,  $SD=.464$ ), 세종( $M=3.04$ ,  $SD=.417$ ), 제주( $M=3.04$ ,  $SD=.371$ )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생활관리역량 점수를 보였다.

건강관리역량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역별 통계적으로 유의한 역량 점수를 보였다( $F=4.921$ ,  $p<.01$ ). 사후검정결과, 부산( $M=3.27$ ,  $SD=.497$ ), 광주( $M=3.26$ ,  $SD=.545$ ), 인천( $M=3.23$ ,  $SD=.527$ ), 서울( $M=3.21$ ,  $SD=.477$ )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건강관리역량 점수를 보였다. 반면에 제주( $M=3.10$ ,  $SD=.562$ ), 충북( $M=3.11$ ,  $SD=.444$ ), 경북( $M=3.11$ ,  $SD=.446$ )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건강관리역량 점수를 나타내었다.

지역별로 과제관리역량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5.116$ ,  $p<.01$ ). 사후검정결과에 의하면, 부산( $M=3.11$ ,  $SD=.570$ )이 다른 지역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과제관리 역량 점수를 보였으며, 대구( $M=2.92$ ,  $SD=.561$ )와 강원( $M=2.92$ ,  $SD=.644$ )이 가장 낮은 과제관리 역량 점수를 보였다.

정서조절역량에서도 지역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역량 점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2.988$ ,  $p<.01$ ). 특히, 사후검정결과 부산( $M=3.08$ ,  $SD=.510$ )과 광주( $M=3.05$ ,  $SD=.478$ )가 다른 지역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정서조절역량 점수를 보였으며, 경기( $M=2.87$ ,  $SD=.610$ )가 가장 낮은 정서조절역량 점수를 나타내었다.

② 2017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건강관리역량 차이 분석

2017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의 하위역량인 건강관리역량에 대해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의 건강관리역량에 대한 분석은 <표 IV-22>와 같다.

표 IV-22 2017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건강관리 역량 차이분석

구분		사례수	건강관리					
			위생관리		신체관리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M	(SD)	M	(SD)	M	(SD)
전체		10,087	3.33	.561	2.86	.830	3.26	.561
성별	남	5,216	3.30	0.583	3.02	0.809	3.26	0.577
	여	4,871	3.37	0.534	2.69	0.819	3.27	0.543
F값			-6.376**		20.374**		-618	
학교급	초등(초기 청소년)(①)	2,836	3.36	0.606	3.11	0.795	3.38	0.576
	중등(중기 청소년)(②)	2,710	3.31	0.557	2.84	0.819	3.26	0.551
	고등(후기 청소년)(③)	3,500	3.34	0.525	2.71	0.828	3.21	0.537
	대학(후기 청소년)(④)	1,041	3.29	0.556	2.75	0.810	3.13	0.567
	F값		5.629**		131.402**		71.283**	
			①)②)④		①)②)③=④		①)②)③)④	
학업 성취도 수준	상(①)	3,625	3.42	0.553	3.02	0.821	3.39	0.549
	중(②)	3,835	3.33	0.553	2.81	0.832	3.23	0.552
	하(③)	2,392	3.21	0.552	2.71	0.802	3.14	0.548
	F값		101.714**		112.899**		164.271**	
			①)②)③		①)②)③		①)②)③	
경제적 수준	상(①)	1,666	3.46	0.568	3.18	0.822	3.43	0.565
	중(②)	6,820	3.33	0.547	2.84	0.807	3.25	0.550
	하(③)	1,583	3.18	0.580	2.63	0.845	3.15	0.565
	F값		99.564**		191.227**		113.659**	
			①)②)③		①)②)③		①)②)③	
17개 시도	서울(①)	1,501	3.31	0.544	2.92	0.824	3.30	0.541
	부산(②)	599	3.40	0.567	2.96	0.806	3.36	0.552
	대구(③)	499	3.39	0.506	2.79	0.763	3.26	0.490
	인천(④)	485	3.33	0.603	2.97	0.850	3.31	0.595
	광주(⑤)	565	3.36	0.595	3.01	0.866	3.32	0.595
	대전(⑥)	370	3.38	0.543	2.88	0.808	3.26	0.506
	울산(⑦)	359	3.29	0.532	2.84	0.811	3.21	0.520
	경기(⑧)	69	3.24	0.563	2.89	0.781	3.27	0.592
	강원(⑨)	2,568	3.33	0.555	2.87	0.829	3.25	0.569
	충북(⑩)	308	3.29	0.506	2.67	0.842	3.23	0.525
	충남(⑪)	395	3.36	0.616	2.86	0.873	3.22	0.609
	세종(⑫)	290	3.30	0.545	2.72	0.833	3.25	0.546
	전북(⑬)	334	3.33	0.541	2.72	0.821	3.20	0.549
	전남(⑭)	378	3.33	0.667	2.83	0.910	3.27	0.686
	경북(⑮)	532	3.28	0.532	2.75	0.775	3.19	0.511
	경남(⑯)	520	3.35	0.541	2.89	0.795	3.28	0.514
	제주(⑰)	315	3.24	0.619	2.70	0.848	3.23	0.634
F값			2.596**		6.424**		3.706**	
			②)⑮,⑰		①,②,④,⑤)⑨)③)⑧, ⑪,⑬,⑮,⑰		①,②,④,⑤)⑦,⑧,⑩, ⑬,⑮	

\*,  $\alpha.05$ , \*\*,  $\alpha.01$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의 건강관리역량 차이 분석을 위해 t-검정한 결과, 하위역량인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를 제외한 위생관리와 신체관리 역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성별 역량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생관리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t=-6.376$ ,  $p<.01$ ), 여자 청소년( $M=3.37$ ,  $SD=.534$ )이 남자 청소년( $M=3.30$ ,  $SD=.583$ )에 비해 역량 점수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신체관리에서도 성별 차이가 나타났으며( $t=20.374$ ,  $p<.01$ ), 위생관리 역량과 반대로 남자 청소년( $M=3.02$ ,  $SD=.809$ )의 역량 점수가 여자 청소년( $M=2.69$ ,  $SD=.819$ )의 역량 점수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의 경우,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역량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618$ ,  $p>.05$ ).

학교급에 따라서도 건강관리 역량의 세 가지 하위 역량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위생관리 역량에서는 학교급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역량점수의 차이를 보였는데 ( $F=5.629$ ,  $p<.01$ ), Tukey 사후검정 결과, 초기 청소년인 초등학생( $M=3.36$ ,  $SD=.606$ )의 역량 점수가 다른 학교급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기 청소년인 고등학생( $M=3.34$ ,  $SD=.525$ ), 중학생( $M=3.31$ ,  $SD=.557$ ), 후기 청소년인 대학생( $M=3.29$ ,  $SD=.556$ ) 순으로 높았다. 위생관리 역량에 대해 초등학생과 중학생, 대학생의 경우 서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신체관리 역량에서도 동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F=131.402$ ,  $p<.01$ ), 사후검정 결과, 초기 청소년인 초등학생( $M=3.11$ ,  $SD=.795$ )의 역량 점수가 다른 학교급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기 청소년인 중학생( $M=2.84$ ,  $SD=.819$ ), 후기 청소년인 대학생( $M=2.75$ ,  $SD=.810$ ), 고등학생( $M=2.71$ ,  $SD=.828$ ) 순으로 높았다.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역량 점수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나머지 학교급 간에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역량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학교급 간 역량 점수 차이가 나타났다( $F=71.283$ ,  $p<.01$ ). 사후검정 결과, 초기 청소년인 초등학생( $M=3.38$ ,  $SD=.576$ )의 역량 점수가 다른 학교급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기 청소년인 중학생( $M=3.26$ ,  $SD=.551$ ), 고등학생( $M=3.21$ ,  $SD=.537$ ), 후기 청소년인 대학생( $M=3.13$ ,  $SD=.567$ )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른 건강관리역량의 차이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 $F=101.714$ ,  $p<.01$ ), 신체관리( $F=112.899$ ,  $p<.01$ ),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F=164.271$ ,  $p<.01$ ) 역량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사후검정에 의하면, 건강관리의 세 가지 하위 역량 모두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높은 역량 점수를 보였다. 즉, 학업성취도가 높은 청소년이 학업성취도가 중간이거나 낮은 청소년에 비해 높은 위생관리(M=3.42, SD=.553), 신체관리(M=3.02, SD=.821),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M=3.39, SD=.549) 역량을 보였다.

가정경제적 수준에 따른 건강관리 역량의 차이 분석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건강관리의 세 가지 하위역량인 위생관리(F=99.564,  $p<.01$ ), 신체관리(F=191.227,  $p<.01$ ),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F=113.659,  $p<.01$ )에서 경제적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사후검정 결과, 세 가지 하위역량에서 모두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역량 점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른 건강관리 역량의 차이를 살펴본 분산분석 결과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위생관리(F=2.596,  $p<.01$ ), 신체관리(F=6.424,  $p<.01$ ),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F=3.806,  $p<.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 위생관리 역량에서는 부산 지역(M=3.40, SD=.567)의 역량 점수가 경북(M=3.28, SD=.532)이나 제주(M=3.24, SD=.619)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구 지역(M=3.39, SD=.506)도 제주 지역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관리 역량에서는 서울(M=2.92, SD=.824), 부산(M=2.96, SD=.806), 인천(M=2.97, SD=.850), 광주(M=3.01, SD=.866) 지역의 역량 점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즉, 대도시 중심으로 신체관리 점수가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역량도 신체관리 역량과 마찬가지로 서울(M=3.30, SD=.541), 부산(M=3.36, SD=.552), 인천(M=3.31, SD=.595), 광주(M=3.32, SD=.595) 지역의 역량 점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편으로 나타나, 대도시 중심으로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역량 점수가 높은 편이었다.

③ 2017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과제관리역량 차이 분석

2017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의 하위역량인 과제관리역량에 대한 분석은 <표 IV-23>과 같다.

표 IV-23 2017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과제관리 역량 차이분석

구분		사례수	과제관리			
			목표 및 계획 수립		수행 및 평가	
			M	(SD)	M	(SD)
전체		10,087	3.03	.635	2.91	.709
성별	남	5,216	3.01	0.652	2.90	0.719
	여	4,871	3.07	0.615	2.92	0.699
	<i>F</i> 값		-4.644**		-1.077**	
학교급	초등(초기 청소년)(①)	2,836	2.95	0.748	2.89	0.828
	중등(중기 청소년)(②)	2,710	3.04	0.608	2.90	0.691
	고등(중기 청소년)(③)	3,500	3.08	0.567	2.91	0.637
	대학(후기 청소년)(④)	1,041	3.08	0.560	2.98	0.632
	<i>F</i> 값		24.468** ③=④>②>①		4.171** ④>①=②=③	
학업 성취도 수준	상(①)	3,625	3.14	0.662	3.03	0.758
	중(②)	3,835	3.02	0.600	2.89	0.677
	하(③)	2,392	2.90	0.607	2.75	0.637
	<i>F</i> 값		106.947** ①>②>③		114.727** ①>②>③	
경제적 수준	상(①)	1,666	3.21	0.659	3.12	0.753
	중(②)	6,820	3.02	0.621	2.89	0.697
	하(③)	1,583	2.92	0.632	2.77	0.670
	<i>F</i> 값		95.626** ①>②>③		109.365** ①>②>③	
17개 시도	서울(①)	1,501	3.08	0.618	2.96	0.684
	부산(②)	599	3.18	0.597	3.04	0.632
	대구(③)	499	2.99	0.583	2.86	0.634
	인천(④)	485	3.04	0.625	2.94	0.654
	광주(⑤)	565	3.03	0.657	2.98	0.785
	대전(⑥)	370	3.07	0.592	2.96	0.713
	울산(⑦)	359	3.03	0.556	2.87	0.627
	경기(⑧)	69	3.06	0.594	3.09	1.029
	강원(⑨)	2,568	2.98	0.657	2.85	0.722
	충북(⑩)	308	2.99	0.658	2.87	0.789
	충남(⑪)	395	3.09	0.709	2.93	0.766
	세종(⑫)	290	2.98	0.771	2.85	0.800
	전북(⑬)	334	3.00	0.602	2.87	0.707
	전남(⑭)	378	3.11	0.798	2.99	0.895
	경북(⑮)	532	3.00	0.543	2.85	0.599
	경남(⑯)	520	3.04	0.562	2.87	0.620
	제주(⑰)	315	3.01	0.542	2.90	0.663
<i>F</i> 값		4.622** ①,②,⑭>③,⑤,⑧,⑨,⑪,⑬,⑮,⑰,⑱		4.645** ①,②,⑤>③,⑦,⑧,⑨,⑪,⑬,⑮,⑰		

\*,*p*<0.05, \*\*,*p*<0.01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의 과제관리역량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하위역량인 목표 및 계획수립( $t=-4.644, p<.01$ )과 수행 및 평가 역량( $t=-1.077, p<.01$ )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목표 및 계획수립과 수행 및 평가 역량에서 모두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높은 역량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목표 및 계획수립에서 여자 청소년은 평균 3.07( $SD=.615$ )로 남자 청소년의 평균 3.01( $SD=.615$ )에 비해 높은 편이었으며, 수행 및 평가에서도 여자 청소년은 평균 2.92( $SD=.699$ )로 남자 청소년의 평균 2.90( $SD=.719$ )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편이었다.

과제관리 역량의 두 가지 하위역량에서 모두 학교급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목표 및 계획수립 역량에서는 학교급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역량점수의 차이를 보였는데( $F=24.468, p<.01$ ), Tukey 사후검정 결과, 중기 청소년인 고등학생( $M=3.08, SD=.567$ )과 후기 청소년인 대학생( $M=3.08, SD=.560$ )의 평균 역량 점수가 동일하였으며, 중학생( $M=3.04, SD=.608$ )과 초등학생( $M=2.95, SD=.748$ )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중학생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초등학생에 비해 높은 역량 점수를 보여, 목표 및 계획수립 역량은 상위 학교로 진학할수록 역량이 향상되며, 고등학생 이후에는 동일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행 및 평가 역량에서도 학교급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4.171, p<.01$ ). 사후검정 결과에 의하면, 대학생( $M=2.98, SD=.632$ )이 가장 높은 역량 점수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고등학생( $M=2.91, SD=.637$ ), 중학생( $M=2.90, SD=.691$ ), 초등학생( $M=2.89, SD=.828$ )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등학생과 중학생, 초등학생의 역량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라 과제관리 역량의 하위역량인 목표 및 계획수립( $F=106.947, p<.01$ )과 수행 및 평가( $F=114.727, p<.01$ )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과제관리의 두 가지 하위 역량 모두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높은 역량 점수를 보였다. 즉, 학업성취도가 높은 청소년이 학업성취도가 중간이거나 낮은 청소년에 비해 높은 목표 및 계획수립( $M=3.14, SD=.662$ )과 수행 및 평가( $M=3.03, SD=.758$ ) 역량을 보였다.

경제적 수준도 과제관리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적 수준에 따라 목표 및 계획수립( $F=95.626, p<.01$ )과 수행 및 평가( $M=109.365, p<.01$ )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정에 의하면,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목표 및 계획수립과 수행 및 평가 역량 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른 과제관리 역량 차이도 나타났는데, 목표 및 계획수립( $F=4.622, p<.01$ ), 수행 및 평가( $F=4.645, p<.01$ )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 목표 및 계획수립에서는 부산( $M=3.18, SD=.597$ )이 가장 높은 역량 점수를 보였으며, 전남( $M=3.11, SD=.798$ ), 서울( $M=3.08, SD=.618$ ) 순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수행 및 평가 역량에서도 경기( $M=3.09, SD=1.029$ ), 부산( $M=3.04, SD=.632$ ), 광주( $M=2.98, SD=.785$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④ 2017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상황대처역량 차이 분석

2017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의 하위역량 중 상황대처역량에 대한 기술통계 및 분산분석 결과는 <표 IV-24>와 같다.

표 IV-24 2017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상황대처 역량 차이분석

구분		사례수	상황대처							
			중독인식		중독행동		폭력행동		폭력회피	
			M	(SD)	M	(SD)	M	(SD)	M	(SD)
전체		10,087	2.43	.936	2.00	.866	1.45	.616	1.73	.734
성별	남	5,216	2.48	0.935	1.99	0.849	1.56	0.659	1.75	0.730
	여	4,871	2.38	0.935	2.02	0.883	1.32	0.540	1.71	0.738
	합		5.355**		-1.908		19.904**		2.720**	
학교급	초등(초기 청소년)①	2,836	2.01	0.961	1.71	0.857	1.34	0.578	1.62	0.728
	중등(중기 청소년)②	2,710	2.49	0.913	2.05	0.860	1.46	0.603	1.77	0.724
	고등(중기 청소년)③	3,500	2.63	0.847	2.14	0.826	1.48	0.607	1.75	0.715
	대학(후기 청소년)④	1,041	2.74	0.822	2.23	0.835	1.56	0.732	1.81	0.808
	합		313.593**		158.831**		42.839**		27.590**	
			④>③>②>①		④>③>②>①		④>③>②>①		④=③=②>①	
학업 성취도 수준	상①	3,625	2.28	0.969	1.83	0.847	1.36	0.576	1.64	0.718
	중②	3,835	2.49	0.918	2.05	0.851	1.45	0.600	1.74	0.715
	하③	2,392	2.53	0.880	2.18	0.861	1.56	0.666	1.83	0.764
	합		71.856**		125.384**		78.624**		50.635**	
			②=③>①		③>②>①		③>②>①		③>②>①	
경제적 수준	상①	1,666	2.27	1.071	1.86	0.963	1.42	0.671	1.59	0.750
	중②	6,820	2.43	0.913	2.00	0.846	1.44	0.606	1.73	0.718
	하③	1,583	2.57	0.859	2.15	0.819	1.51	0.594	1.85	0.762
	합		42.897**		45.481**		11.518**		50.798**	
			③>②>①		③>②>①		③>②>①		③>②>①	
17개 시도	서울①	1,501	2.47	0.916	2.02	0.850	1.45	0.594	1.73	0.717
	부산②	599	2.31	0.937	1.82	0.772	1.36	0.560	1.65	0.698
	대구③	499	2.41	0.911	1.94	0.811	1.37	0.556	1.66	0.654
	인천④	485	2.34	0.939	1.95	0.851	1.40	0.529	1.72	0.726
	광주⑤	565	2.23	0.976	1.88	0.872	1.43	0.590	1.67	0.760
	대전⑥	370	2.52	0.903	2.04	0.794	1.51	0.593	1.72	0.662
	울산⑦	359	2.55	0.889	2.10	0.829	1.45	0.555	1.70	0.622
	경기⑧	69	2.38	0.964	2.15	0.958	1.47	0.719	1.84	0.802
	강원⑨	2,568	2.42	0.936	1.99	0.855	1.43	0.595	1.71	0.711
	충북⑩	308	2.53	0.951	2.12	1.065	1.55	0.936	1.80	0.972
	충남⑪	395	2.52	0.997	2.08	0.960	1.51	0.804	1.76	0.891
	세종⑫	290	2.50	1.069	2.11	1.006	1.58	0.771	1.80	0.804
	전북⑬	334	2.40	0.891	2.14	0.845	1.48	0.556	1.75	0.668
	전남⑭	378	2.54	1.069	2.09	1.040	1.51	0.694	1.83	0.853
	경북⑮	532	2.44	0.871	1.97	0.758	1.49	0.549	1.87	0.759
	경남⑯	520	2.44	0.893	2.00	0.850	1.42	0.575	1.71	0.684
	제주⑰	315	2.39	0.836	2.10	0.812	1.43	0.578	1.71	0.695
			4.191**		5.073**		4.184**		3.273**	
			①, ⑥, ⑦, ⑧, ⑨, ⑩, ⑪, ⑭, ⑮, ⑰		①, ⑥, ⑦, ⑧, ⑨, ⑩, ⑪, ⑬, ⑭, ⑰, ②, ⑤		①, ①, ②, ③, ④, ⑤, ⑧, ⑯		⑤, ①, ②, ③, ⑤, ⑧, ⑯	
			⑦, ⑭, ②		①, ③, ④, ⑦, ②, ⑤		⑥, ⑨, ⑩, ⑪, ⑭, ⑤, ②		④, ②	

\*, p<.05, \*\*, p<.01

성별에 따른 상황대처역량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하위역량인 중독인식( $t=5.355, p<.01$ ), 폭력행동( $t=19.904, p<.01$ ), 폭력회피( $t=2.720, p<.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독행동( $t=-1.908, p>.05$ )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중독인식, 폭력행동, 폭력회피 역량에서는 모두 여자 청소년의 역량 점수가 남자 청소년의 역량 점수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즉, 남자 청소년이 중독, 폭력, 폭력회피 행동에 노출되어 있는 편이었다.

네 가지 하위역량 모두 학교급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독인식 역량( $F=313.593, p<.01$ ), 중독행동( $F=158.831, p<.01$ ), 폭력행동( $F=42.839, p<.01$ )은 학교급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사후검정 결과,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높은 역량 점수를 보였다. 즉, 대학생이 가장 높은 역량 점수를 보였으며,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순으로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중독이나 폭력행동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폭력회피 역량에서도 동일하게 학교급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F=27.590, p<.01$ ), 사후검정결과 초등학생( $M=1.62, SD=.728$ )이 대학생( $M=1.81, SD=.808$ ), 고등학생( $M=1.75, SD=.715$ ), 중학생( $M=1.77, SD=.724$ )에 비해 낮은 역량 점수를 보였다. 다만,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는 초등학생이 다른 학교급의 청소년에 비해 폭력회피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른 상황대처 역량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상황대처 역량의 하위역량인 중독인식( $F=71.856, p<.01$ ), 중독행동( $F=125.384, p<.01$ ), 폭력행동( $F=78.624, p<.01$ ), 폭력회피( $F=50.635, p<.01$ )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중독인식 역량에서 학업성취도가 중간( $M=2.49, SD=.913$ )이거나 낮은( $M=2.53, SD=.880$ ) 청소년이 높은( $M=2.28, SD=.969$ ) 학업성취도 수준의 청소년에 비해 중독을 인식하는 역량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성취도 수준이 중간인 청소년과 낮은 수준의 청소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중독인식 역량을 제외한 중독행동, 폭력행동, 폭력회피에서는 모두 학업성취도 수준이 낮을수록 중독이나 폭력, 폭력회피 행동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도 상황대처의 네 가지 하위역량인 중독인식( $F=4.191, p<.01$ ), 중독행동( $F=5.073, p<.01$ ), 폭력행동( $F=4.184, p<.01$ ), 폭력회피( $F=3.273, p<.01$ )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독인식과 중독행동의 경우는 사후검정 결과, 울산 지역 등의 청소년이 중독인식과 중독행동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폭력행동과 폭력회피 역량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부산이나 대구 지역의 청소년이 폭력행동과 폭력회피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⑤ 2017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정서조절역량 차이 분석

2017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의 하위역량 중 정서조절 역량에 대한 기술통계 및 분산분석 결과는 <표 IV-25>와 같다.

표 IV-25 2017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정서조절역량 차이분석

구분		사례수	정서조절							
			분노행동		감정절제		조절실패		감정인식	
			M	(SD)	M	(SD)	M	(SD)	M	(SD)
전체		10,087	3.22	.738	3.10	.783	2.77	.907	2.95	.746
성별	남	5,216	3.17	0.748	3.14	0.795	2.86	0.880	2.90	0.788
	여	4,871	3.28	0.724	3.07	0.769	2.68	0.926	3.00	0.696
			-7.222**		4.164**		10.005**		-6.217**	
학교급	초등(초기 청소년)(①)	2,836	3.43	0.685	3.21	0.793	2.99	0.914	2.89	0.851
	중등(중기 청소년)(②)	2,710	3.13	0.746	3.07	0.773	2.70	0.911	2.98	0.721
	고등(후기 청소년)(③)	3,500	3.13	0.734	3.04	0.772	2.65	0.872	2.98	0.666
	대학(후기 청소년)(④)	1,041	3.18	0.759	3.12	0.787	2.79	0.888	2.90	0.751
	รวม		112.962**		26.963**		82.964**		11.230**	
			①>②=③=④		①>②=④>③		①>④>②>③		③=②>①=④	
학업 성취도 수준	상(①)	3,625	3.36	0.689	3.20	0.753	2.91	0.887	2.98	0.774
	중(②)	3,835	3.19	0.710	3.09	0.747	2.71	0.867	2.93	0.702
	하(③)	2,392	3.03	0.753	2.96	0.784	2.61	0.881	2.90	0.690
	รวม		154.149**		73.889**		95.035**		10.004**	
			①>②>③		①>②>③		①>②>③		①>②>③	
경제적 수준	상(①)	1,666	3.32	0.730	3.21	0.791	2.92	0.932	3.00	0.825
	중(②)	6,820	3.23	0.704	3.11	0.746	2.77	0.870	2.93	0.715
	하(③)	1,583	3.06	0.767	2.92	0.773	2.57	0.865	2.92	0.664
	รวม		55.865**		62.496**		62.396**		7.838**	
			①>②>③		①>②>③		①>②>③		①>②>③	
17개 시도	서울(①)	1,501	3.21	0.732	3.11	0.770	2.76	0.907	2.93	0.772
	부산(②)	599	3.32	0.734	3.21	0.744	2.87	0.900	2.98	0.784
	대구(③)	499	3.27	0.709	3.14	0.731	2.76	0.891	2.94	0.752
	인천(④)	485	3.26	0.724	3.09	0.781	2.71	0.882	3.00	0.749
	광주(⑤)	565	3.29	0.682	3.17	0.755	2.91	0.866	2.90	0.782
	대전(⑥)	370	3.12	0.781	3.14	0.775	2.81	0.895	2.93	0.749
	울산(⑦)	359	3.20	0.681	3.13	0.742	2.75	0.868	2.98	0.698
	경기(⑧)	69	3.04	0.962	2.91	0.880	2.57	0.960	2.89	0.778
	강원(⑨)	2,568	3.10	0.736	3.01	0.783	2.63	0.834	2.93	0.659
	충북(⑩)	308	3.18	0.763	3.05	0.797	2.74	0.890	2.96	0.649
	충남(⑪)	395	3.14	0.755	3.08	0.755	2.70	0.885	2.95	0.700
	세종(⑫)	290	3.09	0.741	2.94	0.767	2.65	0.875	2.90	0.664
	전북(⑬)	334	3.12	0.746	2.97	0.803	2.69	0.869	3.00	0.670
	전남(⑭)	378	3.19	0.695	3.07	0.694	2.78	0.805	2.90	0.655
	경북(⑮)	532	3.29	0.664	3.15	0.741	2.80	0.886	3.00	0.682
	경남(⑯)	520	3.17	0.706	3.07	0.767	2.75	0.907	2.91	0.683
	제주(⑰)	315	1.84	0.735	1.93	0.767	2.25	0.907	2.93	0.703
			4.712**		3.866**		3.127**		1.164	
			②, ⑤, ⑯> ⑥, ⑨, ⑬, ⑭ ③>⑮		①, ②, ③, ⑤, ⑥, ⑯ >⑮ ②, ⑤, ⑭ ②>⑨		②, ⑤>⑨, ⑬ ⑤>④, ⑭			

\*, p<.05, \*\*, p<.01

성별에 따른 정서조절 역량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하위역량인 분노행동( $t=7.222, p<.01$ ), 감정절제( $t=4.164, p<.01$ ), 조절실패( $t=10.005, p<.01$ ), 감정인식( $t=6.217, p<.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분노행동 역량에서는 여자 청소년( $M=3.28, SD=.724$ )의 역량 점수가 남자 청소년( $M=3.17, SD=.748$ )의 역량 점수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즉, 여자 청소년이 분노행동에 대해 조절하는 역량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감정절제와 조절실패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남자 청소년의 역량 점수가 여자 청소년의 역량 점수에 비해 높게 나타나 감정절제와 조절실패에 있어 남자 청소년의 역량이 여자 청소년의 역량에 비해 높은 점수를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감정인식에 대해서는 분노행동과 마찬가지로 여자 청소년( $M=3.00, SD=.696$ )이 남자 청소년( $M=2.90, SD=.788$ )에 비해 높은 역량 점수를 기록하여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감정인식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에 따른 정서조절 역량에 대한 차이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정서조절의 하위역량인 분노행동( $F=112.962, p<.01$ ), 감정절제( $F=26.963, p<.01$ ), 조절실패( $F=82.964, p<.01$ ), 감정인식( $F=11.230, p<.01$ )에서 학교급에 따라 평균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분노행동 역량에서 초등학생( $M=3.43, SD=.685$ ), 대학생( $M=3.18, SD=.759$ ), 중학생( $M=3.13, SD=.746$ ), 고등학생( $M=3.13, SD=.734$ ) 순으로 높은 역량 점수를 나타내었다. 사후검정 결과에 의하면, 초등학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른 학교급에 비해 높은 역량 점수를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학교급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분노행동을 조절하는 역량은 초등학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생 이후부터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감정절제 역량에서도 초등학생( $M=3.21, SD=.793$ ), 대학생( $M=3.12, SD=.787$ ), 중학생( $M=3.07, SD=.773$ ), 고등학생( $M=3.04, D=.772$ ) 순으로 높은 역량 점수를 나타내었다. 사후검정 결과에 의하면, 초등학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른 학교급에 비해 높은 편이었으며, 고등학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른 학교급에 비해 가장 낮은 역량 점수를 보였다. 중학생과 대학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른 정서조절 역량에 대한 차이 분석 결과에서도 생활관리역량의 다른 하위 역량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정서조절의 하위역량인 분노행동( $F=154.149, p<.01$ ), 감정절제( $F=73.889, p<.01$ ), 조절실패( $F=95.035, p<.01$ ), 감정인식( $F=10.004, p<.01$ )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에 의하면, 네 가지 하위역량에서 모두 학업성취도 수준이 높을수록 정서조절 역량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도 수준과 마찬가지로 가정경제 수준에 따른 정서조절 역량의 차이 분석 결과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분노행동( $F=55.865, p<.01$ ), 감정절제( $F=62.496, p<.01$ ), 조절실패

( $F=62.396, p<.01$ ), 감정인식( $F=7.838, p<.01$ )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사후검정 결과에 의하면,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조절 역량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정서조절 역량 점수에 있어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분노행동( $F=4.712, p<.01$ ), 감정절제( $F=3.868, p<.01$ ), 조절실패( $F=3.127, p<.01$ )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감정인식( $F=1.164, p>.05$ )에서는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감정인식 역량은 지역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분노행동 역량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사후검정 결과, 부산, 광주, 경남 지역의 역량 점수가 대전, 강원, 전북, 전남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대구 지역의 분노행동 역량이 전북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에 의하면, 감정절제 역량에서도 전북, 전남, 강원 지역에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역량 점수를 보였으며, 조절실패 역량에서도 부산, 광주 지역의 청소년이 강원이나 전북 지역의 청소년에 비해 높은 역량을 보였다.

### 3) 2017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 측정결과 차이 분석

#### (1) 2017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2017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을 구성하는 진로설계, 여가활용, 개척정신의 하위역량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결과는 <표 IV-26>와 [그림 IV-13]에 제시하였다.

**표 IV-26 2017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기술통계분석 결과**

역량군	역량	하위역량	M	SD
진로개발역량	진로설계	전체	3.01	0.45
		자기탐색	3.10	0.66
		직업탐색	2.88	0.77
		직업가치관	3.07	0.66
		진로준비	3.05	0.61
	여가활용	전체	3.03	0.54
		여가태도	3.38	0.57
		여가유능감	2.85	0.68
		여가만족	3.21	0.66
		여가몰입	3.26	0.63
	개척정신	전체	3.16	0.51
		차별화태도	2.69	0.62
		도전정신	2.80	0.68
		전체	2.74	0.56

2017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전체 평균은 3.01(SD=.45)로 나타났고 진로설계 평균은 3.03(SD=.54)로 나타났으며 여가활용 평균은 3.16(SD=.51) 개척정신에 대한 평균은 2.74(SD=.56)로 나타났다. 진로설계와 여가활용의 평균에 비해 개척정신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부역량 항목 중에서는 여가활용 세부역량인 여가태도, 여가몰입, 여가만족과 진로설계의 세부역량 중 자기탐색이 다른 역량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고 여가활용의 여가유능감과 개척정신의 차별화태도와 도전정신은 다른 역량의 평균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그림 IV-13】2017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평균 점수 비교

2017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을 구성하는 하위역량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27>에서 보는 것과 같이 상관계수  $r=.514\sim.618$ ,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V-27 2017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하위역량 상관관계 분석

역량	1	2	3
1. 진로설계	1		
2. 여가활용	.618**	1	
3. 개척정신	.540**	.514**	1

\*, $p<0.05$ , \*\*, $p<0.01$

2017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역량의 세부역량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28>과 같다. 상관계수  $r=.302\sim.682$ ,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8 2017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하위역량의 세부역량 상관관계 분석**

하위역량	자기 탐색	직업 탐색	진로 준비	직업 가치관	여가 태도	여가 유능감	여가 만족	여가 몰입	차별화 태도	도전 정신
자기탐색	1									
직업탐색	.493**	1								
진로준비	.506**	.569**	1							
직업가치관	.559**	.579**	.559**	1						
여가태도	.412**	.337**	.397**	.417**	1					
여가유능감	.447**	.376**	.380**	.436**	.420**	1				
여가만족	.434**	.384**	.413**	.455**	.575**	.521**	1			
여가몰입	.405**	.355**	.401**	.428**	.575**	.484**	.682**	1		
차별화태도	.400**	.386**	.367**	.425**	.304**	.412**	.342**	.360**	1	
도전정신	.363**	.341**	.302**	.415**	.305**	.412**	.352**	.324**	.473**	1

\*, $p<0.05$ , \*\*, $p<0.01$

(2)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특성에 따른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차이 분석

2017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가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t-검증과 F검증을 실시하였다.

① 2017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차이 분석

2017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측정점수가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성별, 학교급, 지역과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 IV-29>과 같다.

표 IV-29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차이분석

구분		사례수	진로개발역량		하위 역량					
					진로설계		여가활용		개척정신	
			M	(SD)	M	(SD)	M	(SD)	M	(SD)
전체		10,087	3.01	0.45	3.03	0.54	3.16	0.51	2.74	0.56
성별	남	5216	3.03	0.47	3.01	0.56	3.19	0.53	2.78	0.56
	여	4871	3.00	0.43	3.05	0.52	3.13	0.49	2.70	0.55
F값			3.228**		-3.208**		5.483**		7.203**	
학교급	초등(초기 청소년)(①)	2836	3.07	0.50	3.05	0.60	3.19	0.55	2.87	0.54
	중등(중기 청소년)(②)	2710	2.99	0.44	2.98	0.54	3.18	0.50	2.70	0.55
	고등(중기 청소년)(③)	3500	3.00	0.42	3.04	0.50	3.15	0.49	2.68	0.55
	대학(후기 청소년)(④)	1041	2.98	0.42	3.05	0.50	3.07	0.46	2.71	0.58
	F값		18.509**		8.829**		17.854**		71.441*	
			①)②=③=④		①=③=④)②		①)③)④,②)④		①)②=③=④	
학업 성취도 수준	생(①)	3625	3.13	0.46	3.14	0.56	3.27	0.51	2.87	0.56
	중(②)	3835	2.98	0.43	3.01	0.51	3.13	0.50	2.70	0.54
	해(③)	2392	2.90	0.45	2.90	0.53	3.06	0.52	2.64	0.54
	F값		107.254**		78.557**		73.359**		79.360**	
			①)②)③		①)②)③		①)②)③		①)②)③	
경제적 수준	생(①)	1666	3.21	0.44	3.24	0.54	3.35	0.50	2.94	0.56
	중(②)	6820	2.99	0.44	3.01	0.53	3.14	0.50	2.72	0.55
	해(③)	1583	2.89	0.45	2.89	0.55	3.06	0.52	2.63	0.55
	F값		232.911**		187.459**		152.455**		151.445**	
			①)②)③		①)②)③		①)②)③		①)②)③	
17개 시도	서울(①)	1501	3.06	0.44	3.08	0.54	3.21	0.50	2.78	0.55
	부산(②)	599	3.08	0.46	3.13	0.53	3.22	0.52	2.79	0.57
	대구(③)	499	2.98	0.43	3.01	0.50	3.12	0.52	2.70	0.52
	인천(④)	485	3.07	0.43	3.07	0.50	3.22	0.50	2.80	0.56
	광주(⑤)	565	3.04	0.45	3.05	0.54	3.17	0.52	2.80	0.54
	대전(⑥)	370	3.04	0.40	3.04	0.51	3.21	0.45	2.78	0.53
	울산(⑦)	359	2.98	0.42	2.98	0.51	3.14	0.46	2.71	0.53
	경기(⑧)	2568	3.00	0.47	3.01	0.56	3.16	0.52	2.74	0.58
	강원(⑨)	308	2.95	0.55	2.97	0.61	3.10	0.63	2.66	0.63
	충북(⑩)	395	3.02	0.43	3.04	0.51	3.15	0.48	2.76	0.56
	충남(⑪)	290	2.96	0.49	2.99	0.69	3.07	0.54	2.72	0.54
	세종(⑫)	69	3.03	0.54	3.01	0.61	3.18	0.58	2.80	0.65
	전북(⑬)	334	2.91	0.42	2.93	0.51	3.07	0.49	2.64	0.53
	전남(⑭)	378	3.01	0.51	3.02	0.58	3.16	0.57	2.72	0.60
	경북(⑮)	532	2.97	0.41	2.99	0.51	3.11	0.48	2.71	0.51
	경남(⑯)	520	3.00	0.41	3.03	0.50	3.15	0.46	2.73	0.53
	제주(⑰)	315	2.98	0.40	2.99	0.48	3.12	0.48	2.73	0.50
F값			4.963**		4.093**		4.064**		3.311**	
			①,②,④,⑤,⑥)⑬		①)②,⑬		①,②,④)⑩,⑬,⑮		①,②,④,⑤,⑥)⑬	
			①,②)②,⑧,⑩		②)⑦,⑨,⑧,⑩,⑬,		⑥)⑬		⑤)⑧	
			②)③, ④)⑧		⑤,⑰, ④)⑬					

\*,p<0.05, \*\*,p<0.01

2017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남자 청소년( $M=3.03, SD=.47$ )이 여자 청소년( $M=3.00, SD=.43$ )보다  $p<.01$  수준( $t=3.228$ )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설계역량의 경우는 여자청소년( $M=3.05, SD=.52$ )이 남자청소년( $M=3.01, SD=.56$ )보다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반면, 여가활용역량(남:  $M=3.19, SD=.53$ , 여:  $M=3.13, SD=.49$ )과 개척정신역량(남:  $M=2.78, SD=.56$ , 여:  $M=2.70, SD=.55$ )의 경우에는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 학교급별(초등, 중등, 고등, 대학) 진로개발역량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 $M=3.07, SD=.50$ )이 중학생( $M=2.99, SD=.44$ ), 고등학생( $M=3.00, SD=.42$ ), 대학생( $M=2.98, SD=.42$ )보다  $F=18.50,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로설계역량의 경우에는 초등학생( $M=3.05, SD=.60$ ), 중학생( $M=2.98, SD=.54$ ), 고등학생( $M=3.04, SD=.50$ ), 대학생( $M=3.05, SD=.50$ )간  $F=8.82,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초등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중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용역량에 대한 학교급별 기초통계분석결과 초등학생이  $3.19(SD=.55)$ , 중학생이  $3.18(SD=.50)$ , 고등학생이  $3.15(SD=.49)$ , 대학생이  $3.07(SD=.46)$ 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차이는  $F=17.85,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초등학생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의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대학생보다 중학생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척정신역량의 경우 초등학생( $M=2.87, SD=.54$ )이 중학생( $M=2.70, SD=.55$ ), 고등학생( $M=2.68, SD=.55$ ), 대학생( $M=2.71, SD=.58$ )보다  $F=71.44,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학업성취수준별 진로개발역량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로개발역량에 있어 학업성취도가 높은(상) 청소년의 평균은  $3.13(SD=.46)$ 으로 나타났으며, 중 수준 청소년은  $2.98(SD=.43)$ , 하 수준 청소년은  $2.90(SD=.45)$ 이다. 학교급별 진로개발역량의 차이를 F검증과 사후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F=107.25,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결과, 학업성취도가 상 수준, 중 수준, 하 수준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설계, 여가활용, 개척정신의 세부항목 모두 학업성취도가 상 수준의 청소년이 가장 높고, 중 수준의 청소년이 하 수준의 청소년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설계는 학업성취도가 상 수준인 청소년은  $3.14(SD=.56)$ , 중수준은  $3.01(SD=.51)$ , 하수준은  $2.90(SD=.53)$ 이며 각 집단 차이는  $F=78.55,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용능력은 상 수준의 청소년이  $3.27(SD=.51)$ , 중 수준의 청소년은  $3.13(SD=.50)$ , 하 수준의 청소년은  $3.06(SD=.52)$ 으로 나타났으며  $F=73.35,$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척정신은 상 수준의 청소년이 2.87( $SD=.56$ ), 중 수준의 청소년은 2.70( $SD=.54$ ), 하 수준의 청소년은 2.64( $SD=.54$ )로 나타났으며  $F=79.36$ ,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별 진로개발역량의 차이 분석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진로설계역량( $F=232.911$ ,  $p < .01$ ), 여가활용역량( $F=152.455$ ,  $p < .01$ ), 그리고 개척정신역량( $F=151.445$ ,  $p < .01$ )에서 경제적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 세 가지 하위역량에서 모두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개발역량 점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F=4.963$ ,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진로개발능력이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이 전북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과 부산지역이 경기, 강원, 충남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부산이 대구지역보다 높고 인천이 강원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진로설계역량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F=4.093$ ,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후분석결과, 서울지역이 경기와 전북지역보다, 부산지역이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경북, 제주지역보다 그리고 인천지역이 전북지역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가활용역량에 대한 지역별 차이 또한  $F=4.064$ ,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서울, 부산, 인천지역이 충남, 전북, 경북지역보다 그리고 대전지역이 전북지역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척정신역량에 대해서는  $F=3.311$ ,  $p < .01$  수준에서 지역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결과,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지역이 전북지역보다, 그리고 광주지역이 강원지역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차이를 종합해 보면, 진로개발역량은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높고, 초기 청소년이 중·후기 청소년보다 높았으며 학업성취수준이 높을수록 진로개발역량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개발역량별 차이를 보면, 진로설계는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이, 초등과 고등 청소년이 중등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여가활용의 경우 여자 청소년에 비해 남자청소년이, 중·후기 청소년보다 초기 청소년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척정신은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초등 청소년이 중등과 고등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모든 하위역량에서 학업성취도가 상 수준의 학생이 중·하 수준의 학생보다 높았으며,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여가활용능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별 차이에 있어서는 서울, 부산, 인천, 대전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중소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② 2017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역량 차이 분석

2017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역량을 구성하는 세부역량의 각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30>과 같다.

표 IV-30 2027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역량 차이분석

구분		사례수	진로설계역량							
			자기탐색		직업탐색		진로준비		직업기차관	
			M	(SD)	M	(SD)	M	(SD)	M	(SD)
전체		10,087	3.10	0.66	2.88	0.77	3.07	0.66	3.05	0.61
성별	남	5216	3.10	0.67	2.86	0.79	3.03	0.69	3.05	0.62
	여	4871	3.10	0.64	2.91	0.74	3.12	0.63	3.06	0.59
	F값		-584		-2,865**		-6,739**		-869	
학교급	초등(초기 청소년)(①)	2836	3.17	0.71	2.92	0.85	2.97	0.77	3.11	0.64
	중등(중기 청소년)(②)	2710	3.07	0.66	2.81	0.77	3.06	0.63	3.00	0.60
	고등(중기 청소년)(③)	3500	3.07	0.63	2.92	0.71	3.15	0.60	3.03	0.59
	대학(후기 청소년)(④)	1041	3.11	0.62	2.86	0.68	3.13	0.59	3.09	0.57
	F값		14.16**		14.06**		39.29**		20.75**	
			①)②,③,④		①,③)②,④		①)②)③,④		②)③)①,④	
학업 성취도 수준	상(①)	3625	3.22	0.67	3.01	0.80	3.13	0.69	3.19	0.60
	중(②)	3835	3.07	0.63	2.85	0.74	3.07	0.64	3.03	0.58
	하(③)	2392	2.97	0.66	2.76	0.73	3.00	0.65	2.89	0.61
	F값		114.03**		88.37**		31.38**		187.09**	
			①)②)③		①)②)③		①)②)③		①)②)③	
경제적 수준	상(①)	3625	3.34	0.61	3.10	0.79	3.23	0.68	3.27	0.62
	중(②)	3835	3.08	0.65	2.86	0.75	3.06	0.65	3.03	0.59
	하(③)	2392	2.95	0.69	2.73	0.76	2.98	0.69	2.90	0.62
	F값		158.530**		101.896**		68.272**		167.387**	
			①)②)③		①)②)③		①)②)③		①)②)③	
17개 시도	서울(①)	1501	3.15	0.65	2.94	0.77	3.13	0.66	3.11	0.62
	부산(②)	599	3.18	0.66	2.99	0.70	3.18	0.66	3.14	0.57
	대구(③)	499	3.09	0.63	2.89	0.71	3.06	0.62	3.01	0.58
	인천(④)	485	3.18	0.63	2.91	0.72	3.12	0.61	3.07	0.57
	광주(⑤)	565	3.12	0.67	2.91	0.80	3.02	0.67	3.11	0.62
	대전(⑥)	370	3.11	0.61	2.86	0.74	3.11	0.65	3.05	0.60
	울산(⑦)	359	3.12	0.62	2.77	0.73	3.07	0.61	2.96	0.57
	경기(⑧)	2568	3.10	0.67	2.87	0.79	3.04	0.69	3.03	0.62
	강원(⑨)	308	2.99	0.70	2.82	0.78	3.02	0.73	3.02	0.69
	충북(⑩)	395	3.03	0.65	2.89	0.77	3.13	0.67	3.09	0.55
	충남(⑪)	290	3.03	0.80	2.83	0.89	3.05	0.83	3.03	0.73
	세종(⑫)	69	3.04	0.81	2.97	0.86	3.03	0.73	3.01	0.68
	전북(⑬)	334	3.01	0.60	2.72	0.78	3.00	0.64	2.97	0.59
	전남(⑭)	378	3.06	0.72	2.95	0.79	3.07	0.68	3.00	0.65
	경북(⑮)	532	3.05	0.66	2.84	0.72	3.03	0.62	3.03	0.58
	경남(⑯)	520	3.11	0.61	2.89	0.74	3.08	0.60	3.03	0.55
	제주(⑰)	315	3.06	0.64	2.85	0.71	3.04	0.56	3.02	0.52
	F값		3.229**		3.477**		3.550**		3.662**	
			①,②,④)⑧,⑬		①,②,④,⑤,⑭)⑬		①)⑫		①)⑦,⑫,⑬	
					①)⑦, ②)⑦,⑫		②)⑤,⑫,⑬,⑮		②)③,⑦,⑫,⑬,⑭	
									③)⑦,⑬	

\*, $\alpha$ 0.05, \*\*, $\alpha$ 0.01

청소년의 개인특성변인인 성별, 학교급, 학업성취도 수준, 지역에 따른 진로설계역량의 세부역량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진로설계역량의 세부역량 중 자기탐색과 직업가치관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업탐색(남:  $M=2.86$ ,  $SD:.79$ ,  $t=-2.865$ )과 진로준비(남:  $M=3.03$ ,  $SD:.69$ ,  $t=-6.739$ )에 대해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교급별 진로설계 세부역량 차이의 차이를 F검증과 사후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자기탐색, 직업탐색, 진로준비, 직업가치관의 모든 세부역량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기탐색의 경우  $F=14.16$ ,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사후분석 결과, 초기 청소년이 중·후기 청소년보다 자기탐색능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고등학생이 대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업탐색능력에 대한 학교급별 차이는  $F=14.06$ ,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분석 결과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이 중학생과 대학생의 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진로준비능력에 대한 학교급별 차이는  $F=39.29$ ,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분석결과, 고등학생과 대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순서로 청소년의 진로준비능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업가치관에 대한 학교급별 차이는  $F=20.75$ ,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분석 결과 초등학생과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순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업성취도 수준별 진로설계능력에 대한 차이를 확인해 보기 위해 F검증과 사후분석을 한 결과, 진로개발역량의 네 가지 세부역량에 대해 모두  $p<.01$  수준에서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업성취도 수준별 자기탐색( $F=114.03$ ,  $p<.01$ ), 직업탐색( $F=88.37$ ,  $p<.01$ ), 진로준비( $F=31.38$ ,  $p<.01$ ), 직업가치관( $F=187.09$ ,  $p<.01$ )에 있어 학업성취도가 상수준, 중수준, 하수준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제수준별 진로설계역량의 차이 분석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자기탐색( $F=158.530$ ,  $p<.01$ ), 직업탐색( $F=101.896$ ,  $p<.01$ ), 진로준비( $F=68.272$ ,  $p<.01$ ), 그리고 직업가치관( $F=167.387$ ,  $p<.01$ )에서 경제적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사후검정 결과, 세 가지 하위역량에서 모두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역량 점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진로설계역량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역량의 차이를 분석 한 결과는 다른 개인특성변인과 마찬가지로 네 가지 세부역량에 대해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별 자기탐색( $F=3.229$ ,  $p<.01$ ), 직업탐색( $F=3.477$ ,  $p<.01$ ), 진로준비( $F=3.550$ ,  $p<.01$ ), 직업가치관( $F=3.662$ ,  $p<.01$ )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자기탐색에

대해서는 서울, 부산, 인천지역 청소년이 강원과 전북지역 청소년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업탐색에 대해서는 서울, 부산, 인천, 광주, 전남지역의 청소년이 전북지역 청소년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로준비에 대해서는 서울지역이 경기지역보다 그리고 부산지역이 광주, 경기, 전북, 경북지역 청소년보다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직업가치관에 대해서는 서울, 부산, 대구지역의 청소년이 울산과 전북지역 청소년보다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중 진로설계의 세부항목인 자기탐색, 직업탐색, 진로준비, 직업가치관의 개인특성변인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자기탐색의 경우, 성별에 대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초기청소년은 중·후기 청소년보다 높고 중기청소년보다 후기청소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성취도 수준이 높은 학생이 진로설계능력 수준도 높고 지역과 관련해서는 서울, 부산, 인천과 같은 대도시 지역의 청소년의 수준이 다른 지역의 청소년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업탐색의 경우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이,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이 중학생과 대학생보다 그리고 학업성취도 수준이 높은 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 차이도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등의 대도시 지역의 청소년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진로준비의 경우 여자 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초등학생과 중학생보다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지역적인 측면에서도 서울과 부산과 같은 대도시 거주 청소년들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가치관은 초등학생과 대학생이, 그리고 학업성취도와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차이에 있어서도 다른 세부역량과 마찬가지로 서울, 부산, 대구 등과 같은 대도시의 청소년들이 울산, 전북지역의 청소년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③ 2017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여가활용능력 차이 분석

청소년들의 인구학적특성에 따른 여가활용능력의 세부역량인 여가태도, 여가유능감, 여가만족, 여가몰입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31>과 같다.

표 IV-31 2017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여가활용 역량 차이분석

구분		사례수	여가활용역량							
			여가태도		여가유능감		여가만족		여가몰입	
			M	(SD)	M	(SD)	M	(SD)	M	(SD)
전체		10,087	3.38	0.57	2.85	0.68	3.21	0.66	3.26	0.63
성별	남	5216	3.36	0.59	2.93	0.69	3.22	0.67	3.27	0.64
	여	4871	3.40	0.55	2.75	0.67	3.19	0.65	3.24	0.62
학년			-3.35**		13.10**		2.30*		3.05*	
학교급	초등(초기 청소년)①	2836	3.38	0.61	2.91	0.71	3.28	0.70	3.26	0.69
	중등(중기 청소년)②	2710	3.40	0.57	2.85	0.68	3.23	0.64	3.28	0.62
	고등(후기 청소년)③	3500	3.39	0.55	2.80	0.68	3.17	0.65	3.26	0.61
	대학(후기 청소년)④	1041	3.27	0.53	2.80	0.64	3.09	0.59	3.14	0.56
	F값		14.14**		15.47**		27.83**		13.08**	
			①,②,③,④		①,④		①,②,③,④		①,②,③,④	
학업 성취도 수준	상①	3625	3.46	0.55	2.98	0.68	3.33	0.65	3.36	0.63
	중②	3835	3.36	0.56	2.80	0.67	3.16	0.65	3.22	0.62
	하③	2392	3.29	0.59	2.73	0.68	3.11	0.67	3.17	0.64
F값			72.05**		112.17**		100.07**		72.14**	
			①,②,③		①,②,③		①,②,③		①,②,③	
경제적 수준	상①	3625	3.49	0.55	3.10	0.66	2.40	0.64	3.43	0.61
	중②	3835	3.36	0.56	2.82	0.67	3.19	0.65	3.23	0.63
	하③	2392	3.32	0.60	2.69	0.70	3.09	0.69	3.17	0.64
F값			42.939**		173.424**		100.080**		82.814**	
			①,②,③		①,②,③		①,②,③		①,②,③	
17개 시도	서울①	1501	3.42	0.55	2.90	0.68	3.25	0.66	3.31	0.63
	부산②	599	3.45	0.55	2.86	0.70	3.30	0.64	3.32	0.60
	대구③	499	3.35	0.57	2.79	0.68	3.18	0.65	3.21	0.61
	인천④	485	3.42	0.54	2.92	0.67	3.27	0.65	3.32	0.59
	광주⑤	565	3.38	0.60	2.88	0.69	3.23	0.64	3.24	0.65
	대전⑥	370	3.42	0.53	2.91	0.67	3.25	0.61	3.30	0.57
	울산⑦	359	3.40	0.52	2.78	0.65	3.17	0.59	3.25	0.56
	경기⑧	2568	3.36	0.57	2.86	0.69	3.20	0.68	3.25	0.63
	강원⑨	308	3.34	0.68	2.73	0.78	3.17	0.80	3.26	0.84
	충북⑩	395	3.40	0.54	2.83	0.67	3.20	0.64	3.23	0.66
	충남⑪	290	3.29	0.59	2.78	0.72	3.10	0.71	3.15	0.70
	세종⑫	69	3.35	0.71	2.85	0.75	3.25	0.71	3.33	0.80
	전북⑬	334	3.33	0.55	2.73	0.65	3.10	0.62	3.15	0.60
	전남⑭	378	3.37	0.59	2.86	0.75	3.21	0.74	3.28	0.71
	경북⑮	532	3.35	0.54	2.79	0.65	3.16	0.64	3.17	0.61
	경남⑯	520	3.33	0.55	2.84	0.63	3.22	0.60	3.25	0.56
	제주⑰	315	3.38	0.64	2.79	0.63	3.15	0.63	3.19	0.58
F값			2.578**		3.247**		3.067**		3.748**	
			①,②,⑩		①,④,⑩,⑬		①,②,⑩,⑬, ②,⑮, ④,⑬		①,②,④,⑩,⑬,⑮	

성별에 따른 여가활용역량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네 가지 세부역량에 대해 모두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태도(남:  $M=3.36$ ,  $SD=.59$ , 여:  $M=3.40$ ,  $SD=.55$ ,  $t=-3.35$ )는 여자 청소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가유능감(남:  $M=2.93$ ,  $SD=.69$ , 여:  $M=2.75$ ,  $SD=.67$ ,  $t=13.10$ ), 여가만족(남:  $M=3.22$ ,  $SD=.67$ , 여:  $M=3.19$ ,  $SD=.65$ ,  $t=2.30$ ), 여가몰입(남:  $M=3.27$ ,  $SD=.64$ , 여:  $M=3.24$ ,  $SD=.62$ ,  $t=3.05$ )의 경우에는 남자 청소년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교급별 여가활용능력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여가활용능력의 네 가지 세부역량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여가태도의 경우에는 초등학생( $M=3.38$ ,  $SD=.61$ ), 중학생( $M=3.40$ ,  $SD=.57$ ), 고등학생( $M=3.39$ ,  $SD=.55$ )의 수준이 대학생( $M=3.27$ ,  $SD=.53$ )보다  $F=14.14$ ,  $p < .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가유능감의 경우에는, 초등학생( $M=2.91$ ,  $SD=.71$ ), 중학생( $M=2.85$ ,  $SD=.68$ ), 고등학생( $M=2.80$ ,  $SD=.68$ )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초등학생이 대학생( $M=2.80$ ,  $SD=.64$ )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F=15.47$ ,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만족의 경우에는 초등학생( $M=3.28$ ,  $SD=.70$ ), 중학생( $M=3.23$ ,  $SD=.64$ ), 고등학생( $M=3.17$ ,  $SD=.65$ ), 대학생( $M=3.09$ ,  $SD=.59$ ) 순으로  $F=27.83$ ,  $p < .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여가몰입의 경우에는 초등학생( $M=3.26$ ,  $SD=.69$ ), 중학생( $M=3.28$ ,  $SD=.62$ ), 고등학생( $M=3.26$ ,  $SD=.61$ )이 대학생( $M=3.14$ ,  $SD=.56$ )보다  $F=13.08$ ,  $p < .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업성취도 수준별 여가활용능력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변량 분석을 한 결과 여가활용능력의 네 가지 세부역량에 있어 학업성취도 수준별 차이가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후분석결과 여가태도(상:  $M=3.46$ ,  $SD=.55$ , 중:  $M=3.36$ ,  $SD=.56$ , 하:  $M=3.29$ ,  $SD=.59$ ,  $F=72.05$ ), 여가유능감(상:  $M=2.98$ ,  $SD=.68$ , 중:  $M=2.80$ ,  $SD=.67$ , 하:  $M=2.73$ ,  $SD=.68$ ,  $F=112.17$ ), 여가만족(상:  $M=3.33$ ,  $SD=.65$ , 중:  $M=3.16$ ,  $SD=.65$ , 하:  $M=3.11$ ,  $SD=.67$ ,  $F=100.07$ ), 여가몰입(상:  $M=3.36$ ,  $SD=.63$ , 중:  $M=3.22$ ,  $SD=.62$ , 하:  $M=3.17$ ,  $SD=.64$ ,  $F=72.14$ )에 있어 학업성취도 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제수준별 여가활용역량의 차이 분석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여가태도( $F=42.939$ ,  $p < .01$ ), 여가유능감( $F=173.424$ ,  $p < .01$ ), 여가만족( $F=173.424$ ,  $p < .01$ ), 그리고 여가몰입( $F=100.080$ ,  $p < .01$ )에서 경제적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사후검정 결과, 세 가지 하위역량에서 모두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역량 점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여가활용능력 차이는 다른 개인적 특성변인과 마찬가지로 네 가지 세부역량에 있어

학업성취도 수준별 차이가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가태도의 경우 서울 ( $M=3.42$ ,  $SD=.55$ )과 부산( $M=3.45$ ,  $SD=.55$ )지역의 청소년의 수준이 충남( $M=3.29$ ,  $SD=.59$ )지역 청소년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F=2.578$ ). 여가유능감의 경우 서울( $M=2.90$ ,  $SD=.68$ )과 인천 ( $M=2.92$ ,  $SD=.67$ )지역의 청소년의 수준이 강원( $M=2.73$ ,  $SD=.78$ )과 전북( $M=2.73$ ,  $SD=.65$ )지역 청소년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F=3.247$ ). 여가만족은 서울( $M=3.25$ ,  $SD=.66$ )과 부산 ( $M=3.30$ ,  $SD=.64$ )지역이 충남( $M=3.10$ ,  $SD=.71$ )과 전북( $M=3.10$ ,  $SD=.62$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부산지역이 경북( $M=3.16$ ,  $SD=.64$ )지역보다 높고, 인천( $M=3.27$ ,  $SD=.65$ )지역이 전북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F=3.067$ ). 여가몰입은 서울( $M=3.31$ ,  $SD=.63$ ), 부산 ( $M=3.32$ ,  $SD=.60$ ), 인천( $M=3.32$ ,  $SD=.59$ )지역이 충남( $M=3.15$ ,  $SD=.70$ ), 전북( $M=3.15$ ,  $SD=.60$ ), 경북( $M=3.17$ ,  $SD=.61$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3.748$ ).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중 여가활용능력의 세부역량인 여가태도, 여가유능감, 여가만족, 여가몰입의 개인특성변인에 따른 차이를 종합해 보면, 여가태도는 여자 청소년, 초기와 중기청소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가유능감, 여가만족, 여가몰입은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높았으며 초기 청소년이 후기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업성취 수준과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여가활용능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가활용능력의 지역별 차이도 다른 하위역량과 마찬가지로 서울, 부산, 인천 등 대도시 지역의 청소년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④ 2017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개척정신역량 차이 분석

청소년 개척정신의 세부역량인 차별화태도와 도전정신이 청소년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32>와 같다.

표 IV-32 2017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개척정신 역량 차이분석

구분		사례수	개척정신			
			차별화태도		도전정신	
			M	(SD)	M	(SD)
전체		10,087	2.69	0.62	2.80	0.68
성별	남	5216	2.71	0.63	2.86	0.67
	여	4871	2.67	0.61	2.74	0.68
			3.15*		8.96**	
학교급	초등(초기 청소년)(①)	2836	2.71	0.65	3.04	0.64
	중등(중기 청소년)(②)	2710	2.67	0.61	2.73	0.67
	고등(후기 청소년)(③)	3500	2.69	0.60	2.68	0.66
	대학(후기 청소년)(④)	1041	2.71	0.63	2.72	0.66
	F값		2.14		178.82**	
					①)②)③, ①)④	
학업 성취도 수준	상(①)	3625	2.79	0.63	2.95	0.68
	중(②)	3835	2.66	0.61	2.73	0.66
	하(③)	2392	2.60	0.60	2.68	0.66
	F값		74.34**		161.03**	
			①)②)③		①)②)③	
경제적 수준	상(①)	3625	2.88	0.64	3.01	0.69
	중(②)	3835	2.67	0.61	2.78	0.69
	하(③)	2392	2.58	0.61	2.67	0.67
	F값		109.547**		111.860**	
			①)②)③		①)②)③	
17개 시도	서울(①)	1501	2.75	0.61	2.81	0.67
	부산(②)	599	2.74	0.63	2.84	0.68
	대구(③)	499	2.67	0.59	2.72	0.64
	인천(④)	485	2.73	0.62	2.87	0.70
	광주(⑤)	565	2.70	0.61	2.90	0.64
	대전(⑥)	370	2.72	0.62	2.84	0.65
	울산(⑦)	359	2.66	0.60	2.75	0.64
	경기(⑧)	2568	2.69	0.64	2.80	0.70
	강원(⑨)	308	2.60	0.68	2.72	0.78
	충북(⑩)	395	2.71	0.61	2.82	0.66
	충남(⑪)	290	2.62	0.66	2.81	0.68
	세종(⑫)	69	2.77	0.79	2.84	0.72
	전북(⑬)	334	2.59	0.56	2.68	0.66
	전남(⑭)	378	2.68	0.66	2.77	0.72
	경북(⑮)	532	2.67	0.57	2.75	0.65
	경남(⑯)	520	2.66	0.61	2.79	0.62
	제주(⑰)	315	2.66	0.56	2.80	0.64
			2.769**		3.157**	
			①)⑨,⑬		③)⑤, ④)⑬	
			②)⑬		⑤)③,⑧,⑬,⑮	

성별에 따른 차별화태도(남:  $M=2.71$ ,  $SD=.63$ , 여:  $M=2.67$ ,  $SD=.61$ ,  $t=3.15$ )와 도전정신(남:  $M=2.86$ ,  $SD=.67$ , 여:  $M=2.74$ ,  $SD=.68$ ,  $t=8.96$ )은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교급에 따른 개척정신의 세부역량 차이를 분석한 결과, 차별화태도는 학교급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도전정신은 초등학생( $M=3.04$ ,  $SD=.64$ ), 중학생( $M=2.73$ ,  $SD=.67$ ), 고등학생( $M=2.68$ ,  $SD=.66$ ) 순으로, 그리고 대학생( $M=2.72$ ,  $SD=.66$ )보다 초등학생 수준이  $F=178.82$ ,  $p<.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도 수준별 차별화태도(상:  $M=2.79$ ,  $SD=.63$ , 중:  $M=2.66$ ,  $SD=.61$ , 하:  $M=2.60$ ,  $SD=.60$ ,  $F=74.34$ )와 도전정신(상:  $M=2.95$ ,  $SD=.68$ , 중:  $M=2.73$ ,  $SD=.66$ , 하:  $M=2.68$ ,  $SD=.66$ ,  $F=161.03$ ) 차이는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정한 결과 상수준, 중수준, 하수준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별 개척정신역량의 차이 분석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차별화태도( $F=109.547$ ,  $p<.01$ ), 도전정신( $F=111.860$ ,  $p<.01$ )에서 경제적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사후검정 결과, 세 가지 하위역량에서 모두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역량 점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개척정신역량의 차이는  $p<.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차별화태도( $F=2.769$ )에 대해서는 서울( $M=2.75$ ,  $SD=.61$ )지역이 강원( $M=2.60$ ,  $SD=.68$ )과 전북( $M=2.59$ ,  $SD=.56$ )지역보다 그리고 부산( $M=2.74$ ,  $SD=.63$ )지역이 전북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전정신의 경우에는 광주( $M=2.90$ ,  $SD=.64$ )지역이 대구( $M=2.72$ ,  $SD=.64$ ), 강원( $M=2.72$ ,  $SD=.78$ ), 전북( $M=2.68$ ,  $SD=.66$ ), 경북( $M=2.75$ ,  $SD=.65$ )지역보다 높고, 인천( $M=2.87$ ,  $SD=.70$ )지역이 전북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중 개척정신의 세부항목인 차별화태도, 도전정신의 개인특성변인에 따른 차이를 종합해 보면, 차별화태도는 남자 청소년이 그리고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전정신은 남자청소년과 초기청소년이 중기청소년과 후기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학업성취도 수준과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척정신의 세부역량들의 지역별 차이도 다른 진로개발역량과 마찬가지로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등 대도시 지역의 청소년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 4) 2017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 측정결과 차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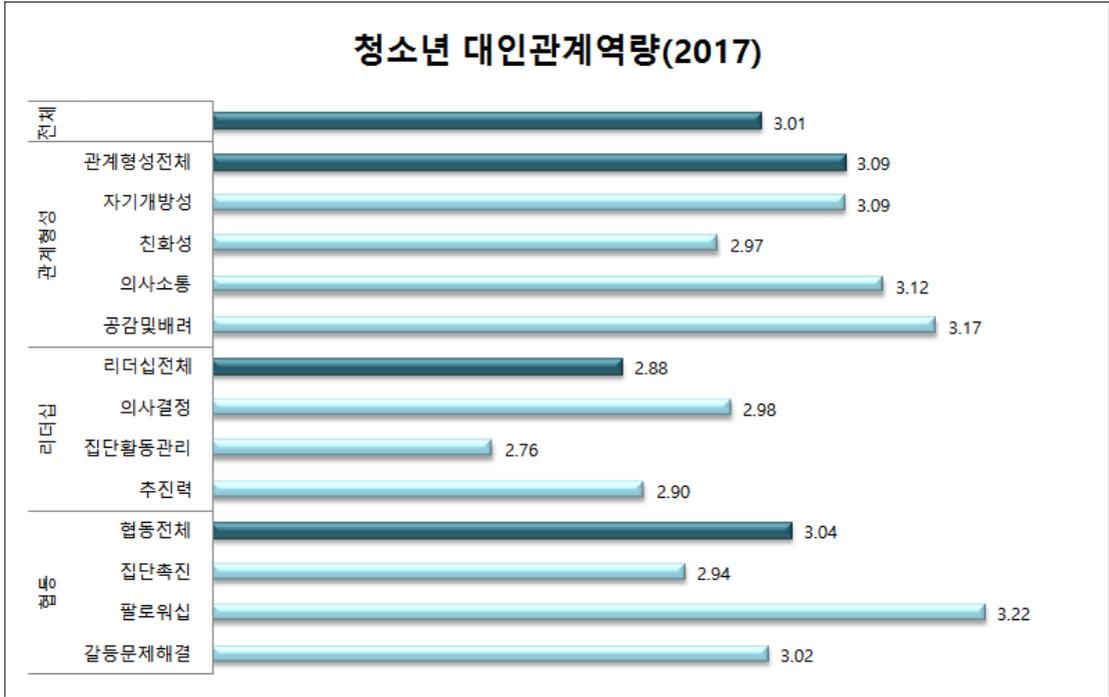
##### (1) 2017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2017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을 구성하는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의 하위역량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결과는 <표 IV-33>와 [그림 IV-14]에 제시하였다.

**표 IV-33**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기술통계분석 결과

역량군	하위역량	세부역량	M	SD
대인관계역량	전체		3.01	0.47
	관계형성	자기개방성	3.09	0.69
		친화성	2.97	0.69
		의사소통	3.12	0.58
		공감 및 배려	3.17	0.56
		전체	3.09	0.50
	리더십	의사결정	2.98	0.57
		집단활동관리	2.76	0.69
		추진력	2.90	0.60
		전체	2.88	0.55
	협동	집단촉진	2.94	0.61
		팔로워십	3.22	0.60
		갈등문제해결	3.02	0.61
		전체	3.04	0.53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전체 평균은 3.01(SD=.47)로 나타났고, 관계형성 평균은 3.09(SD=.50)로 나타났으며, 리더십 평균은 2.88(SD=.55), 협동 평균은 3.04(SD=.53)로 나타났다. 관계형성과 협동의 평균에 비해 리더십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계형성의 세부역량 중에서는 공감 및 배려가 가장 높았고, 친화성이 가장 낮았다. 리더십의 세부역량 중에서는 의사결정이 가장 높고, 추진력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협동의 세부역량 중에서는 팔로워십이 가장 높고, 집단촉진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4】2017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평균 점수 비교

2017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을 구성하는 하위역량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34>에서 보는 것과 같이 상관계수  $r=.665\sim.746$ ,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V-34 2017 청소년 대인관계의 하위역량 상관관계 분석

역량	1	2	3
1. 관계형성	1		
2. 리더십	.665**	1	
3. 협동	.692**	.746**	1

\*, $p<0.05$ , \*\*, $p<0.01$

2017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역량의 세부역량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35>와 같다. 상관계수  $r=.364\sim.715$ ,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5 2017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하위역량의 세부역량 상관관계 분석

하위역량	1	2	3	4	5	6	7	8	9	10
1. 자기개방성	1									
2. 친화성	.544**	1								
3. 의사소통	.489**	.572**	1							
4. 공감 및 배려	.430**	.456**	.617**	1						
5. 의사결정	.378**	.452**	.557**	.491**	1					
6. 집단활동관리	.392**	.534**	.519**	.415**	.638**	1				
7. 추진력	.392**	.505**	.550**	.484**	.657**	.715**	1			
8. 집단촉진	.414**	.528**	.569**	.499**	.592**	.596**	.633**	1		
9. 팔로워십	.364**	.419**	.519**	.474**	.531**	.516**	.566**	.621**	1	
10. 갈등문제해결	.450**	.505**	.555**	.497**	.560**	.574**	.595**	.681**	.622**	1

\*, $p<0.05$ , \*\*, $p<0.01$

## (2)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차이 분석

2017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가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t-검증과 F검증을 실시하였다.

① 2017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차이 분석

2017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가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성별, 학교급, 학업성취도 수준, 경제수준, 지역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 IV-36>과 같다.

표 IV-36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차이분석

구분	사례수	대인관계역량		하위역량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	
		M	(SD)	M	(SD)	M	(SD)	M	(SD)
전체	10,087	3.01	(0.47)	3.09	(0.50)	2.88	(0.55)	3.04	(0.53)
성별	남	5,216	2.97 (0.49)	3.05 (0.52)	2.86 (0.57)	3.00 (0.55)			
	여	4,871	3.05 (0.45)	3.13 (0.48)	2.91 (0.53)	3.08 (0.50)			
	F값		-7.835**	-8.216**	-4.553**	-8.305**			
학교급	초등(초기 청소년)①	2,836	2.95 (0.55)	3.01 (0.57)	2.85 (0.62)	2.96 (0.60)			
	중등(중기 청소년)②	2,710	3.03 (0.48)	3.11 (0.50)	2.89 (0.56)	3.07 (0.52)			
	고등(중기 청소년)③	3,500	3.03 (0.43)	3.12 (0.46)	2.89 (0.51)	3.07 (0.48)			
	대학(후기 청소년)④	1,041	3.04 (0.36)	3.11 (0.41)	2.93 (0.43)	3.07 (0.42)			
	F값		23.263**	27.893**	7.589**	29.342**			
			②,③,④)①	②,③,④)①	④)①,③	②,③,④)①			
학업성취도 수준	상①	3,625	3.10 (0.49)	3.14 (0.52)	3.02 (0.57)	3.13 (0.55)			
	중②	3,835	2.99 (0.45)	3.08 (0.48)	2.85 (0.51)	3.02 (0.50)			
	하③	2,392	2.91 (0.46)	3.03 (0.51)	2.73 (0.53)	2.93 (0.51)			
	F값		129.178**	38.221**	222.192**	115.097**			
			①)②)③	①)②)③	①)②)③	①)②)③			
경제적 수준	상①	1,666	3.18 (0.50)	3.22 (0.53)	3.09 (0.57)	3.20 (0.55)			
	중②	6,820	2.99 (0.45)	3.07 (0.49)	2.86 (0.52)	3.02 (0.51)			
	하③	1,583	2.91 (0.49)	3.01 (0.53)	2.75 (0.58)	2.94 (0.55)			
	F값		147.609**	80.673**	180.291**	117.042**			
			①)②)③	①)②)③	①)②)③	①)②)③			
17개 시도	서울①	1,501	3.07 (0.47)	3.14 (0.51)	2.96 (0.55)	3.09 (0.52)			
	부산②	599	3.12 (0.50)	3.20 (0.53)	2.99 (0.58)	3.16 (0.55)			
	대구③	499	3.00 (0.48)	3.09 (0.51)	2.85 (0.55)	3.03 (0.54)			
	인천④	485	3.07 (0.48)	3.16 (0.49)	2.93 (0.60)	3.10 (0.52)			
	광주⑤	565	2.97 (0.48)	3.02 (0.52)	2.87 (0.55)	3.02 (0.53)			
	대전⑥	370	3.04 (0.45)	3.12 (0.48)	2.91 (0.53)	3.05 (0.50)			
	울산⑦	359	3.00 (0.44)	3.10 (0.47)	2.84 (0.50)	3.03 (0.48)			
	경기⑧	69	3.00 (0.57)	3.10 (0.62)	2.86 (0.58)	2.99 (0.61)			
	강원⑨	2,568	2.99 (0.49)	3.06 (0.52)	2.86 (0.57)	3.01 (0.54)			
	충북⑩	308	2.94 (0.44)	3.02 (0.47)	2.79 (0.53)	2.98 (0.47)			
	충남⑪	395	3.03 (0.44)	3.11 (0.46)	2.89 (0.52)	3.04 (0.51)			
	세종⑫	290	2.92 (0.50)	2.98 (0.53)	2.81 (0.59)	2.94 (0.59)			
	전북⑬	334	2.94 (0.43)	3.02 (0.49)	2.78 (0.49)	2.99 (0.48)			
	전남⑭	378	3.00 (0.46)	3.09 (0.49)	2.85 (0.53)	3.04 (0.54)			
	경북⑮	532	2.95 (0.45)	3.03 (0.48)	2.82 (0.51)	2.97 (0.51)			
	경남⑯	520	3.03 (0.43)	3.10 (0.47)	2.90 (0.51)	3.06 (0.46)			
	제주⑰	315	2.96 (0.43)	3.06 (0.45)	2.81 (0.50)	2.98 (0.52)			
F값		7.428**	6.975**	6.116**1)	5.867**				
			②)⑩	②)⑩	②)⑩				

\*,p<0.05, \*\*,p<0.01

주1) 사후분석 결과, 유의미한 차이 없음.

<표 IV-36>에 의하면,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대인관계역량(남: 3.05, 여: 2.97) 및 대인관계역량의 하위역량인 관계형성역량(남: 3.13, 여: 3.05), 리더십역량(남: 2.91, 여: 2.86), 협동역량(남: 3.08, 여: 3.00)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의 학교급(초등, 중등, 고등, 대학)에 따라 대인관계역량(초: 2.95, 중: 3.03, 고: 3.03, 대: 3.04)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인관계역량의 하위역량인 관계형성(초: 3.01, 중: 3.11, 고: 3.12, 대: 3.11)과 협동역량(초: 2.96, 중: 3.07, 고: 3.07, 대: 3.07) 또한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았으며, 리더십역량(초: 2.85, 중: 2.89, 고: 2.89, 대: 2.93)은 대학생이 초등학생 및 중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 학업성취수준에 따라서는 학업성취도 수준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역량(상: 3.10, 중: 2.99, 하: 2.91) 및 대인관계역량의 하위역량인 관계형성(상: 3.14, 중: 3.08, 하: 3.03), 리더십(상: 3.02, 중: 2.85, 하: 2.73), 협동역량(상: 3.13, 중: 3.02, 하: 2.93)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역량(상: 3.18, 중: 2.99, 하: 2.91) 및 대인관계역량의 하위역량인 관계형성(상: 3.22, 중: 3.07, 하: 3.01), 리더십(상: 3.09, 중: 2.86, 하: 2.75), 협동역량(상: 3.20, 중: 3.02, 하: 2.94)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서는 대인관계역량 및 대인관계의 하위역량인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역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부산이 충남에 비해 대인관계역량(부산: 3.12, 충남: 2.92), 관계형성(부산: 3.20, 충남: 2.98) 및 협동역량(부산: 3.16, 충남: 2.94)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리더십역량은 사후분석결과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② 2017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관계역량 차이 분석

2017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관계역량을 구성하는 세부역량의 각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37>과 같다.

표 IV-37 2017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관계형성 역량 차이분석

구분	사례수	관계형성								
		자기개방성		친화성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		
		M	(SD)	M	(SD)	M	(SD)	M	(SD)	
전체	10,087	3.09	(0.69)	2.97	(0.69)	3.12	(0.58)	3.17	(0.56)	
성별	남	5,216	3.04	(0.70)	2.97	(0.68)	3.08	(0.59)	3.11	(0.57)
	여	4,871	3.14	(0.68)	2.97	(0.69)	3.17	(0.55)	3.24	(0.53)
	F값		-7.437**		-0.383		-8.282**		-11.399**	
학교급	초등(초기 청소년)①	2,836	2.93	(0.78)	2.96	(0.75)	3.07	(0.65)	3.10	(0.63)
	중등(중기 청소년)②	2,710	3.13	(0.69)	3.00	(0.69)	3.14	(0.57)	3.18	(0.55)
	고등(중기 청소년)③	3,500	3.17	(0.64)	2.95	(0.65)	3.15	(0.53)	3.21	(0.52)
	대학(후기 청소년)④	1,041	3.12	(0.56)	2.97	(0.59)	3.14	(0.49)	3.19	(0.48)
	F값		69.836**		3.103* 1)		12.761**		20.034**	
			②,③,④ > ①			②,③,④ > ①		②,③,④ > ①		
학업 성취도 수준	상①	3,625	3.08	(0.73)	3.06	(0.70)	3.21	(0.58)	3.23	(0.57)
	중②	3,835	3.10	(0.67)	2.94	(0.67)	3.10	(0.56)	3.16	(0.55)
	하③	2,392	3.09	(0.67)	2.89	(0.68)	3.03	(0.58)	3.11	(0.55)
	F값		.373		49.229**		68.260**		35.781**	
				① > ② > ③		① > ② > ③		① > ② > ③		
경제적 수준	상①	1,666	3.17	(0.73)	3.17	(0.70)	3.26	(0.59)	3.29	(0.58)
	중②	6,820	3.08	(0.68)	2.95	(0.66)	3.11	(0.56)	3.16	(0.55)
	하③	1,583	3.03	(0.72)	2.85	(0.72)	3.05	(0.61)	3.12	(0.57)
	F값		18.228**		97.486**		63.716**		46.938**	
			①)②)③		①)②)③		①)②)③		①)②)③	
17개 시도	서울①	1,501	3.13	(0.69)	3.04	(0.68)	3.18	(0.58)	3.22	(0.57)
	부산②	599	3.21	(0.67)	3.04	(0.70)	3.24	(0.57)	3.29	(0.59)
	대구③	499	3.07	(0.71)	2.96	(0.67)	3.12	(0.56)	3.19	(0.55)
	인천④	485	3.13	(0.71)	3.06	(0.69)	3.21	(0.58)	3.24	(0.54)
	광주⑤	565	2.97	(0.74)	2.89	(0.70)	3.07	(0.61)	3.14	(0.57)
	대전⑥	370	3.13	(0.66)	3.03	(0.67)	3.15	(0.56)	3.19	(0.51)
	울산⑦	359	3.13	(0.65)	2.95	(0.65)	3.16	(0.54)	3.16	(0.52)
	경기⑧	69	3.06	(0.82)	2.98	(0.79)	3.19	(0.67)	3.16	(0.63)
	강원⑨	2,568	3.07	(0.71)	2.95	(0.71)	3.09	(0.59)	3.14	(0.58)
	충북⑩	308	3.03	(0.70)	2.86	(0.65)	3.07	(0.51)	3.12	(0.53)
	충남⑪	395	3.14	(0.63)	2.97	(0.65)	3.14	(0.57)	3.20	(0.51)
	세종⑫	290	2.93	(0.76)	2.88	(0.72)	3.01	(0.62)	3.11	(0.57)
	전북⑬	334	3.05	(0.66)	2.88	(0.69)	3.06	(0.58)	3.09	(0.58)
	전남⑭	378	3.06	(0.69)	2.97	(0.67)	3.13	(0.54)	3.20	(0.54)
	경북⑮	532	3.04	(0.67)	2.96	(0.65)	3.04	(0.54)	3.10	(0.54)
	경남⑯	520	3.11	(0.66)	2.99	(0.66)	3.12	(0.54)	3.19	(0.51)
	제주⑰	315	3.08	(0.64)	2.92	(0.64)	3.07	(0.53)	3.16	(0.54)
F값		4.512**		4.229** 1)		6.563**		5.193** 1)		
			② > ①			② > ①				

\*,p<0.05, \*\*,p<0.01

주1) 사후분석 결과, 유의미한 차이 없음.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관계형성역량에 있어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자기개방성(남: 3.14, 여: 3.04), 의사소통(남: 3.17, 여: 3.08), 공감 및 배려 역량(남: 3.24, 여: 3.1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의 학교급(초등, 중등, 고등, 대학)에 따라서는 관계형성역량의 세부역량인 자기개방성, 친화성,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 역량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후분석결과, 초등학생은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보다 자기개방성(초: 2.93, 중: 3.13, 고: 3.17, 대: 3.12), 의사소통(초: 3.07, 중: 3.14, 고: 3.15, 대: 3.14), 공감 및 배려 역량(초: 3.10, 중: 3.18, 고: 3.21, 대: 3.19)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화성 역량(초: 2.96, 중: 3.00, 고: 2.95, 대: 2.97)에 대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교급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학업성취수준에 따라서는 학업성취도 수준이 높을수록 친화성(상: 3.06, 중: 2.94, 하: 2.89), 의사소통(상: 3.21, 중: 3.10, 하: 3.03), 공감 및 배려 역량(상: 3.23, 중: 3.16, 하: 3.11),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자기개방성(상: 3.17, 중: 3.08, 하: 3.03), 친화성(상: 3.17, 중: 2.95, 하: 2.85), 의사소통(상: 3.26, 중: 3.11, 하: 3.05), 공감 및 배려 역량(상: 3.29, 중: 3.16, 하: 3.12)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서는 관계형성의 세부역량인 자기개방성, 친화성,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 역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부산이 충남에 비해 자기개방성(부산: 3.21, 충남: 2.93), 의사소통(부산: 3.24, 충남: 3.01)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친화성, 공감 및 배려 역량은 사후분석결과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③ 2017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리더십 차이 분석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성별, 학교급, 학업성취도 수준, 경제수준, 17개 시도)에 따른 리더십의 세부역량인 의사결정, 집단활동관리, 추진력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IV-38>과 같다.

표 IV-38 2017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리더십 역량 차이분석

구분		사례수	리더십					
			의사결정		집단활동관리		추진력	
			M	(SD)	M	(SD)	M	(SD)
전체		10,087	2.98	(0.57)	2.76	(0.69)	2.90	(0.60)
성별	남	5,216	2.95	(0.60)	2.73	(0.70)	2.89	(0.63)
	여	4,871	3.02	(0.55)	2.79	(0.67)	2.91	(0.58)
			-6.137**		-4.473**		-1.449	
학교급	초등(초기 청소년)(①)	2,836	2.94	(0.67)	2.72	(0.73)	2.88	(0.67)
	중등(중기 청소년)(②)	2,710	2.99	(0.57)	2.77	(0.69)	2.92	(0.61)
	고등(중기 청소년)(③)	3,500	3.00	(0.52)	2.76	(0.66)	2.89	(0.56)
	대학(후기 청소년)(④)	1,041	3.01	(0.46)	2.83	(0.59)	2.96	(0.50)
F값			7.638**		7.502**		5.840**	
			③, ④ > ①		④ > ①, ③		④ > ①, ③	
학업 성취도 수준	상(①)	3,625	3.10	(0.60)	2.92	(0.70)	3.04	(0.61)
	중(②)	3,835	2.95	(0.54)	2.72	(0.66)	2.87	(0.57)
	하(③)	2,392	2.86	(0.55)	2.58	(0.66)	2.75	(0.60)
F값			145.013**		189.311**		180.697**	
			①>②>③		①>②>③		①>②>③	
경제적 수준	상(①)	1,666	3.15	(0.60)	3.01	(0.69)	3.12	(0.62)
	중(②)	6,820	2.97	(0.55)	2.74	(0.66)	2.88	(0.58)
	하(③)	1,583	2.87	(0.61)	2.60	(0.71)	2.77	(0.63)
F값			110.111**		157.777**		150.965**	
			①>②>③		①>②>③		①>②>③	
17개 시도	서울(①)	1,501	3.06	(0.57)	2.83	(0.69)	2.97	(0.60)
	부산(②)	599	3.10	(0.61)	2.84	(0.71)	3.02	(0.61)
	대구(③)	499	2.96	(0.56)	2.74	(0.69)	2.86	(0.61)
	인천(④)	485	3.02	(0.60)	2.79	(0.73)	2.96	(0.67)
	광주(⑤)	565	2.98	(0.58)	2.75	(0.67)	2.90	(0.61)
	대전(⑥)	370	3.00	(0.55)	2.80	(0.65)	2.92	(0.60)
	울산(⑦)	359	2.95	(0.53)	2.70	(0.64)	2.86	(0.56)
	경기(⑧)	69	2.93	(0.62)	2.76	(0.71)	2.90	(0.66)
	강원(⑨)	2,568	2.96	(0.59)	2.75	(0.71)	2.88	(0.61)
	충북(⑩)	308	2.91	(0.52)	2.63	(0.69)	2.84	(0.60)
	충남(⑪)	395	2.97	(0.56)	2.79	(0.67)	2.92	(0.58)
	세종(⑫)	290	2.90	(0.63)	2.69	(0.73)	2.86	(0.62)
	전북(⑬)	334	2.90	(0.56)	2.67	(0.60)	2.77	(0.57)
	전남(⑭)	378	2.95	(0.54)	2.75	(0.68)	2.85	(0.60)
	경북(⑮)	532	2.94	(0.54)	2.69	(0.65)	2.85	(0.58)
	경남(⑯)	520	3.01	(0.54)	2.77	(0.64)	2.93	(0.55)
	제주(⑰)	315	2.89	(0.52)	2.70	(0.65)	2.84	(0.55)
F값			5.754**1)		3.920**1)		5.622**	
							② > ③	

\*.p<0,05, \*\*.p<0,01

주1) 사후분석 결과, 유의미한 차이 없음.

2017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리더십역량에 있어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의사결정(남: 3.02, 여: 2.95), 집단활동관리 역량(남: 2.79, 여: 2.73)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의 학교급(초등, 중등, 고등, 대학)에 따라서는 리더십역량의 세부역량인 의사결정, 집단활동관리, 추진력 역량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후분석결과, 고등학생 및 대학생은 초등학생보다 의사결정역량이 유의하게 높았고(초: 2.94, 중: 2.99, 고: 3.00, 대: 3.01), 대학생은 초등학생 및 고등학생보다 집단활동관리역량(초: 2.72, 중: 2.77, 고: 2.76, 대: 2.83) 및 추진력역량(초: 2.88, 중: 2.92, 고: 2.89, 대: 2.96)이 유의하게 높았다.

청소년 학업성취수준에 따라서는 학업성취도 수준이 높을수록 의사결정(상: 3.10, 중: 2.95, 하: 2.86), 집단활동관리(상: 2.92, 중: 2.72, 하: 2.58), 추진력 역량(상: 3.04, 중: 2.87, 하: 2.75),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의사결정(상: 3.15, 중: 2.97, 하: 2.87), 집단활동관리(상: 3.01, 중: 2.74, 하: 2.60), 추진력 역량(상: 3.12, 중: 2.88, 하: 2.77)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서는 리더십의 세부역량인 의사결정, 집단활동관리, 추진력 역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부산은 전북에 비해 의사결정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부산: 3.02, 전북: 2.77), 의사결정 및 집단활동관리 역량은 사후분석결과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④ 2017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협동역량 차이 분석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성별, 학교급, 학업성취도 수준, 경제수준, 17개 시도)에 따라서 협동의 세부역량인 집단축진, 팔로워십, 갈등문제해결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표 IV-39>와 같다.

표 IV-39 2017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협동역량 차이분석

구분		사례수	협동					
			집단축진		팔로워십		갈등문제해결	
			M	(SD)	M	(SD)	M	(SD)
전체		10,087	2.94	(0.61)	3.22	(0.60)	3.02	(0.61)
성별	남	5,216	2.91	(0.63)	3.17	(0.62)	2.97	(0.63)
	여	4,871	2.97	(0.58)	3.27	(0.57)	3.07	(0.58)
			-4.932**		-8.746**		-8.430**	
학교급	초등(초기 청소년)①	2,836	2.90	(0.68)	3.15	(0.67)	2.89	(0.68)
	중등(중기 청소년)②	2,710	2.97	(0.60)	3.24	(0.59)	3.06	(0.61)
	고등(중기 청소년)③	3,500	2.94	(0.57)	3.25	(0.56)	3.06	(0.57)
	대학후기 청소년④	1,041	2.95	(0.51)	3.20	(0.53)	3.09	(0.50)
	<i>F</i> 값		6.263**		16.346**		59.610**	
			②>①		②,③>①		②,③,④>①	
학업 성취도 수준	상①	3,625	3.05	(0.63)	3.35	(0.60)	3.08	(0.64)
	중②	3,835	2.91	(0.58)	3.19	(0.59)	3.01	(0.59)
	하③	2,392	2.84	(0.59)	3.06	(0.59)	2.94	(0.60)
	<i>F</i> 값		97.974**		176.038**		39.190**	
			①>②>③		①>②>③		①>②>③	
경제적 수준	상①	1,666	3.13	(0.63)	3.37	(0.60)	3.16	(0.64)
	중②	6,820	2.92	(0.59)	3.20	(0.59)	3.00	(0.59)
	하③	1,583	2.83	(0.62)	3.13	(0.63)	2.92	(0.65)
	<i>F</i> 값		117.262**		75.177**		70.831**	
			①>②>③		①>②>③		①>②>③	
17개 시도	서울①	1,501	3.01	(0.61)	3.25	(0.59)	3.07	(0.60)
	부산②	599	3.06	(0.64)	3.32	(0.60)	3.15	(0.62)
	대구③	499	2.91	(0.61)	3.24	(0.58)	3.00	(0.62)
	인천④	485	2.98	(0.61)	3.29	(0.57)	3.08	(0.61)
	광주⑤	565	2.94	(0.63)	3.19	(0.59)	2.98	(0.60)
	대전⑥	370	2.95	(0.57)	3.24	(0.59)	3.02	(0.61)
	울산⑦	359	2.94	(0.56)	3.20	(0.58)	3.01	(0.57)
	경기⑧	69	2.98	(0.67)	3.07	(0.70)	2.95	(0.65)
	강원⑨	2,568	2.91	(0.62)	3.20	(0.61)	2.98	(0.63)
	충북⑩	308	2.81	(0.56)	3.23	(0.60)	2.99	(0.56)
	충남⑪	395	2.93	(0.61)	3.24	(0.56)	3.02	(0.59)
	세종⑫	290	2.85	(0.65)	3.13	(0.70)	2.91	(0.68)
	전북⑬	334	2.86	(0.58)	3.16	(0.58)	3.00	(0.56)
	전남⑭	378	2.95	(0.59)	3.17	(0.59)	3.05	(0.64)
	경북⑮	532	2.88	(0.58)	3.16	(0.62)	2.93	(0.58)
	경남⑯	520	2.95	(0.53)	3.23	(0.56)	3.06	(0.55)
	제주⑰	315	2.89	(0.59)	3.13	(0.61)	2.98	(0.59)
			5.569**		4.005**		5.188**	
			② > ⑨		② > ⑫		② > ⑪	

\*,p<0.05, \*\*,p<0.01

2017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협동역량에 있어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집단축진(남: 2.97, 여: 2.91), 팔로워십(남: 3.27, 여: 3.17), 갈등문제해결 역량(남: 3.07, 여: 2.97)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의 학교급(초등, 중등, 고등, 대학)에 따라서는 협동의 세부역량인 집단축진, 팔로워십, 갈등문제해결 역량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후분석결과, 초등학생은 다른 집단에 비해 집단축진(초: 2.90, 중: 2.97, 고: 2.94, 대: 2.95), 팔로워십(초: 3.15, 중: 3.24, 고: 3.25, 대: 3.20), 갈등문제해결 역량(초: 2.89, 중: 3.06, 고: 3.06, 대: 3.09)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 학업성취수준에 따라서는 학업성취도 수준이 높을수록 집단축진(상: 3.05, 중: 2.91, 하: 2.84), 팔로워십(상: 3.35, 중: 3.19, 하: 3.06), 갈등문제해결 역량(상: 3.08, 중: 3.01, 하: 2.94)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집단축진(상: 3.13, 중: 2.92, 하: 2.83), 팔로워십(상: 3.37, 중: 3.20, 하: 3.13), 갈등문제해결 역량(상: 3.16, 중: 3.00, 하: 2.92)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서는 협동의 세부역량인 집단축진, 팔로워십, 갈등문제해결 역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부산은 강원보다 집단축진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부산: 3.06, 강원: 2.81), 세종보다 팔로워십(부산: 3.32, 세종: 3.07)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부산은 충남에 비해 갈등문제해결 역량(부산: 3.15, 충남: 2.91)이 유의하게 높았다.

#### 4.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결과에 대한 심층 분석 및 해석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가 2014년부터 2017년 지금까지 4차년도에 걸쳐 수행되면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에 대해 가장 큰 논의 사항 2가지가 도출되었다.

하나는 청소년들의 역량 점수가 학교급, 즉 청소년의 성장시기에 따라 낮아진다는 것이다. 2015년 청소년 역량지수를 국가수준에서 측정한 결과, 초기 청소년들(초등학생)의 역량 점수가 가장 높고 후기청소년(대학생)의 역량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점수에 있어서도 2015년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초기 청소년들의 역량 점수가 낮아지면서 학교급별, 즉 청소년의 성장시기별 역량 점수 차이가 줄어들면서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청소년 역량 점수가 낮아지는 현상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른 하나는 청소년 역량 점수가 청소년 시기별 성장에 따라 낮아지는 현상과 더불어 성별차이에 대한 격차가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여자청소년들의 역량 점수가 초등시기(초기 청소년)에서는 남자 청소년보다 역량이 높았으나, 중등과 고등(중기 청소년)을 지나고 대학(후기 청소년)으로 갈수록 역량 점수가 급격하게 낮아지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 관련 환경이 여자청소년들에게 특별히 불리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현상이 개인적 특성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사회구조적으로 여자 청소년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거나 역량개발에 장애요소들이 보다 더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7년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와 더불어 2014년도부터 2017년 4차년도에 걸친 역량지수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성장시기별 시계열적 변화와 성별에 따른 청소년 역량의 차이에 대한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결과를 청소년 성장시기에 따른 시계열적 변화 추이를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점수를 비교 분석하였다.

둘째,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결과가 청소년의 발달단계의 심리적 특성이 반영된 것인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개인의 심리적 변인(자아개념, 자율성, 자기효능감, 가능한 자아)과 외부환경변인(학업스트레스, 부모양육태도)에 대한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셋째, 청소년 역량지수는 청소년의 성장시기별 발달적 특성이 반영되어 측정되었기 때문에

청소년의 발달시기별 청소년 역량측정 문항에 반응이 상이한지를 문항반응이론(Item Response Theory: IRT)을 적용하여 그 실태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역량 측정 결과가 청소년의 성장시기에 따라 성별차이가 현격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차별문항기능(Differential Item Function: DIF) 분석을 실시하였다.

## 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의 성장시기별(학교급별) 변화 추이 분석(2014~2017)

### (1)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 결과에 대한 변화 추이 분석(2014~2017)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성장시기별(학교급별)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변화 추이를 살펴 보았다. 2014년도에 초중기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2015년부터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인관계역량을 조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초중기 청소년의 생애학습역량지수 점수의 변화 추이만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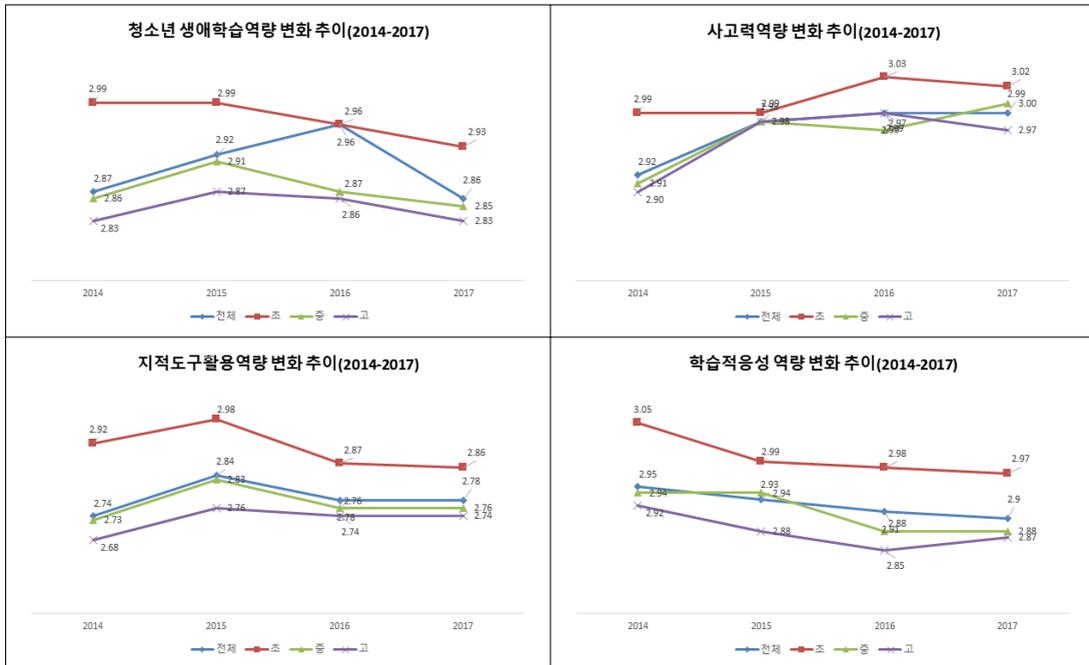
#### ①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의 변화 추이분석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지수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점차 증가하다, 2017년 조사에서는 감소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40>에 제시하였다. 성장시기별(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의 생애학습역량지수는 지속적으로 소폭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었으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2015년이 가장 높고 이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생애학습역량군의 사고력역량, 지적도구활용역량, 학습적응성역량에 대한 변화추이를 각각 살펴보면, 사고력의 경우 2015년 이후 조사 결과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초등학생의 경우 2016년이 가장 높았으나 2017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중학생은 2017년 조사결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은 2016년보다 2017년 사고력 지수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지적도구활용역량은 2015년에 비해 2016년과 2017년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결과 변화추이는 초등학생의 변화와 유사하였으며, 중학생과 학생의 경우도 2015년 보다 이후 점차 낮아진 것으로 확인된다. 학습적응성역량은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초, 중, 고 성장시기별(학교급별) 변화추이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표 IV-40 2014~2017년 성장시기별(학교급별)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지수 변화

구분		2014	2015	2016	2017
생애학습역량	전체	2.87 (0.37)	2.92 (0.37)	2.96 (0.37)	2.86 (0.42)
	초	2.99 (0.42)	2.99 (0.41)	2.96 (0.41)	2.93 (0.48)
	중	2.86 (0.38)	2.91 (0.37)	2.87 (0.35)	2.85 (0.42)
	고	2.83 (0.32)	2.87 (0.34)	2.86 (0.33)	2.83 (0.40)
사고력	전체	2.92 (0.37)	2.98 (0.39)	2.99 (0.38)	2.99 (0.44)
	초	2.99 (0.43)	2.99 (0.44)	3.03 (0.42)	3.02 (0.50)
	중	2.91 (0.38)	2.98 (0.38)	2.97 (0.37)	3.00 (0.44)
	고	2.90 (0.33)	2.98 (0.36)	2.99 (0.34)	2.97 (0.40)
지적도구활용	전체	2.74 (0.47)	2.84 (0.45)	2.78 (0.48)	2.78 (0.53)
	초	2.92 (0.49)	2.98 (0.47)	2.87 (0.50)	2.86 (0.58)
	중	2.73 (0.47)	2.83 (0.45)	2.76 (0.48)	2.76 (0.52)
	고	2.68 (0.43)	2.76 (0.43)	2.74 (0.46)	2.74 (0.51)
학습적응성	전체	2.95 (0.45)	2.93 (0.46)	2.91 (0.45)	2.90 (0.51)
	초	3.05 (0.49)	2.99 (0.50)	2.98 (0.50)	2.97 (0.56)
	중	2.94 (0.47)	2.94 (0.46)	2.88 (0.44)	2.88 (0.50)
	고	2.92 (0.42)	2.88 (0.42)	2.85 (0.43)	2.87 (0.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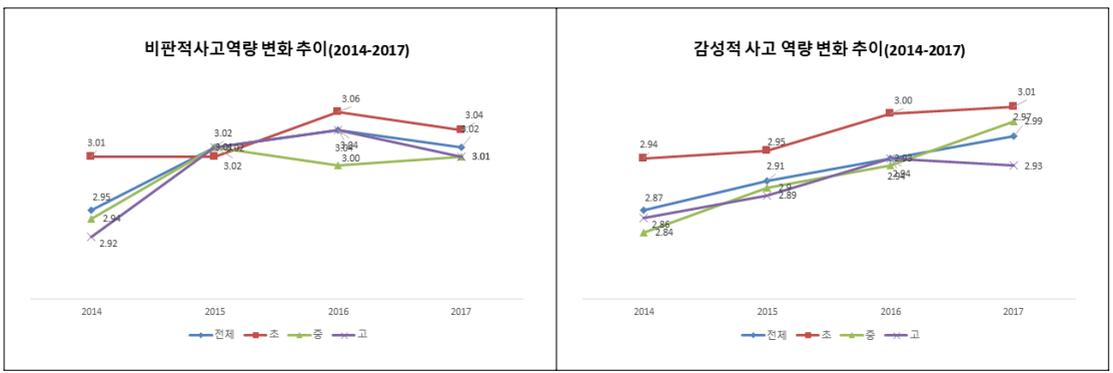
[그림 IV-15] 2014~2017년 성장시기별(학교급별)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 변화

②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의 사고력 역량 변화 추이분석  
 사고력역량의 하위역량인 비판적사고와 감성적사고의 성장시기별(학교급별) 변화추이는 <표 IV-41>과 같다.

비판적사고 역량은 2016년까지 상승하다가 2017년 조사에서 다소 감소하였다. 이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비판적사고 역량 변화 추이와 같다. 중학생은 2015년이 가장 높았고 이후 감소하였다. 감성적사고 역량 지수 변화 추이는 2014년 이후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초, 중, 고 모두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IV-41 2014~2017년 성장시기별(학교급별) 청소년 사고력 역량지수 변화**

구분		2014	2015	2016	2017
비판적 사고	전체	2.95 (0.43)	3.02 (0.45)	3.04 (0.47)	3.02 (0.53)
	초	3.01 (0.50)	3.01 (0.49)	3.06 (0.50)	3.04 (0.58)
	중	2.94 (0.44)	3.02 (0.46)	3.00 (0.48)	3.01 (0.55)
	고	2.92 (0.39)	3.02 (0.42)	3.04 (0.44)	3.01 (0.50)
감성적 사고	전체	2.87 (0.47)	2.91 (0.49)	2.94 (0.47)	2.97 (0.53)
	초	2.94 (0.50)	2.95 (0.52)	3.00 (0.50)	3.01 (0.59)
	중	2.84 (0.47)	2.90 (0.47)	2.93 (0.45)	2.99 (0.52)
	고	2.86 (0.46)	2.89 (0.47)	2.94 (0.45)	2.93 (0.49)



**[그림 IV-16] 2014~2017년 성장시기별(학교급별) 청소년 사고력 역량지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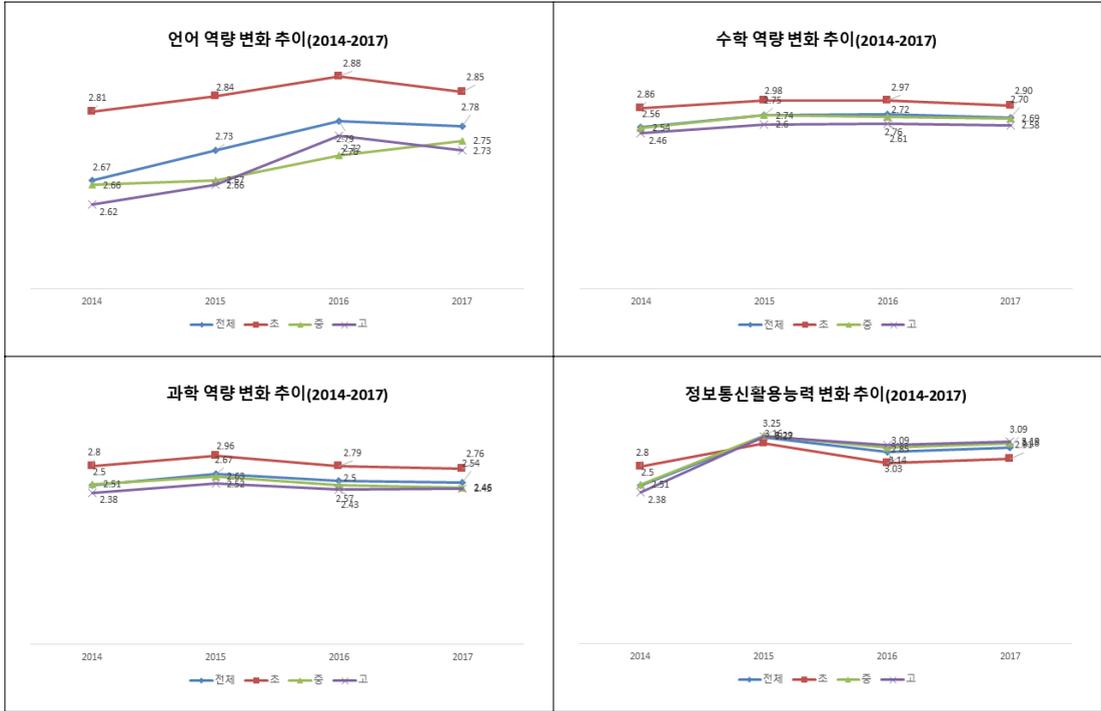
③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의 지적도구활용 역량 변화 추이분석

지적도구활용 역량의 하위역량인 언어역량, 수학역량, 과학역량, 정보통신활용역량에 대한 2014년 부서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42>와 같다.

언어역량은 점차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6년과 2017년은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2016년까지 언어역량 지수가 상승하다가 2017년 결과는 소폭 하락하였다. 중학생의 언어역량 지수는 점차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수학역량은 2014년 이후 계속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초, 중, 고 모두 유사한 지수로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는다. 과학역량은 2015년 이후 낮아지고 있다. 정보통신활용역량은 2014년에서 2015년에 크게 상승하였으나 그 이후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IV-42 2014~2017년 성장시기별(학교급별) 청소년 지적도구활용 역량지수 변화

구분		2014	2015	2016	2017
언어	전체	2.67 (0.56)	2.73 (0.55)	2.79 (0.58)	2.78 (0.62)
	초	2.81 (0.60)	2.84 (0.58)	2.88 (0.60)	2.85 (0.69)
	중	2.66 (0.57)	2.67 (0.54)	2.72 (0.56)	2.75 (0.61)
	고	2.62 (0.53)	2.66 (0.53)	2.76 (0.55)	2.73 (0.59)
수학	전체	2.56 (0.70)	2.75 (0.67)	2.76 (0.68)	2.70 (0.75)
	초	2.86 (0.70)	2.98 (0.67)	2.97 (0.65)	2.90 (0.75)
	중	2.54 (0.70)	2.74 (0.66)	2.72 (0.67)	2.69 (0.74)
	고	2.46 (0.67)	2.60 (0.65)	2.61 (0.66)	2.58 (0.74)
과학	전체	2.50 (0.68)	2.67 (0.68)	2.57 (0.75)	2.54 (0.80)
	초	2.80 (0.69)	2.96 (0.64)	2.79 (0.70)	2.76 (0.79)
	중	2.51 (0.68)	2.63 (0.67)	2.50 (0.73)	2.46 (0.79)
	고	2.38 (0.70)	2.52 (0.68)	2.43 (0.77)	2.45 (0.82)
정보통신활용	전체	2.50 (0.70)	3.25 (0.57)	3.03 (0.65)	3.09 (0.70)
	초	2.80 (0.68)	3.16 (0.65)	2.85 (0.74)	2.91 (0.82)
	중	2.51 (0.69)	3.29 (0.56)	3.09 (0.61)	3.16 (0.66)
	고	2.38 (0.68)	3.27 (0.54)	3.14 (0.56)	3.19 (0.63)



【그림 IV-17】 2014~2017년 성장시기별(학교급별) 청소년 지적도구활용역량 지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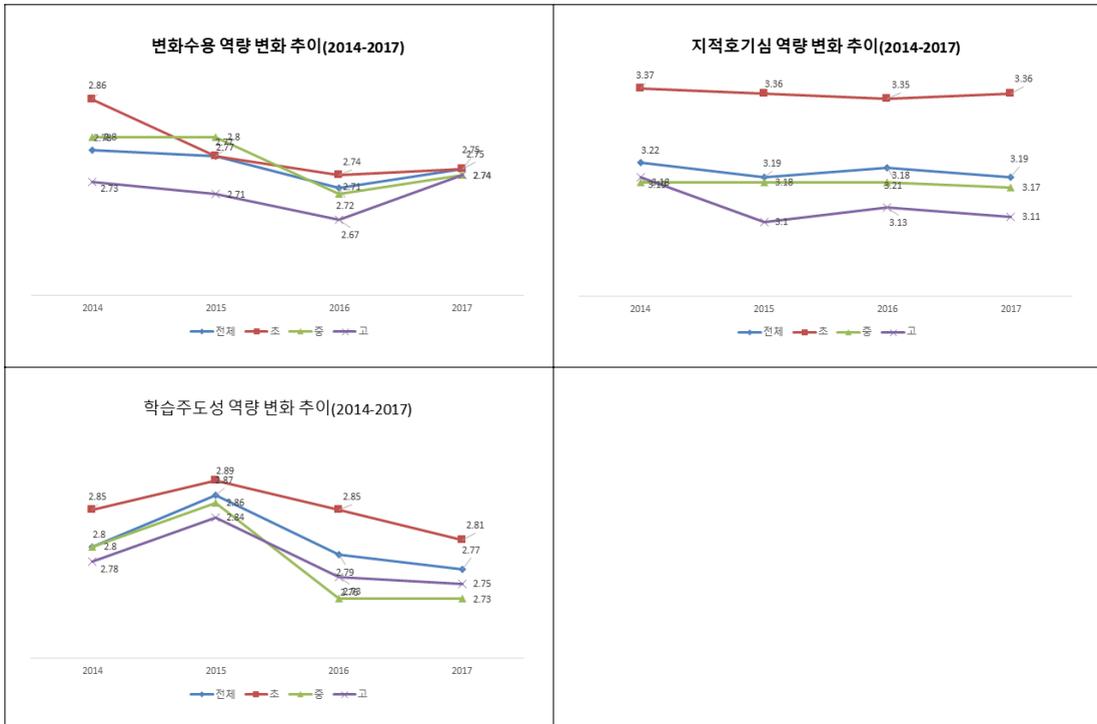
④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의 학습적응성 역량 변화 추이분석

학습적응성 역량의 하위역량인 변화수용력, 지적호기심, 학습주도성에 대한 2014년 부터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43>과 같다.

변화수용력 역량 지수는 2016년까지 점차 하락하였으나 2017년 결과는 소폭 상승하였다. 고등학생의 변화수용력 역량 조사 결과가 2016년에 비해 2017년 상승폭이 큰 것으로 확인된다. 비적호기심 역량은 2014년 이후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고등학생의 지적호기심 역량 조사 결과가 2015년에 감소하고 감소한 지수가 유지되고 있지만, 변화폭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학습주도성 역량은 2015년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다. 초, 중, 고 모두 전체 결과와 유사한 변화 양상을 보인다.

표 IV-43 2014~2017년 성장시기별(학교급별) 청소년 학습적응성역량지수 변화

구분		2014	2015	2016	2017
변화수용력	전체	2.78 (0.56)	2.77 (0.57)	2.72 (0.54)	2.75 (0.59)
	초	2.86 (0.63)	2.77 (0.61)	2.74 (0.58)	2.75 (0.65)
	중	2.80 (0.57)	2.80 (0.56)	2.71 (0.53)	2.74 (0.58)
	고	2.73 (0.52)	2.71 (0.54)	2.67 (0.52)	2.74 (0.56)
지적호기심	전체	3.22 (0.54)	3.19 (0.57)	3.21 (0.56)	3.19 (0.62)
	초	3.37 (0.55)	3.36 (0.59)	3.35 (0.58)	3.36 (0.65)
	중	3.18 (0.54)	3.18 (0.57)	3.18 (0.55)	3.17 (0.61)
	고	3.19 (0.52)	3.10 (0.56)	3.13 (0.54)	3.11 (0.59)
학습주도성	전체	2.80 (0.61)	2.87 (0.59)	2.79 (0.66)	2.77 (0.72)
	초	2.85 (0.64)	2.89 (0.66)	2.85 (0.74)	2.81 (0.82)
	중	2.80 (0.63)	2.86 (0.59)	2.73 (0.65)	2.73 (0.72)
	고	2.78 (0.57)	2.84 (0.52)	2.76 (0.61)	2.75 (0.66)



【그림 IV-18】 2014~2017년 성장시기별(학교급별) 청소년 학습적응성 역량 지수 변화

## (2)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 결과에 대한 변화 추이 분석(2014~2017)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학교급별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2014년도에 초중기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2015년부터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초중기 청소년의 생활관리역량 점수의 변화추이만 분석하고자 한다.

### ①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의 변화 추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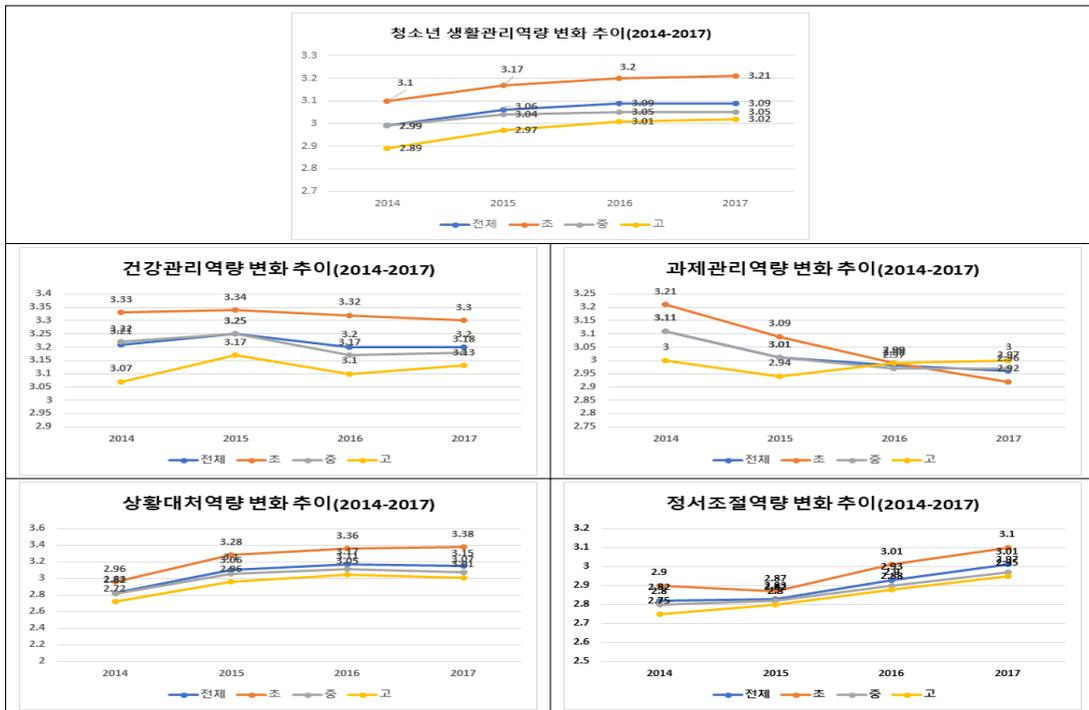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지수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7년 조사에서는 유지하는 수준이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생활관리역량지수는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으며, 중학생의 경우 소폭 증가하다가 2017년에는 2016년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관리역량군의 건강관리역량, 과제관리역량, 상황대처역량, 정서조절역량에 대한 변화추이를 각각 살펴보면, 건강관리역량의 경우 2014년에 비해 2015년에 증가하였다가 2016년과 2017년에는 감소한 경향을 보였다. 초등학생의 건강관리역량은 계속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2014년에 비해 2015년에 증가하였다가 2016년과 2017년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과제관리역량은 2014년에 비해 2015년에 급격히 감소하였다가 2016년과 2017년에는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초등학생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중학생은 2014년에 비해 2015년에 급격히 감소하였다가 2016년과 2017년에는 감소폭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경우는 2015년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가 2016년과 2017년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대처역량의 경우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2017년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정서조절역량도 마찬가지로 모든 학교급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IV-44

2014~2017년 성장시기별(학교급별)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지수 변화

구분		2014		2015		2016		2017	
생활관리역량	전체	2.99	0.80	3.06	0.37	3.09	(0.37)	3.09	0.38
	초	3.1	0.81	3.17	0.39	3.2	(0.39)	3.21	0.414
	중	2.99	0.87	3.04	0.37	3.05	(0.36)	3.05	0.377
	고	2.89	0.72	2.97	0.35	3.01	(0.35)	3.02	0.349
건강관리	전체	3.21	0.82	3.25	0.46	3.20	(0.45)	3.20	0.49
	초	3.33	0.81	3.34	0.48	3.32	(0.47)	3.3	0.525
	중	3.22	0.91	3.25	0.46	3.17	(0.45)	3.18	0.481
	고	3.07	0.73	3.17	0.45	3.1	(0.44)	3.13	0.456
과제관리	전체	3.11	0.90	3.01	0.54	2.98	(0.57)	2.96	0.63
	초	3.21	0.93	3.09	0.59	2.99	(0.64)	2.92	0.736
	중	3.11	0.95	3.01	0.55	2.97	(0.56)	2.97	0.6
	고	3	0.82	2.94	0.49	2.99	(0.51)	3	0.553
상황대처	전체	2.83	0.97	3.10	0.59	3.17	(0.56)	3.15	0.56
	초	2.96	0.96	3.28	0.59	3.36	(0.57)	3.38	0.559
	중	2.82	1.06	3.06	0.61	3.11	(0.57)	3.07	0.569
	고	2.72	0.9	2.96	0.58	3.05	(0.55)	3.01	0.543
정서조절	전체	2.82	0.95	2.83	0.44	2.93	(0.49)	3.01	0.52
	초	2.9	0.99	2.87	0.45	3.01	(0.50)	3.1	0.533
	중	2.8	1.01	2.82	0.44	2.9	(0.48)	2.97	0.529
	고	2.75	0.84	2.8	0.44	2.88	(0.48)	2.95	0.499



[그림 IV-19] 2014~2017년 성장시기별(학교급별)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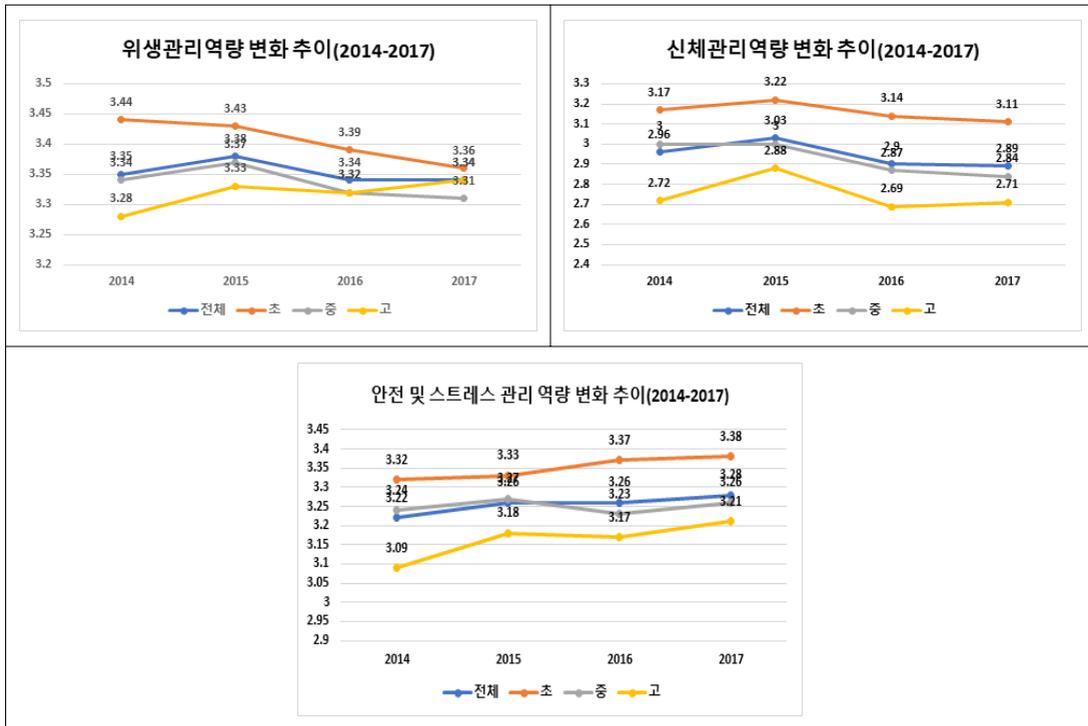
②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의 건강관리역량의 변화 추이분석

건강관리역량의 하위역량인 위생관리, 신체관리,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의 학교급별 변화추이는 <표 IV-45>와 같다.

위생관리 역량은 2014년에 비해 2015년에 상승하였다가 2016년에 감소하였으며, 2017년에도 소폭 감소하였다. 2016년까지 상승하다가 2017년 조사에서 다소 감소하였다. 중학생의 위생관리 역량 변화는 전체 변화와 유사한 추이를 보였다. 초등학생의 위생관리역량 변화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으며, 고등학생의 경우는 2015년에 상승하였다가 2016년에 소폭 감소한 후 2017년에 증가하여, 2017년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신체관리 역량의 경우 전체적으로 변화 폭이 크지 않았으나, 2014년에 비해 2015년에 상승하였다가 2016년과 2017년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중학생의 경우는 계속하여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는 2015년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그 이후 감소하였다.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역량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소폭이지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중학생의 경우는 2016년에 잠시 주춤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대체로 증가하여 2017년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표 IV-45 2014~2017년 성장시기별(학교급별) 청소년 건강관리역량지수 변화

구분		2014		2015		2016		2017	
위생관리	전체	3.35	0.84	3.38	0.52	3.34	0.51	3.34	0.56
	초	3.44	0.82	3.43	0.53	3.39	0.53	3.36	0.606
	중	3.34	0.92	3.37	0.52	3.32	0.5	3.31	0.557
	고	3.28	0.79	3.33	0.52	3.32	0.5	3.34	0.525
신체관리	전체	2.96	1.01	3.03	0.73	2.90	0.76	2.89	0.81
	초	3.17	0.98	3.22	0.69	3.14	0.72	3.11	0.795
	중	3.00	1.08	3.00	0.74	2.87	0.76	2.84	0.819
	고	2.72	0.96	2.88	0.77	2.69	0.79	2.71	0.828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전체	3.22	0.85	3.26	0.51	3.26	0.52	3.28	0.55
	초	3.32	0.85	3.33	0.53	3.37	0.53	3.38	0.576
	중	3.24	0.95	3.27	0.51	3.23	0.52	3.26	0.551
	고	3.09	0.76	3.18	0.5	3.17	0.52	3.21	0.537



【그림 IV-20】 2014~2017년 성장시기별(학교급별) 청소년 건강관리역량지수 변화

### ③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의 과제관리역량의 변화 추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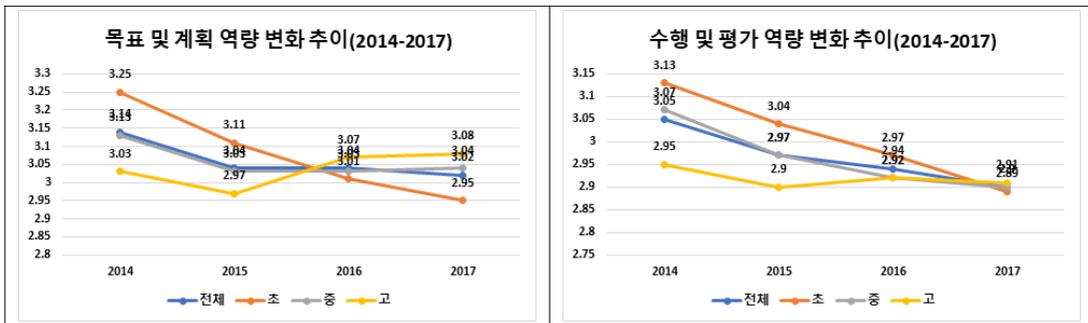
과제관리 역량의 하위역량인 목표 및 계획, 수행 및 평가에 대한 2014년 부터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46>과 같다.

목표 및 계획 역량은 점차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과 2016년은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경우 해가 지날수록 목표 및 계획 역량 지수가 계속 하락하였으며, 중학교의 경우 2014년에 비해 2015년에 하락했다가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2015년에 하락했다가 그 이후 계속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수행 및 평가 역량은 계속하여 하락하고 있는데, 초등학교의 경우 하락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2015년 이후로 유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IV-46

2014~2017년 성장시기별(학교급별) 청소년 과제관리 역량지수 변화

구분		2014		2015		2016		2017	
목표 및 계획	전체	3.14	0.91	3.04	0.56	3.04	0.59	3.02	0.64
	초	3.25	0.93	3.11	0.61	3.01	0.67	2.95	0.748
	중	3.13	0.96	3.03	0.57	3.03	0.58	3.04	0.608
	고	3.03	0.83	2.97	0.51	3.07	0.52	3.08	0.567
수행 및 평가	전체	3.05	0.96	2.97	0.61	2.94	0.62	2.90	0.72
	초	3.13	1	3.04	0.66	2.97	0.68	2.89	0.828
	중	3.07	1	2.97	0.61	2.92	0.61	2.9	0.691
	고	2.95	0.88	2.9	0.56	2.92	0.58	2.91	0.637



【그림 IV-21】 2014~2017년 성장시기별(학교급별) 청소년 과제관리역량 지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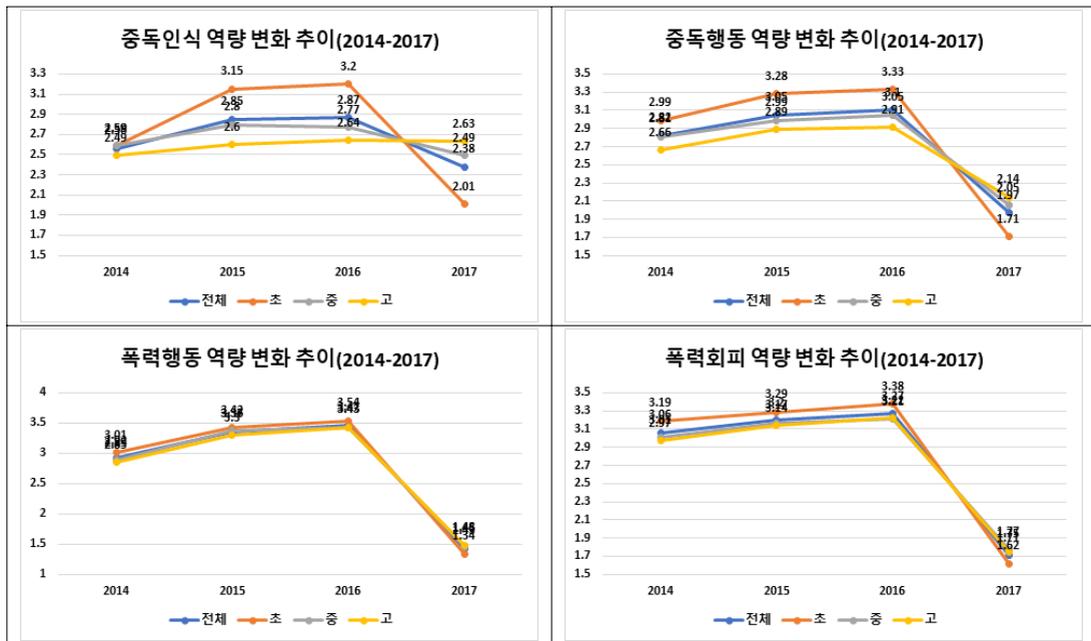
④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의 상황대처역량의 변화 추이분석

상황대처 역량의 하위역량인 중독인식, 중독행동, 폭력행동, 폭력회피에 대한 2014년 2017년까지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47>과 같다.

중독인식 역량 지수는 2016년까지 점차 상승하다가 2017년에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에 동일한 추세를 보였다. 반면, 고등학생의 경우는 소폭이나마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중독행동 역량 역시 2016년까지 점사 상승하다가 2017년에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초, 중, 고 모든 학교급에서 동일한 경향이 나타났다. 폭력행동 역량 지수도 중독행동과 마찬가지로 초, 중, 고의 모든 학교급에서 동일한 경향이 나타났다. 즉, 2016년까지는 소폭으로 증가하다가 2017년에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폭력회피 역량 지수에서도 마찬가지로 2016년까지 소폭 상승하다가 2017년에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초, 중, 고 모든 학교급에서 동일한 추세를 나타내었다.

표 IV-47 2014~2017년 성장시기별(학교급별) 청소년 상황대처 역량지수 변화

구분		2014		2015		2016		2017	
중독인식	전체	2.56	0.89	2.85	0.85	2.87	0.86	2.38	0.91
	초	2.59	0.88	3.15	0.85	3.2	0.87	2.01	0.961
	중	2.59	0.97	2.8	0.87	2.77	0.87	2.49	0.913
	고	2.49	0.83	2.6	0.82	2.64	0.85	2.63	0.847
중독행동	전체	2.82	1.12	3.05	0.76	3.10	0.78	1.97	0.85
	초	2.99	1.11	3.28	0.74	3.33	0.75	1.71	0.857
	중	2.81	1.2	2.99	0.79	3.05	0.79	2.05	0.86
	고	2.66	1.05	2.89	0.75	2.91	0.79	2.14	0.826
폭력행동	전체	2.92	1.03	3.36	0.63	3.47	0.60	1.43	0.60
	초	3.01	1	3.42	0.61	3.54	0.58	1.34	0.578
	중	2.89	1.12	3.37	0.64	3.43	0.62	1.46	0.603
	고	2.85	0.96	3.3	0.64	3.43	0.61	1.48	0.607
폭력회피	전체	3.06	1.07	3.20	0.67	3.27	0.66	1.71	0.72
	초	3.19	1.06	3.29	0.66	3.38	0.65	1.62	0.728
	중	3.01	1.15	3.17	0.68	3.21	0.67	1.77	0.724
	고	2.97	0.99	3.14	0.66	3.22	0.67	1.75	0.715



【그림 IV-22】 2014~2017년 성장시기별(학교급별) 청소년 상황대처 역량 지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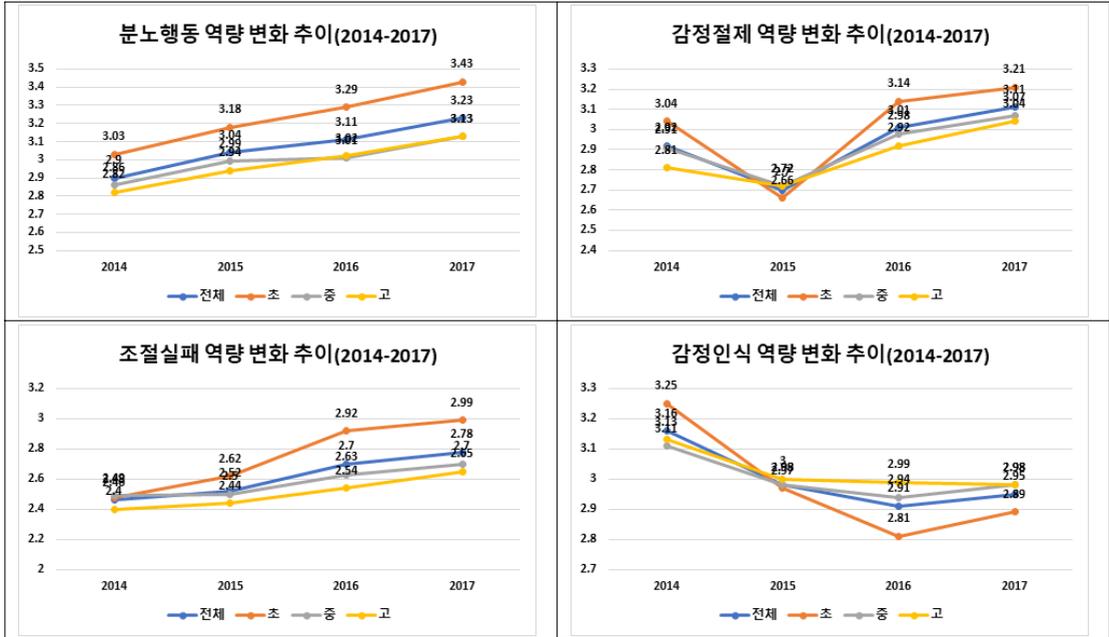
⑤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의 정서조절역량의 변화 추이분석

정서조절 역량의 하위역량인 분노행동, 감정절제, 조절실패, 감정인식에 대한 2014년 2017년까지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과 같다.

분노행동 역량 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중학생의 경우는 2015년과 2016년의 상승 정도가 소폭이지만, 계속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감정절제 역량에서는 2014년에 비해 2015년에 하락하였다가 이후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초, 중, 고 모든 학교급에서 동일한 변화 추이를 보였다. 조절실패 역량에는 해가 지날수록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초, 중, 고 모든 학교급에서 동일한 변화 추이를 나타내었다. 감정인식 역량 지수는 2016년까지 하락하다가 2017년에 소폭 상승하는 변화를 보였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며, 고등학생의 경우는 2015년 이후로 매우 소폭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표 IV-48** 2014~2017년 성장시기별(학교급별) 청소년 정서조절 역량지수 변화

구분		2014		2015		2016		2017	
분노행동	전체	2.90	1.08	3.04	0.73	3.11	0.73	3.23	0.72
	초	3.03	1.1	3.18	0.73	3.29	0.73	3.43	0.685
	중	2.86	1.15	2.99	0.74	3.01	0.72	3.13	0.746
	고	2.82	1	2.94	0.72	3.02	0.73	3.13	0.734
감정절제	전체	2.92	1.15	2.70	0.74	3.01	0.76	3.11	0.78
	초	3.04	1.19	2.66	0.82	3.14	0.79	3.21	0.793
	중	2.91	1.2	2.72	0.73	2.98	0.74	3.07	0.773
	고	2.81	1.05	2.72	0.68	2.92	0.75	3.04	0.772
조절실패	전체	2.46	1.13	2.52	0.82	2.70	0.85	2.78	0.90
	초	2.48	1.19	2.62	0.86	2.92	0.88	2.99	0.914
	중	2.49	1.2	2.5	0.82	2.63	0.85	2.7	0.911
	고	2.40	1.01	2.44	0.79	2.54	0.81	2.65	0.872
감정인식	전체	3.16	1.11	2.98	0.55	2.91	0.72	2.95	0.75
	초	3.25	1.17	2.97	0.6	2.81	0.86	2.89	0.851
	중	3.11	1.18	2.98	0.54	2.94	0.69	2.98	0.721
	고	3.13	0.98	3	0.51	2.99	0.61	2.98	0.666



【그림 IV-22】 2014~2017년 성장시기별(학교급별) 청소년 정서조절역량 지수 변화

(3)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 결과에 대한 변화 추이 분석(2014~2017)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학교급별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 변화를 분석하였다. 2014년도 연구대상은 초·중기 청소년이었으며 2015년부터 초·중·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개발역량수준을 조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초·중기 청소년의 진로개발역량 수준의 변화추이만 분석하고자 한다.

①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의 변화 추이분석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17년에 대폭 상승하였다('14: 2.96 → '16: 2.92, '17: 3.01).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특히 초등학생의 진로개발역량지수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14: 3.05 → '16: 2.95, '17: 3.07). 반면 고등학생은 미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4: 2.89 → '17: 3.00).

다음으로 청소년 진로설계역량지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청소년 진로설계역량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14: 3.07 → '17: 3.03).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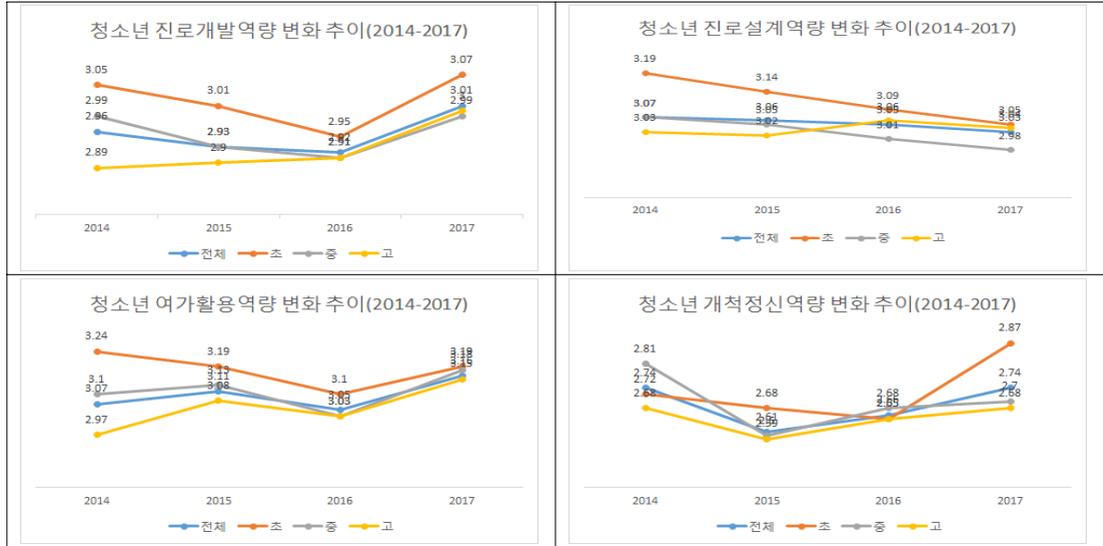
중학생의 진로설계역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초등학생('14: 3.19 → '17: 3.05)이 중학생('14: 3.07 → '17: 2.98)보다 진로설계역량 점수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등학생의 진로설계역량지수는 해마다 증가 및 감소를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14: 3.03, '15: 3.02, '16: 3.06, '17: 3.04).

청소년 여가활용지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진로개발역량지수의 변화 추이와 마찬가지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17년에 증가하였다('14: 3.07 → '16: 3.05, '17: 3.16).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14: 3.24 → '16: 3.10, '17: 3.19)과 중학생('14: 3.10 → '16: 3.03, '17: 3.18)의 경우 여가활용지수가 감소하다가 증가하였다. 반면 고등학생의 여가활용역량지수는 해마다 증가 및 감소를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14: 2.97, '15: 3.08, '16: 3.03, '17: 3.15).

청소년 개척정신역량지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청소년 개척정신역량은 2014년에서 2015년에 감소하다가 이후 2017년까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14: 2.74, '15: 2.61 → '17: 2.74).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7년도에 대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14: 2.72 → '16: 2.65, '17: 2.74), 중학생('14: 2.81 → '15: 2.60 → '17: 2.70)과 고등학생('14: 2.68 → '15: 2.59 → '17: 2.68)은 2015년에 감소하다가 이후 2017년까지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IV-49 2014~2017년 성장시기별(학교급별)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지수 변화**

구분		2014		2015		2016		2017	
진로개발역량	전체	2.96	0.56	2.93	0.38	2.92	0.40	3.01	(0.45)
	초	3.05	0.49	3.01	0.42	2.95	.440	3.07	0.50
	중	2.99	0.67	2.93	0.39	2.91	.403	2.99	0.44
	고	2.89	0.47	2.90	0.36	2.91	.379	3.00	0.42
진로설계	전체	3.07	0.60	3.06	0.52	3.05	0.49	3.03	(0.54)
	초	3.19	0.53	3.14	0.56	3.09	.547	3.05	0.60
	중	3.07	0.71	3.05	0.53	3.01	.491	2.98	0.54
	고	3.03	0.52	3.02	0.49	3.06	.451	3.04	0.50
여가활용	전체	3.07	0.72	3.11	0.50	3.05	0.50	3.16	(0.51)
	초	3.24	0.67	3.19	0.53	3.10	.543	3.19	0.55
	중	3.10	0.81	3.13	0.50	3.03	.496	3.18	0.50
	고	2.97	0.64	3.08	0.48	3.03	.470	3.15	0.49
개척정신	전체	2.74	0.70	2.61	0.41	2.66	0.51	2.74	(0.56)
	초	2.72	0.70	2.68	0.42	2.65	.506	2.87	0.54
	중	2.81	0.82	2.60	0.41	2.68	.516	2.70	0.55
	고	2.68	0.57	2.59	0.41	2.65	.514	2.68	0.55



【그림 IV-23】 2014~2017년 성장시기별(학교급별)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 변화

②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역량 변화 추이분석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 하위 역량인 자기탐색역량지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청소년 자기탐색역량지수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14: 3.18 → '17: 3.10).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특히 초등학생의 자기탐색역량지수의 감소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14: 3.31 → '17: 3.17). 반면 고등학생은 감소경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14: 3.13 → '17: 3.07).

다음으로 청소년 직업탐색역량지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에서 2017년까지 해마다 감소와 증가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14: 2.98, '15: 2.93, '16: 2.94, '17: 2.88).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14: 3.04, '15: 2.98, '16: 3.00, '17: 2.92)과 고등학생('14: 2.97, '15: 2.91, '16: 2.95, '17: 2.92)의 직업탐색역량의 변화추이는 감소와 증가를 반복한 반면, 중학생의 경우에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14: 2.97 → '17: 2.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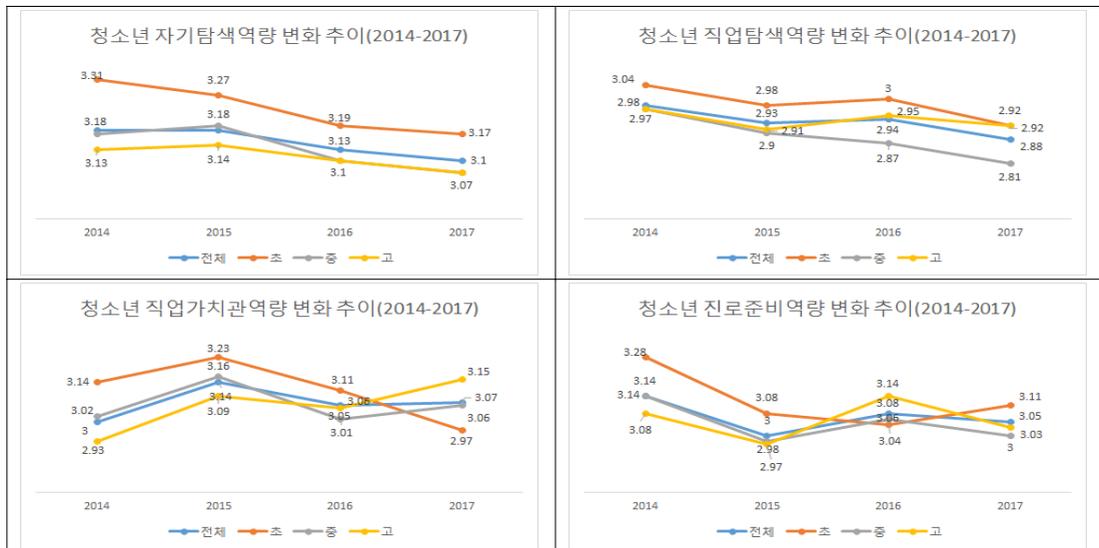
청소년 직업가치관지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증가와 감소를 해마다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14: 3.00, '15: 3.14, '16: 3.06, '17: 3.07).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2015년에 증가했다가 이후 2017년도까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14: 3.14, '15: 3.23 → '17: 2.97). 반면, 중학생('14: 3.02, '15: 3.16, '16: 3.01, '17: 3.06)과 고등학생('14: 2.93, '15: 3.09, '16: 3.05, '17: 3.15)의 경우에는 해마다 증가와 감소 경향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진로준비역량지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청소년 직업가치관지수와 마찬가지로

해마다 증가와 감소경향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14: 3.14, '15: 3.00, '16: 3.08, '17: 3.05).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2016년까지 감소했다가 2017년도에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14: 3.28 → '16: 3.04 → '17: 3.11). 반면, 중학생('14: 3.14, '15: 2.98, '16: 3.06, '17: 3.00)과 고등학생('14: 3.08, '15: 2.97, '16: 3.14, '17: 3.03)의 경우에는 해마다 증가와 감소 경향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표 IV-50** 2014~2017년 성장시기별(학교급별) 청소년 진로설계 역량지수 변화

구분		2014		2015		2016		2017	
자기탐색	전체	3.18	0.66	3.18	0.58	3.13	0.59	3.10	0.66
	초	3.31	0.65	3.27	0.62	3.19	.633	3.17	0.71
	중	3.17	0.73	3.19	0.59	3.10	.596	3.07	0.66
	고	3.13	0.58	3.14	0.56	3.10	.541	3.07	0.63
직업탐색	전체	2.98	0.76	2.93	0.67	2.94	0.69	2.88	0.77
	초	3.04	0.70	2.98	0.73	3.00	.746	2.92	0.85
	중	2.97	0.86	2.90	0.70	2.87	.687	2.81	0.77
	고	2.97	0.68	2.91	0.64	2.95	.663	2.92	0.71
직업가치관	전체	3.00	0.71	3.14	0.60	3.06	0.56	3.07	0.66
	초	3.14	0.67	3.23	0.62	3.11	.587	2.97	0.77
	중	3.02	0.79	3.16	0.60	3.01	.558	3.06	0.63
	고	2.93	0.64	3.09	0.59	3.05	.537	3.15	0.60
진로준비	전체	3.14	0.71	3.00	0.62	3.08	0.60	3.05	0.61
	초	3.28	0.62	3.08	0.64	3.04	.675	3.11	0.64
	중	3.14	0.81	2.98	0.64	3.06	.589	3.00	0.60
	고	3.08	0.63	2.97	0.61	3.14	.535	3.03	0.59



**[그림 IV-24]** 2014~2017년 성장시기별(학교급별) 청소년 진로설계 역량지수 변화

### ③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여가활용역량 변화 추이 분석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여가활용 하위역량인 여가태도역량지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17년도에 증가하였다('14: 3.35 → '16: 3.31, '17: 3.38).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특히 초등학생의 여가태도역량 지수의 감소 및 증가 경향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14: 3.48 → '16: 3.32, '17: 3.38). 반면 중학생의 경우에는 해마다 증가와 감소가 반복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14: 3.35, '15: 3.36, '16: 3.31, '17: 3.40)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2014년도에서 2017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14: 3.29 → '17: 3.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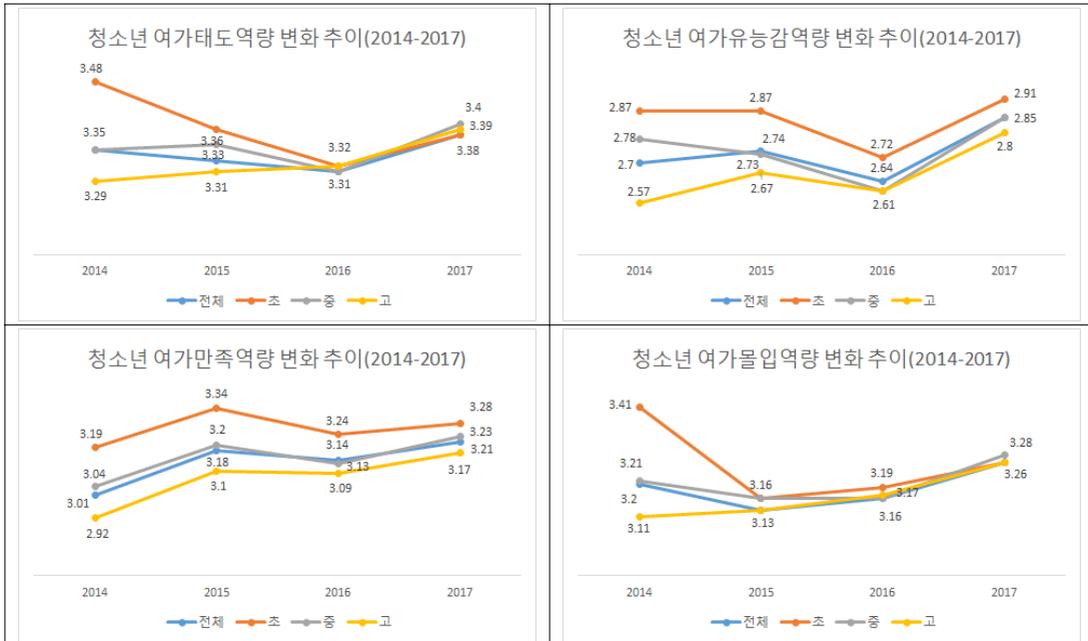
다음으로 청소년 여가유능감역량지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에서 2017년까지 해마다 감소와 증가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14: 2.70, '15: 2.74, '16: 2.64, '17: 2.85).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14: 2.87, '15: 2.87, '16: 2.72, '17: 2.91)과 고등학생('14: 2.57, '15: 2.67, '16: 2.61, '17: 2.80)의 여가유능감역량의 변화추이는 감소와 증가를 반복한 반면, 중학생의 경우에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17년도에 향상되었다('14: 2.78 → '16: 2.61, '17: 2.85).

청소년 여가만족지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증가와 감소를 해마다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14: 3.01, '15: 3.18, '16: 3.14, '17: 3.21).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14: 3.19, '15: 3.34, '16: 3.24, '17: 3.28), 중학생('14: 3.04, '15: 3.20, '16: 3.13, '17: 3.23), 고등학생('14: 2.92, '15: 3.10, '16: 3.09, '17: 3.17) 모두 증가와 감소의 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여가몰입역량지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에서 2015년까지 감소하였다가 이후 2017년까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14: 3.20 → '15: 3.13, →'17: 3.26).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2016년까지 대폭 감소했다가 2017년도까지 소폭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14: 3.41 → '15: 3.16 → '17: 3.26). 반면, 중학생('14: 3.21, '15: 3.16, '16: 3.16, '17: 3.28)의 경우에는 변화의 폭이 작았으며 고등학생('14: 3.11, '15: 3.13, '16: 3.17, '17: 3.26)의 경우에는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1 2014~2017년 성장시기별(학교급별) 청소년 여가활동 역량지수 변화

구분		2014		2015		2016		2017	
여가태도	전체	3.35	0.70	3.33	0.53	3.31	0.54	3.38	0.57
	초	3.48	0.65	3.39	0.55	3.32	.583	3.38	0.61
	중	3.35	0.78	3.36	0.53	3.31	.527	3.40	0.57
	고	3.29	0.64	3.31	0.51	3.32	.510	3.39	0.55
여가유능감	전체	2.70	0.89	2.74	0.70	2.64	0.71	2.85	0.68
	초	2.87	0.85	2.87	0.72	2.72	.733	2.91	0.71
	중	2.78	0.96	2.73	0.71	2.61	.700	2.85	0.68
	고	2.57	0.82	2.67	0.69	2.61	.691	2.80	0.68
여가만족	전체	3.01	0.86	3.18	0.64	3.14	0.65	3.21	0.66
	초	3.19	0.82	3.34	0.67	3.24	0.68	3.28	0.70
	중	3.04	0.94	3.20	0.64	3.13	0.64	3.23	0.64
	고	2.92	0.79	3.10	0.63	3.09	0.61	3.17	0.65
여가몰입	전체	3.20	0.81	3.13	0.60	3.16	0.63	3.26	0.63
	초	3.41	0.77	3.16	0.65	3.19	0.67	3.26	0.69
	중	3.21	0.88	3.16	0.61	3.16	0.63	3.28	0.62
	고	3.11	0.74	3.13	0.58	3.17	0.59	3.26	0.61



[그림 IV-25] 2014~2017년 성장시기별(학교급별) 청소년 여가활동역량 지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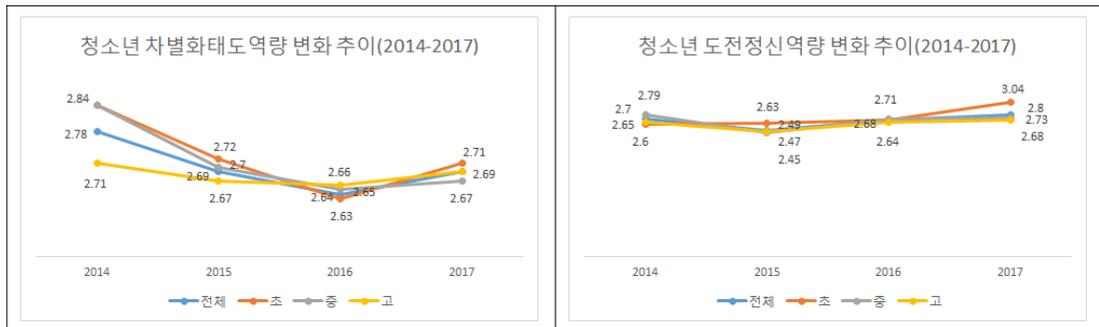
④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개척정신역량 변화 추이 분석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개척정신 하위역량인 차별화태도역량지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17년도에 증가하였다(14: 2.78 → '16: 2.64, '17: 2.69).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특히 초등학생의 차별화태도역량지수의 감소 및 증가 경향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14: 2.84 → '16: 2.63, '17: 2.71). 반면 중학생(14: 2.84 → '16: 2.65, '17: 2.67)과 고등학생(14: 2.71 → '16: 2.66, '17: 2.69)의 경우에는 변화의 폭이 적었다.

다음으로 청소년 도전정신역량지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에서 2017년까지 그 변화의 폭이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14: 2.70, '15: 2.49, '16: 2.68, '17: 2.80).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14: 2.60, '15: 2.63, '16: 2.68, '17: 3.04)의 경우에는 미미하게 해마다 증가하는 경향이 보였다. 반면, 중학생(14: 2.79, '15: 2.45, '16: 2.71, '17: 2.73)과 고등학생(14: 2.65, '15: 2.47, '16: 2.64, '17: 2.68)의 경우에는 도전정신역량의 2014년도에 비해 2015년도에 낮아졌다가 이후 2017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2 2014~2017년 성장시기별(학교급별) 청소년 개척정신 역량지수 변화

구분		2014		2015		2016		2017	
차별화태도	전체	2.78	0.74	2.69	0.52	2.64	0.58	2.69	0.62
	초	2.84	0.73	2.72	0.55	2.63	0.62	2.71	0.65
	중	2.84	0.85	2.70	0.53	2.65	0.57	2.67	0.61
	고	2.71	0.64	2.67	0.49	2.66	0.56	2.69	0.60
도전정신	전체	2.70	0.85	2.49	0.68	2.68	0.61	2.80	0.68
	초	2.60	0.88	2.63	0.73	2.68	0.58	3.04	0.64
	중	2.79	0.93	2.45	0.68	2.71	0.61	2.73	0.67
	고	2.65	0.76	2.47	0.66	2.64	0.63	2.68	0.66



[그림 IV-26] 2014~2017년 성장시기별(학교급별) 청소년 개척정신역량 지수 변화

#### (4)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 결과에 대한 변화 추이분석(2014~2017)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학교급별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 변화를 분석하였다. 2014년도에 초중기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2015년부터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인관계역량을 조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초중기 청소년의 대인관계역량 점수의 변화추이만 분석하고자 한다.<sup>18)</sup>

##### ①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의 변화 추이분석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14: 3.07 → '17: 3.01).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특히 초등학교생의 대인관계역량지수 감소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14: 3.17 → '17: 2.95). 반면 고등학생은 미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4: 3.01 → '17: 3.03).

다음으로 청소년 관계형성역량지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청소년 관계형성역량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미미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14: 3.11 → '17: 3.09).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생과 중학생의 관계형성역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초등학교생('14: 3.20 → '17: 3.01)이 중학생('14: 3.14 → '17: 3.11)보다 관계형성역량 점수의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등학생의 관계형성역량지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4: 3.04 → '17: 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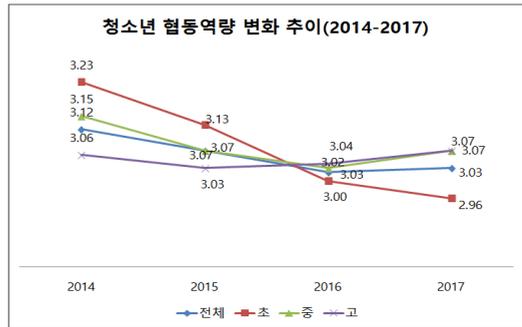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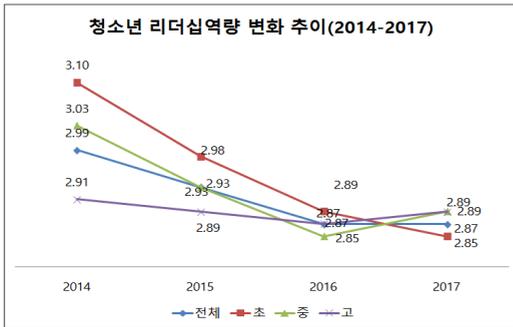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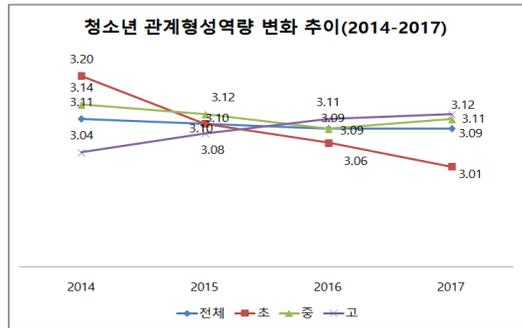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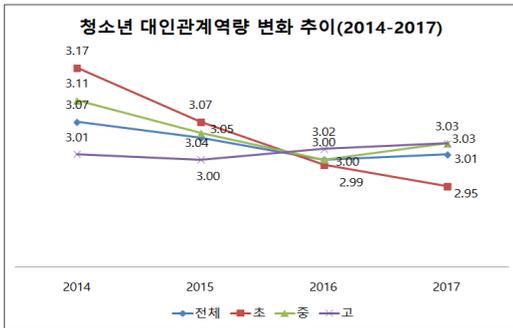
청소년 리더십역량지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청소년 리더십역량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14: 2.99 → '17: 2.87).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생('14: 3.10 → '17: 2.85)과 중학생('14: 3.03 → '17: 2.89)의 리더십역량이 감소하는 경향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등학생의 리더십역량 점수는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4: 2.91 → '17: 2.89).

청소년 협동역량지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청소년 협동역량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14: 3.12 → '17: 3.03).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생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14: 3.23 → '17: 2.96), 중학생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감소하다 2017년 다소 증가하였다('14: 3.15 → '16: 3.03 → '17: 3.07). 한편 고등학생은 2015년에 감소했다 2016년 이후로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14: 3.06 → '15: 3.03 → '16: 3.04 → '17: 3.07).

18) 2016년과 2017년에 측정된 청소년 대인관계역량문항은 단축형으로 개발된 문항으로, 2014년, 2015년 문항과 다르다. 따라서 2014년과 2015년 문항은 2016년에 개발된 단축형 문항을 기준으로 학교급별 대인관계역량을 다시 산출하였다.

표 IV-53 2014~2017년 성장시기별(학교급별)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지수 변화

구분		2014		2015		2016		2017	
대인관계역량	전체	3.07	(0.70)	3.04	(0.48)	3.00	(0.46)	3.01	(0.48)
	초	3.17	(0.74)	3.07	(0.54)	2.99	(0.52)	2.95	(0.55)
	중	3.11	(0.81)	3.05	(0.47)	3.00	(0.45)	3.03	(0.48)
	고	3.01	(0.57)	3.00	(0.43)	3.02	(0.40)	3.03	(0.43)
관계형성	전체	3.11	(0.70)	3.10	(0.51)	3.09	(0.48)	3.09	(0.51)
	초	3.20	(0.77)	3.10	(0.58)	3.06	(0.53)	3.01	(0.57)
	중	3.14	(0.81)	3.12	(0.50)	3.09	(0.47)	3.11	(0.50)
	고	3.04	(0.55)	3.08	(0.46)	3.11	(0.44)	3.12	(0.46)
리더십	전체	2.99	(0.82)	2.93	(0.57)	2.87	(0.54)	2.87	(0.56)
	초	3.10	(0.84)	2.98	(0.64)	2.89	(0.60)	2.85	(0.62)
	중	3.03	(0.92)	2.93	(0.57)	2.85	(0.54)	2.89	(0.56)
	고	2.91	(0.72)	2.89	(0.51)	2.87	(0.48)	2.89	(0.51)
협동	전체	3.12	(0.82)	3.07	(0.53)	3.02	(0.52)	3.03	(0.54)
	초	3.23	(0.87)	3.13	(0.59)	3.00	(0.58)	2.96	(0.60)
	중	3.15	(0.90)	3.07	(0.53)	3.03	(0.51)	3.07	(0.52)
	고	3.06	(0.71)	3.03	(0.48)	3.04	(0.47)	3.07	(0.48)



【그림 IV-27】 2014~2017년 성장시기별(학교급별)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 변화

## ②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관계형성역량의 변화 추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관계형성 세부역량(자기개방성, 친화성,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지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의 자기개방성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감소하다 2017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14: 3.18 → '16: 3.05 → '17: 3.08). 특히, 초등학생('14: 3.19 → '16: 2.91 → '17: 2.93)이 중학생('14: 3.20 → '16: 3.11 → '17: 3.13)보다 2016년까지 감소하는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등학생의 자기개방성 점수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4: 3.16 → '17: 3.17).

다음으로 청소년 친화성역량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청소년 친화성역량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증가하다 2017년에 다소 감소하였다('14: 2.92 → '16: 3.01 → '17: 2.97).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2017년 친화성역량 점수는 2014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4: 3.11 → '17: 2.96). 반면 고등학생의 2017년 친화성역량 점수는 2014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4: 2.80 → '17: 2.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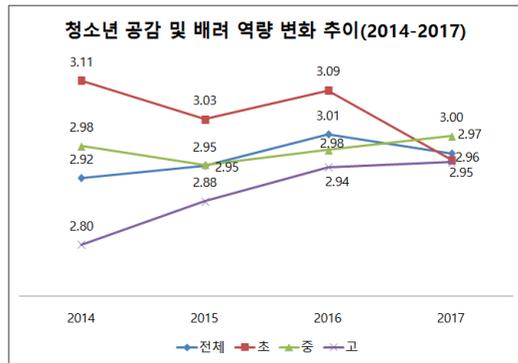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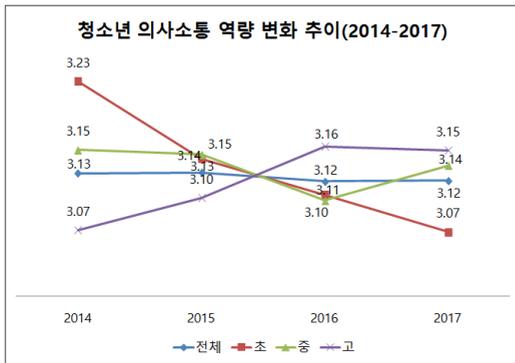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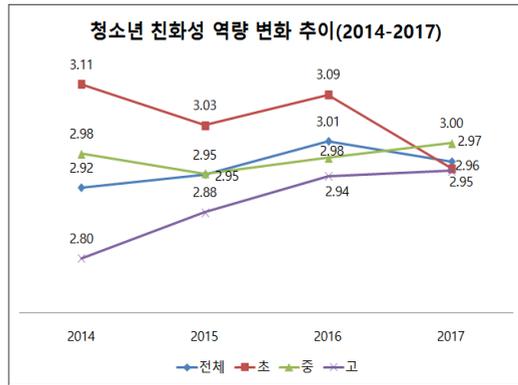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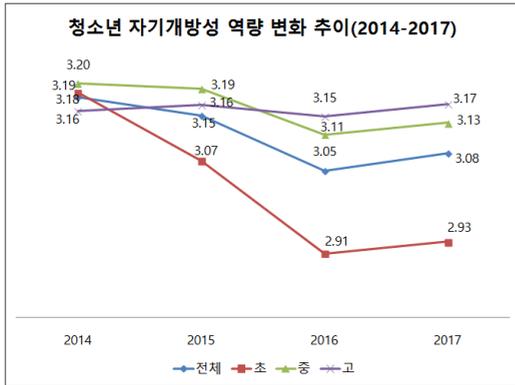
청소년 의사소통역량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청소년 의사소통역량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거의 변화가 없었다('14: 3.13 → '17: 3.12).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의사소통역량은 점차 감소하였고('14: 3.23 → '17: 3.07), 중학생의 의사소통역량은 2016년에 감소하였다가 2017년에 증가하였다('14: 3.15 → '16: 3.10 → '17: 3.14). 반면 고등학생의 의사소통역량 점수는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4: 3.07 → '17: 3.15).

청소년 공감 및 배려역량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청소년 공감 및 배려역량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거의 변화가 없었다('14: 3.19 → '17: 3.17). 그러나 학교급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초등학생('14: 3.27 → '17: 3.10) 및 중학생('14: 3.23 → '17: 3.18)의 공감 및 배려역량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고등학생의 공감 및 배려역량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14: 3.14 → '17: 3.21).

표 IV-54

2014~2017년 성장시기별(학교급별) 청소년 관계역량지수의 변화

구분		2014	2015	2016	2017
자기개방성	전체	3.18 (0.82)	3.15 (0.68)	3.05 (0.69)	3.08 (0.71)
	초	3.19 (0.89)	3.07 (0.74)	2.91 (0.75)	2.93 (0.78)
	중	3.20 (0.91)	3.19 (0.66)	3.11 (0.66)	3.13 (0.69)
	고	3.16 (0.71)	3.16 (0.64)	3.15 (0.64)	3.17 (0.64)
친화성	전체	2.92 (0.86)	2.95 (0.70)	3.01 (0.65)	2.97 (0.69)
	초	3.11 (0.89)	3.03 (0.74)	3.09 (0.68)	2.96 (0.75)
	중	2.98 (0.94)	2.95 (0.70)	2.98 (0.63)	3.00 (0.69)
	고	2.80 (0.75)	2.88 (0.66)	2.94 (0.63)	2.95 (0.65)
의사소통	전체	3.13 (0.77)	3.13 (0.59)	3.12 (0.56)	3.12 (0.58)
	초	3.23 (0.86)	3.14 (0.65)	3.11 (0.61)	3.07 (0.65)
	중	3.15 (0.86)	3.15 (0.58)	3.10 (0.55)	3.14 (0.57)
	고	3.07 (0.63)	3.10 (0.54)	3.16 (0.51)	3.15 (0.53)
공감 및 배려	전체	3.19 (0.75)	3.18 (0.57)	3.17 (0.53)	3.17 (0.57)
	초	3.27 (0.81)	3.17 (0.63)	3.13 (0.57)	3.10 (0.63)
	중	3.23 (0.85)	3.20 (0.55)	3.17 (0.52)	3.18 (0.55)
	고	3.14 (0.61)	3.16 (0.53)	3.21 (0.50)	3.21 (0.52)



【그림 IV-28】 2014~2017년 성장시기별(학교급별) 청소년 관계형성역량지수 변화

### ③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리더십역량의 변화 추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리더십 세부역량(의사결정, 집단활동관리, 추진력)지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의 의사결정('14: 3.10 → '17: 2.98), 집단활동관리('14: 2.91 → '17: 2.75), 추진력('14: 2.96 → '17: 2.89) 모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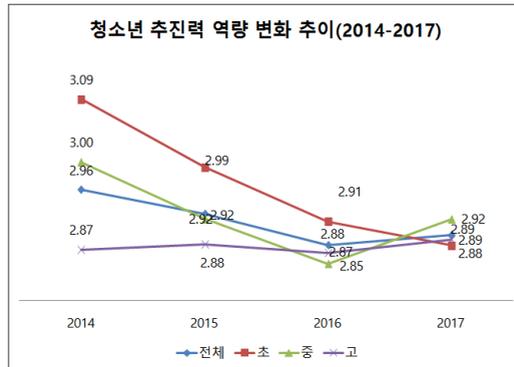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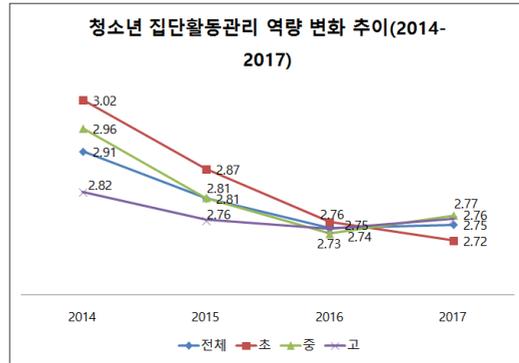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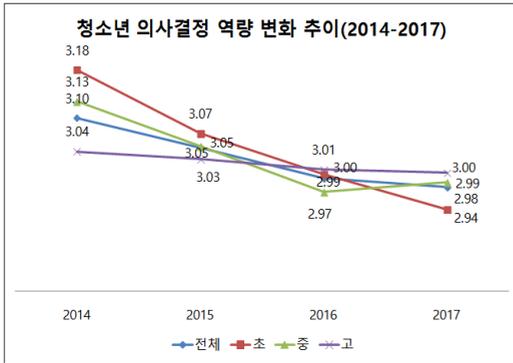
학교급에 따라 리더십 역량의 세부역량(의사결정, 집단활동관리, 추진력) 점수 변화 추이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의사결정역량에 있어서는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의사결정역량이 감소하는 폭이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초: '14: 3.18 → '17: 2.94, 중: '14: 3.13 → '17: 2.99, 고: '14: 3.04 → '17: 3.00).

다음으로 청소년 친화성역량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청소년 친화성역량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증가하다 2017년에 다소 감소하였다('14: 2.92 → '16: 3.01 → '17: 2.97).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2017년 친화성역량 점수는 2014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4: 3.11 → '17: 2.96). 반면 고등학생의 2017년 친화성역량 점수는 2014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4: 2.80 → '17: 2.95).

학교급별 청소년의 집단활동관리역량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초등학생('14: 3.02 → '17: 2.72)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중학생('14: 2.96 → '16: 2.73 → '17: 2.77) 및 고등학생('14: 2.82 → '16: 2.74 → '17: 2.76)은 2016년에 감소하였다가 2017년에 증가하였다. 학교급별 청소년의 추진력역량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14: 3.09 → '17: 2.88), 중학생은 2016년에 감소하였다가 2017년에 증가하였다('14: 3.00 → '16: 2.85 → '17: 2.92). 고등학생의 추진력역량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4: 2.87 → '17: 2.89).

표 IV-55 2014~2017년 성장시기별(학교급별) 청소년 리더십역량지수 변화

구분		2014	2015	2016	2017
의사결정	전체	3.10 (0.84)	3.05 (0.62)	2.99 (0.56)	2.98 (0.59)
	초	3.18 (0.86)	3.07 (0.68)	3.00 (0.63)	2.94 (0.67)
	중	3.13 (0.92)	3.05 (0.63)	2.97 (0.55)	2.99 (0.57)
	고	3.04 (0.74)	3.03 (0.56)	3.01 (0.49)	3.00 (0.52)
집단활동관리	전체	2.91 (0.91)	2.81 (0.68)	2.75 (0.67)	2.75 (0.70)
	초	3.02 (0.93)	2.87 (0.75)	2.76 (0.71)	2.72 (0.73)
	중	2.96 (0.99)	2.81 (0.67)	2.73 (0.67)	2.77 (0.69)
	고	2.82 (0.82)	2.76 (0.62)	2.74 (0.63)	2.76 (0.66)
추진력	전체	2.96 (0.88)	2.92 (0.62)	2.88 (0.60)	2.89 (0.61)
	초	3.09 (0.91)	2.99 (0.69)	2.91 (0.66)	2.88 (0.67)
	중	3.00 (0.96)	2.92 (0.61)	2.85 (0.60)	2.92 (0.61)
	고	2.87 (0.77)	2.88 (0.56)	2.87 (0.54)	2.89 (0.56)



[그림 IV-29] 2014~2017년 성장시기별(학교급별) 청소년 리더십역량지수 변화

④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협동역량의 변화 추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협동 세부역량(집단축진, 팔로워십, 갈등문제해결)지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의 집단축진('14: 3.07 → '17: 2.94), 갈등문제해결('14: 3.12 → '17: 3.01)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팔로워십역량('14: 3.22 → '17: 3.22)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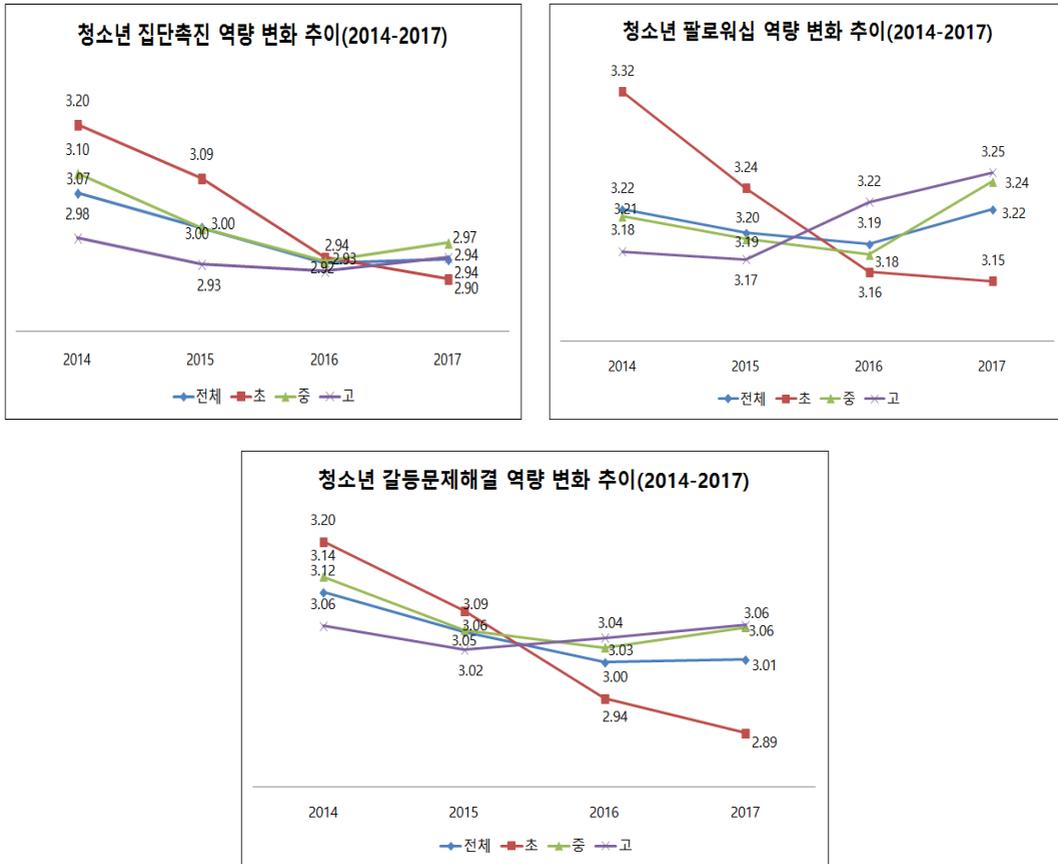
학교급에 따라 협동역량의 세부역량(집단축진, 팔로워십, 갈등문제해결) 점수 변화 추이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청소년의 집단축진역량에 있어서는 초등학생('14: 3.20 → '17: 2.90)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중학생('14: 3.10 → '16: 2.94 → '17: 2.97) 및 고등학생('14: 2.98 → '16: 2.92 → '17: 2.94)은 2016년에 감소하였다가 2017년에 증가하였다.

청소년 팔로워십역량에 있어서는 초등학생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14: 3.32 → '17: 3.15), 중학생은 2016년에 감소하였다가 2017년에 증가하였다('14: 3.21 → '16: 3.18 → '17: 3.24). 고등학생의 팔로워십 역량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14: 3.18 → '17: 3.25).

청소년 갈등문제해결역량에 있어서는 초등학생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14: 3.20 → '17: 2.89), 중학생은 2016년에 감소하였다가 2017년에 증가하였다('14: 3.14 → '16: 3.03 → '17: 3.06). 고등학생의 갈등문제해결 역량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V-56** 2014~2017년 성장시기별(학교급별) 청소년 협동역량지수 변화

구분		2014	2015	2016	2017
집단축진	전체	3.07 (0.86)	3.00 (0.60)	2.93 (0.61)	2.94 (0.62)
	초	3.20 (0.91)	3.09 (0.65)	2.94 (0.66)	2.90 (0.68)
	중	3.10 (0.94)	3.00 (0.61)	2.94 (0.59)	2.97 (0.60)
	고	2.98 (0.76)	2.93 (0.56)	2.92 (0.56)	2.94 (0.57)
팔로워십	전체	3.22 (0.86)	3.20 (0.60)	3.19 (0.58)	3.22 (0.61)
	초	3.32 (0.90)	3.24 (0.65)	3.16 (0.63)	3.15 (0.67)
	중	3.21 (0.94)	3.19 (0.60)	3.18 (0.57)	3.24 (0.59)
	고	3.18 (0.76)	3.17 (0.56)	3.22 (0.54)	3.25 (0.56)
갈등문제해결	전체	3.12 (0.87)	3.05 (0.59)	3.00 (0.59)	3.01 (0.62)
	초	3.20 (0.93)	3.09 (0.66)	2.94 (0.65)	2.89 (0.68)
	중	3.14 (0.95)	3.06 (0.60)	3.03 (0.57)	3.06 (0.61)
	고	3.06 (0.76)	3.02 (0.54)	3.04 (0.53)	3.06 (0.57)



【그림 IV-30】 2014~2017년 성장시기별(학교급별) 청소년 협동역량지수 변화

## 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에 대한 청소년의 개인심리적 변인과 외부환경 변인의 조절효과 분석

본 절에서는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결과가 청소년의 발달단계의 심리적 특성이 반영된 것인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개인의 심리적 변인(자아개념, 자율성, 자기효능감, 가능한 자아)과 외부환경변인(학업스트레스, 부모양육태도)에 대한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1) 청소년 생애학습역량과 성장시기별(학교급) 개인심리 및 외부환경 변인 조절효과분석

①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에 대한 개인심리 및 외부환경 변인 조절효과분석

개인의 심리적 변인(자아개념, 자율성, 자기효능감, 가능한 자아)과 외부환경변인(학업스트레스, 부모양육태도)이 학교급과 생애학습역량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IV-57 >과 같다. 먼저 학교급이 청소년의 생애학습역량에 미치는 영향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청소년의 생애학습역량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beta = -.083$ ,  $p < .001$ ), 설명력은 0.1%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Delta R^2 = .007$ ,  $F = 69.788$ ,  $p < .001$ ).

모델2에서는 학교급과 개인심리적 변인, 외부환경 변인이 청소년의 생애학습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학교급( $\beta = -.047$ ,  $p < .001$ )과 개인심리적 변수인 자율성( $\beta = .163$ ,  $p < .001$ ), 자기효능감( $\beta = .197$ ,  $p < .001$ ), 가능한 자아( $\beta = .162$ ,  $p < .001$ ), 그리고 외부환경 변수인 부모양육태도( $\beta = .038$ ,  $p < .001$ )는 생애학습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율성, 자기효능감, 가능한 자아 지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생애학습영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2의 설명력은 20.2%로,  $F = 359.601$ ,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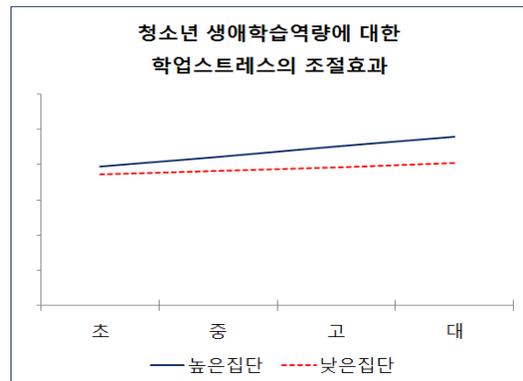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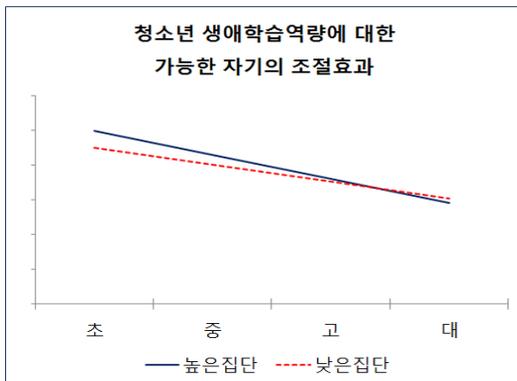
모델3에서는 독립변인인 학교급, 조절변인인 개인의 심리적 요인, 외부환경요인과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학교급( $\beta = -.036$ ,  $p < .001$ ), 자율성( $\beta = .165$ ,  $p < .001$ ), 자기효능감( $\beta = .190$ ,  $p < .001$ ), 가능한 자아( $\beta = .165$ ,  $p < .001$ ), 부모양육태도( $\beta = .032$ ,  $p < .001$ )는 생애학습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능한 자아( $\beta = -.045$ ,  $p < .001$ ), 학업스트레스( $\beta = .041$ ,  $p < .001$ )가 학교급이 대인관계역량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20.8%로 확인되었다( $\Delta R^2 = .006$ ,  $F = 200.992$ ,  $p < .001$ ).

가능한 자아와 학업스트레스가 학교급과 청소년의 생애학습역량에 조절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그래프를 제시하였다. 각 조절변인의 평균값을 중심으로 평균+표준편차 이상을 높은 집단, 평균-표준편차 이하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가능한 자아 변인은 학교급이 생애학습역량에 미치는 부적 영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점차 진급할수록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차이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스트레스의 경우는 학교급이 생애학습역량에 미치는 정적 영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생애학습역량이 증가하는 폭이 큰 것으로 확인된다.

표 IV-57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에 대한 학교급과 개인심리적 요인 및 외부환경요인의 조절효과

변인	모델1			모델2			모델3		
	B	$\beta$	t	B	$\beta$	t	B	$\beta$	t
상수	2.946		275.949***	1.719		41.082***	1.715		40.882***
학교급	-.036	-.083	-8.354***	-.020	-.047	-5.081***	-.015	-.036	-3.821***
개인심리적 변인									
자아개념				.010	.015	1.331	.011	.016	1.410
자율성				.124	.163	15.740***	.126	.165	15.960***
자기효능감				.125	.197	16.215***	.121	.190	15.670***
가능한 자아				.111	.162	13.391***	.113	.165	13.617***
외부환경 변인									
학업스트레스				.006	.010	.889	.006	.010	.897
부모양육태도				.026	.038	3.501***	.023	.032	2.986**
조절변인									
조절변인1(학교급*자아개념)							.016	.023	2.146
조절변인2(학교급*자율성)							.007	.009	.904
조절변인3(학교급*자기효능감)							-.006	-.009	-.777
조절변인4(학교급*가능한 자아)							-.033	-.045	-3.743***
조절변인5(학교급*학업스트레스)							.028	.041	3.720***
조절변인6(학교급*부모양육스트레스)							-.017	-.024	-2.206
R <sup>2</sup>		.007		.202			.208		
adjusted-R <sup>2</sup>		.007		.201			.207		
$\Delta R^2$		.007		.195			.006		
F		69.788***		359.601***			200.992***		
$\Delta F$		69.788***		405.077***			12.936***		

\*\*\*p < .001. \*\*p < .01.



【그림 IV-31】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에 대한 개인심리 및 외부환경 변인의 조절효과

## ②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사고력 역량에 대한 개인심리 및 외부환경 변인 조절효과 분석

청소년의 생애학습역량군 중 사고력 역량과 학교급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분석 결과는 <표 IV-58 >과 같다. 모델4에서는 학교급이 사고력 역량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청소년의 사고력 역량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eta = -.044, p < .001$ ), 설명력은 0.2%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R^2 = .002, F = 19.782, p < .001$ ).

학교급과 개인심리적 변인, 외부환경 변인이 사고력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모델 5로 제시하였다. 사고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아개념( $\beta = .035, p < .01$ ), 자율성( $\beta = .116, p < .001$ ), 자기효능감( $\beta = .119, p < .001$ ), 가능한 자아( $\beta = .121, p < .001$ ), 학업스트레스( $\beta = .033, p < .001$ ), 부모양육태도( $\beta = .071, p < .001$ )로 개인심리적 변인과 외부환경 변인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5의 설명력은 10.7%로 나타났으며 모델 4와 비교하여 10.5%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F = 170.891, p < .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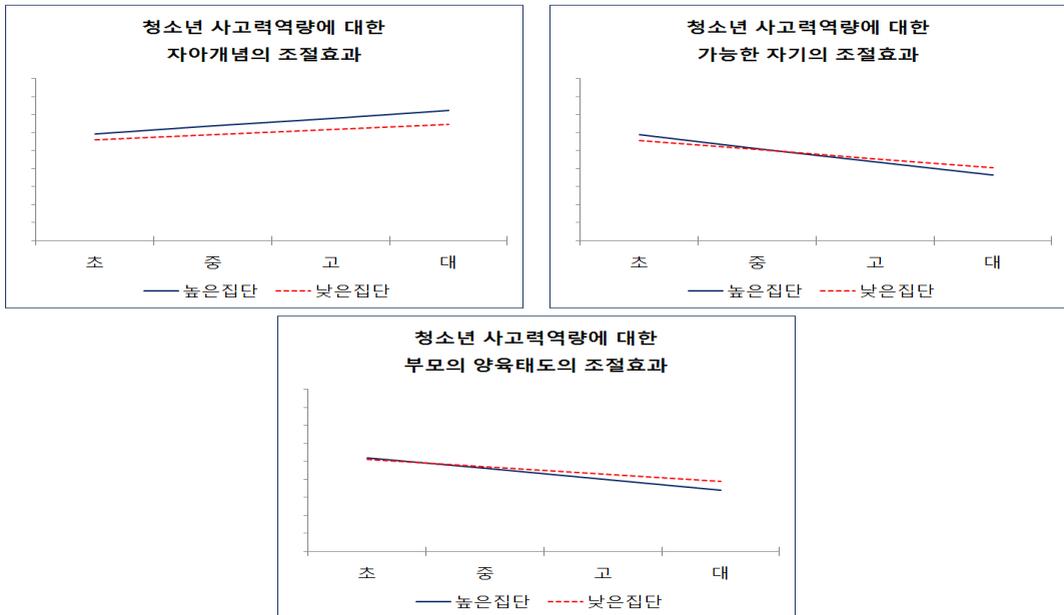
모델6에서는 독립변인인 학교급, 조절변인인 개인의 심리적 요인, 외부환경요인과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사고력 역량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학교급( $\beta = -.016, p < .001$ ), 자아개념( $\beta = .038, p < .01$ ), 자율성( $\beta = .117, p < .001$ ), 자기효능감( $\beta = .112, p < .001$ ), 가능한 자아( $\beta = .124, p < .001$ ), 학업스트레스( $\beta = .031, p < .01$ ) 및 부모양육태도( $\beta = .063, p < .001$ ), 모두 사고력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절변인에서는 자아개념( $\beta = .033, p < .01$ ), 가능한 자아( $\beta = -.050, p < .001$ ), 부모양육태도( $\beta = -.042, p < .001$ )가 학교급이 사고력 역량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6의 설명력은 11.3%로 유의했으며, 모델5에 비해 0.6%증가했다( $F = 97.795, p < .001$ ).

자아개념, 가능한 자아, 부모의양육태도가 학교급과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에서의 조절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래프를 통해 제시하였다. 자아개념은 학교급이 사고력역량에 미치는 정적 영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개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사고력역량이 증가하는 폭이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난다. 가능한 자아 변인, 즉 미래의 자신의 모습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수록 또한 부모의양육태도가 긍정적일 수록 학교급이 사고력역량 형성에 미치는 정적 영향(+)이 약화되었다.

표 IV-58 청소년 사고력역량에 대한 학교급과 개인심리적 요인 및 외부환경요인의 조절효과

변인	모델4			모델5			모델6		
	B	$\beta$	t	B	$\beta$	t	B	$\beta$	t
상수	3,039		275.955***	1,986		43.614***	1,997		43.728***
학교급	-.020	-.044	-4.448***	-.010	-.021	-2.197***	-.007	-.016	-1.606***
개인심리적 변인									
자아개념				.025	.035	3.015**	.027	.038	3.266**
자율성				.091	.116	10.596***	.092	.117	10.702***
자기효능감				.077	.119	9.255***	.073	.112	8.680***
가능한 자아				.085	.121	9.471***	.087	.124	9.717***
외부환경 변인									
학업스트레스				.022	.033	2.795**	.021	.031	2.670**
부모양육태도				.051	.071	6.236***	.045	.063	5.479***
조절변인									
조절변인1(학교급*자아개념)							.024	.033	2.899**
조절변인2(학교급*자율성)							.003	.004	.372
조절변인3(학교급*자기효능감)							-.020	-.030	-2.334
조절변인4(학교급*가능한 자아)							-.038	-.050	-3.957***
조절변인5(학교급*학업스트레스)							-.003	-.005	-.417
조절변인6(학교급*부모양육스트레스)							-.031	-.042	-3.695***
R <sup>2</sup>		.002		.107			.113		
adjusted-R <sup>2</sup>		.002		.106			.112		
$\Delta R^2$		.002		.105			.006		
F		19.782***		170.891***			97.795***		
$\Delta F$		19.782***		195.690***			11.283***		

\*\*\*p<.001. \*\*p<.01.



【그림 IV-32】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사고력역량에 대한 개인심리 및 외부환경 변인의 조절효과

### ③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지적도구활용역량에 대한 개인심리 및 외부환경 변인 조절효과분석

청소년의 생애학습역량군 중 지적도구활용역량과 학교급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분석 결과는 <표 IV-59>과 같다. 모델 7에서는 학교급이 지적도구활용역량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청소년의 지적도구활용역량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eta = -.080$ ,  $p < .001$ ), 설명력은 0.6%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 = 64.658$ ,  $p < .001$ ).

모델 8에서는 학교급과 개인심리적 변인, 외부환경 변인이 사고력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지적도구활용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율성( $\beta = .156$ ,  $p < .001$ ), 자기효능감( $\beta = .187$ ,  $p < .001$ ), 가능한 자아( $\beta = .138$ ,  $p < .001$ )로 확인되었다. 모델 8의 설명력은 16.3%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모델 7보다 1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F = 278.085$ ,  $p < .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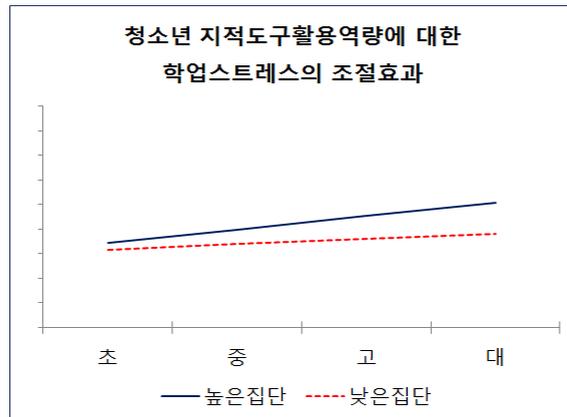
모델 9에서는 독립변인인 학교급, 조절변인인 개인의 심리적 요인, 외부환경요인과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지적도구활용역량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학교급( $\beta = -.035$ ,  $p < .001$ ), 자율성( $\beta = .158$ ,  $p < .001$ ), 자기효능감( $\beta = .182$ ,  $p < .001$ ), 가능한 자아( $\beta = .140$ ,  $p < .001$ ) 변인이 지적도구활용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절변인에서는 학업스트레스( $\beta = .057$ ,  $p < .001$ )가 학교급이 지적도구활용역량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델 9의 설명력은 16.9%로 유의했으며, 모델 8에 비해 0.5%증가했다( $F = 155.692$ ,  $p < .001$ ).

학업스트레스가 학교급과 청소년의 지적도구활용역량에 조절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그래프를 제시하였다.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지적도구활용역량이 증가하는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9 청소년 지적도구활용역량에 대한 학교급과 개인심리적 요인 및 외부환경요인의 조절효과

변인	모델7			모델8			모델9		
	B	$\beta$	t	B	$\beta$	t	B	$\beta$	t
상수	2,878		216.306***	1,605		30.068***	1,595		29.796***
학교급	-.043	-.080	-8.041***	-.025	-.047	-4.927***	-.019	-.035	-3.608***
개인심리적 변인									
자아개념				-.002	-.002	-.207	-.002	-.002	-.203
자율성				.148	.156	14.696***	.150	.158	14.873***
자기효능감				.148	.187	15.046***	.144	.182	14.605***
가능한 자아				.117	.138	11.116***	.119	.140	11.283***
외부환경 변인									
학업스트레스				-.006	-.007	-.607	-.005	-.006	-.570
부모양육태도				.009	.011	.959	.006	.007	.606
조절변인									
조절변인1(학교급*자아개념)							.014	.015	1.385
조절변인2(학교급*자율성)							.003	.004	.341
조절변인3(학교급*자기효능감)							.000	-.001	-.041
조절변인4(학교급*가능한 자아)							-.025	-.027	-2.231
조절변인5(학교급*학업스트레스)							.049	.057	5.052***
조절변인6(학교급*부모양육스트레스)							-.014	-.016	-1.411
R <sup>2</sup>		.006			.163			.169	
adjusted-R <sup>2</sup>		.006			.163			.168	
$\Delta R^2$		.006			.157			.005	
F		64.658***			278.085***			155.692***	
$\Delta F$		64.658***			311.644***			10.957***	

\*\*\*p < .001. \*\*p < .01.



【그림 IV-33】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지적도구활용역량에 대한 개인심리 및 외부환경 변인의 조절효과

④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학습적응성역량에 대한 개인심리 및 외부환경 변인 조절 효과분석

청소년 학습적응성과 학교급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분석 결과는 <표 IV-60>과 같다. 모델 10에서는 학교급이 학습적응성역량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청소년의 지적도구활용역량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eta = -.073$ ,  $p < .001$ ), 설명력은 0.5%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 = 84.146$ ,  $p < .001$ ).

모델 11에서는 학교급과 개인의 심리적 변인, 외부환경 변인이 청소년의 학습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율성( $\beta = .121$ ,  $p < .001$ ), 자기효능감( $\beta = .167$ ,  $p < .001$ ), 가능한 자아( $\beta = .151$ ,  $p < .001$ ), 부모의 양육태도( $\beta = .043$ ,  $p < .001$ )로 확인되었다. 모델 11의 설명력은 14.9%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모델 10보다 1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F = 249.284$ ,  $p < .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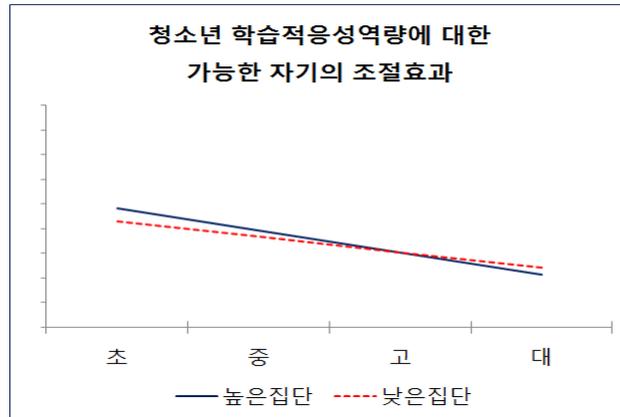
모델 12에서는 독립변인인 학교급, 조절변인인 개인의 심리적 요인, 외부환경요인과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학습적응성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학교급( $\beta = -.034$ ,  $p < .001$ ), 자율성( $\beta = .124$ ,  $p < .001$ ), 자기효능감( $\beta = .162$ ,  $p < .001$ ), 가능한 자아( $\beta = .153$ ,  $p < .001$ ), 부모의 양육태도( $\beta = .040$ ,  $p < .001$ ) 변인이 학습적응성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절변인에서는 가능한 자아( $\beta = -.050$ ,  $p < .001$ ) 변인이 학교급이 학습적응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델 12의 설명력은 15.2%로 유의했으며, 모델 11에 비해 0.3%증가했다( $F = 137.834$ ,  $p < .001$ ).

가능한 자아 변인이 학교급과 청소년의 학습적응성역량에 조절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그래프를 제시하였다. 미래에 대한 자기모습이 긍정적일수록 학교급이 학습적응성역량에 미치는 정적 영향(+)이 약화되었다. 가능한 자아 지수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학습적응성 역량이 감소하는 폭이 크게 나타났다.

표 IV-60 청소년 학습적응성역량에 대한 학교급과 개인심리적 요인 및 외부환경요인의 조절효과

변인	모델10			모델11			모델12		
	B	$\beta$	t	B	$\beta$	t	B	$\beta$	t
상수	2.989		234.531***	1.681		32.619***	1.673		32.318***
학교급	-.038	-.073	-7.358***	-.021	-.042	-4.355***	-.018	-.034	-3.504***
개인심리적 변인									
자아개념				.019	.024	2.087	.020	.024	2.109
자율성				.110	.121	11.321***	.112	.124	11.532***
자기효능감				.126	.167	13.321***	.123	.162	12.930***
가능한 자아				.123	.151	12.101***	.125	.153	12.231***
외부환경 변인									
학업스트레스				.015	.019	1.675	.015	.020	1.730
부모양육태도				.036	.043	3.874***	.034	.040	3.594***
조절변인									
조절변인1(학교급*자아개념)							.015	.017	1.535
조절변인2(학교급*자율성)							.019	.020	1.897
조절변인3(학교급*자기효능감)							-.004	-.005	-.376
조절변인4(학교급*가능한 자아)							-.043	-.050	-4.029***
조절변인5(학교급*학업스트레스)							.019	.023	1.976
조절변인6(학교급*부모양육스트레스)							-.009	-.011	-.973
R <sup>2</sup>		.005		.149			.152		
adjusted-R <sup>2</sup>		.005		.148			.151		
$\Delta R^2$		.005		.144			.003		
F		54.146***		249.284***			137.834***		
$\Delta F$		54.146***		280.291***			6.794***		

\*\*\*p < .001. \*\*p < .01.



【그림 IV-34】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학습적응성역량에 대한 개인심리 및 외부환경 변인의 조절효과

## (2) 청소년 생활관리역량과 성장시기별(학교급) 개인심리 및 외부환경 변인 조절효과분석

### ①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에 대한 개인심리 및 외부환경 변인 조절효과분석

개인의 심리적 변인(자아개념, 자율성, 자기효능감, 가능한 자아)과 외부환경변인(학업스트레스, 부모양육태도)이 학교급과 생활관리역량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IV- 61>과 같다. 기본모형에 의하면, 상급 학교로 진학할수록 청소년의 생활관리역량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eta = -.178, p < .001$ ), 설명력은 3.1%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Delta R^2 = .032, F = 328.290, p < .001$ ).

모델2에서는 학교급과 개인심리적 변인, 외부환경 변인이 청소년의 생활관리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학교급( $\beta = -.101, p < .001$ )과 함께 개인심리 변인으로는 자아개념( $\beta = -.064, p < .001$ ), 자율성( $\beta = .106, p < .001$ ), 자기효능감( $\beta = .063, p < .001$ ), 그리고 외부환경 변수인 학업스트레스( $\beta = -.413, p < .001$ ), 부모양육태도( $\beta = .109, p < .001$ )가 생활관리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인심리적 변인인 자아개념과 외부환경 변인인 학업스트레스의 경우는 긍정적일수록 생활관리역량 지수는 낮아지는 부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율성, 자기효능감과 부모양육태도가 증가할수록 생활관리역량 지수 역시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2의 설명력은 20.7%로,  $F = 377.232,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독립변인인 학교급, 조절변인인 개인의 심리적 요인, 외부환경요인과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모델3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교급( $\beta = .285, p < .001$ ), 자율성( $\beta = .137, p < .001$ ), 자기효능감( $\beta = .073, p < .001$ ), 가능한 자아( $\beta = .088, p < .001$ ), 학업스트레스( $\beta = -.499, p < .001$ ), 부모양육태도( $\beta = .134, p < .01$ )는 청소년의 생활관리역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립변인과 조절변인 상호작용항의 경우 가능한 자아( $\beta = -.300, p < .001$ ), 학업스트레스( $\beta = .154, p < .001$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학교급이 생활관리역량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21.1%로 확인되었다( $\Delta R^2 = .004, F = 207.664, p < .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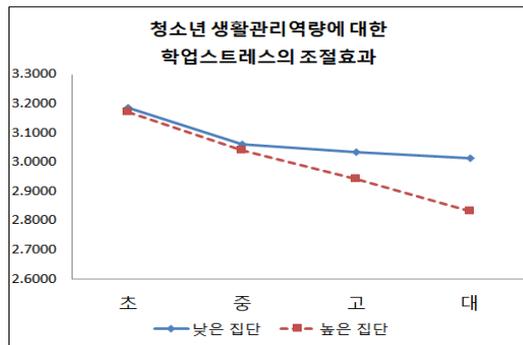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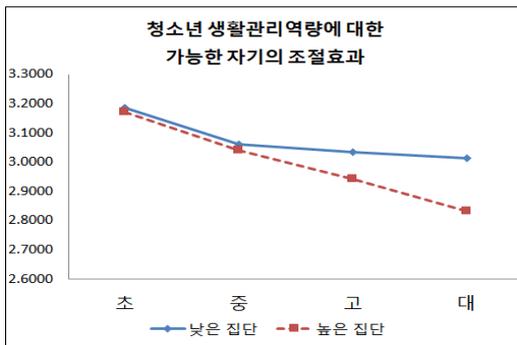
R2값은 모형1에서 3.1%, 모형2에서 20.7%, 모형3에서 21.1%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확률  $p < .001$ 로 조절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학교급과 청소년의 생활관리역량에 있어 가능한 자아와 학업스트레스의 조절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더욱 직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각 조절변인의 평균값을 중심으로 평균+표준편차 이상을 높은 집단, 평균-표준편차 이하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가능한 자아 변인과 학업스트레스는 학교급이 생활관리역량에 미치는 부적 영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욱이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진학할수록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차이는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스트레스 역시 학교급이 생활관리역량에 미치는 부적 영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생활관리역량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확인된다.

표 IV-61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에 대한 개인심리 및 외부환경요인의 조절효과

변인	모델1			모델2			모델3		
	B	$\beta$	t	B	$\beta$	t	B	$\beta$	t
상수	3,222		375.373 ***	3,250		117.691 ***	2,956		47.693 ***
학교급	-.063	-.178	-18.119 ***	-.036	-.101	-11.086 ***	.101	.285	3.886 ***
개인심리적 변인									
자아개념				-.038	-.064	-6.208 ***	-.017	-.028	-1.125
자율성				.067	.106	10.997 ***	.086	.137	6.091 ***
자기효능감				.041	.063	6.425 ***	.048	.073	3.193 ***
가능한 자아				-.006	-.006	-.658	.082	.088	3.835 ***
외부환경 변인									
학업스트레스				-.208	-.413	-43.683 ***	-.252	-.499	-21.129 ***
부모양육태도				.051	.109	10.808 ***	.063	.134	6.015 **
조절변인									
조절변인1(학교급*자아개념)							-.010	-.078	-1.533
조절변인2(학교급*자율성)							-.010	-.090	-1.676
조절변인3(학교급*자기효능감)							-.004	-.033	-.633
조절변인4(학교급*가능한 자아)							-.039	-.300	-4.591 ***
조절변인5(학교급*학업스트레스)							.020	.154	4.019 ***
조절변인6(학교급*부모양육태도)							-.005	-.047	-1.227
R <sup>2</sup>		.178		.456			.460		
adjusted-R <sup>2</sup>		.031		.207			.211		
$\Delta R^2$		.032		.176			.004		
F		328,290 ***		377,232 ***			207,664 ***		
$\Delta F$		328,290 ***		373,245 ***			7,998 ***		

\*\*\* $p < .001$ . \*\* $p < .01$ . \* $p < .05$ .



【그림 IV-35】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에 대한 개인심리 및 외부환경요인의 조절효과

②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건강관리역량에 대한 개인심리 및 외부환경 변인 조절효과 분석

청소년의 생활관리역량군 중 건강관리역량과 학교급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IV-62>과 같다. 모델4에서는 학교급이 건강관리역량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청소년의 건강관리역량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eta = -.152, p < .001$ ), 설명력은 2.3%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R^2 = .152, F = 238.500, p < .001$ ).

학교급과 개인심리적 변인, 외부환경 변인이 건강관리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모델 5로 제시하였다. 건강관리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아개념( $\beta = -.059, p < .001$ ), 자율성( $\beta = .116, p < .001$ ), 자기효능감( $\beta = .089, p < .001$ ), 가능한 자아( $\beta = .076, p < .001$ ), 학업스트레스( $\beta = -.233, p < .001$ ), 부모양육태도( $\beta = .141, p < .001$ )로 개인심리적 변인과 외부환경 변인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5의 설명력은 10.8%로 나타났으며 모델 4와 비교하여 8.5%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F = 174.992, p < .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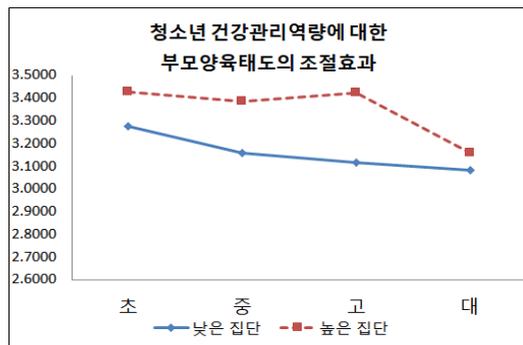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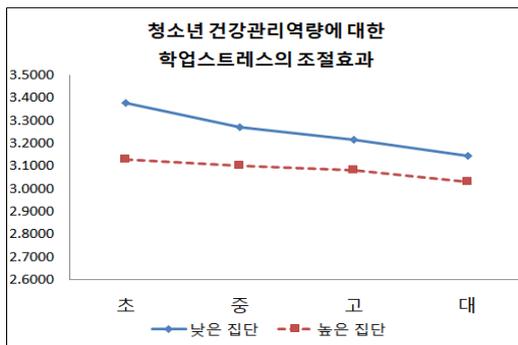
모델6에서는 독립변인인 학교급, 조절변인인 개인의 심리적 요인, 외부환경요인과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건강관리역량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학교급( $\beta = -.233, p < .01$ ), 자아개념( $\beta = -.069, p < .01$ ), 자율성( $\beta = .126, p < .001$ ), 자기효능감( $\beta = .055, p < .05$ ), 가능한 자아( $\beta = .083, p < .01$ ), 학업스트레스( $\beta = -.356, p < .001$ ) 및 부모양육태도( $\beta = .192, p < .001$ ), 모두 건강관리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절변인에서는 학업스트레스( $\beta = .216, p < .01$ ), 부모양육태도( $\beta = -.103, p < .05$ )가 건강관리역량에 대한 학교급의 영향 정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6의 설명력은 11.1%로 유의했으며, 모델5에 비해 0.3% 증가했다( $F = 97.352, p < .001$ ).

청소년 건강관리역량에 대한 학교급의 영향 정도를 학업스트레스와 부모의 양육태도가 어떤 조절효과를 보이는지 그래프를 통해 제시하였다. 학업스트레스는 학교급이 건강관리역량에 미치는 부적 영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건강관리역량이 감소하는 폭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의 양육태도가 낮은 집단이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건강관리역량의 감소폭이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양육태도가 높은 집단이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건강관리역량의 감소폭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2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건강관리역량에 대한 개인심리 및 외부환경요인의 조절효과

변인	모델4			모델5			모델6		
	B	$\beta$	t	B	$\beta$	t	B	$\beta$	t
상수	3.348		289.023 ***	2.788		72.298 ***	2.909		34.467 ***
학교급	-.072	-.152	-15.443 ***	-.052	-.108	-11.255 ***	-.111	-.233	-3.072 **
개인심리적 변인									
자아개념				-.047	-.059	-5.391 ***	-.055	-.069	-2.637 **
자율성				.098	.116	11.267 ***	.106	.126	5.250 ***
자기효능감				.078	.089	8.543 ***	.048	.055	2.247 *
가능한 자아				.094	.076	7.610 ***	.103	.083	3.436 **
외부환경 변인									
학업스트레스				-.157	-.233	-23.142 ***	-.240	-.356	-14.150 ***
부모양육태도				.088	.141	13.120 ***	.119	.192	8.050 ***
조절변인									
조절변인1(학교급*자아개념)							.004	.026	.483
조절변인2(학교급*자율성)							-.004	-.023	-.410
조절변인3(학교급*자기효능감)							.014	.086	1.557
조절변인4(학교급*가능한 자아)							-.004	-.021	-.305
조절변인5(학교급*학업스트레스)							.038	.216	5.332 ***
조절변인6(학교급*부모양육태도)							-.015	-.103	-2.543 *
R <sup>2</sup>		.152		.329			.334		
adjusted-R <sup>2</sup>		.023		.108			.111		
$\Delta R^2$		.023		.085			.003		
F		238,500***		174,992***			97,352***		
$\Delta F$		238,500***		160,626***			6,146***		

\*\*\*p < .001. \*\*p < .01. \*p < .05.



【그림 IV-36】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건강관리역량에 대한 개인심리 및 외부환경요인의 조절효과

### ③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과제관리역량에 대한 개인심리 및 외부환경 변인 조절효과 분석

청소년의 생활관리역량군 중 과제관리역량과 학교급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분석 결과는 <표 IV-63>과 같다. 모델 7에서는 학교급이 과제관리역량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청소년의 과제관리역량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eta=.067, p<.001$ ), 설명력은 0.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45.833, p<.001$ ).

모델 8에서는 학교급과 개인심리적 변인, 외부환경 변인이 과제관리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과제관리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아개념( $\beta=-.029, p<.01$ ), 자율성( $\beta=.155, p<.001$ ), 자기효능감( $\beta=.083, p<.001$ ), 가능한 자아( $\beta=.109, p<.001$ )로 확인되었다. 모델 8의 설명력은 10.7%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모델 7보다 1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F=173.330, p<.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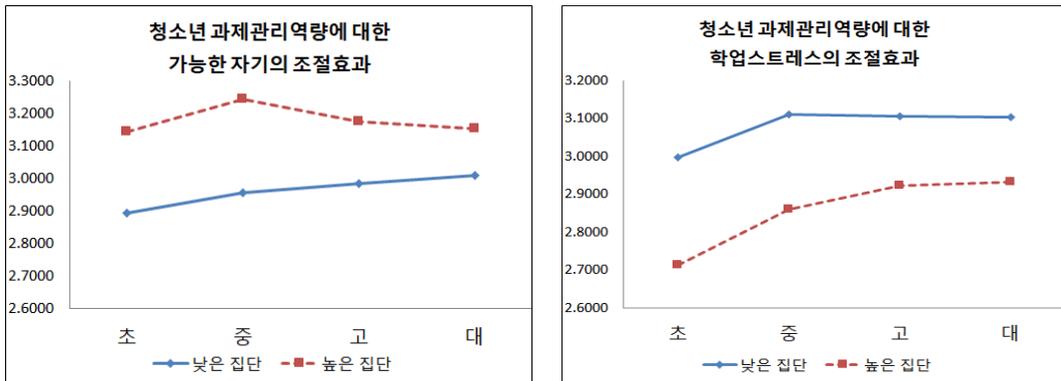
모델 9에서는 독립변인인 학교급, 조절변인인 개인의 심리적 요인, 외부환경요인과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과제관리역량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학교급( $\beta=.217, p<.001$ ), 자아개념( $\beta=-.067, p<.01$ ), 자율성( $\beta=.188, p<.001$ ), 자기효능감( $\beta=.077, p<.01$ ), 가능한 자아( $\beta=.160, p<.001$ ), 학업스트레스( $\beta=-.330, p<.001$ ), 부모양육태도( $\beta=.136, p<.001$ ) 변인이 과제관리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절변인에서는 가능한 자아( $\beta=-.163, p<.05$ )와 학업스트레스( $\beta=.151, p<.001$ )가 과제관리역량에 미치는 학교급의 영향력을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델 9의 설명력은 10.9%로 유의했으며, 모델 8에 비해 0.2%증가했다( $F=95.237, p<.001$ ).

가능한 자아와 학업스트레스가 청소년의 과제관리역량에 대한 학교급의 영향력 조절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그래프를 제시하였다. 가능한 자아 값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과제관리역량의 증가하는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학업 스트레스는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모두 상위 학교급으로 올라갈수록 과제관리역량의 증가 폭이 완만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3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과제관리역량에 대한 개인심리 요인 및 외부환경요인의 조절효과

변인	모델7			모델8			모델9		
	B	$\beta$	t	B	$\beta$	t	B	$\beta$	t
상수	2,871		199.346 ***	1,995		41,925 ***	1,866		17,904 ***
학교급	.039	.067	6.770 ***	.063	.108	11,217 ***	.127	.217	2,851 **
개인심리적 변인									
자아개념				-.029	-.029	-2,693 **	-.066	-.067	-2,551 **
자율성				.161	.155	15,083 ***	.196	.188	7,860 ***
자기효능감				.090	.083	7,904 ***	.084	.077	3,142 **
가능한 자아				.165	.109	10,812 ***	.243	.160	6,599 ***
외부환경 변인									
학업스트레스				-.203	-.245	-24,256 ***	-.274	-.330	-13,127 ***
부모양육태도				.076	.099	9,182 ***	.104	.136	5,730 ***
조절변인									
조절변인1(학교급*자아개념)							.018	.086	1,603
조절변인2(학교급*자율성)							-.017	-.092	-1,619
조절변인3(학교급*자기효능감)							.002	.010	.175
조절변인4(학교급*가능한 자아)							-.035	-.163	-2,373 *
조절변인5(학교급*학업스트레스)							.032	.151	3,724 ***
조절변인6(학교급*부모양육태도)							-.014	-.079	-1,950
R <sup>2</sup>		.067		.328			.331		
adjusted-R <sup>2</sup>		.004		.107			.109		
$\Delta R^2$		.005		.103			.002		
F		45.833 ***		173.330 ***			95.237 ***		
$\Delta F$		45.833 ***		193.702 ***			3,791 ***		

\*\*\* $\alpha$  .001. \*\* $\alpha$  .01. \* $\alpha$  .05.



【그림 IV-37】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과제관리역량에 대한 개인심리 및 외부환경요인의 조절효과

④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상황대처역량에 대한 개인심리 및 외부환경 변인 조절효과분석  
 청소년 상황대처역량과 학교급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분석 결과는 <표 IV-64>과 같다. 모델 10에서는 학교급이 상황대처역량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청소년의 상황대처역량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eta=-.241, p<.001$ ), 설명력은 5.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620.968, p<.001$ ).

모델 11에서는 학교급과 개인의 심리적 변인, 외부환경 변인이 청소년의 상황대처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학교급( $\beta=-.175, p<.001$ )과 가능한 자아( $\beta=-.098, p<.001$ ), 학업스트레스( $\beta=-.335, p<.001$ ), 부모의 양육태도( $\beta=.027, p<.01$ )로 확인되었다. 모델 11의 설명력은 19.0%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모델 10보다 1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F=337.186, p<.001$ ).

모델 12에서는 독립변인인 학교급, 조절변인인 개인의 심리적 요인, 외부환경요인과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학습적응성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학교급( $\beta=.201, p<.01$ )과 학업스트레스( $\beta=-.358, p<.001$ ) 변인이 상황대처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변인으로는 자아개념( $\beta=-.123, p<.05$ )과 가능한 자아( $\beta=-.201, p<.01$ ) 변인이 학교급의 상황대처역량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델 12의 설명력은 19.2%로 유의했으며, 모델 11에 비해 0.2% 증가했다( $F=184.260, p<.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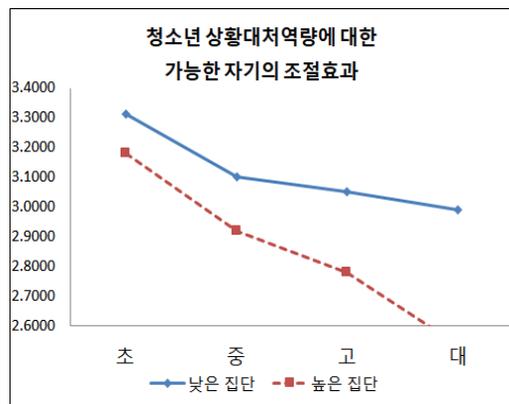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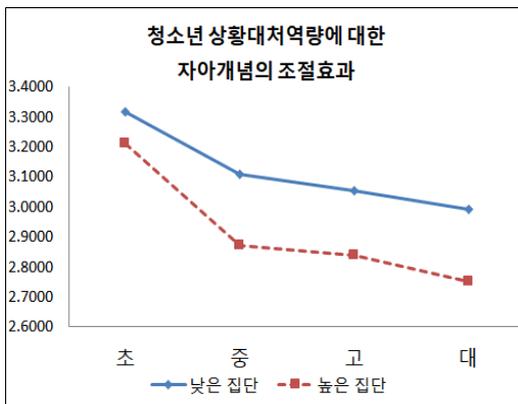
자아개념과 가능한 자아 변인이 학교급과 청소년의 상황대처역량에 조절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그래프를 제시하였다. 자아개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학교급의 조절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학교급이 상황대처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시켰다. 가능한 자아 지수 역시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상황대처역량이 감소하는 폭이 크게 나타났다.

표 IV-64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상황대처역량에 대한 개인심리 및 외부환경요인의 조절효과

변인	모델10			모델11			모델12		
	B	$\beta$	t	B	$\beta$	t	B	$\beta$	t
상수	3,384		299.028 ***	4,093		108.170 ***	3,705		42,684 ***
학교급	-.114	-.241	-24.919 ***	-.083	-.175	-19.026 ***	.095	.201	2,647 **
개인심리적 변인									
자아개념				-.015	-.019	-1,848	.029	.036	1,443
자율성				-.007	-.009	-.887	.013	.016	.691
자기효능감				-.006	-.007	-.702	.013	.015	.636
가능한 자아				-.123	-.098	-10,324 ***	-.044	-.035	-1,485
외부환경 변인									
학업스트레스				-.227	-.335	-35,145 ***	-.243	-.358	-14,950 ***
부모양육태도				.017	.027	2,609 **	.017	.027	1,208
조절변인									
조절변인1(학교급*자아개념)							-.020	-.123	-2,397 *
조절변인2(학교급*자율성)							-.011	-.070	-1,286
조절변인3(학교급*자기효능감)							-.010	-.060	-1,138
조절변인4(학교급*가능한 자아)							-.035	-.201	-3,005 **
조절변인5(학교급*학업스트레스)							.008	.044	1,121
조절변인6(학교급*부모양육태도)							.001	.005	.126
R <sup>2</sup>		.241		.436			.439		
adjusted-R <sup>2</sup>		.058		.190			.192		
$\Delta R^2$		.058		.132			.002		
F		620,968 ***		337,186 ***			184,260 ***		
$\Delta F$		620,968 ***		273,080 ***			4,924 ***		

\*\*\* $\alpha$  .001. \*\* $\alpha$  .01.



【그림 IV-38】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상황대처역량에 대한 개인심리 및 외부환경요인의 조절효과

⑤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정서조절역량에 대한 개인심리 및 외부환경 변인 조절효과분석  
 청소년 정서조절역량과 학교급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분석 결과는 <표 IV-65>과 같다. 모델 13에서는 학교급이 정서조절역량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청소년의 정서조절역량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eta = -.098$ ,  $p < .001$ ), 설명력은 0.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 = 97.2167$ ,  $p < .001$ ).

모델 14에서는 학교급과 개인의 심리적 변인, 외부환경 변인이 청소년의 학습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아개념( $\beta = -.076$ ,  $p < .001$ ), 자율성( $\beta = .073$ ,  $p < .001$ ), 자기효능감( $\beta = .032$ ,  $p < .01$ ), 가능한 자아( $\beta = -.059$ ,  $p < .001$ ), 학업스트레스( $\beta = -.325$ ,  $p < .001$ ), 부모의 양육태도( $\beta = .070$ ,  $p < .001$ )로 확인되었다. 모델 14의 설명력은 12.8%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모델 13보다 1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F = 212.915$ ,  $p < .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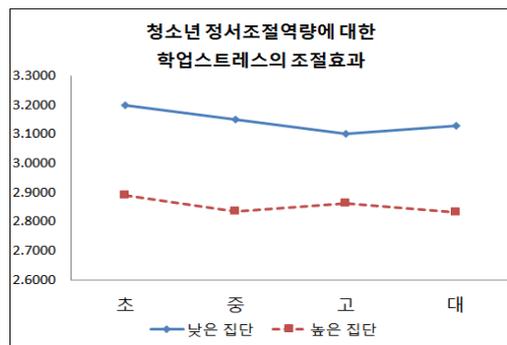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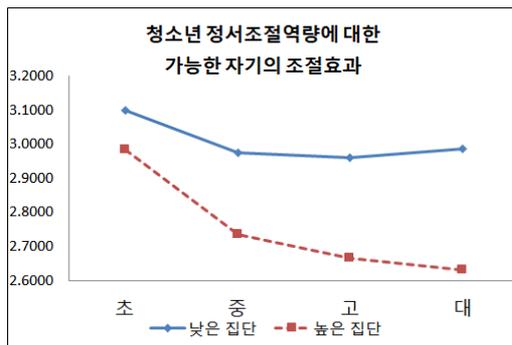
모델 15에서는 독립변인인 학교급, 조절변인인 개인의 심리적 요인, 외부환경요인과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정서조절역량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자율성( $\beta = .069$ ,  $p < .001$ ), 학업스트레스( $\beta = -.399$ ,  $p < .001$ ), 부모의 양육태도( $\beta = .079$ ,  $p < .01$ ) 변인이 정서조절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절변인에서는 가능한 자아( $\beta = -.174$ ,  $p < .05$ )와 학업스트레스( $\beta = .133$ ,  $p < .01$ ) 변인이 정서조절역량에 대한 학교급의 영향력을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델 15의 설명력은 12.9%로 유의했으며, 모델 14에 비해 0.2%증가했다( $F = 116.192$ ,  $p < .001$ ).

가능한 자아와 학업스트레스 변인이 학교급과 청소년의 정서조절역량에 미치는 조절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그래프를 제시하였다. 미래에 대한 자기모습이 긍정적일수록,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교급이 정서조절역량에 미치는 부적 영향(-)이 약화되었다. 가능한 자아 지수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정서조절역량이 감소하는 폭이 크게 나타났다. 학업스트레스의 경우는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폭을 적게 하였다.

표 IV-65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정서조절역량에 대한 개인심리 및 외부환경요인의 조절효과

변인	모델13			모델14			모델15		
	B	$\beta$	t	B	$\beta$	t	B	$\beta$	t
상수	3.112		247.656 ***	3.112		247.656 ***	3.286		35.721 ***
학교급	-.050	-.098	-9.860 ***	-.050	-.098	-9.860 ***	.065	.126	1.739
개인심리적 변인									
자아개념				-.065	-.076	-7.036 ***	-.033	-.038	-1.460
자율성				.067	.073	7.210 ***	.063	.069	2.924 **
자기효능감				.030	.032	3.114 **	.035	.036	1.514
가능한 자아				-.079	-.059	-5.958 ***	-.004	-.003	-1.136
외부환경 변인									
학업스트레스				-.236	-.325	-32.683 ***	-.290	-.399	-16.059 ***
부모양육태도				.047	.070	6.578 ***	.053	.079	3.367 **
조절변인									
조절변인1(학교급*자아개념)							-.015	-.084	-1.579
조절변인2(학교급*자율성)							.001	.007	.130
조절변인3(학교급*자기효능감)							-.003	-.014	-.259
조절변인4(학교급*가능한 자아)							-.033	-.174	-2.565 *
조절변인5(학교급*학업스트레스)							.025	.133	3.293 **
조절변인6(학교급*부모양육태도)							-.003	-.018	-.445
R <sup>2</sup>		.098		.359			.361		
adjusted-R <sup>2</sup>		.009		.128			.129		
$\Delta R^2$		.010		.119			.002		
F		97.216***		212.915***			116.192***		
$\Delta F$		97.216***		229.986***			3.046***		

\*\*\* $p < .001$ , \*\* $p < .01$ , \* $p < .05$ .



【그림 IV-39】 청소년 정서조절역량에 대한 개인심리적인 및 외부환경요인의 조절효과

### (3) 청소년 진로개발역량과 성장시기별(학교급) 개인심리 및 외부환경 변인 조절효과분석

#### ①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에 대한 개인심리 및 외부환경 변인 조절효과분석

학교급에 따른 진로개발역량과 하위역량(진로설계 역량, 여가활용 역량, 개척정신 역량)의 수준을 살펴봄에 있어, 개인의 심리적 변인(자아개념, 자율성, 자기효능감, 가능한 자기)과 외부환경변인(학업스트레스, 부모양육태도)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학교급만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학교급, 개인의 심리적 변인(자아개념, 자율성, 자기효능감, 가능한 자기), 외부환경변인(학업스트레스, 부모양육태도)을 투입하였다. 다음으로 3단계에서는 개인의 심리적 변인과 외부환경변인이 학교급과 진로개발역량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밝히기 위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평균중심화한 값을 곱하여 상호작용항을 생성하여 투입하였다.

개인의 심리적 변인과 외부환경변인이 학교급과 진로개발역량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66>와 같다. 모델1에서 독립변수인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청소년의 진로개발역량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beta = -.067, p < .001$ ). 모델1의 설명력은 0.4%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R^2 = .004, F = 44.531, p < .001$ ).

모델2에서는 학교급과 개인의 심리적 변인, 외부환경 변인이 청소년의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독립변인인 학교급( $\beta = -.030, p < .001$ ), 개인적 심리적 변인에 해당되는 자아개념( $\beta = .034, p < .001$ ), 자율성( $\beta = .179, p < .001$ ), 자기효능감( $\beta = .210, p < .001$ ), 가능한 자기( $\beta = .245, p < .001$ ), 외부환경요인에 해당되는 학업스트레스( $\beta = .091, p < .001$ ) 및 부모양육태도( $\beta = .041, p < .001$ ) 모두 진로개발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학교급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진로개발역량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자율성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미래 자기 모습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모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청소년의 진로개발역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델2의 설명력은 25.6%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2 = .256, F = 515.156, p < .001$ ), 모델2는 모델1에 비해 26.1% 증가하였는데 증가분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Delta R^2 = .261, F = 590.961, p < .001$ ).

모델3에서는 독립변인인 학교급( $\beta = -.023, p < .01$ ), 자아개념( $\beta = .034, p < .001$ ), 자율성( $\beta = .182, p < .001$ ), 자기효능감( $\beta = .205, p < .001$ ), 가능한 자기( $\beta = .247, p < .001$ ) 등 개인의 심리적 변인, 학업스트레스( $\beta = .093, p < .001$ ) 및 부모양육태도( $\beta = .039, p < .001$ ) 등 외부환경요인 모두 진로개발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자율성( $\beta = .025, p < .05$ ), 가능한 자기( $\beta = -.058, p < .001$ )가

학교급이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3의 설명력은 26.9%로 유의했으며, 모델3의 설명력은 모델2에 비해 0.4% 증가했는데 증가분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율성과 가능한 자기가 학교급과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에서 미치는 조절효과가 유의함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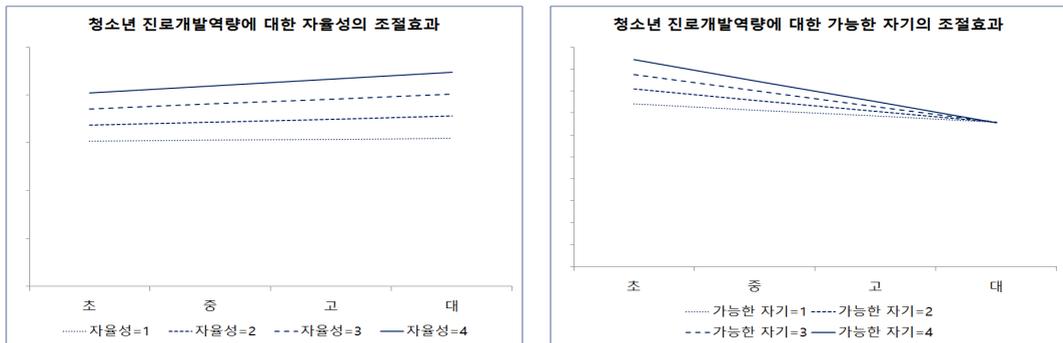
표 IV-66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에 대한 개인심리 요인 및 외부환경요인의 조절효과

변인	모델1			모델2			모델3		
	B	$\beta$	t	B	$\beta$	t	B	$\beta$	t
상수	3.083		271.865 **	1.369		32.150 ***	1.360		31.827 ***
학교급	-.031	-.067	-6.673 **	-.014	-.030	-3.414 ***	-.011	-.023	-2.608 **
개인심리적 변인									
자아개념				.025	.034	3.198 ***	.024	.034	3.178 ***
자율성				.145	.179	18.008 ***	.147	.182	18.282 ***
자기효능감				.141	.210	18.07 ***	.138	.205	17.599 ***
가능한 자기				.178	.245	21.117 ***	.179	.247	21.298 ***
외부환경 변인									
학업스트레스				.063	.091	8.627 ***	.064	.093	8.745 ***
부모양육태도				.030	.041	3.946 ***	.029	.039	3.711 ***
조절변인									
조절변인1(학교급*자아개념)							.007	.009	.885
조절변인2(학교급*자율성)							.021	.025	2.521 *
조절변인3(학교급*자기효능감)							-.005	-.007	-.604
조절변인4(학교급*가능한 자기)							-.045	-.058	-5.039 ***
조절변인5(학교급*학업스트레스)							.010	.013	1.247
조절변인6(학교급*부모양육태도)							-.006	-.008	-.792
R <sup>2</sup>		.004			.266			.269	
adjusted-R <sup>2</sup>		.004			.265			.269	
$\Delta R^2$		.004			.261			.004	
F		44.531***			515.156***			282.801***	
$\Delta F$		44.531***			590.961***			8.873***	

\*\*\*, p<0.001. \*\*, p<0.01. \*, p<0.05.

자율성과 가능한 자기가 학교급과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에서의 조절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그래프를 제시하였다. 각 조절변인은 최소 1에서 최대 4까지의 값을 가지는데, 조절변인의 값이 1, 2, 3, 4의 값을 가질 때 학교급에 따른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점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자율성이 높아질수록 학교급이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부적 영향(-)이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40]을 살펴보면, 자율성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진로개발역량 점수가 증가하는 폭이 컸다. 한편, 미래에 대한 자기 모습이 긍정적일수록 학교급이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강화되었다. [그림 IV-40]를 살펴보면, 가능한 자기 점수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진로개발역량 점수가 감소하는 폭이 컸다. 설명변수로 포함되는 자율성, 가능한 자기가 유의미했으며, 상호작용항 또한 유의미했으므로 자율성, 가능한 자기는 유사조절변수라고 할 수 있다.



【그림 IV-40】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에 대한 개인심리 및 외부환경요인의 조절효과

②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역량에 대한 개인심리 및 외부환경 변인 조절효과 분석

개인의 심리적 변인과 외부환경변인이 학교급과 진로설계역량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67>와 같다. 모델1에서 독립변수인 학교급이 청소년의 진로설계역량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2에서는 학교급과 개인의 심리적 변인, 외부환경 변인이 청소년의 진로설계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독립변수인 학교급( $\beta=.039, p<.001$ ), 개인적 심리적 변인에 해당되는 자아개념( $\beta=.029, p<.001$ ), 자율성( $\beta=.171, p<.001$ ), 자기효능감( $\beta=.150, p<.001$ ), 가능한 자기( $\beta=.262, p<.001$ ), 외부환경요인에 해당되는 학업스트레스( $\beta=.054, p<.001$ ) 및 부모양육태도( $\beta=.081, p<.001$ ) 모두 진로설계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학교급이 높을수록,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자율성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미래 자기 모습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모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청소년의 진로설계역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델2의 설명력은 25.1%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2 = .251, F=477.726, p<.001$ ), 모델2는 모델1에

비해 25.1% 증가하였는데 증가분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Delta R^2 = .251$ ,  $F=557.347$ ,  $p<.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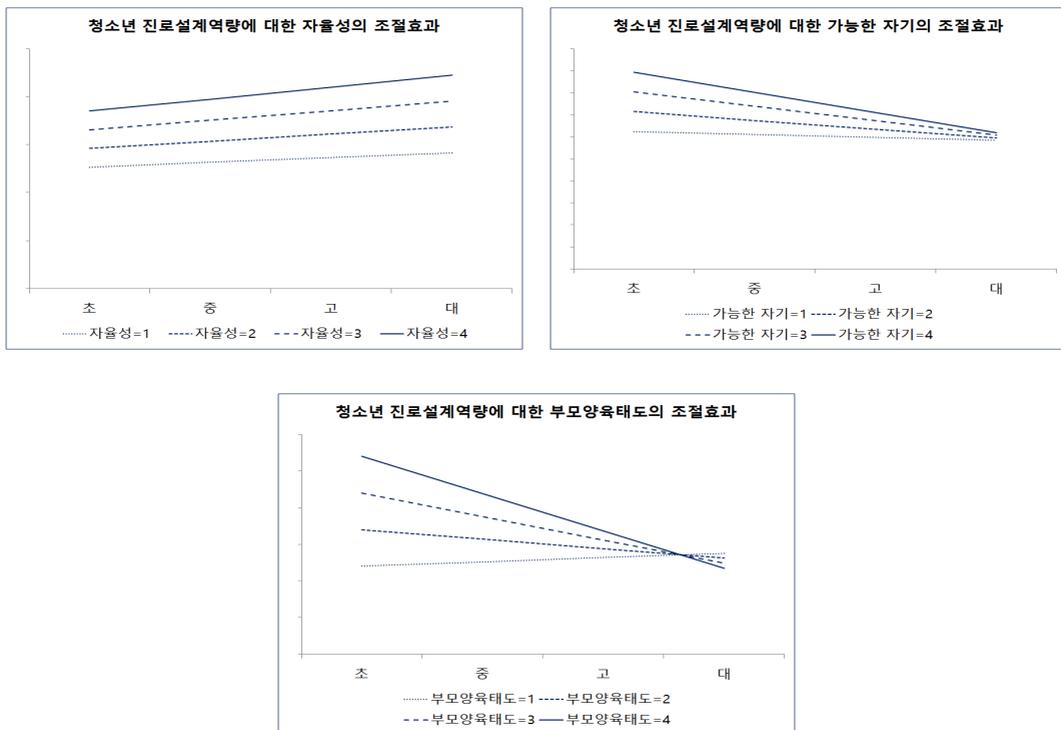
모델3에서는 독립변인인 학교급( $\beta=.046$ ,  $p<.001$ ), 자아개념( $\beta=.030$ ,  $p<.01$ ), 자율성( $\beta=.175$ ,  $p<.001$ ), 자기효능감( $\beta=.144$ ,  $p<.001$ ), 가능한 자기( $\beta=.265$ ,  $p<.001$ ) 등 개인의 심리적 변인, 학업스트레스( $\beta=.055$ ,  $p<.001$ ) 및 부모양육태도( $\beta=.077$ ,  $p<.001$ ) 등 외부환경요인 모두 진로설계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자율성( $\beta=.025$ ,  $p<.05$ ), 가능한 자기( $\beta= -.056$ ,  $p<.001$ ), 부모양육태도( $\beta=-.020$ ,  $p<.05$ )가 학교급이 진로설계역량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3의 설명력은 25.6%로 유의했으며, 모델3의 설명력은 모델2에 비해 0.5% 증가했는데 증가분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율성, 가능한 자기, 부모양육태도가 학교급과 청소년 진로설계역량에서 미치는 조절효과가 유의함을 의미한다.

표 IV-67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역량에 대한 개인심리 및 외부환경요인의 조절효과

변인	모델1			모델2			모델3		
	B	$\beta$	t	B	$\beta$	t	B	$\beta$	t
상수	3.029		221.773 ***	1.049		20.311 ***	1.045		20.167 ***
학교급	.000	.001	.062	.022	.039	4.357 ***	.025	.046	5.089 ***
개인심리적 변인									
자아개념				.025	.029	2.723 **	.026	.030	2.762 **
자율성				.167	.171	17.100 ***	.170	.175	17.425 ***
자기효능감				.122	.150	12.805 ***	.116	.144	12.209 ***
가능한 자기				.229	.262	22.349 ***	.231	.265	22.605 ***
외부환경 변인									
학업스트레스				.045	.054	5.063 ***	.046	.055	5.134 ***
부모양육태도				.073	.081	7.812 ***	.069	.077	7.343 ***
조절변인									
조절변인1(학교급*자아개념)							.011	.012	1.168
조절변인2(학교급*자율성)							.025	.025	2.534 *
조절변인3(학교급*자기효능감)							-.016	-.019	-1.636
조절변인4(학교급*가능한 자기)							-.052	-.056	-4.839 ***
조절변인5(학교급*학업스트레스)							.008	.009	.828
조절변인6(학교급*부모양육태도)							-.019	-.020	-1.958 *
R <sup>2</sup>		.000			.251			.256	
adjusted-R <sup>2</sup>		.000			.251			.255	
$\Delta R^2$		.000			.251			.005	
F		.004			477.726***			263.928***	
$\Delta F$		.004			557.347***			11.107***	

\*\*\*, p<0.001. \*\*, p<0.01. \*, p<0.05.

자율성, 가능한 자기, 부모양육태도가 학교급과 청소년 진로설계역량에서의 조절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그래프를 제시하였다. 자율성이 높아질수록 학교급이 진로설계역량에 미치는 부적 영향(-)이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41]을 살펴보면, 자율성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진로설계역량 점수가 증가하는 폭이 컸다. 한편, 미래에 대한 자기 모습이 긍정적일수록, 부모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학교급이 진로설계역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강화되었다. [그림 IV-41]을 살펴보면, 가능한 자기, 부모양육태도 점수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진로설계역량 점수가 감소하는 폭이 컸다. 설명변수로 포함되는 자율성, 가능한 자기, 부모양육태도가 유의미했으며, 상호작용항 또한 유의미했으므로 자율성, 가능한 자기, 부모양육태도는 유사조절변수라고 할 수 있다.



**【그림 IV-41】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역량에 대한 개인심리 및 외부환경요인의 조절효과**

### ③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여가활용역량에 대한 개인심리 및 외부환경 변인 조절효과 분석

개인의 심리적 변인과 외부환경변인이 학교급과 여가활용역량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68>와 같다. 모델1에서 독립변수인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청소년의 여가활용역량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069, p < .001$ ). 모델1의 설명력은 0.5%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R^2 = .005, F = 47.065, p < .001$ ).

모델2에서는 학교급과 개인의 심리적 변인, 외부환경 변인이 청소년의 여가활용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독립변인인 학교급( $\beta = -.037, p < .001$ ), 개인적 심리적 변인에 해당되는 자아개념( $\beta = .059, p < .001$ ), 자율성( $\beta = .126, p < .001$ ), 자기효능감( $\beta = .190, p < .001$ ), 가능한 자기( $\beta = .208, p < .001$ ), 외부환경요인에 해당되는 학업스트레스( $\beta = .104, p < .001$ )가 여가활용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학교급이 낮을수록 청소년의 여가활용능력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자율성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미래 자기 모습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진로설계역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델2의 설명력은 18.8%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2 = .188, F = 329.136, p < .001$ ), 모델2는 모델1에 비해 18.3% 증가하였는데 증가분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Delta R^2 = .183, F = 374.386, p < .001$ ).

모델3에서는 독립변인인 학교급( $\beta = -.034, p < .001$ ), 자아개념( $\beta = .060, p < .001$ ), 자율성( $\beta = .128, p < .001$ ), 자기효능감( $\beta = .187, p < .001$ ), 가능한 자기( $\beta = .209, p < .001$ ), 학업스트레스( $\beta = .105, p < .001$ )가 여가활용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가능한 자기( $\beta = -.053, p < .001$ )이 학교급이 여가활용역량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3의 설명력은 19.0%로 유의했으며, 모델3의 설명력은 모델2에 비해 0.2% 증가했는데 증가분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능한 자기가 학교급과 청소년 여가활용역량에서 미치는 조절효과가 유의함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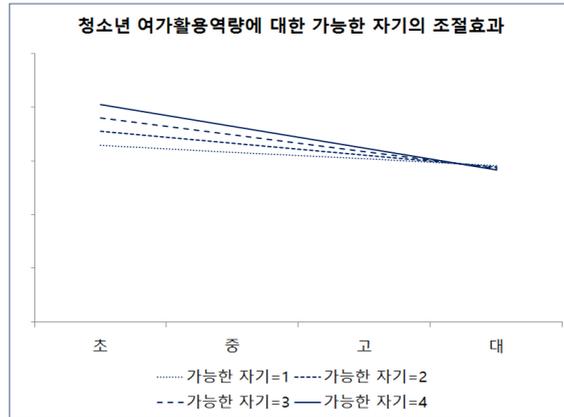
표 IV-68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여가활용역량에 대한 개인심리 및 외부환경요인의 조절효과

변인	모델1			모델2			모델3		
	B	$\beta$	t	B	$\beta$	t	B	$\beta$	t
상수	3.243		251.792 ***	1.542		30.318 ***	1.538		30.083 ***
학교급	-.036	-.069	-6.860 ***	-.019	-.037	-3.962 ***	-.018	-.034	-3.593 ***
개인심리적 변인									
자아개념				.049	.059	5.309 ***	.049	.060	5.345 ***
자율성				.116	.126	12.123 ***	.118	.128	12.221 ***
자기효능감				.145	.190	15.513 ***	.143	.187	15.222 ***
가능한 자기				.171	.208	17.004 ***	.172	.209	17.085 ***
외부환경 변인									
학업스트레스				.082	.104	9.357 ***	.082	.105	9.387 ***
부모양육태도				.018	.021	1.928	.017	.020	1.801
조절변인									
조절변인1(학교급*자아개념)							.016	.019	1.692
조절변인2(학교급*자율성)							.017	.018	1.719
조절변인3(학교급*자기효능감)							-.008	-.010	-.819
조절변인4(학교급*가능한 자기)							-.046	-.053	-4.363 ***
조절변인5(학교급*학업스트레스)							-.005	-.006	-.519
조절변인6(학교급*부모양육태도)							-.002	-.002	-.196
R <sup>2</sup>		.005			.188			.190	
adjusted-R <sup>2</sup>		.005			.187			.189	
$\Delta R^2$		.005			.183			.002	
F		47.065***			329.136***			179.730***	
$\Delta F$		47.065***			374.386***			4.593***	

\*\*\*, p<0.001. \*\*, p<0.01. \*, p<0.05.

가능한 자기가 학교급과 청소년 여가활용역량에서의 조절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그래프를 제시하였다. 미래에 대한 자기 모습이 긍정적일수록 학교급이 여가활용역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강화되었다. [그림 IV-42]를 살펴보면, 가능한 자기 점수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여가활용역량 점수가 감소하는 폭이 컸다. 설명변수로 포함되는 가능한 자기가 유의미했으며, 상호작용항 또한 유의미했으므로 가능한 자기는 유사조절변수라고 할 수 있다.



【그림 IV-42】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여가활용역량에 대한 개인심리 및 외부환경요인의 조절효과

④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개척정신역량에 대한 개인심리 및 외부환경 변인 조절효과 분석

개인의 심리적 변인과 외부환경변인이 학교급과 개척정신역량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69>와 같다. 모델1에서 독립변수인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청소년의 진로개발역량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beta = -.121, p < .001$ ). 모델1의 설명력은 1.5%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R^2 = .015, F = 148.362, p < .001$ ).

모델2에서는 학교급과 개인의 심리적 변인, 외부환경 변인이 청소년의 개척정신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독립변인인 학교급( $\beta = .103, p < .001$ ), 개인적 심리적 변인에 해당되는 자율성( $\beta = .159, p < .001$ ), 자기효능감( $\beta = .199, p < .001$ ), 가능한 자기( $\beta = .127, p < .001$ ), 외부환경요인에 해당되는 학업스트레스( $\beta = .070, p < .001$ )가 개척정신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학교급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개척정신역량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율성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미래 자기 모습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개척정신역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델2의 설명력은 14.3%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2 = .143, F = 237.873, p < .001$ ), 모델2는 모델1에 비해 12.8% 증가하였는데 증가분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Delta R^2 = .128, F = 248.103, p < .001$ ).

모델3에서는 독립변인인 학교급( $\beta = -.095, p < .001$ ), 자율성( $\beta = .162, p < .001$ ), 자기효능감( $\beta = .197, p < .001$ ), 가능한 자기( $\beta = .128, p < .001$ ) 등 개인의 심리적 변인과 학업스트레스( $\beta = .072, p < .001$ )가 개척정신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가능한 자기( $\beta = -.033, p < .001$ )와 학업스트레스( $\beta = .041, p < .001$ )가 학교급이 개척정신역량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3의 설명력은 14.6%로 유의했으며, 모델3의 설명력은 모델2에 비해 0.3% 증가했는데 증가분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능한 자기와 학업스트레스가 학교급과 청소년 개척정신역량에서 미치는 조절효과가 유의함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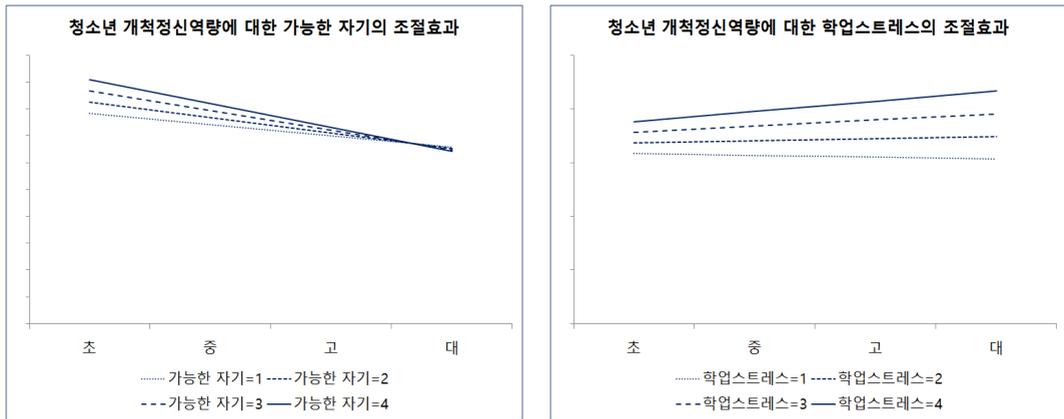
**표 IV-69**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개척정신역량에 대한 개인심리 및 외부환경요인의 조절효과

변인	모델1			모델2			모델3		
	B	$\beta$	t	B	$\beta$	t	B	$\beta$	t
상수	2.899		208.529 ***	1.560		27.526 ***	1.537		27.001 ***
학교급	-.068	-.121	-12.180 ***	-.058	-.103	-10.719 ***	-.053	-.095	-9.730 ***
개인심리적 변인									
자아개념				-.017	-.019	-1.654	-.019	-.021	-1.829
자율성				.159	.159	14.862 ***	.162	.162	15.108 ***
자기효능감				.165	.199	15.857 ***	.163	.197	15.602 ***
가능한 자기				.114	.127	10.115 ***	.114	.128	10.189 ***
외부환경 변인									
학업스트레스				.059	.070	6.088 ***	.062	.072	6.297 ***
부모양육태도				-.012	-.014	-1.212	-.012	-.013	-1.112
조절변인									
조절변인1(학교급*자아개념)							-.014	-.015	-1.359
조절변인2(학교급*자율성)							.020	.020	1.855
조절변인3(학교급*자기효능감)							.017	.020	1.572
조절변인4(학교급*가능한 자기)							-.031	-.033	-2.627 **
조절변인5(학교급*학업스트레스)							.037	.041	3.547 ***
조절변인6(학교급*부모양육태도)							.005	.005	.491
R <sup>2</sup>	.015			.143			.146		
adjusted-R <sup>2</sup>	.015			.142			.145		
$\Delta R^2$	.015			.128			.003		
F	148.362***			237.873***			131.318***		
$\Delta F$	148.362***			248.103***			6.145***		

\*\*\*, p<0.001. \*\*, p<0.01. \*, p<0.05.

가능한 자기와 학업스트레스가 학교급과 청소년 개척정신역량에서의 조절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그래프를 제시하였다. 미래에 대한 자기 모습이 긍정적인수록 학교급이 개척정신역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강화되었다. [그림 ]을 살펴보면, 가능한 자기 점수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개척정신역량 점수가 감소하는

폭이 컸다. 한편, 학업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학교급이 개척정신역량에 미치는 부적 영향(-)이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43]를 살펴보면, 학업스트레스 점수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개척정신역량 점수가 증가하는 폭이 컸다. 설명변수로 포함되는 가능한 자기, 학업스트레스가 유의미했으며, 상호작용항 또한 유의미했으므로 가능한 자기, 부모양육태도는 유사조절변수라고 할 수 있다.



【그림 IV-43】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개척정신역량에 대한 개인심리 및 외부환경요인의 조절효과

(4) 청소년 대인관계역량과 성장시기별(학교급) 개인심리 및 외부환경 변인 조절효과분석

①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에 대한 개인심리 및 외부환경 변인 조절효과분석

개인의 심리적 변인(자아개념, 자율성, 자기효능감, 가능한 자기)과 외부환경변인(학업스트레스, 부모양육태도)이 학교급과 대인관계역량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70>에 제시하였다. 모델1에서는 독립변수인 학교급이 청소년의 대인관계역량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는데,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청소년의 대인관계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eta=.07, p<.001$ ). 모델1의 설명력은 0.5%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R^2=.005, F=46.934, p<.001$ ).

모델2에서는 학교급과 개인의 심리적 변인, 외부환경 변인이 청소년의 대인관계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독립변수인 학교급( $\beta=.11, p<.001$ ), 자아개념( $\beta=.08, p<.001$ ), 자율성( $\beta=.15, p<.001$ ), 자기효능감( $\beta=.19, p<.001$ ), 가능한 자기( $\beta=.23, p<.001$ ) 등 개인의 심리적 변인,

학업스트레스( $\beta=.11, p<.001$ ) 및 부모양육태도( $\beta=.08, p<.001$ ) 등 외부환경요인 모두 대인관계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자율성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미래 자기 모습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모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청소년의 대인관계역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2의 설명력은 25.7%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2=.257, F=491.477, p<.001$ ), 모델2는 모델1에 비해 25.2% 증가하였는데 증가분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Delta R^2=.252, F=562.924, p<.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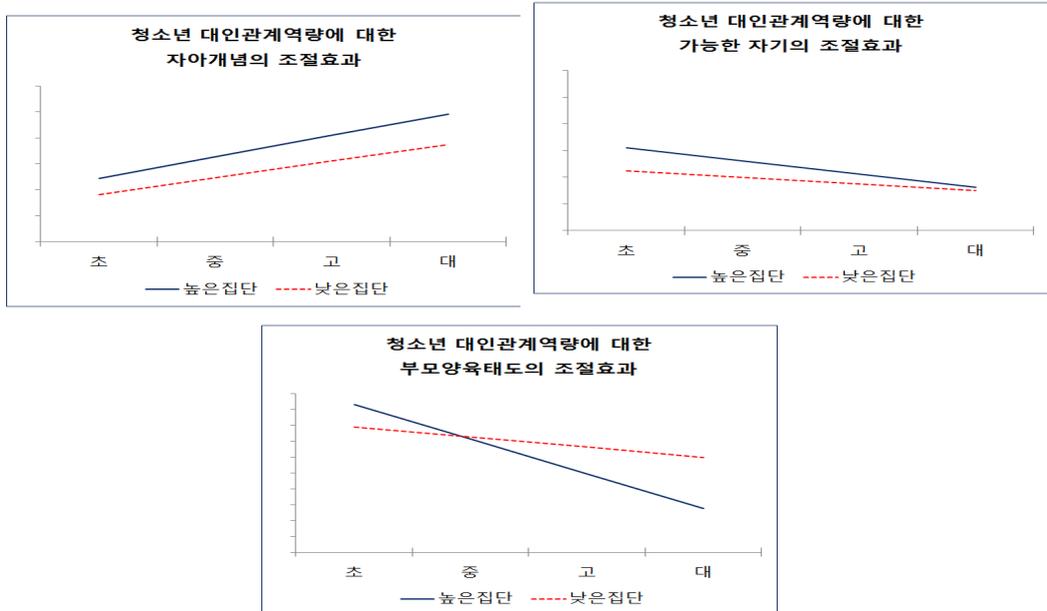
모델3에서는 독립변인인 학교급, 조절변인인 개인의 심리적 요인, 외부환경요인과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독립변인인 학교급( $\beta=.11, p<.001$ ), 자아개념( $\beta=.09, p<.001$ ), 자율성( $\beta=.15, p<.001$ ), 자기효능감( $\beta=.19, p<.001$ ), 가능한 자기( $\beta=.23, p<.001$ ) 등 개인의 심리적 변인, 학업스트레스( $\beta=.11, p<.001$ ) 및 부모양육태도( $\beta=.07, p<.001$ ) 등 외부환경요인 모두 대인관계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자아개념( $\beta=.03, p<.01$ ), 가능한 자기( $\beta=-.05, p<.001$ ), 부모양육태도( $\beta=-.03, p<.01$ )가 학교급이 대인관계역량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3의 설명력은 26.0%로 유의했으며( $R^2=.260, F=269.144, p<.001$ ), 모델3의 설명력은 모델2에 비해 0.3% 증가했는데 증가분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Delta R^2=.003, F=7.509, p<.001$ ). 이는 자아개념, 가능한 자기, 부모양육태도가 학교급과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에서 미치는 조절효과가 유의함을 의미한다.

자아개념, 가능한 자기, 부모양육태도가 학교급과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에서의 조절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그래프를 제시하였다. 각 조절변인의 평균값을 중심으로 평균+표준편차 이상을 높은 집단, 평균-표준편차 이하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자아개념은 학교급이 대인관계역량에 미치는 정적 영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그림 IV-44]를 살펴보면, 자아개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대인관계역량이 증가하는 폭이 컸다. 반면, 미래에 대한 자기 모습이 긍정적일수록, 부모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학교급이 대인관계역량에 미치는 정적 영향(+)이 약화되었다. [그림 IV-44]를 살펴보면, 가능한 자기 점수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대인관계역량이 감소하는 폭이 컸고, 부모양육태도 점수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대인관계역량이 감소하는 폭이 컸다. 설명변수로 포함되는 자아개념, 가능한 자기, 부모양육태도가 유의미했으며, 상호작용항 또한 유의미했으므로 자아개념, 가능한 자기, 부모양육태도는 유사조절변수라고 할 수 있다.

표 IV-70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에 대한 개인심리 및 외부환경요인의 조절효과

변인	모델1			모델2			모델3		
	B	$\beta$	t	B	$\beta$	t	B	$\beta$	t
상수	2.94		246.674**	1.05		23.344**	1.05		23.370**
학교급	.03	.07	6.851**	.05	.11	11.777**	.05	.11	12.129**
개인심리적 변인									
자아개념				.06	.08	7.882**	.07	.09	8.100**
자율성				.13	.15	14.862**	.13	.15	14.995**
자기효능감				.14	.19	16.630**	.13	.19	16.187**
가능한 자기				.18	.23	19.682**	.18	.23	19.851**
외부환경 변인									
학업스트레스				.08	.11	10.070**	.08	.11	9.951**
부모양육태도				.06	.08	7.272**	.05	.07	6.625**
상호작용항									
학교급*자아개념							.03	.03	3.122**
학교급*자율성							.01	.02	1.727
학교급*자기효능감							-.01	-.01	-1.178
학교급*가능한 자기							-.04	-.05	-4.012**
학교급*학업스트레스							.00	.00	.016
학교급*부모양육태도							-.026	-.032	-3.061**
R <sup>2</sup>			.005			.257			.260
adjusted-R <sup>2</sup>			.005			.256			.259
$\Delta R^2$			.005			.252			.003
F			46.934**			491.477**			269.144**
$\Delta F$			46.934**			562.924**			7.509**

\*\* $\alpha$  .001. \*\* $\alpha$  .01.



【그림 IV-44】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에 대한 개인심리 및 외부환경요인의 조절효과

②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관계형성역량에 대한 개인심리 및 외부환경 변인 조절효과분석  
 개인의 심리적 변인(자아개념, 자율성, 자기효능감, 가능한 자기)과 외부환경변인(학업스트레스, 부모양육태도)이 학교급과 관계형성역량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71>에 제시하였다. 우선, 모델4에서는 독립변수인 학교급이 청소년의 관계형성역량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청소년의 관계형성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eta=.07, p<.001$ ). 모델4의 설명력은 0.5%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R^2=.005, F=52.306, p<.001$ ).

모델5에서는 학교급과 개인의 심리적 변인, 외부환경 변인이 청소년의 관계형성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독립변인인 학교급( $\beta=.11, p<.001$ ), 자아개념( $\beta=.11, p<.001$ ), 자율성( $\beta=.11, p<.001$ ), 자기효능감( $\beta=.15, p<.001$ ), 가능한 자기( $\beta=.22, p<.001$ ) 등 개인의 심리적 변인, 학업스트레스( $\beta=.11, p<.001$ ) 및 부모양육태도( $\beta=.09, p<.001$ ) 등 외부환경요인 모두 관계형성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자율성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미래 자기 모습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모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청소년의 관계형성역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5의 설명력은 20.7%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2=.207, F=371.102, p<.001$ ), 모델5는 모델4에 비해 20.1% 증가하였는데 증가분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Delta R^2=.201, F=422.027, p<.001$ ).

모델6에서는 독립변인인 학교급, 조절변인인 개인의 심리적 요인, 외부환경요인과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독립변인인 학교급( $\beta=.11, p<.001$ ), 자아개념( $\beta=.11, p<.001$ ), 자율성( $\beta=.11, p<.001$ ), 자기효능감( $\beta=.14, p<.001$ ), 가능한 자기( $\beta=.22, p<.001$ ) 등 개인의 심리적 변인, 학업스트레스( $\beta=.11, p<.001$ ) 및 부모양육태도( $\beta=.08, p<.001$ ) 등 외부환경요인 모두 관계형성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자아개념( $\beta=.04, p<.01$ ), 가능한 자기( $\beta=-.06, p<.001$ ), 학업스트레스( $\beta=-.03, p<.01$ ), 부모양육태도( $\beta=-.04, p<.001$ )가 학교급이 관계형성역량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6의 설명력은 21.1%로 유의했으며( $R^2=.211, F=204.661, p<.001$ ), 모델6의 설명력은 모델5에 비해 0.4% 증가했는데 증가분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Delta R^2=.004, F=8.521, p<.001$ ). 이는 자아개념, 가능한 자기, 학업스트레스, 부모양육태도가 학교급과 청소년 관계형성역량에서 미치는 조절효과가 유의함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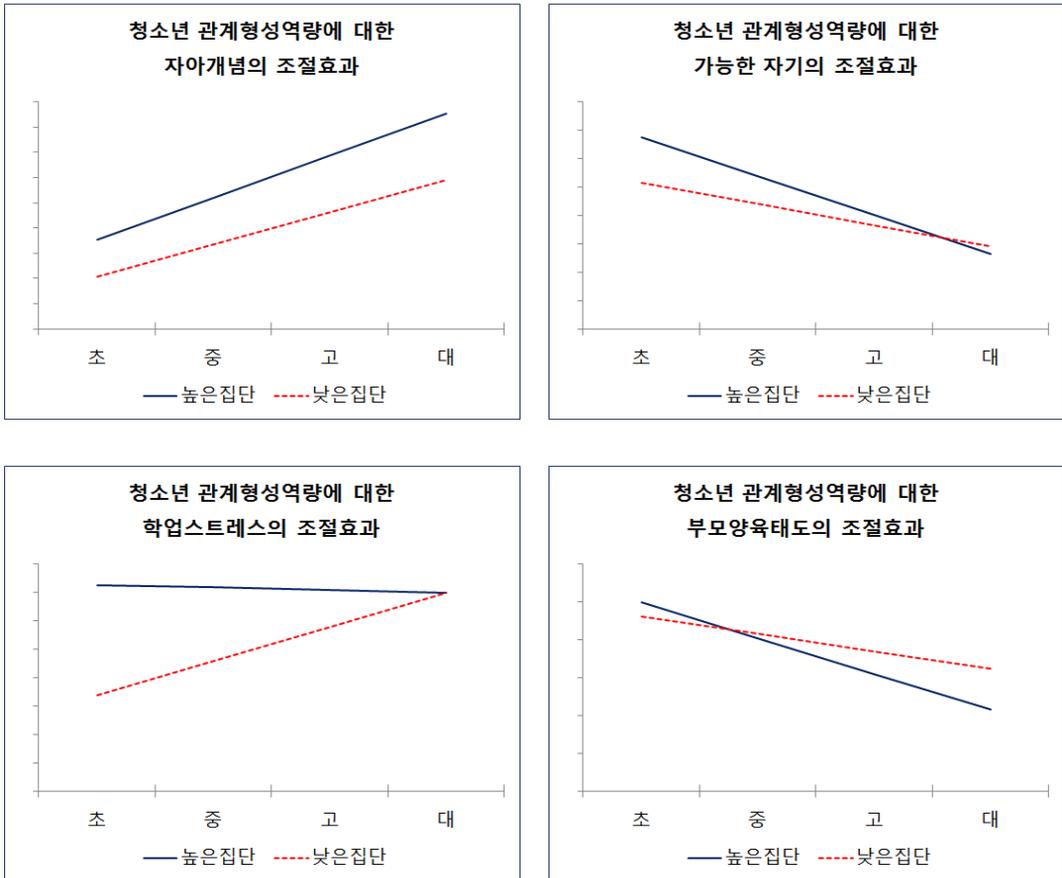
자아개념, 가능한 자기, 학업스트레스, 부모양육태도가 학교급과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에서의 조절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그래프를 제시하였다. 각 조절변인의

평균값을 중심으로 평균+표준편차 이상을 높은 집단, 평균-표준편차 이하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자아개념은 학교급이 관계형성역량에 미치는 정적 영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그림 IV-45]를 살펴보면, 자아개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대인관계역량이 증가하는 폭이 컸다. 반면, 미래에 대한 자기 모습이 긍정적일수록,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모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학교급이 관계형성역량에 미치는 정적 영향(+)이 약화되었다. [그림 IV-45]를 살펴보면, 가능한 자기 점수와 부모양육태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관계형성역량이 감소하는 폭이 컸고, 학업스트레스 점수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관계형성역량이 증가하는 폭이 컸다. 설명변수로 포함되는 자아개념, 가능한 자기, 학업스트레스, 부모양육태도가 유의미했으며, 상호작용항 또한 유의미했으므로 자아개념, 가능한 자기, 학업스트레스, 부모양육태도는 유사조절변수라고 할 수 있다.

**표 IV-71**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관계형성역량에 대한 개인심리 및 외부환경요인의 조절효과

변인	모델4			모델5			모델6		
	B	$\beta$	t	B	$\beta$	t	B	$\beta$	t
상수	3.00		236.537**	1.13		22.741**	1.14		22.953**
학교급	.04	.07	7.232**	.05	.11	11.468**	.05	.11	11.342**
개인심리적 변인									
자아개념				.09	.11	9.883**	.09	.11	10.236**
자율성				.10	.11	10.772**	.10	.11	10.816**
자기효능감				.11	.15	12.212**	.11	.14	11.898**
가능한 자기				.17	.22	17.802**	.18	.22	17.953**
외부환경 변인									
학업스트레스				.09	.11	9.972**	.08	.11	9.762**
부모양육태도				.08	.09	8.403**	.07	.08	7.659**
조절변인									
조절변인1(학교급*자아개념)							.03	.04	3.824**
조절변인2(학교급*자율성)							.02	.02	1.637
조절변인3(학교급*자기효능감)							-.01	-.01	-1.037
조절변인4(학교급*가능한 자기)							-.05	-.06	-4.610**
조절변인5(학교급*학업스트레스)							-.02	-.03	-2.719**
조절변인6(학교급*부모양육태도)							-.04	-.04	-3.919**
R <sup>2</sup>		.005			.207			.211	
adjusted-R <sup>2</sup>		.005			.206			.210	
$\Delta R^2$		.005			.201			.004	
F		52.306**			371.102**			204.661**	
$\Delta F$		52.306**			422.027**			8.521**	

\*\* $\alpha$  .001, \*\* $\alpha$  .01.



**【그림 IV-45】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관계형성역량에 대한 개인심리 및 외부환경요인의 조절효과**

③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리더십역량에 대한 개인심리 및 외부환경 변인 조절효과 분석

개인의 심리적 변인(자아개념, 자율성, 자기효능감, 가능한 자기)과 외부환경변인(학업스트레스, 부모양육태도)이 학교급과 리더십역량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72>에 제시하였다. 우선, 모델7에서는 독립변수인 학교급이 청소년의 리더십역량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청소년의 리더십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eta=.04, p<.001$ ). 모델7의 설명력은 0.2%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설명력은 매우 낮았다( $R^2=.002, F=15.981, p<.001$ ).

모델8에서는 학교급과 개인의 심리적 변인, 외부환경 변인이 청소년의 리더십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독립변인인 학교급( $\beta=.07, p<.001$ ), 자아개념( $\beta=.03, p<.01$ ), 자율성( $\beta$

=.17,  $p < .001$ ), 자기효능감( $\beta = .21$ ,  $p < .001$ ), 가능한 자기( $\beta = .20$ ,  $p < .001$ ) 등 개인의 심리적 변인, 학업스트레스( $\beta = .08$ ,  $p < .001$ ) 및 부모양육태도( $\beta = .04$ ,  $p < .01$ ) 등 외부환경요인 모두 리더십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자율성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미래 자기 모습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모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청소년의 리더십역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8의 설명력은 22.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2 = .221$ ,  $F = 404.028$ ,  $p < .001$ ), 모델8은 모델7에 비해 21.9% 증가하였는데 증가분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Delta R^2 = .219$ ,  $F = 467.954$ ,  $p < .001$ ).

모델9에서는 독립변인인 학교급, 조절변인인 개인의 심리적 요인, 외부환경요인과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독립변인인 학교급( $\beta = .08$ ,  $p < .001$ ), 자아개념( $\beta = .03$ ,  $p < .01$ ), 자율성( $\beta = .17$ ,  $p < .001$ ), 자기효능감( $\beta = .20$ ,  $p < .001$ ), 가능한 자기( $\beta = .20$ ,  $p < .001$ ) 등 개인의 심리적 변인, 학업스트레스( $\beta = .08$ ,  $p < .001$ ) 및 부모양육태도( $\beta = .03$ ,  $p < .001$ ) 등 외부환경요인 모두 리더십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가능한 자기( $\beta = -.03$ ,  $p < .01$ ), 학업스트레스( $\beta = .20$ ,  $p < .05$ ), 부모양육태도( $\beta = -.03$ ,  $p < .05$ )가 학교급이 리더십역량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9의 설명력은 22.4%로 유의했으며( $R^2 = .224$ ,  $F = 221.583$ ,  $p < .001$ ), 모델9의 설명력은 모델8에 비해 0.3% 증가했는데 증가분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Delta R^2 = .003$ ,  $F = 7.022$ ,  $p < .001$ ). 이는 가능한 자기, 학업스트레스, 부모양육태도가 학교급과 청소년 리더십역량에서 미치는 조절효과가 유의함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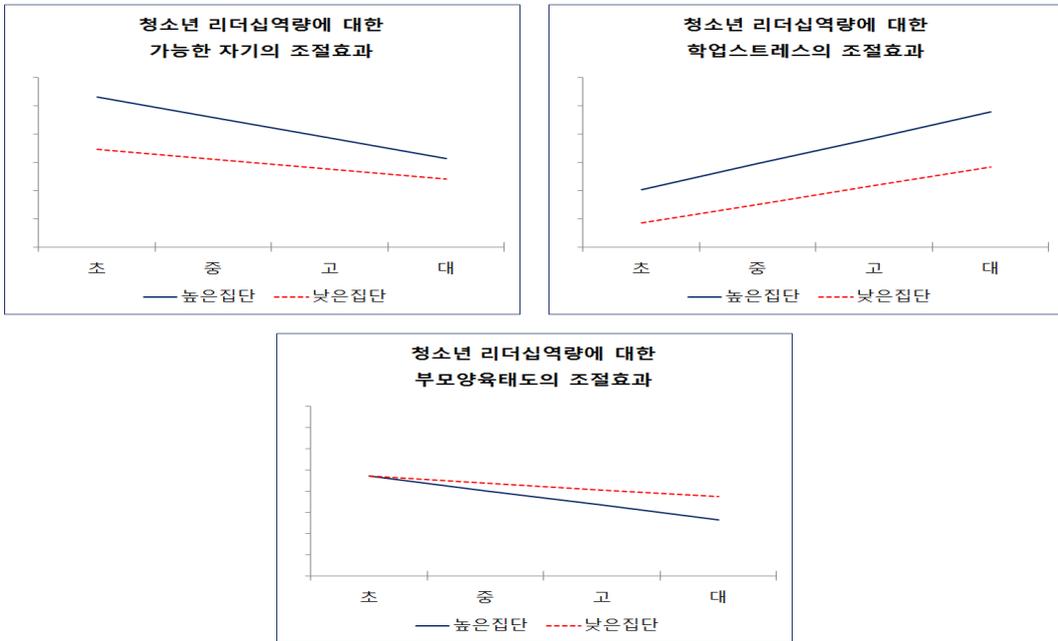
가능한 자기, 학업스트레스, 부모양육태도가 학교급과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에서의 조절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그래프를 제시하였다. 각 조절변인의 평균값을 중심으로 평균+표준편차 이상을 높은 집단, 평균-표준편차 이하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미래에 대한 자기 모습이 긍정적일수록, 부모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학교급이 리더십역량에 미치는 정적 영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46]를 살펴보면, 가능한 자기 점수와 부모양육태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리더십역량이 감소하는 폭이 컸다. 반면,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교급이 리더십역량에 미치는 정적 영향(+)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46]를 살펴보면, 학업스트레스 점수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리더십역량이 증가하는 폭이 컸다. 설명변수로 포함되는 가능한 자기, 학업스트레스, 부모양육태도가 유의미했으며, 상호작용항 또한 유의미했으므로 가능한 자기, 학업스트레스, 부모양육태도는 유사조절변수라고 할 수 있다.

표 IV-72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리더십역량에 대한 개인심리 및 외부환경요인의 조절효과

변인	모델7			모델8			모델9		
	B	$\beta$	t	B	$\beta$	t	B	$\beta$	t
상수	2.83		204.233**	.94		17.483**	.93		17.395**
학교급	.02	.04	3.998**	.04	.07	7.978**	.04	.08	8.662**
개인심리적 변인									
자아개념				.03	.03	2.902**	.03	.03	3.001**
자율성				.17	.17	16.487**	.17	.17	16.693**
자기효능감				.17	.21	17.477**	.17	.20	16.993**
가능한 자기				.18	.20	16.839**	.18	.20	17.007**
외부환경 변인									
학업스트레스				.07	.08	7.167**	.07	.08	7.131**
부모양육태도				.03	.04	3.386**	.03	.03	2.870**
조절변인									
조절변인1(학교급*자아개념)							.02	.02	1.734
조절변인2(학교급*자율성)							.02	.02	1.714
조절변인3(학교급*자기효능감)							-.01	-.01	-.719
조절변인4(학교급*가능한 자기)							-.03	-.03	-2.824**
조절변인5(학교급*학업스트레스)							.02	.02	2.054*
조절변인6(학교급*부모양육태도)							-.03	-.03	-2.548*
R <sup>2</sup>		.002		.221			.224		
adjusted-R <sup>2</sup>		.001		.220			.223		
$\Delta R^2$		.002		.219			.003		
F		15.981**		404.028**			221.583**		
$\Delta F$		15.981**		467.954**			7.022**		

\*\* $\alpha$  .001, \* $\alpha$  .01.



【그림 IV-46】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리더십역량에 대한 개인심리 및 외부환경요인의 조절효과

④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협동역량에 대한 개인심리 및 외부환경 변인 조절효과분석  
 개인의 심리적 변인(자아개념, 자율성, 자기효능감, 가능한 자기)과 외부환경변인(학업스트레스, 부모양육태도)이 학교급과 협동역량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73>에 제시하였다. 우선, 모델10에서는 독립변수인 학교급이 청소년의 협동역량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청소년의 협동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eta=.07, p<.001$ ). 모델10의 설명력은 0.5%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설명력은 매우 낮았다( $R^2=.005, F=52.586, p<.001$ ).

모델11에서는 학교급과 개인의 심리적 변인, 외부환경 변인이 청소년의 협동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독립변인인 학교급( $\beta=.10, p<.001$ ), 자아개념( $\beta=.08, p<.001$ ), 자율성( $\beta=.13, p<.001$ ), 자기효능감( $\beta=.18, p<.001$ ), 가능한 자기( $\beta=.20, p<.001$ ) 등 개인의 심리적 변인, 학업스트레스( $\beta=.10, p<.001$ ) 및 부모양육태도( $\beta=.07, p<.001$ ) 등 외부환경요인 모두 협동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자율성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미래 자기 모습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모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청소년의 협동역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11의 설명력은 2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2=.205, F=367.946, p<.001$ ), 모델11은 모델10에 비해 20.0% 증가하였는데 증가분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Delta R^2=.200, F=418.305, p<.001$ ).

모델12에서는 독립변인인 학교급, 조절변인인 개인의 심리적 요인, 외부환경요인과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독립변인인 학교급( $\beta=.11, p<.001$ ), 자아개념( $\beta=.08, p<.001$ ), 자율성( $\beta=.13, p<.001$ ), 자기효능감( $\beta=.17, p<.001$ ), 가능한 자기( $\beta=.20, p<.001$ ) 등 개인의 심리적 변인, 학업스트레스( $\beta=.10, p<.001$ ) 및 부모양육태도( $\beta=.07, p<.001$ ) 등 외부환경요인 모두 협동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자아개념( $\beta=.03, p<.05$ ), 가능한 자기( $\beta=-.03, p<.01$ )가 학교급이 협동역량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12의 설명력은 20.8%로 유의했으며( $R^2=.208, F=200.753, p<.001$ ), 모델12의 설명력은 모델11에 비해 0.2% 증가했는데 증가분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Delta R^2=.002, F=4.731, p<.001$ ). 이는 자아개념, 가능한 자기가 학교급과 청소년 협동역량에서 미치는 조절효과가 유의함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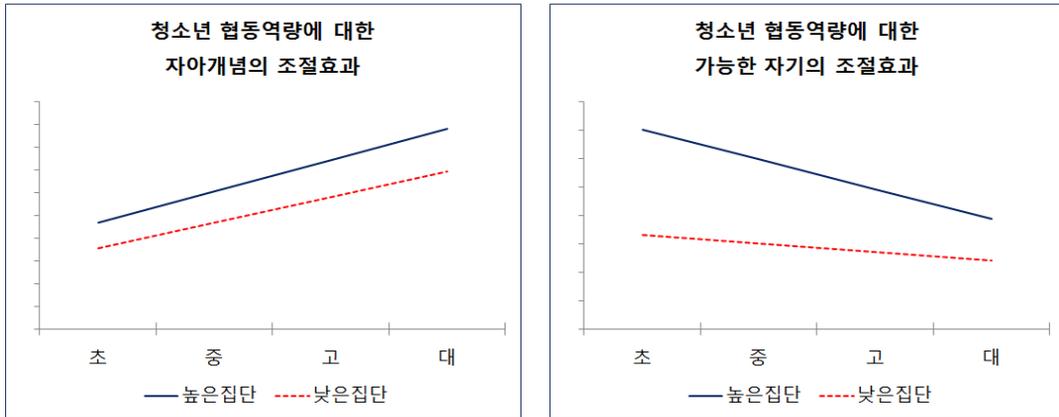
자아개념, 가능한 자기가 학교급과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에서의 조절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그래프를 제시하였다. 각 조절변인의 평균값을 중심으로 평균+표준편차 이상을 높은 집단, 평균-표준편차 이하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자아개념은 학교급이

협동역량에 미치는 정적 영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47]를 살펴보면, 자아개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대인관계역량이 증가하는 폭이 컸다. 한편, 미래에 대한 자기 모습이 긍정적일수록 학교급이 협동역량에 미치는 정적 영향(+)이 약화되었다. [그림 IV-47]를 살펴보면, 가능한 자기 점수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협동역량이 감소하는 폭이 컸다. 설명변수로 포함되는 자아개념, 가능한 자기가 유의미했으며, 상호작용항 또한 유의미했으므로 자아개념, 가능한 자기는 유사조절변수라고 할 수 있다.

**표 IV-73**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협동역량에 대한 개인심리 및 외부환경요인의 조절효과

변인	모델10			모델11			모델12		
	B	$\beta$	t	B	$\beta$	t	B	$\beta$	t
상수	2.95		222.541**	1.06		20.462**	1.06		20.339**
학교급	.04	.07	7.252**	.06	.10	11.350**	.06	.11	11.834**
개인심리적 변인									
자아개념				.07	.08	7.222**	.07	.08	7.283**
자율성				.12	.13	12.127**	.12	.13	12.234**
자기효능감				.14	.18	14.507**	.13	.17	14.113**
가능한 자기				.17	.20	16.809**	.17	.20	16.919**
외부환경 변인									
학업스트레스				.08	.10	9.077**	.08	.10	9.039**
부모양육태도				.06	.07	6.902**	.06	.07	6.533**
조절변인									
조절변인1(학교급*자아개념)							.02	.03	2.313*
조절변인2(학교급*자율성)							.01	.01	1.109
조절변인3(학교급*자기효능감)							-.01	-.02	-1.437
조절변인4(학교급*가능한 자기)							-.03	-.03	-2.710**
조절변인5(학교급*학업스트레스)							.01	.02	1.532
조절변인6(학교급*부모양육태도)							-.01	-.01	-1.038
R <sup>2</sup>		.005			.205			.208	
adjusted-R <sup>2</sup>		.005			.205			.207	
$\Delta R^2$		.005			.200			.002	
F		52.586**			367.946**			200.753**	
$\Delta F$		52.586**			418.305**			4.731**	

\*\* $p < .001$ , \* $p < .05$ .



【그림 IV-47】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협동역량에 대한 개인심리 및 외부환경요인의 조절효과

### 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에 대한 문항반응이론(IRT)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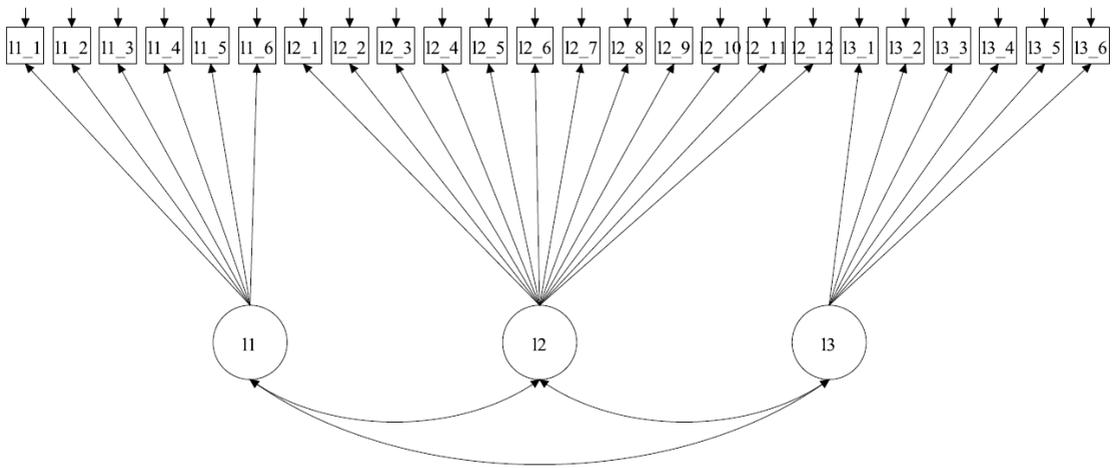
청소년 역량지수는 청소년의 성장시기별 발달적 특성이 반영되어 측정되었기 때문에 청소년의 발달시기별 청소년 역량측정 문항에 반응이 상이한지를 문항반응이론(Item Response Theory: IRT)을 적용하여 그 실태를 분석하였다.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를 통해 조사된 청소년 역량을 종단적 또는 시계열적 연구에 활용하거나 집단 간(대표적으로 학교급간) 비교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요인의 동일성이 확보될 필요성이 있다. 요인 동일성 연구는 주로 척도 및 모형의 집단 간 일반화 연구, 종단연구, 집단 간 차이 및 변화 연구 등에 활용된다(이순목, 김한조, 20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집단 구분의 주요 기준인 학교급과 시점에 따라 집단을 나누고, 4개 학교급(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간에 요인 동일성과 2개 시점(2017년 자료와 이 자료의 문항이 확정된 2016년 자료) 간에 요인 동일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학교급별 비교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 중 기본이 되는 확인적 요인분석모형을 여러 집단에 대하여 적용하는 다집단 확인적 요인분석모형으로 요인 동일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시점별 비교에서는 학교급별 비교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개별 문항 수준까지의 요인 동일성 분석을 진행하였다.

(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의 학교급별 요인 동일성 분석

학교급별 요인 동일성 분석에 대해서 구체적인 절차는 청소년 역량의 4개 역량군 (생애학습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생활관리역량)별로 하위역량별로 4개 학교급으로 집단을 구분하고, 다집단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3개 하위역량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은 아래 [그림 IV-48]과 같이 도식화될 수 있다.



【그림 IV-48】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예)

이 모형은 생애학습역량의 하위역량인 사고력(L1), 지적도구활용(L2), 학습적응성(L3)를 잠재변인으로 하고, 각각의 잠재변인에 속하는 하위문항들인 L1\_1~L1\_6변수(총6개), L2\_1~L2\_12(총 12개), L3\_1~L3\_6(총6개)가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변수로 설정된 모형이다. 생애학습역량과 마찬가지로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생활관리역량에 대해서도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을 설정하고, 4개 학교급에 대한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집단 분석에서는 학교급별 요인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모형의 모수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은 기저모형부터 순차적으로 제약이 추가됨에 따라 요인 부하량 동일성 모형, 측정변수 절편 동일성 모형, 구조변수 공분산 동일성 모형, 측정변수 잔차 동일성 모형을 구성하였다. 이 때, 요인 부하량 동일성, 측정변수 절편 동일성, 구조변수 공분산 동일성, 측정변수 잔차 동일성은 순차적으로 검정하고, 만약 선행되는 동일성이 충족되지 못한다면 이후의 동일성은 충족될 수 없다. 그리고 요인

동일성에 대한 통계적 검정은 이상의 모형들의 적합도 지수  $\chi^2$ 의 차이인 deviance에 대해 통계적으로 검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생애학습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생활관리역량에 대하여 요인 구조 동일성 모형, 요인 부하량 동일성 모형, 측정변수 절편 동일성 모형, 구조변수 공분산 동일성 모형, 측정변수 잔차 동일성 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고, 모형 간 비교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IV-74>와 같다.

**표 IV-74 청소년 역량지수 모형 비교를 통한 학교급별 요인 동일성 검정 결과**

역량	Model	모형적합도		모형 간 비교		
		$\chi^2$	d.f	$\chi^2$	d.f	p-value
생애학습역량	요인 구조 동일성 모형	37988.6	996			
	요인 부하량 동일성 모형	40081.3	1,059	2092.749	63	.000
	측정 절편 동일성 모형	47748.5	1,131	7667.199	72	.000
	구조 공분산 동일성 모형	48349.5	1,149	600.946	18	.000
	측정 잔차 동일성 모형	52848.8	1,221	4499.276	72	.000
진로개발역량	요인 구조 동일성 모형	35234.3	1,088			
	요인 부하량 동일성 모형	35988.0	1,154	753.697	66	.000
	측정 절편 동일성 모형	41454.8	1,229	5466.803	75	.000
	구조 공분산 동일성 모형	42080.8	1,247	626.087	18	.000
	측정 잔차 동일성 모형	45888.5	1,322	3807.645	75	.000
대인관계역량	요인 구조 동일성 모형	45918.5	1,496			
	요인 부하량 동일성 모형	46469.6	1,574	551.026	78	.000
	측정 절편 동일성 모형	50357.6	1,661	3888.084	87	.000
	구조 공분산 동일성 모형	51134.3	1,679	776.657	18	.000
	측정 잔차 동일성 모형	54531.4	1,766	3397.09	87	.000
생활관리역량	요인 구조 동일성 모형	103334.2	2,216			
	요인 부하량 동일성 모형	110271.9	2,309	6937.766	93	.000
	측정 절편 동일성 모형	115128.3	2,414	4856.333	105	.000
	구조 공분산 동일성 모형	116126.8	2,444	998.551	30	.000
	측정 잔차 동일성 모형	120218.8	2,549	4092.026	105	.000

분석 결과, 4개 역량군 모두에서 요인 구조 동일성 모형의 적합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였다. 요인 구조 동일성 모형의 적합도 분석에 있어 자유도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은 요인 구조 동일성 모형의 적합도가 요인 부하량이 모든 집단에서 같다는 제약을 가한 요인 부하량 동일성 모형의 적합도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모형 간 비교 검정 결과에 따라 요인 부하량이 모든 학교급에서 동일하다는 가정이 기각되고, 학교급에 따라서 역량의 측정문항에 대한 요인 부하량이 다르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요인 부하량 동일성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측정변수 절편, 구조변수 공분산, 측정변수 잔차 등의 동일성을 충족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 요인의 동일성 검정 결과를 토대로 판단할 때, 청소년 역량은 학교급에 따라 요인의 측정 동일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각 학교급별로 서로 다른 요인 구조를 가진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학교급간 역량의 평균 비교를 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검사 점수를 비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때문에 학교급별 평균을 비교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른다 하겠다.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에 따른 요인 동일성을 확보한 후에 학교급별 비교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집단을 더 세분화하여 학년 단위로 청소년 역량을 비교분석 한다고 하였을 경우에도 먼저 학년간 요인 동일성의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분석을 하여야 그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의 시점별 요인 동일성 분석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의 시점별 요인 동일성을 살펴보기 위해 학교급별 요인 동일성 분석과 마찬가지로 다집단 확인적 요인분석을 먼저 실시하였고, 문항반응이론 모형을 적용하여 차별기능문항을 분석함으로써 문항 수준에서 요인 동일성에 영향을 미치는 문항들을 분석해보았다. 먼저, 시점별 요인 동일성 분석 절차에서는 학교급별 요인 동일성 분석과 같이 기저모형, 요인 부하량 동일성 모형, 측정변수 절편 동일성 모형, 구조변수 공분산 동일성 모형, 측정변수 잔차 동일성 모형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모형들의 적합도 지수  $\chi^2$ 에 대한 deviance 검정으로 요인 부하량 동일성, 측정변수 절편 동일성, 구조변수 공분산 동일성, 측정변수 잔차 동일성을 확인하였고, 결과는 다음 <표 IV-75>와 같다.

표 IV-75 청소년 역량지수 모형 비교를 통한 시점별 요인 동일성 검정 결과

역량	Model	모형적합도		모형 간 비교		
		$\chi^2$	d.f	$\chi^2$	d.f	p-value
생애학습역량	요인 구조 동일성 모형	37947.4	498			
	요인 부하량 동일성 모형	38038.3	519	90.928	21	.000
	측정 절편 동일성 모형	38399.3	543	360.999	24	.000
	구조 공분산 동일성 모형	38463.8	549	64.454	6	.000
	측정 잔차 동일성 모형	38790.6	573	326.835	24	.000
진로개발역량	요인 구조 동일성 모형	34818.2	544			
	요인 부하량 동일성 모형	35265.8	566	447.639	22	.000
	측정 절편 동일성 모형	37060.3	591	1794.478	25	.000
	구조 공분산 동일성 모형	37167.4	597	107.144	6	.000
	측정 잔차 동일성 모형	37845.9	622	678.493	25	.000
대인관계역량	요인 구조 동일성 모형	44738.4	748			
	요인 부하량 동일성 모형	44830.8	774	92.481	26	.000
	측정 절편 동일성 모형	45126.6	803	295.792	29	.000
	구조 공분산 동일성 모형	45168.0	809	41.388	6	.000
	측정 잔차 동일성 모형	46216.1	838	1048.076	29	.000
생활관리역량	요인 구조 동일성 모형	96774.7	1,108			
	요인 부하량 동일성 모형	102790.6	1,139	6015.921	31	.000
	측정 절편 동일성 모형	155827.2	1,174	53036.59	35	.000
	구조 공분산 동일성 모형	160399.8	1,184	4572.613	10	.000
	측정 잔차 동일성 모형	162603.7	1,219	2203.873	35	.000

분석 결과, 4개 역량군 모두에서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은 요인 구조 동일성 모형의 적합도가 요인 부하량이 두 시점에서 같다는 제약을 가한 요인 부하량 동일성 모형의 적합도에 비하여 자유도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시점에 따라 역량의 측정문항에 대한 요인 부하량이 다르다고 해석할 수 있고, 측정변수 절편, 구조변수 공분산, 측정변수 잔차 등의 동일성을 충족될 수 없다. 즉, 본 연구의 청소년 역량은 시점에 따라 다른 요인 구조를 가진다고 판단할 수 있고, 시점별 역량 점수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므로 시점별 역량 점수 비교에도 제한이 따른다.

### (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의 학교급별 차별기능문항 분석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에 대하여 학교급별 요인 구조 동일성 분석 결과와 이 절의 시점별 요인 구조 동일성 분석 결과를 놓고 볼 때, 학교급별 분석의 대상이 되는 모집단의 연령의 차이로 인한 심리적 특성이 다르다는 점에서 학교급별 요인 구조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하지만, 시점별 요인 구조 동일성이 충족되지 않는 것은 모집단의 특성이 동일할 것이라는 상식적인 가정하에서도 다소 예상외의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의 안정성이나 일관성이 다소 낮은 문항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문항반응이론 모형을 적용하여 2016년도와 2017년도 자료 간에 차별기능문항이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문항 수준에서 요인 동일성에 영향을 미치는 문항들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앞서 분석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의 학교급별 요인 구조 동일성이 충족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학교급별로 구분하여 2016년도와 2017년도 자료 간에 차별기능문항 분석을 실시하였다. 차별기능문항 분석을 통해 문항반응이론 모형의 문항 모수인 변별도와 역치에 대해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때,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 모수 중 변별도는 요인분석에서의 요인부하량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고, 역치는 평균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이 분석에서는 2016년도와 2017년도의 평균 차이보다 요인의 구조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변별도 모수에서의 차별기능문항을 위주로 결과를 검토하였다.

### (4)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측정문항의 학교급별 차별기능문항 분석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검사 문항들에 대한 2016년과 2017년 두 시점별 차별기능문항을 학교급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IV-76>와 같다.

사고력 하위역량의 문항 중에서는 1번, 5번, 6번 문항에서 변별도가 두 시점별에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6번 문항은 초등학교급과 고등학교급에서 변별도가 두 시점별에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지적도구활용 하위역량에서는 6번, 8번, 9번, 10번, 11번 문항이 두 개 이상의 학교급에서 시점별 변별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특히 고등학교급에서 변별도의 차별기능문항이 다수 발견되어 향후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문항을 개선하는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학습적응성 하위역량에서는 2번 문항이 중학교급, 고등학교

급에서 차별기능문항으로 판별되었고, 초등학교급에서는 6개 문항 중 절반인 3개 문항이 차별기능문항으로 판별되어 초등학교급에서 학습적응성 하위역량 요인을 활용함에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표 IV-76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 측정문항에 대한 학교급별 차별기능문항 분석 결과

문항	초등학교 DIF 검정치			중학교 DIF 검정치			고등학교 DIF 검정치			대학교 DIF 검정치		
	전반적	변별도	역치	전반적	변별도	역치	전반적	변별도	역치	전반적	변별도	역치
C1_1_1	26.1*	.8	25.3*	18.9	6.9*	12.0*	28.3*	2.3	26.0*	6.1	.4	5.7
C1_1_2	18.8*	1.8	17.0*	18.1	6.5	11.6*	10.8	.8	10.0	4.1	.8	3.3
C1_1_3	11.8	2.2	9.6	6.4	.5	5.9	14.4*	1.3	13.1*	7.1	3.5	3.6
C1_1_4	13.2	.0	13.1*	19.1	1.3	17.8*	10.6	.0	10.6	11.0	.0	11.0
C1_1_5	28.4*	7.9*	20.5*	15.2	.2	15.0*	8.9	.4	8.5	15.5*	1.2	14.3*
C1_1_6	12.3	9.4*	2.9	16.3	4.4	11.8*	11.0	7.5*	3.5	5.2	.9	4.3
C1_2_1	13.7*	.3	13.4*	6.0	.0	5.9	8.8	.0	8.8	3.6	.8	2.8
C1_2_2	11.3	1.6	9.7	3.7	.9	2.8	8.7	.0	8.7	5.2	3.6	1.6
C1_2_3	5.9	.2	5.7	4.7	.0	4.7	8.2	1.1	7.1	5.7	1.0	4.7
C1_2_4	30.8*	2.4	28.3*	7.2	.4	6.8	18.9*	7.9*	11.0	10.0	6.6	3.3
C1_2_5	5.7	.7	5.0	4.8	.8	4.0	4.6	.1	4.5	7.3	5.2	2.0
C1_2_6	35.4*	4.2	31.3*	19.0	.5	18.4*	15.9*	11.0*	5.0	13.0	11.6*	1.3
C1_2_7	7.3	.1	7.2	23.0	14.8*	8.3	27.3*	4.5	22.9*	9.3	6.3	3.1
C1_2_8	12.5	1.8	10.8	31.8	23.4*	8.4	19.5*	15.2*	4.3	16.9*	2.9	14.0*
C1_2_9	8.3	1.9	6.5	32.3	9.6*	22.7*	21.1*	15.7*	5.4	7.6	5.2	2.4
C1_2_10	14.3*	8.0*	6.3	31.8	7.0*	24.8*	24.6*	6.1	18.5*	20.0*	.0	20.0*
C1_2_11	38.2*	8.1*	30.1*	12.5	.1	12.5*	25.4*	7.2*	18.1*	17.1*	4.5	12.6*
C1_2_12	44.9*	4.0	40.9*	21.1	.1	21.0*	19.0*	7.1*	11.9*	16.9*	7.0*	9.9
C1_3_1	34.4*	9.8*	24.6*	13.7	.4	13.3*	48.2*	1.0	47.2*	1.7	.1	1.6
C1_3_2	15.8*	1.7	14.1*	24.8	10.9*	13.9*	37.5*	7.7*	29.8*	4.1	.1	4.1
C1_3_3	32.3*	4.8	27.4*	9.5	.2	9.3	9.4	4.0	5.4	2.2	.1	2.1
C1_3_4	16.8*	5.1	11.7*	7.7	4.7	3.0	7.1	.0	7.1	7.9	.9	6.9
C1_3_5	23.1*	13.0*	10.1	24.9	1.7	23.3*	8.7	1.3	7.4	24.7*	.5	24.3*
C1_3_6	23.9*	10.0*	13.9*	9.9	.2	9.8	5.5	.3	5.3	12.4	.0	12.4*

#### 4)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측정문항의 학교급별 차별기능문항 분석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검사 문항들에 대한 2016년과 2017년 두 시점별 차별기능문항을 학교급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IV-77>와 같다.

**표 IV-77**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 측정문항에 대한 학교급별 차별기능문항 분석 결과

문항	초등학교 DIF 검정치			중학교 DIF 검정치			고등학교 DIF 검정치			대학교 DIF 검정치		
	전반적	변별도	역치	전반적	변별도	역치	전반적	변별도	역치	전반적	변별도	역치
C4_1_1	1121.1*	1031.0*	90.1*	730.1*	655.3*	74.8*	518.5*	493.2*	25.3*	61.4*	56.8*	4.6*
C4_1_2	778.4*	705.8*	72.6*	500.0*	444.1*	55.9*	409.9*	396.0*	13.9*	100.4*	94.3*	6.2*
C4_1_3	1041.6*	981.6*	60.0*	735.3*	687.6*	47.7*	537.8*	524.4*	13.5*	69.2*	64.8*	4.4*
C4_1_4	1190.8*	1126.2*	64.6*	770.3*	728.7*	41.6*	571.8*	550.3*	21.5*	48.4*	28.1*	20.3*
C4_1_5	759.0*	735.3*	23.6*	403.1*	387.6*	15.5*	198.1*	189.2*	8.9*	17.8*	.4*	17.3*
C4_1_6	1156.3*	1078.6*	77.7*	870.4*	834.2*	36.2*	654.9*	617.8*	37.1*	80.8*	73.4*	7.4*
C4_1_7	1019.1*	952.2*	66.9*	766.0*	726.2*	39.8*	601.1*	591.1*	10.0*	66.2*	63.2*	3.0*
C4_1_8	922.9*	842.3*	80.6*	673.0*	636.4*	36.6*	470.7*	457.4*	13.3*	63.4*	40.6*	22.8*
C4_2_1	1107.5*	1025.2*	82.3*	807.3*	781.3*	25.9*	618.3*	614.4*	3.9*	61.9*	55.5*	6.5*
C4_2_2	1211.0*	1130.9*	80.1*	833.4*	801.7*	31.7*	699.8*	688.3*	11.5*	61.2*	57.4*	3.8*
C4_2_3	977.6*	896.1*	81.6*	784.5*	751.3*	33.2*	603.6*	569.9*	33.6*	54.0*	44.5*	9.5*
C4_2_4	1112.4*	1028.2*	84.1*	819.8*	777.3*	42.5*	598.0*	584.3*	13.7*	26.7*	20.0*	6.7*
C4_2_5	1100.9*	1016.5*	84.4*	818.0*	772.8*	45.2*	592.8*	567.0*	25.8*	40.2*	21.2*	19.0*
C4_2_6	1101.8*	1029.4*	72.4*	774.9*	736.3*	38.6*	631.1*	614.1*	17.1*	33.0*	25.7*	7.3*
C4_3_1	1101.3*	941.3*	160.0*	758.4*	575.1*	183.4*	943.9*	744.5*	199.4*	245.8*	223.1*	22.6*
C4_3_2	193.8*	22.5*	171.3*	825.2*	14.8*	810.4*	1437.9*	15.3*	1422.6*	434.6*	3.4*	431.2*
C4_3_3	133.8*	29.9*	103.8*	682.3*	4.8*	677.5*	1082.4*	17.4*	1065.0*	484.7*	.3*	484.3*
C4_3_4	48.8*	6.9*	41.9*	351.5*	8.6*	342.9*	647.7*	5.8*	641.9*	209.8*	1.3*	208.5*
C4_3_5	13.0*	.3*	12.7*	355.2*	1.7*	353.5*	758.5*	3.1*	755.3*	222.4*	.8*	221.7*
C4_3_6	73.7*	14.1*	59.6*	49.9*	8.1*	41.7*	21.9*	6.9*	15.0*	21.3*	6.4*	14.8*
C4_3_7	604.5*	21.5*	583.1*	624.4*	1.2*	623.2*	589.8*	.0*	589.7*	97.0*	22.0*	75.1*
C4_3_8	443.4*	6.0*	437.4*	331.6*	.0*	331.5*	414.0*	1.1*	412.9*	65.8*	12.1*	53.7*
C4_3_9	258.6*	4.9*	253.7*	120.6*	.3*	120.4*	24.0*	.0*	24.0*	36.5*	6.3*	30.2*
C4_3_10	263.9*	5.1*	258.7*	145.8*	1.9*	143.9*	63.3*	4.9*	58.4*	1.4*	1.2*	.3*
C4_3_11	42.5*	4.3*	38.2*	49.1*	.1*	49.0*	31.4*	3.1*	28.3*	37.6*	10.4*	27.3*
C4_3_12	190.5*	5.7*	184.8*	60.2*	11.8*	48.4*	51.6*	3.3*	48.2*	45.3*	.6*	44.7*
C4_4_1	29.6*	.8*	28.8*	277.4*	8.6*	268.7*	404.9*	1.2*	403.6*	64.1*	1.5*	62.6*
C4_4_2	214.4*	.6*	213.8*	178.8*	6.7*	172.1*	133.8*	3.3*	130.5*	48.7*	1.6*	47.0*
C4_4_3	32.6*	.4*	32.2*	64.6*	10.8*	53.8*	20.9*	3.1*	17.8*	4.6*	1.0*	3.6*
C4_4_4	153.3*	2.2*	151.2*	243.0*	12.2*	230.8*	351.8*	4.4*	347.4*	57.3*	5.3*	51.9*
C4_4_5	123.3*	.2*	123.0*	487.2*	7.5*	479.6*	851.3*	11.1*	840.3*	150.8*	.5*	150.3*
C4_4_6	167.0*	9.1*	157.9*	447.3*	16.0*	431.3*	678.2*	9.0*	669.2*	130.9*	1.2*	129.7*
C4_4_7	219.7*	213.1*	6.6*	321.2*	297.1*	24.0*	231.6*	213.8*	17.8*	18.8*	6.8*	12.0*
C4_4_8	238.3*	231.4*	6.9*	260.7*	239.6*	21.1*	177.6*	126.6*	51.0*	16.2*	2.1*	14.1*
C4_4_9	147.9*	115.4*	32.5*	230.8*	203.9*	26.9*	148.4*	122.5*	25.9*	14.6*	.6*	14.0*

생활관리역량의 하위역량 중 건강관리 하위역량과 과제관리 하위역량에서는 모든 학교급에서 대부분의 문항에서 두 시점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별도의 차별기능이 판별되었다. 따라서 건강관리 하위역량과 과제관리 하위역량은 시점에 따라 요인의 동일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두 시점별 역량 점수의 비교가 부적절하다고 결론내릴 수 있으며, 문항의 수정·보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겠다. 그리고 상황대처 하위역량에서도 1번, 2번, 3번, 4번, 6번 문항 변별도에서 차별기능문항이 판별되어 이 문항들 또한 전면적인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서조절에서 중학교급의 모든 문항들이 변별도에 있어 차별기능이 검출되었고, 감정인식 조사영역의 3개 문항은 초등학교급, 중학교급, 고등학교급에서 차별기능문항으로 판별되어 시점별 요인 동일성이 확보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정서조절 하위역량의 중학교급 문항 전반에서의 시점별 차별기능문항 원인 파악이 필요하고, 감정인식 조사영역의 전체 문항에 대한 재검토와 수정·보완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5)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측정문항의 학교급별 차별기능문항 분석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검사 문항들에 대한 2016년과 2017년 두 시점별 차별기능문항을 학교급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IV-78>과 같다.

진로개발역량의 하위역량 중 진로설계 역량에서는 문항 변별도의 차별기능문항이 판별된 문항은 초등학교급의 3번 문항과 대학교급의 9번 문항 정도로 문항 변별도에서 차별기능문항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 두 시점에서 검사 문항들이 상당히 일관된 특성을 보인다고 판단할 수 있다. 반면에 여가활용 하위역량에서는 1번, 3번, 7번, 8번, 9번, 10번이 두 개 이상의 학교급에서 차별기능문항으로 판별되어 두 시점별 검사 문항들이 다소 다른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특히 여가몰입 조사영역에 해당하는 8~10번 문항이 모두 차별기능문항으로 판별되었기 때문에 여가몰입 조사영역 문항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향후 문항에 대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개척정신 하위역량에서는 초등학교급에서 전체 6개 문항 중에서 4번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문항이 모두 차별기능문항으로 판별되어 차별기능문항이 거의 발견되지 않은 나머지 학교급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초등학교급에서는 개척정신 하위역량 요인을 시점별 비교에 활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에 주의하여야겠고,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다.

표 IV-78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 측정문항에 대한 학교급별 차별기능문항 분석 결과

문항	초등학교 DIF 검정치			중학교 DIF 검정치			고등학교 DIF 검정치			대학교 DIF 검정치		
	전반적	변별도	역치	전반적	변별도	역치	전반적	변별도	역치	전반적	변별도	역치
C2_1_1	69.6*	4.9	64.7*	51.2*	.1	51.2*	53.3*	.3	53.0*	24.8*	2.7	22.1*
C2_1_2	33.4*	4.4	29.0*	37.6*	.0	37.6*	49.4*	.0	49.4*	36.5*	.3	36.3*
C2_1_3	78.2*	10.2*	67.9*	53.8*	.2	53.6*	28.5*	.1	28.3*	20.8*	.6	20.2*
C2_1_4	95.9*	6.5	89.4*	65.1*	.2	64.8*	37.4*	.9	36.5*	11.2	.0	11.1
C2_1_5	97.8*	1.1	96.7*	29.1*	.0	29.0*	2.4	.1	2.3	4.1	2.1	2.0
C2_1_6	38.6*	.0	38.6*	8.8	.0	8.8	49.3*	2.7	46.6*	7.6	3.3	4.3
C2_1_7	18.4*	.8	17.6*	26.6*	.0	26.5*	44.9*	.5	44.4*	6.9	.1	6.8
C2_1_8	27.9*	2.1	25.8*	33.9*	.0	33.9*	20.5*	1.3	19.1*	10.1	1.7	8.4
C2_1_9	31.6*	.1	31.6*	4.7	.2	4.6	11.6	.3	11.3	15.2*	8.4*	6.9
C2_2_1	18.8*	5.5	13.3*	36.5*	11.9*	24.6*	14.8*	7.7*	7.1	5.8	.1	5.7
C2_2_2	40.8*	2.5	38.3*	32.7*	4.7	28.0*	10.7	.0	10.7	1.4	.3	1.2
C2_2_3	47.1*	11.7*	35.4*	30.5*	22.1*	8.4	8.0	1.1	7.0	9.1	2.3	6.8
C2_2_4	24.7*	7.5*	17.2*	61.5*	3.4	58.0*	81.3*	.2	81.1*	8.6	.4	8.2
C2_2_5	215.0*	.0	215.0*	147.4*	.2	147.2*	111.7*	.8	110.9*	25.6*	2.5	23.0*
C2_2_6	16.2*	.5	15.7*	46.1*	5.4	40.7*	16.1*	2.5	13.6*	5.4	1.4	4.0
C2_2_7	40.5*	4.9	35.6*	25.7*	6.2	19.5*	26.1*	7.3*	18.8*	33.1*	14.2*	18.9*
C2_2_8	37.9*	16.2*	21.7*	20.3*	11.2*	9.1	30.2*	20.7*	9.4	13.5*	11.9*	1.6
C2_2_9	13.9*	5.3	8.5	13.8*	11.6*	2.2	13.2	7.3*	5.9	4.0	1.8	2.2
C2_2_10	46.4*	20.2*	26.2*	61.5*	14.1*	47.4*	24.8*	10.1*	14.7*	17.0*	7.7*	9.3
C2_3_1	108.6*	9.6*	98.9*	20.7*	1.0	19.8*	10.2	.9	9.3	12.5	3.7	8.8
C2_3_2	61.1*	12.9*	48.2*	50.0*	.0	50.0*	13.7*	1.0	12.7*	19.2*	1.2	18.0*
C2_3_3	471.7*	79.9*	391.8*	15.0*	.9	14.1*	7.5	.0	7.5	8.0	.0	8.0
C2_3_4	39.6*	.1	39.6*	7.8	1.4	6.4	15.9*	6.7*	9.2	14.5*	.1	14.5*
C2_3_5	709.7*	191.7*	518.0*	21.2*	5.7	15.5*	5.1	2.6	2.5	8.5	2.1	6.4
C2_3_6	260.5*	31.9*	228.6*	22.7*	6.9*	15.8*	.5	.0	.4	11.0	3.3	7.7

## 6)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측정문항의 학교급별 차별기능문항 분석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검사 문항들에 대한 2016년과 2017년 두 시점별 차별기능문항을 학교급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IV-79>와 같다.

**표 IV-79**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 측정문항에 대한 학교급별 차별기능문항 분석 결과

문항	초등학교 DIF 검정치			중학교 DIF 검정치			고등학교 DIF 검정치			대학교 DIF 검정치		
	전반적	변별도	역치	전반적	변별도	역치	전반적	변별도	역치	전반적	변별도	역치
C3_1_1	33.5*	.2	33.3*	13.8*	2.1	11.7*	12.6	6.3	6.3	7.1	2.4	4.7
C3_1_2	11.0	.2	10.8	9.2	.3	8.9	14.1*	13.5*	.6	14.0*	5.4	8.6
C3_1_3	7.1	.0	7.1	10.0	.0	10.0	18.5*	8.9*	9.6	6.2	4.6	1.6
C3_1_4	174.4*	2.8	171.6*	26.4*	1.1	25.2*	17.2*	4.5	12.7*	8.0	1.2	6.8
C3_1_5	38.7*	3.0	35.7*	17.7*	.1	17.7*	4.0	.1	3.9	7.5	.5	7.0
C3_1_6	43.5*	4.0	39.4*	19.0*	.5	18.5*	5.7	.0	5.6	8.8	1.6	7.2
C3_1_7	32.3*	3.5	28.8*	11.1	.1	11.0	25.0*	1.0	24.0*	16.2*	4.0	12.2*
C3_1_8	35.5*	5.4	30.2*	22.4*	.1	22.2*	37.1*	5.5	31.6*	11.2	1.7	9.5
C3_1_9	49.0*	6.5	42.5*	13.3*	2.0	11.3	27.6*	9.2*	18.4*	14.0*	1.3	12.6*
C3_1_10	9.2	.5	8.6	6.2	.2	6.0	4.4	2.8	1.6	.8	.2	.6
C3_1_11	47.2*	6.2	41.0*	14.4*	.2	14.2*	7.1	.7	6.4	3.0	.0	3.0
C3_1_12	30.3*	.0	30.3*	7.8	.0	7.8	2.8	.2	2.6	6.4	.3	6.1
C3_2_1	37.0*	2.0	34.9*	23.4*	4.5	18.9*	45.6*	11.2*	34.4*	26.7*	2.3	24.4*
C3_2_2	55.5*	7.1*	48.4*	8.6	2.8	5.8	25.6*	9.1*	16.5*	10.3	7.6*	2.6
C3_2_3	23.8*	.9	22.9*	6.2	.8	5.4	24.2*	14.2*	10.0	4.2	1.5	2.7
C3_2_4	9.1	1.6	7.6	16.4*	2.5	13.8*	20.7*	2.1	18.6*	16.9*	.0	16.8*
C3_2_5	17.4*	1.6	15.8*	10.9	2.1	8.8	5.4	.5	4.8	3.6	.0	3.6
C3_2_6	15.6*	.0	15.6*	5.3	2.1	3.2	13.4*	2.7	10.7	16.9*	2.1	14.8*
C3_2_7	25.3*	7.0*	18.3*	5.7	1.1	4.6	13.3*	9.1*	4.2	4.0	.2	3.8
C3_2_8	14.1*	1.3	12.8*	10.7	3.3	7.4	5.3	.3	5.0	7.6	.8	6.9
C3_2_9	9.6	.4	9.2	7.4	.1	7.3	12.0	2.3	9.7	13.1	.8	12.3*
C3_3_1	18.2*	.8	17.4*	36.3*	6.6	29.7*	24.4*	9.2*	15.2*	2.5	.2	2.3
C3_3_2	28.1*	1.4	26.7*	21.8*	8.3*	13.4*	27.3*	16.0*	11.2	18.4*	.4	18.0*
C3_3_3	15.7*	1.0	14.8*	13.8*	6.0	7.8	13.2	10.1*	3.1	2.9	.2	2.7
C3_3_4	59.5*	.8	58.7*	19.4*	.9	18.5*	26.5*	5.9	20.6*	1.2	.1	1.2
C3_3_5	14.3*	.1	14.2*	13.3*	1.8	11.5*	11.0	5.9	5.1	2.8	.0	2.8
C3_3_6	16.4*	.6	15.8*	29.8*	1.3	28.5*	35.5*	10.6*	25.0*	3.2	.0	3.2
C3_3_7	29.9*	5.9	24.1*	37.0*	12.0*	25.0*	13.5*	.0	13.5*	2.9	.0	2.8
C3_3_8	51.9*	3.7	48.3*	38.7*	6.3	32.3*	26.7*	10.0*	16.6*	2.3	.0	2.3

대인관계역량에 대한 차별기능분항 분석 결과, 관계형성 하위역량에서는 고등학교급을 제외한 나머지 3개 학교급에서는 문항 변별도에 있어서 차별기능분항으로 판별된 문항이 없었다. 고등학교급의 경우, 자기 개방성 조사영역의 3개 문항 중 2개 문항이 차별기능분항으로 판별되었고, 의사소통 조사영역에 해당하는 9번 문항에서 변별도가 시점별에 차별기능분항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리더십 하위역량에서도 고등학교급에서 전체 9문항 중 절반에 가까운 4개 문항에서 변별도의 차별기능분항이 발견되었고, 초등학교급에서 2개 문항, 대학교에서 1개 문항이 변별도가 시점별에 다소 다르게 기능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협동 하위역량에서도 고등학교급의 5개 문항에서 변별도가 시점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중학교급에서는 2개 문항에서 변별도의 차별기능분항이 판별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대인관계역량 문항들은 초등학교급, 중학교급, 대학교급에서는 시점과 무관하게 일정한 변별도 혹은 요인부하량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반면에, 고등학교급에서는 두 시점별에 차별적으로 기능하는 문항이 전체 1/3 수준이고 리더십과 협동 하위역량에서 특히 차별기능분항이 많은 점에서 고등학교급의 대인관계역량 요인을 활용함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7)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에 대한 성별 차별기능분항(DIF) 분석

2015~2017년 까지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결과가 청소년의 성장시기에 따라 성별차이가 현격하게 나타났다.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 초등에서는 남자 청소년보다 역량이 높았으나, 중등과 고등을 지나 대학으로 갈수록 급격히 낮아지는 현상이 확인된 것이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 과연 성별에 따른 청소년 역량의 차이가 순수한 능력의 차이인지, 아니면 차별기능분항(Differential Item Function)이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성별에 따른 차별기능분항(Differential Item Function, 이하 DIF) 분석을 실시하였다.

### (1)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 측정도구에 대한 차별기능분항 분석

차별기능분항 분석에 앞서, 성별에 따른 생애학습역량 전체와 세 가지 하위역량 차이를 학교급별로 나타내면 <표 IV-80>과 같다.

표 IV-80 성별에 따른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 하위역량별 역량 차이: 학교급별

학교급	구분	사례수	전체		사고력		지적도구 활용		학습 적응성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초등학생	전체	2,509	2.92	0.45	3.01	0.46	2.85	0.53	2.96	0.51
	남	1,267	2.90	0.45	2.97	0.46	2.85	0.54	2.95	0.52
	여	1,242	2.93	0.45	3.06	0.44	2.85	0.52	2.98	0.51
통계량			t=-1.77		t=-4.89**		t=-0.08		t=-1.75	
중학생	전체	2,541	2.85	0.41	2.99	0.40	2.76	0.50	2.88	0.48
	남	1,176	2.89	0.41	3.00	0.42	2.82	0.51	2.93	0.48
	여	1,365	2.81	0.40	2.98	0.39	2.71	0.50	2.84	0.48
통계량			t=4.83**		t=0.95		t=5.21**		t=4.66**	
고등학생	전체	3,366	2.83	0.39	2.97	0.38	2.74	0.50	2.86	0.46
	남	1,901	2.85	0.42	2.97	0.41	2.77	0.53	2.90	0.48
	여	1,465	2.79	0.34	2.97	0.33	2.69	0.46	2.82	0.42
통계량			t=4.61**		t=-0.16		t=4.70**		t=5.41**	
대학생	전체	995	2.83	0.33	2.98	0.36	2.74	0.44	2.87	0.42
	남	500	2.86	0.34	2.98	0.39	2.77	0.44	2.92	0.43
	여	495	2.80	0.32	2.97	0.31	2.71	0.43	2.82	0.40
통계량			t=2.82**		t=0.28		t=2.42*		t=3.64**	

\*,p<0.05, \*\*,p<0.01

분석 결과, 초등학생의 경우 여자 청소년의 역량 평균 값이 남자 청소년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반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의 경우 여자 청소년의 역량 평균 값이 남자 청소년보다 더 낮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처럼 여자 청소년의 생애학습역량 평균 값이 상위 학교급으로 갈수록 남자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해석하기 위해 다음에서는 학교급별로 성별에 따른 DIF 분석을 실시하였다.

① 초등학생 생애학습역량지수에 대한 성별 차별기능방향 분석 결과

우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DIF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 연구에서는 G2에 대한 유의확률 p값이 .01보다 작게 나타나는 문항들을 잠재적인 차별기능문항으로 간주하고 (<표 IV-81> 참조), 이 문항들을 제외한 다른 문항들을 공통 문항으로 하여 재분석한 결과 유의확률 p값이 .01보다 작게 나타나는 문항들을 최종 차별기능문항으로 선정하였다(<표 IV-82> 참조).

표 IV-81 초등학교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IRT-LR test 결과: 모든 문항을 anchor로 사용

하위역량	번호	Test	G <sup>2</sup>	df	참조 집단				연구 집단				G <sup>2</sup> p	
					a	b1	b2	b3	a	b1	b2	b3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1(1)	All equal 3.6 a equal 23.0	4	2.03	-3.15	-1.43	0.94	1.97	-3.06	-1.44	0.85	0.46	
		1(2)	b equal 0.0	1	1.70	-3.40	-1.29	1.12	1.70	-3.51	-0.98	1.21	0.00	
		1(3)	All equal 23.0 a equal 11.4 b equal 1.8	3	1.70	-3.45	-1.12	1.16	1.70	-3.45	-1.12	1.16	0.02	
	감성적 사고력	1(4)	All equal 11.4 a equal 1.8 b equal 9.6	4	1.81	-3.04	-1.25	0.71	1.64	-3.02	-1.21	0.94	0.02	
		1(5)	All equal 24.9 a equal 6.0 b equal 18.9	4	1.72	-3.14	-1.29	0.73	1.72	-2.94	-1.18	0.91	0.00	
		1(6)	All equal 11.4 a equal 0.0 b equal 11.3	3	1.72	-3.03	-1.23	0.82	1.72	-3.03	-1.23	0.82	0.02	
자적도 구 활용	언어 이해	2(1)	All equal 12.4 a equal 1.2 b equal 11.1	4	1.93	-2.71	-0.78	1.02	1.78	-2.57	-0.70	1.25	0.01	
		2(2)	All equal 50.4 a equal 1.0 b equal 49.3	4	1.85	-2.78	-0.80	1.05	1.85	-2.52	-0.69	1.22	0.00	
		2(3)	All equal 58.7 a equal 5.0 b equal 53.6	4	1.92	-3.06	-1.14	0.72	2.06	-2.58	-0.77	0.95	0.00	
		수학 이해	2(4)	All equal 83.8 a equal 1.0 b equal 82.8	4	1.99	-3.00	-1.12	0.70	1.99	-2.63	-0.78	0.97	0.00
			2(5)	All equal 8.2 a equal 0.2 b equal 8.2	3	1.97	-2.79	-0.94	0.83	1.97	-2.79	-0.94	0.83	0.00
			2(6)	All equal 82.8 a equal 8.5 b equal 74.3	4	1.16	-2.32	-0.61	0.83	0.95	-2.04	-0.14	1.51	0.00
	과학 이해		2(7)	All equal 88.8 a equal 1.0 b equal 88.8	4	1.05	-2.51	-0.65	0.90	1.05	-1.89	-0.14	1.39	0.00
			2(8)	All equal 8.4 a equal 0.2 b equal 8.2	3	1.05	-2.16	-0.39	1.14	1.05	-2.16	-0.39	1.14	0.00
			2(9)	All equal 82.8 a equal 8.5 b equal 74.3	4	1.39	-2.64	-0.71	1.21	1.50	-2.84	-1.12	0.58	0.00
		문제 해결	2(10)	All equal 8.4 a equal 0.2 b equal 8.2	3	1.44	-2.57	-0.70	1.18	1.44	-2.91	-1.15	0.60	0.08
			2(11)	All equal 8.4 a equal 0.2 b equal 8.2	3	1.89	-2.65	-0.93	0.76	1.84	-2.38	-0.83	0.81	0.00
			2(12)	All equal 82.8 a equal 8.5 b equal 74.3	4	1.86	-2.67	-0.94	0.76	1.86	-2.36	-0.83	0.81	0.00
	자기 평가		2(13)	All equal 8.2 a equal 0.2 b equal 8.2	3	1.86	-2.49	-0.88	0.79	1.86	-2.49	-0.88	0.79	0.00
			2(14)	All equal 82.8 a equal 8.5 b equal 74.3	4	1.13	-1.84	-0.26	1.29	0.86	-2.73	-0.91	0.72	0.00
			2(15)	All equal 8.5 a equal 0.9 b equal 7.6	3	0.99	-2.05	-0.29	1.43	0.99	-2.44	-0.83	0.63	0.00
		학습 역량	2(16)	All equal 74.3 a equal 1.0 b equal 73.3	3	0.95	-2.30	-0.57	1.05	0.95	-2.30	-0.57	1.05	0.00
			2(17)	All equal 30.2 a equal 3.9 b equal 26.3	4	1.56	-2.22	-0.27	1.12	1.34	-2.51	-0.61	0.97	0.00
			2(18)	All equal 48.5 a equal 0.9 b equal 47.6	4	1.44	-2.33	-0.28	1.18	1.44	-2.39	-0.58	0.92	0.00
학습 태도	2(19)		All equal 48.5 a equal 0.9 b equal 47.6	4	1.42	-2.38	-0.43	1.06	1.42	-2.38	-0.43	1.06	0.00	
	2(20)		All equal 108.9 a equal 3.1 b equal 105.8	4	1.77	-1.77	0.23	1.70	1.66	-2.02	-0.13	1.40	0.00	
	2(21)		All equal 108.9 a equal 3.1 b equal 105.8	4	1.71	-1.81	0.23	1.74	1.71	-1.99	-0.13	1.38	0.00	
	학습 성취	2(22)	All equal 47.6 a equal 0.9 b equal 46.7	3	1.67	-1.92	0.06	1.57	1.67	-1.92	0.06	1.57	0.00	
		2(23)	All equal 108.9 a equal 3.1 b equal 105.8	4	1.21	-2.47	-0.56	1.21	1.04	-3.19	-1.30	0.51	0.00	
		2(24)	All equal 3.1 a equal 1.1 b equal 2.0	3	1.12	-2.62	-0.59	1.28	1.12	-3.01	-1.23	0.47	0.00	
학습 동기		2(25)	All equal 105.8 a equal 1.4 b equal 104.4	3	1.07	-2.90	-0.92	0.88	1.07	-2.90	-0.92	0.88	0.00	
		2(26)	All equal 1.4 a equal 17.2 b equal 1.7	4	1.28	-3.00	-1.51	0.33	1.26	-3.13	-1.48	0.30	0.84	
		2(27)	All equal 17.2 a equal 1.7 b equal 15.5	4	0.80	-3.37	-1.16	0.79	0.92	-2.46	-0.78	0.75	0.00	
	학습 전략	2(28)	All equal 15.5 a equal 7.7 b equal 7.8	3	0.86	-3.17	-1.10	0.74	0.86	-2.59	-0.81	0.79	0.10	
		2(29)	All equal 7.7 a equal 2.0 b equal 5.6	4	0.56	-2.75	-0.37	1.53	0.67	-2.10	-0.38	1.38	0.10	
		2(30)	All equal 2.0 a equal 0.6 b equal 1.4	3	0.62	-2.51	-0.34	1.39	0.62	-2.26	-0.40	1.50	0.10	
학습 결과		2(31)	All equal 5.6 a equal 1.4 b equal 4.2	3	0.62	-2.38	-0.37	1.45	0.62	-2.38	-0.37	1.45	0.10	
		2(32)	All equal 18.6 a equal 0.7 b equal 17.9	4	1.76	-3.03	-1.19	0.79	1.87	-2.82	-1.08	1.03	0.00	
		2(33)	All equal 0.7 a equal 17.9 b equal 8.1	3	1.82	-2.98	-1.17	0.78	1.82	-2.86	-1.10	1.05	0.00	
	학습 효과	2(34)	All equal 8.1 a equal 0.8 b equal 7.3	4	1.81	-2.92	-1.13	0.91	1.81	-2.92	-1.13	0.91	0.09	
		2(35)	All equal 0.8 a equal 7.3 b equal 7.3	3	0.83	-3.36	0.28	3.03	0.75	-3.58	0.11	2.89	0.09	
		2(36)	All equal 0.8 a equal 7.3 b equal 7.3	3	0.79	-3.51	0.3	3.16	0.79	-3.44	0.10	2.77	0.09	
학습 의의		2(37)	All equal 7.3 a equal 1.9 b equal 5.4	3	0.79	-3.49	0.2	2.98	0.79	-3.49	0.20	2.98	0.09	
		2(38)	All equal 1.9 a equal 5.0 b equal 0.9	4	1.40	-3.92	-2.12	0.22	1.43	-3.76	-1.99	0.15	0.75	
		2(39)	All equal 5.0 a equal 0.9 b equal 4.1	4	1.24	-3.99	-1.9	0.24	1.14	-4.27	-1.99	0.42	0.29	
	학습 의향	2(40)	All equal 0.9 a equal 4.1 b equal 3.2	3	1.19	-4.13	-1.96	0.25	1.19	-4.13	-1.93	0.41	0.75	
		2(41)	All equal 4.1 a equal 6.1 b equal 1.0	3	1.19	-4.13	-1.94	0.33	1.19	-4.13	-1.94	0.33	0.75	
		2(42)	All equal 6.1 a equal 1.0 b equal 5.1	3	1.51	-2.18	-0.15	1.38	1.40	-2.20	-0.28	1.44	0.19	
학습 의행		2(43)	All equal 1.0 a equal 5.1 b equal 4.1	3	1.45	-2.23	-0.16	1.41	1.45	-2.15	-0.28	1.4	0.19	
		2(44)	All equal 5.1 a equal 12.5 b equal 3.6	3	1.45	-2.19	-0.22	1.41	1.45	-2.19	-0.22	1.41	0.19	
		2(45)	All equal 12.5 a equal 3.6 b equal 8.9	4	1.70	-2.40	-0.79	0.76	1.48	-2.53	-1.02	0.71	0.01	
	2(46)	All equal 3.6 a equal 8.9 b equal 8.9	3	1.58	-2.51	-0.82	0.8	1.58	-2.42	-0.98	0.68	0.01		
	2(47)	All equal 8.9 a equal 8.9 b equal 8.9	3	1.57	-2.47	-0.9	0.74	1.57	-2.47	-0.90	0.74	0.01		

표 IV-82

초등학생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IRT-LR test 결과: non-DIF 문항을 anchor로 사용

하위역량	번호	Test	G2	df	참조 집단				연구 집단				G2 p	
					a	b1	b2	b3	a	b1	b2	b3		
사고력	비 판 적	All equal	16.6	4	1.78	-3.34	-1.27	1.09	1.75	-3.52	-1.02	1.13	0.00	
		a equal	0.1	1	1.76	-3.36	-1.28	1.1	1.76	-3.5	-1.01	1.12		
		b equal	16.5	3	1.76	-3.44	-1.13	1.11	1.76	-3.44	-1.13	1.11		
	감 성 적	All equal	21.4	4	0.74	-4.35	-0.89	1.81	0.55	-4.44	-0.85	2.43		0.00
		a equal	4.4	1	0.64	-4.92	-1	2.04	0.64	-3.89	-0.77	2.11		
		b equal	17.1	3	0.65	-4.29	-0.87	2.06	0.65	-4.29	-0.87	2.06		
지적 도구 활용	언어 능력	All equal	30.3	4	1.9	-3.1	-1.16	0.72	2.11	-2.65	-0.84	0.87	0.00	
		a equal	1.8	1	2.01	-3.01	-1.13	0.7	2.01	-2.72	-0.85	0.9		
		b equal	28.5	3	2.01	-2.83	-0.98	0.79	2.01	-2.83	-0.98	0.79		
		All equal	46.9	4	1.13	-2.38	-0.63	0.84	0.92	-2.15	-0.21	1.48		0.00
		a equal	4.6	1	1.02	-2.57	-0.68	0.91	1.02	-1.99	-0.21	1.35		
		b equal	42.3	3	1.03	-2.23	-0.43	1.11	1.03	-2.23	-0.43	1.11		
	수학 능력	All equal	81.9	4	1.29	-2.79	-0.75	1.27	1.39	-3.01	-1.19	0.59	0.00	
		a equal	0.7	1	1.34	-2.71	-0.74	1.24	1.34	-3.08	-1.22	0.61		
		b equal	81.2	3	1.28	-2.98	-0.99	0.94	1.28	-2.98	-0.99	0.94		
		All equal	78.5	4	0.98	-2.05	-0.3	1.43	0.77	-3.02	-1.02	0.77		0.00
		a equal	5.3	1	0.87	-2.26	-0.33	1.57	0.87	-2.72	-0.93	0.68		
		b equal	73.2	3	0.83	-2.57	-0.64	1.15	0.83	-2.57	-0.64	1.15		
과학 능력	2(7)	All equal	31.8	4	1.42	-2.36	-0.28	1.19	1.19	-2.74	-0.67	1.02	0.00	
		a equal	4.1	1	1.3	-2.51	-0.3	1.26	1.3	-2.58	-0.64	0.95		
		b equal	27.7	3	1.28	-2.57	-0.47	1.12	1.28	-2.57	-0.47	1.12		
		All equal	48.4	4	1.57	-1.9	0.25	1.81	1.44	-2.2	-0.15	1.49		0.00
		a equal	1.1	1	1.51	-1.95	0.26	1.86	1.51	-2.15	-0.15	1.45		
		b equal	47.2	3	1.46	-2.08	0.06	1.68	1.46	-2.08	0.06	1.68		
	2(9)	All equal	105.8	4	1.08	-2.7	-0.61	1.31	0.91	-3.54	-1.44	0.54	0.00	
		a equal	2.7	1	0.99	-2.88	-0.64	1.39	0.99	-3.31	-1.35	0.5		
		b equal	103.1	3	0.94	-3.22	-1.02	0.96	0.94	-3.22	-1.02	0.96		
	정보 통신 활용 능력	2(11)	All equal	13.8	4	0.87	-3.16	-1.09	0.74	0.96	-2.44	-0.81	0.67	0.01
			a equal	0.9	1	0.91	-3.03	-1.05	0.7	0.91	-2.53	-0.83	0.7	
			b equal	12.9	3	0.92	-2.73	-0.93	0.7	0.92	-2.73	-0.93	0.7	
학습적 응성	변화 수용력	All equal	10.2	4	1.8	-3.01	-1.18	0.78	1.89	-2.87	-1.13	0.96	0.04	
		a equal	0.4	1	1.85	-2.97	-1.17	0.77	1.85	-2.9	-1.14	0.98		
		b equal	9.8	3	1.85	-2.93	-1.15	0.87	1.85	-2.93	-1.15	0.87		

분석 결과, 초등학생 집단에서는 문항 1(2), 1(4), 2(2)~2(4), 2(6)~2(9), 2(11)의 총 10개 문항이 성별에 따른 차별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 집단에게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문항이 속해 있는 하위 역량별로 살펴보면, '사고력'이 2문항(비판적 사고력, 감성적 사고력 각 1문항), '지적도구 활용'이 8문항(언어능력 2문항, 수학능력 2문항, 과학능력 3문항, 정보통신활용능력 1문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관련 문항은 <표 IV-83>와 같다.

**표 IV-83 초등학생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DIF 문항 내용**

하위역량		번호	문항 내용	선호 집단
사 고 력	비판적 사고력	1(2)	나는 어떤 상황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모두 인정할 만한 정확한 근거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평가한다	여
	감성적 사고력	1(4)	같은 물건(품질)이라면, 나는 상표(브랜드)와 상관없이 장애인들이 만든 상품을 사겠다	여
지 적 도 구 활 용	언어 능력	2(2)	나는 의견이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글을 쓸 수 있다	여
		2(3)	나는 다양한 언어(한국어 및 외국어: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등을 배우는 것에 흥미가 있다	여
	수학 능력	2(4)	나는 수학의 기본적인 개념, 원리, 법칙을 활용하여 다양한 계산을 할 수 있다	여
		2(6)	나는 수학 공부에 대해 흥미가 있다	여
	과학 능력	2(7)	나는 흥미와 호기심으로 자연이나 과학적 현상에 대한 관찰, 실험, 조사 등 다양한 탐구활동을 한다	여
		2(8)	나는 자연 현상에 대해 과학 지식을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여
		2(9)	나는 과학 공부에 흥미가 있다	여
	정보통신 활용능력	2(11)	나는 컴퓨터(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한글,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 그림판 등을 이용해 문서, 그림, 동영상 등을 작성하거나 편집할 수 있다	여

② 중학생 생애학습역량지수에 대한 성별 DIF 분석 결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DIF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IV-84>, <표 IV-85> 참조).

표 IV-84 중학생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IRT-LR test 결과: 모든 문항을 anchor로 사용

하위역량	번호	Test	G2	df	참조 집단				연구 집단				G2 p			
					a	b1	b2	b3	a	b1	b2	b3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1(1)	All equal 4.6 a equal 0.5 b equal 4.2	4 1 3	1.95 1.91 1.92	-3.14 -3.19 -3.19	-0.99 -1 -1.05	1.43 1.44 1.42	1.86 1.91 1.92	-3.29 -3.23 -3.19	-1.15 -1.13 -1.05	1.41 1.39 1.42	0.33			
		1(2)	All equal 0.8 a equal 8.4 b equal 2.2	4 4 1	1.67 1.73 1.64	-3.41 -3.52 -3.65	-1.18 -1.29 -1.33	1.4 1.08 1.12	1.72 1.54 1.64	-3.4 -3.77 -3.6	-1.12 -1.21 -1.16	1.4 1.25 1.21		0.94 0.08		
		1(3)	All equal 6.2 a equal 10.2 b equal 3.2	3 4 1	1.62 0.38 0.45	-3.65 -9.01 -7.72	-1.27 -1.64 -1.41	1.17 3.54 3.04	1.62 0.53 0.45	-3.65 -5.67 -6.61	-1.27 -1.08 -1.28	1.17 2.89 3.31			0.04	
	감성적 사고력	1(4)	All equal 7 a equal 54.9 b equal 2.8	3 4 1	0.44 0.8 0.87	-7.26 -6.65 -6.12	-1.37 -3.43 -3.17	3.21 0.51 0.46	0.44 0.96 0.87	-7.26 -4.59 -5.01	-1.37 -2.13 -2.31	3.21 0.99 1.06	0.00			
		1(5)	All equal 52.1 a equal 15.7 b equal 8.8	3 4 1	0.83 0.17 0.29	-5.79 -19.97 -11.71	-2.87 -5.51 -3.26	0.76 9.68 5.67	0.83 0.42 0.29	-5.79 -7.82 -11.24	-2.87 -1.8 -2.61	0.76 3.84 5.38		0.00		
		1(6)	All equal 6.9 a equal 22.7 b equal 0.2	3 4 1	0.29 1.68 1.66	-11.62 -3.24 -3.28	-2.99 -0.42 -0.42	5.59 1.77 1.79	0.29 1.63 1.66	-11.62 -2.56 -2.53	-2.99 -0.26 -0.25	5.59 1.81 1.8			0.00	
	언어 능력	2(1)	All equal 22.5 a equal 73.9 b equal 0	4 1 3	1.68 1.66 1.63	-3.24 -3.28 -2.91	-0.42 -0.42 -0.35	1.77 1.79 1.81	1.63 1.66 1.63	-2.56 -2.53 -2.91	-0.26 -0.25 -0.35	1.81 1.8 1.81	0.00			
		2(2)	All equal 73.9 a equal 0 b equal 73.9	4 1 3	1.74 1.75 1.66	-3.25 -3.24 -2.96	-0.91 -0.91 -0.72	1.3 1.29 1.47	1.76 1.75 1.66	-2.51 -2.52 -2.96	-0.45 -0.45 -0.72	1.6 1.6 1.47		0.00		
		2(3)	All equal 119.3 a equal 1.6 b equal 117.7	4 1 3	1.02 0.96 0.87	-2.65 -2.78 -2.5	-0.52 -0.54 -0.2	1.21 1.27 1.8	0.9 0.96 0.87	-1.95 -1.84 -2.5	0.23 0.23 -0.2	2.33 2.23 1.8			0.00	
		수학 능력	2(4)	All equal 24.2 a equal 0.7 b equal 23.6	4 1 3	1.49 1.44 1.46	-2.08 -2.11 -2.16	-0.43 -0.44 -0.56	1.46 1.48 1.34	1.4 1.44 1.46	-2.31 -2.25 -2.16	-0.74 -0.72 -0.56				1.23 1.21 1.34
			2(5)	All equal 8.5 a equal 0 b equal 8.5	4 1 3	1.75 1.74 1.73	-2.38 -2.39 -2.35	-0.6 -0.6 -0.54	1.51 1.51 1.46	1.73 1.74 1.73	-2.28 -2.27 -2.35	-0.47 -0.47 -0.54		1.41 1.41 1.46		0.00
			2(6)	All equal 21.1 a equal 0 b equal 21	4 1 3	1.14 1.13 1.15	-1.27 -1.28 -1.4	0.27 0.27 0.12	1.91 1.92 1.79	1.13 1.13 1.15	-1.61 -1.6 -1.4	-0.06 -0.06 0.12		1.7 1.69 1.79	0.00	
과학 능력	2(7)	All equal 58.4 a equal 0.1 b equal 58.3	4 1 3	1.22 1.24 1.26	-1.61 -1.6 -1.75	0.5 0.5 0.25	2.28 2.27 2	1.25 1.24 1.26	-2.01 -2.03 -1.75	-0.02 -0.02 0.25	1.79 1.8 2	0.00				
	2(8)	All equal 110 a equal 0.6 b equal 109.4	4 1 3	1.57 1.61 1.61	-1.36 -1.34 -1.52	0.58 0.57 0.29	2.14 2.11 1.91	1.66 1.61 1.61	-1.8 -1.84 -1.52	-0.02 -0.02 0.29	1.72 1.75 1.91		0.00			
	2(9)	All equal 107.1 a equal 0.1 b equal 107	4 1 3	1.31 1.33 1.34	-1.35 -1.34 -1.56	0.4 0.4 0.12	2.05 2.03 1.7	1.34 1.33 1.34	-1.95 -1.97 -1.56	-0.21 -0.21 0.12	1.42 1.43 1.7			0.00		
	정보 통신 활용 능력	2(10)	All equal 17.8 a equal 0.3 b equal 17.5	4 1 3	1.33 1.3 1.28	-3.11 -3.16 -3.29	-1.63 -1.66 -1.57	0.57 0.58 0.7	1.27 1.3 1.28	-3.49 -3.41 -3.29	-1.45 -1.42 -1.57				0.82 0.81 0.7	0.00
		2(11)	All equal 29.3 a equal 3.3 b equal 26	4 1 3	1.11 1.03 0.99	-3.02 -3.22 -3.23	-1.2 -1.28 -1.12	0.68 0.73 0.92	0.94 1.03 0.99	-3.31 -3.06 -3.23	-0.95 -0.87 -1.12		1.17 1.1 0.92		0.00	
		2(12)	All equal 50.4 a equal 0.1 b equal 50.3	4 1 3	0.84 0.85 0.8	-4.47 -4.39 -4.37	-2.67 -2.62 -2.52	-0.08 -0.08 0.26	0.87 0.85 0.8	-3.81 -3.88 -4.37	-2.11 -2.15 -2.52		0.63 0.63 0.26	1.00 0.00		
학습 적응성	변화 수용력	3(1)	All equal 0.1 a equal 18.3 b equal 0.7	4 4 1	1.38 0.7 0.74	-3.49 -4.64 -4.44	-1.11 0.33 0.32	1.65 3.51 3.36	1.38 0.78 0.74	-3.53 -4.01 -4.19	-1.13 -0.11 -0.12	1.66 3.08 3.2	1.00 0.00			
		3(2)	All equal 17.7 a equal 7 b equal 0	3 4 1	0.75 1.22 1.21	-4.28 -3.9 -3.92	0.12 -1.56 -1.57	3.25 0.72 0.73	0.75 1.2 1.21	-4.28 -4.04 -4.01	0.12 -1.74 -1.72	3.25 0.86 0.86			0.14	
	지적 호기심	3(3)	All equal 6.9 a equal 0 b equal 6.9	4 1 3	1.22 1.21 1.21	-3.9 -3.92 -3.97	-1.56 -1.57 -1.63	0.72 0.73 0.79	1.2 1.21 1.21	-4.04 -4.01 -3.97	-1.74 -1.72 -1.63	0.86 0.86 0.79	0.00			
		3(4)	All equal 23.1 a equal 0.1 b equal 22.9	4 1 3	1.4 1.42 1.39	-3.88 -3.84 -3.61	-1.75 -1.73 -1.63	0.75 0.74 0.88	1.44 1.42 1.39	-3.21 -3.25 -3.61	-1.42 -1.44 -1.63	1 1 0.88		0.00		
	학습 주도성	3(5)	All equal 6.9 a equal 3.1 b equal 3.8	4 1 3	1.39 1.3 1.3	-2.2 -2.31 -2.31	0.1 0.11 0.05	1.81 1.89 1.88	1.2 1.3 1.3	-2.48 -2.34 -2.31	-0.04 -0.03 0.05	1.97 1.88 1.88			0.14	
		3(6)	All equal 10.6 a equal 9.4 b equal 1.1	4 1 3	1.72 1.54 1.54	-2.34 -2.51 -2.55	-0.67 -0.71 -0.74	1.17 1.25 1.24	1.35 1.54 1.54	-2.89 -2.62 -2.55	-0.85 -0.77 -0.74	1.33 1.24 1.24	0.03			

표 IV-85 중학생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IRT-LR test 결과: non-DIF 문항을 anchor로 사용

하위역량	번호	Test	G2	df	참조 집단				연구 집단				G2 p	
					a	b1	b2	b3	a	b1	b2	b3		
사고력	감성적	1(5) All equal	52.3	4	0.85	-6.31	-3.27	0.48	1	-4.48	-2.09	0.94	0.00	
		a equal	2	1	0.92	-5.89	-3.07	0.45	0.92	-4.82	-2.24	1		
		b equal	50.3	3	0.87	-5.57	-2.78	0.72	0.87	-5.57	-2.78	0.72		
	1(6) All equal	14.4	4	0.19	-18.13	-5.01	8.78	0.43	-7.59	-1.75	3.71	0.01		
	a equal	7.5	1	0.3	-11.29	-3.15	5.47	0.3	-10.84	-2.53	5.17			
	b equal	7	3	0.3	-11.2	-2.89	5.38	0.3	-11.2	-2.89	5.38			
지적 도구 활용 능력	언어 능력	2(1) All equal	22.9	4	1.81	-3.15	-0.41	1.71	1.73	-2.49	-0.27	1.73	0.00	
		a equal	0.3	1	1.78	-3.18	-0.41	1.73	1.78	-2.45	-0.26	1.71		
		b equal	22.7	3	1.74	-2.83	-0.35	1.74	1.74	-2.83	-0.35	1.74		
		2(2) All equal	61	4	1.75	-3.28	-0.92	1.3	1.79	-2.54	-0.48	1.53		0.00
		a equal	0.1	1	1.77	-3.26	-0.92	1.3	1.77	-2.56	-0.48	1.54		
		b equal	60.9	3	1.69	-2.98	-0.74	1.44	1.69	-2.98	-0.74	1.44		
	2(3) All equal	100.1	4	0.87	-3	-0.58	1.36	0.86	-2.07	0.2	2.35	0.00		
	a equal	0	1	0.87	-3.02	-0.58	1.37	0.87	-2.05	0.2	2.33			
	b equal	100.1	3	0.79	-2.73	-0.24	1.92	0.79	-2.73	-0.24	1.92			
	수학 능력	2(4) All equal	24	4	1.28	-2.3	-0.46	1.6	1.18	-2.59	-0.82	1.35	0.00	
		a equal	0.8	1	1.23	-2.35	-0.47	1.64	1.23	-2.5	-0.79	1.31		
		b equal	23.2	3	1.25	-2.39	-0.61	1.46	1.25	-2.39	-0.61	1.46		
		2(6) All equal	22.2	4	0.94	-1.47	0.32	2.2	0.91	-1.9	-0.08	1.93		0.00
		a equal	0.1	1	0.93	-1.48	0.33	2.22	0.93	-1.87	-0.08	1.91		
		b equal	22.1	3	0.95	-1.62	0.14	2.03	0.95	-1.62	0.14	2.03		
	과학 능력	2(7) All equal	56.7	4	0.98	-1.89	0.6	2.66	1.01	-2.35	-0.02	2.02	0.00	
		a equal	0.1	1	1	-1.87	0.6	2.63	1	-2.38	-0.02	2.05		
		b equal	56.6	3	1.02	-2.03	0.3	2.28	1.02	-2.03	0.3	2.28		
2(8) All equal		95.9	4	1.23	-1.59	0.69	2.47	1.34	-2.04	0	1.92	0.00		
a equal		1	1	1.28	-1.54	0.67	2.4	1.28	-2.11	0	1.97			
b equal		94.9	3	1.3	-1.73	0.35	2.15	1.3	-1.73	0.35	2.15			
2(9) All equal		98.9	4	0.98	-1.65	0.51	2.51	1.04	-2.35	-0.25	1.66	0.00		
a equal		0.4	1	1	-1.62	0.5	2.46	1	-2.42	-0.26	1.7			
b equal		98.5	3	1.03	-1.87	0.15	2.01	1.03	-1.87	0.15	2.01			
정보 통신 활용 능력	2(10) All equal	13.6	4	1.12	-3.55	-1.85	0.65	1.11	-3.89	-1.62	0.86	0.01		
	a equal	0	1	1.12	-3.56	-1.85	0.65	1.12	-3.88	-1.62	0.86			
	b equal	13.6	3	1.1	-3.71	-1.76	0.75	1.1	-3.71	-1.76	0.75			
	2(11) All equal	22.4	4	0.95	-3.43	-1.36	0.78	0.77	-3.96	-1.16	1.3		0.00	
	a equal	3.3	1	0.86	-3.71	-1.46	0.84	0.86	-3.57	-1.04	1.2			
	b equal	19.2	3	0.84	-3.74	-1.3	1.02	0.84	-3.74	-1.3	1.02			
2(12) All equal	42.3	4	0.74	-5	-2.97	-0.08	0.76	-4.34	-2.41	0.65	0.00			
a equal	0.1	1	0.75	-4.93	-2.93	-0.08	0.75	-4.4	-2.44	0.66				
b equal	42.2	3	0.71	-4.94	-2.84	0.27	0.71	-4.94	-2.84	0.27				
학습적 의성	변화 수용력	3(2) All equal	17.7	4	0.75	-4.41	0.32	3.33	0.78	-3.96	-0.1	3.03	0.00	
		a equal	0.1	1	0.77	-4.32	0.31	3.26	0.77	-4.04	-0.1	3.09		
		b equal	17.5	3	0.78	-4.14	0.12	3.14	0.78	-4.14	0.12	3.14		
	지적 호기심	3(4) All equal	21.4	4	1.54	-3.66	-1.67	0.71	1.6	-3.01	-1.36	0.92		0.00
		a equal	0.2	1	1.57	-3.62	-1.65	0.7	1.57	-3.05	-1.38	0.93		
		b equal	21.3	3	1.53	-3.4	-1.55	0.82	1.53	-3.4	-1.55	0.82		

분석 결과, 중학생 집단에서는 초등학생 집단보다 더 많은 문항에서 성별에 따라 차별기능이 존재하였으며, 초등학생 집단과 달리 여자 청소년이 아닌 남자 청소년에게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학생 집단에서는 초등학생 집단에서 DIF 문항으로 나타났던 문항 2(2), 2(3), 2(4), 2(6), 2(7), 2(8), 2(9), 2(11) 뿐 아니라, 1(5), 1(6), 2(10), 2(12), 3(2), 3(4)를 포함한 총 15개 문항이 성별에 따른 차별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문항이 속해 있는 하위 역량별로 살펴보면, '사고력'이 2문항(감성적 사고력), '지적도구 활용'이 11문항(수학능력 2문항, 언어능력 과 과학능력, 정보통신활용능력 각 3문항), '학습적응성' 2문항(변화수용력, 지적호기심 각 1문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관련 문항은 <표 IV-86>과 같다.

**표 IV-86 중학생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DIF 문항 내용**

하위역량		번호	문항 내용	성별 집단
사고력	감성적 사고력	1(5)	나는 다른 사람의 표정이나 말투만으로도 그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을 잘 알아차린다	남
		1(6)	나는 보람 있다고 믿는 일을 할 때 합리적인 생각보다는 감정과 느낌에 따라 판단한다	남
지적 도구 활용	언어 능력	2(1)	나는 글의 중심 내용을 찾아 글쓴이의 의도나 숨겨진 주제를 파악하며 읽는다	남
		2(2)	나는 의견이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글을 쓸 수 있다	남
		2(3)	나는 다양한 언어(한국어 및 외국어: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등)를 배우는 것에 흥미가 있다	남
	수학 능력	2(4)	나는 수학의 기본적인 개념, 원리, 법칙을 활용하여 다양한 계산을 할 수 있다	남
		2(6)	나는 수학 공부에 대해 흥미가 있다	남
	과학 능력	2(7)	나는 흥미와 호기심으로 자연이나 과학적 현상에 대한 관찰, 실험, 조사 등 다양한 탐구활동을 한다	남
		2(8)	나는 자연 현상에 대해 과학 지식을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남
		2(9)	나는 과학 공부에 흥미가 있다	남
	정보통신 활용능력	2(10)	나는 컴퓨터(스마트 기기)나 인터넷 상의 다양한 학습자료(인터넷강의, 유튜브, TED 동영상, 웹문서 등)를 활용하여 학습할 수 있다	남
		2(11)	나는 컴퓨터(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한글,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 그림판 등을 이용해 문서, 그림, 동영상 등을 작성하거나 편집할 수 있다	남
2(12)		나는 컴퓨터(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SNS(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을 통해 공유할 수 있다	남	
학습적응성	변화수용력	3(2)	새로 나오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더라도 나는 사용한다	남
		지적호기심	3(4)	나는 궁금한 것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질문한다

③ 고등학생 생애학습역량지수에 대한 성별 DIF 분석 결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DIF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IV-87>, <표 IV-88> 참조).

표 IV-87

고등학생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IRT-LR test 결과: 모든 문항을 anchor로 사용

하위역량	번호	Test	G2	df	참조 집단				연구 집단				G2 p	
					a	b1	b2	b3	a	b1	b2	b3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1(1)	All equal	0.9	4	1.61	-3.69	-1.25	1.75	1.57	-3.95	-1.28	1.8	0.92
		1(2)	All equal	3.6	4	1.49	-4.17	-1.38	1.73	1.49	-3.91	-1.48	1.66	0.46
		1(3)	All equal	8.8	4	1.32	-4.54	-1.64	1.47	1.16	-4.61	-1.6	1.58	0.07
	감성적 사고력	1(4)	a equal	2.9	1	1.22	-4.84	-1.74	1.56	1.22	-4.46	-1.54	1.54	
			b equal	6	3	1.22	-4.61	-1.63	1.55	1.22	-4.61	-1.63	1.55	
			All equal	83.8	4	0.36	-11.01	-1.98	4.26	0.4	-6.23	-0.58	4.12	0.00
		1(5)	a equal	0.5	1	0.39	-10.17	-1.83	3.93	0.39	-6.46	-0.61	4.26	
			b equal	83.4	3	0.37	-7.91	-1.19	4.27	0.37	-7.91	-1.19	4.27	
			All equal	43	4	0.58	-11.01	-4.42	1.08	0.73	-6.14	-2.93	1.38	0.00
	1(6)	a equal	4.4	1	0.68	-9.41	-3.81	0.93	0.68	-6.58	-3.15	1.46		
		b equal	38.6	3	0.66	-7.52	-3.52	1.25	0.66	-7.52	-3.52	1.25		
		All equal	42.1	4	-0.14	29.29	5.87	-13.18	0.2	-16.43	-3.6	8.91	0.00	
지적 도구 활용	언어 능력	2(1)	All equal	25.1	4	1.3	-3.61	-0.58	2.3	1.29	-3.25	-0.28	2.36	0.00
		a equal	0	1	1.29	-3.62	-0.58	2.31	1.29	-3.25	-0.27	2.36		
		b equal	25.1	3	1.28	-3.43	-0.42	2.35	1.28	-3.43	-0.42	2.35		
	2(2)	All equal	40.1	4	1.35	-3.49	-0.87	1.65	1.33	-3.16	-0.53	2.02	0.00	
		a equal	0	1	1.34	-3.51	-0.88	1.66	1.34	-3.15	-0.53	2.02		
		b equal	40.1	3	1.3	-3.36	-0.7	1.89	1.3	-3.36	-0.7	1.89		
	2(3)	All equal	83	4	0.71	-3.82	-0.86	1.95	0.74	-2.65	-0.03	2.6	0.00	
		a equal	0.3	1	0.73	-3.7	-0.83	1.89	0.73	-2.69	-0.03	2.63		
		b equal	82.7	3	0.69	-3.25	-0.41	2.4	0.69	-3.25	-0.41	2.4		
	수학 능력	2(4)	All equal	35.9	4	1.36	-1.84	-0.09	2.1	1.07	-2.45	-0.32	2.02	0.00
		a equal	11.7	1	1.17	-2.05	-0.09	2.34	1.17	-2.28	-0.29	1.91		
		b equal	24.2	3	1.19	-2.14	-0.2	2.06	1.19	-2.14	-0.2	2.06		
2(5)	All equal	4.9	4	1.65	-2.42	-0.53	1.75	1.65	-2.29	-0.42	1.79	0.30		
	a equal	0	1	1.65	-2.42	-0.53	1.75	1.65	-2.29	-0.42	1.79			
	b equal	4.9	3	1.64	-2.36	-0.47	1.78	1.64	-2.36	-0.47	1.78			
2(6)	All equal	21.5	4	1.08	-1.15	0.42	2.35	0.96	-1.6	0.2	2.24	0.00		
	a equal	2.2	1	1	-1.22	0.45	2.48	1	-1.55	0.2	2.18			
	b equal	19.4	3	1.02	-1.38	0.31	2.28	1.02	-1.38	0.31	2.28			
과학 능력	2(7)	All equal	115.4	4	1.27	-1.39	0.63	2.48	1.41	-1.83	0.02	1.9	0.00	
		a equal	2.2	1	1.36	-1.33	0.6	2.37	1.36	-1.88	0.02	1.94		
		b equal	113.2	3	1.37	-1.59	0.28	2.09	1.37	-1.59	0.28	2.09		
	2(8)	All equal	119.6	4	1.74	-1.16	0.47	2.16	1.44	-1.88	0	2.07	0.00	
		a equal	8.2	1	1.55	-1.25	0.51	2.31	1.55	-1.8	0.01	2		
		b equal	111.4	3	1.55	-1.5	0.23	2.11	1.55	-1.5	0.23	2.11		
	2(9)	All equal	107.2	4	1.36	-1.14	0.35	2.06	1.21	-1.9	-0.2	1.78	0.00	
		a equal	2.8	1	1.26	-1.21	0.37	2.17	1.26	-1.83	-0.19	1.73		
		b equal	104.4	3	1.27	-1.5	0.06	1.89	1.27	-1.5	0.06	1.89		
정보통신 활용능력	2(10)	All equal	53.7	4	1.01	-4.07	-2.41	0.48	1.22	-3.45	-1.69	0.85	0.00	
		a equal	5.3	1	1.14	-3.68	-2.19	0.43	1.14	-3.63	-1.78	0.88		
		b equal	48.4	3	1.1	-3.75	-2	0.7	1.1	-3.75	-2	0.7		
	2(11)	All equal	112.8	4	1	-3.74	-1.73	0.89	1.05	-2.93	-0.85	1.46	0.00	
		a equal	0.4	1	1.03	-3.63	-1.69	0.87	1.03	-2.97	-0.87	1.47		
		b equal	112.4	3	0.98	-3.37	-1.26	1.24	0.98	-3.37	-1.26	1.24		
2(12)	All equal	145.8	4	0.85	-5.6	-3.62	-0.14	0.99	-3.72	-2.14	0.72	0.00		
	a equal	2.4	1	0.94	-5.13	-3.33	-0.13	0.94	-3.87	-2.23	0.74			
	b equal	143.4	3	0.88	-4.54	-2.79	0.36	0.88	-4.54	-2.79	0.36			
학습 적응성	변화 수용력	3(1)	All equal	13.7	4	1.02	-5.17	-1.44	2.09	0.95	-4.5	-1.3	2.37	0.01
		a equal	0.7	1	0.97	-5.37	-1.49	2.17	0.97	-4.42	-1.28	2.33		
		b equal	13	3	0.96	-4.79	-1.38	2.28	0.96	-4.79	-1.38	2.28		
	3(2)	All equal	36.8	4	0.5	-6.61	0.26	5.28	0.74	-4.2	-0.16	3.16	0.00	
		a equal	10.6	1	0.66	-5.12	0.2	4.1	0.66	-4.64	-0.19	3.44		
		b equal	26.3	3	0.68	-4.72	-0.02	3.6	0.68	-4.72	-0.02	3.6		
	지적 호기심	3(3)	All equal	8.5	4	0.96	-5.17	-1.87	1.45	1.01	-4.4	-1.84	1.21	0.07
			a equal	0.4	1	0.99	-5.02	-1.82	1.41	0.99	-4.47	-1.87	1.23	
			b equal	8.1	3	1	-4.64	-1.83	1.3	1	-4.64	-1.83	1.3	
	3(4)	All equal	48	4	1.28	-4.08	-1.81	1	0.93	-4.78	-1.74	1.54	0.00	
		a equal	15.7	1	1.04	-4.83	-2.11	1.17	1.04	-4.35	-1.59	1.43		
		b equal	32.3	3	1.02	-4.61	-1.84	1.33	1.02	-4.61	-1.84	1.33		
학습 주도성	3(5)	All equal	16.3	4	1.1	-2.98	0.15	2.62	0.97	-3.48	-0.03	2.47	0.00	
		a equal	2.6	1	1.02	-3.18	0.16	2.79	1.02	-3.35	-0.03	2.4		
		b equal	13.7	3	1.03	-3.24	0.06	2.52	1.03	-3.24	0.06	2.52		
3(6)	All equal	13.4	4	1.36	-3.21	-0.92	1.67	1.15	-3.67	-1.12	1.61	0.01		
	a equal	5.1	1	1.23	-3.47	-0.99	1.79	1.23	-3.51	-1.07	1.55			
b equal	8.4	3	1.24	-3.47	-1.02	1.64	1.24	-3.47	-1.02	1.64				

표 IV-88

고등학생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IRT-LR test 결과: non-DIF 문항을 anchor로 사용

하위역량	번호	Test	G2	df	참조 집단				연구 집단				G2 p	
					a	b1	b2	b3	a	b1	b2	b3		
사고력	감성적 사고력	1(4)	All equal	82.5	4	0.38	-10.47	-1.89	4.03	0.43	-5.93	-0.59	3.86	0.00
		a equal	0.5	1	0.41	-9.68	-1.75	3.73	0.41	-6.17	-0.62	4		
		b equal	82.1	3	0.4	-7.52	-1.15	4.02	0.4	-7.52	-1.15	4.02		
	1(5)	All equal	42.7	4	0.6	-10.6	-4.28	1.03	0.82	-5.6	-2.72	1.24	0.00	
		a equal	6.4	1	0.74	-8.7	-3.55	0.86	0.74	-6.13	-2.97	1.33		
		b equal	36.3	3	0.72	-6.96	-3.3	1.14	0.72	-6.96	-3.3	1.14		
1(6)	All equal	27.9	4	-0.12	34.57	6.93	-15.56	0.12	-27.19	-6.04	14.45	0.00		
	a equal	10	1	0.04	-105.7	-21.32	47.39	0.04	-83.64	-18.78	43.8			
b equal	17.9	3	0.04	-93.9	-20.46	46.67	0.04	-93.9	-20.46	46.67				
지적 도구 활용	언어 능력	2(1)	All equal	22.1	4	1.45	-3.38	-0.56	2.15	1.33	-3.21	-0.31	2.25	0.00
			a equal	1.2	1	1.37	-3.52	-0.58	2.23	1.37	-3.14	-0.3	2.21	
			b equal	20.9	3	1.36	-3.32	-0.43	2.22	1.36	-3.32	-0.43	2.22	
		2(2)	All equal	33.4	4	1.52	-3.24	-0.83	1.53	1.37	-3.12	-0.57	1.93	0.00
			a equal	1.8	1	1.42	-3.39	-0.87	1.59	1.42	-3.03	-0.56	1.89	
			b equal	31.6	3	1.39	-3.24	-0.71	1.78	1.39	-3.24	-0.71	1.78	
	2(3)	All equal	66.6	4	0.58	-4.59	-1.03	2.33	0.63	-3.12	-0.11	2.86	0.00	
		a equal	0.4	1	0.61	-4.35	-0.98	2.21	0.61	-3.2	-0.12	2.92		
		b equal	66.2	3	0.58	-3.84	-0.52	2.72	0.58	-3.84	-0.52	2.72		
	수학 능력	2(4)	All equal	31	4	1	-2.28	-0.1	2.6	0.9	-2.8	-0.39	2.21	0.00
			a equal	1.3	1	0.93	-2.42	-0.11	2.75	0.93	-2.71	-0.38	2.15	
			b equal	29.7	3	0.96	-2.51	-0.25	2.34	0.96	-2.51	-0.25	2.34	
		2(6)	All equal	25.6	4	0.66	-1.7	0.62	3.45	0.68	-2.15	0.2	2.77	0.00
			a equal	0.1	1	0.68	-1.67	0.61	3.4	0.68	-2.16	0.2	2.8	
			b equal	25.6	3	0.69	-1.88	0.37	2.96	0.69	-1.88	0.37	2.96	
	과학 능력	2(7)	All equal	111.2	4	0.74	-2.09	0.95	3.71	0.95	-2.42	-0.01	2.33	0.00
			a equal	5.6	1	0.87	-1.83	0.83	3.25	0.87	-2.59	-0.02	2.47	
			b equal	105.6	3	0.9	-2.13	0.36	2.69	0.9	-2.13	0.36	2.69	
2(8)		All equal	95.6	4	1.03	-1.63	0.66	2.98	0.98	-2.44	-0.02	2.51	0.00	
		a equal	0.3	1	1	-1.68	0.67	3.05	1	-2.4	-0.02	2.47		
		b equal	95.3	3	1.03	-1.96	0.3	2.65	1.03	-1.96	0.3	2.65		
2(9)		All equal	98	4	0.73	-1.83	0.55	3.26	0.76	-2.69	-0.33	2.32	0.00	
		a equal	0.2	1	0.75	-1.79	0.53	3.18	0.75	-2.73	-0.34	2.35		
		b equal	97.9	3	0.78	-2.17	0.06	2.59	0.78	-2.17	0.06	2.59		
정보 통신 활용 능력	2(10)	All equal	44.8	4	0.74	-5.3	-3.13	0.6	1.05	-3.9	-1.97	0.88	0.00	
		a equal	10.9	1	0.93	-4.35	-2.59	0.49	0.93	-4.28	-2.15	0.94		
		b equal	33.8	3	0.9	-4.43	-2.4	0.75	0.9	-4.43	-2.4	0.75		
	2(11)	All equal	89.8	4	0.82	-4.43	-2.05	1.04	0.94	-3.27	-1.01	1.5	0.00	
		a equal	1.6	1	0.9	-4.12	-1.91	0.97	0.9	-3.39	-1.04	1.54		
		b equal	88.2	3	0.85	-3.83	-1.47	1.32	0.85	-3.83	-1.47	1.32		
2(12)	All equal	129.8	4	0.72	-6.52	-4.21	-0.17	0.95	-3.87	-2.28	0.69	0.00		
	a equal	5.9	1	0.87	-5.51	-3.58	-0.15	0.87	-4.16	-2.45	0.72			
	b equal	124	3	0.81	-4.88	-3.04	0.33	0.81	-4.88	-3.04	0.33			
학습 적응성	변화 수용력	3(1)	All equal	11.5	4	1.04	-5.07	-1.42	2.06	1.01	-4.28	-1.27	2.22	0.02
			a equal	0.1	1	1.02	-5.15	-1.44	2.09	1.02	-4.24	-1.26	2.2	
			b equal	11.3	3	1.02	-4.58	-1.35	2.16	1.02	-4.58	-1.35	2.16	
		3(2)	All equal	39.8	4	0.45	-7.32	0.3	5.83	0.7	-4.38	-0.17	3.22	0.00
			a equal	10	1	0.62	-5.46	0.22	4.37	0.62	-4.93	-0.21	3.57	
			b equal	29.8	3	0.64	-4.97	-0.02	3.75	0.64	-4.97	-0.02	3.75	
	지적 호기심	3(4)	All equal	29.1	4	1.11	-4.57	-2.02	1.1	0.93	-4.74	-1.77	1.48	0.00
			a equal	3.4	1	0.99	-5.01	-2.19	1.2	0.99	-4.51	-1.69	1.42	
			b equal	25.8	3	0.98	-4.78	-1.93	1.34	0.98	-4.78	-1.93	1.34	
		3(5)	All equal	16	4	0.98	-3.3	0.17	2.87	0.94	-3.55	-0.04	2.48	0.00
			a equal	0.2	1	0.95	-3.36	0.17	2.93	0.95	-3.51	-0.03	2.46	
			b equal	15.8	3	0.97	-3.39	0.06	2.6	0.97	-3.39	0.06	2.6	
3(6)	All equal	11.9	4	1.26	-3.43	-0.97	1.76	1.13	-3.72	-1.16	1.61	0.02		
	a equal	1.8	1	1.18	-3.61	-1.02	1.84	1.18	-3.6	-1.12	1.57			
	b equal	10.2	3	1.19	-3.57	-1.06	1.67	1.19	-3.57	-1.06	1.67			

분석 결과, 고등학생 집단에서는 초등학생, 중학생 집단보다 더 많은 문항에서 성별에 따라 차별기능이 존재하였고 중학생 집단과 마찬가지로 여자 청소년이 아닌 남자청소년에게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등학생 집단에서는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 집단에서 DIF 문항으로 나타났던 문항(1(4)~1(6), 2(1)~2(12), 3(2), 3(4)) 뿐 아니라, 3(5)의 총 17개 문항이 성별에 따른 차별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문항이 속해 있는 하위 역량별로 살펴보면, ‘사고력’이 3문항(감성적 사고력), ‘지적도구 활용’이 11문항(언어능력 3문항, 수학능력 2문항, 과학능력 3문항, 정보통신활용능력 3문항), ‘학습적응성’ 3문항(변화수용력, 지적호기심, 학습주도성 각 1문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관련 문항은 <표 IV-89>과 같다.

**표 IV-89 고등학생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DIF 문항 내용**

하위역량		번호	문항 내용	성별 집단	
사고력	감성적 사고력	1(4)	같은 물건(품질)이라면 나는 상표(브랜드)와 상관없이 장애인들이 만든 상품을 사겠다	남	
		1(5)	나는 다른 사람의 표정이나 말투만으로도 그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을 잘 알아차린다	남	
		1(6)	나는 보람 있다고 믿는 일을 할 때 합리적인 생각보다는 감정과 느낌에 따라 판단한다	남	
지적 도구 활용	언어 능력	2(1)	나는 글의 중심 내용을 찾아 글쓴이의 의도나 숨겨진 주제를 파악하며 읽는다	남	
		2(2)	나는 의견이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글을 쓸 수 있다	남	
		2(3)	나는 다양한 언어(한문어 및 외문어: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등)를 배우는 것에 흥미가 있다	남	
	수학 능력	2(4)	나는 수학의 기본적인 개념, 원리, 법칙을 활용하여 다양한 계산을 할 수 있다	남	
		2(6)	나는 수학 공부에 대해 흥미가 있다	남	
	과학 능력	2(7)	나는 흥미와 호기심으로 자연이나 과학적 현상에 대한 관찰, 실험, 조사 등 다양한 탐구활동을 한다	남	
		2(8)	나는 자연 현상에 대해 과학 지식을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남	
		2(9)	나는 과학 공부에 흥미가 있다	남	
	정보통신 활용능력	2(10)	나는 컴퓨터(스마트 기기)나 인터넷 상의 다양한 학습자료(인터넷강의, 유튜브, TED 동영상, 웹문서 등)를 활용하여 학습할 수 있다	남	
2(11)		나는 컴퓨터(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한글,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 그림판 등을 이용해 문서, 그림, 동영상 등을 작성하거나 편집할 수 있다	남		
2(12)		나는 컴퓨터(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SNS(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 공유할 수 있다	남		
학습 적응성	변화수용력	3(2)	새로 나오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더라도 나는 사용한다	남	
		지적호기심	3(4)	나는 궁금한 것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질문한다	남
			3(5)	나는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끝낸 다음에도 왜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찾아본다	남

④ 대학생 생애학습역량지수에 대한 성별 DIF 분석 결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DIF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IV-90>, <표 IV-91> 참조). 분석 결과, 대학생 집단에서는 초, 중등학생 집단보다 성별에 따른 차별문항기능이 적게 도출되었으며, 중등학생 집단과 마찬가지로 여자 청소년이 아닌 남자청소년에게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 집단에서는 초, 중등학생 집단에서 DIF 문항으로 나타났던 문항 2(11)뿐 아니라, 1(5), 1(6), 2(10), 2(12)의 총 5개 문항이 성별에 따른 차별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문항이 속해 있는 하위 역량별로 살펴보면, ‘사고력’이 2문항(감성적 사고력), ‘지적도구 활용’이 3문항(정보통신활용능력)을 포함하고 있었다. 관련 문항은 <표 IV-92>과 같다.

표 IV-90

대학생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IRT-LR test 결과: 모든 문항을 anchor로 사용

하위역량	번호	Test	G2	df	참조 집단				연구 집단				G2 p	
					a	b1	b2	b3	a	b1	b2	b3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1(1)	All equal	5	4	1.63	-4.04	-1.68	1.94	1.49	-3.53	-1.52	1.96	0.29
		a equal	0.4	1	1.55	-4.19	-1.72	1.99	1.55	-3.43	-1.48	1.92		
		b equal	4.6	3	1.54	-3.78	-1.61	1.96	1.54	-3.78	-1.61	1.96		
	사고력	1(2)	All equal	8.7	4	1.18	-4.81	-2.03	2.17	1.26	-3.83	-1.97	1.67	0.07
		a equal	0.2	1	1.22	-4.67	-1.98	2.12	1.22	-3.92	-2.01	1.7		
		b equal	8.5	3	1.24	-4.21	-1.98	1.87	1.24	-4.21	-1.98	1.87		
	사고력	1(3)	All equal	4.7	4	1.3	-4.48	-1.68	1.54	1.16	-4.09	-1.61	1.55	0.32
		a equal	0.7	1	1.22	-4.72	-1.75	1.61	1.22	-3.91	-1.54	1.5		
		b equal	4	3	1.22	-4.28	-1.66	1.55	1.22	-4.28	-1.66	1.55		
	감성적 사고력	1(4)	All equal	8.2	4	0.47	-8.77	-2.1	3.23	0.44	-6.95	-1.89	3.74	0.08
			a equal	0.1	1	0.45	-9.11	-2.17	3.35	0.45	-6.78	-1.84	3.65	
			b equal	8.1	3	0.44	-7.84	-2.04	3.56	0.44	-7.84	-2.04	3.56	
1(5)		All equal	15.4	4	0.63	-10.1	-3.74	1.64	0.9	-5.4	-2.05	1.6	0.00	
		a equal	3.1	1	0.77	-8.41	-3.15	1.39	0.77	-6.2	-2.37	1.78		
		b equal	12.3	3	0.74	-7.17	-2.83	1.64	0.74	-7.17	-2.83	1.64		
1(6)	All equal	15.1	4	-0.11	32.3	7.95	-1867	0.24	-11.76	-2.61	7.23	0.00		
	a equal	7	1	0.09	-40.76	-10.08	23.53	0.09	-33.95	-7.72	20.23			
	b equal	8.1	3	0.08	-37.15	-8.93	21.92	0.08	-37.15	-8.93	21.92			
지적 도구 활용	언어 능력	2(1)	All equal	1.3	4	1.21	-4.49	-1.06	2.35	1.19	-4	-1.11	2.33	0.86
		All equal	5.5	4	1.17	-3.9	-0.74	2.17	1.47	-2.75	-0.58	1.91		
		2(2)	a equal	2.8	1	1.32	-3.55	-0.69	2	1.32	-3	-0.64	2.03	0.24
			b equal	2.8	3	1.31	-3.28	-0.67	2.02	1.31	-3.28	-0.67	2.02	
		2(3)	All equal	6.8	4	0.56	-5.16	-1.09	2.88	0.6	-4.18	-0.47	3.07	0.15
			a equal	0.1	1	0.58	-4.95	-1.05	2.76	0.58	-4.32	-0.49	3.16	
	b equal		6.6	3	0.56	-4.78	-0.8	3.05	0.56	-4.78	-0.8	3.05		
	수학 능력	2(4)	All equal	4.6	4	1.05	-2.29	-0.19	2.53	0.95	-2.85	-0.36	2.39	0.33
			a equal	0.5	1	0.99	-2.39	-0.2	2.63	0.99	-2.72	-0.34	2.31	
			b equal	4.1	3	1.01	-2.51	-0.27	2.43	1.01	-2.51	-0.27	2.43	
		2(5)	All equal	14.2	4	1.54	-2.88	-0.58	1.89	1.02	-3.27	-0.7	2.28	0.01
			a equal	8.8	1	1.23	-3.38	-0.65	2.17	1.23	-2.77	-0.58	2.01	
			b equal	5.4	3	1.23	-3.08	-0.62	2.09	1.23	-3.08	-0.62	2.09	
	2(6)	All equal	5.2	4	0.9	-1.59	0.37	2.92	0.68	-2.28	0.2	3.24	0.27	
		a equal	2.4	1	0.78	-1.79	0.42	3.29	0.78	-2.01	0.2	2.92		
		b equal	2.8	3	0.79	-1.87	0.3	3.05	0.79	-1.87	0.3	3.05		
	과학 능력	2(7)	All equal	10.2	4	1.35	-1.68	0.01	2.24	1.19	-2.39	-0.2	2.26	0.04
			a equal	0.9	1	1.27	-1.75	0.01	2.34	1.27	-2.27	-0.19	2.17	
b equal			9.3	3	1.29	-1.93	-0.08	2.22	1.29	-1.93	-0.08	2.22		
2(8)		All equal	11.2	4	1.67	-1.41	0.1	2.17	1.21	-2.05	-0.1	2.75	0.02	
		a equal	6	1	1.42	-1.55	0.11	2.39	1.42	-1.8	-0.08	2.5		
		b equal	5.3	3	1.43	-1.65	0.02	2.44	1.43	-1.65	0.02	2.44		
2(9)		All equal	5.7	4	1.23	-1.58	0.09	2.07	1.17	-1.88	-0.14	2.24	0.22	
		a equal	0.1	1	1.2	-1.61	0.09	2.11	1.2	-1.84	-0.14	2.21		
		b equal	5.5	3	1.21	-1.7	-0.02	2.15	1.21	-1.7	-0.02	2.15		
정보 통신 활용 능력	2(10)	All equal	14.8	4	1.04	-3.75	-2.03	0.91	1.23	-3.57	-1.46	1.21	0.01	
		a equal	1.3	1	1.13	-3.5	-1.9	0.85	1.13	-3.82	-1.56	1.27		
		b equal	13.5	3	1.09	-3.72	-1.77	1.08	1.09	-3.72	-1.77	1.08		
	2(11)	All equal	20.1	4	0.99	-3.61	-1.69	1.12	1.18	-2.89	-0.97	1.47	0.00	
		a equal	1.5	1	1.08	-3.34	-1.57	1.04	1.08	-3.1	-1.05	1.55		
		b equal	18.6	3	1.03	-3.35	-1.36	1.33	1.03	-3.35	-1.36	1.33		
2(12)	All equal	15.9	4	0.93	-4.39	-2.68	0.79	0.9	-3.92	-1.91	1.16	0.00		
	a equal	0	1	0.91	-4.44	-2.71	0.8	0.91	-3.88	-1.89	1.15			
	b equal	15.8	3	0.88	-4.29	-2.36	1	0.88	-4.29	-2.36	1			
학습 적응성	변화 수용력	3(1)	All equal	1.2	4	1.13	-5.37	-1.52	2.31	1.21	-4.42	-1.39	2.15	0.88
		All equal	2.9	4	0.54	-5.89	-0.08	4.67	0.56	-5.16	-0.3	4.32		
	자적 호심	3(3)	All equal	1.2	4	1.01	-4.76	-1.72	1.77	0.91	-5.04	-1.94	1.76	0.88
		All equal	2	4	0.96	-5	-1.92	1.65	1.03	-4.49	-1.79	1.78		
	학습 주도성	3(5)	All equal	7.4	4	1.28	-2.82	-0.41	2.12	1.01	-3.72	-0.74	2.19	0.12
			a equal	2.7	1	1.13	-3.1	-0.44	2.31	1.13	-3.37	-0.66	2.02	
3(6)		b equal	4.7	3	1.15	-3.19	-0.54	2.14	1.15	-3.19	-0.54	2.14		
		All equal	9.6	4	0.93	-4.44	-1.3	2.28	1.03	-3.78	-1.55	1.77		
3(6)	a equal	0.4	1	0.98	-4.25	-1.25	2.19	0.98	-3.94	-1.62	1.82	0.05		
	b equal	9.2	3	1	-4.03	-1.4	1.97	1	-4.03	-1.4	1.97			

표 IV-91 대학생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IRT-LR test 결과: non-DIF 문항을 anchor로 사용

하위역량	번호	Test	G2	df	참조 집단				연구 집단				G2 p	
					a	b1	b2	b3	a	b1	b2	b3		
사고력	1(5)	All equal	18.1	4	0.51	-12.39	-4.53	1.98	0.83	-5.68	-2.12	1.76	0.00	
		a equal	4.5	1	0.67	-9.55	-3.54	1.56	0.67	-6.93	-2.61	2.04		
		b equal	13.6	3	0.63	-8.29	-3.24	1.89	0.63	-8.29	-3.24	1.89		
	1(6)	All equal	15.4	4	-0.14	25.18	6.22	-14.56	0.23	-12.41	-2.68	7.74		0.00
		a equal	7.2	1	0.05	-63.1	-15.56	36.44	0.05	-52.55	-11.94	31.27		
		b equal	8.2	3	0.05	-59.73	-14.34	35.21	0.05	-59.73	-14.34	35.21		
지적도구 활용	수학능력	2(5)	All equal	11.6	4	1.46	-3	-0.59	1.94	1.11	-2.91	-0.54	2.2	0.02
		a equal	3.7	1	1.27	-3.32	-0.64	2.13	1.27	-2.6	-0.47	2.03		
		b equal	7.8	3	1.25	-3.01	-0.56	2.1	1.25	-3.01	-0.56	2.1		
	정보통신 활용능력	2(10)	All equal	16.7	4	0.73	-5.04	-2.67	1.19	1.02	-4.03	-1.6	1.41	0.00
			a equal	3.4	1	0.87	-4.31	-2.3	1.03	0.87	-4.62	-1.85	1.55	
			b equal	13.3	3	0.83	-4.63	-2.16	1.34	0.83	-4.63	-2.16	1.34	
		2(11)	All equal	21.7	4	0.67	-5.03	-2.29	1.54	0.98	-3.25	-1.05	1.69	0.00
			a equal	4.4	1	0.82	-4.16	-1.91	1.28	0.82	-3.82	-1.25	1.9	
			b equal	17.2	3	0.77	-4.25	-1.68	1.68	0.77	-4.25	-1.68	1.68	
		2(12)	All equal	15.1	4	0.6	-6.41	-3.85	1.13	0.7	-4.82	-2.32	1.44	0.00
			a equal	0.4	1	0.65	-5.97	-3.59	1.06	0.65	-5.15	-2.49	1.51	
			b equal	14.7	3	0.61	-5.88	-3.19	1.35	0.61	-5.88	-3.19	1.35	

표 IV-92 대학생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DIF 문항 내용

하위역량	번호	문항 내용	선호 집단
사고력	1(5)	나는 다른 사람의 표정이나 말투만으로도 그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을 잘 알아차린다	남
	1(6)	나는 보람 있다고 믿는 일을 할 때 합리적인 생각보다는 감정과 느낌에 따라 판단한다	남
지적도구 활용	2(10)	나는 컴퓨터(스마트 기기)나 인터넷 상의 다양한 학습자료(인터넷강의, 유튜브, TED 동영상, 웹문서 등)를 활용하여 학습할 수 있다	남
	2(11)	나는 컴퓨터(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한글,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 그림판 등을 이용해 문서, 그림, 동영상 등을 작성하거나 편집할 수 있다	남
	2(12)	나는 컴퓨터(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SNS(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을 통해 공유할 수 있다	남

⑤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에 대한 성별 DIF 분석 결과  
 이 절에서는 여자 청소년의 역량 지수가 상위 학교급으로 갈수록 남자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로 낮게 나타나는 결과를 탐색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생애학습역량' 지수에 대한 성별 DIF를 실시하였다. 즉, 여자 청소년의 역량이 중학교 이후 남자 청소년보다 낮게 나타나는 것이 성별에 따른 학생들의 역량 차이에서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검사문항의 측정학적 특성 차이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분석 결과, 초등학생 집단에서는 10개 문항이 여자 청소년에게 더 유리한 반면, 중등학생과 대학생 집단에서는 각각 15개, 17개, 5개 문항이 남자 청소년에게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생애학습역량 검사도구의 일부 문항이 초등학생용의 경우 여자 청소년에게 유리한 형태로 개발된 반면, 중·고등학생용, 대학생용의 경우 남자 청소년에게 더 유리한 형태로 개발된 부분이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다. 다만, 성별에 따른 차별기능문항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역량 검사도구에 응답한 학생들과 내용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면담 등을 실시하여 향후 면밀히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교급별로 특정 성별의 청소년에게 더 유리하다고 분석된 문항의 경우 문항에 대한 유·불리가 능력집단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한다면 향후 검사도구에 대한 결과 해석 및 타당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초, 중등학생보다 대학생 집단에서 차별기능문항이 적게 나타난 것이 대학생 집단의 표본 크기가 작기 때문인지, 아니면 검사 문항 이외의 다른 요인이 작용해서 기인된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탐색이 필요하다(김종민, 이문수, 안성훈, 2016). 예컨대, 학령이 어린 경우 모르는 것을 배울 때 주눅 들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의 능력이나 수준을 과대평가한다고 보고되는 데(김태준 외(2016), 이러한 현상이 여자 청소년에게 두드러지는 원인에 대한 추가적 고찰 역시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Lai, Teresi, & Gershon (2005)에 따르면, DIF 분석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DIF 분석 방법을 함께 적용할 필요가 있다. 즉, 특정 방법을 이용하여 일차적으로 DIF 문항을 선정하고, 또다른 방법을 활용하여 해당 문항이 여전히 DIF 문항인지를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IRT-LR 방법만을 사용하여 청소년 역량지수에 대한 성별 DIF 여부를 탐색적으로 고찰한 만큼, 추후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DIF 방법을 활용한 종합적 접근이 요청된다. 다만, '지적도구 활용'의 '정보통신활용능력'에 해당하는 2(11)번 문항("나는 컴퓨터(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한글,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 그림판 등을 이용해 문서, 그림, 동영상 등을 작성하거나 편집할 수 있다")은 초, 중, 고등학생과 대학생 집단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차별기능문항으로 선정되어 향후 검사의 목적과 내용 타당도를 고려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 측정도구에 대한 차별기능문항 분석

차별기능문항 분석에 앞서, 성별에 따른 생활관리역량 전체와 네 가지 하위역량 차이를 학교급별로 나타내면 <표 IV-93>와 같다.

**표 IV-93 성별에 따른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 하위역량별 역량 차이: 학교급별**

학교급	구분	사례수	전체		건강 관리		과제 관리		상황 대처		정서 조절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초등학생	전체	2,509	2.37	0.29	3.30	0.49	2.91	0.64	1.64	0.50	2.16	0.52
	남	1,267	2.38	0.29	3.27	0.49	2.86	0.65	1.72	0.51	2.17	0.52
	여	1,242	2.36	0.28	3.32	0.48	2.96	0.63	1.57	0.48	2.16	0.53
통계량			t=2.20*		t=-2.56*		t=-3.90**		t=7.50**		t=0.51	
중학생	전체	2,541	2.50	0.29	3.18	0.46	2.97	0.58	1.93	0.55	2.35	0.50
	남	1,176	2.50	0.31	3.22	0.47	2.97	0.59	1.95	0.56	2.29	0.53
	여	1,365	2.50	0.28	3.14	0.45	2.97	0.58	1.91	0.55	2.41	0.47
통계량			t=-0.15		t=4.12**		t=-0.14		t=1.72		t=-6.13**	
고등학생	전체	3,366	2.52	0.29	3.13	0.44	2.99	0.53	1.99	0.54	2.37	0.49
	남	1,901	2.53	0.30	3.18	0.47	2.97	0.54	2.02	0.56	2.34	0.52
	여	1,465	2.51	0.27	3.07	0.40	3.01	0.51	1.96	0.50	2.40	0.45
통계량			t=2.22*		t=6.86**		t=-2.29*		t=3.57**		t=-3.97**	
대학생	전체	995	2.51	0.29	3.08	0.42	3.02	0.45	2.06	0.53	2.28	0.51
	남	500	2.53	0.31	3.14	0.43	3.04	0.46	2.08	0.54	2.23	0.54
	여	495	2.50	0.27	3.03	0.39	2.99	0.44	2.04	0.51	2.33	0.47
통계량			t=1.17		t=4.50**		t=1.64		t=1.14		t=-3.20**	

\*,p<0.05, \*\*,p<0.01

분석 결과,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남자 청소년의 역량 평균 값이 여자 청소년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반면, 중학생의 경우 성별에 따른 역량 평균 값에 차이가 없었으며, 대학생의 경우 남자 청소년의 역량 평균 값이 여자 청소년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처럼 생활관리역량의 경우 생애학습역량과 달리 초등학생 단계부터 남자 청소년의 평균 값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하위 역량별로는 성별에 따라 다양한 패턴을 보이는 만큼 해당 역량 역시 학교급별로 성별에 따른 DIF 분석을 실시하였다.

① 초등학생 생활관리역량지수에 대한 성별 DIF 분석 결과

우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에 있어 성별에 따른 DIF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IV-94>, <표 IV-95> 참조).

**표 IV-94 초등학생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IRT-LR test 결과: 모든 문항을 anchor로 사용**

하위역량	번호	Test	G2	df	참조 집단				연구 집단				G2 p	
					a	b1	b2	b3	a	b1	b2	b3		
위생 관리	10(1)	All equal	4.2	4	-1.14	4.46	1.88	-0.09	-1.06	4.28	2.05	-0.14	0.38	
		a equal	0.6	1	-1.1	4.61	1.93	-0.09	-1.1	4.16	2	-0.12		
		b equal	3.6	3	-1.1	4.33	1.97	-0.11	-1.1	4.33	1.97	-0.11		
	10(2)	All equal	13.4	4	-0.91	5.28	3.1	0.98	-0.93	4.71	2.69	0.64	0.01	
		a equal	0	1	-0.92	5.23	3.07	0.98	-0.92	4.74	2.7	0.64		
		b equal	13.4	3	-0.95	4.83	2.8	0.79	-0.95	4.83	2.8	0.79		
	10(3)	All equal	8	4	-1.19	4.46	1.75	-0.18	-0.98	4.89	2.14	-0.13	0.09	
		a equal	4.2	1	-1.08	4.86	1.88	-0.2	-1.08	4.52	2.01	-0.09		
		b equal	3.8	3	-1.07	4.69	1.96	-0.15	-1.07	4.69	1.96	-0.15		
건강 관리	10(4)	All equal	54.5	4	-1.5	3.12	1.13	-0.42	-1.51	3.33	1.62	-0.07	0.00	
		a equal	0	1	-1.5	3.11	1.13	-0.41	-1.5	3.34	1.62	-0.08		
		b equal	54.5	3	-1.43	3.35	1.42	-0.26	-1.43	3.35	1.42	-0.26		
	10(5)	All equal	181.9	4	-1.02	3.09	0.54	-1	-1.1	3.79	1.55	0.04	0.00	
		a equal	0.5	1	-1.06	3.01	0.53	-0.97	-1.06	3.89	1.59	0.03		
		b equal	181.3	3	-0.91	3.84	1.15	-0.53	-0.91	3.84	1.15	-0.53		
안전 및 스포츠 관리	10(6)	All equal	15.9	4	-1.58	3.84	1.95	0.11	-1.23	4.08	2.03	-0.01	0.00	
		a equal	8.3	1	-1.39	4.24	2.12	0.11	-1.39	3.73	1.89	0.01		
		b equal	7.7	3	-1.4	3.89	1.98	0.06	-1.4	3.89	1.98	0.06		
	10(7)	All equal	15	4	-1.41	4.25	2.42	0.23	-1.22	4.54	2.8	0.49	0.00	
		a equal	2.3	1	-1.31	4.5	2.55	0.24	-1.31	4.3	2.68	0.48		
		b equal	12.8	3	-1.28	4.46	2.66	0.36	-1.28	4.46	2.66	0.36		
10(8)	All equal	22.6	4	-0.89	4.67	2.77	0.15	-0.88	4.09	2.28	-0.23	0.00		
	a equal	0	1	-0.89	4.7	2.79	0.15	-0.89	4.07	2.27	-0.23			
	b equal	22.6	3	-0.91	4.22	2.44	-0.03	-0.91	4.22	2.44	-0.03			
과제 관리	11(1)	All equal	13	4	-1.55	2.79	0.82	-1.05	-1.62	2.68	0.96	-0.8	0.01	
		a equal	0.3	1	-1.58	2.75	0.82	-1.04	-1.58	2.71	0.97	-0.82		
		b equal	12.7	3	-1.56	2.75	0.9	-0.94	-1.56	2.75	0.9	-0.94		
		All equal	4	4	-1.62	2.88	1.07	-0.82	-1.61	3.05	0.99	-0.79		0.41
		a equal	0	1	-1.61	2.88	1.07	-0.82	-1.61	3.05	0.99	-0.79		
		b equal	4	3	-1.62	2.97	1.03	-0.81	-1.62	2.97	1.03	-0.81		
	11(2)	All equal	8.7	4	-1.15	3.71	1.47	-1.03	-1.46	3.04	1.25	-0.83	0.07	
		a equal	8.4	1	-1.3	3.36	1.35	-0.94	-1.3	3.29	1.33	-0.92		
		b equal	0.3	3	-1.3	3.32	1.34	-0.93	-1.3	3.32	1.34	-0.93		
	11(3)	All equal	9.9	4	-1.37	2.79	0.82	-1.14	-1.6	2.62	0.9	-0.91	0.04	
		a equal	4.1	1	-1.48	2.64	0.78	-1.08	-1.48	2.75	0.93	-0.97		
		b equal	5.8	3	-1.47	2.72	0.86	-1.04	-1.47	2.72	0.86	-1.04		
All equal		4.1	4	-1.53	2.76	0.98	-1.04	-1.55	2.76	1.03	-0.88	0.39		
a equal		0	1	-1.54	2.75	0.98	-1.03	-1.54	2.77	1.03	-0.89			
b equal		4.1	3	-1.53	2.77	1.01	-0.97	-1.53	2.77	1.01	-0.97			
11(5)	All equal	5	4	-1.6	2.48	0.78	-1	-1.38	2.75	0.83	-1.03	0.29		
	a equal	3.8	1	-1.49	2.61	0.81	-1.05	-1.49	2.63	0.81	-0.97			
	b equal	1.2	3	-1.48	2.62	0.81	-1.01	-1.48	2.62	0.81	-1.01			

하위역량	번호	Test	G2	df	참조 집단				연구 집단				G2 p	
					a	b1	b2	b3	a	b1	b2	b3		
상황 대처	중독 인식	12(1)	All equal 33.3 a equal 0.4 b equal 32.9	4 1 3	0.59 0.61 0.61	-0.18 -0.17 -0.37	0.93 0.9 0.97	2.22 2.14 2.38	0.64 0.61 0.61	-0.55 -0.58 -0.37	1 1.02 0.97	2.53 2.61 2.38	0.00	
		12(2)	All equal 27.9 a equal 0 b equal 27.9	4 1 3	0.93 0.93 0.96	0.14 0.14 -0.06	1.61 1.6 1.31	3.43 3.43 3.18	0.93 0.93 0.96	-0.28 -0.28 -0.06	1.11 1.12 1.31	3.11 3.11 3.18	0.00	
			All equal 49.8 a equal 1 b equal 48.7	4 1 3	0.86 0.81 0.84	0.4 0.42 0.09	1.97 2.07 1.62	4.02 4.24 3.74	0.76 0.81 0.84	-0.27 -0.24 0.09	1.4 1.35 1.62	3.78 3.6 3.74	0.00	
			12(4)	All equal 7.8 a equal 0.2 b equal 7.6	4 1 3	1.21 1.19 1.2	0.25 0.25 0.17	1.48 1.5 1.5	2.86 2.9 2.83	1.17 1.19 1.2	0.08 0.08 0.17	1.53 1.52 1.5	2.84 2.81 2.83	0.10
		12(5)		All equal 11 a equal 1.8 b equal 9.3	4 1 3	0.87 0.93 0.93	0.43 0.42 0.39	1.89 1.79 1.9	3.33 3.13 3.36	1 0.93 0.93	0.36 0.36 0.39	1.9 1.99 1.9	3.38 3.56 3.36	0.03
				All equal 5.2 a equal 0.4 b equal 4.8	4 1 3	1.23 1.19 1.2	0.76 0.78 0.69	2.14 2.2 2.15	3.3 3.39 3.41	1.15 1.19 1.2	0.62 0.62 0.69	2.19 2.15 2.15	3.55 3.47 3.41	0.27
	폭력 행동	13(1)	All equal 16.3 a equal 1 b equal 15.3	4 1 3	1.05 0.98 1	1.36 1.43 1.21	3.65 3.86 3.64	5.28 5.59 5.65	0.93 0.98 1	1.09 1.06 1.21	3.76 3.6 3.64	6.25 5.96 5.65	0.00	
		13(2)	All equal 13.8 a equal 0.2 b equal 13.6	4 1 3	1.36 1.4 1.43	1.82 1.79 1.6	3.31 3.24 3.01	4.27 4.18 4.19	1.43 1.4 1.43	1.49 1.5 1.6	2.9 2.94 3.01	4.25 4.32 4.19	0.01	
			All equal 63.6 a equal 0.2 b equal 63.5	4 1 3	1.12 1.15 1.19	1.41 1.38 1.01	3.11 3.05 2.56	4.24 4.15 3.75	1.17 1.15 1.19	0.73 0.73 1.01	2.33 2.36 2.56	3.61 3.66 3.75	0.00	
		13(4)	All equal 2.7 a equal 8.7 b equal 4.7	4 4 1	1.13 1.06 0.95	0.73 0.09 0.09	2.86 1.5 1.63	4.75 2.94 3.23	1.31 0.85 0.95	0.67 0.13 0.15	2.49 1.92 1.78	4.1 3.9 3.56	0.61 0.07	
			13(5)	a equal 3.9 b equal 16.8	3 4	0.94 1.05	0.12 0.71	1.72 2.19	3.42 3.36	0.94 1.18	0.12 0.81	1.72 2.46	3.42 3.6	0.00
				All equal 1.3 a equal 15.5 b equal 15.5	1 3 3	1.11 1.09 0.76	0.68 0.76 2.37	2.1 3.54 3.54	3.21 3.54 3.54	1.11 1.09 0.76	0.82 0.76 2.37	2.55 2.37 3.54	3.75 3.54 3.54	0.00
	정서 조절	분노 행동	14(1)	All equal 23.7 a equal 1.4 b equal 22.3	4 1 3	1.28 1.21 1.23	0.09 0.09 -0.08	1.69 1.76 1.66	3.27 3.41 3.29	1.15 1.21 1.23	-0.29 -0.27 -0.08	1.67 1.62 1.66	3.38 3.26 3.29	0.00
			14(2)	All equal 8.8 a equal 0 b equal 8.8	4 1 3	1.36 1.37 1.39	1.13 1.13 1.02	2.59 2.58 2.42	3.97 3.95 3.64	1.38 1.37 1.39	0.94 0.94 1.02	2.34 2.34 2.42	3.52 3.53 3.64	0.07
				All equal 15.4 a equal 0.6 b equal 14.8	4 1 3	1.37 1.32 1.34	0.64 0.65 0.52	2.07 2.12 1.95	3.22 3.31 3.16	1.28 1.32 1.34	0.4 0.4 0.52	1.9 1.86 1.95	3.19 3.12 3.16	0.00
			14(4)	All equal 50.3 a equal 0.8 b equal 49.5	4 1 3	0.98 1.03 0.97	-0.62 -0.6 -0.43	0.83 0.81 1.12	2.33 2.25 2.74	1.07 1.03 0.97	-0.2 -0.22 -0.43	1.32 1.35 1.12	2.94 3.03 2.74	0.00
		14(5)		All equal 61 a equal 1.8 b equal 59.2	4 1 3	1 0.94 0.89	-0.57 -0.6 -0.47	0.81 0.85 1.23	2.31 2.43 3.01	0.88 0.94 0.89	-0.32 -0.28 -0.47	1.58 1.51 1.23	3.59 3.41 3.01	0.00
			All equal 16.8 a equal 5.1 b equal 11.7	4 1 3	1.1 0.98 0.99	-0.39 -0.43 -0.48	1.09 1.18 1.17	2.4 2.61 2.82	0.88 0.98 0.99	-0.61 -0.53 -0.48	1.24 1.17 1.17	3.29 3.02 2.82	0.00	
14(7)		All equal 3.8 a equal 12 b equal 11.9	4 4 3	-0.43 -0.5 -0.52	4.42 4.71 4.63	1.8 3.18 3.13	-2.35 -0.55 -0.54	-0.5 -0.51 -0.5	3.92 4.62 4.69	1.47 2.69 2.73	-2.29 -0.94 -0.96	0.43 0.02		
		14(8)	All equal 12.1 a equal 2 b equal 10	4 1 3	-0.34 -0.39 -0.4	6.32 5.43 5.5	2.6 2.24 2.05	-2.25 -1.92 -2.13	-0.45 -0.39 -0.4	5.11 5.78 5.5	1.74 1.93 2.05	-2.11 -2.45 -2.13	0.02	
			14(9)	All equal 12.1 a equal 2 b equal 10	4 1 3	-0.34 -0.39 -0.4	6.32 5.43 5.5	2.6 2.24 2.05	-2.25 -1.92 -2.13	-0.45 -0.39 -0.4	5.11 5.78 5.5	1.74 1.93 2.05	-2.11 -2.45 -2.13	0.02

표 IV-95

초등학생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IRT-LR test 결과: non-DIF 문항을 anchor로 사용

하위역량	번호	Test	G <sup>2</sup>	df	참조 집단				연구 집단				G <sup>2</sup> p	
					a	b1	b2	b3	a	b1	b2	b3		
건강 관리	위생 관리	All equal	20.2	4	0.8	-5.93	-3.46	-1.09	0.82	-5.18	-2.89	-0.62	0.00	
		a equal	0	1	0.81	-5.87	-3.42	-1.08	0.81	-5.23	-2.91	-0.62		
		b equal	20.2	3	0.83	-5.37	-3.07	-0.82	0.83	-5.37	-3.07	-0.82		
	신체 관리	10(4)	All equal	31.1	4	1.31	-3.46	-1.22	0.45	1.29	-3.67	-1.68	0.2	0.00
			a equal	0	1	1.3	-3.48	-1.22	0.45	1.3	-3.65	-1.67	0.2	
			b equal	31.1	3	1.26	-3.64	-1.47	0.33	1.26	-3.64	-1.47	0.33	
		10(5)	All equal	146.1	4	0.91	-3.39	-0.59	1.08	0.99	-4.03	-1.57	0.07	0.00
			a equal	0.7	1	0.95	-3.28	-0.57	1.04	0.95	-4.17	-1.61	0.08	
			b equal	145.4	3	0.85	-4.03	-1.16	0.6	0.85	-4.03	-1.16	0.6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10(6)	All equal	18.2	4	1.24	-4.62	-2.26	-0.11	1	-4.76	-2.25	0.12	0.00
			a equal	4.6	1	1.11	-5.06	-2.46	-0.12	1.11	-4.38	-2.1	0.09	
			b equal	13.6	3	1.12	-4.59	-2.23	-0.01	1.12	-4.59	-2.23	-0.01	
10(7)		All equal	4.6	4	1.06	-5.35	-2.96	-0.27	1.02	-5.18	-3.11	-0.44	0.33	
		a equal	0.1	1	1.04	-5.44	-3	-0.27	1.04	-5.1	-3.06	-0.43		
		b equal	4.5	3	1.03	-5.28	-3.06	-0.35	1.03	-5.28	-3.06	-0.35		
10(8)	All equal	30.1	4	0.86	-4.87	-2.87	-0.16	0.87	-4.11	-2.25	0.3	0.00		
	a equal	0	1	0.87	-4.84	-2.86	-0.16	0.87	-4.13	-2.26	0.3			
	b equal	30.1	3	0.88	-4.33	-2.47	0.07	0.88	-4.33	-2.47	0.07			
과제 관리	목표 및 계획 수립	All equal	12.1	4	2.71	-2.19	-0.65	0.82	2.71	-2.17	-0.76	0.67	0.02	
		a equal	0	1	2.71	-2.19	-0.65	0.82	2.71	-2.17	-0.76	0.67		
		b equal	12.1	3	2.68	-2.18	-0.71	0.76	2.68	-2.18	-0.71	0.76		
상황 대처	중독 인식	12(1)	All equal	35.6	4	-0.19	0.67	-2.44	-6.22	-0.21	2.24	-2.02	-6.45	0.00
			a equal	0.1	1	-0.2	0.63	-2.32	-5.9	-0.2	2.33	-2.08	-6.67	
			b equal	35.5	3	-0.21	1.43	-2.15	-6.13	-0.21	1.43	-2.15	-6.13	
		12(2)	All equal	47.6	4	-0.35	-0.3	-3.71	-8.21	-0.42	0.88	-1.82	-5.92	0.00
			a equal	0.7	1	-0.39	-0.28	-3.39	-7.48	-0.39	0.97	-1.94	-6.39	
			b equal	46.9	3	-0.42	0.31	-2.46	-6.46	-0.42	0.31	-2.46	-6.46	
	12(3)	All equal	70.7	4	-0.3	-1.01	-5.06	-10.69	-0.27	1.17	-3.02	-9.31	0.00	
		a equal	0.1	1	-0.29	-1.05	-5.28	-11.16	-0.29	1.11	-2.91	-8.96		
		b equal	70.6	3	-0.32	0.02	-3.6	-8.91	-0.32	0.02	-3.6	-8.91		
	폭력 행동	13(1)	All equal	29	4	-0.46	-2.69	-7.52	-11.13	-0.39	-1.94	-7.9	-13.78	0.00
			a equal	0.6	1	-0.42	-2.94	-8.24	-12.2	-0.42	-1.82	-7.33	-12.76	
			b equal	28.4	3	-0.44	-2.22	-7.32	-11.81	-0.44	-2.22	-7.32	-11.81	
13(2)		All equal	25.5	4	-0.57	-3.6	-6.86	-9.09	-0.62	-2.49	-5.45	-8.47	0.00	
		a equal	0.2	1	-0.6	-3.45	-6.55	-8.68	-0.6	-2.55	-5.6	-8.72		
		b equal	25.4	3	-0.63	-2.82	-5.73	-8.32	-0.63	-2.82	-5.73	-8.32		
13(3)	All equal	81.5	4	-0.54	-2.52	-5.8	-8.12	-0.53	-1.05	-4.18	-6.86	0.00		
	a equal	0	1	-0.53	-2.54	-5.83	-8.17	-0.53	-1.05	-4.16	-6.83			
	b equal	81.4	3	-0.57	-1.63	-4.53	-6.92	-0.57	-1.63	-4.53	-6.92			
폭력 회피	13(6)	All equal	11.7	4	-0.56	-1.16	-3.69	-5.79	-0.71	-0.96	-3.45	-5.28	0.02	
		a equal	2.5	1	-0.63	-1.04	-3.29	-5.15	-0.63	-1.03	-3.81	-5.85		
		b equal	9.2	3	-0.63	-1.04	-3.57	-5.52	-0.63	-1.04	-3.57	-5.52		
정서 조절	분노 행동	All equal	37.8	4	-0.52	-0.15	-3.41	-6.94	-0.58	0.73	-2.61	-5.75	0.00	
		a equal	0.5	1	-0.56	-0.15	-3.23	-6.57	-0.56	0.77	-2.72	-6.02		
		b equal	37.4	3	-0.58	0.3	-2.87	-6.07	-0.58	0.3	-2.87	-6.07		
	감정 절제	14(3)	All equal	30.7	4	-0.56	-1.23	-4.21	-6.86	-0.57	-0.42	-3.31	-6.02	0.00
			a equal	0	1	-0.56	-1.22	-4.16	-6.79	-0.56	-0.42	-3.33	-6.07	
			b equal	30.7	3	-0.58	-0.78	-3.57	-6.15	-0.58	-0.78	-3.57	-6.15	
		14(4)	All equal	24.5	4	-0.42	1.31	-1.66	-4.92	-0.53	0.68	-2	-5.07	0.00
			a equal	1.9	1	-0.47	1.16	-1.48	-4.36	-0.47	0.78	-2.19	-5.61	
			b equal	22.6	3	-0.45	1.01	-1.91	-5.16	-0.45	1.01	-1.91	-5.16	
	조절 실패	14(5)	All equal	36.4	4	-0.46	1.12	-1.48	-4.48	-0.37	1.12	-2.93	-7.54	0.00
			a equal	1.4	1	-0.41	1.24	-1.63	-4.96	-0.41	0.97	-2.63	-6.71	
			b equal	35	3	-0.4	1.15	-2.2	-5.95	-0.4	1.15	-2.2	-5.95	
14(6)	All equal	18.6	4	-0.47	0.82	-2.1	-4.88	-0.38	1.69	-2.16	-6.7	0.00		
	a equal	1.4	1	-0.42	0.92	-2.33	-5.42	-0.42	1.49	-1.96	-6.02			
	b equal	17.3	3	-0.43	1.17	-2.1	-5.6	-0.43	1.17	-2.1	-5.6			

분석 결과, 초등학교 집단에서는 문항 10(2), 10(4)~10(6), 10(8), 12(1)~12(3), 13(1)~13(3), 14(1), 14(3)~14(6)의 총 16개 문항이 성별에 따른 차별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 집단에게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문항이 속해 있는 하위 역량별로 살펴보면, '건강관리'가 5문항(위생관리 1문항, 신체관리와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각 2문항), '상황대처'가 6문항(중독인식과 폭력행동 각 3문항), 정서조절 5문항(분노행동 1문항, 감정절제와 조절실패 각 2문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관련 문항은 <표 IV-96>과 같다.

**표 IV-96 초등학교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DIF 문항 내용**

하위역량	번호	문항 내용	선호 집단
건강관리	위생관리	10(2) 나는 속옷을 1~2일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갈아입는다	여
	신체관리	10(4) 나는 건강을 위해 음식이나 운동, 생활 습관 등을 조절한다	여
		10(5) 나는 규칙적으로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거나 걷는다	여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10(6) 나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수칙이나 규칙을 잘 지킨다	여
		10(8) 나는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일이나 공부를 하는 중간 중간 적당한 휴식을 취한다	여
상황대처	중독인식	12(1) 술, 담배,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은 중독성을 갖고 있다	여
		12(2) 술, 담배,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여
		12(3) 술, 담배,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은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도움이 된다	여
	폭력행동	13(1) 나는 내 힘을 자랑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괴롭힌 적이 있다	여
		13(2) 나는 단지 재미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인터넷에 악플을 달거나 욕을 한 적이 있다	여
		13(3) 나는 폭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상대방에게 맞서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라 생각한다	여
정서조절	분노행동	14(1)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하면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른다	여
	감정절제	14(3)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하면 지나친 표현이나 행동을 참을 수가 없다	여
		14(4) 나는 갑자기 슬프거나 힘든 일을 당하면 잘 이겨내기가 힘들다	여
	조절실패	14(5) 나는 작은 일에도 기분이 쉽게 변한다	여
		14(6) 나는 기분에 따라 행동이 크게 변한다	여

② 중학생 생활관리역량지수에 대한 성별 DIF 분석 결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DIF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IV-97>, <표 IV-98> 참조).

**표 IV-97 중학생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IRT-LR test 결과: 모든 문항을 anchor로 사용**

하위역량	번호	Test	G <sup>2</sup>	df	참조 집단				연구 집단				G <sup>2</sup> p	
					a	b1	b2	b3	a	b1	b2	b3		
건강 관리	위생 관리	10(1)	All equal	5.4	4	-0.73	5.56	1.92	-0.89	-0.73	5.35	2.18	-0.73	0.25
		a equal	0	1	-0.73	5.54	1.92	-0.89	-0.73	5.38	2.19	-0.73		
		b equal	5.4	3	-0.73	5.47	2.04	-0.82	-0.73	5.47	2.04	-0.82		
		10(2)	All equal	6.4	4	-0.72	7.58	4.35	1.02	-0.68	7.15	4.23	0.8	0.17
		a equal	0.2	1	-0.7	7.8	4.47	1.05	-0.7	6.93	4.1	0.78		
		b equal	6.2	3	-0.7	7.34	4.29	0.92	-0.7	7.34	4.29	0.92		
	신체 관리	10(3)	All equal	8.2	4	-0.8	6.27	2.45	-0.61	-0.78	5.88	2.18	-0.89	0.08
		a equal	0	1	-0.79	6.32	2.46	-0.62	-0.79	5.83	2.16	-0.89		
		b equal	8.2	3	-0.79	6.08	2.32	-0.74	-0.79	6.08	2.32	-0.74		
		10(4)	All equal	58.7	4	-0.77	4.3	0.79	-1.65	-0.8	4.68	1.4	-0.78	0.00
		a equal	0.2	1	-0.78	4.22	0.77	-1.62	-0.78	4.8	1.43	-0.8		
		b equal	58.5	3	-0.77	4.55	1.08	-1.25	-0.77	4.55	1.08	-1.25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10(5)	All equal	209.6	4	-0.57	3.66	-0.42	-2.67	-0.53	6.28	1.67	-1.06	0.00	
		a equal	0.2	1	-0.55	3.76	-0.43	-2.73	-0.55	6.06	1.62	-1.02		
		b equal	209.4	3	-0.51	4.89	0.52	-2	-0.51	4.89	0.52	-2		
		10(6)	All equal	16.8	4	-1.16	4.05	1.86	-0.54	-0.78	5.79	2.35	-0.9	0.00
	a equal	13.9	1	-0.97	4.7	2.13	-0.63	-0.97	4.78	1.98	-0.74			
	b equal	2.9	3	-0.97	4.73	2.05	-0.68	-0.97	4.73	2.05	-0.68			
	10(7)	All equal	8.2	4	-1	5.29	2.62	-0.4	-0.81	6.67	3.34	-0.27	0.08	
		a equal	3.7	1	-0.91	5.77	2.84	-0.44	-0.91	5.98	3.02	-0.24		
b equal		4.5	3	-0.91	5.87	2.92	-0.35	-0.91	5.87	2.92	-0.35			
10(8)		All equal	10.4	4	-0.86	4.46	2.69	-0.43	-0.74	4.9	2.66	-0.41	0.03	
a equal	1.6	1	-0.8	4.75	2.86	-0.46	-0.8	4.56	2.48	-0.38				
b equal	8.8	3	-0.8	4.66	2.67	-0.42	-0.8	4.66	2.67	-0.42				
과제 관리	목표 및 계획 수립	11(1)	All equal	5.2	4	-1.04	4.99	1.84	-1.26	-1.12	4	1.69	-1.24	0.27
		a equal	0.7	1	-1.07	4.83	1.79	-1.22	-1.07	4.14	1.74	-1.28		
		b equal	4.5	3	-1.07	4.46	1.77	-1.25	-1.07	4.46	1.77	-1.25		
		11(2)	All equal	14.1	4	-0.96	4.6	1.71	-1.31	-1.04	4.16	1.26	-1.35	0.01
		a equal	0.7	1	-1	4.46	1.66	-1.27	-1	4.3	1.3	-1.39		
		b equal	13.4	3	-1	4.39	1.48	-1.33	-1	4.39	1.48	-1.33		
	수행 및 평가	11(3)	All equal	1.9	4	-1.01	4.44	1.88	-1.35	-0.94	4.6	1.86	-1.48	0.75
		11(4)	All equal	6.2	4	-1.1	3.46	1.16	-1.56	-1.03	3.99	1.24	-1.44	0.18
		a equal	0.4	1	-1.07	3.54	1.19	-1.6	-1.07	3.88	1.21	-1.4		
		b equal	5.8	3	-1.07	3.69	1.2	-1.51	-1.07	3.69	1.2	-1.51		
		11(5)	All equal	3.4	4	-0.96	3.69	1.02	-1.74	-0.97	3.75	1.08	-1.52	0.49
		11(6)	All equal	5.6	4	-0.96	3.56	1.17	-1.61	-0.94	4.14	1.34	-1.54	0.23
a equal	0.1	1	-0.95	3.6	1.18	-1.62	-0.95	4.09	1.32	-1.52				
b equal	5.5	3	-0.95	3.8	1.25	-1.58	-0.95	3.8	1.25	-1.58				
상황 대처	중독 인식	12(1)	All equal	11.5	4	0.4	-2.71	-1.21	1.96	0.37	-2.99	-0.89	2.66	0.02
		a equal	0.1	1	0.38	-2.81	-1.26	2.02	0.38	-2.88	-0.85	2.56		
		b equal	11.4	3	0.38	-2.84	-1.07	2.27	0.38	-2.84	-1.07	2.27		
		12(2)	All equal	4.5	4	0.85	-1.51	-0.08	2.4	0.71	-1.64	-0.12	2.63	0.34
		a equal	2.4	1	0.78	-1.62	-0.09	2.56	0.78	-1.51	-0.11	2.43		
		b equal	2.1	3	0.78	-1.57	-0.1	2.5	0.78	-1.57	-0.1	2.5		
		12(3)	All equal	4.8	4	0.88	-1.16	0.11	2.49	0.71	-1.45	0.1	2.8	0.31
		a equal	3.5	1	0.8	-1.26	0.11	2.69	0.8	-1.3	0.1	2.54		
		b equal	1.3	3	0.8	-1.28	0.11	2.62	0.8	-1.28	0.11	2.62		

하위역량	번호	Test	G <sup>2</sup>	df	참조 집단				연구 집단				G <sup>2</sup> p
					a	b1	b2	b3	a	b1	b2	b3	
정서 조절	중독 행동	12(4) All equal	34.9	4	1.12	-0.87	0.28	2.17	1.05	-0.69	0.77	2.73	0.00
		a equal	0.6	1	1.09	-0.89	0.28	2.22	1.09	-0.67	0.75	2.65	
		b equal	34.3	3	1.08	-0.8	0.5	2.42	1.08	-0.8	0.5	2.42	
		All equal	52.1	4	1.13	-0.83	0.34	2	1.04	-0.49	0.96	2.6	
		12(5) a equal	0.8	1	1.09	-0.86	0.35	2.06	1.09	-0.47	0.93	2.51	
		b equal	51.3	3	1.06	-0.69	0.62	2.28	1.06	-0.69	0.62	2.28	
	12(6) All equal	3	4	1.22	0.05	1.33	2.64	1.16	-0.04	1.43	2.78	0.56	
	폭력 행동	13(1) All equal	185.5	4	1.67	1.08	2.83	4.19	1.39	0.33	1.97	3.6	0.00
		a equal	3.1	1	1.51	1.13	3.03	4.52	1.51	0.32	1.86	3.38	
		b equal	182.4	3	1.41	0.76	2.43	4	1.41	0.76	2.43	4	
		All equal	139	4	2.01	1.13	2.17	3.42	1.8	0.52	1.59	2.89	
		13(2) a equal	1.2	1	1.89	1.16	2.24	3.55	1.89	0.51	1.55	2.79	
b equal		137.8	3	1.78	0.85	1.91	3.22	1.78	0.85	1.91	3.22		
13(3) All equal	93.4	4	1.38	0.63	1.96	3.28	1.34	0.01	1.4	2.72	0.00		
a equal	0.1	1	1.36	0.63	1.98	3.32	1.36	0.01	1.39	2.69			
b equal	93.3	3	1.33	0.34	1.7	3.03	1.33	0.34	1.7	3.03			
폭력 회피	13(4) All equal	29.3	4	1.45	0.19	1.83	3.97	1.43	-0.11	1.6	3.24	0.00	
	a equal	0	1	1.44	0.19	1.83	3.99	1.44	-0.11	1.6	3.22		
	b equal	29.3	3	1.44	0.05	1.72	3.55	1.44	0.05	1.72	3.55		
	All equal	10.4	4	1.18	-0.19	1.06	2.62	1.23	-0.33	1.14	2.74		
	13(5) a equal	0.2	1	1.2	-0.18	1.05	2.59	1.2	-0.33	1.15	2.78		
	b equal	10.2	3	1.2	-0.25	1.1	2.67	1.2	-0.25	1.1	2.67		
13(6) All equal	36.4	4	1.31	0.02	1.25	2.76	1.42	0.16	1.67	3.01	0.00		
a equal	0.8	1	1.36	0.03	1.22	2.68	1.36	0.16	1.72	3.11			
b equal	35.6	3	1.34	0.09	1.45	2.89	1.34	0.09	1.45	2.89			
분노 행동	14(1) All equal	11.3	4	1.21	-0.92	0.76	2.65	1.13	-1.24	0.62	2.77	0.02	
	a equal	0.7	1	1.17	-0.94	0.77	2.72	1.17	-1.2	0.61	2.69		
	b equal	10.5	3	1.17	-1.06	0.7	2.7	1.17	-1.06	0.7	2.7		
	All equal	18.5	4	1.35	0.39	1.81	3.03	1.5	0.13	1.67	2.91		
	14(2) a equal	1.3	1	1.42	0.39	1.75	2.92	1.42	0.13	1.72	3.02		
	b equal	17.2	3	1.42	0.26	1.74	2.97	1.42	0.26	1.74	2.97		
감정 절제	14(3) All equal	11	4	1.55	0.12	1.52	2.7	1.75	-0.03	1.44	2.54	0.03	
	a equal	2.1	1	1.64	0.12	1.47	2.6	1.64	-0.04	1.49	2.64		
	b equal	8.9	3	1.64	0.04	1.48	2.62	1.64	0.04	1.48	2.62		
	All equal	156.3	4	1.04	-1.3	0.22	2.07	1.35	-0.53	1.03	2.49		
	14(4) a equal	8.6	1	1.17	-1.19	0.21	1.9	1.17	-0.61	1.12	2.77		
	b equal	147.6	3	1.11	-0.94	0.63	2.32	1.11	-0.94	0.63	2.32		
조절 실패	14(5) All equal	176.7	4	1.13	-1.52	-0.16	1.75	1.15	-0.77	0.81	2.7	0.00	
	a equal	0.1	1	1.14	-1.51	-0.16	1.74	1.14	-0.77	0.81	2.72		
	b equal	176.7	3	1.07	-1.2	0.29	2.21	1.07	-1.2	0.29	2.21		
	All equal	37.7	4	1.15	-1.22	0.23	1.88	1.06	-0.98	0.66	2.57		
	14(6) a equal	0.9	1	1.11	-1.26	0.23	1.94	1.11	-0.94	0.64	2.49		
	b equal	36.9	3	1.09	-1.12	0.42	2.19	1.09	-1.12	0.42	2.19		
감정 인식	14(7) All equal	39.9	4	-0.8	3.68	1.44	-1.68	-0.42	5.19	2.07	-2.85	0.00	
	a equal	18.8	1	-0.62	4.64	1.78	-2.12	-0.62	3.64	1.49	-1.97		
	b equal	21.1	3	-0.62	4.14	1.65	-2.06	-0.62	4.14	1.65	-2.06		
	All equal	33.3	4	-0.66	5.45	2.83	-0.98	-0.44	5.8	3.35	-1.77		
	14(8) a equal	6	1	-0.56	6.39	3.3	-1.15	-0.56	4.7	2.74	-1.42		
	b equal	27.3	3	-0.56	5.42	3.02	-1.27	-0.56	5.42	3.02	-1.27		
	All equal	37.2	4	-0.66	5.13	2.43	-1.67	-0.42	5.84	2.77	-2.53		
	14(9) a equal	7.6	1	-0.54	6.13	2.88	-1.99	-0.54	4.57	2.19	-1.96		
	b equal	29.6	3	-0.54	5.26	2.54	-1.98	-0.54	5.26	2.54	-1.98		

표 IV-98 중학생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IRT-LR test 결과: non-DIF 문항을 anchor로 사용

하위역량	번호	Test	G2	df	참조 집단				연구 집단				G2 p	
					a	b1	b2	b3	a	b1	b2	b3		
건강 관리	신체 관리	10(4)	All equal	57.4	4	0.91	-3.74	-0.7	1.43	1.13	-3.55	-1.07	0.64	0.00
		a equal	4.8	1	1	-3.45	-0.65	1.32	1	-3.9	-1.16	0.7		
		b equal	52.7	3	0.99	-3.67	-0.89	1.03	0.99	-3.67	-0.89	1.03		
	10(5)	All equal	204.7	4	0.63	-3.37	0.36	2.42	0.73	-4.69	-1.25	0.84	0.00	
		a equal	1.3	1	0.67	-3.16	0.34	2.27	0.67	-5.04	-1.33	0.9		
		b equal	203.4	3	0.65	-3.94	-0.42	1.63	0.65	-3.94	-0.42	1.63		
안전 스트레스 관리	10(6)	All equal	5.3	4	1.07	-4.31	-1.96	0.55	1.02	-4.61	-1.9	0.75	0.26	
	a equal	0.3	1	1.05	-4.41	-2	0.56	1.05	-4.5	-1.86	0.74			
	b equal	5	3	1.05	-4.45	-1.94	0.64	1.05	-4.45	-1.94	0.64			
과제 관리	목표 및 계획 수립	11(2)	All equal	20.1	4	2.66	-2.49	-0.99	0.72	2.7	-2.39	-0.79	0.83	0.00
		a equal	0	1	2.68	-2.48	-0.99	0.72	2.68	-2.4	-0.79	0.83		
		b equal	20.1	3	2.66	-2.45	-0.9	0.77	2.66	-2.45	-0.9	0.77		
상황 대처	중독 행동	12(4)	All equal	26.5	4	-0.33	2.48	-0.68	-6.25	-0.27	2.41	-2.28	-9.08	0.00
			a equal	0.6	1	-0.31	2.7	-0.74	-6.82	-0.31	2.16	-2.05	-8.14	
			b equal	25.9	3	-0.31	2.45	-1.33	-7.37	-0.31	2.45	-1.33	-7.37	
		12(5)	All equal	35.6	4	-0.31	2.58	-0.94	-6.22	-0.27	1.83	-2.92	-8.75	0.00
			a equal	0.3	1	-0.29	2.76	-1.01	-6.65	-0.29	1.7	-2.72	-8.12	
			b equal	35.3	3	-0.28	2.28	-1.79	-7.34	-0.28	2.28	-1.79	-7.34	
	폭력 행동	13(1)	All equal	141.9	4	-0.47	-2.77	-8.14	-12.73	-0.35	-0.92	-6.32	-12.3	0.00
			a equal	1.4	1	-0.4	-3.19	-9.43	-14.76	-0.4	-0.82	-5.59	-10.87	
			b equal	140.6	3	-0.39	-2.06	-7.25	-12.65	-0.39	-2.06	-7.25	-12.65	
		13(2)	All equal	100.6	4	-0.62	-2.45	-5.16	-8.82	-0.39	-1.54	-5.37	-10.68	0.00
			a equal	4.7	1	-0.48	-3.07	-6.54	-11.24	-0.48	-1.27	-4.38	-8.67	
			b equal	96	3	-0.47	-2.2	-5.42	-9.89	-0.47	-2.2	-5.42	-9.89	
	13(3)	All equal	76.2	4	-0.47	-1.36	-4.62	-8.19	-0.41	0.11	-3.56	-7.46	0.00	
		a equal	0.5	1	-0.44	-1.45	-4.93	-8.75	-0.44	0.1	-3.34	-6.98		
		b equal	75.7	3	-0.43	-0.73	-4.17	-7.92	-0.43	-0.73	-4.17	-7.92		
	폭력 회피	13(4)	All equal	25.1	4	-0.54	-0.35	-3.98	-9.37	-0.52	0.33	-3.49	-7.62	0.00
			a equal	0	1	-0.53	-0.35	-4.02	-9.49	-0.53	0.32	-3.44	-7.52	
			b equal	25.1	3	-0.53	-0.04	-3.75	-8.36	-0.53	-0.04	-3.75	-8.36	
13(6)		All equal	28.1	4	-0.63	-0.01	-2.18	-5.05	-0.51	-0.21	-3.64	-7.07	0.00	
		a equal	1.6	1	-0.57	0	-2.36	-5.5	-0.57	-0.2	-3.29	-6.36		
		b equal	26.4	3	-0.57	-0.09	-2.76	-5.87	-0.57	-0.09	-2.76	-5.87		
정서 조절	분노 행동	14(2)	All equal	15.8	4	-0.43	-0.9	-4.59	-8.04	-0.48	-0.19	-4.07	-7.53	0.00
		a equal	0.3	1	-0.46	-0.86	-4.37	-7.66	-0.46	-0.2	-4.26	-7.9		
		b equal	15.5	3	-0.45	-0.55	-4.35	-7.82	-0.45	-0.55	-4.35	-7.82		
	감정 절제	14(4)	All equal	105	4	-0.4	2.94	-0.43	-4.74	-0.41	1.58	-2.48	-6.74	0.00
		a equal	0.1	1	-0.4	2.9	-0.43	-4.68	-0.4	1.61	-2.51	-6.83		
		b equal	105	3	-0.39	2.33	-1.37	-5.63	-0.39	2.33	-1.37	-5.63		
	조절 실패	14(5)	All equal	127.6	4	-0.35	4.12	0.52	-4.77	-0.26	2.99	-2.56	-9.92	0.00
			a equal	1.2	1	-0.31	4.66	0.59	-5.39	-0.31	2.57	-2.2	-8.5	
			b equal	126.4	3	-0.31	3.64	-0.67	-6.61	-0.31	3.64	-0.67	-6.61	
		14(6)	All equal	25.5	4	-0.34	3.51	-0.49	-5.37	-0.28	3.25	-1.76	-8.19	0.00
			a equal	0.4	1	-0.31	3.78	-0.53	-5.79	-0.31	2.98	-1.61	-7.47	
			b equal	25.1	3	-0.31	3.39	-1.02	-6.46	-0.31	3.39	-1.02	-6.46	
감정 인식	14(7)	All equal	18.6	4	0.46	-6.03	-2.27	2.73	0.49	-4.5	-1.76	2.53	0.00	
		a equal	0.1	1	0.47	-5.88	-2.21	2.66	0.47	-4.62	-1.81	2.6		
		b equal	18.5	3	0.48	-5.22	-2.02	2.63	0.48	-5.22	-2.02	2.63		
	14(8)	All equal	28.9	4	0.53	-6.67	-3.44	1.18	0.51	-5.07	-2.91	1.6	0.00	
		a equal	0.1	1	0.52	-6.79	-3.51	1.2	0.52	-4.97	-2.85	1.57		
		b equal	28.8	3	0.52	-5.77	-3.19	1.37	0.52	-5.77	-3.19	1.37		
	14(9)	All equal	31.3	4	0.76	-4.53	-2.16	1.47	0.69	-3.69	-1.77	1.63	0.00	
		a equal	0.7	1	0.73	-4.73	-2.25	1.53	0.73	-3.52	-1.7	1.56		
		b equal	30.6	3	0.72	-4.07	-1.99	1.55	0.72	-4.07	-1.99	1.55		

분석 결과, 중학생 집단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별기능문항이 초등학생과 유사하게 존재하였으며, 초등학생 집단과 달리 여자 청소년보다 남자 청소년 집단에게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학생 집단에서는 초등학생 집단에서 DIF 문항으로 나타났던 문항 10(4), 10(5), 13(1)~13(3), 14(3)~14(6) 뿐 아니라 11(2), 12(4), 12(5), 13(4), 13(6), 14(2), 14(7)~14(9)를 포함한 총 17개 문항이 성별에 따른 차별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문항이 속해 있는 하위 역량별로 살펴보면, '건강관리'가 2문항(신체관리), '과제 관리'가 1문항(목표 및 계획 수립), '상황대처'가 8문항(중독 행동과 폭력회피 각 2문항, 폭력행동 3문항), 정서조절 7문항(분노행동과 감정절제 각 1문항, 조절실패 2문항, 감정인식 3문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관련 문항은 <표 IV-99>과 같다.

**표 IV-99 중학생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DIF 문항 내용**

하위역량		번호	문항 내용	성별 집단
건강 관리	신체관리	10(4)	나는 건강을 위해 음식이나 운동, 생활 습관 등을 조절한다	남
		10(5)	나는 규칙적으로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거나 걷는다	남
상황 대처	중독행동	12(4)	술, 담배,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그만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중에도 어쩔 수 없이 계속 하게 된다	남
		12(5)	술, 담배,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으로 인해 내 생활(일, 공부, 수면 등)이 방해를 받는 경우가 많다	남
	폭력행동	13(1)	나는 내 힘을 자랑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괴롭힌 적이 있다	남
		13(2)	나는 단지 재미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인터넷에 악플을 달거나 욕을 한 적이 있다	남
		13(3)	나는 폭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상대방에게 맞서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라 생각한다	남
	폭력회피	13(4)	나는 내가 피해를 볼까봐 친구가 다른 친구를 괴롭히는 것을 모른 척 하곤 한다	남
13(6)		나는 누군가 나를 괴롭힐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	남	
정서 조절	분노행동	14(2)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하면 물건을 집어 던진다	남
		감정절제	14(4)	나는 갑자기 슬프거나 힘든 일을 당하면 잘 이겨내기가 힘들다
	조절실패		14(5)	나는 작은 일에도 기분이 쉽게 변한다
		14(6)	나는 기분에 따라 행동이 크게 변한다	남
	감정인식	14(7)	나는 내 기분이나 감정이 상해도 내 말이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	남
		14(8)	나는 내 기분이나 감정을 분명히 알고 있다	남
14(9)		나는 내 기분이나 감정 상태에 많은 신경을 쓴다	남	

③ 고등학생 생활관리역량지수에 대한 성별 DIF 분석 결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DIF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IV-100>, <표 IV-101> 참조).

**표 IV-100** 고등학생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IRT-LR test 결과: 모든 문항을 anchor로 사용

하위역량	번호	Test	G2	df	참조 집단				연구 집단				G2 p	
					a	b1	b2	b3	a	b1	b2	b3		
건강 관리	위생 관리	10(1)	All equal	1.6	4	-0.48	8.51	2.82	-1.42	-0.45	8.97	3.22	-1.35	0.81
		10(2)	All equal	11.3	4	-0.49	14.27	7.42	1.55	-0.5	11.07	6	1.35	0.02
			a equal	0	1	-0.49	14.29	7.42	1.55	-0.49	11.08	6	1.35	0.00
			b equal	11.3	3	-0.5	11.85	6.47	1.42	-0.5	11.85	6.47	1.42	
			All equal	36.3	4	-0.48	13.39	5.25	-0.27	-0.53	9.13	3.5	-0.99	
			a equal	0.5	1	-0.51	12.44	4.89	-0.25	-0.51	9.49	3.63	-1.03	
	b equal	35.8	3	-0.52	10.28	4.11	-0.65	-0.52	10.28	4.11	-0.65			
	신체 관리	10(4)	All equal	75.5	4	-0.62	4.68	0.22	-2.69	-0.48	6.65	1.62	-1.88	0.00
			a equal	2.9	1	-0.53	5.41	0.25	-3.09	-0.53	6.05	1.48	-1.71	0.00
			b equal	72.6	3	-0.51	5.89	0.91	-2.37	-0.51	5.89	0.91	-2.37	
		All equal	281.4	4	-0.3	4.7	-2.84	-6.78	-0.37	7.46	1.43	-2.12		
		10(5)	a equal	0.8	1	-0.34	4.09	-2.47	-5.9	-0.34	7.99	1.53	-2.27	0.00
b equal			280.5	3	-0.31	6.37	-0.32	-4.08	-0.31	6.37	-0.32	-4.08		
안전 및 스포츠 관리	10(6)	All equal	14.3	4	-0.55	9.07	3.1	-1.59	-0.61	6.98	2.69	-1.01	0.01	
		a equal	0.5	1	-0.59	8.51	2.92	-1.5	-0.59	7.23	2.78	-1.05	0.00	
		b equal	13.8	3	-0.59	7.67	2.83	-1.26	-0.59	7.67	2.83	-1.26		
	All equal	62.4	4	-0.64	10.12	3.27	-1.6	-0.6	8.73	3.79	-0.5			
	10(7)	a equal	0.2	1	-0.61	10.45	3.37	-1.65	-0.61	8.55	3.72	-0.49	0.00	
		b equal	62.3	3	-0.6	9.36	3.63	-1.03	-0.6	9.36	3.63	-1.03		
All equal		16.7	4	-0.43	9.81	5.32	-1.41	-0.44	8.91	4.56	-0.79			
10(8)	a equal	0	1	-0.44	9.63	5.22	-1.39	-0.44	9	4.61	-0.8	0.00		
	b equal	16.7	3	-0.44	9.23	4.85	-1.07	-0.44	9.23	4.85	-1.07			
과제 관리	목표 및 계획 수립	11(1)	All equal	3.5	4	-0.62	8.29	3.52	-2.03	-0.54	8.52	3.92	-2.17	0.48
		11(2)	All equal	32.3	4	-0.67	6.92	3.04	-1.7	-0.57	7.17	2.48	-2.5	0.00
			a equal	1.5	1	-0.6	7.67	3.35	-1.87	-0.6	6.75	2.35	-2.36	0.00
			b equal	30.8	3	-0.61	7.07	2.75	-2.11	-0.61	7.07	2.75	-2.11	
			All equal	20.1	4	-0.64	9.03	3.66	-1.89	-0.47	9.83	3.8	-2.58	
			a equal	3.6	1	-0.52	10.87	4.37	-2.24	-0.52	8.81	3.43	-2.32	
	b equal	16.5	3	-0.53	9.41	3.79	-2.27	-0.53	9.41	3.79	-2.27			
	수행 및 평가	11(4)	All equal	1.8	4	-0.52	8.11	2.29	-3.21	-0.52	7.6	2.15	-3.08	0.77
			All equal	7.5	4	-0.51	7.6	1.86	-3.29	-0.46	7.09	1.83	-3.63	0.11
			a equal	0.4	1	-0.48	8.12	1.98	-3.51	-0.48	6.8	1.76	-3.49	0.04
		b equal	7.1	3	-0.48	7.27	1.85	-3.49	-0.48	7.27	1.85	-3.49		
		All equal	9.8	4	-0.6	7.21	2.32	-2.76	-0.55	6.89	2.19	-2.61		
11(6)		a equal	0.3	1	-0.57	7.57	2.43	-2.89	-0.57	6.68	2.13	-2.54	0.00	
	b equal	9.5	3	-0.57	6.97	2.25	-2.68	-0.57	6.97	2.25	-2.68			
상황 대처	중독 인식	12(1)	All equal	21	4	0.52	-2.76	-1.52	1.51	0.49	-2.87	-0.97	2.11	0.00
			a equal	0.2	1	0.5	-2.88	-1.58	1.57	0.5	-2.8	-0.94	2.06	0.15
			b equal	20.8	3	0.49	-2.87	-1.25	1.84	0.49	-2.87	-1.25	1.84	
		All equal	6.8	4	0.92	-1.92	-0.68	2.2	0.74	-2.48	-0.93	2.42	0.00	
		a equal	4.2	1	0.8	-2.15	-0.77	2.46	0.8	-2.31	-0.86	2.26		
		b equal	2.6	3	0.8	-2.23	-0.81	2.34	0.8	-2.23	-0.81	2.34		
	12(3)	All equal	16.2	4	0.95	-1.64	-0.23	2.42	0.68	-2.31	-0.6	2.81	0.00	
		a equal	9.3	1	0.77	-1.94	-0.28	2.88	0.77	-2.06	-0.52	2.52		
		b equal	7	3	0.78	-1.99	-0.4	2.66	0.78	-1.99	-0.4	2.66		

하위역량	번호	Test	G2	df	참조 집단				연구 집단				G2 p	
					a	b1	b2	b3	a	b1	b2	b3		
중독 행동	12(4)	All equal	58.2	4	1.23	-1.18	-0.01	2.04	1.1	-0.96	0.63	2.56	0.00	
		a equal	1.6	1	1.15	-1.24	-0.01	2.14	1.15	-0.93	0.62	2.48		
		b equal	56.6	3	1.12	-1.1	0.32	2.36	1.12	-1.1	0.32	2.36		
	12(5)	All equal	73.2	4	1.09	-1.42	-0.12	2.07	1.04	-1.05	0.64	2.54	0.00	
		a equal	0.2	1	1.06	-1.45	-0.13	2.11	1.06	-1.03	0.64	2.51		
		b equal	73	3	1.02	-1.26	0.27	2.37	1.02	-1.26	0.27	2.37		
	12(6)	All equal	2.3	4	1.33	-0.17	1.2	2.82	1.21	-0.2	1.21	2.87	0.68	
	폭력 행동	13(1)	All equal	150.2	4	2.2	1.13	2.46	3.97	1.46	0.54	2.15	3.58	0.00
			a equal	13.4	1	1.65	1.28	2.92	4.89	1.65	0.52	2.01	3.31	
b equal			136.7	3	1.64	0.85	2.31	3.62	1.64	0.85	2.31	3.62		
13(2)		All equal	120.6	4	2.07	1.3	2.38	3.59	1.62	0.71	1.95	3.06	0.00	
		a equal	4.3	1	1.74	1.4	2.63	4.05	1.74	0.69	1.87	2.94		
		b equal	116.3	3	1.75	0.99	2.13	3.19	1.75	0.99	2.13	3.19		
13(3)		All equal	82.5	4	1.54	0.44	1.78	3.4	1.21	-0.08	1.42	2.86	0.00	
		a equal	6.1	1	1.33	0.47	1.96	3.8	1.33	-0.06	1.35	2.7		
		b equal	76.4	3	1.35	0.19	1.58	3	1.35	0.19	1.58	3		
폭력 회피	13(4)	All equal	45.5	4	1.45	0.09	1.89	4.65	1.54	-0.27	1.46	3.23	0.00	
		a equal	0.5	1	1.5	0.09	1.84	4.51	1.5	-0.28	1.48	3.28		
		b equal	45.1	3	1.52	-0.1	1.62	3.54	1.52	-0.1	1.62	3.54		
	13(5)	All equal	17	4	1.16	0	1.38	3.09	1.33	-0.27	1.21	2.82	0.00	
		a equal	2.2	1	1.26	0.01	1.31	2.9	1.26	-0.28	1.24	2.93		
		b equal	14.8	3	1.26	-0.14	1.27	2.92	1.26	-0.14	1.27	2.92		
	13(6)	All equal	27.9	4	1.15	0.09	1.47	3.41	1.37	0.26	1.76	3.26	0.00	
		a equal	3.1	1	1.27	0.09	1.37	3.16	1.27	0.25	1.84	3.42		
		b equal	24.8	3	1.24	0.18	1.64	3.36	1.24	0.18	1.64	3.36		
분노 행동	14(1)	All equal	7.7	4	1.26	-0.77	0.81	2.88	1.17	-1.04	0.74	3.1	0.10	
		a equal	0.7	1	1.21	-0.8	0.84	2.98	1.21	-1.02	0.73	3.03		
		b equal	7	3	1.2	-0.91	0.78	3.01	1.2	-0.91	0.78	3.01		
	14(2)	All equal	11.1	4	1.66	0.31	1.68	3.12	1.37	0.18	1.95	3.33	0.03	
		a equal	4.5	1	1.48	0.31	1.81	3.39	1.48	0.19	1.86	3.16		
		b equal	6.6	3	1.49	0.25	1.83	3.24	1.49	0.25	1.83	3.24		
	감정 절제	14(3)	All equal	5.1	4	1.72	-0.03	1.35	2.96	1.7	-0.04	1.39	2.66	0.28
			a equal	0	1	1.71	-0.04	1.36	2.98	1.71	-0.04	1.39	2.65	
			b equal	5.1	3	1.71	-0.04	1.37	2.76	1.71	-0.04	1.37	2.76	
14(4)		All equal	81.4	4	1.18	-1.16	0.31	2.18	1.2	-0.71	1.04	2.69	0.00	
		a equal	0	1	1.19	-1.15	0.31	2.16	1.19	-0.71	1.04	2.7		
		b equal	81.4	3	1.14	-0.95	0.7	2.51	1.14	-0.95	0.7	2.51		
조절 실패	14(5)	All equal	140.9	4	1.29	-1.58	-0.33	1.74	1.18	-1	0.52	2.72	0.00	
		a equal	1	1	1.22	-1.64	-0.35	1.81	1.22	-0.97	0.52	2.65		
		b equal	139.9	3	1.14	-1.34	0.1	2.31	1.14	-1.34	0.1	2.31		
	14(6)	All equal	32.4	4	1.27	-1.52	0.21	1.85	1.1	-1.24	0.54	2.5	0.00	
		a equal	3	1	1.17	-1.61	0.22	1.97	1.17	-1.18	0.53	2.4		
		b equal	29.5	3	1.14	-1.4	0.38	2.22	1.14	-1.4	0.38	2.22		
감정 인식	14(7)	All equal	84.4	4	-0.77	4.22	1.56	-2.36	-0.19	12.82	5.02	-6.24	0.00	
		a equal	44.1	1	-0.4	7.81	2.78	-4.31	-0.4	6.31	2.56	-3		
		b equal	40.3	3	-0.39	6.97	2.68	-3.61	-0.39	6.97	2.68	-3.61		
	14(8)	All equal	33.4	4	-0.42	9.04	4.34	-2.22	-0.14	20.02	11.41	-6.43	0.00	
		a equal	11.3	1	-0.24	15.49	7.39	-3.76	-0.24	11.35	6.52	-3.59		
		b equal	22.1	3	-0.24	12.71	6.85	-3.65	-0.24	12.71	6.85	-3.65		
	14(9)	All equal	23.1	4	-0.32	11.08	5.44	-3.51	-0.15	18.13	9.54	-7.73	0.00	
		a equal	4.4	1	-0.21	16.63	8.14	-5.25	-0.21	12.59	6.66	-5.33		
		b equal	18.8	3	-0.22	13.72	7.12	-5.17	-0.22	13.72	7.12	-5.17		

표 IV-101 고등학생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IRT-LR test 결과: non-DIF 문항을 anchor로 사용

하위역량	번호	Test	G <sup>2</sup>	df	천주 집단				연구 집단				G <sup>2</sup> p
					a	b1	b2	b3	a	b1	b2	b3	
건강 관리	위생 관리	All equal	36.2	4	0.75	-8.67	-3.49	0.16	0.71	-7.09	-2.75	0.75	0.00
		a equal	0.2	1	0.73	-8.99	-3.61	0.17	0.73	-6.93	-2.7	0.73	0.65
		b equal	36	3	0.73	-7.49	-3.05	0.46	0.73	-7.49	-3.05	0.46	0.00
	신체 관리	All equal	78.4	4	0.62	-4.71	-0.23	2.67	0.86	-3.99	-0.99	1.14	0.00
		a equal	6.6	1	0.76	-3.93	-0.2	2.24	0.76	-4.45	-1.09	1.28	0.01
		b equal	71.8	3	0.74	-4.27	-0.67	1.72	0.74	-4.27	-0.67	1.72	0.00
	안전 및 스포츠 관리	All equal	297.8	4	0.22	-6.25	3.77	9	0.58	-4.89	-0.96	1.38	0.00
		a equal	16.7	1	0.44	-3.23	1.92	4.61	0.44	-6.34	-1.22	1.8	0.00
		b equal	281.1	3	0.4	-4.93	0.23	3.14	0.4	-4.93	0.23	3.14	0.00
	안전 및 스포츠 관리	All equal	17.5	4	0.59	-8.57	-2.94	1.5	0.78	-5.68	-2.21	0.81	0.00
		a equal	4.2	1	0.7	-7.24	-2.51	1.29	0.7	-6.24	-2.41	0.89	0.04
		b equal	13.3	3	0.7	-6.57	-2.45	1.07	0.7	-6.57	-2.45	1.07	0.00
레스 관리	All equal	62.9	4	0.64	-10.1	-3.26	1.59	0.8	-6.77	-2.98	0.4	0.00	
	a equal	2.6	1	0.73	-8.87	-2.89	1.41	0.73	-7.33	-3.21	0.43	0.11	
	b equal	60.3	3	0.72	-7.93	-3.1	0.89	0.72	-7.93	-3.1	0.89	0.00	
레스 관리	All equal	19.2	4	0.52	-8.19	-4.45	1.19	0.69	-5.94	-3.09	0.51	0.00	
	a equal	3.2	1	0.62	-6.91	-3.77	1.01	0.62	-6.53	-3.38	0.57	0.07	
	b equal	16	3	0.62	-6.66	-3.54	0.77	0.62	-6.66	-3.54	0.77	0.00	
과제 관리	목표 및 계획 수립	All equal	50	4	2.72	-2.67	-1.31	0.7	1.84	-3.05	-1.18	1.08	0.00
		a equal	18.8	1	2.15	-2.98	-1.44	0.78	2.15	-2.81	-1.11	0.99	0.00
		b equal	31.1	3	2.14	-2.89	-1.25	0.88	2.14	-2.89	-1.25	0.88	0.00
	중독 인식	All equal	17.5	4	2.12	-3.48	-1.6	0.83	1.66	-3.62	-1.54	0.99	0.00
		a equal	7.2	1	1.84	-3.81	-1.72	0.9	1.84	-3.43	-1.47	0.93	0.01
		b equal	10.3	3	1.85	-3.54	-1.57	0.92	1.85	-3.54	-1.57	0.92	0.02
상황 대처	중독 행동	All equal	17.5	4	0.05	-26.73	-15.48	13.31	0.03	-50.78	-19.63	33.36	0.00
		a equal	0.1	1	0.04	-37.08	-21.45	18.48	0.04	-36.94	-13.93	23.55	0.75
		b equal	17.4	3	0.04	-33.07	-15.72	19.18	0.04	-33.07	-15.72	19.18	0.00
	폭력 행위	All equal	10.6	4	0.75	-1.99	-0.3	2.96	0.57	-2.57	-0.66	3.27	0.03
		a equal	3.8	1	0.64	-2.27	-0.34	3.39	0.64	-2.3	-0.57	2.95	0.05
		b equal	6.8	3	0.65	-2.26	-0.46	3.11	0.65	-2.26	-0.46	3.11	0.08
폭력 회피	중독 행동	All equal	47.9	4	0.87	-1.52	-0.04	2.65	0.89	-1.1	0.68	2.93	0.00
		a equal	4.1	1	0.88	-1.51	-0.04	2.61	0.88	-1.11	0.69	2.96	0.75
		b equal	47.8	3	0.86	-1.32	0.35	2.85	0.86	-1.32	0.35	2.85	0.00
	폭력 행위	All equal	64	4	0.78	-1.83	-0.19	2.67	0.82	-1.22	0.71	2.99	0.00
		a equal	0.2	1	0.8	-1.79	-0.18	2.61	0.8	-1.25	0.72	3.03	0.65
		b equal	63.8	3	0.78	-1.54	0.3	2.91	0.78	-1.54	0.3	2.91	0.00
	폭력 회피	All equal	125.6	4	1.7	1.27	2.86	4.81	1.14	0.66	2.55	4.25	0.00
		a equal	10.1	1	1.3	1.46	3.44	5.94	1.3	0.63	2.33	3.85	0.00
		b equal	115.5	3	1.31	0.98	2.68	4.24	1.31	0.98	2.68	4.24	0.00
폭력 회피	All equal	104.7	4	1.5	1.53	2.91	4.55	1.19	0.87	2.38	3.76	0.00	
	a equal	3.2	1	1.28	1.68	3.26	5.16	1.28	0.84	2.26	3.56	0.07	
	b equal	101.4	3	1.29	1.18	2.58	3.9	1.29	1.18	2.58	3.9	0.00	
폭력 회피	All equal	69.5	4	1.14	0.5	2.16	4.28	0.98	-0.06	1.63	3.33	0.00	
	a equal	1.9	1	1.04	0.52	2.31	4.61	1.04	-0.04	1.56	3.18	0.17	
	b equal	67.6	3	1.06	0.22	1.84	3.55	1.06	0.22	1.84	3.55	0.00	
폭력 회피	All equal	41.1	4	0.82	0.1	2.85	7.55	0.98	-0.33	1.91	4.39	0.00	
	a equal	2.3	1	0.91	0.1	2.6	6.82	0.91	-0.36	2.01	4.65	0.13	
	b equal	38.8	3	0.93	-0.14	2.22	5.08	0.93	-0.14	2.22	5.08	0.00	
폭력 회피	All equal	16.8	4	0.62	-0.04	2.23	5.22	0.86	-0.36	1.56	3.83	0.00	
	a equal	5.7	1	0.76	-0.02	1.88	4.35	0.76	-0.42	1.71	4.24	0.02	
	b equal	11	3	0.76	-0.23	1.78	4.27	0.76	-0.23	1.78	4.27	0.01	
폭력 회피	All equal	22.6	4	0.59	0.11	2.47	6.04	0.84	0.3	2.39	4.57	0.00	
	a equal	5.9	1	0.73	0.1	2.07	5	0.73	0.31	2.69	5.19	0.02	
	b equal	16.6	3	0.72	0.22	2.42	5.18	0.72	0.22	2.42	5.18	0.00	
정서 조절	감정 절제	All equal	90.7	4	1.09	-1.23	0.33	2.33	1.48	-0.59	0.93	2.35	0.00
		a equal	10.8	1	1.28	-1.09	0.3	2.06	1.28	-0.68	1	2.58	0.00
		b equal	79.9	3	1.22	-0.91	0.67	2.38	1.22	-0.91	0.67	2.38	0.00
	조절 실패	All equal	127.4	4	1.13	-1.72	-0.36	1.92	1.22	-0.94	0.5	2.62	0.00
		a equal	0.6	1	1.18	-1.67	-0.35	1.86	1.18	-0.97	0.5	2.68	0.44
		b equal	126.8	3	1.09	-1.37	0.08	2.36	1.09	-1.37	0.08	2.36	0.00
	조절 실패	All equal	32.5	4	1.23	-1.56	0.22	1.92	1.28	-1.08	0.51	2.26	0.00
		a equal	0.4	1	1.25	-1.54	0.21	1.89	1.25	-1.1	0.51	2.29	0.53
		b equal	32.1	3	1.23	-1.33	0.37	2.12	1.23	-1.33	0.37	2.12	0.00
	감정 인식	All equal	43.1	4	0.35	-8.8	-3.09	4.85	0.15	-16.03	-6.17	7.88	0.00
		a equal	5	1	0.23	-13.46	-4.69	7.41	0.23	-10.79	-4.2	5.27	0.03
		b equal	38.1	3	0.22	-11.89	-4.44	6.21	0.22	-11.89	-4.44	6.21	0.00
감정 인식	All equal	28.6	4	0.49	-7.89	-3.81	1.94	0.25	-10.93	-6.26	3.48	0.00	
	a equal	6.8	1	0.34	-10.99	-5.27	2.68	0.34	-8.09	-4.67	2.55	0.01	
	b equal	21.8	3	0.35	-9.06	-4.9	2.6	0.35	-9.06	-4.9	2.6	0.00	
감정 인식	All equal	22.4	4	0.54	-6.78	-3.37	2.16	0.35	-7.93	-4.22	3.33	0.00	
	a equal	4.5	1	0.42	-8.58	-4.24	2.72	0.42	-6.56	-3.52	2.75	0.03	
	b equal	17.9	3	0.43	-7.21	-3.78	2.7	0.43	-7.21	-3.78	2.7	0.00	

분석 결과, 고등학생 집단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별기능문항의 갯수가 초, 중학생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초, 중학생 집단과 달리 문항 마다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에 대한 유·불리가 다르게 나타났다. 즉, 고등학생 집단에서는 총 23개 문항이 성별에 따라 차별기능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 중 12개 문항[10(3)~10(8), 11(2), 11(3), 12(1)]은 여자 청소년에게, 11개 문항[12(4), 12(5), 13(1)~13(6), 14(4)~14(9)]은 남자 청소년에게 유리하였다. 해당 문항이 속해 있는 하위 역량별로 살펴보면, '건강관리'가 6문항(위생관리 1문항, 신체관리 2문항,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3문항), '과제 관리'가 2문항(목표 및 계획 수립), '상황대처'가 8문항(중독행동 2문항, 폭력행동과 폭력회피 각 3문항), 정서조절 7문항(감정절제 1문항, 조절실패 2문항, 감정인식 3문항)을 포함하고 있었다(<표 IV-102> 참조).

**표 IV-102 고등학생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DIF 문항 내용**

하위역량	번호	문항 내용	선호 집단
건강 관리	위생관리	10(3) 나는 식사 후에는 양치질을 한다	여
	신체관리	10(4) 나는 건강을 위해 음식이나 운동, 생활 습관 등을 조절한다	여
		10(5) 나는 규칙적으로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거나 걷는다	여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10(6) 나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수칙이나 규칙을 잘 지킨다	여
		10(7) 나는 화재 발생 시 대처 요령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여
10(8) 나는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일이나 공부를 하는 중간 중간 적당한 휴식을 취한다		여	
과제 관리	목표 및 계획 수립	11(2) 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해야 할 일에 대한 계획을 스스로 세운다	여
	11(3) 나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히거나 새로운 목표가 생기면 그에 따라 계획을 수정한다	여	
상황 대처	중독인식	12(1) 술, 담배,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은 중독성을 갖고 있다	여
	중독행동	12(4) 술, 담배,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그만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중에도 어쩔 수 없이 계속 하게 된다	남
		12(5) 술, 담배,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으로 인해 내 생활(일, 공부, 수면 등)이 방해를 받는 경우가 많다	남
		13(1) 나는 내 힘을 자랑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괴롭힌 적이 있다	남
	폭력행동	13(2) 나는 단지 재미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인터넷에 악플을 달거나 욕을 한 적이 있다	남
		13(3) 나는 폭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상대방에게 맞서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라 생각한다	남
		13(4) 나는 내가 피해를 볼까봐 친구가 다른 친구를 괴롭히는 것을 모른 척 하곤 한다	남
	폭력회피	13(5) 나는 누군가 나(또는 다른 친구)를 괴롭힐 때 그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두려워 참는 편이다	남
		13(6) 나는 누군가 나를 괴롭힐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	남
14(4) 나는 갑자기 슬프거나 힘든 일을 당하면 잘 이겨내기가 힘들다		남	
정서 조절	감정절제	14(4) 나는 갑자기 슬프거나 힘든 일을 당하면 잘 이겨내기가 힘들다	남
	조절실패	14(5) 나는 작은 일에도 기분이 쉽게 변한다	남
		14(6) 나는 기분에 따라 행동이 크게 변한다	남
	감정인식	14(7) 나는 내 기분이나 감정이 상해도 내 말이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	여
		14(8) 나는 내 기분이나 감정을 분명히 알고 있다	여
14(9) 나는 내 기분이나 감정 상태에 많은 신경을 쓴다		여	

④ 대학생 생활관리역량지수에 대한 성별 DIF 분석 결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DIF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IV-103>, <표 IV-104> 참조).

**표 IV-103** 대학생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IRT-LR test 결과: 모든 문항을 anchor로 사용

하위역량	번호	Test	G <sup>2</sup>	df	참조 집단				연구 집단				G <sup>2</sup> p	
					a	b1	b2	b3	a	b1	b2	b3		
위생 관리	10(1)	All equal	8.9	4	-0.52	10.13	3.36	-1.54	-0.3	14.01	5.21	-3.47	0.06	
		a equal	3.2	1	-0.38	13.49	4.44	-2.03	-0.38	10.84	4.04	-2.73		
		b equal	5.7	3	-0.38	12.04	4.3	-2.41	-0.38	12.04	4.3	-2.41		
	10(2)	All equal	6.9	4	-0.32	19.52	10.75	1.08	-0.5	9.93	5.72	0.47	0.14	
		a equal	1.7	1	-0.42	14.9	8.22	0.83	-0.42	11.62	6.68	0.56		
		b equal	5.2	3	-0.42	12.71	7.33	0.69	-0.42	12.71	7.33	0.69		
	10(3)	All equal	15.8	4	-0.57	11.08	3.79	-1.37	-0.23	18.5	7.83	-2.65	0.00	
		a equal	7.3	1	-0.36	17.32	5.84	-2.1	-0.36	11.82	5.02	-1.74		
		b equal	8.4	3	-0.36	13.39	5.4	-1.91	-0.36	13.39	5.4	-1.91		
건강 관리	10(4)	All equal	32.5	4	-0.42	7.77	1.21	-4.31	-0.33	10.28	3.13	-2.87	0.00	
		a equal	0.5	1	-0.37	8.77	1.37	-4.85	-0.37	9.38	2.85	-2.64		
		b equal	32	3	-0.37	8.97	2.05	-3.58	-0.37	8.97	2.05	-3.58		
	10(5)	All equal	72.4	4	-0.15	12.02	-3.05	-13.63	-0.21	13.01	2.69	-5.11	0.00	
		a equal	0.2	1	-0.19	9.87	-2.51	-11.18	-0.19	14.63	3.02	-5.75		
		b equal	72.2	3	-0.19	11.74	0.24	-7.97	-0.19	11.74	0.24	-7.97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10(6)	All equal	7	4	-0.41	12.03	4.56	-2.88	-0.37	11.22	5.16	-2.25	0.14	
		a equal	0.1	1	-0.39	12.65	4.79	-3.02	-0.39	10.8	4.97	-2.18		
		b equal	6.9	3	-0.39	11.38	4.79	-2.54	-0.39	11.38	4.79	-2.54		
	10(7)	All equal	19.1	4	-0.52	7.88	2.62	-2.85	-0.3	13.19	6.06	-3.21	0.00	
		a equal	3.3	1	-0.39	10.5	3.46	-3.75	-0.39	10.16	4.69	-2.52		
		b equal	15.9	3	-0.39	10.18	3.97	-3.05	-0.39	10.18	3.97	-3.05		
10(8)	All equal	6.2	4	-0.33	12.3	5.85	-2.85	-0.37	12.09	5.83	-1.67	0.18		
	a equal	0.1	1	-0.35	11.46	5.46	-2.66	-0.35	12.6	6.07	-1.73			
	b equal	6.1	3	-0.36	11.77	5.66	-2.15	-0.36	11.77	5.66	-2.15			
과제 관리	11(1)	All equal	3.9	4	-0.46	11.2	4.19	-3.69	-0.34	14.29	6.03	-4.14	0.42	
		a equal	0.9	1	-0.39	13.25	4.93	-4.33	-0.39	12.47	5.27	-3.65		
		b equal	3.1	3	-0.4	12.65	5.02	-3.92	-0.4	12.65	5.02	-3.92		
	11(2)	All equal	2.5	4	-0.47	11.95	4.15	-3.01	-0.33	16.9	5.62	-3.73	0.64	
		All equal	11.6	4	-0.44	12.77	4.95	-3.61	-0.34	11.69	5.38	-3.61		
		a equal	0.5	1	-0.38	14.61	5.65	-4.11	-0.38	10.59	4.87	-3.29		
	11(3)	b equal	11.1	3	-0.39	11.75	5.17	-3.63	-0.39	11.75	5.17	-3.63	0.02	
		All equal	6.4	4	-0.42	11.54	3.19	-4.01	-0.22	18.04	5.86	-6.99		0.17
		a equal	2.7	1	-0.3	16.17	4.43	-5.56	-0.3	13.01	4.23	-5.1		
	11(4)	b equal	3.7	3	-0.3	14.19	4.31	-5.3	-0.3	14.19	4.31	-5.3		
		All equal	16.5	4	-0.42	12.3	2.39	-3.78	-0.32	11.91	4.38	-4.54	0.00	
		a equal	0.6	1	-0.36	14.12	2.74	-4.32	-0.36	10.52	3.88	-4.04		
11(5)	b equal	15.8	3	-0.36	11.79	3.28	-4.18	-0.36	11.79	3.28	-4.18			
	All equal	9.4	4	-0.42	11.06	3.28	-4	-0.25	16.82	6.45	-5.02	0.05		
	a equal	1.8	1	-0.32	14.38	4.24	-5.15	-0.32	13.27	5.1	-4.01			
11(6)	b equal	7.7	3	-0.33	13.59	4.59	-4.49	-0.33	13.59	4.59	-4.49			

하위역량	번호	Test	G <sup>2</sup>	df	참조 집단				연구 집단				G <sup>2</sup> p	
					a	b1	b2	b3	a	b1	b2	b3		
상황 대처	중독 인식	12(1) All equal	4.8	4	0.68	-2.54	-0.92	2.13	0.46	-4.03	-1.54	2.78	0.31	
		a equal	3.4	1	0.55	-3.12	-1.15	2.6	0.55	-3.44	-1.31	2.36		
		b equal	1.4	3	0.54	-3.29	-1.23	2.49	0.54	-3.29	-1.23	2.49		
		12(2) All equal	20.8	4	0.83	-2.41	-1.02	2.87	0.48	-4.8	-2.01	3.46	0.00	
		a equal	7.1	1	0.62	-3.13	-1.33	3.73	0.62	-3.84	-1.61	2.75		
		b equal	13.7	3	0.61	-3.5	-1.48	3.23	0.61	-3.5	-1.48	3.23		
	12(3) All equal	12.6	4	0.76	-2.67	-1.03	2.79	0.48	-4.63	-1.78	3.32	0.01		
	a equal	4.7	1	0.59	-3.36	-1.3	3.51	0.59	-3.86	-1.49	2.75			
	b equal	7.8	3	0.59	-3.62	-1.4	3.12	0.59	-3.62	-1.4	3.12			
	중독 행동	12(4) All equal	10.1	4	1	-1.62	0.01	2.68	0.85	-1.81	0.43	3.03	0.04	
		a equal	1.3	1	0.91	-1.75	0.01	2.9	0.91	-1.71	0.41	2.85		
		b equal	8.7	3	0.91	-1.73	0.2	2.87	0.91	-1.73	0.2	2.87		
		12(5) All equal	5.2	4	0.85	-1.84	0.08	2.81	0.87	-1.8	0.41	2.81	0.27	
		a equal	0	1	0.86	-1.82	0.09	2.78	0.86	-1.82	0.41	2.83		
		b equal	5.2	3	0.86	-1.82	0.24	2.81	0.86	-1.82	0.24	2.81		
	12(6) All equal	2	4	1.17	-0.48	1.16	3.32	1.2	-0.54	1.08	2.91	0.74		
	폭력 행동	13(1)	All equal	29.5	4	1.93	0.6	1.79	3.23	1.65	0.16	1.55	2.98	0.00
			a equal	1.3	1	1.75	0.62	1.9	3.45	1.75	0.16	1.5	2.88	
b equal			28.2	3	1.73	0.39	1.69	3.11	1.73	0.39	1.69	3.11		
13(2) All equal			33.1	4	2.14	0.76	1.93	2.86	2.44	0.33	1.41	2.34	0.00	
a equal			0.9	1	2.31	0.74	1.86	2.74	2.31	0.33	1.44	2.4		
b equal			32.2	3	2.26	0.55	1.64	2.56	2.26	0.55	1.64	2.56		
13(3) All equal		21.4	4	2.19	0.31	1.42	2.32	1.78	-0.05	1.36	2.31	0.00		
a equal		2.8	1	1.94	0.31	1.51	2.48	1.94	-0.05	1.31	2.2			
b equal		18.5	3	1.91	0.14	1.41	2.34	1.91	0.14	1.41	2.34			
13(4)		All equal	5.4	4	2.05	-0.03	1.35	2.92	2.39	-0.16	1.22	2.71	0.25	
		a equal	1.7	1	2.22	-0.02	1.3	2.79	2.22	-0.17	1.26	2.8		
		b equal	3.6	3	2.21	-0.1	1.28	2.8	2.21	-0.1	1.28	2.8		
	13(5) All equal	3.3	4	1.92	-0.18	1	2.42	1.72	-0.34	1.03	2.64	0.51		
	All equal	20.2	4	1.67	-0.19	0.82	2.55	1.88	0	1.19	2.85	0.00		
	a equal	0.9	1	1.77	-0.17	0.79	2.45	1.77	-0.01	1.22	2.93			
b equal	19.3	3	1.73	-0.1	0.99	2.7	1.73	-0.1	0.99	2.7				
정서 조절	분노 행동	14(1) All equal	7.8	4	1.54	-0.67	0.88	3.12	1.3	-0.83	0.98	2.87	0.10	
		a equal	1.9	1	1.4	-0.72	0.93	3.35	1.4	-0.79	0.94	2.73		
		b equal	5.9	3	1.4	-0.76	0.93	2.97	1.4	-0.76	0.93	2.97		
		14(2) All equal	13.4	4	1.58	0.15	1.59	3.3	2.02	-0.08	1.45	2.69	0.01	
		a equal	3.7	1	1.81	0.15	1.47	3.02	1.81	-0.09	1.52	2.85		
		b equal	9.7	3	1.79	0.03	1.5	2.93	1.79	0.03	1.5	2.93		
	14(3)	All equal	1.9	4	1.71	-0.15	1.32	2.85	1.94	-0.1	1.33	2.7	0.75	
		All equal	26.3	4	1.37	-0.91	0.65	2.57	1.74	-0.49	1.02	2.36	0.00	
		a equal	4	1	1.56	-0.83	0.61	2.35	1.56	-0.52	1.08	2.51		
		b equal	22.2	3	1.54	-0.68	0.83	2.44	1.54	-0.68	0.83	2.44		
		14(5)	All equal	50.9	4	1.21	-1.41	0.08	2.1	1.45	-0.8	0.69	2.83	0.00
			a equal	2.2	1	1.33	-1.31	0.08	1.96	1.33	-0.85	0.72	3	
b equal	48.7		3	1.29	-1.09	0.4	2.42	1.29	-1.09	0.4	2.42			
14(6) All equal	15.7		4	1.19	-1.48	0.3	2.57	1.25	-1.07	0.7	2.91	0.00		
a equal	0.2		1	1.22	-1.45	0.3	2.52	1.22	-1.09	0.71	2.96			
b equal	15.5		3	1.21	-1.27	0.5	2.74	1.21	-1.27	0.5	2.74			
14(7)	All equal	13.8	4	-0.38	6.86	2.65	-4.29	-0.18	11.78	5.18	-7.13	0.01		
	a equal	2.6	1	-0.26	9.96	3.81	-6.22	-0.26	8.07	3.56	-4.91			
	b equal	11.1	3	-0.26	8.85	3.66	-5.48	-0.26	8.85	3.66	-5.48			
	14(8) All equal	10.4	4	-0.34	8.66	4.26	-3.74	-0.04	57.69	31.78	-31.75	0.03		
	a equal	5.4	1	-0.17	17.45	8.51	-7.53	-0.17	14.17	7.85	-7.83			
	b equal	5	3	-0.16	15.83	8.29	-7.79	-0.16	15.83	8.29	-7.79			
	14(9) All equal	16.3	4	-0.31	9.64	5.09	-4.73	0.09	-26.11	-13.34	16.5	0.00		
	a equal	9.1	1	-0.07	40.77	21.28	-20.05	-0.07	32.12	16.5	-20.37			
	b equal	7.3	3	-0.07	38.06	19.91	-21.44	-0.07	38.06	19.91	-21.44			

표 IV-104 대학생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IRT-LR test 결과: non-DIF 문항을 anchor로 사용

하위역량	번호	Test	G <sup>2</sup>	df	참조 집단				연구 집단				G <sup>2</sup> p	
					a	b1	b2	b3	a	b1	b2	b3		
건강 관리	위생 관리	All equal	11.1	4	-0.53	11.95	4.08	-1.46	-0.31	13.99	5.94	-1.98	0.03	
		a equal	2.6	1	-0.41	15.44	5.22	-1.87	-0.41	10.57	4.51	-1.52		
		b equal	8.6	3	-0.41	12.02	4.86	-1.69	-0.41	12.02	4.86	-1.69		
	신체 관리	10(4)	All equal	31.8	4	-0.36	9.05	1.43	-4.97	-0.4	8.57	2.61	-2.38	0.00
			a equal	0.1	1	-0.38	8.45	1.34	-4.65	-0.38	9.05	2.75	-2.51	
			b equal	31.7	3	-0.39	8.64	1.99	-3.42	-0.39	8.64	1.99	-3.42	
		10(5)	All equal	72.6	4	-0.19	9.56	-2.42	-10.81	-0.2	13.76	2.86	-5.35	0.00
			a equal	0	1	-0.2	9.37	-2.38	-10.61	-0.2	13.91	2.89	-5.41	
			b equal	72.6	3	-0.19	11.48	0.25	-7.75	-0.19	11.48	0.25	-7.75	
	안전 및 리스 관리	10(7)	All equal	19.2	4	-0.66	6.33	2.15	-2.3	-0.41	9.62	4.46	-2.34	0.00
			a equal	3.1	1	-0.52	7.87	2.64	-2.83	-0.52	7.59	3.54	-1.88	
			b equal	16	3	-0.53	7.69	3.04	-2.31	-0.53	7.69	3.04	-2.31	
과제 관리	수행 평가	All equal	15.1	4	-2.09	3.22	0.77	-1.17	-1.92	2.65	1.05	-1.28	0.00	
		a equal	0.4	1	-2	3.3	0.79	-1.2	-2	2.58	1.03	-1.26		
		b equal	14.7	3	-1.99	2.86	0.9	-1.23	-1.99	2.86	0.9	-1.23		
상황 대처	중독 인식	All equal	17.2	4	1.91	-1.43	-0.56	1.66	1.63	-1.88	-0.73	1.38	0.00	
		a equal	1.7	1	1.76	-1.49	-0.59	1.74	1.76	-1.79	-0.69	1.32		
		b equal	15.5	3	1.75	-1.64	-0.64	1.52	1.75	-1.64	-0.64	1.52		
	폭력 행동	13(1)	All equal	24.5	4	1.54	0.68	2.08	3.78	1.61	0.21	1.57	3.01	0.00
			a equal	0.1	1	1.58	0.67	2.05	3.71	1.58	0.21	1.59	3.04	
			b equal	24.4	3	1.56	0.44	1.81	3.32	1.56	0.44	1.81	3.32	
		13(2)	All equal	31.3	4	1.7	0.86	2.21	3.28	2.57	0.37	1.42	2.3	0.00
			a equal	6.4	1	2.14	0.79	1.95	2.86	2.14	0.39	1.53	2.51	
			b equal	24.9	3	2.1	0.6	1.74	2.68	2.1	0.6	1.74	2.68	
		13(3)	All equal	13.6	4	1.9	0.33	1.53	2.51	1.94	0.02	1.33	2.2	0.01
			a equal	0	1	1.92	0.32	1.53	2.5	1.92	0.02	1.33	2.21	
			b equal	13.6	3	1.9	0.18	1.43	2.35	1.9	0.18	1.43	2.35	
	폭력 회피	13(6)	All equal	19.3	4	2.34	-0.16	0.71	2.15	2.72	0.01	1.01	2.32	0.00
			a equal	1.2	1	2.52	-0.14	0.69	2.08	2.52	0	1.03	2.4	
			b equal	18.1	3	2.47	-0.07	0.85	2.24	2.47	-0.07	0.85	2.24	
정서 조절	분노 행동	All equal	12.2	4	1.61	0.15	1.6	3.29	2.22	-0.04	1.4	2.54	0.02	
		a equal	4.9	1	1.91	0.16	1.46	2.95	1.91	-0.05	1.5	2.75		
		b equal	7.2	3	1.89	0.06	1.48	2.85	1.89	0.06	1.48	2.85		
	감정 절제	14(4)	All equal	31.2	4	1.17	-1.03	0.71	2.9	1.88	-0.47	0.94	2.2	0.00
			a equal	11.9	1	1.48	-0.86	0.61	2.45	1.48	-0.55	1.07	2.54	
			b equal	19.3	3	1.47	-0.7	0.83	2.5	1.47	-0.7	0.83	2.5	
	조절 실패	14(5)	All equal	51.1	4	0.91	-1.72	0.08	2.61	1.47	-0.78	0.64	2.73	0.00
			a equal	10.2	1	1.16	-1.43	0.07	2.16	1.16	-0.93	0.75	3.23	
			b equal	40.9	3	1.14	-1.17	0.4	2.62	1.14	-1.17	0.4	2.62	
		14(6)	All equal	18.4	4	0.9	-1.81	0.34	3.2	1.23	-1.03	0.68	2.88	0.00
			a equal	4.1	1	1.06	-1.59	0.31	2.81	1.06	-1.15	0.76	3.23	
			b equal	14.3	3	1.06	-1.36	0.53	3.01	1.06	-1.36	0.53	3.01	
감정 인식	14(7)	All equal	11.2	4	-0.21	12.33	4.69	-7.7	-0.19	10.93	4.79	-6.59	0.02	
		a equal	0	1	-0.2	12.81	4.87	-8	-0.2	10.4	4.56	-6.27		
		b equal	11.2	3	-0.2	11.46	4.7	-7.07	-0.2	11.46	4.7	-7.07		
	14(9)	All equal	13.3	4	-0.1	29.98	15.66	-14.73	0.27	-8.71	-4.43	5.53	0.01	
		a equal	6.5	1	0.1	-29.04	-15.07	14.39	0.1	-23.03	-11.76	14.59		
b equal	6.9	3	0.1	-24.58	-12.78	13.9	0.1	-24.58	-12.78	13.9				

분석 결과, 대학생 집단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별기능문항이 초, 중등학생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으며,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집단과 마찬가지로 여자 청소년에게 더 유리하였다. 즉, 대학생 집단에서는 10(4), 10(5), 10(7), 11(5), 12(2), 13(1)~13(3), 13(6), 14(4)~14(6)의 총 12개 문항이 성별에 따른 차별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문항이 속해 있는 하위 역량별로 살펴보면, ‘건강관리’가 3문항(신체관리 2문항,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1문항), ‘과제 관리’가 1문항(수행 및 평가), ‘상황대처’가 5문항(중독인식과 폭력회피 각 1문항, 폭력행동 3문항), 정서조절 3문항(감정절제 1문항, 조절실패 2문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관련 문항은 <표 IV-105>과 같다.

**표 IV-105**    대학생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DIF 문항 내용

하위역량	번호	문항 내용	선호 집단
건강 관리	신체관리	10(4) 나는 건강을 위해 음식이나 운동, 생활 습관 등을 조절한다	여
		10(5) 나는 규칙적으로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거나 걷는다	여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10(7) 나는 화재 발생 시 대처 요령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여
과제 관리	수행 및 평가	11(5) 나는 어떤 일을 마치고 난 후 내가 세운 계획에 맞게 일을 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본다	여
상황 대처	중독인식	12(2) 술, 담배,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여
	폭력행동	13(1) 나는 내 힘을 자랑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괴롭힌 적이 있다	여
		13(2) 나는 단지 재미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인터넷에 악플을 달거나 욕을 한 적이 있다	여
		13(3) 나는 폭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상대방에게 맞서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라 생각한다	여
폭력회피	13(6) 나는 누군가 나를 괴롭힐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	여	
정서 조절	감정절제	14(4) 나는 갑자기 슬프거나 힘든 일을 당하면 잘 이겨내기가 힘들다	여
	조절실패	14(5) 나는 작은 일에도 기분이 쉽게 변한다	여
		14(6) 나는 기분에 따라 행동이 크게 변한다	여

⑤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에 대한 성별 DIF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

이 절에서는 ‘생활관리역량’ 지수에 대한 성별 DIF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초등학생과 대학생 집단에서는 16개, 12개 문항이 여자 청소년에게 더 유리한 반면, 중학생 집단에서는 23개 문항이 남자 청소년에게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등학생 집단의 경우 여자 청소년에게 유리한 문항은 12개, 남자 청소년에게 유리한 문항은 11개(상황대처 중심)로 여자 청소년에게 약간 유리한 경향을 보였다. 이를 통해 생활관리역량 검사도구의 중학생용 일부 문항은 남자 청소년에게 유리한 형태로 개발된 반면, 초등학생용, 고등학생용, 대학생용의 경우 여자 청소년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형태로 개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차별기능문항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역량 검사도구에 응답한 학생들과 내용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면담 등을 실시하여 향후 면밀히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건강관리’의 ‘신체 관리’에 해당하는 10(4)와 10(5)번 문항, ‘상황대처’ 중 ‘폭력행동’에 해당하는 13(1), 13(2), 13(3), ‘정서조절’의

‘감정절제’에 해당하는 14(4)과 ‘조절 실패’에 해당하는 14(5), 14(6) 문항은 초, 중, 고등학생과 대학생 집단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차별기능문항으로 선정되었다. 이들 문항에 대해서는 향후 검사의 목적과 내용 타당도를 고려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3)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 측정도구에 대한 차별기능문항 분석

차별기능문항(이하 DIF) 분석에 앞서, 성별에 따른 진로개발역량 전체 및 세 가지 하위역량 차이를 학교급별로 나타내면 <표 IV-106>과 같다. 분석 결과, 초등학생의 경우 여자 청소년의 역량 평균 값이 남자 청소년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반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의 경우 여자 청소년의 역량 평균 값이 남자 청소년보다 더 낮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IV-106 성별에 따른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 하위역량별 역량 차이: 학교급별**

학교급	구분	사례수	전체		진로 설계		여가 활용		개척 정신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초등학생	전체	2,509	3.06	0.48	3.05	0.57	3.19	0.54	2.87	0.52
	남	1,267	3.03	0.48	2.99	0.58	3.18	0.55	2.85	0.52
	여	1,242	3.09	0.47	3.10	0.56	3.21	0.52	2.89	0.52
통계량			t=-3.14**		t=-4.83**		t=-1.31		t=-1.82	
중학생	전체	2,541	2.99	0.44	2.98	0.54	3.18	0.50	2.70	0.55
	남	1,176	3.03	0.44	2.98	0.56	3.22	0.49	2.78	0.53
	여	1,365	2.96	0.44	2.99	0.52	3.14	0.50	2.63	0.56
통계량			t=3.63**		t=-0.29		t=3.98**		t=6.70**	
고등학생	전체	3,366	2.99	0.41	3.03	0.49	3.14	0.48	2.68	0.54
	남	1,901	3.01	0.44	3.02	0.52	3.18	0.50	2.73	0.56
	여	1,465	2.96	0.38	3.06	0.46	3.09	0.44	2.61	0.51
통계량			t=3.63**		t=-2.13*		t=5.41**		t=6.41**	
대학생	전체	995	2.97	0.35	3.04	0.42	3.06	0.42	2.70	0.50
	남	500	3.01	0.36	3.05	0.43	3.13	0.42	2.76	0.50
	여	495	2.92	0.34	3.03	0.42	3.00	0.41	2.63	0.50
통계량			t=4.07**		t=0.87		t=4.91**		t=4.05**	

\*, p<0.05, \*\*, p<0.01

이처럼 여자 청소년의 진로개발역량 평균 값이 초등학생 집단에서는 남자 청소년보다 높으나, 상위 학교급으로 갈수록 역량 평균 값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해석하기 위해 다음에서는 학교급별로 성별에 따른 DIF 분석을 실시하였다.

#### ① 초등학생 진로개발역량지수에 대한 성별 DIF 분석 결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DIF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IV-107>, <표 IV-108> 참조).

표 IV-107 초등학교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IRT-LR test 결과: 모든 문항을 anchor로 사용

하위역량	번호	Test	G <sup>2</sup>	df	집중 집단(여)				연구 집단(남)				G <sup>2</sup> p	
					a	b1	b2	b3	a	b1	b2	b3		
진로 설계	자기 탐색	4(1)	All equal	4.4	4	1.56	-2.99	-1.35	0.37	1.59	-2.96	-1.28	0.49	0.35
			a equal	0.1	1	1.58	-2.96	-1.34	0.36	1.58	-2.98	-1.29	0.49	
			b equal	4.3	3	1.58	-2.97	-1.31	0.43	1.58	-2.97	-1.31	0.43	
	4(2)	All equal	5.8	4	1.66	-2.81	-1.31	0.26	1.45	-3.14	-1.5	0.36	0.21	
		a equal	3.2	1	1.55	-2.95	-1.37	0.28	1.55	-3.01	-1.44	0.33		
		b equal	2.6	3	1.55	-2.98	-1.41	0.3	1.55	-2.98	-1.41	0.3		
	직업 탐색	4(3)	All equal	3.9	4	1.44	-2.4	-0.49	0.8	1.43	-2.2	-0.49	0.83	0.42
			a equal	0	1	1.43	-2.4	-0.49	0.8	1.43	-2.2	-0.49	0.83	
			b equal	3.9	3	1.44	-2.29	-0.49	0.81	1.44	-2.29	-0.49	0.81	
	4(4)	All equal	2.5	4	1.68	-2.47	-0.96	0.43	1.72	-2.28	-0.88	0.45	0.64	
	진로 준비	4(5)	All equal	14	4	1.59	-2.16	-0.33	1.1	1.53	-1.91	-0.18	1.27	0.01
			a equal	0.3	1	1.56	-2.18	-0.33	1.12	1.56	-1.89	-0.18	1.25	
b equal			13.7	3	1.56	-2.01	-0.26	1.18	1.56	-2.01	-0.26	1.18		
4(6)		All equal	22.4	4	1.43	-3.09	-1.79	-0.15	1.61	-2.78	-1.41	0.07	0.00	
		a equal	2.3	1	1.52	-2.95	-1.72	-0.15	1.52	-2.88	-1.45	0.09		
		b equal	20.1	3	1.53	-2.9	-1.57	-0.03	1.53	-2.9	-1.57	-0.03		
직업 가치관	4(7)	All equal	6.8	4	1.65	-3.17	-1.82	-0.13	1.69	-3.21	-1.9	-0.01	0.15	
		a equal	0.1	1	1.67	-3.14	-1.8	-0.13	1.67	-3.23	-1.91	-0.01		
		b equal	6.7	3	1.67	-3.19	-1.86	-0.07	1.67	-3.19	-1.86	-0.07		
	4(8)	All equal	4.4	4	1.54	-2.74	-0.88	0.54	1.49	-2.6	-0.92	0.62	0.35	
		a equal	0.2	1	1.51	-2.78	-0.89	0.55	1.51	-2.57	-0.91	0.61		
		b equal	4.2	3	1.51	-2.66	-0.9	0.58	1.51	-2.66	-0.9	0.58		
4(9)	All equal	1.7	4	1.38	-3.42	-1.08	1.01	1.38	-3.47	-0.99	1.02	0.79		
여가 활용	5(1)	All equal	5.3	4	1.92	-3.28	-1.76	0.12	2.13	-2.85	-1.57	0.13	0.26	
		a equal	2.1	1	2.02	-3.18	-1.71	0.12	2.02	-2.93	-1.6	0.14		
		b equal	3.2	3	2.03	-3.02	-1.65	0.13	2.03	-3.02	-1.65	0.13		
	5(2)	All equal	9.5	4	2.16	-3.63	-2.31	-0.49	2.04	-3.21	-2.19	-0.38	0.05	
		a equal	0.5	1	2.09	-3.69	-2.35	-0.49	2.09	-3.17	-2.16	-0.38		
		b equal	9	3	2.1	-3.33	-2.24	-0.43	2.1	-3.33	-2.24	-0.43		
	5(3)	All equal	11.7	4	1.4	-3.53	-1.71	0.04	1.58	-3.03	-1.39	0.16	0.02	
		a equal	2.5	1	1.49	-3.37	-1.64	0.04	1.49	-3.14	-1.43	0.17		
		b equal	9.2	3	1.5	-3.23	-1.52	0.11	1.5	-3.23	-1.52	0.11		
	5(4)	All equal	3.1	4	1.61	-2.15	-0.34	1.14	1.47	-2.29	-0.28	1.24	0.54	
		a equal	79	4	1.5	-2.66	-1.09	0.31	1.66	-2.9	-1.53	-0.15		
		b equal	3.1	3	1.61	-2.15	-0.34	1.14	1.47	-2.29	-0.28	1.24		
	5(5)	a equal	1.9	1	1.57	-2.57	-1.06	0.29	1.57	-3	-1.58	-0.15	0.00	
		b equal	77.1	3	1.51	-2.85	-1.34	0.08	1.51	-2.85	-1.34	0.08		
		All equal	79.2	4	1.2	-2.68	-0.45	1.46	1.35	-2.69	-0.95	0.79		
	5(6)	a equal	2.4	1	1.27	-2.56	-0.43	1.39	1.27	-2.8	-0.98	0.83	0.00	
		b equal	76.8	3	1.22	-2.76	-0.72	1.13	1.22	-2.76	-0.72	1.13		
		All equal	2.1	4	2.15	-2.73	-1.52	-0.14	2.08	-2.86	-1.5	-0.18		
5(7)	All equal	4.5	4	2.49	-2.52	-1.06	0.27	2.33	-2.71	-1.18	0.25	0.34		
	a equal	0.9	1	2.4	-2.56	-1.07	0.28	2.4	-2.67	-1.17	0.24			
	b equal	3.6	3	2.39	-2.62	-1.12	0.26	2.39	-2.62	-1.12	0.26			
5(9)	All equal	15.1	4	2.29	-2.5	-1.06	0.56	2.16	-2.62	-1.02	0.4	0.00		
	a equal	0.7	1	2.22	-2.54	-1.07	0.57	2.22	-2.58	-1.01	0.4			
	b equal	14.4	3	2.21	-2.57	-1.04	0.49	2.21	-2.57	-1.04	0.49			
5(10)	All equal	5.7	4	1.81	-3.36	-1.78	-0.18	1.79	-3.06	-1.89	-0.24	0.22		
	a equal	0	1	1.8	-3.38	-1.79	-0.18	1.8	-3.05	-1.88	-0.24			
	b equal	5.7	3	1.79	-3.18	-1.84	-0.21	1.79	-3.18	-1.84	-0.21			
개척 정신	6(1)	All equal	13.4	4	1.34	-2.44	-0.06	1.55	1.08	-2.67	-0.2	1.84	0.01	
		a equal	6.7	1	1.2	-2.64	-0.06	1.67	1.2	-2.48	-0.2	1.7		
		b equal	6.7	3	1.2	-2.55	-0.13	1.69	1.2	-2.55	-0.13	1.69		
	6(2)	All equal	9	4	1.34	-2.65	-0.36	1.46	1.19	-3.12	-0.55	1.45	0.06	
		a equal	2.2	1	1.26	-2.76	-0.37	1.52	1.26	-2.99	-0.53	1.38		
		b equal	6.8	3	1.25	-2.9	-0.46	1.46	1.25	-2.9	-0.46	1.46		
	6(3)	All equal	5	4	0.97	-3.9	-0.93	1.61	0.82	-4.39	-1.07	2.03	0.29	
		a equal	2.6	1	0.89	-4.18	-0.99	1.72	0.89	-4.1	-1.01	1.89		
		b equal	2.4	3	0.89	-4.13	-1	1.8	0.89	-4.13	-1	1.8		
	도전 정신	6(4)	All equal	1.2	4	1.78	-3.09	-1.49	0.06	1.68	-3.27	-1.54	0.1	0.88
			a equal	5.9	4	1.56	-3.18	-1.38	0.21	1.59	-2.98	-1.24	0.33	
			b equal	0.1	1	1.58	-3.16	-1.37	0.21	1.58	-2.99	-1.24	0.33	
6(5)		a equal	5.9	3	1.58	-3.06	-1.3	0.27	1.58	-3.06	-1.3	0.27	0.16	
		b equal	6.6	4	0.25	-7.63	-0.44	5.58	0.31	-6.63	-0.95	3.9		
		All equal	0.5	1	0.28	-6.88	-0.41	5.02	0.28	-7.27	-1.02	4.3		
6(6)	a equal	6	3	0.28	-7.21	-0.73	4.74	0.28	-7.21	-0.73	4.74			

**표 IV-108** 초등학교 학생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IRT-LR test 결과: non-IRT 문항을 anchor로 사용

하위역량	번호	Test	G <sup>2</sup>	df	참조 집단				연구 집단				G <sup>2</sup> p	
					a	b1	b2	b3	a	b1	b2	b3		
진로 설계	진로 준비	4(5) All equal	9.8	4	1.58	-2.17	-0.34	1.1	1.53	-1.94	-0.22	1.22	0.04	
		a equal	0.2	1	1.56	-2.19	-0.34	1.12	1.56	-1.92	-0.22	1.21		
		b equal	9.6	3	1.56	-2.03	-0.28	1.16	1.56	-2.03	-0.28	1.16		
	4(6) All equal	17.4	4	1.48	-3.03	-1.77	-0.15	1.69	-2.75	-1.43	0.02	0.00		
	a equal	2.8	1	1.59	-2.89	-1.7	-0.15	1.59	-2.86	-1.47	0.04			
	b equal	14.6	3	1.59	-2.86	-1.57	-0.06	1.59	-2.86	-1.57	-0.06			
여가 활용	여가 유능감	5(5) All equal	79.1	4	1.48	-2.69	-1.11	0.3	1.63	-2.94	-1.56	-0.17	0.00	
		a equal	1.5	1	1.55	-2.6	-1.08	0.29	1.55	-3.03	-1.6	-0.16		
		b equal	77.5	3	1.48	-2.89	-1.36	0.07	1.48	-2.89	-1.36	0.07		
		5(6) All equal	79.8	4	1.14	-2.78	-0.46	1.5	1.28	-2.79	-0.99	0.8		0.00
		a equal	2.1	1	1.21	-2.66	-0.45	1.44	1.21	-2.91	-1.03	0.84		
		b equal	77.7	3	1.16	-2.87	-0.75	1.16	1.16	-2.87	-0.75	1.16		
	여가 몰입	5(9)	All equal	18.1	4	2.33	-2.48	-1.05	0.56	2.25	-2.6	-1.03	0.36	0.00
			a equal	0.3	1	2.29	-2.5	-1.06	0.56	2.29	-2.58	-1.03	0.36	
			b equal	17.8	3	2.27	-2.56	-1.05	0.46	2.27	-2.56	-1.05	0.46	
개척 정신	차별화 태도	6(1) All equal	12.5	4	1.34	-2.45	-0.06	1.56	1.12	-2.64	-0.24	1.75	0.01	
		a equal	4.4	1	1.22	-2.61	-0.06	1.66	1.22	-2.48	-0.23	1.63		
		b equal	8.1	3	1.22	-2.54	-0.15	1.65	1.22	-2.54	-0.15	1.65		

분석 결과, 초등학교 학생 집단에서는 문항 4(6), 5(5), 5(6), 5(9)의 총 4개 문항이 성별에 따른 차별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 집단에게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문항이 속해 있는 하위 역량별로 살펴보면, '진로설계'가 1문항(진로준비), '여가활용'이 3문항(여가유능감 2문항, 여가몰입 1문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관련 문항은 <표 IV-109>과 같다.

**표 IV-109** 초등학교 학생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DIF 문항 내용

하위역량	번호	문항 내용	선호집단
진로설계	진로 준비 4(6)	나는 자신의 직업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멋있다고 생각한다	여
여가활용	여가 유능감 5(5)	나는 내가 특별히 여가(취미)활동 시간에 할 만한 운동이 있다	여
	5(6)	나는 친구들과끼리 여가(취미) 활동으로 스포츠 경기를 하게 되면 보통 이기는 편이다	여
	여가몰입 5(9)	나는 여가(취미) 활동을 하는 동안 내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을 느낀다	여

② 중학생 진로개발역량지수에 대한 성별 DIF 분석 결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DIF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IV-110>, <표 IV-111> 참조).

표 IV-110

중학생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IRT-LR test 결과: 모든 문항을 anchor로 사용

하위역량	번호	Test	G <sup>2</sup>	df	참조 집단				연구 집단				G <sup>2</sup> p
					a	b1	b2	b3	a	b1	b2	b3	
진로 설계	자기 탐색	All equal	17	4	1.73	-3.06	-1.28	0.68	1.84	-2.77	-1.07	0.87	0.00
		a equal	0.8	1	1.78	-3	-1.26	0.67	1.78	-2.83	-1.09	0.88	
		b equal	16.2	3	1.76	-2.94	-1.19	0.77	1.76	-2.94	-1.19	0.77	
	4(2)	All equal	3.6	4	1.64	-2.65	-1.04	0.74	1.57	-2.55	-1.14	0.75	0.46
		All equal	13.8	4	1.21	-2.28	0.02	1.63	1.46	-1.87	-0.13	1.37	0.01
		a equal	5.7	1	1.32	-2.14	0.01	1.53	1.32	-2.01	-0.14	1.46	
	직업 탐색	b equal	8.1	3	1.32	-2.08	-0.06	1.5	1.32	-2.08	-0.06	1.5	0.00
		All equal	24.6	4	1.73	-2.44	-1.01	0.58	1.75	-2.22	-0.77	0.82	
		a equal	0	1	1.74	-2.43	-1	0.58	1.74	-2.23	-0.77	0.82	
	4(4)	b equal	24.5	3	1.71	-2.36	-0.9	0.7	1.71	-2.36	-0.9	0.7	0.00
		All equal	23.9	4	1.39	-2.57	-0.53	1.34	1.44	-2.13	-0.24	1.45	0.00
		a equal	0.2	1	1.42	-2.54	-0.53	1.33	1.42	-2.15	-0.25	1.47	
진로 준비	b equal	23.8	3	1.4	-2.37	-0.4	1.41	1.4	-2.37	-0.4	1.41	0.00	
	All equal	51.6	4	1.41	-3.97	-2.24	-0.11	1.77	-3.06	-1.52	0.21		
	a equal	7.1	1	1.57	-3.66	-2.08	-0.12	1.57	-3.33	-1.64	0.23		
4(6)	b equal	44.5	3	1.53	-3.56	-1.89	0.05	1.53	-3.56	-1.89	0.05	0.00	
	All equal	13.4	4	1.31	-3.36	-1.73	0.4	1.63	-2.63	-1.54	0.43	0.01	
	a equal	6.8	1	1.45	-3.12	-1.62	0.36	1.45	-2.86	-1.67	0.47		
직업 가치관	b equal	6.7	3	1.44	-3	-1.64	0.41	1.44	-3	-1.64	0.41	0.18	
	All equal	6.3	4	1.38	-2.52	-0.74	0.9	1.43	-2.35	-0.56	0.99		
	a equal	0.2	1	1.4	-2.49	-0.73	0.89	1.4	-2.38	-0.57	1		
4(8)	b equal	6	3	1.39	-2.45	-0.66	0.95	1.39	-2.45	-0.66	0.95	0.72	
	All equal	2.1	4	1.21	-3.26	-0.85	1.51	1.36	-3.08	-0.8	1.39	0.23	
	All equal	5.6	4	1.96	-3.48	-1.83	0.24	2.1	-3.12	-1.68	0.33		
여가 태도	a equal	0.8	1	2.02	-3.42	-1.8	0.24	2.02	-3.19	-1.72	0.34	0.00	
	b equal	4.8	3	2.01	-3.32	-1.77	0.28	2.01	-3.32	-1.77	0.28		
	All equal	18.3	4	2.2	-3.31	-2.31	-0.19	1.83	-3.61	-2.32	-0.02		
5(2)	a equal	4.8	1	2.01	-3.49	-2.43	-0.19	2.01	-3.39	-2.2	-0.02	0.00	
	b equal	13.4	3	1.99	-3.47	-2.33	-0.11	1.99	-3.47	-2.33	-0.11		
	All equal	28.8	4	1.7	-3.49	-1.88	0.03	1.5	-3.43	-1.74	0.33		
5(3)	a equal	2.3	1	1.6	-3.65	-1.95	0.03	1.6	-3.27	-1.67	0.31	0.00	
	b equal	26.4	3	1.57	-3.51	-1.84	0.17	1.57	-3.51	-1.84	0.17		
	All equal	1.3	4	1.51	-2.52	-0.34	1.28	1.52	-2.57	-0.35	1.33	0.86	
여가 활용	All equal	130.8	4	1.42	-2.49	-0.62	0.83	1.53	-2.76	-1.35	0.35	0.00	
	a equal	1	1	1.46	-2.43	-0.61	0.81	1.46	-2.85	-1.39	0.37		
	b equal	129.9	3	1.45	-2.61	-0.93	0.6	1.45	-2.61	-0.93	0.6		
5(5)	All equal	31	4	1.02	-2.82	-0.37	1.72	1.16	-2.89	-0.74	1.31	0.00	
	a equal	2.3	1	1.08	-2.68	-0.35	1.64	1.08	-3.07	-0.78	1.38		
	b equal	28.7	3	1.09	-2.83	-0.54	1.51	1.09	-2.83	-0.54	1.51		
여가 만족	All equal	6.2	4	2.4	-2.63	-1.43	0.18	2.19	-2.89	-1.39	0.26	0.18	
	a equal	1.6	1	2.3	-2.69	-1.46	0.19	2.3	-2.81	-1.36	0.25		
	b equal	4.5	3	2.29	-2.74	-1.42	0.22	2.29	-2.74	-1.42	0.22		
5(8)	All equal	9	4	2.37	-2.47	-1.02	0.48	2.43	-2.85	-1.09	0.52	0.06	
	a equal	0.1	1	2.4	-2.45	-1.02	0.47	2.4	-2.87	-1.1	0.52		
	b equal	8.8	3	2.39	-2.6	-1.05	0.5	2.39	-2.6	-1.05	0.5		
여가 몰입	All equal	13.3	4	2.17	-2.54	-1	0.62	2.21	-2.86	-1.18	0.57	0.01	
	a equal	0.1	1	2.19	-2.53	-0.99	0.62	2.19	-2.88	-1.18	0.58		
	b equal	13.2	3	2.19	-2.65	-1.07	0.6	2.19	-2.65	-1.07	0.6		
5(10)	All equal	2.8	4	2.19	-3.08	-1.83	-0.04	2.01	-3.44	-2.03	-0.03	0.59	
	All equal	7.9	4	1.24	-2.82	-0.1	1.63	1.19	-3.08	-0.26	1.77	0.10	
	a equal	0.2	1	1.22	-2.86	-0.1	1.65	1.22	-3.03	-0.25	1.74		
차별화 태도	b equal	7.6	3	1.22	-2.92	-0.17	1.69	1.22	-2.92	-0.17	1.69	0.02	
	All equal	11.3	4	1.05	-3.29	-0.15	2	1.1	-3.1	-0.38	1.98		
	a equal	0.2	1	1.08	-3.24	-0.14	1.97	1.08	-3.16	-0.38	2.01		
6(2)	b equal	11.1	3	1.08	-3.2	-0.25	1.99	1.08	-3.2	-0.25	1.99	0.33	
	All equal	4.6	4	0.93	-4.07	-0.31	2.3	0.88	-4.08	-0.48	2.46		
	a equal	0.2	1	0.9	-4.15	-0.32	2.34	0.9	-3.98	-0.46	2.41		
6(3)	b equal	4.4	3	0.91	-4.07	-0.38	2.37	0.91	-4.07	-0.38	2.37	0.00	
	All equal	26.2	4	1.44	-2.5	-0.46	1.33	1.46	-2.81	-0.78	1.21	0.00	
	a equal	0.1	1	1.45	-2.49	-0.46	1.33	1.45	-2.83	-0.79	1.21		
도전 정신	b equal	26.1	3	1.45	-2.62	-0.6	1.27	1.45	-2.62	-0.6	1.27	0.00	
	All equal	43	4	1.35	-2.63	-0.43	1.36	1.39	-3.18	-0.84	1.25		
	a equal	0.1	1	1.37	-2.6	-0.43	1.35	1.37	-3.21	-0.85	1.26		
6(5)	b equal	42.9	3	1.37	-2.82	-0.61	1.31	1.37	-2.82	-0.61	1.31	0.00	
	All equal	63.5	4	0.65	-3.21	0.56	3.27	0.68	-3.68	-0.4	2.29		
	a equal	0.2	1	0.67	-3.14	0.54	3.2	0.67	-3.77	-0.41	2.34		
6(6)	b equal	63.3	3	0.67	-3.38	0.1	2.74	0.67	-3.38	0.1	2.74	0.00	

표 IV-III 중학생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IRT-LR test 결과: non-DIF 문항을 anchor로 사용

하위역량	번호	Test	G <sup>2</sup>	df	참조 집단				연구 집단				G <sup>2</sup> p	
					a	b1	b2	b3	a	b1	b2	b3		
진로 설계	자기 탐색	All equal	14	4	1.52	-3.35	-1.38	0.74	1.64	-2.95	-1.14	0.9	0.01	
		a equal	1	1	1.57	-3.26	-1.36	0.72	1.57	-3.04	-1.17	0.92		
		b equal	13	3	1.55	-3.18	-1.28	0.82	1.55	-3.18	-1.28	0.82		
	직업 탐색	4(3)	All equal	14.2	4	1.03	-2.57	0.04	1.82	1.27	-2.03	-0.13	1.47	0.01
			a equal	5.6	1	1.13	-2.38	0.03	1.69	1.13	-2.22	-0.14	1.59	
			b equal	8.6	3	1.14	-2.31	-0.05	1.64	1.14	-2.31	-0.05	1.64	
		4(4)	All equal	19.8	4	1.45	-2.74	-1.11	0.65	1.53	-2.4	-0.83	0.86	0.00
			a equal	0.5	1	1.48	-2.69	-1.1	0.63	1.48	-2.45	-0.85	0.87	
			b equal	19.3	3	1.46	-2.61	-0.99	0.75	1.46	-2.61	-0.99	0.75	
	진로 준비	4(5)	All equal	21.6	4	1.2	-2.87	-0.57	1.47	1.26	-2.33	-0.27	1.54	0.00
			a equal	0.3	1	1.23	-2.82	-0.57	1.45	1.23	-2.37	-0.27	1.57	
			b equal	21.3	3	1.21	-2.63	-0.43	1.52	1.21	-2.63	-0.43	1.52	
		4(6)	All equal	49.2	4	1.18	-4.59	-2.56	-0.12	1.6	-3.25	-1.61	0.21	0.00
			a equal	11.1	1	1.36	-4.08	-2.29	-0.12	1.36	-3.69	-1.81	0.24	
			b equal	38.1	3	1.32	-3.96	-2.09	0.05	1.32	-3.96	-2.09	0.05	
직업 가치관	4(7)	All equal	14.6	4	1.06	-3.98	-2.01	0.47	1.39	-2.9	-1.69	0.47	0.01	
		a equal	8.4	1	1.2	-3.6	-1.83	0.42	1.2	-3.26	-1.89	0.52		
		b equal	6.2	3	1.2	-3.44	-1.86	0.47	1.2	-3.44	-1.86	0.47		
여가 활용	여가 태도	All equal	15.8	4	2.3	-3.27	-2.28	-0.2	2.13	-3.24	-2.11	-0.03	0.00	
		a equal	0.7	1	2.22	-3.33	-2.32	-0.2	2.22	-3.16	-2.06	-0.03		
		b equal	15.1	3	2.19	-3.28	-2.22	-0.12	2.19	-3.28	-2.22	-0.12		
		All equal	26.8	4	1.75	-3.45	-1.86	0.02	1.67	-3.16	-1.63	0.29		
	5(3)	a equal	0.3	1	1.71	-3.5	-1.88	0.02	1.71	-3.1	-1.6	0.28	0.00	
		b equal	26.5	3	1.68	-3.35	-1.77	0.15	1.68	-3.35	-1.77	0.15		
개척 정신	도전 정신	6(4)	All equal	23.3	4	1.2	-2.85	-0.51	1.48	1.33	-2.95	-0.8	1.26	0.00
			a equal	1.4	1	1.26	-2.75	-0.5	1.43	1.26	-3.09	-0.84	1.31	
			b equal	21.8	3	1.27	-2.87	-0.64	1.37	1.27	-2.87	-0.64	1.37	
		6(5)	All equal	38.5	4	1.16	-2.94	-0.47	1.5	1.28	-3.32	-0.86	1.3	0.00
			a equal	1.2	1	1.21	-2.85	-0.46	1.45	1.21	-3.46	-0.9	1.35	
			b equal	37.3	3	1.22	-3.05	-0.65	1.39	1.22	-3.05	-0.65	1.39	
	6(6)	All equal	62.4	4	0.57	-3.58	0.63	3.64	0.66	-3.79	-0.39	2.37	0.00	
		a equal	1	1	0.61	-3.38	0.6	3.43	0.61	-4.05	-0.42	2.52		
		b equal	61.4	3	0.62	-3.6	0.12	2.92	0.62	-3.6	0.12	2.92		

분석 결과, 중학생 집단에서는 초등학생 집단보다 더 많은 문항에서 성별에 따라 차별기능이 존재하였으며, 초등학생 집단과 달리 여자 청소년이 아닌 남자청소년에게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학생 집단에서는 초등학생 집단에서 DIF 문항으로 나타났던 문항 4(6)뿐 아니라, 4(1), 4(3), 4(4), 4(5), 4(7), 5(2), 5(3), 6(4), 6(5), 6(6)의 총 11개 문항이 성별에 따른 차별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문항이 속해 있는 하위 역량별로 살펴보면, '진로설계'가 6문항(자기탐색과 직업가치관 각 1문항, 직업탐색과 진로준비 각 2문항), '여가활용'이 1문항(여가태도 2문항), '개척정신' 3문항(도전정신)을 포함하고 있었다. 관련 문항은 <표 IV-112>과 같다.

**표 IV-112 중학생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DIF 문항 내용**

하위역량		번호	문항 내용	성별 집단
진로 설계	자기탐색	4(1)	나는 나에 대하여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노력한다	남
	직업탐색	4(3)	나는 내가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의 성공한 삶을 소개한 책을 읽어본다	남
		4(4)	나는 나의 장래희망과 관련된 직업에는 무엇이 있는지 조사해 본다	남
	진로준비	4(5)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해 본다	남
		4(6)	나는 자신의 직업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멋있다고 생각한다	남
직업가치관	4(7)	나는 현실이 어렵더라도 하고 싶은 일을 위해 도전하는 삶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남	
여가 활용	여가 태도	5(2)	여가(취미)활동은 내가 즐거운 경험들을 제공해 준다	남
		5(3)	나는 여가(취미)활동을 배우고 준비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싶다	남
개척 정신	도전정신	6(4)	나는 경험이 없는 새로운 과제나 일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한다	남
		6(5)	나는 계속적으로 변하거나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일을 좋아한다	남
		6(6)	나는 변화가 별로 없는 안정적 환경은 지루해서 좋아하지 않는다	남

③ 고등학생 진로개발역량지수에 대한 성별 DIF 분석 결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DIF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IV-113>, <표 IV-114> 참조).

표 IV-113 고등학생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IRT-LR test 결과: 모든 문항을 anchor로 사용

하위역량	번호	Test	G <sup>2</sup>	df	참조 집단				연구 집단				G <sup>2</sup> p		
					a	b1	b2	b3	a	b1	b2	b3			
진로 설계	자기 탐색	4(1)	All equal 16.6 a equal 7.8 b equal 8.8	4 1 3	1.52 1.35 1.35	-3.71 -4.06 -3.81	-1.46 -1.58 -1.47	0.95 1.03 1.07	1.25 1.35 1.35	-3.86 -3.67 -3.81	-1.44 -1.38 -1.47	1.15 1.1 1.07	0.00		
		4(2)	All equal 6.3 a equal 0.4 b equal 5.9	4 1 3	1.23 1.2 1.2	-3.78 -3.86 -3.55	-1.44 -1.47 -1.42	1.07 1.09 1.11	1.18 1.2 1.2	-3.42 -3.38 -3.55	-1.41 -1.39 -1.42	1.14 1.13 1.11	0.18		
		4(3)	All equal 18.5 a equal 0.7 b equal 17.7	4 1 3	1.03 0.99 0.99	-3.34 -3.46 -3.62	-0.39 -0.4 -0.28	1.66 1.72 1.81	0.97 0.99 0.99	-2.93 -2.88 -3.11	-0.2 -0.19 -0.28	1.91 1.88 1.81	0.00		
	직업 탐색	4(4)	All equal 65.8 a equal 2.2 b equal 63.6	4 1 3	1.49 1.4 1.37	-3.56 -3.74 -3.33	-1.75 -1.82 -1.54	0.59 0.62 0.81	1.34 1.4 1.37	-3.15 -3.07 -3.33	-1.34 -1.31 -1.54	0.98 0.96 0.81	0.00		
		진로 준비	4(5)	All equal 19.7 a equal 0.8 b equal 18.9	4 1 3	1.11 1.16 1.15	-3.75 -3.62 -3.23	-0.92 -0.9 -0.8	1.54 1.49 1.6	1.19 1.16 1.15	-2.94 -3 -3.23	-0.7 -0.71 -0.8	1.65 1.68 1.6	0.00	
			4(6)	All equal 62.1 a equal 3.9 b equal 58.2	4 1 3	1.41 1.27 1.25	-4.33 -4.69 -4.22	-2.7 -2.92 -2.58	-0.29 -0.3 -0.07	1.2 1.27 1.25	-4.07 -3.91 -4.22	-2.42 -2.33 -2.58	0.13 0.13 -0.07	0.00	
	직업 가치관	4(7)	All equal 7.8 a equal 2.2 b equal 5.6	4 1 3	1.22 1.14 1.14	-3.9 -4.13 -3.81	-1.79 -1.89 -1.81	0.53 0.56 0.58	1.09 1.14 1.14	-3.75 -3.63 -3.81	-1.82 -1.76 -1.81	0.62 0.6 0.58	0.10		
		4(8)	All equal 17.6 a equal 0.1 b equal 17.5	4 1 3	1.23 1.21 1.2	-3.43 -3.46 -3.31	-1.22 -1.23 -1.1	0.82 0.83 0.96	1.2 1.21 1.2	-3.2 -3.18 -3.31	-0.99 -0.99 -1.1	1.07 1.06 0.96	0.00		
			4(9)	All equal 6.3 a equal 0.3 b equal 6	4 1 3	1.14 1.12 1.11	-3.91 -3.99 -3.82	-0.92 -0.93 -0.96	1.72 1.76 1.85	1.1 1.12 1.11	-3.74 -3.7 -3.82	-0.99 -0.98 -0.96	1.93 1.91 1.85	0.18	
				5(1)	All equal 2.1 All equal 10.2	4 4	1.65 2	-4.09 -4.08	-2.06 -2.63	0.48 -0.1	1.67 1.63	-3.71 -4.62	-1.97 -2.88	0.5 -0.01	0.72 0.04
		여가 활용	여가 태도	5(2)	a equal 7.2 b equal 3	1 3	1.76 1.76	-4.38 -4.44	-2.84 -2.8	-0.09 -0.05	1.76 1.76	-4.46 -4.44	-2.76 -2.8	-0.01 -0.05	0.00
				5(3)	All equal 19.8 a equal 2.8 b equal 17	4 1 3	1.65 1.53 1.52	-3.9 -4.1 -4.18	-2.1 -2.2 -2.1	0.06 0.07 0.19	1.47 1.53 1.52	-4.31 -4.2 -4.18	-2.06 -2.01 -2.1	0.29 0.28 0.19	0.00
5(4)	All equal 5.4 a equal 0.4 b equal 4.9			4 1 3	1.25 1.22 1.22	-3.14 -3.2 -3.07	-0.5 -0.51 -0.44	1.58 1.61 1.62	1.2 1.22 1.22	-3.02 -2.98 -3.07	-0.39 -0.39 -0.44	1.64 1.62 1.62	0.25		
여가 유능감	5(5)		All equal 302.3 a equal 20 b equal 282.3	4 1 3	0.97 1.19 1.15	-2.92 -2.48 -2.85	-0.41 -0.36 -0.93	1.77 1.52 1	1.36 1.19 1.15	-2.81 -3.09 -2.85	-1.33 -1.45 -0.93	0.58 0.63 1	0.00		
	5(6)		All equal 34.8 a equal 8.6 b equal 26.2	4 1 3	0.8 0.93 0.94	-3.48 -3.04 -3.16	-0.29 -0.26 -0.44	2.71 2.37 2.08	1.02 0.93 0.94	-3.07 -3.29 -3.16	-0.55 -0.59 -0.44	1.79 1.91 2.08	0.00		
			5(7)	All equal 3.3 All equal 10.2	4 4	1.96 1.98	-3.06 -3	-1.56 -1.02	0.49 0.76	1.75 1.78	-3.38 -3.17	-1.63 -1.23	0.51 0.78	0.51 0.04	
여가 만족	5(8)		a equal 2.9 b equal 7.3	1 3	1.86 1.86	-3.13 -3.11	-1.06 -1.13	0.79 0.78	1.86 1.86	-3.09 -3.11	-1.21 -1.13	0.76 0.78	0.00		
	5(9)		All equal 6.5 a equal 1.2 b equal 5.2	4 1 3	1.82 1.9 1.9	-3.41 -3.32 -3.27	-1.22 -1.19 -1.25	0.88 0.86 0.83	1.96 1.9 1.9	-3.2 -3.24 -3.27	-1.29 -1.31 -1.25	0.8 0.81 0.83	0.16		
			5(10)	All equal 9.2 a equal 7.7 b equal 1.5	4 1 3	2.04 1.81 1.81	-3.52 -3.78 -3.75	-2.12 -2.27 -2.24	0.16 0.18 0.15	1.68 1.81 1.81	-3.89 -3.73 -3.75	-2.32 -2.22 -2.24	0.13 0.12 0.15	0.06	
개혁 정신	차별화 태도		6(1)	All equal 3.9 a equal 0.4 b equal 3.5	4 1 3	0.99 0.96 0.95	-3.85 -3.96 -3.92	-0.42 -0.43 -0.35	2.08 2.14 2.21	0.94 0.96 0.95	-3.92 -3.86 -3.92	-0.29 -0.29 -0.35	2.28 2.25 2.21	0.42	
		6(2)	All equal 2 All equal 19.6	4 4	0.94 0.61	-4.08 -6.52	-0.42 -0.22	2.4 3.76	0.99 0.8	-3.87 -4.6	-0.46 -0.41	2.17 2.72	0.74 0.00		
		6(3)	All equal 6.9 a equal 12.7 b equal 12.7	4 1 3	0.74 0.75 0.75	-5.49 -5.11 -5.11	-0.19 -0.32 -0.32	3.19 2.99 2.99	0.74 0.75 0.75	-4.96 -5.11 -5.11	-0.44 -0.32 -0.32	2.9 2.99 2.99	0.00		
	도전 정신	6(4)	All equal 36.9 a equal 1.4 b equal 35.4	4 1 3	1.11 1.05 1.05	-3.12 -3.27 -3.45	-0.29 -0.31 -0.51	2.14 2.24 1.99	1.01 1.05 1.05	-3.73 -3.64 -3.45	-0.71 -0.69 -0.51	1.87 1.83 1.99	0.00		
			6(5)	All equal 36.1 a equal 0 b equal 36.1	4 1 3	1.02 1.01 1.02	-3.34 -3.36 -3.44	-0.3 -0.3 -0.54	2.17 2.19 1.99	1.01 1.01 1.02	-3.54 -3.53 -3.44	-0.75 -0.75 -0.54	1.87 1.87 1.99	0.00	
				6(6)	All equal 37.4 a equal 1.8 b equal 35.6	4 1 3	0.51 0.57 0.58	-4.89 -4.41 -4.4	0.62 0.56 0.19	4.45 4.01 3.41	0.6 0.57 0.58	-4.32 -4.53 -4.4	-0.08 -0.09 0.19	2.99 3.12 3.41	0.00

표 IV-114 고등학생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IRT-LR test 결과: non-DIF 문항을 anchor로 사용

하위역량	번호	Test	G <sup>2</sup>	df	참조 집단				연구 집단				G <sup>2</sup> p	
					a	b1	b2	b3	a	b1	b2	b3		
진로 설계	자기 탐색	4(1)	All equal	12.4	4	1.26	-4.26	-1.66	1.07	1.12	-4.09	-1.55	1.19	0.01
		a equal	2.2	1	1.17	-4.51	-1.74	1.13	1.17	-3.96	-1.5	1.16		
		b equal	10.2	3	1.17	-4.16	-1.61	1.14	1.17	-4.16	-1.61	1.14		
	직업 탐색	4(3)	All equal	17	4	0.76	-4.32	-0.47	2.12	0.78	-3.46	-0.25	2.17	0.00
			a equal	0.1	1	0.77	-4.25	-0.47	2.09	0.77	-3.49	-0.25	2.19	
			b equal	16.9	3	0.77	-3.79	-0.34	2.15	0.77	-3.79	-0.34	2.15	
		4(4)	All equal	52.5	4	1.09	-4.51	-2.16	0.74	1.07	-3.66	-1.57	1.07	0.00
			a equal	0.1	1	1.07	-4.56	-2.18	0.75	1.07	-3.64	-1.57	1.06	
			b equal	52.5	3	1.06	-3.99	-1.83	0.93	1.06	-3.99	-1.83	0.93	
	진로 준비	4(5)	All equal	22	4	0.81	-4.85	-1.16	1.95	0.98	-3.36	-0.81	1.82	0.00
			a equal	4.2	1	0.91	-4.38	-1.06	1.77	0.91	-3.55	-0.85	1.9	
			b equal	17.8	3	0.91	-3.85	-0.94	1.85	0.91	-3.85	-0.94	1.85	
		4(6)	All equal	55.3	4	1.31	-4.58	-2.87	-0.31	1.17	-4.11	-2.48	0.1	0.00
			a equal	1.8	1	1.22	-4.86	-3.03	-0.31	1.22	-3.99	-2.4	0.1	
			b equal	53.5	3	1.2	-4.32	-2.67	-0.09	1.2	-4.32	-2.67	-0.09	
직업 가치관	4(8)	All equal	15	4	0.92	-4.32	-1.5	1.02	1.01	-3.6	-1.13	1.16	0.00	
		a equal	1.4	1	0.97	-4.1	-1.43	0.97	0.97	-3.71	-1.16	1.19		
		b equal	13.7	3	0.97	-3.88	-1.29	1.09	0.97	-3.88	-1.29	1.09		
여가 활동	여가 태도	5(3)	All equal	17.9	4	2	-3.48	-1.91	0.04	1.84	-3.7	-1.82	0.23	0.00
		a equal	1.4	1	1.9	-3.59	-1.96	0.05	1.9	-3.64	-1.79	0.22		
		b equal	16.5	3	1.89	-3.63	-1.87	0.14	1.89	-3.63	-1.87	0.14		
	여가 유능감	5(5)	All equal	297.3	4	0.9	-3.1	-0.43	1.88	1.42	-2.68	-1.27	0.59	0.00
			a equal	33.7	1	1.18	-2.49	-0.37	1.52	1.18	-3.05	-1.44	0.67	
			b equal	263.6	3	1.16	-2.81	-0.91	1.01	1.16	-2.81	-0.91	1.01	
5(6)	All equal	45	4	0.71	-3.83	-0.32	2.95	1.07	-2.94	-0.54	1.74	0.00		
	a equal	20	1	0.92	-3.07	-0.27	2.37	0.92	-3.29	-0.6	1.92			
	b equal	25	3	0.93	-3.16	-0.45	2.08	0.93	-3.16	-0.45	2.08			
개척 정신	차별화 태도	6(3)	All equal	25.5	4	0.47	-8.29	-0.26	4.73	0.71	-5.06	-0.45	2.93	0.00
		a equal	10.5	1	0.63	-6.37	-0.21	3.66	0.63	-5.68	-0.51	3.26		
		b equal	14.9	3	0.64	-5.87	-0.37	3.37	0.64	-5.87	-0.37	3.37		
	도전 정신	6(4)	All equal	34.4	4	0.85	-3.86	-0.35	2.6	0.87	-4.16	-0.79	2.05	0.00
			a equal	0	1	0.86	-3.83	-0.35	2.58	0.86	-4.18	-0.79	2.06	
			b equal	34.3	3	0.87	-3.98	-0.59	2.25	0.87	-3.98	-0.59	2.25	
		6(5)	All equal	37.5	4	0.77	-4.23	-0.36	2.71	0.87	-3.94	-0.83	2.04	0.00
			a equal	1.5	1	0.83	-3.96	-0.34	2.54	0.83	-4.08	-0.86	2.11	
			b equal	36	3	0.84	-3.99	-0.62	2.26	0.84	-3.99	-0.62	2.26	
		6(6)	All equal	42.9	4	0.34	-7.17	0.93	6.49	0.49	-5.19	-0.1	3.52	0.00
			a equal	4.5	1	0.44	-5.65	0.72	5.11	0.44	-5.77	-0.12	3.89	
			b equal	38.4	3	0.45	-5.57	0.24	4.25	0.45	-5.57	0.24	4.25	

분석 결과, 고등학생 집단에서는 초등학생, 중학생 집단보다 더 많은 문항에서 성별에 따라 차별기능이 존재하였고 중학생 집단과 마찬가지로 여자 청소년이 아닌 남자청소년에게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등학생 집단에서는 초, 중학생 집단에서 DIF 문항으로 나타났던 문항 4(6)뿐 아니라, 4(3), 4(4), 4(5), 4(8), 5(3), 5(5), 5(6), 6(3), 6(4), 6(5), 6(6)의 총 12개 문항이 성별에 따른 차별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문항이 속해 있는 하위 역량별로 살펴보면, '진로설계'가 5문항(직업가치관 1문항, 직업탐색과 진로준비 각 2문항), '여가활용'이 3문항(여가 태도 1문항, 여가유능감 2문항), '개척정신' 4문항(차별화태도 1문항, 도전정신 3문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관련 문항은 <표 IV-115>과 같다.

**표 IV-115 고등학생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DIF 문항 내용**

하위역량		번호	문항 내용	성별 집단
진로 설계	직업탐색	4(3)	나는 내가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의 성공한 삶을 소개한 책을 읽어본다	남
		4(4)	나는 나의 장래희망과 관련된 직업에는 무엇이 있는지 조사해 본다	남
	진로준비	4(5)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해 본다	남
		4(6)	나는 자신의 직업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멋있다고 생각한다	남
	직업가치관	4(8)	나는 내가 원하는 작업(전공)을 갖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남
여가 활용	여가 태도	5(3)	나는 여가(취미)활동을 배우고 준비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싶다	남
	여가유능감	5(5)	나는 내가 특별히 여가(취미) 시간에 즐겨할 만한 운동이 있다	남
		5(6)	친구들끼리 여가(취미)활동으로써 스포츠경기를 하게 되면 나는 보통 이기는 편이다	남
개척 정신	차별화태도	6(3)	나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쉽게 따라하지 않는다	남
	도전정신	6(4)	나는 경험이 없는 새로운 과제나 일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한다	남
		6(5)	나는 계속적으로 변하거나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일을 좋아한다	남
		6(6)	나는 변화가 별로 없는 안정적 환경은 지루해서 좋아하지 않는다	남

④ 대학생 진로개발역량지수에 대한 성별 DIF 분석 결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DIF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IV-116>, <표 IV-117> 참조).

하위역량	번호	Test	G <sup>2</sup>	df	참조 집단				연구 집단				G <sup>2</sup> p
					a	b1	b2	b3	a	b1	b2	b3	
진로 설계	자기 탐색	4(1)	All equal 4.3	4	1.61 1.22	-3.4 -3.94	-1.39 -1.63	1.09 1.05	1.35 1.26	-3.55 -4.68	-1.5 -1.42	1.19 1.11	0.63 0.37
		4(2)	a equal 0.1	1	1.24	-3.89	-1.62	1.04	1.24	-4.74	-1.44	1.12	
			b equal 4.2	3	1.23	-4.2	-1.55	1.09	1.23	-4.2	-1.55	1.09	
	직업 탐색	4(3)	All equal 8.4	4	0.9	-3.63	-0.55	2.29	0.8	-3.4	-0.18	2.64	0.08
		4(4)	a equal 0.5	1	0.85	-3.84	-0.57	2.42	0.85	-3.23	-0.16	2.54	
			b equal 7.8	3	0.82	-3.61	-0.38	2.53	0.82	-3.61	-0.38	2.53	
	진로 준비	4(5)	All equal 17.8	4	1.24	-3.51	-1.73	1.29	1.13	-3.55	-1.23	1.66	0.00
		4(6)	a equal 0.5	1	1.18	-3.65	-1.79	1.34	1.18	-3.43	-1.18	1.62	
			b equal 17.4	3	1.13	-3.65	-1.52	1.51	1.13	-3.65	-1.52	1.51	
	직업 가치관	4(7)	All equal 4.2	4	1.27	-3.68	-1.04	1.75	1.11	-3.43	-1.15	1.87	0.38
		4(8)	a equal 1	1	1.19	-3.88	-1.08	1.84	1.19	-3.25	-1.1	1.81	
			b equal 3.2	3	1.18	-3.56	-1.09	1.82	1.18	-3.56	-1.09	1.82	
여가 태도	4(9)	All equal 18.6	4	0.95	-5.03	-3.21	0.25	0.92	-5.11	-2.52	0.8	0.00	
	4(10)	a equal 0	1	0.94	-5.1	-3.25	0.25	0.94	-5.04	-2.49	0.79		
		b equal 18.5	3	0.89	-5.31	-2.97	0.53	0.89	-5.31	-2.97	0.53		
여가 활용	여가 태도	4(11)	All equal 0.8	4	0.99	-4.88	-2.22	0.94	1.04	-4.42	-2.02	0.85	0.94
		4(12)	a equal 5.3	4	1.24	-3.97	-1.31	1.13	1.07	-3.71	-1.29	1.39	0.26
			b equal 1.1	1	1.14	-4.23	-1.38	1.19	1.14	-3.5	-1.21	1.34	
	여가 유능감	4(13)	All equal 4.2	4	1.13	-3.89	-1.31	1.28	1.13	-3.89	-1.31	1.28	0.38
		4(14)	a equal 4.2	4	1.27	-4.15	-1.49	1.64	1.26	-3.86	-1.22	1.58	
			b equal 0	1	1.27	-4.17	-1.49	1.64	1.27	-3.85	-1.22	1.58	
	여가 만족	4(15)	All equal 4.2	4	1.25	-4.04	-1.37	1.62	1.25	-4.04	-1.37	1.62	0.10
		5(1)	a equal 7.8	4	1.69	-4.39	-1.92	0.93	1.27	-4.44	-2.04	1.13	0.06
			b equal 4.4	1	1.45	-4.93	-2.1	1.01	1.45	-4.01	-1.84	1.06	
	여가 몰입	5(2)	All equal 3.4	4	1.46	-4.39	-2.61	0.5	1.28	-5.28	-2.3	0.69	0.03
		5(3)	a equal 9	1	1.36	-4.64	-2.74	0.53	1.36	-5.03	-2.2	0.67	
			b equal 8.1	3	1.33	-4.87	-2.51	0.61	1.33	-4.87	-2.51	0.61	
여가 몰입	5(4)	All equal 10.7	4	1.46	-4.38	-2.17	0.46	1.15	-4.53	-2.35	0.87	0.03	
	5(5)	a equal 2.8	1	1.29	-4.84	-2.36	0.5	1.29	-4.12	-2.15	0.82		
		b equal 8	3	1.25	-4.54	-2.3	0.67	1.25	-4.54	-2.3	0.67		
여가 몰입	5(6)	All equal 2.4	4	1.25	-3.33	-0.57	1.63	1.23	-2.99	-0.49	1.79	0.66	
	5(7)	a equal 53.5	4	1.07	-3.15	-0.55	2	1.16	-3.23	-1.34	1.06	0.00	
		b equal 0.3	1	1.11	-3.05	-0.53	1.94	1.11	-3.33	-1.38	1.09		
여가 몰입	5(8)	All equal 53.2	4	1.13	-3.14	-0.9	1.45	1.13	-3.14	-0.9	1.45	0.03	
	5(9)	a equal 10.4	1	0.86	-3.09	-0.2	2.54	0.98	-3.42	-0.56	2.2		
		b equal 0.7	1	0.93	-2.92	-0.19	2.4	0.93	-3.6	-0.6	2.29		
여가 몰입	5(10)	All equal 9.7	4	0.94	-3.14	-0.38	2.31	0.94	-3.14	-0.38	2.31	0.72	
	5(11)	a equal 2.1	4	1.28	-4.31	-1.7	1.3	1.32	-4.23	-1.82	1.13	0.21	
		b equal 5.8	4	1.45	-3.63	-1.25	1.42	1.45	-3.22	-1.44	1.24		
개척 정신	5(12)	All equal 0	1	1.45	-3.63	-1.25	1.42	1.45	-3.22	-1.44	1.24	0.03	
	5(13)	a equal 5.8	1	1.46	-3.41	-1.33	1.32	1.46	-3.41	-1.33	1.32		
		b equal 5.8	3	1.46	-3.41	-1.33	1.32	1.46	-3.41	-1.33	1.32		
개척 정신	5(14)	All equal 10.6	4	1.41	-5.01	-1.44	1.56	1.74	-3.08	-1.34	1.22	0.43	
	5(15)	a equal 2.5	1	1.57	-4.62	-1.36	1.47	1.57	-3.3	-1.43	1.28		
		b equal 8.1	3	1.58	-3.74	-1.38	1.36	1.58	-3.74	-1.38	1.36		
개척 정신	5(16)	All equal 3.8	4	1.55	-3.95	-1.9	0.9	1.26	-4.77	-2.1	0.87	0.86	
	5(17)	a equal 2.2	1	1.39	-4.27	-2.03	0.96	1.39	-4.41	-1.95	0.83	0.41	
		b equal 1.7	3	1.39	-4.32	-1.99	0.89	1.39	-4.32	-1.99	0.89		
개척 정신	6(1)	All equal 1.3	4	0.77	-4.53	-0.51	2.94	0.88	-4.03	-0.32	2.65	0.15	
	6(2)	a equal 4	4	1.04	-4.18	-0.56	2.2	0.84	-4.72	-0.43	2.63		
		b equal 1.7	1	0.93	-4.6	-0.61	2.4	0.93	-4.33	-0.38	2.47		
개척 정신	6(3)	All equal 2.3	4	0.92	-4.53	-0.5	2.46	0.92	-4.53	-0.5	2.46	0.15	
	6(4)	a equal 6.7	4	0.79	-4.96	-0.14	3.21	0.71	-4.88	-0.48	3.01		
		b equal 0.3	1	0.74	-5.22	-0.15	3.38	0.74	-4.67	-0.45	2.9		
개척 정신	6(5)	All equal 6.4	4	0.76	-4.85	-0.29	3.06	0.76	-4.85	-0.29	3.06	0.23	
	6(6)	a equal 5.6	4	1.07	-3.2	-0.45	2.29	1.08	-3.69	-0.73	2.23		
		b equal 0	1	1.08	-3.19	-0.45	2.28	1.08	-3.7	-0.73	2.24		
개척 정신	6(7)	All equal 5.6	4	1.09	-3.36	-0.58	2.25	1.09	-3.36	-0.58	2.25	0.54	
	6(8)	a equal 3.1	4	1.03	-3.78	-0.5	2.32	1.02	-4.04	-0.75	2.3	0.15	
		b equal 6.7	4	0.59	-4.31	-0.08	3.97	0.64	-4.39	-0.58	3.21		
개척 정신	6(9)	All equal 0.2	1	0.61	-4.13	-0.08	3.81	0.61	-4.54	-0.6	3.31	0.15	
	6(10)	a equal 6.6	1	0.63	-4.19	-0.33	3.44	0.63	-4.19	-0.33	3.44		
		b equal 6.6	3	0.63	-4.19	-0.33	3.44	0.63	-4.19	-0.33	3.44		

**표 IV-117** 대학생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IRT-LR test 결과: non-DIF 문항을 anchor로 사용

하위역량	번호	Test	G <sup>2</sup>	df	참조 집단				연구 집단				G <sup>2</sup> p	
					a	b1	b2	b3	a	b1	b2	b3		
진로 설계	직업 탐색	4(4)	All equal	16.6	4	1.23	-3.53	-1.73	1.3	1.16	-3.51	-1.22	1.62	0.00
		a equal	0.2	1	1.19	-3.62	-1.78	1.33	1.19	-3.42	-1.19	1.59		
		b equal	16.4	3	1.15	-3.62	-1.51	1.49	1.15	-3.62	-1.51	1.49		
	진로 준비	4(6)	All equal	17.8	4	0.96	-4.98	-3.18	0.24	0.93	-5.11	-2.53	0.78	
		a equal	0.1	1	0.94	-5.07	-3.23	0.25	0.94	-5.02	-2.49	0.77		
		b equal	17.7	3	0.9	-5.27	-2.95	0.52	0.9	-5.27	-2.95	0.52		
여가 활용	여가 유능감	5(5)	All equal	49.1	4	1.12	-3.03	-0.53	1.93	1.18	-3.14	-1.28	1.09	0.00
		a equal	0.1	1	1.15	-2.97	-0.52	1.9	1.15	-3.21	-1.31	1.11		
		b equal	49	3	1.17	-3.03	-0.86	1.43	1.17	-3.03	-0.86	1.43		

분석 결과, 대학생 집단에서는 초, 중등학생 집단보다 성별에 따른 차별문항기능이 적게 도출되었으며, 중등학생 집단과 마찬가지로 여자 청소년이 아닌 남자청소년에게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 집단에서는 초, 중등학생 집단에서 DIF 문항으로 나타났던 문항 4(6)뿐 아니라, 4(4), 5(5)의 총 3개 문항이 성별에 따른 차별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문항이 속해 있는 하위 역량별로 살펴보면, ‘진로설계’가 2문항(직업탐색과 진로준비 각 1문항), ‘여가활용’이 1문항(여가유능감)을 포함하고 있었다. 관련 문항은 <표 IV-118>와 같다.

**표 IV-118** 대학생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DIF 문항 내용

하위역량	번호	문항 내용	선호 집단
진로설계	직업탐색 4(4)	나는 나의 장래희망과 관련된 직업에는 무엇이 있는지 조사해본다	남
	진로준비 4(6)	나는 자신의 직업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멋있다고 생각한다	남
여가활용	여가유능감 5(5)	나는 내가 특별히 여가(취미) 시간에 즐겨할 만한 운동이 있다	남

#### ⑤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에 대한 성별 DIF 분석 결과의 종합해석

이 절에서는 여자 청소년의 역량 지수가 상위 학교급으로 갈수록 남자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결과를 탐색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진로개발역량’ 지수에 대한 성별 DIF를 실시하였다. 즉, 여자 청소년의 역량이 중학교 이후 남자 청소년보다 낮게 나타나는 것이 성별에 따른 학생들의 역량 차이에서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검사문항의 측정학적 특성 차이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분석 결과, 초등학생 집단에서는 4개 문항이 여자 청소년에게 더 유리한 반면, 중등학생과 대학생 집단에서는 각각 11개, 12개, 3개 문항이 남자 청소년에게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별기능문항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는 타 역량군과 마찬가지로 내용 전문가들의 추가 검토 및 각 학교급에 해당하는 학생들에 대한 면담 등을 통해 향후 면밀히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초, 중등학생보다 대학생 집단에서 차별기능문항이 적게 나타난 것이 대학생 집단의 표본 크기가 작기 때문인지, 아니면 검사 문항 이외의 다른 요인이 작용해서 기인된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탐색이 필요하다(김종민, 이문수, 안성훈, 2016). 다만 ‘진로설계’의 ‘진로 준비’에 해당하는 4(6)번 문항(“나는 자신의 직업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멋있다고 생각한다”)은 초, 중, 고등학생과 대학생 집단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차별기능문항으로 선정되었다. 이들 문항에 대해서는 향후 검사의 목적과 내용 타당도를 고려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4)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 측정도구에 대한 차별기능문항 분석

차별기능문항(이하 DIF) 분석에 앞서, 성별에 따른 대인관계역량 전체 및 세 가지 하위역량 차이를 학교급별로 나타내면 <표 IV-119>과 같다. 분석 결과, 초, 중등학생의 경우 여자 청소년의 역량 평균 값이 남자 청소년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반면, 대학생의 경우 남자 청소년의 역량 평균 값이 여자 청소년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IV-119 성별에 따른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 하위역량별 역량 차이: 학교급별

학교급	구분	사례수	전체		관계 형성		리더십		협동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초등학생	전체	2,509	2.95	0.54	3.02	0.57	2.85	0.62	2.97	0.60
	남	1,267	2.87	0.55	2.93	0.58	2.77	0.64	2.89	0.60
	여	1,242	3.04	0.52	3.12	0.54	2.93	0.59	3.05	0.58
통계량			t=-8.02**		t=-8.60**		t=-6.49**		t=-6.58**	
중학생	전체	2,541	3.04	0.47	3.12	0.50	2.90	0.55	3.08	0.52
	남	1,176	3.00	0.49	3.07	0.51	2.89	0.57	3.03	0.54
	여	1,365	3.07	0.46	3.16	0.49	2.91	0.54	3.12	0.50
통계량			t=-3.66**		t=-4.59**		t=-0.87		t=-4.36**	
고등학생	전체	3,366	3.03	0.43	3.12	0.46	2.89	0.51	3.07	0.48
	남	1,901	3.02	0.45	3.11	0.48	2.88	0.54	3.04	0.51
	여	1,465	3.05	0.39	3.14	0.44	2.89	0.47	3.10	0.44
통계량			t=-2.24**		t=-2.00*		t=-0.84		t=-3.38**	
대학생	전체	995	3.04	0.36	3.11	0.41	2.94	0.43	3.07	0.42
	남	500	3.06	0.38	3.13	0.42	2.96	0.44	3.08	0.44
	여	495	3.03	0.35	3.09	0.40	2.92	0.43	3.05	0.41
통계량			t=1.51		t=1.24		t=1.66		t=0.97	

\*,p<0.05, \*\*,p<0.01

다음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성별에 따른 능력차이에서 기인한 것인지, 검사도구의 측정학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인지를 탐색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학교급별로 성별에 따른 DIF 분석을 실시하였다.

① 초등학생 대인관계역량지수에 대한 성별 DIF 분석 결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DIF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IV-120>, <표 IV-121> 참조).

표 IV-120

초등학생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IRT-LR test 결과: 모든 문항을 anchor로 사용

하위역량	번호	Test	G <sup>2</sup>	df	참조 집단				연구 집단				G <sup>2</sup> p	
					a	b1	b2	b3	a	b1	b2	b3		
관계 형성	자기 개방성	7(1)	All equal	36.7	4	1.06	-3.23	-1.6	0.2	1.39	-2.6	-1.22	0.49	0.00
			a equal	10.4	1	1.23	-2.88	-1.44	0.17	1.23	-2.81	-1.3	0.56	
			b equal	26.3	3	1.25	-2.81	-1.35	0.35	1.25	-2.81	-1.35	0.35	
		7(2)	All equal	19.6	4	1	-2.61	-0.76	0.92	1.1	-2.32	-0.48	1.23	0.00
			a equal	1	1	1.05	-2.52	-0.73	0.89	1.05	-2.39	-0.49	1.28	
			b equal	18.6	3	1.07	-2.41	-0.6	1.05	1.07	-2.41	-0.6	1.05	
	7(3)	All equal	11	4	1.33	-2.98	-1.22	0.57	1.33	-2.81	-1.07	0.8	0.03	
		a equal	0	1	1.33	-2.98	-1.22	0.57	1.33	-2.81	-1.07	0.8		
		b equal	1.1	3	1.35	-2.85	-1.13	0.67	1.35	-2.85	-1.13	0.67		
	친화성	7(4)	All equal	26.4	4	1.43	-2.06	-0.49	0.8	1.49	-2.49	-0.68	0.8	0.00
			a equal	0.3	1	1.46	-2.03	-0.48	0.79	1.46	-2.52	-0.68	0.81	
			b equal	26.1	3	1.43	-2.31	-0.59	0.81	1.43	-2.31	-0.59	0.81	
7(5)		All equal	19.7	4	1.75	-2.3	-0.75	0.69	1.67	-2.44	-1.03	0.59	0.00	
		a equal	0.5	1	1.71	-2.34	-0.76	0.7	1.71	-2.41	-1.02	0.58		
		b equal	19.2	3	1.67	-2.4	-0.9	0.65	1.67	-2.4	-0.9	0.65		
7(6)	All equal	4.6	4	1.67	-2.63	-1.25	0.17	1.57	-2.87	-1.28	0.29	0.33		
	a equal	0.6	1	1.62	-2.68	-1.28	0.18	1.62	-2.83	-1.27	0.28			
	b equal	4	3	1.62	-2.76	-1.27	0.23	1.62	-2.76	-1.27	0.23			
의사 소통	7(7)	All equal	11.3	4	1.61	-2.94	-1.38	0.35	1.44	-3.29	-1.7	0.27	0.02	
		a equal	2.1	1	1.52	-3.05	-1.43	0.37	1.52	-3.19	-1.65	0.25		
		b equal	9.2	3	1.5	-3.16	-1.56	0.31	1.5	-3.16	-1.56	0.31		
	7(8)	All equal	14.5	4	1.67	-2.88	-1.36	0.41	1.76	-2.81	-1.17	0.59	0.01	
		a equal	0.6	1	1.71	-2.83	-1.34	0.4	1.71	-2.84	-1.19	0.6		
		b equal	13.9	3	1.73	-2.82	-1.25	0.49	1.73	-2.82	-1.25	0.49		
	7(9)	All equal	8.6	4	1.86	-2.69	-0.99	0.62	1.95	-2.34	-0.87	0.68	0.07	
		a equal	0.5	1	1.91	-2.65	-0.97	0.61	1.91	-2.36	-0.87	0.69		
		b equal	8	3	1.93	-2.45	-0.92	0.65	1.93	-2.45	-0.92	0.65		
공감 및 배려	7(10)	All equal	29.4	4	1.97	-3.04	-1.58	0.38	1.78	-2.84	-1.34	0.58	0.00	
		a equal	2.3	1	1.86	-3.15	-1.63	0.4	1.86	-2.77	-1.31	0.56		
		b equal	27	3	1.89	-2.87	-1.43	0.47	1.89	-2.87	-1.43	0.47		
	7(11)	All equal	18.3	4	1.81	-3.05	-1.27	0.6	1.69	-2.86	-1.09	0.81	0.00	
		a equal	1	1	1.75	-3.13	-1.29	0.61	1.75	-2.81	-1.08	0.78		
		b equal	17.3	3	1.77	-2.89	-1.16	0.69	1.77	-2.89	-1.16	0.69		
7(12)	All equal	6.7	4	1.73	-3.57	-1.7	0.45	1.63	-3.44	-1.57	0.49	0.15		
	a equal	0.8	1	1.68	-3.65	-1.73	0.46	1.68	-3.39	-1.55	0.48			
	b equal	5.9	3	1.69	-3.46	-1.62	0.47	1.69	-3.46	-1.62	0.47			
리더십	8(1)	All equal	8.9	4	2.09	-2.73	-0.92	0.88	2.45	-2.35	-0.85	0.77	0.06	
		a equal	6.1	1	2.27	-2.62	-0.89	0.84	2.27	-2.43	-0.87	0.81		
		b equal	2.8	3	2.27	-2.49	-0.87	0.83	2.27	-2.49	-0.87	0.83		
	8(2)	All equal	2.4	4	2.2	-2.48	-0.89	0.93	2.35	-2.37	-0.81	0.9	0.66	
		a equal	4.6	4	2.49	-2.57	-1.17	0.59	2.29	-2.5	-1.14	0.61		
		b equal	1.7	1	2.38	-2.62	-1.2	0.6	2.38	-2.46	-1.13	0.59		
	8(3)	All equal	2.9	3	2.39	-2.51	-1.15	0.6	2.39	-2.51	-1.15	0.6	0.33	
		a equal	1.7	1	2.38	-2.62	-1.2	0.6	2.38	-2.46	-1.13	0.59		
		b equal	2.9	3	2.39	-2.51	-1.15	0.6	2.39	-2.51	-1.15	0.6		
	집단 활동 관리	8(4)	All equal	2.6	4	1.9	-2.07	-0.34	1.04	2.04	-1.97	-0.28	0.99	0.63
			a equal	12.6	4	2.3	-2.07	-0.48	1.07	2.06	-2.32	-0.62	1.01	
			b equal	2.9	1	2.17	-2.13	-0.49	1.09	2.17	-2.27	-0.62	0.98	
8(5)		All equal	9.7	3	2.14	-2.22	-0.56	1.05	2.14	-2.22	-0.56	1.05	0.01	
		a equal	3.8	4	2.66	-1.97	-0.51	0.88	2.72	-2.01	-0.46	0.81		
		b equal	3.8	4	2.66	-1.97	-0.51	0.88	2.72	-2.01	-0.46	0.81		
추진력	8(7)	All equal	13.3	4	2.39	-2.29	-0.73	0.99	2.29	-2.3	-0.86	0.85	0.01	
		a equal	0.4	1	2.34	-2.31	-0.73	1	2.34	-2.28	-0.85	0.84		
		b equal	13	3	2.31	-2.31	-0.8	0.93	2.31	-2.31	-0.8	0.93		
	8(8)	All equal	11.8	4	2.19	-2.22	-0.72	0.87	2.21	-2.29	-0.84	0.71	0.02	
		a equal	0	1	2.2	-2.21	-0.72	0.86	2.2	-2.29	-0.84	0.71		
		b equal	11.8	3	2.17	-2.27	-0.79	0.8	2.17	-2.27	-0.79	0.8		
8(9)	All equal	4.4	4	2.82	-2.11	-0.85	0.72	2.63	-2.28	-0.85	0.68	0.35		
	a equal	1.3	1	2.71	-2.14	-0.86	0.73	2.71	-2.25	-0.84	0.67			
	b equal	3.1	3	2.7	-2.21	-0.85	0.7	2.7	-2.21	-0.85	0.7			
협동	9(1)	All equal	3.7	4	2.27	-2.48	-0.68	0.84	2.24	-2.31	-0.72	0.82	0.45	
		a equal	11.7	4	2.23	-2.51	-0.93	0.71	2.38	-2.52	-1.03	0.55		
		b equal	1.1	1	2.31	-2.47	-0.92	0.7	2.31	-2.56	-1.04	0.57		
	9(2)	All equal	10.6	3	2.27	-2.53	-0.99	0.64	2.27	-2.53	-0.99	0.64	0.70	
		a equal	2.2	4	2.65	-2.22	-0.74	0.83	2.6	-2.3	-0.77	0.77		
		b equal	2.2	4	2.65	-2.22	-0.74	0.83	2.6	-2.3	-0.77	0.77		
	9(3)	All equal	23.4	4	2.12	-3.43	-1.68	0.16	2.06	-3.06	-1.44	0.33	0.00	
		a equal	0.2	1	2.09	-3.46	-1.69	0.16	2.09	-3.04	-1.43	0.33		
		b equal	23.3	3	2.11	-3.14	-1.53	0.24	2.11	-3.14	-1.53	0.24		
	갈등 문제 해결	9(4)	All equal	2.9	4	2.39	-2.57	-1.07	0.45	2.33	-2.73	-1.15	0.42	0.57
			a equal	2.4	4	2.79	-2.3	-0.85	0.71	2.63	-2.45	-0.84	0.76	
			b equal	11.4	4	1.88	-2.33	-0.58	0.95	1.65	-2.49	-0.76	1.06	
9(7)		All equal	3.9	1	1.76	-2.43	-0.6	0.99	1.76	-2.41	-0.74	1.01	0.03	
		a equal	7.5	3	1.75	-2.42	-0.68	1	1.75	-2.42	-0.68	1		
		b equal	11.1	4	2.36	-2.25	-0.88	0.69	2.09	-2.34	-1.04	0.66		
9(8)	All equal	3.7	1	2.22	-2.32	-0.9	0.72	2.22	-2.28	-1.02	0.63	0.03		
	b equal	7.5	3	2.2	-2.31	-0.97	0.68	2.2	-2.31	-0.97	0.68			

표 IV-121 초등학교 학생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IRT-LR test 결과: non-IDF 문항을 anchor로 사용

하위역량	번호	Test	G <sup>2</sup>	df	참조 집단				연구 집단				G <sup>2</sup> p			
					a	b1	b2	b3	a	b1	b2	b3				
관계형성	자기 개방성	7(1)	All equal 39.6 a equal 9 b equal 30.6	4 1 3	0.97 1.12 1.13	-3.5 -3.11 -3.01	-1.74 -1.55 -1.43	0.2 0.17 0.38	1.26 1.12 1.13	-2.77 -2.99 -3.01	-1.27 -1.36 -1.43	0.55 0.63 0.38	0.00			
		7(2)	All equal 24.6 a equal 1.7 b equal 22.9	4 1 3	0.91 0.97 0.99	-2.84 -2.69 -2.55	-0.82 -0.78 -0.62	0.98 0.93 1.12	1.03 0.97 0.99	-2.41 -2.51 -2.55	-0.47 -0.48 -0.62	1.32 1.39 1.12		0.00		
		7(4)	All equal 21.4 a equal 0.1 b equal 21.2	4 1 3	1.34 1.36 1.34	-2.17 -2.15 -2.41	-0.51 -0.51 -0.6	0.82 0.82 0.85	1.38 1.36 1.34	-2.59 -2.61 -2.41	-0.68 -0.68 -0.6	0.87 0.88 0.85			0.01	
		7(5)	All equal 13.6 a equal 0.6 b equal 13	4 1 3	1.63 1.59 1.57	-2.42 -2.47 -2.5	-0.79 -0.8 -0.92	0.71 0.72 0.69	1.55 1.59 1.57	-2.52 -2.49 -2.5	-1.04 -1.03 -0.92	0.65 0.64 0.69				0.00
	7(8)	All equal 18.1 a equal 0.3 b equal 17.8	4 1 3	1.59 1.62 1.64	-3.01 -2.97 -2.93	-1.41 -1.4 -1.28	0.41 0.4 0.51	1.65 1.62 1.64	-2.9 -2.93 -2.93	-1.2 -1.21 -1.28	0.63 0.64 0.51	0.00				
	7(10)	All equal 35.2 a equal 2.8 b equal 32.4	4 1 3	1.84 1.72 1.75	-3.19 -3.33 -3	-1.66 -1.72 -1.49	0.39 0.4 0.49	1.63 1.72 1.75	-2.96 -2.87 -3	-1.39 -1.35 -1.49	0.63 0.6 0.49		0.00			
	7(11)	All equal 24.5 a equal 1.8 b equal 22.7	4 1 3	1.71 1.63 1.65	-3.19 -3.31 -3.02	-1.32 -1.36 -1.21	0.6 0.62 0.71	1.56 1.63 1.65	-2.99 -2.91 -3.02	-1.12 -1.1 -1.21	0.87 0.84 0.71			0.00		
	협동	팔로워쉽	9(4)	All equal 28.6 a equal 0.5 b equal 28.1	4 1 3	2.18 2.12 2.15	-3.43 -3.47 -3.15	-1.68 -1.7 -1.53	0.14 0.15 0.23	2.08 2.12 2.15	-3.06 -3.03 -3.15				-1.44 -1.43 -1.53	0.34 0.33 0.23

분석 결과, 초등학교 학생 집단에서는 문항 7(1), 7(2), 7(4), 7(5), 7(8), 7(10), 7(11), 9(4)의 총 8개 문항이 성별에 따른 차별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 집단에게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문항이 속해 있는 하위 역량별로 살펴보면, '관계형성'이 7문항(의사소통 1문항, 자기개방성과 친화성, 공감 및 배려 각 2문항), '협동'이 1문항(팔로워쉽)을 포함하고 있었다. 관련 문항은 <표 IV-122>과 같다.

표 IV-122 초등학교 학생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DIF 문항 내용

하위역량	번호	문항 내용	선호집단
관계형성	자기개방성	7(1) 나는 친한 친구에게 나의 고민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여
		7(2) 나는 친한 친구에게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다	여
	친화성	7(4) 나는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망설임 없이 소개한다	여
		7(5) 나는 관심 있는 새로운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기도 한다	여
	의사소통	7(8) 나는 상대방의 몸짓이나 표정을 살피며 듣는다	여
	공감 및 배려	7(10) 나는 다른 사람이 문제를 겪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여
7(11) 나는 상대방이 나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한다		여	
협동	팔로워쉽	9(4) 나는 모둠 활동을 할 때, 나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	여

② 중학생 대인관계역량지수에 대한 성별 DIF 분석 결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DIF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IV-123>, <표 IV-124> 참조).

표 IV-123

중학생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IRT-LR test 결과: 모든 문항을 anchor로 사용

하위역량	번호	Test	G <sup>2</sup>	df	참조 집단				연구 집단				G <sup>2</sup> p	
					a	b1	b2	b3	a	b1	b2	b3		
자기 개방성	7(1)	All equal	39.9	4	1.27	-3.28	-1.83	0.11	1.57	-2.88	-1.55	0.43	0.00	
		a equal	6.8	1	1.41	-3.03	-1.7	0.09	1.41	-3.08	-1.64	0.48		
		b equal	33.1	3	1.41	-3.06	-1.67	0.26	1.41	-3.06	-1.67	0.26		
	7(2)	All equal	23.1	4	1.09	-3.14	-1.22	0.67	1.26	-3.01	-1.13	0.91	0.00	
		a equal	2.9	1	1.17	-2.97	-1.16	0.63	1.17	-3.17	-1.18	0.97		
		b equal	20.2	3	1.16	-3.08	-1.18	0.78	1.16	-3.08	-1.18	0.78		
	7(3)	All equal	14.6	4	1.3	-3.35	-1.67	0.35	1.42	-3.39	-1.63	0.54	0.01	
		a equal	1.3	1	1.36	-3.24	-1.62	0.34	1.36	-3.5	-1.68	0.56		
		b equal	13.3	3	1.35	-3.37	-1.65	0.44	1.35	-3.37	-1.65	0.44		
친화성	7(4)	All equal	35.8	4	1.71	-2.28	-0.54	0.78	1.52	-2.81	-0.91	0.81	0.00	
		a equal	2.9	1	1.62	-2.37	-0.55	0.82	1.62	-2.7	-0.88	0.77		
		b equal	32.9	3	1.59	-2.54	-0.71	0.8	1.59	-2.54	-0.71	0.8		
	7(5)	All equal	33.1	4	1.79	-2.51	-0.85	0.67	1.71	-2.82	-1.23	0.68	0.00	
		a equal	0.5	1	1.75	-2.54	-0.86	0.69	1.75	-2.78	-1.21	0.66		
		b equal	32.6	3	1.72	-2.68	-1.03	0.68	1.72	-2.68	-1.03	0.68		
	7(6)	All equal	12.2	4	1.58	-2.62	-1.28	0.55	1.73	-2.89	-1.28	0.41	0.02	
		a equal	1.8	1	1.65	-2.54	-1.24	0.53	1.65	-2.98	-1.32	0.43		
		b equal	10.5	3	1.64	-2.75	-1.28	0.49	1.64	-2.75	-1.28	0.49		
의사 소통	7(7)	All equal	8.8	4	1.6	-3.21	-1.46	0.58	1.62	-3.54	-1.6	0.44	0.07	
		a equal	0	1	1.61	-3.2	-1.45	0.58	1.61	-3.55	-1.6	0.44		
		b equal	8.8	3	1.59	-3.39	-1.53	0.52	1.59	-3.39	-1.53	0.52		
	7(8)	All equal	35.4	4	1.83	-3.3	-1.78	0.32	1.63	-3.42	-1.49	0.57	0.00	
		a equal	2.3	1	1.72	-3.43	-1.84	0.33	1.72	-3.31	-1.45	0.55		
		b equal	33.1	3	1.73	-3.35	-1.62	0.42	1.73	-3.35	-1.62	0.42		
	7(9)	All equal	15.9	4	1.91	-2.78	-1.16	0.63	1.7	-3.04	-1.12	0.9	0.00	
		a equal	2.8	1	1.81	-2.88	-1.2	0.66	1.81	-2.94	-1.09	0.87		
		b equal	13.1	3	1.81	-2.91	-1.15	0.74	1.81	-2.91	-1.15	0.74		
공감 및 배려	7(10)	All equal	30.1	4	1.79	-3.57	-1.82	0.42	1.72	-3.39	-1.6	0.73	0.00	
		a equal	0.3	1	1.76	-3.62	-1.84	0.42	1.76	-3.35	-1.59	0.72		
		b equal	29.8	3	1.76	-3.46	-1.71	0.55	1.76	-3.46	-1.71	0.55		
	7(11)	All equal	31.5	4	1.61	-3.52	-1.56	0.52	1.73	-3.32	-1.33	0.83	0.00	
		a equal	1	1	1.67	-3.44	-1.53	0.51	1.67	-3.39	-1.36	0.86		
		b equal	30.6	3	1.67	-3.41	-1.44	0.66	1.67	-3.41	-1.44	0.66		
	7(12)	All equal	19	4	1.42	-4.02	-2.27	0.46	1.44	-4.1	-1.94	0.68	0.00	
		a equal	0	1	1.43	-4	-2.26	0.46	1.43	-4.12	-1.95	0.69		
		b equal	19	3	1.44	-4.05	-2.09	0.56	1.44	-4.05	-2.09	0.56		
의사 결정	8(1)	All equal	9.8	4	2.14	-2.81	-0.9	1.25	2.03	-2.78	-1.04	1.13	0.04	
		a equal	0.6	1	2.09	-2.85	-0.91	1.26	2.09	-2.74	-1.03	1.12		
		b equal	9.2	3	2.07	-2.8	-0.97	1.2	2.07	-2.8	-0.97	1.2		
	8(2)	All equal	4.4	4	1.99	-2.78	-1.11	1.07	1.95	-2.95	-1.16	0.96	0.35	
		a equal	0.1	1	1.97	-2.8	-1.11	1.08	1.97	-2.94	-1.15	0.96		
		b equal	4.3	3	1.96	-2.88	-1.13	1.03	1.96	-2.88	-1.13	1.03		
	8(3)	All equal	3.2	4	2.21	-2.97	-1.49	0.78	2.14	-2.9	-1.4	0.82	0.52	
	집단 활동 관리	8(4)	All equal	7.5	4	1.72	-1.96	-0.21	1.26	1.87	-2.01	-0.31	1.19	0.11
			a equal	1.8	1	1.79	-1.91	-0.2	1.23	1.79	-2.06	-0.31	1.23	
b equal			5.8	3	1.78	-1.99	-0.25	1.23	1.78	-1.99	-0.25	1.23		
8(5)		All equal	5.5	4	2.35	-2.41	-0.84	1.13	2.46	-2.48	-0.88	0.99	0.24	
		a equal	0.5	1	2.4	-2.39	-0.83	1.12	2.4	-2.51	-0.88	1		
		b equal	5	3	2.39	-2.45	-0.86	1.07	2.39	-2.45	-0.86	1.07		
8(6)		All equal	8.8	4	2.21	-2.03	-0.57	1.06	2.23	-2.3	-0.63	1.03	0.07	
		a equal	0	1	2.22	-2.02	-0.57	1.06	2.22	-2.3	-0.63	1.03		
		b equal	8.8	3	2.2	-2.16	-0.6	1.05	2.2	-2.16	-0.6	1.05		
추진력	8(7)	All equal	28.3	4	2.48	-2.24	-0.76	1.16	2.35	-2.47	-0.94	0.93	0.00	
		a equal	0.7	1	2.42	-2.27	-0.77	1.17	2.42	-2.44	-0.93	0.92		
		b equal	27.6	3	2.37	-2.38	-0.85	1.07	2.37	-2.38	-0.85	1.07		
	8(8)	All equal	35.8	4	1.62	-2.61	-0.67	1.38	1.84	-2.59	-0.86	0.95	0.00	
		a equal	3.7	1	1.72	-2.5	-0.65	1.33	1.72	-2.69	-0.89	1		
		b equal	32	3	1.69	-2.62	-0.76	1.19	1.69	-2.62	-0.76	1.19		
	8(9)	All equal	5.2	4	2.45	-2.58	-1.16	0.8	2.35	-2.5	-1.15	0.72	0.27	
		a equal	0.5	1	2.4	-2.61	-1.17	0.81	2.4	-2.48	-1.14	0.71		
		b equal	4.8	3	2.4	-2.53	-1.16	0.77	2.4	-2.53	-1.16	0.77		
집단 촉진	9(1)	All equal	10.9	4	1.89	-3.02	-1.16	0.81	2.24	-2.68	-1.04	0.85	0.03	
		a equal	6.5	1	2.04	-2.88	-1.11	0.77	2.04	-2.8	-1.08	0.89		
		b equal	4.4	3	2.05	-2.83	-1.09	0.82	2.05	-2.83	-1.09	0.82		
	9(2)	All equal	21.3	4	2.26	-2.68	-0.91	1.01	2.5	-2.75	-1.08	0.87	0.00	
		a equal	2.4	1	2.37	-2.61	-0.89	0.99	2.37	-2.81	-1.1	0.89		
		b equal	19	3	2.34	-2.73	-1	0.95	2.34	-2.73	-1	0.95		
	9(3)	All equal	9.2	4	2.18	-2.74	-0.9	1.04	2.38	-2.62	-1	0.98	0.06	
		a equal	1.7	1	2.27	-2.69	-0.88	1.02	2.27	-2.67	-1.02	1		
		b equal	7.5	3	2.26	-2.68	-0.95	1.02	2.26	-2.68	-0.95	1.02		
협동	9(4)	All equal	21.2	4	1.94	-4.11	-2.08	0.24	1.81	-3.26	-1.86	0.38	0.00	
		a equal	1	1	1.87	-4.19	-2.12	0.25	1.87	-3.2	-1.83	0.37		
		b equal	20.2	3	1.88	-3.47	-1.96	0.3	1.88	-3.47	-1.96	0.3		
	9(5)	All equal	5	4	2.18	-3.13	-1.44	0.42	2.01	-3.1	-1.58	0.5	0.29	
		a equal	1.4	1	2.1	-3.19	-1.47	0.43	2.1	-3.04	-1.55	0.48		
		b equal	3.6	3	2.1	-3.1	-1.5	0.45	2.1	-3.1	-1.5	0.45		
	갈등 문제 해결	9(6)	All equal	7	4	2.58	-2.77	-1.18	0.65	2.41	-2.63	-1.11	0.72	0.14
			a equal	1.1	1	2.49	-2.82	-1.2	0.66	2.49	-2.6	-1.1	0.71	
			b equal	5.9	3	2.5	-2.68	-1.15	0.68	2.5	-2.68	-1.15	0.68	
9(7)		All equal	9.7	4	1.7	-3.26	-1.22	0.75	1.77	-2.8	-1.1	0.87	0.05	
		a equal	0.3	1	1.73	-3.22	-1.21	0.75	1.73	-2.83	-1.11	0.88		
		b equal	9.4	3	1.74	-2.97	-1.16	0.8	1.74	-2.97	-1.16	0.8		
9(8)		All equal	17.3	4	2.01	-3.11	-1.48	0.59	2.17	-2.62	-1.23	0.68	0.00	
		a equal	1.2	1	2.09	-3.05	-1.45	0.57	2.09	-2.67	-1.25	0.69		
		b equal	16.1	3	2.1	-2.81	-1.35	0.62	2.1	-2.81	-1.35	0.62		

표 IV-124 중학생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IRT-LR test 결과: non-DIF 문항을 anchor로 사용

하위역량	번호	Test	G <sup>2</sup>	df	참조 집단				연구 집단				G <sup>2</sup> p	
					a	b1	b2	b3	a	b1	b2	b3		
관계 형성	자기 개방성	7(1) All equal	43.5	4	1.06	-3.79	-2.1	0.13	1.31	-3.21	-1.69	0.53	0.00	
		a equal	6.2	1	1.18	-3.48	-1.93	0.11	1.18	-3.47	-1.81	0.59		
		b equal	37.3	3	1.17	-3.48	-1.88	0.33	1.17	-3.48	-1.88	0.33		
		7(2) All equal	26.3	4	0.89	-3.7	-1.41	0.79	1.08	-3.33	-1.21	1.07		0.00
		a equal	4.2	1	0.98	-3.41	-1.31	0.73	0.98	-3.59	-1.29	1.16		
		b equal	22.1	3	0.98	-3.51	-1.31	0.92	0.98	-3.51	-1.31	0.92		
	7(3) All equal	18.4	4	1.05	-3.95	-1.94	0.42	1.22	-3.75	-1.77	0.65	0.00		
	a equal	2.8	1	1.13	-3.72	-1.84	0.39	1.13	-3.97	-1.86	0.69			
	b equal	15.6	3	1.13	-3.84	-1.85	0.53	1.13	-3.84	-1.85	0.53			
	친화성	7(4) All equal	26.5	4	1.5	-2.5	-0.57	0.86	1.36	-2.99	-0.92		0.93	0.00
		a equal	1.7	1	1.43	-2.58	-0.58	0.89	1.43	-2.89	-0.89		0.89	
		b equal	24.8	3	1.42	-2.73	-0.73	0.9	1.42	-2.73	-0.73		0.9	
		7(5) All equal	25.7	4	1.64	-2.68	-0.9	0.72	1.55	-2.97	-1.25	0.77	0.00	
		a equal	0.5	1	1.6	-2.72	-0.91	0.73	1.6	-2.92	-1.23	0.76		
		b equal	25.1	3	1.58	-2.83	-1.06	0.75	1.58	-2.83	-1.06	0.75		
	의사 소통	7(8) All equal	41.1	4	1.64	-3.55	-1.91	0.34	1.46	-3.67	-1.57	0.66		0.00
		a equal	2.4	1	1.55	-3.7	-1.98	0.36	1.55	-3.53	-1.52	0.63		
		b equal	38.7	3	1.55	-3.6	-1.73	0.48	1.55	-3.6	-1.73	0.48		
		7(9) All equal	19.2	4	1.74	-2.96	-1.23	0.67	1.55	-3.23	-1.16	0.99	0.00	
		a equal	2.7	1	1.64	-3.07	-1.27	0.7	1.64	-3.11	-1.12	0.95		
		b equal	16.5	3	1.64	-3.09	-1.2	0.81	1.64	-3.09	-1.2	0.81		
	공감 및 배려	7(10) All equal	34.4	4	1.51	-4.01	-2.03	0.47	1.49	-3.7	-1.73	0.83		0.00
		a equal	0	1	1.5	-4.02	-2.04	0.47	1.5	-3.68	-1.72	0.83		
		b equal	34.4	3	1.5	-3.83	-1.87	0.63	1.5	-3.83	-1.87	0.63		
7(11) All equal		36.8	4	1.4	-3.89	-1.71	0.58	1.54	-3.55	-1.4	0.93	0.00		
a equal		1.5	1	1.47	-3.76	-1.66	0.56	1.47	-3.66	-1.44	0.96			
b equal		35.3	3	1.47	-3.71	-1.55	0.73	1.47	-3.71	-1.55	0.73			
7(12) All equal	22.7	4	1.22	-4.52	-2.54	0.51	1.23	-4.56	-2.13	0.8	0.00			
a equal	0	1	1.22	-4.5	-2.53	0.51	1.22	-4.58	-2.14	0.81				
b equal	22.7	3	1.23	-4.53	-2.32	0.64	1.23	-4.53	-2.32	0.64				
리더십	추진력	8(7) All equal	26	4	2.95	-2.12	-0.72	1.12	2.58	-2.4		-0.88	0.95	0.00
		a equal	3.9	1	2.76	-2.18	-0.74	1.14	2.76	-2.34		-0.86	0.93	
		b equal	22.1	3	2.72	-2.27	-0.8	1.05	2.72	-2.27		-0.8	1.05	
		8(8) All equal	26.9	4	1.67	-2.57	-0.66	1.36	1.89	-2.57	-0.82	1	0.00	
		a equal	3.2	1	1.77	-2.48	-0.64	1.32	1.77	-2.66	-0.84	1.04		
		b equal	23.8	3	1.75	-2.58	-0.74	1.2	1.75	-2.58	-0.74	1.2		
편의	집단 촉진	9(2) All equal	13.9	4	2.43	-2.62	-0.9	0.99	2.57	-2.75	-1.05	0.91		0.01
		a equal	0.7	1	2.49	-2.59	-0.89	0.98	2.49	-2.78	-1.06	0.92		
		b equal	13.2	3	2.47	-2.7	-0.97	0.96	2.47	-2.7	-0.97	0.96		
	팔로워쉽	9(4) All equal	22.6	4	1.93	-4.09	-2.1	0.24	1.85	-3.26	-1.85	0.41	0.00	
		a equal	0.4	1	1.89	-4.14	-2.13	0.24	1.89	-3.23	-1.83	0.4		
		b equal	22.3	3	1.9	-3.48	-1.96	0.31	1.9	-3.48	-1.96	0.31		
갈등 문제 해결	9(8) All equal	19.5	4	2.03	-3.14	-1.49	0.59	2.06	-2.72	-1.26	0.73	0.00		
	a equal	0.1	1	2.05	-3.12	-1.49	0.59	2.05	-2.73	-1.26	0.73			
	b equal	19.4	3	2.06	-2.87	-1.37	0.65	2.06	-2.87	-1.37	0.65			

분석 결과, 중학생 집단에서는 초등학생 집단보다 더 많은 문항에서 성별에 따라 차별기능이 존재하였으며, 초등학생 집단과 마찬가지로 여자 청소년에게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학생 집단에서는 초등학생 집단에서 DIF 문항으로 나타났던 문항 7(1), 7(2), 7(4), 7(5), 7(8), 7(10), 7(11), 9(4) 뿐 아니라, 7(3), 7(9), 7(12), 8(7), 8(8), 9(2), 9(8)을 포함한 총 15개 문항이 성별에 따른 차별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문항이 속해 있는 하위 역량별로 살펴보면, ‘관계형성’이 10문항(친화성과 의사소통 각 2문항, 자기개방성과 공감 및 배려 각 3문항), ‘리더십’이 2문항(추진력), ‘협동’이 3문항(집단추진, 팔로워쉽, 갈등문제해결 각 1문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관련 문항은 <표 IV-125>와 같다.

**표 IV-125 중학생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DIF 문항 내용**

하위역량		번호	문항 내용	성별 집단	
관계형성	자기개방성	7(1)	나는 친한 친구에게 나의 고민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여	
		7(2)	나는 친한 친구에게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다	여	
		7(3)	나는 친한 친구에게 내 행동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행동한다	여	
	친화성	7(4)	나는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망설임 없이 소개한다	여	
		7(5)	나는 관심 있는 새로운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기도 한다	여	
	의사소통	7(8)	나는 상대방의 몸짓이나 표정을 살피며 듣는다	여	
		7(9)	나는 상대방과 의견차이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노력한다	여	
	공감 및 배려	7(10)	나는 다른 사람이 문제를 겪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여	
		7(11)	나는 상대방이 나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한다	여	
		7(12)	나는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선택을 존중한다	여	
	리더십	추진력	8(7)	나는 내가 속한 모둠 활동을 끝내는 데 필요한 단계를 생각할 수 있다	여
			8(8)	나는 우리 모둠의 계획을 실천할 때,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밀고 나간다	여
협동	집단추진	9(2)	나는 모둠활동을 할 때 쓰일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한다	여	
	팔로워쉽	9(4)	나는 모둠 활동을 할 때, 나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	여	
	갈등문제 해결	9(8)	나는 모둠 활동을 할 때 중요한 사항이나 문제점이 생기면 친구들과 함께 해결한다	여	

③ 고등학생 대인관계역량지수에 대한 성별 DIF 분석 결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DIF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IV-126>, <표 IV-127> 참조).

표 IV-126

고등학생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IRT-LR test 결과: 모든 문항을 anchor로 사용

하위역량	번호	Test	G <sup>2</sup>	df	참조 집단				연구 집단				G <sup>2</sup> p	
					a	b1	b2	b3	a	b1	b2	b3		
관계 형성	자기 개방성	7(1)	All equal a equal b equal	9.4 0.1 9.4	4 1 3	1.3 1.32 1.32	-3.73 -3.7 -3.56	-2.13 -2.12 -2.06	0.29 0.29 0.39	1.33 1.32 1.32	-3.47 -3.49 -3.56	-2.02 -2.03 -2.06	0.47 0.48 0.39	0.05 0.00
		7(2)	All equal a equal b equal	23 9.9 13.1	4 1 3	0.98 1.14 1.13	-3.69 -3.27 -3.32	-1.49 -1.33 -1.5	1.01 0.9 0.87	1.25 1.14 1.13	-3.11 -3.32 -3.32	-1.53 -1.61 -1.5	0.78 0.84 0.87	0.35
		7(3)	All equal a equal b equal	4.4 0.1 4.3	4 1 3	1.27 1.25 1.25	-3.69 -3.72 -3.74	-1.8 -1.82 -1.92	0.54 0.54 0.54	1.24 1.25 1.25	-3.75 -3.74 -3.74	-2 -1.99 -1.92	0.53 0.53 0.54	0.00
	친화성	7(4)	All equal a equal b equal	23.2 0.2 23	4 1 3	1.38 1.4 1.38	-2.56 -2.52 -2.76	-0.55 -0.55 -0.69	1.2 1.18 1.14	1.42 1.4 1.38	-2.88 -2.9 -2.76	-0.8 -0.8 -0.69	1.08 1.09 1.14	0.00
		7(5)	All equal a equal b equal	17.1 0 17.1	4 1 3	1.55 1.54 1.53	-2.63 -2.63 -2.88	-1.04 -1.04 -1.15	1.07 1.07 1.01	1.54 1.54 1.53	-3.04 -3.04 -2.88	-1.23 -1.23 -1.15	0.94 0.94 1.01	0.00
		7(6)	All equal a equal b equal	16.5 0 16.5	4 1 3	1.39 1.4 1.38	-3.2 -3.19 -3.37	-1.24 -1.24 -1.38	0.94 0.94 0.85	1.4 1.4 1.38	-3.45 -3.45 -3.37	-1.48 -1.48 -1.38	0.77 0.77 0.85	0.00
	의사소통	7(7)	All equal a equal b equal	16 13.1 2.8	4 1 3	1.74 1.5 1.5	-3.44 -3.81 -3.75	-1.46 -1.6 -1.58	0.78 0.86 0.81	1.36 1.5 1.5	-3.95 -3.72 -3.75	-1.66 -1.57 -1.58	0.83 0.77 0.81	0.00
		7(8)	All equal a equal b equal	59.9 7.5 52.4	4 1 3	1.72 1.52 1.53	-4.25 -4.61 -3.89	-2.25 -2.44 -2.05	0.34 0.38 0.51	1.42 1.52 1.53	-3.85 -3.69 -3.89	-1.94 -1.87 -2.05	0.66 0.63 0.51	0.00
		7(9)	All equal a equal b equal	2.6 12 0.2	4 1 3	1.61 1.41 1.38	-3.75 -4.58 -4.65	-1.45 -2.37 -2.4	0.8 0.66 0.67	1.56 1.36 1.38	-3.47 -4.13 -4.1	-1.47 -2.12 -2.1	0.82 0.79 0.78	0.02
공감 및 배려	7(10)	All equal a equal b equal	11.8 21.3 0.5	4 1 3	1.39 1.39 1.35	-4.25 -4.37 -4.48	-2.21 -2.02 -2.06	0.73 0.58 0.59	1.39 1.32 1.35	-4.25 -4.1 -4.04	-2.21 -1.79 -1.77	0.73 0.83 0.82	0.00	
	7(11)	All equal a equal b equal	20.7 7.4 1.6	4 1 1	1.36 1.22 1.15	-4.16 -5.05 -5.31	-1.88 -2.67 -2.8	0.71 0.73 0.76	1.36 1.11 1.15	-4.16 -4.69 -4.55	-1.88 -2.65 -2.58	0.71 0.77 0.75	0.12	
	7(12)	All equal a equal b equal	5.7 1.6 5.7	4 1 3	1.15 1.15 1.15	-4.76 -4.76 -4.76	-2.65 -2.65 -2.65	0.75 0.75 0.75	1.15 1.15 1.15	-4.76 -4.76 -4.76	-2.65 -2.65 -2.65	0.75 0.75 0.75	0.00	
리더십	의사 결정	8(1)	All equal a equal b equal	5.4 0.3 5.2	4 1 3	1.65 1.69 1.69	-3.41 -3.37 -3.3	-0.99 -0.98 -1.01	1.73 1.71 1.63	1.71 1.69 1.69	-3.25 -3.27 -3.3	-1.03 -1.03 -1.01	1.55 1.56 1.63	0.25
		8(2)	All equal a equal b equal	19.8 3.5 16.3	4 1 3	1.8 1.67 1.68	-3.83 -4.02 -3.59	-1.54 -1.61 -1.47	1.23 1.29 1.24	1.59 1.67 1.68	-3.53 -3.44 -3.59	-1.42 -1.39 -1.47	1.24 1.21 1.24	0.00
		8(3)	All equal a equal b equal	31.1 12.2 18.9	4 1 3	2.06 1.78 1.79	-3.55 -3.87 -3.6	-1.89 -2.04 -1.83	0.96 1.03 1	1.64 1.78 1.79	-3.68 -3.51 -3.6	-1.79 -1.71 -1.83	1.03 0.98 1	0.00
	집단 활동 관리	8(4)	All equal a equal b equal	8.8 7.8 1	4 1 3	1.63 1.47 1.47	-2.06 -2.21 -2.27	-0.21 -0.22 -0.22	1.51 1.61 1.61	1.37 1.47 1.47	-2.41 -2.31 -2.27	-0.23 -0.23 -0.22	1.68 1.61 1.61	0.07
		8(5)	All equal a equal b equal	7.3 1.1 6.2	4 1 3	2.29 2.2 2.21	-2.64 -2.69 -2.6	-0.98 -1 -0.93	1.29 1.31 1.31	2.14 2.2 2.21	-2.59 -2.56 -2.6	-0.89 -0.89 -0.93	1.33 1.31 1.31	0.12
		8(6)	All equal a equal b equal	12.1 10.1 1.9	4 1 3	2.23 1.99 1.99	-2.13 -2.27 -2.3	-0.64 -0.67 -0.66	1.24 1.31 1.27	1.85 1.99 1.99	-2.4 -2.31 -2.3	-0.67 -0.65 -0.66	1.29 1.24 1.27	0.02
	추진력	8(7)	All equal a equal b equal	9.6 1.5 8.1	4 1 3	2.09 2 2	-2.7 -2.76 -2.76	-0.87 -0.89 -0.95	1.43 1.46 1.39	1.95 2 2	-2.78 -2.75 -2.76	-1.01 -0.99 -0.95	1.35 1.33 1.39	0.05
		8(8)	All equal a equal b equal	59.4 3 56.4	4 1 3	1.32 1.41 1.39	-3.08 -2.92 -3.05	-0.45 -0.43 -0.6	2.07 1.98 1.68	1.47 1.41 1.39	-3.01 -3.09 -3.05	-0.72 -0.73 -0.6	1.4 1.44 1.68	0.00
		8(9)	All equal a equal b equal	14.6 1.8 12.8	4 1 3	2.08 1.98 1.97	-3.19 -3.28 -3.06	-1.39 -1.43 -1.42	1.15 1.18 1.08	1.91 1.98 1.97	-3.01 -2.96 -3.06	-1.43 -1.41 -1.42	1.01 1 1.08	0.01
협동	집단 촉진	9(1)	All equal a equal b equal	16.4 0.2 16.1	4 1 3	1.72 1.76 1.77	-3.53 -3.49 -3	-1.27 -1.26 -1.16	1.1 1.09 1.1	1.78 1.76 1.77	-2.83 -2.85 -3	-1.1 -1.11 -1.16	1.11 1.12 1.1	0.00
		9(2)	All equal a equal b equal	17.6 0.2 17.4	4 1 3	1.87 1.9 1.89	-3.44 -3.4 -3.14	-1.06 -1.05 -1.12	1.41 1.4 1.3	1.92 1.9 1.89	-3.02 -3.04 -3.14	-1.17 -1.18 -1.12	1.21 1.22 1.3	0.00
		9(3)	All equal a equal b equal	5.6 1.2 4.4	4 1 3	1.92 1.85 1.84	-2.91 -2.99 -2.97	-1.01 -1.03 -1.06	1.39 1.42 1.36	1.8 1.85 1.84	-3 -2.96 -2.97	-1.1 -1.09 -1.06	1.32 1.3 1.36	0.23
	팔로워십	9(4)	All equal a equal b equal	26.5 11.1 15.4	4 1 3	1.7 1.46 1.48	-4.48 -4.96 -4.37	-2.47 -2.73 -2.45	0.36 0.4 0.44	1.34 1.46 1.48	-4.44 -4.18 -4.37	-2.44 -2.31 -2.45	0.51 0.47 0.44	0.00
		9(5)	All equal a equal b equal	13.8 9.2 4.6	4 1 3	2.05 1.81 1.82	-3.58 -3.84 -3.53	-1.68 -1.79 -1.73	0.54 0.58 0.6	1.68 1.81 1.82	-3.57 -3.42 -3.53	-1.76 -1.7 -1.73	0.66 0.63 0.6	0.01
		9(6)	All equal a equal b equal	28.7 6.7 22	4 1 3	2.31 2.09 2.1	-3.38 -3.56 -3.05	-1.43 -1.5 -1.37	0.84 0.88 0.92	1.96 2.09 2.1	-2.98 -2.9 -3.05	-1.32 -1.29 -1.37	0.99 0.96 0.92	0.00
	갈등문제 해결	9(7)	All equal a equal b equal	2.9 15.7 0.9	4 1 1	1.82 1.84 1.77	-3 -3.26 -3.34	-1.25 -1.7 -1.73	0.89 0.86 0.87	1.85 1.73 1.77	-3.04 -3.21 -3.17	-1.28 -1.49 -1.47	0.96 0.88 0.87	0.57
		9(8)	All equal a equal b equal	15.7 0.9 14.8	4 1 3	1.84 1.77 1.78	-3.26 -3.34 -3.22	-1.7 -1.73 -1.57	0.86 0.87 0.87	1.73 1.77 1.78	-3.21 -3.17 -3.22	-1.49 -1.47 -1.57	0.88 0.87 0.87	0.00

표 IV-127 고등학생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IRT-LR test 결과: non-DIF 문항을 anchor로 사용

하위역량	번호	Test	G <sup>2</sup>	df	참조 집단				연구 집단				G <sup>2</sup> p	
					a	b1	b2	b3	a	b1	b2	b3		
관계형성	자기 개방성	All equal	22.2	4	0.96	-3.78	-1.52	1.04	1.25	-3.12	-1.51	0.79	0.00	
		a equal	10.6	1	1.13	-3.31	-1.35	0.91	1.13	-3.34	-1.61	0.86		
		b equal	11.6	3	1.12	-3.34	-1.5	0.89	1.12	-3.34	-1.5	0.89		
	친화성	7(4)	All equal	20.5	4	1.28	-2.7	-0.56	1.26	1.39	-2.92	-0.78	1.11	0.00
			a equal	1.2	1	1.34	-2.62	-0.55	1.22	1.34	-2.98	-0.79	1.13	
			b equal	19.2	3	1.33	-2.84	-0.69	1.18	1.33	-2.84	-0.69	1.18	
		7(5)	All equal	12.6	4	1.39	-2.85	-1.1	1.15	1.45	-3.15	-1.24	1	0.01
			a equal	0.4	1	1.43	-2.8	-1.09	1.13	1.43	-3.18	-1.25	1.01	
			b equal	12.3	3	1.41	-3.03	-1.19	1.07	1.41	-3.03	-1.19	1.07	
	7(6)	All equal	13.6	4	1.23	-3.52	-1.35	1.03	1.32	-3.58	-1.51	0.81	0.01	
		a equal	0.9	1	1.28	-3.41	-1.31	1	1.28	-3.64	-1.54	0.83		
		b equal	12.7	3	1.27	-3.57	-1.44	0.91	1.27	-3.57	-1.44	0.91		
	의사 소통	7(7)	All equal	13.1	4	1.59	-3.68	-1.55	0.83	1.27	-4.13	-1.71	0.88	0.01
			a equal	9.8	1	1.39	-4.05	-1.69	0.91	1.39	-3.89	-1.62	0.82	
		7(8)	b equal	3.3	3	1.39	-3.94	-1.65	0.86	1.39	-3.94	-1.65	0.86	
All equal			55.2	4	1.45	-4.78	-2.55	0.39	1.31	-4.06	-2.05	0.7	0.00	
7(8)	a equal	1.7	1	1.36	-5.01	-2.66	0.41	1.36	-3.96	-2	0.68			
	b equal	53.4	3	1.37	-4.2	-2.22	0.55	1.37	-4.2	-2.22	0.55			
공감 및 배려	7(11)	All equal	20.6	4	1.28	-4.67	-2.16	0.62	1.28	-4.19	-1.84	0.84	0.00	
		a equal	0	1	1.28	-4.66	-2.16	0.62	1.28	-4.19	-1.84	0.84		
		b equal	20.6	3	1.29	-4.32	-1.95	0.74	1.29	-4.32	-1.95	0.74		
리더십	의사 결정	All equal	20.3	4	1.84	-3.82	-1.55	1.22	1.64	-3.48	-1.4	1.23	0.00	
		a equal	2.8	1	1.71	-3.98	-1.61	1.27	1.71	-3.4	-1.38	1.2		
		b equal	17.5	3	1.72	-3.55	-1.46	1.23	1.72	-3.55	-1.46	1.23		
		All equal	33.2	4	2.09	-3.57	-1.91	0.95	1.64	-3.66	-1.79	1.03		
	8(3)	a equal	11.7	1	1.79	-3.88	-2.07	1.03	1.79	-3.48	-1.72	0.98	0.00	
		b equal	21.5	3	1.8	-3.6	-1.84	1	1.8	-3.6	-1.84	1		
	추진력	8(8)	All equal	57	4	1.43	-2.93	-0.42	1.97	1.63	-2.84	-0.66	1.35	0.00
			a equal	4.2	1	1.55	-2.77	-0.4	1.87	1.55	-2.93	-0.68	1.39	
		8(9)	b equal	52.8	3	1.53	-2.89	-0.55	1.6	1.53	-2.89	-0.55	1.6	
			All equal	13.1	4	2.07	-3.24	-1.42	1.15	1.97	-2.98	-1.42	1.01	0.01
a equal			0.6	1	2.01	-3.3	-1.44	1.17	2.01	-2.95	-1.4	1		
b equal			12.5	3	2.01	-3.06	-1.42	1.08	2.01	-3.06	-1.42	1.08		
b equal	12.5	3	2.01	-3.06	-1.42	1.08	2.01	-3.06	-1.42	1.08				
문제해결	집단 촉진	All equal	18.1	4	1.58	-3.77	-1.34	1.16	1.63	-2.99	-1.15	1.16	0.00	
		a equal	0.2	1	1.61	-3.73	-1.33	1.15	1.61	-3.01	-1.16	1.17		
		b equal	17.9	3	1.62	-3.19	-1.22	1.15	1.62	-3.19	-1.22	1.15		
		All equal	15.6	4	1.84	-3.51	-1.08	1.42	1.84	-3.09	-1.19	1.25		
	9(2)	a equal	0	1	1.84	-3.51	-1.08	1.42	1.84	-3.08	-1.19	1.25	0.00	
		b equal	15.6	3	1.84	-3.21	-1.14	1.32	1.84	-3.21	-1.14	1.32		
	필로워쉽	9(4)	All equal	29.5	4	1.47	-4.96	-2.75	0.4	1.13	-4.96	-2.72	0.58	0.00
			a equal	10.7	1	1.25	-5.6	-3.09	0.45	1.25	-4.61	-2.54	0.53	
		9(5)	b equal	18.8	3	1.26	-4.86	-2.72	0.49	1.26	-4.86	-2.72	0.49	
			All equal	14	4	1.8	-3.85	-1.83	0.58	1.49	-3.81	-1.87	0.72	0.01
	9(5)	a equal	7.5	1	1.6	-4.15	-1.96	0.63	1.6	-3.64	-1.8	0.68		
		b equal	6.5	3	1.61	-3.79	-1.86	0.66	1.61	-3.79	-1.86	0.66		
갈등 문제 해결	9(6)	All equal	26.3	4	2.06	-3.62	-1.53	0.89	1.84	-3.11	-1.37	1.01	0.00	
		a equal	3	1	1.92	-3.76	-1.59	0.92	1.92	-3.04	-1.34	0.99		
		b equal	23.3	3	1.93	-3.21	-1.43	0.96	1.93	-3.21	-1.43	0.96		
	9(8)	All equal	17.3	4	1.74	-3.38	-1.77	0.89	1.64	-3.32	-1.53	0.92	0.00	
		a equal	0.8	1	1.68	-3.47	-1.81	0.9	1.68	-3.28	-1.52	0.9		
		b equal	16.5	3	1.69	-3.33	-1.62	0.9	1.69	-3.33	-1.62	0.9		

분석 결과, 고등학생 집단에서는 초, 중학생 집단과 유사한 수준으로 성별에 따른 차별기능문항이 나타났으며, 초, 중학생 집단과 마찬가지로 여자 청소년에게 더 유리하였다. 즉, 고등학생 집단에서는 초, 중학생 집단에서 공통으로 DIF 문항으로 판별된 문항 7(2), 7(4), 7(8), 7(11), 9(4) 뿐 아니라, 7(6), 8(2), 8(3), 8(8), 9(1), 9(2), 9(5), 9(6), 9(8)을 포함한 총 14개 문항이 성별에 따른 차별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문항이 속해 있는 하위 역량별로 살펴보면, '관계형성'이 5문항(자기개방성과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가 각 1문항, 친화성 2문항), '리더십'이 3문항(의사결정 2문항, 추진력 1문항), '협동'이 6문항(팔로워십 1문항, 집단축진과 갈등문제해결 각 2문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관련 문항은 <표 IV-128>과 같다.

**표 IV-128 고등학생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DIF 문항 내용**

하위역량	번호	문항 내용	선호 집단	
관계형성	자기 개방성 7(2)	나는 친한 친구에게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다	여	
	친화성	7(4)	나는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망설임 없이 소개한다	여
		7(5)	나는 관심 있는 새로운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기도 한다	여
		7(6)	나는 새로운 사람을 알아 가는 것이 재미있다	여
	의사소통 7(8)	나는 상대방의 몸짓이나 표정을 살피며 듣는다	여	
공감 및 배려 7(11)	나는 상대방이 나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한다	여		
리더십	의사결정	8(2)	나는 내가 속한 그룹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우선순위를 생각하여 의사결정을 한다	여
		8(3)	나는 내가 속한 집단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방법이 더 좋은 지 비교해 본다	여
	추진력 8(8)	나는 우리 모둠의 계획을 실천할 때,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밀고 나간다	여	
협동	집단축진	9(1)	나는 집단활동을 할 때, 친구의 장점이나 능력을 적극적으로 알려 준다	여
		9(2)	나는 모둠활동을 할 때 쓰일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한다	여
	팔로워십	9(4)	나는 모둠 활동을 할 때, 나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	여
		9(5)	나는 내가 속한 집단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	여
		갈등문제 해결	9(6)	나는 집단의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내용을 친구들과 공유한다
9(8)	나는 모둠 활동을 할 때 중요한 사항이나 문제점이 생기면 친구들과 함께 해결한다		여	

④ 대학생 대인관계역량지수에 대한 성별 DIF 분석 결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DIF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IV-129>, <표 IV-130> 참조). 분석 결과, 대학생 집단에서는 초·중등학생 보다 적은 수의 차별기능문항이 나타났으며, 초·중등학생 집단과 달리 남자 청소년에게 더 유리하였다. 즉, 대학생 집단에서는 7(7), 7(10), 8(7)의 총 3개 문항이 성별에 따른 차별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문항이 속해 있는 하위 역량별로 살펴보면, '관계형성'이 2문항(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 각 1문항), '리더십'이 1문항(추진력)을 포함하고 있었다. 관련 문항은 <표 IV-131>와 같다.

표 IV-129

대학생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IRT-LR test 결과: 모든 문항을 anchor로 사용

하위역량	번호	Test	G <sup>2</sup>	df	참조 집단				연구 집단				G <sup>2</sup> p		
					a	b1	b2	b3	a	b1	b2	b3			
관계 형성	자기 개방성	7(1)	All equal 4.4 a equal 2.1 b equal 2.3	4 1 3	0.89 -4.98 -3.05	1.01 1.01 1.01	-4.98 -4.47 -4.68	-3.05 -2.76 -2.71	1.01 0.91 0.99	1.13 1.01 1.01	-4.48 -4.91 -4.68	-2.43 -2.64 -2.71	0.99 1.06 0.99	0.35	
		7(2)	All equal 4.8 a equal 0.7 b equal 4.2	4 1 3	0.85 0.91 0.91	-4.31 -4.05 -4.32	-1.67 -1.58 -1.72	1.57 1.48 1.4	0.97 0.91 0.91	0.97 0.91 0.91	-4.48 -4.72 -4.32	-1.8 -1.89 -1.72	1.28 1.34 1.4		0.31
		7(3)	All equal 4.8 a equal 0.9 b equal 3.9	4 1 3	1.02 1.1 1.1	-4.77 -4.48 -4.83	-2.09 -1.97 -1.88	1.21 1.15 1.13	1.17 1.1 1.1	1.17 1.1 1.1	-5.16 -5.45 -4.83	-1.71 -1.79 -1.88	1.06 1.1 1.13		
	7(4)	All equal 1.3	4	1.39	-3.21	-0.93	1.37	1.28	-3.7	-1.06	1.46	0.86			
	7(5)	All equal 2.2	4	1.54	-2.95	-1.02	1.14	1.43	-3.28	-1.2	1.25	0.70			
	7(6)	All equal 2	4	1.38	-3.45	-1.19	0.98	1.26	-3.53	-1.31	0.9	0.74			
	의사소통	7(7)	All equal 14.6 a equal 2.5 b equal 12.1	4 1 3	1.58 1.42 1.41	-4.15 -4.49 -3.89	-1.41 -1.5 -1.58	1.2 1.28 1.11	1.29 1.42 1.41	-3.8 -3.54 -3.89	-1.76 -1.66 -1.58	1 0.95 1.11	0.06		
		7(8)	All equal 8.9 a equal 0.6 b equal 8.3	4 1 3	1.5 1.42 1.41	-4.78 -4.99 -4.08	-2.15 -2.23 -2.03	0.7 0.72 0.77	1.35 1.42 1.41	-3.78 -3.65 -4.08	-1.9 -1.85 -2.03	0.85 0.82 0.77			
		7(9)	All equal 2.7	4	1.4	-3.78	-1.67	1.09	1.54	-3.07	-1.59	1.04		0.61	
	공감 및 배려	7(10)	All equal 15 a equal 0.4 b equal 14.6	4 1 3	1.37 1.44 1.43	-11.91 -11.41 -4.66	-2.54 -2.46 -2.13	0.96 0.93 0.96	1.49 1.44 1.43	-4.02 -4.14 -4.66	-1.8 -1.85 -2.13	0.96 0.99 0.96	0.29		
		7(11)	All equal 5 a equal 0.2 b equal 4.8	4 1 3	1.35 1.39 1.38	-3.95 -3.86 -4.03	-2.16 -2.12 -2.01	0.95 0.93 1.02	1.42 1.39 1.38	-4.13 -4.21 -4.03	-1.86 -1.89 -2.01	1.1 1.11 1.02			
		7(12)	All equal 7 a equal 0.5 b equal 6.5	4 1 3	1.31 1.23 1.23	-4.77 -5 -5.21	-2.91 -3.03 -2.75	0.94 0.98 0.94	1.18 1.23 1.23	-5.71 -5.48 -5.21	-2.6 -2.51 -2.75	0.92 0.89 0.94			
리더십	의사결정	8(1)	All equal 4 a equal 0.8 b equal 3.2	4 1 3	1.54 1.45 1.45	-4.27 -4.47 -4.27	-1.26 -1.31 -1.21	1.85 1.92 1.89	1.38 1.45 1.45	-4.25 -4.09 -4.27	-1.15 -1.11 -1.21	1.9 1.85 1.89	0.41		
		8(2)	All equal 4 a equal 0.6 b equal 3.4	4 1 3	1.33 1.25 1.26	-4.77 -4.99 -5.15	-1.8 -1.87 -1.79	1.59 1.65 1.55	1.19 1.25 1.26	-5.66 -5.43 -5.15	-1.77 -1.71 -1.79	1.5 1.46 1.55			
		8(3)	All equal 0.3	4	1.38	-4.34	-1.85	1.23	1.39	-4.04	-1.84	1.24		0.99	
	집단활동 관리	8(4)	All equal 2.9	4	1.27	-2.68	-0.3	1.72	1.21	-2.84	-0.43	1.95	0.57		
		8(5)	All equal 1.5	4	1.75	-3.09	-1.12	1.54	1.54	-3.47	-1.23	1.59	0.83		
		8(6)	All equal 1	4	1.53	-2.86	-0.85	1.45	1.5	-2.68	-0.88	1.45	0.91		
	추진력	8(7)	All equal 19.3 a equal 14.5 b equal 4.8	4 1 3	2.05 1.58 1.58	-2.98 -3.48 -3.71	-1.07 -1.22 -1.16	1.33 1.52 1.45	1.28 1.58 1.58	-4.83 -4.12 -3.71	-1.25 -1.09 -1.16	1.56 1.38 1.45	0.12		
		8(8)	All equal 7.4 a equal 5.2 b equal 2.3	4 1 3	1.31 1.11 1.11	-3.26 -3.71 -3.8	-0.86 -0.96 -1.03	1.71 1.92 1.81	0.96 1.11 1.11	-4.44 -3.93 -3.8	-1.23 -1.1 -1.03	1.9 1.71 1.81			
		8(9)	All equal 4.5 a equal 0 b equal 4.5	4 1 3	1.55 1.54 1.54	-3.57 -3.59 -3.76	-1.68 -1.68 -1.65	1.37 1.38 1.27	1.53 1.54 1.54	-4 -3.97 -3.76	-1.62 -1.61 -1.65	1.16 1.16 1.27			
	협동	집단촉진	9(1)	All equal 9.7 a equal 4.5 b equal 5.3	4 1 3	1.82 1.57 1.56	-3.44 -3.78 -3.6	-1.36 -1.47 -1.36	1.22 1.32 1.42	1.4 1.57 1.56	-3.71 -3.41 -3.6	-1.34 -1.25 -1.36	1.61 1.5 1.42	0.10	
			9(2)	All equal 7.8 a equal 1.2 b equal 6.6	4 1 3	1.55 1.66 1.66	-4.01 -3.84 -3.3	-0.92 -0.89 -0.94	1.65 1.59 1.57	1.76 1.66 1.66	-2.87 -2.98 -3.3	-0.96 -0.99 -0.94	1.5 1.55 1.57		
			9(3)	All equal 10.8 a equal 1.6 b equal 9.2	4 1 3	1.69 1.56 1.55	-4.49 -4.75 -3.77	-1.05 -1.11 -1.13	1.43 1.5 1.4	1.45 1.56 1.55	-3.51 -3.34 -3.77	-1.21 -1.16 -1.13	1.35 1.3 1.4		
팔로워십		9(4)	All equal 5.1 a equal 1 b equal 4.1	4 1 3	1.32 1.23 1.23	-5.31 -5.64 -4.85	-2.42 -2.55 -2.38	0.75 0.79 0.8	1.15 1.23 1.23	-4.66 -4.42 -4.85	-2.32 -2.22 -2.38	0.84 0.81 0.8	0.28		
		9(5)	All equal 1.2	4	1.65	-3.87	-1.63	0.88	1.47	-4.39	-1.81	0.95		0.88	
		9(6)	All equal 1.4 a equal 5.4 b equal 0.6	4 4 1	1.72 1.32 1.39	-4.01 -4.5 -4.32	-1.58 -1.54 -1.48	1.14 1.29 1.24	1.53 1.45 1.39	-4.27 -3.4 -3.51	-1.76 -1.28 -1.32	1.16 1.12 1.15			
갈등문제 해결		9(7)	a equal 0.6 b equal 4.8	1 3	1.39 1.39	-4.32 -3.83	-1.48 -1.4	1.24 1.2	1.39 1.39	-3.51 -3.83	-1.32 -1.4	1.15 1.2	0.84		
		9(8)	All equal 1.4	4	1.5	-3.9	-1.86	1.09	1.56	-3.68	-1.69	0.99			

표 IV-130 대학생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IRT-LR test 결과: non-DIF 문항을 anchor로 사용

하위역량	번호	Test	G <sup>2</sup>	df	참조 집단				연구 집단				G <sup>2</sup> p
					a	b1	b2	b3	a	b1	b2	b3	
관계 형성	의사 소통	All equal	13.8	4	1.55	-4.2	-1.42	1.21	1.29	-3.79	-1.76	1.01	0.01
		a equal	2	1	1.41	-4.51	-1.51	1.29	1.41	-3.55	-1.66	0.96	
		b equal	11.8	3	1.41	-3.91	-1.58	1.12	1.41	-3.91	-1.58	1.12	
	공감 및 배려	All equal	14.4	4	1.37	-11.9	-2.55	0.96	1.51	-4.01	-1.81	0.96	0.01
		a equal	0.6	1	1.45	-11.24	-2.46	0.93	1.45	-4.14	-1.86	0.98	
		b equal	13.8	3	1.44	-4.64	-2.13	0.96	1.44	-4.64	-2.13	0.96	
리더십	추진력	All equal	16.9	4	2.07	-2.99	-1.07	1.32	1.35	-4.65	-1.22	1.51	0.00
		a equal	12.4	1	1.64	-3.43	-1.2	1.49	1.64	-4.03	-1.07	1.35	
		b equal	4.5	3	1.64	-3.65	-1.14	1.42	1.64	-3.65	-1.14	1.42	

표 IV-131 대학생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DIF 문항 내용

하위역량	번호	문항 내용	선호 집단
관계 형성	의사소통 7(7)	나는 상대방의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정확하게 알기 위해 질문을 한다	남
	공감 및 배려 7(10)	나는 다른 사람이 문제를 겪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남
리더십	추진력 8(7)	나는 내가 속한 집단의 목표를 완수하는 데 필요한 단계를 정할 수 있다	남

⑤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에 대한 성별 DIF 분석 결과 종합해석

이 절에서는 '대인관계역량' 지수에 대한 성별 DIF를 실시하였다. 대인관계역량의 경우 분석 결과, 초, 중, 고등학생 집단에서는 각각 8개, 15개, 14개 문항이 여자 청소년에게 더 유리한 반면, 대학생 집단에서는 3개 문항이 남자 청소년에게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별기능문항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는 타 역량군과 마찬가지로 내용 전문가들의 추가 검토 및 각 학교급에 해당하는 학생들에 대한 면담 등을 통해 향후 면밀히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생애학습역량과 마찬가지로, 초, 중등학생보다 대학생 집단에서 차별기능문항이 적게 나타난 것이 대학생 집단의 표본 크기가 작기 때문인지, 아니면 검사 문항 이외의 다른 요인이 작용해서 기인된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지수의 네 가지 역량군별로 나누어 개별 검사 문항을 기준으로 차별기능문항을 추출하였다. 향후에는 검사도구의 요인구조를 고려하여 문항들 간 증폭과 상쇄 작용으로 인해 나타나는 검사 내 차별기능 경향을 분석하는(이대용, 김석우, 길임주, 2016) 차별기능문항군(differential bundle functioning: DBF)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차별기능의 원인을 보다 엄밀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 제 V 장

---

## ICCS 2016 조사결과

1. ICCS 2016 개요
2. ICCS의 인지영역 조사결과
3. ICCS의 정의-행동 영역 조사결과



# 제 V 장

## ICCS 2016 조사결과<sup>19)</sup>

### 1. ICCS 2016 개요

본 보고서의 2장 3절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국제 시민의식 및 시민성 교육 조사(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Study; 이하 ICCS)의 목적은 2010년대에 살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의 청소년들이 시민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Ainley 외, 2010; 장근영 외, 2016, p.00). 특히 2016년도 ICCS 2016 조사는 2009년에 ICCS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문항과 절차를 따라 수행되어서 2009년 결과와의 비교가 가능했다. 2016년도에 각국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는 이 조사의 수행 기관인 IEA(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이하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에 제출되었다. IEA에서는 각국의 조사 데이터를 기초로 문항반응이론에 기초한 국가 간 문항동등성 분석과 조정, IEA에서 설정한 채점기준에 따른 시민지식 수준점수 산출, 그리고 분석결과에 대한 각 참여국 조사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2017년 10월에 잠정적인 최종 데이터를 확정하였다. IEA에서는 2017년 11월 초에 이 조사결과에 대한 1차 분석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며, 그 이전까지는 조사 데이터는 물론이고 본조사 결과에 대한 공표는 금지되어 있다. 단, ICCS 2016 참여국가에서는 IEA의 1차 결과발표 이후에 이에 관련한 발표가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IEA에서 11월에 발표할 예정인 1차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보다 상세한 분석결과는 2018년 연구보고서에서 다룰 예정이다.

19) 이 부분은 장근영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 2. ICCS의 인지영역 조사결과

### 1) 시민지식 점수 측정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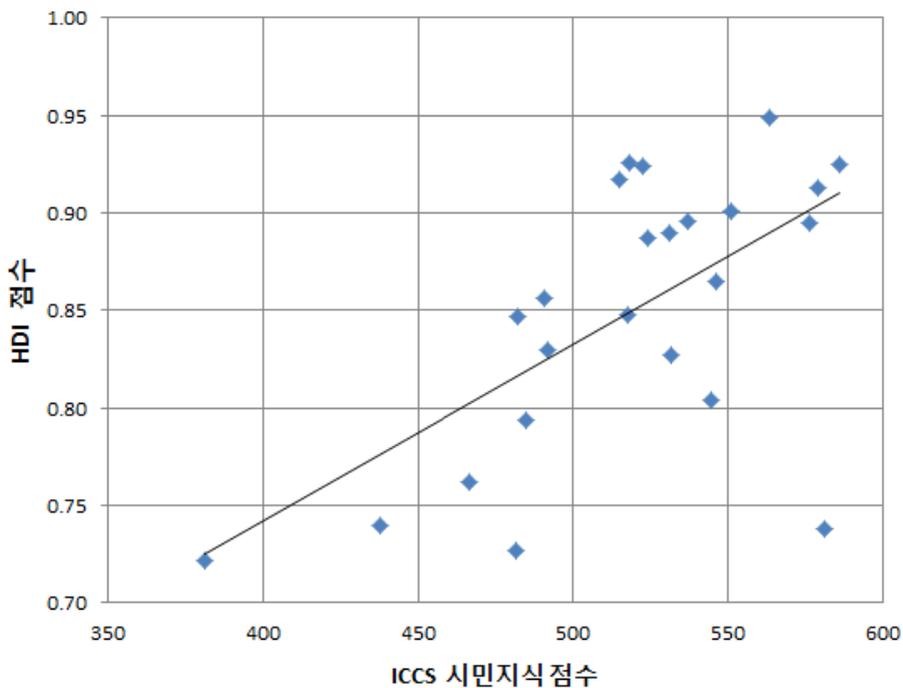
시민지식수준 평가척도는 ICCS의 2대 영역 중에서 인지영역에 해당하는 측정도구이다. 이 척도는 민주사회의 기본원칙과 민주적 의사결정절차의 과정과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가상적인 상황에서 얼마나 잘 적용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평가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또한 응답자의 능력평가 척도로서 반드시 제한시간 45분 이내에 응답한 결과만을 기준으로 채점을 하는 일종의 시험 형식의 검사이다. ICCS 2016에 참여한 24개국의 8학년 만 14.5세 청소년들의 시민지식척도 점수는 아래 표와 같다.

표 V-1 ICCS 2017 참여국가별 시민지식점수 측정결과 (점수순)

	학년	평균연령	시민지식 평균점수		인간개발지수 (HDI)
덴마크	8	14.9	586.3	(3.0)	0.93
대만	8	14.1	581.1	(3.0)	0.74
스웨덴	8	14.7	579.2	(2.8)	0.91
핀란드	8	14.8	576.7	(2.3)	0.90
노르웨이	9	14.6	563.7	(2.2)	0.95
대한민국	8	14.0	551.2	(3.6)	0.90
에스토니아	8	14.9	546.4	(3.1)	0.87
러시아	8	14.8	544.7	(4.3)	0.80
벨기에	8	13.9	537.2	(4.1)	0.90
슬로베니아	8	13.8	532.1	(2.5)	0.83
크로아티아	8	14.6	531.2	(2.5)	0.89
이탈리아	8	13.8	524.4	(2.4)	0.89
네덜란드	8	14.0	522.9	(4.5)	0.92
독일(NRW)	8	14.3	518.5	(2.7)	0.93
리투아니아	8	14.7	517.8	(3.0)	0.85
홍콩	8	13.9	515.3	(6.6)	0.92
라트비아	8	14.8	492.2	(3.1)	0.83
몰타	9	13.8	491.2	(2.7)	0.86
불가리아	8	14.7	485.1	(5.3)	0.79
칠레	8	14.2	482.5	(3.1)	0.85
콜롬비아	8	14.6	482.1	(3.4)	0.73
멕시코	8	14.1	467.0	(2.5)	0.76
페루	8	14.0	437.7	(3.5)	0.74
도미니카	8	14.2	381.4	(3.0)	0.72
ICCS 평균		14.4	517.3	(0.7)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 청소년들의 시민지식 점수는 조사대상 국가 중에서 덴마크, 대만,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다음인 6위에 해당했다. 이는 2009년의 3위에 비하면 낮아진 것으로 이는 시민지식 점수의 절대치가 감소해서가 아니라 다른 국가들이 향상된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향상율을 보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평균인 551점은 ICCS 2016 참여한 전체 국가 평균인 517점에 비해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서 살펴보겠다.

또한 IEA에서는 이 시민지식 점수 측정 결과를 각국의 인간개발지수(HDI)<sup>20</sup>에 대비해서 살펴보았는데,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개발지수가 높은 국가일수록 시민지식 점수도 높은 경향이 있었다. 한국의 경우 인간개발지수는 .9 로서 이러한 추세와 부합하는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였다. 그러나 대만과 같이 인간개발지수는 .74로 상당히 낮지만 매우 높은 시민지식 점수(581점)가 측정된 예외도 있었다.



【그림 V-1】 ICCS 시민지식 점수와 HDI 지수간의 관계

20) 인간개발지수(HDI)는 국가별 삶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국제 지표 중의 하나로서 유엔개발계획(UNDP)의 연차보고서에 인용되고 있다. HDI는 해당국가 국민들의 소득격차를 반영한 ‘소득지수’, 평균수명을 반영한 ‘기대수명지수’ 그리고 문맹율과 학령기 청소년들 중 학교에 등록되어 있는 비율을 반영한 ‘교육지수’를 각각 1/3씩 합산하여 산출한다. 일반적으로 HDI 지수가 .9 이상인 국가를 선진국으로 보고 있으나 예외적인 국가들도 존재한다.

## 2) 시민지식에 있어 2009년과 2016년의 차이

ICCS 조사는 2009년도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척도를 2016년도에 사용했다. 따라서 시계열적 비교가 가능했다<sup>21)</sup>. 2009년 조사결과에 비교했을 때, 대부분의 참여국가에서 시민지식 평가점수가 향상되었다. 향상율의 수준을 순위별로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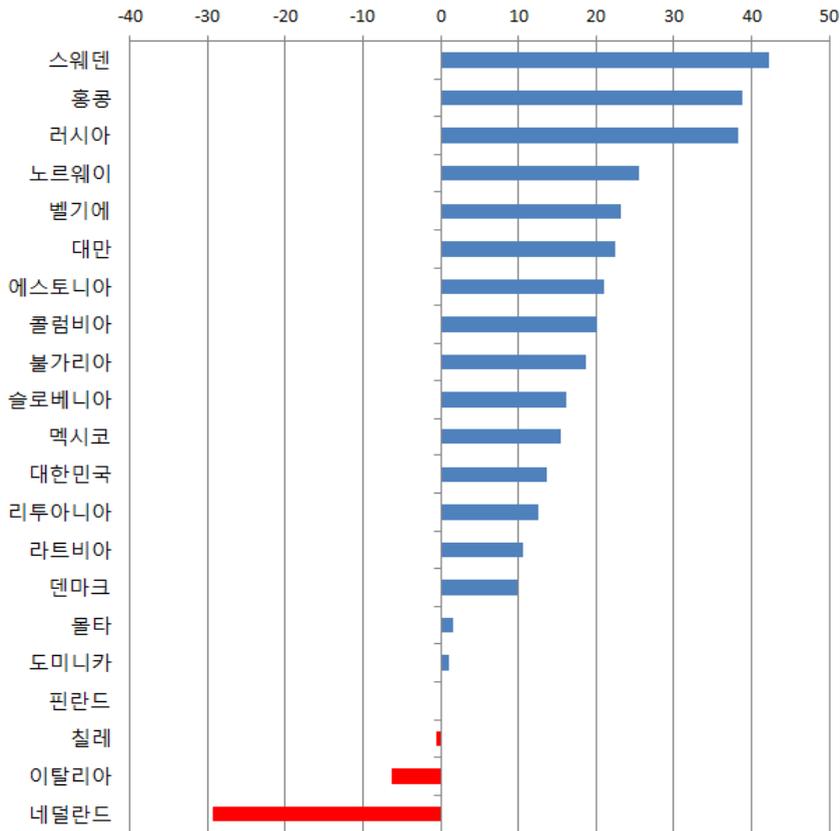
표 V-2

ICCS 2009 대비 2016 시민지식점수 차이 (향상도 순)

	2016년 평균 (편차)		2009년 평균 (편차)		변화량
스웨덴	579.2	(2.8)	537.0	(3.1)	42.2
홍콩	554.1	(5.7)	515.3	(6.6)	38.8
러시아	544.7	(4.3)	506.4	(3.8)	38.3
노르웨이	563.7	(2.2)	538.2	(4.0)	25.5
벨기에	537.2	(4.1)	514.1	(4.7)	23.2
대만	581.1	(3.0)	558.7	(2.4)	22.4
에스토니아	546.4	(3.1)	525.3	(4.5)	21.1
콜롬비아	482.1	(3.4)	461.9	(2.9)	20.2
불가리아	485.1	(5.3)	466.5	(5.0)	18.7
슬로베니아	532.1	(2.5)	515.9	(2.7)	16.2
멕시코	467.0	(2.5)	451.7	(2.8)	15.4
대한민국	564.8	(1.9)	551.2	(3.6)	13.6
리투아니아	517.8	(3.0)	505.2	(2.8)	12.6
라트비아	492.2	(3.1)	481.6	(4.0)	10.5
덴마크	586.3	(3.0)	576.4	(3.6)	9.9
몰타	491.2	(2.7)	489.7	(4.5)	1.5
도미니카	381.4	(3.0)	380.3	(2.4)	1.1
핀란드	576.7	(2.3)	576.4	(2.4)	0.3
칠레	482.5	(3.1)	483.0	(3.5)	- 0.6
이탈리아	524.4	(2.4)	530.8	(3.3)	- 6.3
네덜란드	493.6	(7.6)	522.9	(4.5)	- 29.3

21) IEA에서는 ICCS의 측정문항을 대외비로 유지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측정문항의 유출이 측정결과 자체를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향후 조사결과의 동질성을 보장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2009년 대비 가장 많이 점수가 높아진 국가는 스웨덴으로 42.2점이나 향상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홍콩과 러시아, 노르웨이, 벨기에, 대만, 에스토니아 순이었다. 이들 국가는 시민지식 점수가 20점 이상 향상되었다. 한국은 2009년 측정에서 551.2점에서 13.6점 향상된 수준에 그쳤다. 반면에 네덜란드와 이탈리아는 각각 29.3점과 6.3점이 낮아져서 나머지 국가들과 대비되는 결과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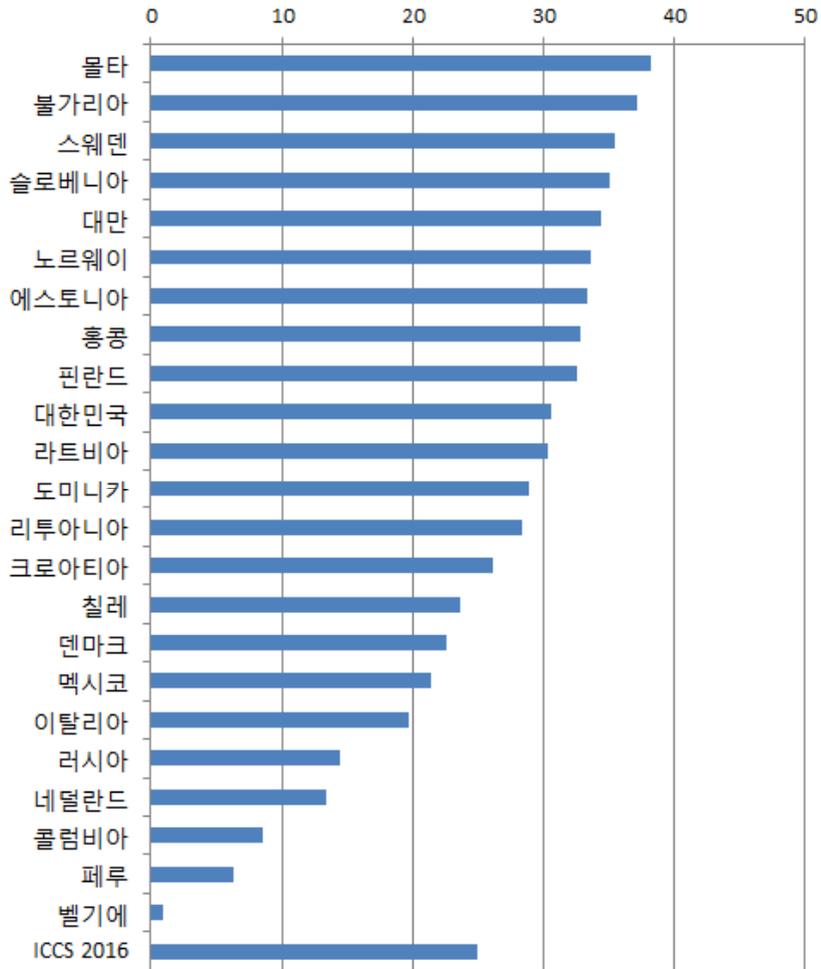
【그림 V-2】ICCS 2009 대비 2016년 시민지식 점수의 차이

### 3) 시민지식의 성차

시민지식점수를 성별로 비교한 결과 거의 모든 국가에서 남자 청소년들이 여자청소년들에 비해 시민지식 점수가 낮았다. 남녀차이가 가장 큰 국가는 몰타로서 여자청소년들이 남자청소년들에 비해 시민지식 점수의 평균이 38.2점이나 높았다. 한국은 그 편차가 30.5점으로 ICCS 평균인 25점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이후 결과에서 살펴보겠지만, 남학생들이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을 고려하면 시민지식이 낮은 수준에서 적극적인 정치참여는 결국 시민사회의 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특히 남학생들에 대한 시민지식 교육과 훈련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V-3 ICCS 2016 시민지식점수의 성별에 따른 차이 (격차 순)

	여자 (SD)		남자 (SD)		격차
	점수	표준편차	점수	표준편차	
몰타	510.8	(3.7)	472.6	(3.9)	38.2
불가리아	505.2	(5.9)	468.0	(6.0)	37.2
스웨덴	597.7	(3.1)	562.2	(3.9)	35.5
슬로베니아	550.3	(2.6)	515.2	(3.3)	35.0
대만	598.6	(3.4)	564.3	(3.3)	34.4
노르웨이	580.6	(2.4)	547.0	(2.6)	33.6
에스토니아	563.2	(3.4)	529.9	(3.4)	33.3
홍콩	532.3	(6.6)	499.4	(7.7)	32.8
핀란드	593.8	(2.3)	561.2	(3.4)	32.5
대한민국	567.6	(4.8)	537.1	(3.4)	30.5
라트비아	506.6	(3.8)	476.3	(3.7)	30.3
도미니카	395.7	(3.4)	366.7	(3.3)	28.9
리투아니아	531.8	(3.6)	503.5	(3.4)	28.3
크로아티아	544.1	(2.9)	518.1	(2.9)	26.1
칠레	494.4	(3.8)	470.8	(3.3)	23.6
덴마크	597.3	(2.9)	574.7	(3.7)	22.6
멕시코	477.8	(3.0)	456.4	(3.2)	21.4
이탈리아	534.7	(3.0)	514.9	(3.0)	19.7
러시아	552.0	(5.3)	537.5	(4.3)	14.5
네덜란드	529.5	(5.0)	516.1	(4.0)	13.4
콜롬비아	486.1	(4.1)	477.6	(3.6)	8.5
페루	441.0	(4.6)	434.7	(4.1)	6.3
벨기에	537.7	(5.4)	536.8	(4.6)	1.0
ICCS 평균	530.0	(0.8)	505.0	(0.8)	25.0



[그림 V-3] 시민지식 점수의 남자 대비 여자 점수의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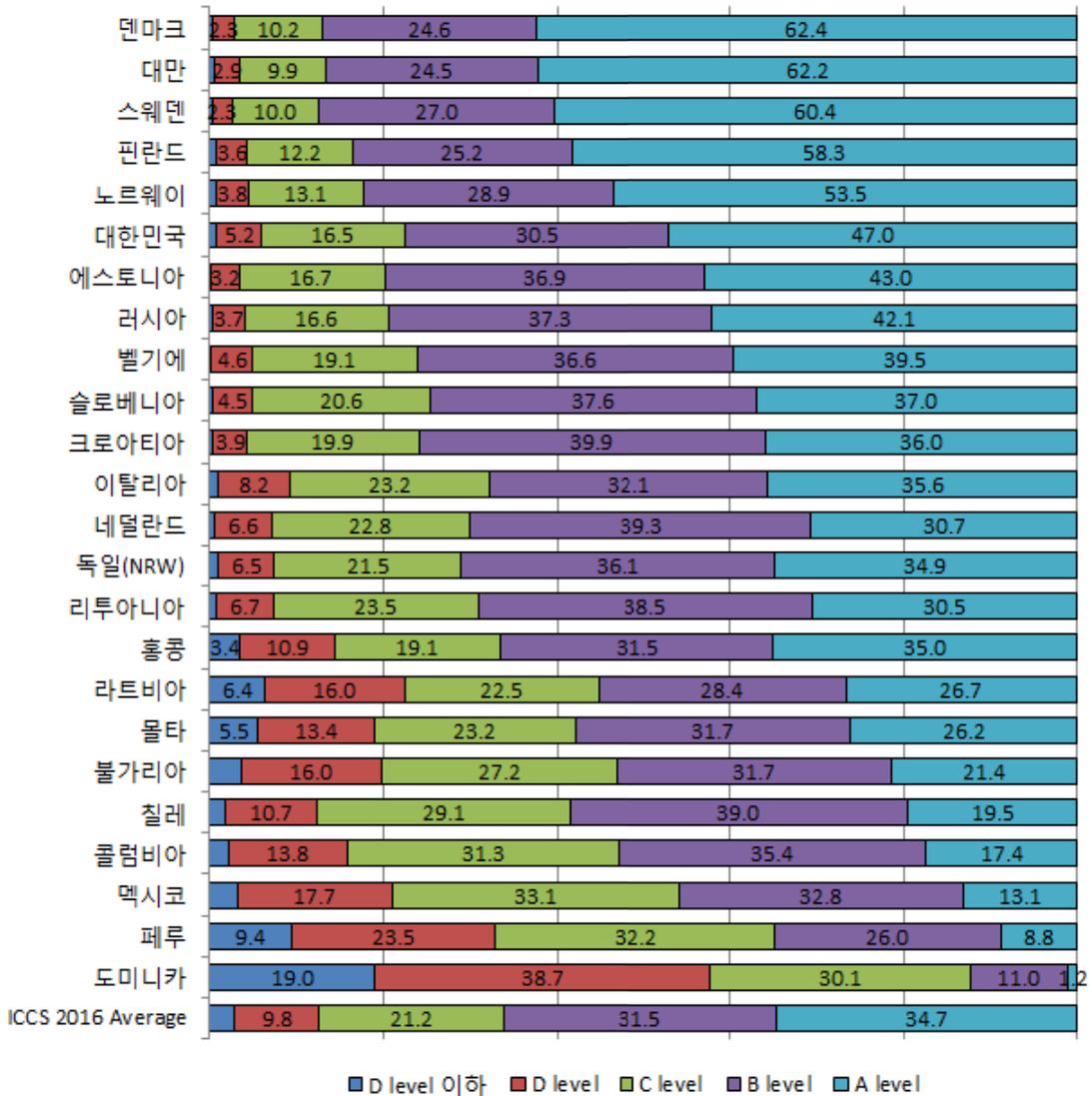
#### 4) 시민지식의 질적 분포 (수준)

ICCS에서는 시민지식이 단순히 양적인 점수의 차이 뿐만 아니라 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변인으로 상정한다. 구체적으로 ICCS 2016에서는 시민지식 점수의 수준을 가장 높은 수준인 A 레벨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D 미만 레벨까지 크게 5개의 수준으로 분류를 했다. 여기서 B 레벨 이상은 비록 점수가 낮은 편이라 할지라도 그 사회에서 시민으로서 부여된 일반적인 역할을 감당하는데 무리가 없으나, 시민지식 수준이 C 레벨 이하인 경우에는 그 사회에서 유능한 시민으로서 제 역할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표 V-4 ICCS 2016 참여국가별 시민지식의 수준별 분포

	D level 이하	D level	C level	B level	A level
덴마크	0.4	2.3	10.2	24.6	62.4
대만	0.5	2.9	9.9	24.5	62.2
스웨덴	0.3	2.3	10.0	27.0	60.4
핀란드	0.7	3.6	12.2	25.2	58.3
노르웨이	0.7	3.8	13.1	28.9	53.5
대한민국	0.8	5.2	16.5	30.5	47.0
에스토니아	0.2	3.2	16.7	36.9	43.0
러시아	0.3	3.7	16.6	37.3	42.1
벨기에	0.2	4.6	19.1	36.6	39.5
슬로베니아	0.4	4.5	20.6	37.6	37.0
크로아티아	0.3	3.9	19.9	39.9	36.0
이탈리아	0.9	8.2	23.2	32.1	35.6
네덜란드	0.6	6.6	22.8	39.3	30.7
독일(NRW)	0.9	6.5	21.5	36.1	34.9
리투아니아	0.7	6.7	23.5	38.5	30.5
홍콩	3.4	10.9	19.1	31.5	35.0
라트비아	6.4	16.0	22.5	28.4	26.7
몰타	5.5	13.4	23.2	31.7	26.2
불가리아	3.7	16.0	27.2	31.7	21.4
칠레	1.7	10.7	29.1	39.0	19.5
콜롬비아	2.1	13.8	31.3	35.4	17.4
멕시코	3.2	17.7	33.1	32.8	13.1
페루	9.4	23.5	32.2	26.0	8.8
도미니카	19.0	38.7	30.1	11.0	1.2
ICCS 평균	2.7	9.8	21.2	31.5	34.7

ICCS 2016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국가 전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A레벨 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34.7%, B레벨은 31.5%였다. 우리나라는 A레벨과 B레벨을 합해 77.5% 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사 대상 청소년의 3/4 이상이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지적 역량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도미니카의 경우에는 C 레벨 이하의 청소년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4】국가별 시민지식의 수준(level)별 분포

### 3. ICCS의 정의-행동 영역 조사결과

#### 1) 공공기관 및 타인에 대한 신뢰수준

공공기관과 타인에 대한 신뢰(trust)는 사회적 자본 (Social capital)의 핵심 요소로서 시민사회가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서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산이다. ICCS에서 청소년들이 자기 사회를 구성하는 주요 기관과 일반적인 타인(people in general)에 대한 신뢰의 수준을 측정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ICCS에서는 각각의 공공기관이나 주체를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4점 척도로 질문하여 “매우 신뢰한다” 혹은 “신뢰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산출해 신뢰 수준 측정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단, 2016년에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은 국가가 러시아로 나타났으며, 2009년에는 태국과 인도네시아(2016년 조사에 불참)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신뢰수준 지표의 의미는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2016년에 측정한 이 신뢰 수준과 2009년 조사 대비 차이를 다음 표에 제시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수준은 증가했으나 일반적인 타인, 전통적인 대중매체(TV, 라디오, 뉴스)에 대한 신뢰는 감소했다. 소셜미디어에 대한 신뢰도는 2016년에 처음 측정하였기에 2009년 대비 차이를 알 수는 없으나 평균적으로 일반적인 대중매체에 비해서는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2009년 조사에서 공공 신뢰의 수준이 참여국 중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였다. 2016년 조사에서도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은 44.8%로 2009년의 19.6%에 비하면 25.2%p나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참여국 중 최하위인 크로아티아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일반적인 타인에 대한 신뢰수준 역시 39.7%로 2009년의 39%에 비해서 거의 차이 없이 조사 대상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정당에 대한 신뢰는 2009년의 18%에 비해 24.5%p 향상된 42.5%로 가장 높은 향상율을 보였으며, 대중매체(TV, 뉴스, 라디오)에 대한 신뢰는 2009년의 51.2%에 비해 1.6%p 향상된 52.8%였다. 그러나 소셜미디어에 대한 신뢰(37.5%)를 포함한 모든 대상에 대해서 모두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국가 중 신뢰도가 낮은 국가에 포함되었다.

표 V-5 ICCS 2016 참여국가별 공공 신뢰 수준 분포

Country	정부			정당			타인			대중매체 (TV, 뉴스, 라디오)			SNS
	2016	2009	차이	2016	2009	차이	2016	2009	차이	2016	2009	차이	2016
네덜란드	69.9	69.6	0.3	47.6	52.8	-5.2	51.5	57.0	-5.4	46.8	48.0	-1.2	31.5
노르웨이	78.8	67.3	11.5	56.2	51.6	4.5	42.6	48.3	-5.8	48.5	48.6	-0.1	26.6
대만	61.9	44.4	17.4	47.2	26.2	21.0	47.7	51.4	-3.7	43.9	43.3	0.6	46.0
대한민국	44.8	19.6	25.2	42.5	18.0	24.5	39.7	39.0	0.6	52.8	51.2	1.6	37.5
덴마크	73.9	72.4	1.5	52.0	56.1	-4.1	64.5	68.5	-4.0	59.3	55.6	3.7	30.7
도미니카	77.8	73.8	4.0	49.8	51.1	-1.4	62.0	61.0	1.0	77.8	76.1	1.7	60.5
독일	82.7			61.5			69.9			61.5			50.8
라트비아	59.6	32.2	27.4	39.6	24.9	14.8	46.7	58.0	-11.3	51.1	65.2	-14.1	47.3
러시아	89.0	88.3	0.6	53.9	50.9	3.0	44.7	51.2	-6.5	40.7	41.1	-0.5	40.1
리투아니아	74.2	54.0	20.2	52.5	32.9	19.6	59.9	66.0	-6.2	65.4	67.3	-2.0	48.6
멕시코	57.0	58.4	-1.4	37.4	34.7	2.7	51.7	46.6	5.1	56.0	57.1	-1.2	48.3
몰타	66.1	62.5	3.7	50.9	55.1	-4.2	49.1	50.3	-1.3	66.3	70.3	-4.0	59.7
벨기에	71.6	51.0	20.5	49.0	35.0	13.9	51.7	57.0	-5.4	45.9	47.5	-1.7	29.1
불가리아	58.8	56.1	2.7	37.7	31.9	5.7	60.6	64.3	-3.8	61.3	69.9	-8.7	60.5
스웨덴	78.9	73.2	5.7	61.2	60.3	0.9	56.1	67.2	-11.1	54.2	53.9	0.3	32.4
슬로베니아	48.7	56.4	-7.7	44.4	44.7	-0.3	68.8	70.8	-2.0	64.8	64.1	0.7	53.8
에스토니아	72.5	61.6	10.9	32.4	23.1	9.3	46.5	57.6	-11.1	46.8	54.3	-7.5	32.5
이탈리아	57.1	73.7	-16.6	43.8	51.8	-8.0	41.0	51.5	-10.5	75.5	80.9	-5.5	53.6
칠레	49.6	65.1	-15.5	32.5	34.5	-1.9	47.8	51.7	-4.0	61.7	73.6	-12.0	54.0
콜롬비아	55.2	62.0	-6.8	27.7	34.9	-7.2	43.5	48.8	-5.4	68.9	71.7	-2.8	49.0
크로아티아	41.6	-		27.4	-		57.7	-		53.6	-		47.5
페루	49.0	-		33.4	-		47.2	-		62.2	-		45.4
핀란드	82.1	82.4	-0.3	66.2	60.9	5.3	73.5	75.8	-2.3	81.9	80.4	1.5	49.3
홍콩	67.2	70.4	-3.2	45.0	38.3	6.8	39.8	30.2	9.5	58.9	41.6	17.3	50.8
ICCS평균	67.4	63.0	4.3	46.4	42.3	4.1	53.2	58.1	-4.9	59.4	62.3	-2.9	45.1

## 2) 인터넷과 SNS를 통한 청소년들의 시민 참여

2016년 조사에서는 그동안의 사회문화적 변화를 반영하여 인터넷 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청소년들의 시민 참여활동의 현황을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각국의 중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의 44% 이상은 지난 1년간 인터넷 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최소한 한번 이상 자신의 정치적 이슈에 대한 의견을 표현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개인화된 온라인 매체를 통한 시민참여의 비율은 특히 대만(57%), 도미니카(53.5%), 페루(52.7%), 라트비아(52.6%), 한국(52%), 홍콩(51.9%)에서 높았다. 특히 대만의 경우 2009년 조사에서 전통적인 공중과 언론에 대한 신뢰수준이 한국보다 낮았고, 그 수준이 2016년에도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어 왔음을 고려하면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기존의 매체에 대한 불신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V-6 인터넷과 SNS를 통한 시민참여 현황

	인터넷을 통해 정치적 이슈에 대한 정보를 얻음		SNS에 정치적 이슈에 대한 포스팅을 했음		정치적 이슈에 대한 타인의 코멘트를 자기 SNS에 공유		인터넷과 SNS를 통한 참여경험 전체	
	비율	표준편차	비율	표준편차	비율	표준편차	비율	표준편차
대만	64.9	(1.0)	19.5	(0.7)	15.3	(0.6)	57.0	(0.2)
도미니카	37.0	(1.2)	18.6	(0.8)	23.2	(0.9)	53.5	(0.2)
페루	33.3	(0.9)	16.7	(0.7)	18.2	(0.7)	52.7	(0.2)
라트비아	37.3	(1.2)	13.8	(0.8)	14.4	(0.7)	52.6	(0.3)
대한민국	40.9	(1.2)	7.9	(0.6)	11.5	(0.7)	52.0	(0.2)
홍콩	28.9	(1.0)	16.3	(0.8)	15.7	(0.8)	51.9	(0.3)
러시아	40.3	(1.2)	7.5	(0.5)	9.6	(0.6)	51.8	(0.3)
리투아니아	37.5	(1.1)	7.7	(0.6)	8.7	(0.6)	51.5	(0.2)
콜롬비아	28.8	(0.9)	10.7	(0.6)	16.2	(0.8)	50.7	(0.2)
이탈리아	34.6	(1.0)	8.9	(0.5)	9.5	(0.6)	50.6	(0.2)
멕시코	29.2	(0.8)	12.3	(0.5)	11.8	(0.5)	50.5	(0.2)
불가리아	25.7	(0.9)	11.8	(0.9)	11.4	(0.6)	50.1	(0.3)
덴마크	37.9	(0.8)	3.3	(0.3)	4.4	(0.4)	50.0	(0.2)
스웨덴	33.2	(1.1)	4.9	(0.5)	7.0	(0.7)	49.9	(0.2)
에스토니아	26.3	(1.2)	4.9	(0.4)	7.7	(0.6)	49.4	(0.2)
크로아티아	33.5	(1.2)	3.3	(0.4)	3.2	(0.4)	49.0	(0.2)
노르웨이	26.6	(0.7)	4.4	(0.3)	4.7	(0.3)	48.6	(0.2)
칠레	21.2	(0.6)	9.4	(0.5)	8.0	(0.4)	48.4	(0.2)
몰타	25.5	(0.7)	7.2	(0.4)	7.8	(0.4)	48.3	(0.2)
벨기에	23.5	(1.1)	5.3	(0.6)	6.0	(0.4)	48.3	(0.3)
독일	14.2	(1.0)	8.4	(0.6)	7.4	(0.7)	47.2	(0.2)
슬로베니아	20.4	(0.9)	2.7	(0.4)	4.5	(0.4)	46.9	(0.2)
핀란드	17.8	(0.9)	3.0	(0.3)	3.5	(0.4)	46.2	(0.2)
네덜란드	10.2	(0.7)	3.1	(0.3)	5.0	(0.5)	44.3	(0.2)
ICCS 평균	30.7	(0.2)	8.5	(0.1)	9.5	(0.1)	5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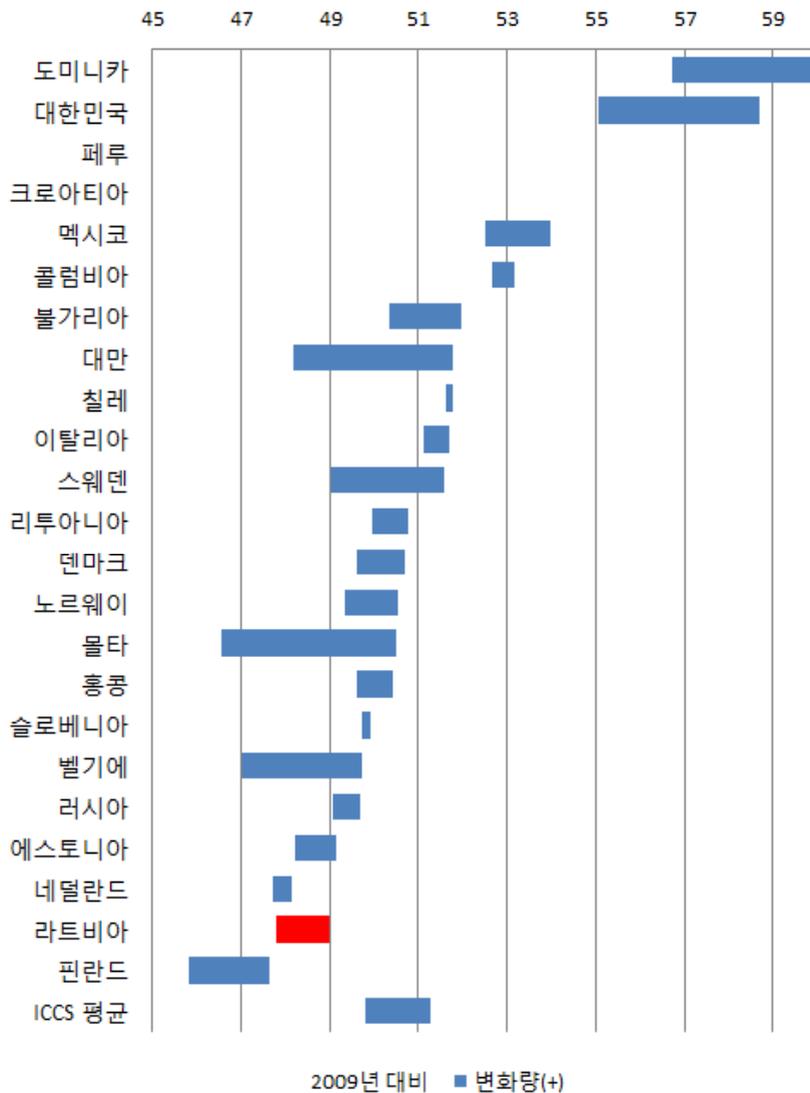
### 3) 정치적 자기효능감의 현황과 조사시기별 차이

정치적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고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 수준을 의미한다. 정치적 자기효능감은 실제 정치적인 참여행동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서 ICCS 조사에서도 중요한 항목으로 간주되어왔다. ICCS에서 이 지표의 측정은 정치적 이해와 판단에 관한 다양한 항목에 대해서 스스로 해낼 자신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의 평균으로 산출한다. 2009년과 2016년의 국가별 정치적 자기효능감 조사결과와 그 격차를 살펴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V-7 2009년 대비 2016년 정치적 자기효능감 측정치의 차이

Country	2016		2009		격차
	점수	오차	점수	오차	
도미니카	60.4	(0.2)	56.7	(0.3)	3.6
대한민국	58.7	(0.3)	55.0	(0.2)	3.7
페루	55.2	(0.2)	-		-
크로아티아	54.1	(0.2)	-		-
멕시코	54.0	(0.2)	52.5	(0.2)	1.5
콜롬비아	53.2	(0.2)	52.7	(0.3)	0.5
불가리아	52.0	(0.3)	50.3	(0.3)	1.6
대만	51.8	(0.2)	48.2	(0.2)	3.6
칠레	51.8	(0.2)	51.6	(0.2)	0.1
이탈리아	51.7	(0.2)	51.1	(0.3)	0.6
스웨덴	51.6	(0.2)	49.0	(0.3)	2.6
리투아니아	50.8	(0.2)	50.0	(0.2)	0.8
덴마크	50.7	(0.2)	49.6	(0.2)	1.1
노르웨이	50.5	(0.2)	49.3	(0.3)	1.2
몰타	50.5	(0.2)	46.6	(0.3)	3.9
홍콩	50.4	(0.2)	49.6	(0.2)	0.8
슬로베니아	49.9	(0.2)	49.7	(0.3)	0.2
벨기에	49.7	(0.2)	47.0	(0.2)	2.7
러시아	49.7	(0.2)	49.1	(0.2)	0.6
에스토니아	49.2	(0.2)	48.2	(0.2)	1.0
독일	49.0	(0.3)	-		-
네덜란드	48.1	(0.2)	47.7	(0.6)	0.4
라트비아	47.8	(0.2)	49.1	(0.2)	-1.2
핀란드	47.6	(0.2)	45.8	(0.2)	1.8
ICCS 평균	51.3	(0.1)	49.8	(0.1)	1.5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 청소년들은 2009년도와 마찬가지로 도미니카 공화국 청소년들 다음으로 정치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치적 자기효능감은 국가간 편차가 가장 적은 항목 중의 하나로서 본 조사에 참여한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핀란드에서도 이 지수는 47.6로 나타났으며 ICCS 평균도 51%를 넘었다. 이렇게 비교적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2009년 대비 참여국 청소년들의 정치효능감이 1.5%p 증가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V-5] 2009년 조사 대비 2016년 청소년 자기효능감의 변화량

#### 4) 성차, 관심수준, 지식수준에 따른 정치적 자기효능감의 차이

정치적 자기효능감에 관련된 변인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와 정치적 이슈들에 대한 관심의 여부 (4점 척도에서 매우 관심있다. 약간 관심있다고 응답한 비율), 시민지식의 수준에 따라서 정치적 자기효능감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정치적 자기효능감은 남자 청소년(51.1)들보다 여자 청소년들(51.8)이 약간 더 높았으며, 정치적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55.2)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49.6)에 비해 현저히 높았고, 시민지식 수준에 따라서도 작지만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표 V-8 성차, 관심수준, 지식수준에 따른 정치적 자기효능감의 차이

	성별		정치적 관심수준		시민지식 레벨	
	남	녀	정치이슈 관심없음	정치이슈 관심있음	수준 B 미만	B 이상
도미니카	60.5	60.2	59.1	62.3	60.6	59.1
대한민국	59.1	58.2	57.2	60.3	55.7	59.6
페루	55.2	55.2	53.1	57.1	55.0	55.6
멕시코	54.0	54.0	52.6	57.7	55.0	52.8
크로아티아	53.2	55.0	52.2	57.4	52.6	54.6
콜롬비아	52.8	53.5	51.4	57.2	54.0	52.5
대만	52.2	51.3	50.5	54.9	54.6	51.4
칠레	51.4	52.1	50.1	57.6	52.0	51.6
불가리아	51.1	53.0	50.4	55.3	51.2	52.5
이탈리아	51.0	52.4	49.9	55.5	49.8	52.5
스웨덴	50.9	52.3	48.1	56.2	49.7	51.9
덴마크	50.5	50.9	47.8	55.0	48.3	51.0
몰타	50.3	50.7	48.3	54.6	49.7	51.1
홍콩	50.0	50.9	48.1	53.1	49.8	50.8
벨기에	49.9	49.6	48.4	53.4	50.1	49.6
노르웨이	49.8	51.3	48.0	56.1	48.9	50.9
리투아니아	49.8	51.8	49.0	53.9	50.0	51.1
슬로베니아	49.6	50.2	48.6	54.1	48.5	50.4
러시아	49.6	49.7	47.3	52.5	50.7	49.4
에스토니아	48.3	50.1	47.1	53.2	46.4	49.8
네덜란드	48.2	48.0	47.2	52.6	48.1	48.1
핀란드	47.4	47.9	45.5	52.2	44.7	48.1
라트비아	47.3	48.4	46.7	51.0	47.0	48.4
ICCS 평균	51.1	51.8	49.6	55.2	50.8	51.5

## 5) 학교밖 시민참여: 정치-사회참여 단체 참여 경험

정치적 자기효능감을 결정하는 변인 중에서 실제 정치적 참여의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 ICCS에서는 정치적인 참여 중에서도 단체에 참여경험을 중요한 변인으로 측정해왔다. 그리고 이 영역의 지표는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2009년 조사에서부터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지금도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을 상상하기는 어렵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의 정치단체 가입율은 2009년의 3.6%에 비하면 5.7%로 2.1%p 증가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 영역 항목의 ICCS 평균치는 2009년의 9%에서 2016년에는 10%로 조금씩 높아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청소년들의 정치적인 참여경험 특히 단체가입에 대한 관점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자원봉사단체의 가입경험은 2009년의 17.7%에 비해 18.8%p 증가한 36.5%로 높아져 거의 ICCS 평균에 근접했으며 정치-사회적 캠페인 단체에의 가입경험 역시 2009년의 10.4%에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20.5%로 증가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표 V-9 ICCS 2016 참여국가별 정치-사회참여 단체 가입 경험

	정당이나 정치단체 가입			지역사회 자원봉사단체가입			특정이슈 캠페인하는 청소년단체가입		
	2016	2009	격차	2016	2009	격차	2016	2009	격차
대만	2.1	3.6	-1.5	26.2	20.0	6.2	2.0	5.8	-3.7
핀란드	3.3	2.5	0.8	14.5	14.3	0.2	8.3	10.2	-1.9
크로아티아	3.6	-	-	29.9	-	-	3.0	-	-
독일	3.7	-	-	31.9	-	-	20.2	-	-
네덜란드	4.4	5.8	-1.4	30.2	24.1	6.1	6.9	11.7	-4.8
슬로베니아	4.6	5.7	-1.1	30.8	24.0	6.8	27.5	35.2	-7.7
덴마크	4.7	4.4	0.3	25.1	12.1	13.0	18.0	12.7	5.3
스웨덴	5.4	6.6	-1.2	16.1	13.7	2.3	14.2	14.1	0.0
대한민국	5.7	3.6	2.1	36.5	17.7	18.8	20.5	10.4	10.2
이탈리아	5.9	4.6	1.4	31.7	23.2	8.5	21.7	22.9	-1.2
벨기에	6.1	5.4	0.7	30.4	22.7	7.8	16.5	16.7	-0.2
홍콩	6.2	7.5	-1.3	18.6	33.2	-14.5	6.7	8.6	-1.8
에스토니아	10.0	8.6	1.4	42.9	44.2	-1.3	25.1	30.0	-4.9
불가리아	10.4	9.0	1.4	50.3	36.9	13.4	38.6	36.9	1.7
노르웨이	10.5	9.3	1.2	32.3	19.6	12.7	14.4	23.9	-9.4
칠레	11.3	9.1	2.3	39.9	39.9	0.0	38.4	42.0	-3.6
콜롬비아	11.7	13.9	-2.2	54.4	56.6	-2.2	34.1	45.4	-11.4
러시아	13.5	11.2	2.2	35.3	30.1	5.1	53.6	62.0	-8.4
라트비아	14.9	9.0	5.9	41.8	38.2	3.6	28.3	37.9	-9.5
멕시코	15.3	15.1	0.2	49.3	46.4	2.9	33.3	39.1	-5.7
몰타	16.6	14.5	2.1	45.9	36.2	9.7	19.1	17.3	1.8
리투아니아	19.0	11.1	7.8	41.6	23.2	18.4	20.5	24.8	-4.3
페루	19.4	-	-	51.6	-	-	40.0	-	-
도미니카	22.9	25.3	-2.4	66.7	69.5	-2.8	47.6	58.3	-10.7
ICCS평균	10.5	9.4	1.1	37.5	31.7	5.8	25.6	29.7	-4.1

## 6) 학교 내 시민참여: 학생회 및 학교 내 의결 참여 경험

청소년들의 시민참여 채널은 학교 밖 뿐만 아니라 교내에도 존재한다. 원칙적으로 학교내에서의 시민 참여는 교육제도의 틀 안에서 교사의 지도를 통해 진행되므로 시민지식 점수나 자기효능감에 더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내 시민참여 경험을 측정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교내 시민참여 경험은 2009년 대비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회 관련 투표참여 경험은 2009년의 76.3%에서 11.4%p 증가한 87.7%로, 학교운영에 관한 안건의 결의에 참여한 경험은 33%에서 20.5%p 증가한 53.4%로, 그리고 학생회 임원 후보로 출마해본 경험은 32.8%에서 14% 증가한 46.8%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09년에 비해서 모든 영역에서 ICCS 참여국 평균보다 높아진 것으로 그동안 우리나라의 학교 시스템이 학생들의 참여에 개방적인 방향으로 변화해 왔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 수준은 여전히 노르웨이나 스웨덴 등의 국가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으로 앞으로 더 향상될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V-10 ICCS 2016 참여국가별 교내 시민참여 경험

	학생대표, 학생회임원 선출 투표 참여			학교운영에 관한 안건 결의에 참여			학생회임원후보 출마		
	2016	2009	격차	2016	2009	격차	2016	2009	격차
노르웨이	93.4	90.0	3.4	58.7	55.9	2.8	57.6	59.1	-1.5
칠레	91.1	89.3	1.7	48.7	39.2	9.5	46.4	47.4	-1.0
크로아티아	91.0	-	-	20.2	-	-	57.8	-	-
콜롬비아	90.2	89.8	0.5	49.4	56.7	-7.2	41.9	43.8	-1.9
스웨덴	89.0	85.4	3.6	64.0	53.5	10.5	46.8	40.4	6.4
리투아니아	88.8	83.9	5.0	42.9	35.0	7.9	46.8	30.1	16.7
대한민국	87.7	76.3	11.4	53.4	33.0	20.5	46.8	32.8	14.0
핀란드	85.2	82.9	2.3	26.7	14.9	11.8	46.0	34.8	11.2
페루	84.0	-	-	45.3	-	-	45.2	-	-
러시아	83.6	76.2	7.4	33.2	32.3	0.9	25.0	28.3	-3.3
슬로베니아	83.6	84.4	-0.8	24.1	27.6	-3.5	59.1	59.0	0.1
독일	82.1	-	-	50.4	-	-	59.6	-	-
덴마크	79.6	73.2	6.4	47.2	43.6	3.6	50.5	49.0	1.5
몰타	78.3	62.4	15.9	41.8	29.2	12.6	48.3	23.6	24.7
멕시코	76.1	73.6	2.5	56.5	54.0	2.5	41.8	36.0	5.8
에스토니아	74.3	74.5	-0.2	28.8	24.1	4.7	29.9	31.7	-1.8
대만	72.1	67.4	4.8	42.5	43.4	-0.9	33.5	32.3	1.2
홍콩	71.2	73.7	-2.5	29.8	28.3	1.5	30.4	31.7	-1.2
도미니카	65.9	60.7	5.2	59.9	59.2	0.7	61.8	57.7	4.1
벨기에	63.7	67.8	-4.1	37.4	35.8	1.6	37.1	34.0	3.0
라트비아	62.5	67.1	-4.6	29.7	31.0	-1.2	34.2	39.3	-5.1
불가리아	56.2	51.6	4.5	32.2	31.5	0.7	36.7	34.1	2.5
네덜란드	50.9	51.6	-	27.1	27.4	-0.3	21.1	22.3	-
이탈리아	50.5	48.6	1.9	36.2	34.3	1.9	21.6	21.3	0.2
ICCS평균	76.9	73.8	3.1	42.2	39.0	3.3	42.5	39.0	3.5

## 7) 성인이 되어 선거운동에 참여할 의지

선거는 가장 기본적이고 통상적인 정치 참여 제도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선거를 통해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합법적인 정치적 의사표현의 대표적인 방법이다. 청소년들의 성인이 되어 각종 선거에 단순히 투표자가 아니라 입후보자로 참여할 의지를 질문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 중에서 성인이 되어서 입후보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09년의 48.5%에서 2016년에는 50.8%로 2.3%p 증가했다. 이 수치는 ICCS 평균인 51.3% 보다 낮았다.

표 V-11 미래 선거운동 참여의사

	2016		2009		격차
	비율	표준오차	비율	표준오차	
페루	54.6	(0.2)	-		-
노르웨이	54.4	(0.1)	52.3	(0.3)	2.1
이탈리아	54.2	(0.2)	54.1	(0.2)	0.1
스웨덴	53.2	(0.2)	49.0	(0.3)	4.2
콜롬비아	53.2	(0.2)	53.7	(0.2)	(0.5)
도미니카	53.1	(0.2)	52.2	(0.3)	0.9
대만	52.9	(0.2)	50.8	(0.2)	2.1
덴마크	52.4	(0.2)	49.1	(0.2)	3.3
멕시코	52.4	(0.2)	53.1	(0.2)	(0.7)
리투아니아	52.2	(0.2)	51.8	(0.2)	0.4
크로아티아	51.2	(0.2)	-		-
대한민국	50.8	(0.3)	48.5	(0.2)	2.3
러시아	50.7	(0.3)	51.3	(0.2)	(0.6)
핀란드	50.6	(0.2)	49.2	(0.2)	1.5
칠레	50.2	(0.2)	49.8	(0.3)	0.3
몰타	50.0	(0.2)	49.3	(0.4)	0.7
슬로베니아	49.7	(0.3)	49.6	(0.2)	0.1
불가리아	49.6	(0.3)	47.7	(0.3)	1.9
라트비아	49.5	(0.2)	50.2	(0.3)	(0.7)
벨기에	48.5	(0.3)	45.5	(0.2)	3.0
에스토니아	48.1	(0.2)	46.6	(0.3)	1.4
홍콩	47.2	(0.3)	48.5	(0.3)	(1.3)
네덜란드	46.9	(0.3)	46.6	(0.4)	0.3
독일	46.5	(0.4)	-		-
ICCS 평균	51.3	(0.0)	50.3	(0.1)	1.1

### 8) 부모학력, 정치적 관심, 시민지식 수준에 따른 미래 선거운동 참여 의사

ICCS에서는 부모의 학력과 청소년 개인의 정치적 관심여부, 그리고 시민지식의 수준에 따라서 선거 운동의사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미래 선거운동참여의사에 가장 큰 격차를 보인 변인은 정치적 관심의 수준이 아니라 시민지식의 수준이었다. 평균적으로 시민지식 점수수준이 B레벨 이상인 청소년들의 미래 선거운동참여의사가 52.8% 였던 반면, B레벨 미만인 청소년들의 참여의사는 그보다 5.3%p 낮은 47.6%로 나타났다. 정치적 관심의 여부에 따른 차이는 4.5%p 로 이보다 작았다. 부모의 학력에 따른 차이 역시 나타났으나 비교적 적었다.

표 V-12 부모학력, 정치적 관심, 시민지식 수준과 미래 선거운동 참여의사

	부모의 학력		정치적 이슈에 대한 관심여부		시민지식 수준	
	양친 모두 대졸미만	양친 중 한명 이상 대졸	정치에 관심없음	정치에 관심있음	B 레벨 미만	B 레벨이상
노르웨이	52.6	55.9	52.9	57.7	47.1	55.8
페루	54.1	55.8	53.3	55.9	52.9	57.4
이탈리아	53.9	55.6	53.1	56.7	50.4	55.7
덴마크	51.9	54.6	50.0	56.1	45.6	53.4
스웨덴	52.1	54.3	50.6	56.6	48.0	54.1
대만	52.5	54.0	51.8	55.5	48.0	53.6
콜롬비아	52.9	53.9	52.0	56.0	51.2	54.8
도미니카	52.9	53.8	52.1	54.8	52.8	55.0
리투아니아	51.7	53.3	50.8	54.6	48.9	53.6
멕시코	52.2	53.2	51.4	55.2	50.9	54.1
크로아티아	50.6	52.8	49.6	54.0	47.1	52.5
칠레	49.4	52.7	49.0	54.5	47.3	52.7
핀란드	49.6	52.2	48.8	54.4	44.0	51.6
대한민국	49.2	51.9	48.9	52.8	45.7	52.3
슬로베니아	48.8	51.5	48.6	53.4	44.9	51.3
라트비아	48.2	51.5	48.3	52.7	46.4	51.6
몰타	49.6	51.4	48.1	53.6	47.4	51.7
러시아	50.1	51.3	48.6	53.2	48.5	51.3
불가리아	48.8	50.5	48.3	52.6	47.2	51.4
벨기에	47.0	49.8	47.3	52.0	44.8	49.7
홍콩	46.6	49.6	44.3	50.7	43.1	49.2
네덜란드	45.3	49.5	45.8	51.8	42.0	49.2
에스토니아	47.2	49.3	46.5	51.3	43.9	49.1
ICCS 평균	50.6	52.7	49.9	54.4	47.6	52.8

### 9) 적극적 정치참여의사

정치참여에는 투표와 같은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참여 이외에도 자발적인 캠페인이나 언론과 소셜미디어를 통한 의사표현, 정당과 정치인에게 전화나 편지 등으로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행동 등 합법적 비합법적 범주를 포괄하는 다양한 형태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방식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정치참여의사를 질문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2009년 대비 적극적 정치참여의사는 약 1.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경우 2009년에는 48.5%였던 적극적 정치참여의사가 2016년에는 2.3%p 증가한 50.8%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3 적극적 정치참여 의사

	2016		2009		격차
	점수	오차	점수	오차	
페루	54.6	(0.2)	-		-
노르웨이	54.4	(0.1)	52.3	(0.3)	2.1
이탈리아	54.2	(0.2)	54.1	(0.2)	0.1
스웨덴	53.2	(0.2)	49.0	(0.3)	4.2
콜롬비아	53.2	(0.2)	53.7	(0.2)	(0.5)
도미니카	53.1	(0.2)	52.2	(0.3)	0.9
대만	52.9	(0.2)	50.8	(0.2)	2.1
덴마크	52.4	(0.2)	49.1	(0.2)	3.3
멕시코	52.4	(0.2)	53.1	(0.2)	(0.7)
리투아니아	52.2	(0.2)	51.8	(0.2)	0.4
크로아티아	51.2	(0.2)	-		-
대한민국	50.8	(0.3)	48.5	(0.2)	2.3
러시아	50.7	(0.3)	51.3	(0.2)	(0.6)
핀란드	50.6	(0.2)	49.2	(0.2)	1.5
칠레	50.2	(0.2)	49.8	(0.3)	0.3
몰타	50.0	(0.2)	49.3	(0.4)	0.7
슬로베니아	49.7	(0.3)	49.6	(0.2)	0.1
불가리아	49.6	(0.3)	47.7	(0.3)	1.9
라트비아	49.5	(0.2)	50.2	(0.3)	(0.7)
벨기에	48.5	(0.3)	45.5	(0.2)	3.0
에스토니아	48.1	(0.2)	46.6	(0.3)	1.4
홍콩	47.2	(0.3)	48.5	(0.3)	(1.3)
네덜란드	46.9	(0.3)	46.6	(0.4)	0.3
독일	46.5	(0.4)	-		-
ICCS 평균	51.3	(0.0)	50.3	(0.1)	1.1

## 10) 성별, 정치적 관심, 시민지식 수준에 따른 적극적 정치참여의사의 차이

적극적 정치참여 의사가 성별, 정치적 관심, 그리고 시민지식 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자청소년들이 여자청소년들에 비해서, 정치적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이 관심이 없는 청소년들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정치참여를 할 의사가 더 높은 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시민지식 수준이 낮은(B 레벨 미만) 청소년들이 높은 수준의 청소년들에 비해서 더 적극적인 정치참여의사가 높다는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민지식 수준이 낮은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의사표현을 할수록 ‘침묵하는 다수’에는 시민지식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 결과, 청소년들의 다수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이 시민지식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이 아니라 지식 수준이 낮은 청소년들이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전반적인 시민지식 수준의 향상 뿐만 아니라 시민지식 하위 레벨 집단에 대한 특화된 정책이 요구된다.

표 V-14 성별, 정치적 관심, 시민지식 수준에 따른 적극적 정치참여의사

	성차이		정치적 이슈에 대한 관심여부		시민지식 수준	
	남	녀	정치에 관심없음	관심있음	B 수준미만	B 수준이상
도미니카	61	60	59	63	61	56
페루	57	56	55	58	58	54
멕시코	56	55	54	58	57	53
콜롬비아	54	53	52	56	56	51
리투아니아	52	51	50	54	54	51
이탈리아	51	50	50	53	51	51
러시아	51	49	48	53	52	50
몰타	51	49	48	54	52	49
크로아티아	51	50	49	53	51	50
대만	51	49	49	52	53	49
덴마크	51	51	49	53	50	51
대한민국	51	49	48	51	52	49
라트비아	50	49	49	52	51	49
불가리아	50	49	48	52	53	47
칠레	50	49	49	53	52	48
스웨덴	50	50	48	53	50	50
슬로베니아	50	48	48	52	50	49
핀란드	49	48	48	51	49	49
에스토니아	49	48	48	50	49	48
홍콩	49	47	46	50	48	48
노르웨이	48	49	47	51	49	48
네덜란드	48	48	47	51	48	48
벨기에	47	46	45	49	48	46
ICCS 평균	51	50	50	53	52	50

## 제 VI 장

---

# ICCS 아시아 지역모듈 측정결과 분석

1. 아시아 청소년 시민의식 요인모형
2. 2016년 한국 청소년의 아시아  
시민의식
3. 2009년-2016년 한국 청소년의  
아시아 시민의식 비교



## 제 VI 장 ICCS 아시아 지역모듈 측정결과 분석<sup>22)</sup>

### 1. 아시아 청소년 시민의식 요인모형

아시아 청소년 시민의식은 ICCS조사에 포함된 ARM을 통하여 측정되었다. ARM은 4개의 시민적 개념범주(시민사회와 체계, 시민원리, 시민참여, 시민정체성)에 대한 신념과 태도를 묻는 5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Likert 척도가 적용되었다. 우선, 기술적인 통계분석을 실시하여 수집된 자료의 분포 정규성을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수집자료의 신뢰성을 문항내적 일치도(internal consistency) 검사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전체 문항의 내적 일치도는 .903(Cronbach Alpha)으로 안정적인 신뢰성을 보였다. 측정도구의 구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초기 요인분석은 요인 고유값(eigen value)을 1로 지정하고 요인을 탐색적으로 추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요인 고유값 1 이상을 나타낸 11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이 중 요인적재값이 .4 미만인 문항과 2개 이상의 요인에서 높은 요인 적재값을 보인 11개 문항을 제거한 후, 총 44개 문항을 대상으로 2차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2차 요인분석의 결과로 총 8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표 VI-1 아시아 청소년 시민의식 하위요인과 문항

요인	고유값	분산비율 (%)	누적분산비율 (%)
1	7.967	18.107	18.107
2	6.369	14.476	32.583
3	2.350	5.340	37.923
4	1.775	4.033	41.956
5	1.717	3.901	45.857
6	1.595	3.625	49.483
7	1.473	3.347	52.830
8	1.405	3.193	56.023

22) 이 부분은 한국교육개발원 협동연구진이 집필하였음.

<표 VI-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요인 고유값 1이상인 8개 요인은 총 분산의 약 56%를 설명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8개 요인에 걸친 각 문항의 요인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VI-2>에 제시되어 있다.

**표 VI-2 ARM 문항 요인별 가중치**

문항	요인계수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요인8
ARM 36B	.717							
ARM 36D	.765							
ARM 36E	.760							
ARM 36F	.627							
ARM 36G	.680							
ARM 37A		.761						
ARM 37C		.716						
ARM 37D		.801						
ARM 37F		.777						
ARM 38A			.697					
ARM 38B			.688					
ARM 38C			.711					
ARM 38D			.685					
ARM 39A				.745				
ARM 39B				.586				
ARM 39D				.627				
ARM 39E				.532				
ARM 40A					.462			
ARM 40B						.496		
ARM 40C					.469			
ARM 40D						.609		
ARM 40E					.436			
ARM 40F						.799		
ARM 40G						.815		
ARM 40H						.734		
ARM 41A							.726	
ARM 41B							.688	
ARM 41C							.573	
ARM 41D							.773	
ARM 41E							.882	
ARM 41F							.806	
ARM 41G							.804	
ARM 41H							.754	
ARM 42B								.590
ARM 42C								.670
ARM 42D								.647
ARM 42E								.663
ARM 42F								.681
ARM 42G								.663
ARM 43A					.733			
ARM 43B					.684			
ARM 43C					.770			
ARM 43D					.774			
ARM 43E					.790			

요인분석의 결과로 추출된 8개 요인은 <표 VI-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명명하였다.

**표 VI-3 ARM 요인별 제목과 구성 문항 일람**

요인	변수명	문항
1 정부역할 에 대한 인식	ARM_36B	1-1 모든 사람이 부유함을 누릴 수 있다면 정부가 민주적이든, 비민주적이든 상관없다.
	ARM_36D	1-2 시민의 생각을 반영하고만 있다면 정부가 민주적이든, 비민주적이든 상관없다.
	ARM_36E	1-3 정부가 일을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 비민주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할 수 있다.
	ARM_36F	1-4 정부가 권력이 강할수록 시민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쉽다.
	ARM_36G	1-5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가 법을 위반하는 것을 용인할 수 있다.
2 권위에의 복종적 태도	ARM_37A	2-1 내 의견이 다르더라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항상 어른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
	ARM_37C	2-2 내 의견이 다르더라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항상 당신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말을 따라야 한다.
	ARM_37D	2-3 내 의견이 다르더라도 항상 선생님에게 순종해야 한다.
	ARM_37F	2-4 내 의견이 다르더라도 항상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
3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ARM_38A	3-1 나는 우리나라 전통 문화에 대해 배울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싶다.
	ARM_38B	3-2 우리나라 문화는 다른 나라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독특한 문화 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
	ARM_38C	3-3 우리나라 전통 문화가 우리문화유산을 대표하기 때문에 우리 전통 문화의 부분이 보존되어야 한다.
	ARM_38D	3-4 나는 우리전통문화를 보존하는 데에 책임감을 느낀다.
4 법체계에 대한 신뢰	ARM_39A	4-1 법은 돈과 권력이 있는 자들의 편이다.
	ARM_39B	4-2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ARM_39D	4-3 법원은 법을 공정하게 적용할 수 있다.
	ARM_39E	4-4 법체계에 부정부패는 없다.
5 공공관련 부정행위 에 대한 태도	ARM_40A	5-1 일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정부관료에게 뇌물을 주는 것을 용인할 수 있다.
	ARM_40C	5-2 공무원이 그/그녀가 일하는 기관에서 그/그녀의 이익을 위해 그 기관의 재원을 사용해도 상관없다.
	ARM_40E	5-3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것은 어른들의 일이므로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ARM_43A	5-4 선거에서 많은 후보자들이 있더라도 지역연고자 또는 고향 출신자에게만 투표해야 하냐.
	ARM_43B	5-5 우리와 연고가 있는 후보자만이 당선 이후에도 진정 우리를 위해 일할 것이다.
	ARM_43C	5-6 만약에 어떤 후보자가 나의 친구나 친인척이라면 그/그녀가 그 일에 최 책임자가 아니더라도 그/그녀를 뽑아야 한다.
	ARM_43D	5-7 공무원이 공공기관에 사람들을 고용할 때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을 용인할 수 있다.
	ARM_43E	5-8 공무원이 정부계약을 그 일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을 용인할 수 있다.

요인	변수명	문항	
6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ARM_40B	6-1 정치인들의 정직성과 도덕성은 그/그녀의 능력보다 중요하다.
		ARM_40D	6-2 정치적 지도자들은 도덕성의 역할모델이 되어야 한다.
		ARM_40F	6-3 정치인들은 그들의 가족이 법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ARM_40G	6-4 정치인들은 그들의 가족이 도덕적으로 행동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ARM_40H	6-5 정치인들은 그들의 가족구성원이 범법행위를 하거나 비도덕적인 행동을 할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7	아시아 정체성	ARM_41A	7-1 나는 나 스스로를 아시아의 시민이라고 생각한다.
		ARM_41B	7-2 나는 나 스스로를 세계의 시민이라고 생각한다.
		ARM_41C	7-3 아시아 국가들은 EU처럼 지역적인 협력을 위해 아시아연합 AU를 발달 시켜야 한다.
		ARM_41D	7-4 나는 전반적으로 볼 때 아시아의 경제적 성장이 자랑스럽다.
		ARM_41E	7-5 나는 아시아인인 것이 자랑스럽다.
		ARM_41F	7-6 나는 아시아 문화와 전통이 자랑스럽다.
		ARM_41G	7-7 나는 전반적으로 볼 때, 아시아 민주주의의 발전이 자랑스럽다.
		ARM_41H	7-8 나는 전반적으로 볼 때, 아시아의 인권이 성장한 것이 자랑스럽다.
8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	ARM_42B	8-1 법은 준수하지만 도덕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좋은 시민이 아니다.
		ARM_42C	8-2 좋은 도덕성을 가진 사람만이 좋은 시민이 될 수 있다.
		ARM_42D	8-3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지식보다는 도덕성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
		ARM_42E	8-4 자기 수양은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의 하나이다.
		ARM_42F	8-5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정신적 성숙이 중요하다.
		ARM_42G	8-6 상황에 적절하게 행동하는 사람일지라도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좋은 시민이 될 수 없다.

각 요인의 내용을 설명하자면,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은 정부의 비민주적 역할수행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용인 수준을 의미한다. ‘권위자의 복종적 태도’는 의사결정상황에서 본인의 판단보다 부모, 선생님 등과 같은 권위자의 판단을 따르려는 태도를 의미한다.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은 자국의 전통문화 정체성 보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법체계에 대한 신뢰’는 사법체계의 공명정대함에 대한 신뢰 수준을 의미한다.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는 공무원 관련 뇌물수수, 공적자원의 사취 등과 같은 부정한 행위에 대한 태도와 연줄(personal

connections)에 기반한 부적절한 공공관련 행위에 대한 태도를 포함한다.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은 정치인이 가져야 하는 도덕성의 중요성과 그들 가족의 도덕적 행위에 대한 책임 인식을 의미한다. ‘아시아 정체성’은 아시아 국가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은 바람직한 시민이 되기 위해 요구되는 자질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 2. 2016년 한국 청소년의 아시아 시민의식

앞서 제시한 아시아 청소년 시민의식 요인모형에 기초하여 관련 배경요인의 수준에 따른 시민의식 수준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 배경요인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하여 적용하였다<표 VI-4참조>. 한편, 성별과 학교 밖 활동변인 2개, 학교 내 활동변인 3개에 대해서는 참여 인식 수준에 따른 시민의식 수준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인식 수준을 3분위수(tertile values)로 나누어 1분위와 3분위에 해당하는 사례를 선택, 집단 변수로 설정했다.

**표 VI-4**      **관련 배경요인**

분류	변인	설명
개인 변인	(1)성별	여학생과 남학생
	(2)기대학력	응답자 본인이 기대하는 최종학력 수준
가정 배경 변인	(3)부모의 최종학력	부모가 마친 최종학력 수준(*부, 모의 학력수준 통합)
	(4)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도	국제/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부모의 관심 수준 (*부, 모의 정치사회적 관심도 통합)
학교 밖 활동 변인	(5)국제/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	관련 이슈들을 학교 밖에서 부모, 친구와 이야기하거나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습득, 의견을 제시하는 활동
	(6)집단활동 참여	학교 밖 다양한 사회적 집단이나 활동에의 참여
학교 내 활동 변인	(7)교실개방성	교실 내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교류활동의 수준
	(8)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	교사의 학생에 대한 공정성, 지원적 자세 등
	(9)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	학생들의 학교 내 활동 참여에 대한 긍정적 인식

1) 기대학력 수준에 따른 시민의식

개인수준에서의 배경요인 수준에 따른 시민의식 수준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대학력 수준별 시민의식 전체와 8개 하위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표 VI-5 기대학력에 따른 시민의식 기술통계량

구분	남				여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4년제 대학 이상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4년제 대학 이상
시민의식(전체)	2.94 (0.33)	2.91 (0.30)	3.03 (0.31)	3.10 (0.29)	3.09 (0.40)	2.98 (0.27)	3.07 (0.31)	3.17 (0.29)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	2.71 (0.86)	2.71 (0.79)	2.80 (0.76)	2.99 (0.77)	3.51 (0.61)	2.93 (0.68)	3.06 (0.68)	3.26 (0.63)
권위에의 복종적 태도	2.59 (0.89)	2.60 (0.78)	2.64 (0.79)	2.85 (0.74)	3.32 (0.70)	2.84 (0.66)	2.80 (0.70)	2.99 (0.62)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3.07 (0.60)	3.04 (0.60)	3.23 (0.55)	3.16 (0.58)	3.14 (1.04)	3.05 (0.61)	3.14 (0.52)	3.22 (0.50)
법체계에 대한 신뢰	2.90 (0.66)	2.62 (0.66)	2.62 (0.69)	2.53 (0.75)	2.32 (0.90)	2.52 (0.58)	2.67 (0.62)	2.54 (0.65)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2.70 (0.73)	2.84 (0.72)	2.98 (0.69)	3.21 (0.66)	3.29 (0.73)	3.09 (0.56)	3.18 (0.58)	3.38 (0.52)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3.09 (0.76)	2.95 (0.67)	3.06 (0.60)	3.18 (0.66)	3.06 (0.92)	2.95 (0.59)	3.10 (0.57)	3.19 (0.55)
아시아 정체성	3.24 (0.40)	3.22 (0.62)	3.41 (0.51)	3.38 (0.54)	2.95 (0.97)	3.17 (0.50)	3.29 (0.53)	3.37 (0.48)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	3.17 (0.51)	3.08 (0.54)	3.18 (0.46)	3.14 (0.52)	3.05 (0.55)	2.96 (0.50)	3.04 (0.47)	3.05 (0.47)

<표 VI-5>을 바탕으로 평균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평균차이 검증은 시민의식 평균차이에 대한 각 배경요인의 주효과와 배경요인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시민의식 전체와 8개 하위요인의 평균차이 검증 결과는 아래와 같다.

시민의식 전체의 경우, 기대학력수준( $F=38.754, p=.000$ )과 성별( $F=5.520, p=.019$ )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 $F=.451, p=.717$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시민의식의 하위요인으로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의 경우, 기대학력수준( $F=22.951, p=.000$ )과 성별( $F=22.839, p=.000$ )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 $F=1.088, p=.353$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권위예의 복종적 태도의 경우, 기대학력수준( $F=14.644, p=.000$ )과 성별( $F=15.748, p=.000$ )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 $F=1.728, p=.159$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의 경우, 기대학력수준( $F=6.310, p=.000$ )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성별( $F=.040, p=.841$ )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 $F=2.483, p=.059$ )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이 나타나지 않았다. 법체계에 대한 신뢰의 경우, 기대학력수준( $F=3.353, p=.000$ )과 성별( $F=3.948, p=.047$ )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 $F=2.001, p=.112$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의 경우, 기대학력수준( $F=36.101, p=.000$ )과 성별( $F=17.913, p=.000$ )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 $F=1.246, p=.291$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의 경우, 기대학력수준( $F=14.994, p=.000$ )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성별( $F=.005, p=.943$ )과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 $F=.071, p=.975$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아시안 정체성의 경우, 기대학력수준( $F=12.117, p=.000$ )과 성별( $F=3.973, p=.046$ )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 $F=2.061, p=.103$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의 경우, 예상교육수준( $F=2.510, p=.057$ )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 성별( $F=4.290, p=.038$ )의 차이만 나타났다. 한편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 $F=.284, p=.837$ )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 2) 부모 학력 수준에 따른 시민의식

개인수준에서의 배경요인 수준에 따른 시민의식 수준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부모 학력 수준별 시민의식 전체와 8개 하위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표 VI-6 부모 학력 수준에 따른 시민의식 기술통계량

구분	남					여				
	중학교 미만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 대학	4년제 대학이상	중학교 미만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 대학	4년제 대학이상
시민 의식 (전체)	2.75 (0.68)	2.89 (0.80)	2.80 (0.79)	2.89 (0.76)	3.03 (0.76)	3.00 (0.20)	3.18 (0.83)	3.11 (0.67)	3.18 (0.66)	3.30 (0.60)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3.06 (0.66)	2.72 (0.67)	2.69 (0.75)	2.76 (0.78)	2.84 (0.77)	3.00 (0.87)	2.88 (0.68)	2.89 (0.65)	2.93 (0.64)	3.02 (0.62)
권위에의 복종적 태도	3.06 (0.66)	2.72 (0.67)	2.69 (0.75)	2.76 (0.78)	2.84 (0.77)	3.00 (0.87)	2.88 (0.68)	2.89 (0.65)	2.93 (0.64)	3.02 (0.62)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2.69 (0.31)	3.05 (0.58)	3.13 (0.56)	3.20 (0.57)	3.18 (0.59)	3.25 (0.66)	3.30 (0.58)	3.15 (0.52)	3.21 (0.48)	3.23 (0.52)
법체계에 대한 신뢰	2.81 (0.66)	2.66 (0.57)	2.64 (0.71)	2.51 (0.70)	2.55 (0.76)	2.17 (0.88)	2.43 (0.68)	2.60 (0.65)	2.55 (0.63)	2.53 (0.65)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3.06 (0.53)	2.90 (0.76)	2.97 (0.70)	3.12 (0.70)	3.23 (0.66)	3.25 (0.82)	3.29 (0.45)	3.21 (0.54)	3.34 (0.56)	3.41 (0.52)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3.25 (0.90)	2.90 (0.75)	3.08 (0.62)	3.13 (0.67)	3.19 (0.65)	3.60 (0.53)	3.10 (0.49)	3.06 (0.59)	3.16 (0.57)	3.25 (0.52)
아시아 정체성	3.06 (0.89)	3.40 (0.44)	3.34 (0.54)	3.36 (0.56)	3.38 (0.54)	3.46 (0.40)	3.31 (0.51)	3.29 (0.53)	3.34 (0.48)	3.38 (0.49)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	3.04 (0.89)	3.11 (0.58)	3.11 (0.50)	3.13 (0.52)	3.16 (0.50)	2.83 (0.44)	3.01 (0.58)	2.97 (0.46)	3.07 (0.44)	3.10 (0.48)

<표 VI-6>을 바탕으로 평균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평균차이 검증은 시민의식 평균차이에 대한 각 배경요인의 주효과와 배경요인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시민의식 전체와 8개 하위요인의 평균차이 검증 결과는 아래와 같다.

시민의식 전체의 경우, 부모학력(F=17.884, p=.000)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성별(F=3.840, p=.050)과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F=.185, p=.946)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의 경우, 부모학력(F=11.259, p=.000)과 성별(F=5.947, p=.015)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F=.075, p=.990)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권위에의 복종적 태도의 경우, 부모학력(F=5.200, p=.000)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성별(F=1.242, p=.265)과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F=.104, p=.981)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의 경우, 부모학력(F=2.277, p=.059)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성별( $F=4.123, p=.042$ )의 차이는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 $F=1.231, p=.295$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법체계에 대한 신뢰의 경우, 부모학력( $F=2.060, p=.084$ ), 성별( $F=2.638, p=.104$ ),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 $F=1.139, p=.336$ )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의 경우, 부모학력( $F=16.865, p=.000$ )과 성별( $F=5.990, p=.014$ )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 $F=.606, p=.659$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의 경우, 부모학력( $F=8.328, p=.000$ )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성별( $F=1.559, p=.212$ )과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 $F=1.051, p=.397$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아시안 정체성의 경우, 부모학력( $F=1.832, p=.120$ ), 성별( $F=.355, p=.552$ )과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 $F=.652, p=.626$ )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의 경우, 부모학력( $F=4.206, p=.002$ )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성별( $F=2.046, p=.153$ )과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 $F=.705, p=.588$ )는 그렇지 못했다.

### 3) 부모의 정치 사회적 관심도에 따른 시민의식

시민의식 수준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수준별 시민의식 전체와 8개 하위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표 VI-7** 성별과 부모의 정치 사회적 관심도에 따른 시민의식 기술통계량

구분	남		여	
	관심 높음	관심 낮음	관심 높음	관심 낮음
부모의 정치 사회적 관심도				
시민 의식(전체)	3.15(0.32)	3.03(0.32)	3.24(0.29)	3.09(0.29)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2.94(0.85)	2.92(0.73)	3.30(0.67)	3.15(0.63)
권위예의 복종적 태도	2.76(0.80)	2.79(0.75)	2.98(0.66)	2.93(0.62)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3.08(0.58)	3.32(0.55)	3.12(0.50)	3.34(0.50)
법체계에 대한 신뢰	2.65(0.75)	2.53(0.71)	2.57(0.69)	2.55(0.62)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3.20(0.72)	3.09(0.66)	3.45(0.55)	3.26(0.52)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3.24(0.66)	3.07(0.64)	3.25(0.60)	3.11(0.54)
아시안 정체성	3.47(0.53)	3.30(0.55)	3.46(0.47)	3.28(0.50)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	3.23(0.51)	3.09(0.51)	3.14(0.47)	2.99(0.46)

<표 VI-7>을 바탕으로 평균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평균차이 검증은 시민의식 평균차이에 대한 각 배경요인의 주효과와 배경요인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시민의식 전체와 8개 하위요인의 평균차이 검증 결과는 아래와 같다.

시민의식 전체의 경우, 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도( $F=120.532$ ,  $p=.000$ )와 성별( $F=38.376$ ,  $p=.000$ )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 $F=.633$ ,  $p=.426$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의 경우, 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도( $F=9.633$ ,  $p=.002$ )와 성별( $F=110.881$ ,  $p=.000$ )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리고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 $F=4.797$ ,  $p=.029$ )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권위주의 복종적 태도의 경우, 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도( $F=.099$ ,  $p=.753$ )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성별( $F=42.384$ ,  $p=.000$ )의 차이는 존재하였다. 한편,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 $F=1.394$ ,  $p=.238$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의 경우, 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도( $F=115.844$ ,  $p=.000$ )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성별( $F=2.254$ ,  $p=.133$ )과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 $F=.034$ ,  $p=.853$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법체계에 대한 신뢰의 경우, 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도( $F=6.313$ ,  $p=.012$ )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성별( $F=1.691$ ,  $p=.194$ )과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 $F=3.518$ ,  $p=.061$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의 경우, 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도( $F=37.479$ ,  $p=.000$ )와 성별( $F=76.179$ ,  $p=.000$ )의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 $F=2.452$ ,  $p=.118$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의 경우, 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도( $F=38.080$ ,  $p=.000$ )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성별( $F=.940$ ,  $p=.332$ ),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 $F=.251$ ,  $p=.617$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아시안 정체성의 경우, 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도( $F=68.949$ ,  $p=.000$ )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성별( $F=.642$ ,  $p=.423$ )과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 $F=.083$ ,  $p=.773$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의 경우, 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도( $F=59.403$ ,  $p=.000$ )와 성별( $F=23.953$ ,  $p=.000$ )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 ( $F=.031$ ,  $p=.861$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 4) 국제/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학교 밖 활동)에 따른 시민의식

학교 밖 국제/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 수준별 시민의식 전체와 8개 하위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표 VI-8 국제/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학교 밖 활동)에 따른 시민의식 기술통계량**

구분	남		여	
	상위 집단	하위 집단	상위 집단	하위 집단
학교 밖 활동				
시민 의식(전체)	3.11(0.34)	3.21(0.29)	3.02(0.33)	3.05(0.30)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2.93(0.82)	2.91(0.74)	3.32(0.62)	3.05(0.70)
권위에의 복종적 태도	2.73(0.78)	2.81(0.76)	3.00(0.62)	2.90(0.64)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3.29(0.55)	3.03(0.62)	3.30(0.49)	3.04(0.55)
법 체계에 대한 신뢰	2.55(0.76)	2.57(0.72)	2.52(0.66)	2.60(0.62)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3.15(0.74)	3.09(0.67)	3.41(0.54)	3.20(0.58)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3.24(0.61)	3.01(0.71)	3.22(0.55)	3.04(0.58)
아시아 정체성	3.42(0.53)	3.30(0.59)	3.41(0.46)	3.27(0.51)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	3.20(0.49)	3.09(0.55)	3.11(0.46)	3.00(0.49)

<표 VI-8>을 바탕으로 평균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평균차이 검증은 시민의식 평균차이에 대한 각 배경요인의 주효과와 배경요인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시민의식 전체와 8개 하위요인의 평균차이 검증 결과는 아래와 같다.

시민의식 전체의 경우, 학생의 국제/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학교 밖 활동)( $F=74.641, p=.000$ )과 성별( $F=21.163, p=.000$ )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 $F=4.627, p=.032$ )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값을 보였다.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의 경우, 학생의 국제/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학교 밖 활동)( $F=18.641, p=.000$ )과 성별( $F=63.530, p=.000$ )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 $F=14.085, p=.000$ )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를 나타냈다. 권위에의 복종적 태도의 경우, 학생의 국제/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학교 밖 활동)( $F=.128, p=.721$ )의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성별( $F=32.708, p=.000$ )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한편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 $F=7.573, p=.006$ )는 99% 유의수준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의 경우, 학생의 국제/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학교 밖 활동)( $F=104.450, p=.000$ )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성별( $F=.084, p=.771$ ),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 $F=.017, p=.897$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법체계에 대한 신뢰의 경우,

학생의 국제/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학교 밖 활동)( $F=2.356, p=.125$ )은 95% 유의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주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성별( $F=.038, p=.846$ )에 따른 차이도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 $F=.906, p=.341$ )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의 경우, 학생의 국제/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학교 밖 활동)( $F=20.610, p=.000$ )과 성별( $F=41.048, p=.000$ )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 $F=6.958, p=.008$ )도 99% 유의수준을 만족시켰다.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의 경우, 학생의 국제/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학교 밖 활동)( $F=50.984, p=.000$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성별( $F=.151, p=.698$ )과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 $F=.671, p=.413$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아시안 정체성의 경우, 학생의 국제/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학교 밖 활동)( $F=29.403, p=.000$ )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성별( $F=.507, p=.476$ ) 차이와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 $F=.155, p=.694$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의 경우, 학생의 국제/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학교 밖 활동)( $F=24.982, p=.000$ )과 성별( $F=14.580, p=.002$ )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 $F=.014, p=.907$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 5) 학교 밖 집단 활동에 따른 시민의식

학교 밖 사회적 집단활동 수준별 시민의식 전체와 8개 하위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표 VI-9 학교 밖 집단 활동 참여에 따른 시민 의식 기술통계량

구분	남		여	
	상위 집단	하위 집단	상위 집단	하위 집단
학교 밖 집단 활동 참여				
시민 의식(전체)	3.10(0.32)	3.02(0.33)	3.18(0.29)	3.11(0.30)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2.90(0.81)	2.91(0.76)	3.21(0.67)	3.19(0.67)
권위예의 복종적 태도	2.73(0.79)	2.80(0.78)	2.95(0.65)	2.96(0.64)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3.29(0.55)	3.06(0.62)	3.29(0.47)	3.12(0.53)
법체계에 대한 신뢰	2.56(0.73)	2.58(0.71)	2.56(0.68)	2.54(0.63)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3.11(0.71)	3.09(0.70)	3.38(0.55)	3.27(0.57)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3.20(0.66)	3.03(0.71)	3.21(0.56)	3.10(0.55)
아시안 정체성	3.44(0.51)	3.29(0.60)	3.40(0.47)	3.30(0.51)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	3.18(0.51)	3.09(0.53)	3.07(0.46)	3.05(0.47)

<표 VI-9>을 바탕으로 평균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평균차이 검증은 시민의식 평균차이에 대한 각 배경요인의 주효과와 배경요인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시민의식 전체와 8개 하위요인의 평균차이 검증 결과는 아래와 같다.

시민의식 전체의 경우, 학생의 학교 밖 집단 활동 참여( $F=27.554, p=.000$ )와 성별( $F=34.966, p=.000$ )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 $F=.000, p=.994$ )는 유의미한 신뢰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의 경우, 학생의 학교 밖 집단 활동 참여( $F=.006, p=.937$ )의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성별( $F=78.059, p=.000$ )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 $F=.200, p=.655$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권위예의 복종적 태도의 경우, 학생의 학교 밖 집단 활동 참여( $F=1.713, p=.191$ )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성별( $F=34.271, p=.000$ )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한편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 $F=.831, p=.362$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의 경우, 학생의 학교 밖 집단 활동 참여( $F=66.979, p=.000$ )의 주효과는 유의하였으나, 성별( $F=1.483, p=.223$ ),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 $F=1.430, p=.232$ )는 95% 유의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법체계에 대한 신뢰의 경우, 학생의 학교 밖 집단 활동 참여( $F=.001, p=.972$ )의 주효과, 성별( $F=.544, p=.461$ )의 차이,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 $F=.320, p=.572$ )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의 경우, 학생의 학교 밖 집단 활동 참여( $F=4.631, p=.032$ )와 성별( $F=60.510, p=.000$ )의 주효과가 나타났으나,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 $F=2.184, p=.140$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의 경우, 학생의 학교 밖 집단 활동 참여( $F=21.233, p=.000$ )의 주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성별( $F=1.960, p=.162$ )과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 $F=1.080, p=.299$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아시안 정체성의 경우, 학생의 학교 밖 집단 활동 참여( $F=28.321, p=.000$ )의 주효과는 나타났으나, 성별( $F=.600, p=.439$ )과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 $F=1.134, p=.287$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의 경우, 학생의 학교 밖 집단 활동 참여( $F=5.681, p=.017$ )와 성별( $F=11.291, p=.001$ )의 주효과가 존재하였다. 그러나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 ( $F=2.363, p=.124$ )는 95% 유의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6) 학교 내 활동(교실개방성)에 따른 시민의식

교실개방성 수준별 시민의식 전체와 8개 하위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표 VI-10 학교 내 활동(교실개방성)에 따른 시민 의식 기술통계량

구분 학교 내 활동 (교실개방성)	남		여	
	상위 집단	하위 집단	상위 집단	하위 집단
시민 의식(전체)	3.23(0.32)	3.02(0.33)	3.24(0.34)	3.10(0.30)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2.95(0.89)	2.94(0.75)	3.19(0.81)	3.18(0.65)
권위에의 복종적 태도	2.83(0.85)	2.80(0.77)	2.86(0.70)	2.96(0.64)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2.83(0.85)	2.80(0.77)	2.86(0.70)	2.96(0.64)
법체계에 대한 신뢰	2.63(0.73)	2.50(0.74)	2.81(0.61)	2.47(0.65)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3.27(0.73)	3.11(0.69)	3.40(0.56)	3.29(0.56)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3.30(0.71)	3.07(0.67)	3.23(0.60)	3.14(0.57)
아시아 정체성	3.59(0.51)	3.29(0.57)	3.50(0.51)	3.28(0.51)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	3.32(0.50)	3.09(0.54)	3.19(0.50)	3.02(0.48)

<표 VI-10>을 바탕으로 평균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평균차이 검증은 시민의식 평균차이에 대한 각 배경요인의 주효과와 배경요인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시민의식 전체와 8개 하위요인의 평균차이 검증 결과는 아래와 같다.

시민의식 전체의 경우, 교실개방성(학교 내 활동)( $F=68.017, p=.000$ )과 성별 ( $F=5.167, p=.023$ )의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 $F=2.285, p=.131$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의 경우, 교실개방성(학교 내 활동)( $F=.034, p=.853$ )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성별( $F=25.429, p=.000$ )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한편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 $F=.006, p=.938$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권위에의 복종적 태도의 경우, 교실개방성(학교 내 활동)( $F=.313, p=.565$ )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성별( $F=4.073, p=.044$ )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 $F=1.971, p=.161$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의 경우, 교실개방성(학교 내 활동)( $F=88.096, p=.000$ )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성별 ( $F=.214, p=.644$ )과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 $F=1.961, p=.162$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법체계에 대한 신뢰의 경우, 교실개방성(학교 내 활동)( $F=27.092, p=.000$ )의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성별( $F=2.872, p=.090$ )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 $F=5.452, p=.020$ )는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의 경우, 교실개방성(학교 내 활동)( $F=11.453, p=.001$ )과 성별( $F=14.117, p=.000$ )의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 $F=.365, p=.546$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의 경우, 교실개방성(학교 내 활동)( $F=15.143, p=.000$ )의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그러나 성별( $F=.000, p=.989$ )의 차이와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 $F=3.422, p=.064$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신뢰수준(95%)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아시안 정체성의 경우, 교실개방성(학교 내 활동)( $F=57.125, p=.000$ )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성별( $F=2.187, p=.139$ )과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 $F=1.387, p=.239$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의 경우, 교실개방성(학교 내 활동)( $F=34.998, p=.000$ )과 성별( $F=9.178, p=.002$ )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 $F=.768, p=.381$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 7)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학교 내 활동)에 따른 시민의식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 수준별 시민의식 전체와 8개 하위요인의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표 VI-11** 성별과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학교 내 활동)에 따른 시민 의식 기술통계량

구분	남		여	
	상위 집단	하위 집단	상위 집단	하위 집단
학교 내 활동(교사지원)				
시민 의식(전체)	3.32(0.50)	3.09(0.54)	3.19(0.50)	3.02(0.48)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2.98(0.81)	2.87(0.79)	3.30(0.63)	3.14(0.71)
권위에의 복종적 태도	2.79(0.80)	2.99(0.80)	2.92(0.66)	3.08(0.66)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3.29(0.57)	2.99(0.67)	3.33(0.48)	3.05(0.62)
법체계에 대한 신뢰	2.70(0.74)	2.25(0.73)	2.70(0.65)	2.24(0.65)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3.21(0.71)	3.16(0.66)	3.41(0.54)	3.29(0.59)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3.25(0.65)	2.94(0.81)	3.26(0.53)	3.10(0.61)
아시안 정체성	3.52(0.50)	3.51(0.44)	3.14(0.67)	3.16(0.55)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	3.24(0.50)	2.96(0.64)	3.14(0.48)	3.01(0.50)

<표 VI-11>을 바탕으로 평균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평균차이 검증은 시민의식 평균차이에 대한 각 배경요인의 주효과와 배경요인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시민의식 전체와 8개 하위요인의 평균차이 검증 결과는 아래와 같다.

시민의식 전체의 경우,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학교 내 활동)( $F=113.392$ ,  $p=.000$ )과 성별( $F=22.186$ ,  $p=.000$ )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 $F=.602$ ,  $p=.438$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의 경우,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학교 내 활동)( $F=8.731$ ,  $p=.003$ )과 성별( $F=41.262$ ,  $p=.000$ )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 $F=.198$ ,  $p=.656$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값을 보이지 못했다. 권위에의 복종적 태도의 경우,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학교 내 활동)( $F=16.050$ ,  $p=.000$ )과 성별( $F=5.824$ ,  $p=.016$ )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 $F=.265$ ,  $p=.607$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의 경우,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학교 내 활동)( $F=72.363$ ,  $p=.000$ )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성별( $F=1.814$ ,  $p=.178$ )과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 $F=.070$ ,  $p=.791$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법체계에 대한 신뢰의 경우,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학교 내 활동)( $F=110.405$ ,  $p=.000$ )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성별( $F=.017$ ,  $p=.898$ )과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 $F=.034$ ,  $p=.853$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의 경우,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학교 내 활동)( $F=4.330$ ,  $p=.038$ )과 성별( $F=16.975$ ,  $p=.000$ )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 $F=.828$ ,  $p=.363$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의 경우,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학교 내 활동)( $F=37.313$ ,  $p=.000$ )과 성별( $F=4.630$ ,  $p=.032$ )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 $F=3.746$ ,  $p=.053$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아시안 정체성의 경우,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학교 내 활동)( $F=140.075$ ,  $p=.000$ )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성별( $F=.048$ ,  $p=.827$ )과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 $F=.165$ ,  $p=.684$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의 경우,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학교 내 활동)( $F=43.021$ ,  $p=.000$ )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성별( $F=.754$ ,  $p=.385$ )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 $F=5.147$ ,  $p=.024$ )는 95% 유의수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8) 학교 활동에의 학생 참여 인식(학교 내 활동)에 따른 시민의식

학교 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 수준별 시민의식 전체와 8개 하위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표 VI-12 성별과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학교 내 활동)에 따른 시민 의식 기술통계량**

구분	남		여	
	상위 집단	하위 집단	상위 집단	하위 집단
학교 내 활동 (학생참여인식)				
시민 의식(전체)	3.23(0.31)	2.96(0.29)	3.31(0.27)	3.04(0.28)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2.99(0.86)	2.86(0.73)	3.32(0.71)	3.14(0.62)
권위에의 복종적 태도	2.79(0.86)	2.76(0.71)	2.98(0.69)	2.93(0.61)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3.41(0.55)	3.00(0.56)	3.44(0.47)	3.05(0.50)
법체계에 대한 신뢰	2.69(0.78)	2.47(0.69)	2.64(0.71)	2.50(0.59)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3.26(0.73)	3.03(0.64)	3.49(0.54)	3.23(0.53)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3.33(0.65)	2.99(0.64)	3.35(0.54)	3.05(0.55)
아시아 정체성	3.61(0.46)	3.19(0.55)	3.59(0.44)	3.20(0.48)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	3.32(0.49)	3.03(0.49)	3.21(0.47)	2.95(0.45)

<표 VI-12>를 바탕으로 평균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평균차이 검증은 시민의식 평균차이에 대한 각 배경요인의 주효과와 배경요인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시민의식 전체와 8개 하위요인의 평균차이 검증 결과는 아래와 같다.

시민의식 전체의 경우,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학교 내 활동)( $F=548.968, p=.000$ )과 성별( $F=52.054, p=.000$ )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 $F=.144, p=.705$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의 경우,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학교 내 활동)( $F=28.973, p=.000$ )과 성별( $F=108.228, p=.000$ )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 $F=.687, p=.407$ )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권위에의 복종적 태도의 경우,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학교 내 활동)( $F=1.935, p=.164$ )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성별( $F=38.564, p=.000$ )의 차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 $F=.166, p=.684$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의 경우,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학교 내 활동)( $F=367.961, p=.000$ )과 성별( $F=4.411,$

$p=.036$ )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 $F=.282, p=.596$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법체계에 대한 신뢰의 경우,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학교 내 활동)( $F=43.761, p=.000$ )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성별( $F=.128, p=.721$ )과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 $F=2.016, p=.156$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의 경우,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학교 내 활동)( $F=97.183, p=.000$ )과 성별( $F=74.070, p=.000$ )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 $F=.651, p=.420$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의 경우,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학교 내 활동)( $F=173.788, p=.000$ )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성별( $F=2.125, p=.145$ )과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 $F=.739, p=.390$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아시안 정체성의 경우,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학교 내 활동)( $F=421.610, p=.000$ )의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성별( $F=.072, p=.789$ )과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 $F=.971, p=.324$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값이 도출되지 않았다.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의 경우,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학교 내 활동)( $F=213.945, p=.000$ )과 성별( $F=24.190, p=.000$ )의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 $F=.956, p=.328$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이 도출되지 않았다.

### 3. 2009년-2016년 한국 청소년의 아시아 시민의식 비교

2009년과 2016년도에 수집된 자료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한국 청소년의 아시아 시민의식 수준의 시계열적 차이를 검증하였다. 또한, 시민의식 수준의 차이가 단순히 시간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의 영향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앞선 하위연구에서 설정한 관련 배경요인을 적용하여 시민의식 수준 차이의 영향요인을 탐색하였다.

#### 1) 아시아 청소년 시민의식의 시계열적 차이 검증

<표 VI-13>에 제시된 2009년과 2016년 수집자료상의 기술통계치를 바탕으로 아시아 청소년 시민의식 수준의 시계열적 평균차이를 검증하였다.

표 VI-13 집단별 기술통계치 요약

변인	하위집단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평균차이 (B-A)
아시아 청소년 시민의식(전체)	2009년(A)	5,127	3.06	0.28	0.004	0.03
	2016년(B)	2,863	3.10	0.32	0.006	
	전체	7,990	3.08	0.29	0.003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2009년(A)	5,233	3.11	0.56	0.008	-0.06
	2016년(B)	2,963	3.05	0.73	0.013	
	전체	8,196	3.09	0.63	0.007	
권위예의 복종적 태도	2009년(A)	5,238	2.89	0.60	0.008	-0.04
	2016년(B)	2,967	2.85	0.72	0.013	
	전체	8,205	2.88	0.64	0.007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2009년(A)	5,237	3.00	0.51	0.007	0.17
	2016년(B)	2,960	3.17	0.55	0.010	
	전체	8,197	3.06	0.53	0.006	
법체계에 대한 신뢰	2009년(A)	5,241	2.69	0.45	0.006	-0.12
	2016년(B)	2,964	2.56	0.69	0.013	
	전체	8,205	2.64	0.55	0.006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2009년(A)	5,219	3.20	0.50	0.007	0.01
	2016년(B)	2,942	3.21	0.63	0.012	
	전체	8,161	3.21	0.55	0.006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2009년(A)	5,226	3.17	0.50	0.007	-0.04
	2016년(B)	2,950	3.14	0.62	0.011	
	전체	8,176	3.16	0.55	0.006	
아시아 정체성	2009년(A)	5,233	3.17	0.50	0.007	0.18
	2016년(B)	2,954	3.35	0.53	0.010	
	전체	8,187	3.24	0.52	0.006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	2009년(A)	5,224	3.02	0.44	0.006	0.08
	2016년(B)	2,949	3.09	0.50	0.009	
	전체	8,173	3.04	0.46	0.005	

<표 VI-13>에 제시된 2009년~2016년도 간 평균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민의식 전체의 경우, 2009년과 2016년 양 집단 간 평균차이는 0.03(2009년: 3.07, 2016년: 3.10)으로 2016년이 높게 나타났다. 양 집단 간의 이러한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24.32, p=.000$ ). 이는 다소 미약하지만, 통합적 관점에서 한국 청소년의 시민의식이 시간에 따라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먼저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의 경우, 양 집단 간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수준의 평균차이는 0.06(2009년: 3.11, 2016년: 3.05)으로 2009년이 높게 나타났다. 양 집단 간의

이러한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15.89, p=.000$ ).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은 정부가 보다 나은 결과 또는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면 비민주적이거나 권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느냐에 대한 학생들의 허용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 평균차이 검증 결과에 비춰보면, 오늘날의 학생들은 이전에 비해 정부는 공공의 선을 위한 비민주적, 권위적 역할 수행을 덜 허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목적에 상관없이 정부의 민주적, 탈권위적 역할수행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강화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권위에의 복종적 태도의 경우, 양 집단 간 권위에의 복종적 태도 수준의 평균차이는 0.04(2009년: 2.89, 2016년: 2.85)으로 2009년이 높게 나타났으며 양 집단 간의 이러한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5.85, p<.05$ ). 평균차이 검증 결과에 비춰보면, 오늘날의 학생들은 이전에 비해 의사결정 상황에서 자신의 의견이나 의지보다 부모, 교사, 기타 권위자의 의견이나 의지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약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의 경우, 양 집단 간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수준의 평균차이는 0.17(2009년: 3.00, 2016년: 3.17)으로 2016년이 높게 나타났으며 양 집단 간의 이러한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199.37, p=.000$ ). 평균차이 검증 결과에 비춰보면, 오늘날의 학생들은 이전에 비해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 및 보존의 필요성을 더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법체계에 대한 신뢰의 경우, 양 집단 간 법체계에 대한 신뢰 수준의 평균차이는 0.12(2009년: 2.69, 2016년: 2.56)으로 2009년이 높게 나타났으며 양 집단 간의 이러한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97.21, p=.000$ ). 평균차이 검증 결과에 비춰보면, 오늘날의 학생들은 이전에 비해 법체계에 대한 신뢰 수준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의 경우, 양 집단 간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수준의 평균차이는 0.01(2009년: 3.20, 2016년: 3.21)으로 2016년이 높게 나타났지만, 양 집단 간의 이러한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F=0.32, p=.572$ ). 평균차이 검증 결과에 비춰보면, 오늘날의 학생들은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공공관련 부정행위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의 경우, 양 집단 간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수준의 평균차이는 0.04(2009년: 3.17, 2016년: 3.14)로 2009년이 높게 나타났으며 양 집단 간의 이러한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8.57, p=.003$ ). 평균차이 검증 결과에 비춰보면, 오늘날의 학생들은 이전에 비해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요구수준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시안 정체성의 경우, 양 집단 간 아시안 정체성 수준의 평균차이는 0.18(2009년: 3.17, 2016년: 3.35)으로 2016년 이 높게 나타났으며 양 집단 간의 이러한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221.17, p=.000$ ). 평균차이 검증 결과에 비춰보면, 오늘날

의 학생들은 이전에 비해 아시아 지역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더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의 경우, 양 집단 간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 수준의 평균차이는 0.08(2009년: 3.02, 2016년: 3.09)로 2016년이 높게 나타났으며 양 집단 간의 이러한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53.70, p=.000$ ). 평균차이 검증 결과에 비추보면, 오늘날의 학생들은 이전에 비해 바람직한 시민의 핵심요건으로서의 도덕성에 대한 중요성을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2) 아시아 청소년 시민의식 수준의 시계열적 차이에 대한 영향요인

앞선 시민의식 수준의 시계열적 차이 검증 결과,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를 제외한 나머지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시계열적 평균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앞서 제시한 관련 배경요인을 잠재적인 영향요인으로 설정하고 <표 VI-14>와 같이 2009년도와 2016년도의 전체 시민의식 평균차이를 검증하였다.

**표 VI-14 집단 간 통제변인 별 전체 시민의식 수준 평균차이 검증결과 요약**

통제변인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유의수준
성별	1.967	1	1.967	23.09***	.000
응답자 기대학력	3.314	1	3.314	40.48***	.000
부모 학력	0.852	1	0.852	9.98**	.002
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도	0.994	1	0.994	11.96**	.001
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	2.356	1	2.356	28.45***	.000
학교 밖 집단 활동 참여	1.255	1	1.255	14.62***	.000
교실개방성	1.870	1	1.870	21.64***	.000
교사의 학생 지지 및 지원	2.618	1	2.618	31.75***	.000
학생의 학교활동 참여 인식	0.014	1	0.014	0.18	.670

\* $p<.05$  \*\* $p<.01$  \*\*\* $p<.001$

각 통제 변인 별 분석 결과 학생의 학교활동 참여 인식을 제외하고는 모든 통제 변인 별 시계열적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즉, 성별, 응답자 기대학력, 부모 학력, 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도, 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 학교 밖 집단 활동 참여, 교실개방성, 교사의 학생 지지 및 지원, 학생의 학교활동 참여 인식 모두가 시계열적인 차이를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 제 VII 장

# 청소년 역량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특성 분석

1. 청소년 역량관련 지방자치단체  
정책현황
2. 청소년 역량관련 청소년 활동시설  
프로그램의 경향적 특성



## 제 VII 장

# 청소년 역량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특성 분석<sup>23)</sup>

여기에서는 청소년 역량관련 지방자치단체 정책현황과 청소년 활동시설 프로그램들의 경향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전년도에 청소년 역량관련 해외 주요 정책현황과 국내 중앙정부의 정책현황을 살펴 본 것에 이어, 올해에는 청소년 역량관련 지방자치단체 정책들의 현황은 어떠한 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청소년 역량관련 지방자치단체 정책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은 청소년정책들이 수행되고 있어 정책적 시사점을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이다. 다음으로 청소년 활동시설 프로그램들의 경향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청소년활동프로그램들이 수행되고 있는 청소년 활동시설(보호, 복지시설 제외) 중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특화시설, 유스호스텔(야영장과 이용 시설은 제외)의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청소년 활동시설 프로그램들의 경향적 특성을 살펴보는 것도 정책적 시사점을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이다.

### 1. 청소년 역량관련 지방자치단체 정책현황

먼저, 전년도에 청소년 역량관련 중앙정부의 정책현황을 살펴본 것에 이어, 청소년 역량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국 청소년정책의 근간인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관계부처합동, 2012)은 크게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청소년 복지 및 자립지원, 청소년 친화적 환경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의 5대 영역 범주 하에 15개 중점과제, 75개 세부과제로 편제되어 있는데(관계부처합동, 2012; 여성가족부, 2016a, 2016b), 청소년기본법 제1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16조(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23) 이 부분은 이경상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의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해야 한다(청소년기본법, 2017.9.12; 청소년기본법시행령, 2017.9.12.).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2013~2017): 2016년도 시행계획(지방자치단체)(여성가족부, 2016a, 2016b)은 청소년기본법 제14조와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청소년기본법, 2017.9.12; 청소년기본법시행령, 2017.9.12.)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의 17개 시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2013~2017)의 5대 영역, 15개 중점과제, 75개 세부과제에 맞춰 2016년도에 추진할 총 943개의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이다(관계부처합동, 2012; 여성가족부, 2016a, 2016b). 943개의 사업수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특별시가 31개, 부산광역시가 50개, 대구광역시가 66개, 인천광역시가 48개, 광주광역시가 69개, 대전광역시가 41개, 울산광역시가 34개, 세종특별자치시가 51개, 경기도가 53개, 강원도가 57개, 충청북도가 72개, 충청남도가 53개, 전라북도가 84개, 전라남도가 59개, 경상북도가 71개, 경상남도가 34개, 제주특별자치도가 70개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여성가족부, 2016a, 2016b).

여기에서는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2013~2017)(관계부처합동, 2012)을 추진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2013~2017): 2016년도 시행계획(지방자치단체) 자료(여성가족부, 2016a, 2016b)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청소년 정책들 중 청소년 역량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들을 추출하여 이 연구의 역량분류의 범주인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사회참여역량의 다섯 부분에 재분류하는 방식으로 현황을 살펴보았다.

### 1) 생애학습역량 관련

생애학습역량 범주의 하위 범주에는 사고력(비판적 사고력, 감성적 사고력), 지적도구활용(언어능력, 수학능력, 과학능력, 정보통신활용능력), 학습적응성(변화수용력, 지적호기심, 학습주도성)이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2013~2017): 2016년도 시행계획(지방자치단체) 자료(여성가족부, 2016a, 2016b)에 제시된 지방자치단체들의 역량관련 정책들 중 생애학습역량과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정책들을 추출하여 사고력(비판적 사고력, 감성적 사고력), 지적도구활용(언어능력, 수학능력, 과학능력, 정보통신활용능력), 학습적응성(변화수용력, 지적호기심,

학습주도성)의 하위 범주에 배치하여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2013~2017): 2016년도 시행계획(지방자치단체)(여성가족부, 2016a, 2016b)의 정책들이 생애학습역량 범주를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사고력(비판적 사고력, 감성적 사고력) 범주에 관련되는 정책은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범주에도 기타(참여 및 권리증진, 복지 및 자립지원, 친화적 환경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범주에도 모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6a, 2016b). 그간 청소년 정책에서 사고력(비판적 사고력, 감성적 사고력) 범주에 관련되는 정책에는 많은 관심을 두지 않아왔음을 나타낸다.

지적도구활용(언어능력, 수학능력, 과학능력, 정보통신활용능력) 범주에 관련되는 정책은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범주 부분에서 우리마을 교육나눔 평가(대구시), 청소년 언어순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세종시),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_과학영재교육원 운영지원(강원도),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_청소년 사이버문학마당 운영(강원도),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_청소년 창작영상제 개최(강원도),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확산 추진\_영어체험캠프(전라남도),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_경상북도 청소년 영어응변대회(경상북도), 다문화 프로젝트 추진\_다문화가족자녀 공부방 운영(울산시), 구군 우리마을 교육나눔 운영(대구시), 구군 우리마을 교육나눔 지원(대구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6a, 2016b).

기타(참여 및 권리증진, 복지 및 자립지원, 친화적 환경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범주 부분에서도 취약계층 및 맞벌이가정 청소년 방과 후 지원기능 강화\_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서울시), 취약계층 및 맞벌이가정 청소년 방과 후 지원기능 강화\_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서울시), 취약계층 및 맞벌이가정 청소년 방과 후 지원기능 강화\_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운영지원(서울시), 이주배경 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사회적응 강화\_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부산시), 취약계층 및 맞벌이가정 청소년 방과 후 지원 기능 강화\_지역사회 토요스쿨 운영지원(부산시), 취약계층 및 맞벌이가정 청소년 방과 후 지원 기능 강화\_저소득층 청소년 토요문화학습장 운영(부산시), 취약계층 및 맞벌이가정 청소년 방과 후 지원 기능 강화\_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부산시), 취약계층 및 맞벌이가정 청소년 방과 후 지원 기능 강화\_청소년 공부방 운영(부산시), 취약계층 및 맞벌이가정 청소년 방과 후 지원 기능 강화\_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부산시), 미디어콘텐츠 소비자로서의 청소년권리 보호 강화\_토요체험프로그램 경제야놀자(대구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부교재비 지원(대구시), 취약계층 및 맞벌이가정 청소년

방과 후 지원 기능 강화\_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대구시),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 발달 지원(광주시),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광주시),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광주시), 학업 중단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강화\_청소년 야학 운영지원(광주시), 취약계층 및 맞벌이가정 청소년 방과후 지원 기능 강화(대전시), 다문화가족 자녀대상 방문 한국어 교육지원(울산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울산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세종시), 다문화가족 청소년 교육지원 강화(경기도),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경기도),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지원(경기도),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_남부(경기도),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_북부(경기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_남부(경기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_북부(경기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강원도),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충청북도), 한국어교육 운영지원사업(충청북도),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충청북도), 방과후보육료 지원(충청북도), 청소년방과후활동 지원(충청북도), 방과후 아카데미(충청남도),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전라북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전라북도),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전라남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전라남도),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 대회(경상북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경상북도),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경상북도),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경상남도),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경상남도), 취약계층 및 맞벌이 가정 청소년 방과후 지원 기능 강화(제주도)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6a, 2016b).

학습적응성(변화수용력, 지적호기심, 학습주도성) 범주에 관련되는 정책은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범주 부분에는 없고, 기타(참여 및 권리증진, 복지 및 자립지원, 친화적 환경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범주 부분에서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 확대\_다문화가족 청소년 지원(부산시), 학교일탈 대안프로그램 운영(강원도), 미혼모 대안학교 운영지원(충청북도), 학업중단청소년 지원사업(충청북도), 청소년대안학교운영(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학업중단 숙려제(충청남도),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사업(경상북도), 학교 밖 위기청소년 맞춤형 자립지원 사업(경상북도), 비정규학교 운영지원(경상북도), 학교밖 청소년 통합지원프로그램 운영/ 꿈드림(경상남도), 학업중단 숙려제 상담(제주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제주도)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6a, 2016b).

이러한 결과는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2013~2017): 2016년도 시행계획(지방자치단체)(여성가족부, 2016a, 2016b)의 정책들이 지적도구활용(언어능력, 수학능력, 과학능력, 정보통신활용능력) 범주 부분에 집중되어 있고, 학습적응성(변화수용력, 지적호기심, 학습주도성) 범주 부분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두고 있으며, 사고력(비판적 사고력, 감성적 사고력) 범주 부분에는

많은 관심을 두지 않아왔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 연구의 청소년 역량 측정결과를 살펴보면, 생애학습역량의 경우에는 사고력 > 학습적응성 > 지적도구활용 역량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근희, 2015; 장근영, 성은모, 이경상, 진성희, 최효선, 김근희, 2016). 따라서 현재와 같이 지적도구활용(언어능력, 수학능력, 과학능력, 정보통신활용능력), 학습적응성(변화수용력, 지적호기심, 학습주도성), 사고력(비판적 사고력, 감성적 사고력) 범주의 순으로 정책적 관심을 두어온 것은 비교적 잘 한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에도 지적도구활용(언어능력, 수학능력, 과학능력, 정보통신활용능력), 학습적응성(변화수용력, 지적호기심, 학습주도성), 사고력(비판적 사고력, 감성적 사고력) 범주의 순으로 정책적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VII-1 생애학습역량 관련 정책들**

구분	제5차 기본계획-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제 5 차 기본계획-기타 (참여 및 권리증진, 복지 및 자립지원, 친화적 환경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	청소년의 인성교육 강화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사고력	-	-	-	-	
생애 학습 역량	지적 도구 활용	-	다문화 프로젝트 추진_다문화가족 자녀 공부방 운영 (울산시)	구군 우리마을 교 육나눔 운영(대 구시)	취약계층 및 맞벌이가정 청소년 방과 후 지원기능 강화_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서울시)
		우리마을 교육나눔 평가(대 구시)	-	구군 우리마을 교육 나눔 지원(대구시)	취약계층 및 맞벌이가정 청소년 방과 후 지원기능 강화_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서울시)
		청소년 언어순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세종시)	-	-	취약계층 및 맞벌이가정 청소년 방과 후 지원기능 강화_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운영지원(서울시)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_과학영재교육원 운영지원(강원도)	-	-	이주배경 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사회적응 강화_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부산시)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 화_청소년 사이버문학마당 운영(강원도)	-	-	취약계층 및 맞벌이가정 청소년 방과 후 지원 기능 강화_지역사회 토요스쿨 운영지원(부산시)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 화_청소년 창작영상제 개최 (강원도)	-	-	취약계층 및 맞벌이가정 청소년 방과 후 지원 기능 강화_저소득층 청소년 토요문화학습장 운 영(부산시)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확산 추 진_영어체험캠프(전라남도)	-	-	취약계층 및 맞벌이가정 청소년 방과 후 지원 기능 강화_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부산시)

구분	제5차 기본계획-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제 5 차 기본계획-기타 (참여 및 권리증진, 복지 및 자립지원, 친화적 환경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글로벌, 다문화 역량 강화	청소년의 인성교육 강화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_경상북도 청소년 영어응변대회(경상북도)	-	-	취약계층 및 맞벌이 가정 청소년 방과 후 지원 기능 강화_청소년 공부방 운영(부산시)
	-	-	-	취약계층 및 맞벌이 가정 청소년 방과 후 지원 기능 강화_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부산시)
	-	-	-	미디어콘텐츠 소비자로서의 청소년권리 보호 강화_토요체험프로그램 경제아날자(대구시)
	-	-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부교재비 지원(대구시)
	-	-	-	취약계층 및 맞벌이 가정 청소년 방과 후 지원 기능 강화_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대구시)
	-	-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 발달 지원(광주시)
	-	-	-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광주시)
	-	-	-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광주시)
	-	-	-	학업중단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강화_청소년 야학 운영지원(광주시)
	-	-	-	취약계층 및 맞벌이 가정 청소년 방과후 지원 기능 강화(대전시)
	-	-	-	다문화가족 자녀대상 방문 한국어 교육지원(울산시)
	-	-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울산시)
	-	-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세종시)
	-	-	-	다문화가족 청소년 교육지원 강화(경기도)
	-	-	-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경기도)
	-	-	-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지원(경기도)
	-	-	-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_남부(경기도)
	-	-	-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_북부(경기도)
	-	-	-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_남부(경기도)
	-	-	-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_북부(경기도)
	-	-	-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강원도)
	-	-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충청북도)
	-	-	-	한국어교육 운영지원사업(충청북도)
	-	-	-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충청북도)

구분	제5차 기본계획-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제 5 차 기본계획-기타 (참여 및 권리증진, 복지 및 지원지원, 친화적 환경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	청소년의 인성교육 강화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학습 적응성	-	-	-	방과후보육료 지원(충청북도)
	-	-	-	청소년방과후활동 지원(충청북도)
	-	-	-	방과후 아카데미(충청남도)
	-	-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전라북도)
	-	-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전라북도)
	-	-	-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전라북도)
	-	-	-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전라남도)
	-	-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전라남도)
	-	-	-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 대회(경상북도)
	-	-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경상북도)
	-	-	-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경상북도)
	-	-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경상남도)
	-	-	-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경상남도)
	-	-	-	취약계층 및 맞벌이 가정 청소년 방과후 지원 기능 강화(제주도)
	-	-	-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 확대_다문화가족 청소년 지원(부산시)
	-	-	-	학교일탈 대안프로그램 운영(강원도)
	-	-	-	미혼모 대안학교 운영지원(충청북도)
	-	-	-	학업중단청소년 지원사업(충청북도)
	-	-	-	청소년대안학교운영(충청남도)
	-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학업중단 숙려제(충청 남도)
	-	-	-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사업(경상북도)
	-	-	-	학교 밖 위기청소년 맞춤형 자립지원 사업(경상북도)
	-	-	-	비정규학교 운영지원(경상북도)
	-	-	-	학교밖 청소년 통합지원프로그램 운영/ 꿈드림 (경상남도)
	-	-	-	학업중단 숙려제 상담(제주도)
	-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제주도)

출처 : 여성가족부, 2016a, 2016b를 바탕으로 역량지표에 맞게 재구성한 것임. 역량지표는 성은모, 백혜정, 진성희, 2014, pp.198-199, pp. 207-213 참조.

## 2) 생활관리역량 관련

생활관리역량 범주의 하위 범주에는 건강관리(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신체관리, 위생관리), 과제관리(목표 및 계획수립, 수행 및 평가), 상황대처(중독행동, 폭력행동, 중독인식, 폭력회피), 정서조절(감정인식, 분노행동, 감정절제, 조절실패)가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2013~2017): 2016년도 시행계획(지방자치단체) 자료(여성가족부, 2016a, 2016b)에 제시된 지방자치단체들의 역량관련 정책들 중 생활관리역량과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정책들을 추출하여 건강관리(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신체관리, 위생관리), 과제관리(목표 및 계획수립, 수행 및 평가), 상황대처(중독행동, 폭력행동, 중독인식, 폭력회피), 정서조절(감정인식, 분노행동, 감정절제, 조절실패)의 하위 범주에 배치하여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2013~2017): 2016년도 시행계획(지방자치단체)(여성가족부, 2016a, 2016b)의 정책들이 생활관리역량 범주를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건강관리(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신체관리, 위생관리) 범주에 관련되는 정책은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범주 부분에서 어린이 그리기, 글짓기 공모전(충청북도),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환경 조성\_청소년활동 안전관리 지원 사업(경상북도)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6a, 2016b).

기타(참여 및 권리증진, 복지 및 자립지원, 친화적 환경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범주 부분에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확대 강화\_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지원(서울시), 가출청소년 가정복귀 등 보호 지원(서울시), 위기,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역량 강화\_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서울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강화\_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서울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강화\_어려운 청소년 지원 등(서울시), 성범죄등으로 안전한 환경조성\_건전성가치관 교육 및 체험시설 운영(서울시), 청소년 유해환경개선 및 감시 강화\_청소년유해환경정화활동 사업 지원(서울시), 한부모 및 조손가정, 청소년 한부모 지원확대\_한부모 청소년 자립지원(부산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확대 강화\_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지원(부산시), 위기청소년 선제적 발굴 체계 구축\_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부산시), 가출 청소년 가정복귀 등 보호 지원\_청소년 쉼터 운영(부산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강화\_청소년 특별지원 사업(부산시), 성범죄등으로 안전한 환경조성\_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부산시), 아동 및 청소년 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_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지원(부산시), 청소년 유해환경개선 및 감시 강화\_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부산시), 청소년 유해환경개선 및 감시

강화\_구,군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부산시), 학교-지역사회 건강관리 연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건강지원강화\_학교무료급식지원(대구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확대\_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대구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확대\_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대구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확대\_청소년 상담 및 부모교육 활성화(대구시), 가출청소년 가정복귀 등 보호지원\_청소년 쉼터 운영(대구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강화\_청소년 특별지원(대구시), 가족상담 및 가족 공유시간 확대 여건 조성\_찾아가는 부모교육(대구시), 가족상담 및 가족 공유시간 확대 여건 조성\_즐거운 주말 가족친화(대구시), 성범죄등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_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지정(대구시), 성범죄등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_청소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실태조사(대구시), 성범죄등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_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대구시), 청소년 유해환경개선 및 감시강화\_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대구시), 청소년 유해환경개선 및 감시강화\_청소년선도,보호대책 추진평가(대구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확대 강화\_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인천시), 위기청소년 선제적 발굴체계 구축\_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인천시), 학업중단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강화\_미인가 대안교육 기관 급식비 지원(인천시), 가출청소년 가정복귀 등 보호 지원\_청소년 쉼터운영 지원사업(인천시), 가출청소년 가정복귀 등 보호 지원\_청소년 자립지원관 운영 지원사업(인천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강화\_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인천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중심의 지역사회 아동 및 청소년 종합안전망 구축(인천시), 성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_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인천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감시 강화\_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인천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감시 강화\_청소년 스스로지킴이(인천시), 인천청소년 유관기관 공동협력사업\_청소년금연건강 마라톤대회(인천시), 청소년 체력 강화\_클럽대항 청소년 생활체육대회 개최(광주시), 청소년 체력 강화\_유소년 생활체육교실 운영(광주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상시상담 체계구축(광주시), 청소년한부모가구 임대보증금 지원(광주시),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광주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지원(광주시),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광주시), 가출청소년 가정복귀 등 보호지원\_청소년 쉼터 운영(광주시), 소년원 출원 청소년 회복지원 프로그램 운영(광주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서비스 제공(광주시), 청소년 주거지원\_남도학숙(광주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광주시), 위기가족 및 위기청소년 회복지원 프로그램 운영(광주시), 어린이,청소년 실태조사(광주시), 청소년 건전성가치관 교육 및 체험시설 운영(광주시), 아동안전지도 제작 지원(광주시), 청소년활동 안전관리 지원(광주시), 청소년 안전점검단 구성 운영(광주시), 아동, 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광주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감시 강화(광

주시), 보호관찰청소년 멘토프로그램 운영(광주시), 청소년 종합 레포츠펀터 운영(대전시),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 확대\_다문화가족 청소년 지원(대전시), 한부모 및 조손가정, 청소년 한부모 지원 확대(대전시),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강화(대전시),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대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대전시), 가출청소년 가정복귀 등 보호 지원(대전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강화(대전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중심의 지역사회 아동 및 청소년 종합안전망 구축(대전시), 성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_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대전시), 아동 및 청소년 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_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지원(대전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감시 강화(대전시), 청소년 안전 시민순찰대 운영(대전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대전시), 정서적, 행동적 장애 청소년 치료재활서비스 강화\_발달 재활서비스 사업(울산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울산시),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울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울산시), 가출청소년 가정복귀 등 보호지원\_청소년 쉼터 운영(울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울산시),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울산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울산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울산시), 청소년 체력강화(세종시), 학교-지역사회 건강관리 연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건강지원 강화(세종시), 청소년동반자를 통한 자살위기 청소년 사례관리(세종시), 청소년 자살예방교육 확대 실시(세종시),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도 검사 및 적절개입 프로그램 운영(세종시), 요보호아동 자립지원강화(세종시), 가출청소년 가정복귀 등 보호지원\_긴급구조(세종시), 학대피해 아동, 청소년 예방 및 보호지원 확대(세종시), 위기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역량 강화(세종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강화(세종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중심의 지역사회 아동 및 청소년 종합안전망 구축\_교사 및 학교지원단 구축(세종시), 성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_아동,청소년 폭력예방 교육(세종시), 성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_아름다운 사랑과 성교육(세종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점검(세종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감시강화(세종시), 청소년 흡연음주 예방 및 홍보 강화(세종시),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확대(세종시), 찾아가는 거리이동상담, 1388청소년전화 운영(세종시), 도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경기도), 시,군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_남부(경기도), 시,군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_북부(경기도), 평생교육시설 청소년 상담교사 지원(경기도), 도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_지방청소년 상담사업(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경기도),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_북부(경기도), 청소년 쉼터 운영 지원\_남부(경기도), 청소년 쉼터 운영 지원\_북부(경기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_남부(경기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_북부(경기도), 저소득층 자녀 생활학자금 지원(경기도),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중심의 지역사회 아동 및 청소년 종합안전망 구축\_도

청소년 통합지원(경기도),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중심의 지역사회 아동 및 청소년 종합안전망  
 구축\_시,군 청소년 통합지원\_남부(경기도),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중심의 지역사회 아동 및 청소년  
 종합안전망 구축\_시,군 청소년 통합지원\_북부(경기도),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경기도), 소방관  
 직업체험교실 및 119안전뉴스경연대회(경기도), 청소년 선도, 보호를 위한 지도점검 강화(경기  
 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지원 및 지원(경기도),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감시 강화(경기  
 도), 청소년육성기금 장학사업 및 건전활동 지원(강원도), 청소년 건전활동 지원(강원도),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강원도), 청소년쉼터 운영(강원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강화\_청소년 특별지  
 원(강원도),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강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강원도),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강원학사 운영(강원도),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강원도), 청소년 성문화센  
 터 운영(강원도), 청소년 안전관리 지원(강원도),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강원도), 청소년유  
 해환경감시단 광역협의회 운영(강원도),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전문인력 지원(강원도), 강원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강원도), 저소득,장애,농산어촌 청소년 복지서비스 강화(충청북도),  
 생활체육어린이 축구교실(충청북도), 충북꿈나무어린이 축구대회(충청북도),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도 검사 및 적절개입프로그램 개발 운영(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충청북  
 도), 미혼한부모 주거 지원(충청북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충청북도),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자녀교육비 지원(충청북도), 권역별 미혼모, 부자 지원기관 운영지원(충청북도), 요보호아동그룹  
 홈 운영(충청북도),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충청북도), 지역사회 청소년통합  
 지원체계 구축(충청북도),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충청북도), 청소년 상담지원 사업(충청북  
 도), 청소년쉼터 운영(충청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충청북도),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충청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충청북도),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충청북도), 충북학사  
 및 청람재 운영 지원(충청북도), 가족친화인증기관 확대 지원(충청북도), 취약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충청북도), 가족사랑의 날 참여확산(충청북도), 장애아동, 청소년 성인권 교육(충청북  
 도),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충청북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충청북도), 아동안전지도  
 제작(충청북도), 초등학교 CCTV 관제요원 인건비 지원(충청북도), 초등학교 CCTV 연계시스템  
 구축(충청북도), 해바라기 아동센터 운영(충청북도),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충청북도), 청  
 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역협의회 운영(충청북도),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충청북도), 학교-  
 지역사회 건강관리 연계,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건강지원 강화(충청남도), 정신보건사업 및 심리치  
 료프로그램 운영(충청남도), 청소년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충청남도), 위기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충청남도), 위기청소년 선제적 발굴체계 구축(충청남도), 가출청소년 가정복귀 등 보호지원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충청남도),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중심의 지역사회 아동 및 청소년 종합안전망 구축\_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충청남도), 가족상담 및 가족공유 시간 확대여건 조성(충청남도),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충청남도),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효율적 운영(충청남도), 사랑의 교실(충청남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원 역량강화교육(충청남도), 전라북도 청소년 건강걷기대회(전라북도), 시군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전라북도),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전라북도), 안심먹거리 운동 추진(전라북도), 청소년의 충분한 수면권 보장 및 비만예방\_우리밀 소비 촉진사업(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사업(전라북도), 청소년 근로보호 합동점검(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 확대(전라북도), 장애아동 수당지급(전라북도), 저소득 농산어촌 청소년 복지서비스 강화(전라북도), 요보호아동 가정 사회보호시스템 강화(전라북도),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전라북도),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전라북도), 정서적, 행동적장애 청소년 치료재활 서비스 지원(전라북도),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전라북도),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전라북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전라북도), 들꽃 청소년 희망로드(전라북도),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전라북도), 청소년 쉼터 운영 지원(전라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 쉼터운영 및 지원(전라북도),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급(전라북도), 청소년 특별지원 강화(전라북도), 빈집활용 반값임대주택 제공(전라북도), 전라북도 장학숙 운영(전라북도), 1388청소년 지원단 구축 운영(전라북도), 건강가정 지원사업(전라북도), 가족의 날 운영(전라북도), 어린이집 CCTV 설치 장애아동 청소년 성인권 교육(전라북도),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전라북도),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전라북도),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전라북도), 마약퇴치운동본부 전북지부 사업비 지원(전라북도),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전라북도), 전국 초,중,고등학생 골프대회 유치(전라남도),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전라남도), 청소년 자살예방사업(전라남도), 지역 대학생의 건강권 확보(전라남도), 청소년통합지원 체계 구축(전라남도), 전라남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전라남도), 시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전라남도),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전라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지원(전라남도), 미인가 대안학교 청소년 급식비 지원(전라남도), 청소년 쉼터 운영(전라남도), 세대공감을 위한 부모-청소년 한마음 교육(전라남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전라남도),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전라남도), 전라남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전라남도), 남도학숙 및 전남학숙 운영지원(전라남도),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감시 강화(전라남도), 청소년 금연 예방사업(전라남도), 청소년 성 문화센터 운영(전라남도), 청소년 집단 심리검사(경상북도), 청소년 자살예방

사업(경상북도),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 양육지원(경상북도),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경상북도),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경상북도), 경상북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경상북도),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연구(경상북도), 청소년전화 1388 콜센터 운영(경상북도), 청소년쉼터 운영지원(경상북도), 일시보호시설 운영(경상북도), 위기청소년 멘토링사업(경상북도), 청소년 부모교육 운영(경상북도),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지원(경상북도), 찾아가는 성교육프로그램 운영(경상북도), 이동형 성문화센터 운영(경상북도), 범도민 가정회복운동 추진(경상북도),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감시강화\_청소년 지도위원 연수(경상북도), 청소년 유해환경지도 단속 강화(경상북도),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 활성화(경상북도), 상담자원봉사자 육성 및 활성화(경상북도), 심리적 외상 긴급지원 사업(경상북도),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경상북도), 연말연시 어려운 청소년 격려(경상남도), 심리적 외상 솔루션 지원사업 등(경상남도),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경상남도), 경상남도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경상남도),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경상남도), 도 청소년 쉼터 운영(경상남도),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경상남도), 위기가정 세대 상담지원사업(경상남도), 청소년 지도 부모교육(경상남도),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경상남도),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운영(경상남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경상남도), 온라인 미디어 매체활용 참여 확대\_홈페이지 운영(제주도),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지원(제주도), 청소년 정서치유 힐링캠프 운영(제주도),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확대 강화\_학교지원단(제주도),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확대 강화(제주도),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지원(제주도), 청소년 상담 및 프로그램 관리(제주도), 1388청소년지원단(제주도), 위기청소년 선제적 발굴 체계 구축\_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및 집단 지원(제주도), 청소년전화 1388운영 및 관리(제주도), 위기개입 및 긴급구조(제주도), 찾아가는 거리상담(제주도),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제주도), 위기청소년 선제적 발굴 체계 구축\_사회복무요원 관리 및 교육(제주도), 가출 청소년 쉼터 운영(제주도), 가출청소년 회복 지원(제주도), 가출청소년 일시보호소 운영(제주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제주도),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지역협의회 운영(제주도), 청소년유해환경지킴이 운영(제주도),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제주도),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감시강화\_청소년지도위원 선도 및 지도(제주도),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_상담원 전문성 강화(제주도),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_상담사례협의회(제주도),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_연변 전문상담교사 연수(제주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제주도), 정책분석평가에 기반한 정책수립\_학술세미나(제주도), 정책분석평가에 기반한 정책수립\_청소년 생활 실태조사(제주도)의 많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6a, 2016b).

과제관리(목표 및 계획수립, 수행 및 평가) 범주에 관련되는 정책은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범주에도 없고 기타(참여 및 권리증진, 복지 및 자립지원, 친화적 환경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범주에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6a, 2016b). 그간 청소년 정책에서 과제관리(목표 및 계획수립, 수행 및 평가) 범주에 관련되는 정책에는 많은 관심을 두지 않아왔음을 알 수 있다.

상황대처(중독행동, 폭력행동, 중독인식, 폭력회피) 범주에 관련되는 정책은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범주 부분에서 인성교육 및 품성계발 지원 체계 강화\_청소년 예절교실 운영 지원(경상북도)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6a, 2016b).

기타(참여 및 권리증진, 복지 및 자립지원, 친화적 환경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범주 부분에는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및 해소\_인터넷중독예방센터운영(서울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 강화\_학교폭력예방 회복조정센터 운영(부산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 강화\_학교폭력 지역위원회 운영(부산시),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및 해소\_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치료 사업(부산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지원강화\_학교폭력 대책위원회 운영(대구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지원강화\_학교폭력 근절 추진단체 지원(대구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 강화\_학교폭력예방사업 운영(인천시),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및 해소\_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치료 사업(인천시),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광주시),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운영(광주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강화(대전시),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해소사업(대전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운영(울산시),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 사업(울산시), 온라인 미디어 매체활용 학교폭력사업 참여확대\_제3회 학교폭력예방 뮤직비디오 콘테스트(세종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지원 강화\_찾아가는 학교상담 및 교육(세종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지원 강화\_학교폭력원톱지원센터 운영(세종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지원 강화\_학교폭력예방사업(세종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지원 강화\_세종시 학교폭력예방 페스티벌 더불어함께(세종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지원 강화\_청소년 폭력예방 지도자 양성(세종시),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및 해소\_인터넷 치유크amp(세종시),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해소 상담(세종시), 청소년 건전매체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거리 캠페인(세종시), 청소년 건전매체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폰중독예방 부모교육(세종시),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및 해소(경기도),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운영(강원도),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강원도), 청소년 인터넷 컴퓨터 캠프 운영(강원도), 학교폭력가해학생 대안학교 운영(충청북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운영(충청북도),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 진단 치료 등 지원(충청북도)

도),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운영(충청남도), 117학교폭력신고센터운영(충청남도),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예방, 해소사업(충청남도),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예방 및 해소(전라북도), 학교폭력 예방사업 운영(전라북도), 학교폭력 제로 네트워크 구축 운영(전라북도), 학교폭력 등 청소년 폭력추방운동(전라남도),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예방, 해소사업(전라남도), 학교폭력 근절 대책 지원(경상북도), 학교폭력 대책 지역위원회 운영(경상북도), 인터넷 중독 예방, 해소 사업(경상북도), 학교폭력 예방 및 치유(경상남도), 청소년 인터넷 중독예방, 해소사업(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운영(제주도),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제주도), 청소년 사이버유해환경 감시단 운영(제주도),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해소 지원(제주도), 인터넷 치유캠프(제주도)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6a, 2016b).

정서조절(감정인식, 분노행동, 감정절제, 조절실패) 범주에 관련되는 정책도 과제관리(목표 및 계획수립, 수행 및 평가) 범주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범주에도, 기타(참여 및 권리증진, 복지 및 자립지원, 친화적 환경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범주에도 모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6a, 2016b). 그간 청소년 정책에서 과제관리(목표 및 계획수립, 수행 및 평가) 범주와 마찬가지로 정서조절(감정인식, 분노행동, 감정절제, 조절실패) 범주에 관련되는 정책에는 많은 관심을 두지 않아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2013~2017): 2016년도 시행계획(지방자치단체)(여성가족부, 2016a, 2016b)의 정책들이 건강관리(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신체관리, 위생관리) 범주 부분에 집중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 상황대처(중독행동, 폭력행동, 중독인식, 폭력회피) 범주 부분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과제관리(목표 및 계획수립, 수행 및 평가)나 정서조절(감정인식, 분노행동, 감정절제, 조절실패) 범주 부분에는 관심을 많이 두지 않아왔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 연구의 청소년 역량 측정결과를 살펴보면, 생활관리역량의 경우에는 건강관리 > 상황대처 > 과제관리 > 정서조절 역량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2015; 장근영, 성은모, 이경상, 진성희, 최효선, 김균희, 2016). 기존의 정책이 건강관리, 상황대처의 순으로 시행되어져 왔고, 과제관리나 정서조절 관련 정책들은 거의 시행되어 오지 않음과 궤를 같이 하는 결과로 생각된다. 따라서 향후 청소년들의 생활관리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과제관리(목표 및 계획수립, 수행 및 평가)나 정서조절(감정인식, 분노행동, 감정절제, 조절실패) 범주 부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VII-2

생활관리역량 관련 정책들

구분	제5차 기본계획-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제 5 차 기본계획-기타 (참여 및 권리증진, 복지 및 자립지원, 친화적 환경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	청소년의 인성교육 강화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생활 관리 역량	관광 관리	어린이 그리기, 글짓기 공 모전(충청북도)	-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확대 강화_지역 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지원(서울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환 경 조성_청소년활동 안전 관리 지원 사업(경상북도)	-	-	가출청소년 가정복귀 등 보호 지원(서울시)
		-	-	-	위기,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역량 강화_청소년동 반자 프로그램 운영(서울시)
		-	-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강화_특별지원대상 청소 년 지원(서울시)
		-	-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강화_어려운 청소년 지원 등(서울시)
		-	-	-	성범죄등으로 안전한 환경조성_건전성가치관 교육 및 체험시설 운영(서울시)
		-	-	-	청소년 유해환경개선 및 감시 강화_청소년유해 환경 정화활동 사업 지원(서울시)
		-	-	-	한부모 및 조손가정 청소년 한부모 지원 확대_한 부모 청소년 자립 지원(부산시)
		-	-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확대 강화_청소 년통합지원체계 구축지원(부산시)
		-	-	-	위기청소년 선제적 발굴 체계 구축_청소년 동반 자 프로그램 운영(부산시)
		-	-	-	가출 청소년 가정복귀 등 보호 지원_청소년 쉼터 운영(부산시)
		-	-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강화_청소년 특별지원 사 업(부산시)
		-	-	-	성범죄등으로 안전한 환경조성_청소년 성문화 센터 운영(부산시)
		-	-	-	아동 및 청소년 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 망 구축_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지원(부 산시)
		-	-	-	청소년 유해환경개선 및 감시 강화_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부산시)
		-	-	-	청소년 유해환경개선 및 감시 강화_구,군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부산시)

제 VII 장  
청소년 역량강화정책 - 제 7차 기본계획 반영과목

구분	제5차 기본계획-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제 5 차 기본계획-기타 (참여 및 권리증진, 복지 및 자립지원, 친화적 환경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	청소년의 인성교육 강화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	-	-	학교-지역사회 건강관리 연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건강지원강화_학교무료급식지원(대구시)
	-	-	-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확대_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대구시)
	-	-	-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확대_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대구시)
	-	-	-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확대_청소년 상담 및 부모교육 활성화(대구시)
	-	-	-	가출청소년 가정복귀 등 보호지원_청소년 쉼터 운영(대구시)
	-	-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강화_청소년 특별지원(대구시)
	-	-	-	가족상담 및 가족 공유시간 확대 여건 조성_찾아가는 부모교육(대구시)
	-	-	-	가족상담 및 가족 공유시간 확대 여건 조성_즐거운 주말 가족친화(대구시)
	-	-	-	성범죄등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_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지정(대구시)
	-	-	-	성범죄등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_청소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실태조사(대구시)
	-	-	-	성범죄등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_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대구시)
	-	-	-	청소년 유해환경개선 및 감시강화_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대구시)
	-	-	-	청소년 유해환경개선 및 감시강화_청소년선도, 보호대책 추진평가(대구시)
	-	-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확대 강화_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인천시)
	-	-	-	위기청소년 선제적 발굴체계 구축_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인천시)
	-	-	-	학업중단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강화_미인가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인천시)
	-	-	-	가출청소년 가정복귀 등 보호 지원_청소년 쉼터 운영 지원사업(인천시)
	-	-	-	가출청소년 가정복귀 등 보호 지원_청소년 자립지원관 운영 지원사업(인천시)

구분	제5차 기본계획-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제 5 차 기본계획-기타 (참여 및 권리증진, 복지 및 자립지원, 친화적 환경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글로벌, 다문화 역량 강화	청소년의 인성교육 강화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	-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강화_청소년 특별지원 사 업(인천시)	
-	-	-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중심의 지역사회 아동 및 청소년 종합안전망 구축(인천시)	
-	-	-	성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_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인천시)	
-	-	-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감시 강화_청소년 유해 환경감시단 운영(인천시)	
-	-	-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감시 강화_청소년 스스 로지킴이(인천시)	
-	-	-	인천청소년 유관기관 공동협력사업_청소년금 연건강 마라톤대회(인천시)	
-	-	-	청소년 체력 강화_클럽대항 청소년 생활체육대 회 개최(광주시)	
-	-	-	청소년 체력 강화_유소년 생활체육교실 운영(광 주시)	
-	-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상시상담 체계구축(광주시)	
-	-	-	청소년한부모가구 임대보증금 지원(광주시)	
-	-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광주시)	
-	-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지원(광주시)	
-	-	-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광주시)	
-	-	-	가출청소년 가정복귀 등 보호지원_청소년 쉼터 운영(광주시)	
-	-	-	소년원 출원 청소년 회복지원 프로그램 운영(광 주시)	
-	-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서비스 제공(광주시)	
-	-	-	청소년 주거지원_남도학숙(광주시)	
-	-	-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광주시)	
-	-	-	위기가족 및 위기청소년 회복지원 프로그램 운 영(광주시)	
-	-	-	어린이, 청소년 실태조사(광주시)	
-	-	-	청소년 건전성가치관 교육 및 체험시설 운영(광 주시)	
-	-	-	아동안전지도 제작 지원(광주시)	
-	-	-	청소년활동 안전관리 지원(광주시)	
-	-	-	청소년 안전점검단 구성 운영(광주시)	

구분	제5차 기본계획-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제 5 차 기본계획-기타 (참여 및 권리증진, 복지 및 자립지원, 친화적 환경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	청소년의 인성교육 강화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	-	-	아동, 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광주시)	
-	-	-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감시 강화(광주시)	
-	-	-	보호관찰청소년 멘토프로그램 운영(광주시)	
-	-	-	청소년 종합 레포츠센터 운영(대전시)	
-	-	-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 확대_다문화가족 청소년 지원(대전시)	
-	-	-	한부모 및 조손가정, 청소년 한부모 지원 확대(대 전시)	
-	-	-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강화(대전시)	
-	-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대전시)	
-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대전시)	
-	-	-	가출청소년 가정복귀 등 보호 지원(대전시)	
-	-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강화(대전시)	
-	-	-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중심의 지역사회 아동 및 청소년 종합안전망 구축(대전시)	
-	-	-	성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_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대전시)	
-	-	-	아동 및 청소년 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 망 구축_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지원(대 전시)	
-	-	-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감시 강화(대전시)	
-	-	-	청소년 안전 시민순찰대 운영(대전시)	
-	-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대전시)	
-	-	-	정서적, 행동적 장애 청소년 치료재활서비스 강 화_발달재활서비스 사업(울산시)	
-	-	-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울산시)	
-	-	-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울산시)	
-	-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울산시)	
-	-	-	가출청소년 가정복귀 등 보호지원_청소년쉼터 운영(울산시)	
-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울산시)	
-	-	-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울산시)	
-	-	-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울산시)	
-	-	-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울산시)	
-	-	-	청소년 체력강화(세종시)	

구분	제5차 기본계획-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제 5 차 기본계획-기타 (참여 및 권리증진, 복지 및 자립지원, 친화적 환경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글로벌, 다문화 역량 강화	청소년의 인성교육 강화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	-	-	-	학교-지역사회 건강관리 연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건강지원 강화(세종시)
-	-	-	-	청소년동반자를 통한 자살위기 청소년 사례관리(세종시)
-	-	-	-	청소년 자살예방교육 확대 실시(세종시)
-	-	-	-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도 검사 및 적절개입 프로그램 운영(세종시)
-	-	-	-	요보호아동 자립지원강화(세종시)
-	-	-	-	가출청소년 가정복귀 등 보호지원_긴급구조(세종시)
-	-	-	-	학대피해 아동, 청소년 예방 및 보호지원 확대(세종시)
-	-	-	-	위기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역량 강화(세종시)
-	-	-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강화(세종시)
-	-	-	-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중심의 지역사회 아동 및 청소년 종합안전망 구축_교사 및 학교지원단 구축(세종시)
-	-	-	-	성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_아동, 청소년 폭력예방 교육(세종시)
-	-	-	-	성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_아름다운 사랑과 성교육(세종시)
-	-	-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점검(세종시)
-	-	-	-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감시강화(세종시)
-	-	-	-	청소년 흡연음주 예방 및 홍보 강화(세종시)
-	-	-	-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확대(세종시)
-	-	-	-	찾아가는 거리이동상담, 1388청소년전화 운영(세종시)
-	-	-	-	도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경기도)
-	-	-	-	시,군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_남부(경기도)
-	-	-	-	시,군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_북부(경기도)
-	-	-	-	평생교육시설 청소년 상담교사 지원(경기도)
-	-	-	-	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_지방청소년 상담사업(경기도)
-	-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경기도)
-	-	-	-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_북부(경기도)
-	-	-	-	청소년 쉼터 운영 지원_남부(경기도)

구분	제5차 기본계획-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제 5 차 기본계획-기타 (참여 및 권리증진, 복지 및 자립지원, 친화적 환경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	청소년의 인성교육 강화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	-	-	청소년 쉼터 운영 지원_북부(경기도)	
-	-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_남부(경기도)	
-	-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_북부(경기도)	
-	-	-	저소득층 자녀 생활학자금 지원(경기도)	
-	-	-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중심의 지역사회 아동 및 청소년 종합안전망 구축_도 청소년 통합지원(경기도)	
-	-	-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중심의 지역사회 아동 및 청소년 종합안전망 구축_시,군 청소년 통합지원_남부(경기도)	
-	-	-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중심의 지역사회 아동 및 청소년 종합안전망 구축_시,군 청소년 통합지원_북부(경기도)	
-	-	-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경기도)	
-	-	-	소방관 직업체험교실 및 119안전뉴스경연대회(경기도)	
-	-	-	청소년 선도, 보호를 위한 지도점검 강화(경기도)	
-	-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지원 및 지원(경기도)	
-	-	-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감시 강화(경기도)	
-	-	-	청소년육성기금 장학사업 및 건전활동 지원(강원도)	
-	-	-	청소년 건전활동 지원(강원도)	
-	-	-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강원도)	
-	-	-	청소년쉼터 운영(강원도)	
-	-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강화_청소년 특별지원(강원도)	
-	-	-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강원도)	
-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강원도)	
-	-	-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강원학사 운영(강원도)	
-	-	-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강원도)	
-	-	-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강원도)	
-	-	-	청소년 안전관리 지원(강원도)	
-	-	-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강원도)	
-	-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광역협의회 운영(강원도)	

구분	제5차 기본계획-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제 5 차 기본계획-기타 (참여 및 권리증진, 복지 및 자립지원, 친화적 환경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글로벌, 다문화 역량 강화	청소년의 인성교육 강화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	-	-	-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전문인력 지원(강원도)
-	-	-	-	강원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강원도)
-	-	-	-	저소득, 장애, 농산어촌 청소년 복지서비스 강화 (충청북도)
-	-	-	-	생활체육어린이 축구교실(충청북도)
-	-	-	-	충북꿈나무어린이 축구대회(충청북도)
-	-	-	-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도 검사 및 적절개입프로 그램 개발 운영(충청북도)
-	-	-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충청북도)
-	-	-	-	미혼한부모 주거 지원(충청북도)
-	-	-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충청북도)
-	-	-	-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자녀교육비 지원(충청북도)
-	-	-	-	권역별 미혼모 부자 지원기관 운영(충청북도)
-	-	-	-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충청북도)
-	-	-	-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충 청북도)
-	-	-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충청북도)
-	-	-	-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충청북도)
-	-	-	-	청소년 상담지원 사업 (충청북도)
-	-	-	-	청소년쉼터 운영(충청북도)
-	-	-	-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충청북도)
-	-	-	-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충청북도)
-	-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충청북도)
-	-	-	-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충청북도)
-	-	-	-	충북학사 및 청람재 운영 지원(충청북도)
-	-	-	-	가족친화인증기관 확대 지원(충청북도)
-	-	-	-	취약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충청북도)
-	-	-	-	가족사랑의 날 참여확산(충청북도)
-	-	-	-	장애아동, 청소년 성인권 교육(충청북도)
-	-	-	-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충청북도)
-	-	-	-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충청북도)
-	-	-	-	아동안전지도 제작(충청북도)
-	-	-	-	초등학교 CCTV 관제요원 인건비 지원(충청북도)

구분	제5차 기본계획-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제 5 차 기본계획-기타 (참여 및 권리증진, 복지 및 자립지원, 친화적 환경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	청소년의 인성교육 강화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	-	-	-	초등학교 CCTV 연계시스템 구축(충청북도)
-	-	-	-	해바라기 아동센터 운영(충청북도)
-	-	-	-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충청북도)
-	-	-	-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역협의회 운영(충청북도)
-	-	-	-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충청북도)
-	-	-	-	학교-지역사회 건강관리 연계,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건강지원 강화(충청남도)
-	-	-	-	정신보건사업 및 심리치료프로그램 운영(충청남도)
-	-	-	-	청소년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충청남도)
-	-	-	-	위기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충청남도)
-	-	-	-	위기청소년 선제적 발굴체계 구축(충청남도)
-	-	-	-	가출청소년 가정복귀 등 보호지원(충청남도)
-	-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충청남도)
-	-	-	-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중심의 지역사회 아동 및 청소년 종합안전망 구축_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충청남도)
-	-	-	-	가족상담 및 가족공유 시간 확대여건 조성(충청남도)
-	-	-	-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충청남도)
-	-	-	-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효율적 운영(충청남도)
-	-	-	-	사랑의 교실(충청남도)
-	-	-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원 역량강화교육(충청남도)
-	-	-	-	전라북도 청소년 건강검진대회(전라북도)
-	-	-	-	시군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전라북도)
-	-	-	-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전라북도)
-	-	-	-	안심먹거리 운동 추진(전라북도)
-	-	-	-	청소년의 충분한 수면권 보장 및 비만예방_우리 밀 소비 촉진사업(전라북도)
-	-	-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사업(전라북도)
-	-	-	-	청소년근로보호 합동점검(전라북도)
-	-	-	-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 확대(전라북도)

구분	제5차 기본계획-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제 5 차 기본계획-기타 (참여 및 권리증진, 복지 및 자립지원, 친화적 환경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글로벌, 다문화 역량 강화	청소년의 인성교육 강화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	-	-	-	장애아동 수당지급(전라북도)
-	-	-	-	저소득 농산어촌 청소년 복지서비스 강화(전라북도)
-	-	-	-	요보호아동 가정 사회보호시스템 강화(전라북도)
-	-	-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전라북도)
-	-	-	-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전라북도)
-	-	-	-	정서적, 행동적장애 청소년 치료재활 서비스 지원(전라북도)
-	-	-	-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전라북도)
-	-	-	-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전라북도)
-	-	-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전라북도)
-	-	-	-	들꽃 청소년 희망로드(전라북도)
-	-	-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전라북도)
-	-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전라북도)
-	-	-	-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전라북도)
-	-	-	-	청소년 쉼터 운영 지원(전라북도)
-	-	-	-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 쉼터운영 및 지원(전라북도)
-	-	-	-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급(전라북도)
-	-	-	-	청소년 특별지원 강화(전라북도)
-	-	-	-	빈집활용 반값임대주택 제공(전라북도)
-	-	-	-	전라북도 장학숙 운영(전라북도)
-	-	-	-	1388청소년 지원단 구축 운영(전라북도)
-	-	-	-	건강가정 지원사업(전라북도)
-	-	-	-	가족의 날 운영(전라북도)
-	-	-	-	어린이집 CCTV 설치
-	-	-	-	장애아동 청소년 성인권 교육(전라북도)
-	-	-	-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전라북도)
-	-	-	-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전라북도)
-	-	-	-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전라북도)
-	-	-	-	마약퇴치운동본부 전북지부 사업비 지원(전라북도)
-	-	-	-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전라북도)
-	-	-	-	전국 초,중,고등학생 골프대회 유치(전라남도)

구분	제5차 기본계획-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제 5 차 기본계획-기타 (참여 및 권리증진, 복지 및 자립지원, 친화적 환경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	청소년의 인성교육 강화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	-	-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전라남도)	
-	-	-	청소년 자살예방사업(전라남도)	
-	-	-	지역 대학생의 건강권 확보(전라남도)	
-	-	-	청소년통합지원 체계 구축(전라남도)	
-	-	-	전라남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전라남도)	
-	-	-	시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전라남도)	
-	-	-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전라남도)	
-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지원(전라남도)	
-	-	-	미인가 대안학교 청소년 급식비 지원(전라남도)	
-	-	-	청소년 쉼터 운영(전라남도)	
-	-	-	세대공감을 위한 부모-청소년 한미음 교육(전라 남도)	
-	-	-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전라남도)	
-	-	-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전라남도)	
-	-	-	전라남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전라남도)	
-	-	-	남도학숙 및 전남학숙 운영지원(전라남도)	
-	-	-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감시 강화(전라남도)	
-	-	-	청소년 금연 예방사업(전라남도)	
-	-	-	청소년 성 문화센터 운영(전라남도)	
-	-	-	청소년 집단 심리검사(경상북도)	
-	-	-	청소년 자살예방사업(경상북도)	
-	-	-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 양육지원(경상북도)	
-	-	-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경상북도)	
-	-	-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경상북도)	
-	-	-	경상북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경상 북도)	
-	-	-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연구(경상북도)	
-	-	-	청소년전화 1388 콜센터 운영(경상북도)	
-	-	-	청소년쉼터 운영지원(경상북도)	
-	-	-	일시보호시설 운영(경상북도)	
-	-	-	위기청소년 멘토링사업(경상북도)	
-	-	-	청소년 부모교육 운영(경상북도)	
-	-	-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지원(경상북도)	
-	-	-	찾아가는 성교육프로그램 운영(경상북도)	

구분	제5차 기본계획-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제 5 차 기본계획-기타 (참여 및 권리증진, 복지 및 자립지원, 친화적 환경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	청소년의 인성교육 강화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	-	-	이동형 성문화센터 운영(경상북도)	
-	-	-	범도민 가정회복운동 추진(경상북도)	
-	-	-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감시강화_청소년 지도 위원 연수(경상북도)	
-	-	-	청소년 유해환경지도 단속 강화(경상북도)	
-	-	-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 활성화(경상북도)	
-	-	-	상담자원봉사자 육성 및 활성화(경상북도)	
-	-	-	심리적 외상 긴급지원 사업(경상북도)	
-	-	-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경상북도)	
-	-	-	연말연시 어려운 청소년 격려(경상남도)	
-	-	-	심리적 외상 솔루션 지원사업 등(경상남도)	
-	-	-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경상남도)	
-	-	-	경상남도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경상남도)	
-	-	-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경상남도)	
-	-	-	도 청소년 쉼터 운영(경상남도)	
-	-	-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경상남도)	
-	-	-	위기가정세대 상담지원사업(경상남도)	
-	-	-	청소년 지도 부모교육(경상남도)	
-	-	-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경상남도)	
-	-	-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운영(경상남도)	
-	-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경상남도)	
-	-	-	온라인 미디어 매체활용 참여 확대_홈페이지 운영(제주도)	
-	-	-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지원(제주도)	
-	-	-	청소년 정서치유 힐링캠프 운영(제주도)	
-	-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확대 강화_학교 지원단(제주도)	
-	-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확대 강화(제주도)	
-	-	-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지원(제주도)	
-	-	-	청소년 상담 및 프로그램 관리(제주도)	
-	-	-	1388청소년지원단(제주도)	
-	-	-	위기청소년 선제적 발굴 체계 구축_청소년 프로 그램 개발 및 집단 지원(제주도)	
-	-	-	청소년전화 1388운영 및 관리(제주도)	

구분	제5차 기본계획-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제 5 차 기본계획-기타 (참여 및 권리증진, 복지 및 자립지원, 친화적 환경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	청소년의 인성교육 강화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	-	-	위기개입 및 긴급구조(제주도)
	-	-	-	찾아가는 거리상담(제주도)
	-	-	-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제주도)
	-	-	-	위기청소년 선제적 발굴 체계 구축_사회복무요 원 관리 및 교육(제주도)
	-	-	-	가출 청소년쉼터운영(제주도)
	-	-	-	가출청소년 회복 지원(제주도)
	-	-	-	가출청소년 일시보호소 운영(제주도)
	-	-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제주도)
	-	-	-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제주도)
	-	-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지역협 의회 운영(제주도)
	-	-	-	청소년유해환경지킴이 운영(제주도)
	-	-	-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제주도)
	-	-	-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감시강화_청소년지도 위원 선도 및 지도(제주도)
	-	-	-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_상담원 전문성 강화(제 주도)
	-	-	-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_상담사례협의회(제주도)
	-	-	-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_연변 전문상담교사 연 수(제주도)
	-	-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제주도)
	-	-	-	정책분석평가에 기반한 정책수립_학술세미나 (제주도)
	-	-	-	정책분석평가에 기반한 정책수립_청소년 생활 실태조사(제주도)
과제 관리	-	-	-	-
상황 대처	-	-	인성교육 및 품성계 발 지원 체계 강화 청소년 여절교실 운 영 지원(경상북도)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및 해소_인터넷중 독예방센터운영(서울시)
	-	-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 강화_학교폭력예방 회복조정센터 운영(부산시)

구분	제5차 기본계획-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제 5 차 기본계획-기타 (참여 및 권리증진, 복지 및 자립지원, 친화적 환경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글로벌, 다문화 역량 강화	청소년의 인성교육 강화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	-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 강화_학교폭력 지역 위원회 운영(부산시)
	-	-	-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및 해소_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치료 사업(부산시)
	-	-	-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지원강화_학교폭력 대책 위원회 운영(대구시)
	-	-	-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지원강화_학교폭력 근절 추진단체 지원(대구시)
	-	-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 강화_학교폭력예방 사업 운영(인천시)
	-	-	-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및 해소_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치료 사업(인천시)
	-	-	-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광주시)
	-	-	-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운영(광주시)
	-	-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강화(대전시)
	-	-	-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해소사업 (대전시)
	-	-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운영(울산시)
	-	-	-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 사업(울산시)
	-	-	-	온라인, 미디어 매체활용 학교폭력사업 참여확 대_제3회 학교폭력예방 뮤직비디오 콘테스트 (세종시)
	-	-	-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지원 강화_찾아가는 학교 상담 및 교육(세종시)
	-	-	-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지원 강화_학교폭력원뿔 지원센터 운영(세종시)
	-	-	-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지원 강화_학교폭력예방 사업(세종시)
	-	-	-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지원 강화_세종시 학교폭 력예방 페스티벌 더불어함께(세종시)
	-	-	-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지원 강화_청소년 폭력예 방 지도자 양성(세종시)
	-	-	-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및 해소_인터넷 치유캠프(세종시)
	-	-	-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해소 상담 (세종시)

구분	제5차 기본계획-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제 5 차 기본계획-기타 (참여 및 권리증진, 복지 및 자립지원, 친화적 환경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	청소년의 인성교육 강화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	-	-	-	청소년 건전매체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거리 캠페인(세종시)
-	-	-	-	청소년 건전매체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 폰중독예방 부모교육(세종시)
-	-	-	-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및 해소(경기도)
-	-	-	-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운영(강원도)
-	-	-	-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강원도)
-	-	-	-	청소년 인터넷 셧터 캠프 운영(강원도)
-	-	-	-	학교폭력가해학생 대안학교 운영(충청북도)
-	-	-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운영(충청북도)
-	-	-	-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 진단 치료 등 지원(충청북도)
-	-	-	-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운영(충청남도)
-	-	-	-	117학교폭력신고센터운영(충청남도)
-	-	-	-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예방, 해소사업(충청남도)
-	-	-	-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예방 및 해소(전라북도)
-	-	-	-	학교폭력 예방사업 운영(전라북도)
-	-	-	-	학교폭력 제로 네트워크 구축 운영(전라북도)
-	-	-	-	학교폭력 등 청소년 폭력추방운동(전라남도)
-	-	-	-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예방, 해소사업(전라남도)
-	-	-	-	학교폭력 근절 대책 지원(경상북도)
-	-	-	-	학교폭력 대책 지역위원회 운영(경상북도)
-	-	-	-	인터넷 중독 예방, 해소 사업(경상북도)
-	-	-	-	학교폭력 예방 및 치유(경상남도)
-	-	-	-	청소년 인터넷 중독예방, 해소사업(경상남도)
-	-	-	-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운영(제주도)
-	-	-	-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제주도)
-	-	-	-	청소년 사이버유해환경 감시단 운영(제주도)
-	-	-	-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해소 지원(제주도)
-	-	-	-	인터넷 치유캠프(제주도)
정서 조절	-	-	-	-

출처 : 여성가족부, 2016a, 2016b를 바탕으로 역량지표에 맞게 재구성한 것임. 역량지표는 성은모, 백해정, 진성희, 2014, pp.198-199, pp. 207-213 참조

### 3) 진로개발역량 관련

진로개발역량 범주의 하위 범주에는 진로설계(자기탐색, 직업탐색, 진로준비, 직업가치관), 여가활용(여가태도, 여가유능감, 여가몰입, 여가만족), 개척정신(차별화태도, 도전정신)이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2013~2017): 2016년도 시행계획(지방자치단체) 자료(여성가족부, 2016a, 2016b)에 제시된 지방자치단체들의 역량관련 정책들 중 진로개발역량과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정책들을 추출하여 진로설계(자기탐색, 직업탐색, 진로준비, 직업가치관), 여가활용(여가태도, 여가유능감, 여가몰입, 여가만족), 개척정신(차별화태도, 도전정신)의 하위 범주에 배치하여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2013~2017): 2016년도 시행계획(지방자치단체)(여성가족부, 2016a, 2016b)의 정책들이 진로개발역량 범주를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진로설계(자기탐색, 직업탐색, 진로준비, 직업가치관) 범주에 관련되는 정책은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범주 부분에서 대구청소년자기도전프로젝트-포상제(대구시), 공공기관 활용 교육나눔 사업\_토,공,방 체험프로그램 운영(경기도),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확산 추진\_대학생 자작 자동차 대회(전라남도), 고3청소년을 위한 '꿈과 미래를 향한 MIND UP'(인천시), 인성교육 및 품성계발 지원체계 강화\_진로를 찾아서(인천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6a, 2016b).

기타(참여 및 권리증진, 복지 및 자립지원, 친화적 환경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범주 부분에는 학업중단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강화\_학교 밖 청소년 지원(서울시), 위기,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역량 강화\_청소년지원센터(서울시), 학업중단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강화\_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부산시), 학업중단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강화\_학업중단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강화(부산시), 지역사회 청소년 직업체험장 추진(부산시), 청소년 직업체험활동 강화\_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부산시), 학업중단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강화\_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지원(대구시), 지역사회 청소년 직업체험장 추진\_진로직업체험 온오프 통합플랫폼 구축-마인플래닛(대구시), 지역사회 청소년 직업체험장 추진\_청소년 직업인식 조사 실시(대구시),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_꿈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대구시), 청소년 직업체험활동 활성화\_진로직업체험활성화를 위한 교재 및 매뉴얼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대구시), 청소년 직업체험활동 강화\_즐거운 주말 진로작업(대구시), 청소년 직업체험활동 강화\_세상을 향해 꿈을쏘다(대구시), 학업중단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강화\_도시형 대안학교 운영(인천시), 학업중단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강화\_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인천시), 위기,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역량 강화\_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사업(인천시), 청소년 직업체험활동 강화\_인천광역시 청소년진로지원센터 운영(인천시), 청소년 직업체험활동 강화\_대학생 멘토와의 만남(인천시), 청소년 직업체험활동 강화\_창의문화직업체험(인천시), 학업중단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강화\_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광주시), 학업중단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강화\_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광주시), 시립청소년 직업체험센터 조성(광주시), 청년 예비창업가 발굴, 육성(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운영(대전시), 지역사회 청소년 직업체험장 추진\_대전 청소년 위캔센터 관리 운영(대전시), 지역사회 청소년 직업체험장 추진\_청소년 진로, 직업체험관 설치 운영(대전시), 청소년 직업체험활동 강화\_청소년 진로, 직업체험관 운영(대전시), 학업중단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강화(세종시),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세종시),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_진로콘서트(세종시), 청소년 직업체험활동 강화(세종시), 경기청년뉴딜사업\_대학, 특성화고 및 청년층 맞춤형 사업(경기도), 청소년 인터넷 방송국 운영(강원도), 대학생 실습공무원제 운영(강원도), 여대생 커리어개발 지원(충청북도), 청소년 창업,취업지원\_우수 창업 동아리 지원(충청북도), 청소년 창업,취업지원\_청년창업아이템 경진대회 개최(충청북도), 청소년 창업,취업지원\_고용우수기업 청년취업지원(충청북도), 도내 대학·기업 멘투맨 취업 매직 프로젝트(충청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_청소년 직업체험장(충청남도), 진로멘토링 100인100색(충청남도), 다문화청소년 진로지원(전라북도), 청소년 CEO카페 두드림 운영(전라북도), 청소년 진로탐색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전라북도), 청년여성경력개발지원(전라북도),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지원(전라북도), 대학창조 일자리센터 지원(전라북도), 공공기관 대학교 잡 멘토링(전라북도), 학업중단 청소년 일자리 체험사업 운영(전라남도), 수산계고교 특성화 지원사업(전라남도), 수산 마이스터고 장비지원사업(전라남도), 청년인턴 프로젝트(전라남도), 수산계고교 학생 희망드림 사업(전라남도), 일자리 취업 박람회(전라남도),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 지원(전라남도), 대학 벤처동아리 지원(전라남도), 산학연계 통합 취업교육과정 지원(전라남도), 취업보장형 고교, 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전라남도), 고3청소년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경상북도), 청소년 도내 기업체 방문 견학(경상남도), 청소년 진로, 자립지원 멘토링 네트워크 구축(제주도)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6a, 2016b).

여가활용(여가태도, 여가유능감, 여가몰입, 여가만족) 범주에 관련되는 정책은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범주 부분에서 시립청소년수련시설 기능 보강(서울시), 시립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지원(서울시),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서울시), 청소년 휴카페 설치 운영(서울시), 청소년시설 확충(서울시),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부산시), 국립을숙도청소년생태, 안전체험수련

원 건립(부산시), 청소년 수련시설 개보수(부산시),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지원(부산시),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지원(서울시), 놀라운 토요일 프로젝트 운영(서울시),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및 동아리 지원(서울시), 어린이 문화사업 운영(서울시), 대한민국 청소년 합창제(부산시), 청소년 한마음 축제 개최(부산시), 부산청소년예술제(부산시), 부산청소년 민속예술제(부산시), 부산학생예술교육페스티벌 운영(부산시), 부산학생비엔날레 운영(부산시),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부산시), 부산국제 청소년합창 콩쿠르(부산시),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부산시), 청소년활동 요구조사 및 제공(대구시),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운영(대구시), 청소년 어울림마당 효과성 검증 연구(대구시),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대 및 역량강화\_청소년수련원 운영(대구시),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대 및 역량강화\_청소년문화의집 운영(대구시),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대 및 역량강화\_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대구시),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대 및 역량강화\_청소년수련시설 특성화프로그램 지원(대구시),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_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대구시),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_청소년행복 페스티벌(대구시),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_청소년 뮤직 스쿨(대구시),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_국내도시간 청소년 문화교류(대구시),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_대구츄판 운영(대구시),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확산 추진\_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대구시),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확산 추진\_청소년 수련활동인증제도 운영지원(대구시),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대 및 역량강화\_인천청소년수련관 운영(인천시),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대 및 역량강화\_공공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지원(인천시),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대 및 역량강화\_청소년문화센터 운영(인천시),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대 및 역량강화\_인천청소년회관 운영(인천시),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대 및 역량강화\_강화군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인천시),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대 및 역량강화\_남동구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인천시),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대 및 역량강화\_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인천시),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_청소년수련활동 신고지원(인천시),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_창의적체험활동, 자유학기제 운영(인천시),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_청소년 문화대축제(인천시),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_한,중,일 청소년 음악교류(인천시),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_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인천시),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_청소년문화마당 조성 사업(인천시),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_인천청소년가요제 개최(인천시), 인천광역시청소년문화센터\_청소년문화예술경연대회(인천시),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확산 추진\_청소년대상 및 청소년유공자 표창 등(인천시),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확산 추진\_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인천시), 청소년시설인프라 확대 및 역량강화\_공공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광주시), 청소년시설인프라 확대 및 역량

강화\_시립청소년수련시설 복합공간화 프로그램 지원(광주시), 청소년시설인프라 확대 및 역량강화\_서구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지원(광주시), 청소년시설인프라 확대 및 역량강화\_광산구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지원(광주시), 청소년시설인프라 확대 및 역량강화\_시립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지원(광주시), 청소년시설인프라 확대 및 역량강화\_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지원(광주시), 청소년시설인프라 확대 및 역량강화\_청소년 문화카페 확보 지원(광주시), 청소년시설인프라 확대 및 역량강화\_천문대 프로그램 운영지원(광주시), 청소년시설인프라 확대 및 역량강화\_청소년 활동공간 활성화(광주시),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_서울,대구청소년 초청 및 광주 역사문화체험캠프(광주시),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_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광주시),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_광주청소년상상페스티벌 개최(광주시),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_다양한 청소년축제 개최 지원(광주시),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_취약계층 청소년희망프로젝트 운영(광주시),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_G-POP 페스티벌 개최(광주시),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확산 추진\_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광주시),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확산 추진\_광주광역시청소년대상 시상 운영(광주시),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확산 추진\_청소년지도자 및 모범청소년 포상(광주시),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확산 추진\_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운영 지원(광주시),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확산 추진\_청소년 자기주도 및 재능활동 지원(광주시),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대전시),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대 및 역량 강화\_청소년문화의집 신규 조성(대전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기능 보강 사업(대전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대전시),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대전시), 청소년의 달 행사 운영(대전시),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대전시), 청소년활동 요구조사 및 제공(울산시),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대 및 역량 강화\_대화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울산시),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대 및 역량 강화\_청소년 문화회관 건립(울산시),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_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울산시),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_청소년 사랑 대축제(울산시),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_청소년 문화교류(울산시),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_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 사업(울산시),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확산 추진\_청소년 동아리활동지원(울산시),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_청소년 체험활동 강화(세종시),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_찾아가 dream(세종시),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세종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지원\_남부(경기도),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지원\_북부(경기도), 경기도 청소년 수련원, 야영장 운영 지원(경기도),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_남부(경기도),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_북부(경기도), 청소년종합예술제 개최(경기도), 청소년 연극제 개최(경기도),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_남부(경기도),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지원\_북부(경기도),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_남부(경기도),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_북부(경기도), 청소년활동 요구조사 및 제공(강원도),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강원도),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대 및 역량강화\_강원도세계잼버리수련장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강원도),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대 및 역량강화\_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강원도),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대 및 역량강화\_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강원도),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대 및 역량강화\_청소년문화의집 건립(강원도),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대 및 역량강화\_강원도청소년수련관 운영(강원도),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대 및 역량강화\_강원도세계잼버리수련장 운영(강원도),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대 및 역량강화\_청소년수련활동 신고지원(강원도),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_별자리관측 프로그램 운영(강원도),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_제17회 전국청소년 그룹댄싱,가요경연 대회(강원도),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_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강원도),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확산 추진\_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운영지원(강원도),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확산 추진\_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운영지원(강원도),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확산 추진\_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운영(강원도),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강원도),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대 및 역량 강화\_공공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충청북도),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대 및 역량 강화\_청소년수련프로그램운영 및 활성화 지원(충청북도),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_청소년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충청북도),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_타시도와의 청소년교류 협력 강화(충청북도),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_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충청북도),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_충북청소년내고장 문화유적 순례대행진(충청북도),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_충북 학생국악경연대회(충청북도),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확산 추진\_청소년어울림마당 및 동아리활동 지원(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연구조사 및 제공(충청남도),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대 및 역량강화\_공공청소년시설 건립 및 운영비 등 지원(충청남도), 학교-지역사회 협력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_청소년활동지원 네트워크 구축(충청남도),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_청소년카페 '카칭 1318' 운영지원(충청남도),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_청소년어울림마당 모니터링(충청남도),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_청소년가요제 운영지원(충청남도),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_고3수험생위안해피콘서트지원(충청남도),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확산 추진\_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지원(충청남도),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확산 추진\_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운영지원(충청남도),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확산 추진\_청소년동아리 활성화지원(충청남도), 청소년활동 요구조사(전라북도),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대 및 역량 강화\_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지원(전라북도),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대 및 역량 강화\_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전라북도),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_청소년활동 협력학교 연계및 지원(전라북도),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_유관기관 네트워크 협의회 구성, 운영(전라북도),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_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전라북도),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_전국청소년미술경연대회 운영(전라북도),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_제31회 전북청소년종합예술제 운영(전라북도),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_청소년전통문화체험관 건립(전라북도),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확산 추진\_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 지원(전라북도),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확산 추진\_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운영 지원(전라북도),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확산 추진\_전라북도청소년동아리박람회(전라북도),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확산 추진\_우리동네탐사단(전라북도),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확산 추진\_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전라북도),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대 및 역량 강화\_공공청소년 수련관 건립(전라남도),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대 및 역량 강화\_공공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전라남도),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대 및 역량 강화\_공공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전라남도),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대 및 역량 강화\_청소년특화시설 건립(전라남도),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_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전라남도),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_민속예술제 및 연극제, 미술경연대회 개최(전라남도),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_청소년의 달 행사 추진(전라남도),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_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전라남도),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확산 추진\_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전라남도),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확산 추진\_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전라남도),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확산 추진\_행복마을 대학생 체험프로그램 운영(전라남도), 지역 청소년활동 요구조사(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인프라확대 및 역량강화\_청소년수련시설 건립 및 개보수(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인프라확대 및 역량강화\_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인프라확대 및 역량강화\_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 지원(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인프라확대 및 역량강화\_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 운영 활성화(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인프라확대 및 역량강화\_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경상북도),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_청소년 낙동강 탐사활동(경상북도),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_청소년 희망토크 콘서트(경상북도),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_제11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개최(경상북도),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_한국 잼버리대회 지원(경상북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_경북청소년정책 페스티벌 운영지원(경상북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_청소년어울림마당 활동 지원(경상북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_경상북도 청소년 종합예술제(경상

북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_경상북도 청소년 박람회 개최(경상북도),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확산 추진\_청소년 영농체험캠프 운영(경상북도),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확산 추진\_찾아가는 수련활동(경상북도),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확산 추진\_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경상북도),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확산 추진\_청소년국제성취포상제 운영(경상북도),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확산 추진\_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프로그램 운영(경상북도),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확산 추진\_청소년 활동 동아리 발굴 및 지원(경상북도), 청소년활동 요구조사(경상남도),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대 및 역량 강화\_청소년 수련시설 확충(경상남도),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_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경상남도),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_청소년활동 정보제공(경상남도),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_제12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개최(경상남도),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_경남서울 청소년 문화교류(경상남도),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_청소년동아리 및 어울림마당 운영지원(경상남도),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확산 추진\_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 등(경상남도),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확산 추진\_청소년 체험활동 지원(경상남도), 청소년 시설 인프라 확대 및 역량 강화\_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제주도), 청소년 시설 인프라 확대 및 역량 강화\_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제주도), 청소년 시설 인프라 확대 및 역량 강화\_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제주도),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제주도),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_청소년 문화교류 프로그램 운영(제주도),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_청소년 가요제 운영(제주도),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_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제주도),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_청소년 전통문화 경연대회 지원(제주도),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_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어울림 마당 운영(제주도),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확산 추진\_청소년동아리 운영 지원(제주도),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확산 추진\_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운영(제주도), 모범청소년 해외탐방(부산시), 국제청소년 스포츠교류대회 지원(부산시), 다문화 프로젝트 추진\_다문화가족 어울림 사업(세종시)의 많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6a, 2016b).

기타(참여 및 권리증진, 복지 및 자립지원, 친화적 환경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범주 부분에는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 및 처우개선\_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지원(서울시),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정비\_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지원(서울시),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정비\_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서울시),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상 강화\_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부산시),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 강화\_청소년활동 우수 프로그램 지원(부산시),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 및 처우개선\_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배치 지원(부산시), 청소년

정책 전달체계 정비\_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운영(부산시),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상 강화\_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대구시),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 강화\_대구청소년지원재단 운영(대구시),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 강화\_창의인성 체험활동 프로그램 지원(대구시),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 강화\_청소년단체협의회 운영(대구시),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 강화\_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대구시),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 및 처우개선\_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대구시),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 및 처우개선\_구군 청소년수련관 지도사 배치 추가지원(대구시),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 및 처우개선\_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대구시), 청소년 지도자 역량 강화 및 처우개선\_지역 청소년지도자 역량개발 지원(대구시), 청소년정책 재정 기반 확충\_청소년육성기금 운영(대구시), 온라인,미디어 매체 활용 참여 확대\_청소년활동 정보제공(인천시),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상강화\_인천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인천시),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 강화\_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인천시),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 강화\_청소년단체협의회 운영(인천시), 지역 청소년지도자 역량개발 지원(인천시), 지역 청소년지도자 역량개발 지원\_유관기관 지도자 지원(인천시), 정책분석,평가에 기반한 정책 수립\_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전략 수립(인천시), 어린이,청소년 영향평가 지표개발(광주시),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상강화\_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광주시),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 강화\_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광주시),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 강화\_청소년활동 정보제공(광주시),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 및 처우개선\_지역 청소년지도자 역량개발 지원(광주시),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 및 처우개선\_제25차 아,태스카우트 총회 개최(광주시),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정비\_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광주시),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정비\_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광주시), 청소년정책 재정기반 확충\_청소년육성기금 운용(광주시), 정책분석,평가에 기반한 정책수립\_지역 청소년활동 요구조사(광주시),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상 강화(대전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공모 및 운영(대전시),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 강화\_청소년 소식지 발간(대전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지원(대전시), 대전광역시 청소년 지도자의 날 운영(대전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지원(대전시),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기금 운용지원(대전시), 다문화가족 자녀 문화프로그램 운영(울산시),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상 강화(울산시),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 강화\_청소년단체협의회 운영지원(울산시),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 강화\_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울산시), 청소년 문화존(세종시),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강화(세종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경기도),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경기도), 경기도 청소년 육성기금

운용(경기도), 강원도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강원도), 청소년활동 우수프로그램 공모 지원(강원도), 공공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강원도), 청소년지도자 대회 및 워크숍(강원도), 청소년지도자 역량개발 전문교육(강원도), 강원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강원도), 중국인 유학생 SNS기자단 운영(충청북도), 저소득자녀 즐거운 방학교실 운영(충청북도),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운영위원회 운영(충청북도), 청소년단체 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충청북도),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지원(충청북도), 청소년종합진흥원 활동진흥 사업(충청북도),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운영 및 지원(충청남도), 청소년활동 홍보지원 및 정보관리(충청남도), 어려운 청소년단체 가입비 지원(충청남도),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 지원(충청남도), 청소년활동지도자대회(충청남도), 청소년활동 시·군 허브기관 지원(충청남도), 운영전략 수립, 관리 및 자체평가 개선(충청남도), 청소년 시설 개보수, 장비보강 지원(전라북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중장기 발전전략 관리, 자체평가(전라북도), 전라북도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전라북도), 청소년단체 육성지원(전라북도), 청소년단체협의회 운영지원(전라북도), 청소년지도자 역량개발 지원(전라북도),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배치(전라북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전라북도), 청소년활동 홍보 지원(전라북도), 청소년활동 정보제공(전라북도), 청소년활동 신고지원(전라북도), 청소년 육성보호 재원 확충(전라북도), 전라남도 청소년 위원회 운영(전라남도), 전라남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전라남도), 비영리 청소년단체 육성, 지원(전라남도),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전라남도), 경상북도 청소년정책 페스티벌(경상북도),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경상북도), 청소년활동 정보제공 및 홍보지원(경상북도),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배치지원(경상북도), 청소년활동 교육 지도자 양성 및 운영(경상북도),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 지원(경상북도), 경상북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지원(경상북도), 지역 유관기관 연계, 협력(경상북도), 경상북도 청소년육성재단 운영지원(경상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운영 내실화(경상북도), 청소년정책 관계자 워크숍(경상북도),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 지원 및 연수(경상남도),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상 강화(경상남도), 청소년단체 활동지원(경상남도), 청소년활동 유관기관 네트워크 강화사업(경상남도),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제주도), 청소년지도사 역량강화(제주도), 실습생 지도 및 관리(제주도),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제주도), 청소년 전문지도자 양성(제주도),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제주도), 청소년육성기금 운용(제주도), 정책분석평가에 기반한 정책수립\_사업 운영 및 평가 관리(제주도)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6a, 2016b).

개척정신(차별화태도, 도전정신) 범주에 관련되는 정책은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범주에도 없고, 기타(참여 및 권리증진, 복지 및 자립지원, 친화적 환경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범주

에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청소년 정책에서 개척정신(차별화태도, 도전정신) 범주에 관련되는 정책에는 많은 관심을 두지 않아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2013~2017): 2016년도 시행계획(지방자치단체)(여성가족부, 2016a, 2016b)의 정책들이 진로설계(자기탐색, 직업탐색, 진로준비, 직업가치관)와 여가활용(여가태도, 여가유능감, 여가몰입, 여가만족) 범주 부분에는 많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 개척정신(차별화태도, 도전정신) 범주 부분에는 많은 관심을 두지 않아왔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 연구의 청소년 역량 측정결과를 살펴보면, 진로개발역량의 경우에는 여가활용 > 진로설계 > 개척정신 역량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2015; 장근영, 성은모, 이경상, 진성희, 최효선, 김균희, 2016). 현재 정책들이 여가활용과 진로설계에 집중되고 있고, 개척정신에는 시행되지 않고 있음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로 생각된다. 따라서 향후 진로개발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개척정신(차별화태도, 도전정신) 범주 부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VII-3**      **진로개발역량 관련 정책들**

구분	제5차 기본계획-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제 5 차 기본계획-기타 (참여 및 권리증진, 복지 및 자립지원, 친화적 환경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	청소년의 인성교육 강화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진로 개발 역량	진로 설계	대구청소년자기도전프로젝트-포상제 (대구시)	-	고3청소년을 위한 '꿈과 미래를 향한 MIND UP'(인천시)	학업중단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강화_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서울시)
		공공기관 활용 교육나눔 사업_토.공.방 체험프로그램 운영(경기도)	-	인성교육 및 품성 계발 지원체계 강 화_진로를 찾아서 (인천시)	위기,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역량 강화 _청소년지원센터(서울시)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확산 추진_대학생 자작 자동차 대회(전라남도)	-	-	학업중단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강화_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부산시)
		-	-	-	학업중단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강화_ 학업중단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강화 (부산시)
		-	-	-	지역사회 청소년 직업체험장 추진(부 산시)
		-	-	-	청소년 직업체험활동 강화_청소년 진 로체험 프로그램 운영(부산시)

구분	제5차 기본계획-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제 5 차 기본계획-기타 (참여 및 권리증진, 복지 및 자립지원, 친화적 환경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글로벌, 다문화 역량 강화	청소년의 인성교육 강화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	-	-	학업중단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강화_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지원(대구시)
	-	-	-	지역사회 청소년 직업체험장 추진 진로직업체험 온오프 통합플랫폼 구축-마인플래닛(대구시)
	-	-	-	지역사회 청소년 직업체험장 추진 청소년 직업인식 조사 실시(대구시)
	-	-	-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_꿈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대구시)
	-	-	-	청소년 직업체험활동 활성화_진로직업체험활성화를 위한 교재 및 매뉴얼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대구시)
	-	-	-	청소년 직업체험활동 강화_즐거운 주말 진로작업(대구시)
	-	-	-	청소년 직업체험활동 강화_세상을 향해 꿈을쏘다(대구시)
	-	-	-	학업중단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강화_도시형 대안학교 운영(인천시)
	-	-	-	학업중단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강화_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인천시)
	-	-	-	위기,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역량 강화_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사업(인천시)
	-	-	-	청소년 직업체험활동 강화_인천광역시 청소년진로지원센터 운영(인천시)
	-	-	-	청소년 직업체험활동 강화_대학생 멘토와의 만남(인천시)
	-	-	-	청소년 직업체험활동 강화_창의문화 직업체험(인천시)
	-	-	-	학업중단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강화_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광주시)
	-	-	-	학업중단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강화_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광주시)
	-	-	-	시립청소년 직업체험센터 조성(광주시)
	-	-	-	청년 예비창업가 발굴, 육성(광주시)

구분	제5차 기본계획-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제 5 차 기본계획-기타 (참여 및 권리증진, 복지 및 자립지원, 친화적 환경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글로벌, 다문화 역량 강화	청소년의 인성교육 강화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운영(대전시)
	-	-	-	지역사회 청소년 직업체험장 추진 대전 청소년 위생센터 관리 운영(대전시)
	-	-	-	지역사회 청소년 직업체험장 추진 청소년 진로, 직업체험관 설치 운영(대전시)
	-	-	-	청소년 직업체험활동 강화_청소년 진로, 직업체험관 운영(대전시)
	-	-	-	학업중단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강화(세종시)
	-	-	-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세종시)
	-	-	-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_진로콘서트(세종시)
	-	-	-	청소년 직업체험 활동 강화(세종시)
	-	-	-	경기청년뉴딜사업_대학, 특성화고 및 청년층 맞춤형 사업(경기도)
	-	-	-	청소년 인터넷 방송국 운영(강원도)
	-	-	-	대학생 실습공무원제 운영(강원도)
	-	-	-	여대생 커리어개발 지원(충청북도)
	-	-	-	청소년 창업, 취업지원_우수 창업 동아리 지원(충청북도)
	-	-	-	청소년 창업, 취업지원_청년창업아이템 경진대회 개최(충청북도)
	-	-	-	청소년 창업, 취업지원_고용우수기업 청년취업지원(충청북도)
	-	-	-	도내 대학-기업 맨투맨 취업 매직 프로젝트(충청북도)
	-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_청소년 직업 체험장(충청남도)
	-	-	-	진로멘토링 100인100색(충청남도)
	-	-	-	다문화청소년 진로지원(전라북도)
	-	-	-	청소년 CEO7째 두드림 운영(전라북도)
	-	-	-	청소년 진로탐색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전라북도)

구분	제5차 기본계획-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제 5 차 기본계획-기타 (참여 및 권리증진, 복지 및 자립지원, 친화적 환경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글로벌, 다문화 역량 강화	청소년의 인성교육 강화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	-	-	청년여성경력개발지원(전라북도)
	-	-	-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지원 (전라북도)
	-	-	-	대학창조 일자리센터 지원(전라북도)
	-	-	-	공공기관 대학교 잡 멘토링(전라북도)
	-	-	-	학업중단 청소년 일자리 체험사업 운 영(전라남도)
	-	-	-	수산계고교 특성화 지원사업(전라남 도)
	-	-	-	수산 마이스터고 장비지원사업(전라 남도)
	-	-	-	청년인턴 프로젝트(전라남도)
	-	-	-	수산계고교 학생 희망드림 사업(전라 남도)
	-	-	-	일자리 취업 박람회(전라남도)
	-	-	-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 지원(전라남 도)
	-	-	-	대학 벤처동아리 지원(전라남도)
	-	-	-	산학연계 통합 취업교육과정 지원(전 라남도)
	-	-	-	취업보장형 고교, 전문대 통합교육 육 성(전라남도)
	-	-	-	고3청소년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경 상북도)
	-	-	-	청소년 도내 기업체 방문 견학(경상남 도)
	-	-	-	청소년 진로, 자립지원 멘토링 네트워 크 구축(제주도)
여가 활용	시립청소년수련시설 기능 보강(서울시)	모범청소년 해 외 탐방(부 산 시)	-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 및 처우개선_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지원(서울시)
	시립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지원(서 울시)	국제청소년 스포츠교류대회 지원(부산시)	-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정비_청소년활 동진흥센터 운영지원(서울시)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서 울시)	다문화 프로젝 트 추진_다문 화가족 어울림 사업(세종시)	-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정비_시립청소 년상담복지센터운영(서울시)

구분	제5차 기본계획-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제 5 차 기본계획-기타 (참여 및 권리증진, 복지 및 자립지원, 친화적 환경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	청소년의 인성교육 강화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청소년 휴카페 설치 운영(서울시)	-	-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육성위원회 위 상 강화_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부 산시)
	청소년시설 확충(서울시)	-	-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 강화_청 소년활동 우수 프로그램 지원(부산시)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부산시)	-	-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 및 처우개선_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배치 지원(부 산시)
	국립을숙도청소년생태, 안전체험수련 원 건립(부산시)	-	-	청소년 정책 전달체계 정비_청소년 활 동진흥센터 운영(부산시)
	청소년 수련시설 개보수(부산시)	-	-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상 강화_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대구시)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지원(부산시)	-	-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 강화_대 구청소년지원재단 운영(대구시)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지원(서울 시)	-	-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 강화 창의 인성 체험활동 프로그램 지원(대구시)
	놀라운 토요일 프로젝트 운영(서울시)	-	-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 강화_청 소년단체협의회 운영(대구시)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및 동아리 지원 (서울시)	-	-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 강화_청 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대구시)
	어린이 문화사업 운영(서울시)	-	-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 및 처우개선_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대구시)
	대한민국 청소년 합창제(부산시)	-	-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 및 처우개선_ 구군 청소년수련관 지도사 배치 추가 지원(대구시)
	청소년 한마음 축제 개최(부산시)	-	-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 및 처우개선_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대구시)
	부산청소년예술제(부산시)	-	-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 및 처우개선_ 지역 청소년지도자 역량개발 지원(대 구시)
	부산청소년 민속예술제(부산시)	-	-	청소년정책 재정 기반 확충_청소년육 성기금 운영(대구시)
	부산학생예술교육페스티벌 운영(부산 시)	-	-	온라인,미디어 매체 활용 참여 확대_ 청소년활동 정보제공(인천시)
	부산학생비엔날레 운영(부산시)	-	-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 상강화_인천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 회 운영(인천시)

구분	제5차 기본계획-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제 5 차 기본계획-기타 (참여 및 권리증진, 복지 및 자립지원, 친화적 환경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글로벌, 다문화 역량 강화	청소년의 인성교육 강화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부산시)	-	-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 강화_청 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인천시)
	부산국제 청소년합창 콩쿠르(부산시)	-	-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 강화_청 소년단체협의회 운영(인천시)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부산시)	-	-	지역 청소년지도자 역량개발 지원(인 천시)
	청소년활동 요구조사 및 제공(대구시)	-	-	지역 청소년지도자 역량개발 지원_유 관기관 지도자 지원(인천시)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운영 (대구시)	-	-	정책분석, 평가에 기반한 정책수립_청 소년정책 중장기발전전략 수립(인천시)
	청소년 어울림마당 효과성 검증 연구(대 구시)	-	-	어린이, 청소년 영향평가 지표개발(광 주시)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대 및 역량강화_청 소년수련원 운영(대구시)	-	-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상 강화_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광주시)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대 및 역량강화_청 소년문화의집 운영(대구시)	-	-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 강화_청 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광주시)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대 및 역량강화_청 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대구시)	-	-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 강화_청 소년활동 정보제공(광주시)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대 및 역량강화_청 소년수련시설 특성화프로그램 지원(대 구시)	-	-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 및 처우개선_ 지역 청소년지도자 역량개발 지원(광 주시)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_청소년어 울림마당 운영(대구시)	-	-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 및 처우개선_ 제25차 아,태스카우트 총회 개최(광 주시)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_청소년행 복 페스티벌(대구시)	-	-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정비_청소년활 동진흥센터 운영(광주시)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_청소년 뮤 직 스쿨(대구시)	-	-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정비_청소년활 동진흥센터 운영(광주시)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_국내도시 간 청소년 문화교류(대구시)	-	-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정비_청소년상 담복지센터 운영(광주시)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_대구출판 운영(대구시)	-	-	청소년정책 재정기반 확충_청소년육 성기금 운용(광주시)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확산 추진_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대구시)	-	-	정책분석, 평가에 기반한 정책수립_지 역 청소년활동 요구조사(광주시)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확산 추진_청소년 수련활동인증제도 운영지원(대구시)	-	-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 상 강화(대전시)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대 및 역량강화_인 천청소년수련관 운영(인천시)	-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공모 및 운영(대 전시)

구분	제5차 기본계획-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제 5 차 기본계획-기타 (참여 및 권리증진, 복지 및 자립지원, 친화적 환경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	청소년의 인성교육 강화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대 및 역량강화_공 공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지원(인천시)	-	-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 강화_청 소년 소식지 발간(대전시)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대 및 역량강화_청 소년문화센터 운영(인천시)	-	-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지원(대전시)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대 및 역량강화_인 천청소년회관 운영(인천시)	-	-	대전광역시 청소년 지도자의 날 운영 (대전시)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대 및 역량강화_강 화군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인천시)	-	-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지원(대전 시)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대 및 역량강화_남 동구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인천시)	-	-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기금 운용지 원(대전시)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대 및 역량강화_청 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인천시)	-	-	다문화가족 자녀 문화프로그램 운영 (울산시)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_청소년수련활동 신고지원(인천시)	-	-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육성위원회 위 상 강화(울산시)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_창의적체험활동, 자유학기제 운영 (인천시)	-	-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 강화_청 소년단체협의회 운영지원(울산시)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_청소년 문 화대축제(인천시)	-	-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 강화_청 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울산시)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_한.중.일 청소년 음악교류(인천시)	-	-	청소년 문화존(세종시)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_청소년어 울림마당 운영(인천시)	-	-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강화(세종시)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_청소년문 화마당 조성 사업(인천시)	-	-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_인천청소 년가요제 개최(인천시)	-	-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경 기도)
	인천광역시청소년문화센터_청소년문 화예술경연대회(인천시)	-	-	경기도 청소년 육성기금 운용(경기도)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확산 추진_청소년 대상 및 청소년유공자 표창 등(인천시)	-	-	강원도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강원 도)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확산 추진_국제청 소년성취포상제(인천시)	-	-	청소년활동 우수프로그램 공모 지원 (강원도)
	청소년시설인프라 확대 및 역량강화_공 공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광주시)	-	-	공공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강 원도)
	청소년시설인프라 확대 및 역량강화_시 립청소년수련시설 복합공간화 프로그램 지원(광주시)	-	-	청소년지도자 대회 및 워크숍(강원도)

구분	제5차 기본계획-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제 5 차 기본계획-기타 (참여 및 권리증진, 복지 및 자립지원, 친화적 환경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	청소년의 인성교육 강화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청소년시설인프라 확대 및 역량강화_서구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지원(광주시)	-	-	청소년지도자 역량개발 전문교육(강원도)
	청소년시설인프라 확대 및 역량강화_광산구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지원(광주시)	-	-	강원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강원도)
	청소년시설인프라 확대 및 역량강화_시립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지원(광주시)	-	-	중국인 유학생 SNS기자단 운영(충청북도)
	청소년시설인프라 확대 및 역량강화_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지원(광주시)	-	-	저소득자녀 즐거운 방학교실 운영(충청북도)
	청소년시설인프라 확대 및 역량강화_청소년 문화카페 확보 지원(광주시)	-	-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운영위원회 운영(충청북도)
	청소년시설인프라 확대 및 역량강화_천문대 프로그램 운영지원(광주시)	-	-	청소년단체 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충청북도)
	청소년시설인프라 확대 및 역량강화_청소년 활동공간 활성화(광주시)	-	-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지원(충청북도)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_서울,대구청소년 초청 및 광주 역사문화체험캠프(광주시)	-	-	청소년종합진흥원 활동진흥 사업(충청북도)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_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광주시)	-	-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운영 및 지원(충청남도)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_광주청소년상상페스티벌 개최(광주시)	-	-	청소년활동 홍보지원 및 정보관리(충청남도)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_다양한 청소년축제 개최 지원(광주시)	-	-	어려운 청소년단체 가입비 지원(충청남도)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_취약계층 청소년희망프로젝트 운영(광주시)	-	-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 지원(충청남도)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_G-POP 페스티벌 개최(광주시)	-	-	청소년활동지도자대회(충청남도)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확산 추진_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광주시)	-	-	청소년활동 시,군 허브기관 지원(충청남도)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확산 추진_광주광역시청소년대상 시상 운영(광주시)	-	-	운영전략 수립,관리 및 자체평가 개선(충청남도)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확산 추진_청소년 지도자 및 모범청소년 포상(광주시)	-	-	청소년 시설 개보수, 장비보강 지원(전라북도)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확산 추진_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운영 지원(광주시)	-	-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중장기 발전전략 관리, 자체평가(전라북도)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확산 추진_청소년 자기주도 및 재능활동 지원(광주시)	-	-	전라북도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전라북도)

구분	제5차 기본계획-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제 5 차 기본계획-기타 (참여 및 권리증진, 복지 및 자립지원, 친화적 환경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	청소년의 인성교육 강화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대전시)	-	-	청소년단체 육성지원(전라북도)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대 및 역량 강화_청 소년문화의집 신규 조성(대전시)	-	-	청소년단체협의회 운영지원(전라북도)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기능 보강 사업(대 전시)	-	-	청소년지도자 역량개발 지원(전라북도)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대전시)	-	-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배치(전라북도)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대전시)	-	-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전라북도)
	청소년의 달 행사 운영(대전시)	-	-	청소년활동 홍보 지원(전라북도)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대전시)	-	-	청소년활동 정보제공(전라북도)
	청소년활동 요구조사 및 제공(울산시)	-	-	청소년활동 신고지원(전라북도)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대 및 역량 강화_태 화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울산시)	-	-	청소년 육성보호 재원 확충(전라북도)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대 및 역량 강화_청 소년 문화회관 건립(울산시)	-	-	전라남도 청소년 위원회 운영(전라남 도)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_청소년 어 울림마당 운영(울산시)	-	-	전라남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전라남도)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_청소년 사 랑 대축제(울산시)	-	-	비영리 청소년단체 육성, 지원(전라남 도)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_청소년 문 화교류(울산시)	-	-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 (전라남도)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_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 사업(울산시)	-	-	경상북도 청소년정책 페스티벌(경상 북도)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확산 추진_청소년 동아리활동지원(울산시)	-	-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경상북도)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_청소년 체험활동 강화(세종시)	-	-	청소년활동 정보제공 및 홍보지원(경 상북도)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_찾아가 dream(세종시)	-	-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배치지원(경 상북도)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세종시)	-	-	청소년활동 교육지도자 양성 및 운영 (경상북도)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지원_남부(경 기도)	-	-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 지원(경상북도)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지원_북부(경 기도)	-	-	경상북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지원(경상북도)
	경기도 청소년 수련원, 아영장 운영 지원 (경기도)	-	-	지역 유관기관 연계, 협력(경상북도)

구분	제5차 기본계획-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제 5 차 기본계획-기타 (참여 및 권리증진, 복지 및 자립지원, 친화적 환경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글로벌, 다문화 역량 강화	청소년의 인성교육 강화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_남부(경기도)	-	-	경상북도 청소년육성재단 운영지원 (경상북도)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_북부(경기도)	-	-	청소년육성기금 운영 내실화(경상북 도)
	청소년종합예술제 개최(경기도)	-	-	청소년정책 관계자 워크숍(경상북도)
	청소년 연극제 개최(경기도)	-	-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 지원 및 연수(경 상남도)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_남부(경기도)	-	-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상 강화(경상남도)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지원_북부(경기도)	-	-	청소년단체 활동지원(경상남도)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_남부(경기도)	-	-	청소년활동 유관기관 네트워크 강화 사업(경상남도)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_북부(경기도)	-	-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제주도)
	청소년활동 요구조사 및 제공(강원도)	-	-	청소년지도사 역량강화(제주도)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강원도)	-	-	실습생 지도 및 관리(제주도)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대 및 역량강화_강 원도세계잼버리수련장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강원도)	-	-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제주도)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대 및 역량강화_공 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강원도)	-	-	청소년 전문지도자 양성(제주도)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대 및 역량강화_청 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강원도)	-	-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제주도)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대 및 역량강화_청 소년문화의집 건립(강원도)	-	-	청소년육성기금 운용(제주도)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대 및 역량강화_강 원도청소년수련관 운영(강원도)	-	-	정책분석평가에 기반한 정책수립_사 업 운영 및 평가 관리(제주도)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대 및 역량강화_강 원도세계잼버리수련장 운영(강원도)	-	-	-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대 및 역량강화_청 소년수련활동 신고지원(강원도)	-	-	-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_별자리관측 프로그램 운영(강원도)	-	-	-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_제17회 전국 청소년 그룹댄싱, 가요경연 대회(강원도)	-	-	-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_청소년 어 울림마당 운영(강원도)	-	-	-

구분	제5차 기본계획-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제 5 차 기본계획-기타 (참여 및 권리증진, 복지 및 자립지원, 친화적 환경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	청소년의 인성교육 강화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확산 추진_청소년 자기도전포상제 운영지원(강원도)	-	-	-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확산 추진_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 운영지원(강원도)	-	-	-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확산 추진_국제청 소년성취포상제 운영(강원도)	-	-	-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강원도)	-	-	-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대 및 역량 강화_공 공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충청북도)	-	-	-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대 및 역량 강화_청 소년수련프로그램운영 및 활성화 지원 (충청북도)	-	-	-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_청소년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충 청북도)	-	-	-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_타시도와의 청소년교류 협력 강화 (충청북도)	-	-	-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_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 원(충청북도)	-	-	-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_충북청소년 내고장 문화유적 순례대행진(충청북도)	-	-	-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_충북학생 국악경연대회(충청북도)	-	-	-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확산 추진_청소년어 울림마당 및 동아리활동 지원(충청북도)	-	-	-
	청소년활동 연구조사 및 제공(충청남도)	-	-	-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대 및 역량강화_공 공청소년시설 건립 및 운영비 등 지원(충 청남도)	-	-	-
	학교-지역사회 협력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_청소년활동지원 네트워크 구축(충 청남도)	-	-	-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_청소년카 페 '카칭1318' 운영지원(충청남도)	-	-	-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_청소년어 울림마당 모니터링(충청남도)	-	-	-

구분	제5차 기본계획-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제 5 차 기본계획-기타 (참여 및 권리증진, 복지 및 자립지원, 친화적 환경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글로벌, 다문화 역량 강화	청소년의 인성교육 강화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_청소년가 요제 운영지원(충청남도)	-	-	-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_고3수험 생위안해피콘서트지원(충청남도)	-	-	-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확산 추진_청소년 수련활동인증제 운영지원(충청남도)	-	-	-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확산 추진_국제청 소년성취포상제, 청소년자기도전포상 제 운영지원(충청남도)	-	-	-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확산 추진_청소년 동아리 활성화지원(충청남도)	-	-	-
	청소년활동 요구조사(전라북도)	-	-	-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대 및 역량 강화_청 소년 수련시설 건립지원(전라북도)	-	-	-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대 및 역량 강화_공 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전라북도)	-	-	-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_청소년활동 협력학교 연계및 지원 (전라북도)	-	-	-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_유관기관 네트워크 협의회 구성, 운영(전라북도)	-	-	-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_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전라북도)	-	-	-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_전국청소 년미술경연대회 운영(전라북도)	-	-	-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_제31회 전 북청소년종합예술제 운영(전라북도)	-	-	-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_청소년전 통문화체험관 건립(전라북도)	-	-	-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확산 추진_청소년 수련활동인증제 운영 지원(전라북도)	-	-	-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확산 추진_국제청 소년성취포상제 운영 지원(전라북도)	-	-	-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확산 추진_전라북 도청소년동아리박람회(전라북도)	-	-	-

구분	제5차 기본계획-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제 5 차 기본계획-기타 (참여 및 권리증진, 복지 및 자립지원, 친화적 환경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	청소년의 인성교육 강화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확산 추진_우리동네탐사탄(전라북도)	-	-	-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확산 추진_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전라북도)	-	-	-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대 및 역량 강화_공공청소년 수련관 건립(전라남도)	-	-	-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대 및 역량 강화_공공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전라남도)	-	-	-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대 및 역량 강화_공공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전라남도)	-	-	-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대 및 역량 강화_청소년특화시설 건립(전라남도)	-	-	-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_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전라남도)	-	-	-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_민속예술제 및 연극제, 미술경연대회 개최(전라남도)	-	-	-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_청소년의 달 행사 추진(전라남도)	-	-	-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_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전라남도)	-	-	-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확산 추진_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전라남도)	-	-	-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확산 추진_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전라남도)	-	-	-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확산 추진_행복마을 대학생 체험프로그램 운영(전라남도)	-	-	-
	지역 청소년활동 요구조사(경상북도)	-	-	-
	청소년시설 인프라확대 및 역량강화_청소년수련시설 건립 및 개보수(경상북도)	-	-	-
	청소년시설 인프라확대 및 역량강화_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경상북도)	-	-	-
	청소년시설 인프라확대 및 역량강화_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 지원(경상북도)	-	-	-

구분	제5차 기본계획-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제 5 차 기본계획-기타 (참여 및 권리증진, 복지 및 자립지원, 친화적 환경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글로벌, 다문화 역량 강화	청소년의 인성교육 강화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청소년시설 인프라확대 및 역량강화 경상 북도청소년수련원 운영 활성화(경상북도)	-	-	-
	청소년시설 인프라확대 및 역량강화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경상북도)	-	-	-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_청소년 낙동강 탐사활동(경상북도)	-	-	-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_청소년 희 망토크 콘서트(경상북도)	-	-	-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_제11회 대 한민국 청소년박람회 개최(경상북도)	-	-	-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_한국 잼버리대회 지원(경상북도)	-	-	-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_경북청소년 정책 페스티벌 운영지원(경상북도)	-	-	-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_청소년어 울림마당 활동 지원(경상북도)	-	-	-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_경상북도 청소년 종합예술제(경상북도)	-	-	-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_경상북도 청소년 박람회 개최(경상북도)	-	-	-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확산 추진_청소년 영농체험캠프 운영(경상북도)	-	-	-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확산 추진_찾아가 는 수련활동(경상북도)	-	-	-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확산 추진_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경상북도)	-	-	-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확산 추진_청소년 국제성취포상제 운영(경상북도)	-	-	-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확산 추진_청소년 수련활동인증제 프로그램 운영(경상북도)	-	-	-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확산 추진_청소년 활동 동아리 발굴 및 지원(경상북도)	-	-	-
	청소년활동 요구조사(경상남도)	-	-	-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대 및 역량 강화 청 소년 수련시설 확충(경상남도)	-	-	-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_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경상남도)	-	-	-

구분	제5차 기본계획-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제 5 차 기본계획-기타 (참여 및 권리증진, 복지 및 자립지원, 친화적 환경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글로벌, 다문화 역량 강화	청소년의 인성교육 강화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_청소년활동 정보제공(경상남도)	-	-	-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_제12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개최(경상남도)	-	-	-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_경남서울 청소년 문화교류(경상남도)	-	-	-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_청소년동아리 및 어울림마당 운영지원(경상남도)	-	-	-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확산 추진_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 등(경상남도)	-	-	-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확산 추진_청소년 체험활동 지원(경상남도)	-	-	-
	청소년 시설 인프라 확대 및 역량 강화_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제주도)	-	-	-
	청소년 시설 인프라 확대 및 역량 강화_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제주도)	-	-	-
	청소년 시설 인프라 확대 및 역량 강화_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제주도)	-	-	-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제주도)	-	-	-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_청소년 문화교류 프로그램 운영(제주도)	-	-	-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_청소년 가요제 운영(제주도)	-	-	-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_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제주도)	-	-	-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_청소년 전통문화 경연대회 지원(제주도)	-	-	-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_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어울림 마당 운영(제주도)	-	-	-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확산 추진_청소년 동아리 운영 지원(제주도)	-	-	-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확산 추진_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운영(제주도)	-	-	-
개척 정신	-	-	-	-

출처 : 여성가족부, 2016a, 2016b를 바탕으로 역량지표에 맞게 재구성한 것임. 역량지표는 성은모, 백해정, 진성희, 2014, pp.198-199, pp. 207-213 참조.

#### 4) 대인관계역량 관련

대인관계역량 범주의 하위 범주에는 관계형성(자기 개방성, 친화성,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 리더십(의사결정, 집단활동관리, 추진력), 협동(집단촉진, 팔로워십, 갈등문제 해결)이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2013~2017): 2016년도 시행계획(지방자치단체) 자료(여성가족부, 2016a, 2016b)에 제시된 지방자치단체들의 역량관련 정책들 중 대인관계역량과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정책들을 추출하여 관계형성(자기 개방성, 친화성,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 리더십(의사결정, 집단활동관리, 추진력), 협동(집단촉진, 팔로워십, 갈등문제 해결)의 하위 범주에 배치하여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2013~2017): 2016년도 시행계획(지방자치단체)(여성가족부, 2016a, 2016b)의 정책들이 대인관계역량 범주를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관계형성(자기 개방성, 친화성,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 범주에 관련되는 정책은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범주 부분에서 서울-지방 청소년문화교류 사업(서울시), 청소년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_청소년재능기부봉사단 운영(대구시), 청소년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_대구청소년자원봉사대회(대구시), 청소년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_청소년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지원(대구시), 청소년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_동아리봉사단 운영(대구시), 청소년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_해외봉사단 활동(대구시), 청소년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_협력학교 관리,지원(인천시), 청소년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_인천 섬지역 청소년문화교육 지원(인천시), 청소년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_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광주시), 청소년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_찾아가는 청소년 자원봉사 교실 운영(광주시), 청소년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_대학생 행복나눔봉사단 운영(대전시), 청소년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_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세종시), 청소년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_청소년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지원(강원도), 청소년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_2018동계올림픽 청소년자원봉사자 육성(강원도), 학교-지역사회 협력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_청소년문화교류추진(충청남도), 청소년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_청소년봉사활동지원(충청남도), 청소년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_봉사활동 터전관리 및 전산망 운영(충청남도), 청소년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_청소년자원봉사대회(충청남도), 청소년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_청소년 자원봉사 시스템 관리(전라북도), 청소년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_전라북도청소년자원봉사대회 운영(전라북도), 청소년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_청소년자원봉사교육지원(전라북도), 청소년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_청소년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전라북도), 청소년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_청소년자원봉사동아리지원(전라남도),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_청소년 문화교류 탐방(경상북도),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_서울,경북청소년 문화교류(경상북도), 청소년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_청소년자원봉사운영기관 관리(경상북도), 청소년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_경상북도 청소년자원봉사대회(경상북도), 청소년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_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 등(경상남도), 청소년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제주도), 한-러 청소년 국제교류(부산시), 한-중 청소년 국제교류(부산시), 한-일 청소년 국제교류(부산시),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다원화\_부상-상해 학생교류(부산시),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다원화\_부상-후쿠오카 학생교류(부산시),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다원화\_해외 자매우호도시 청소년 국제교류(대구시),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다원화\_청소년 국제교류 운영(인천시),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다원화\_청소년 국제교류 기회 확대(광주시),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다원화\_광주시-메단시 고등학생 민박 교류(광주시), 청소년 글로벌 역량 강화(대전시),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다원화\_청소년 국제교류(울산시), 모든 청소년의 다문화 감수성 함양\_다문화 체험교실 운영(울산시),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다원화(세종시),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다원화\_청소년 국제교류 추진(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_국수산맥 국제어린이바둑 대축제 개최(전라남도), 모든 청소년의 다문화 감수성 함양\_다문화가족 캠프 운영(경상북도), 인성교육 및 품성계발 지원체계 강화\_찾아가는 예절교실(대구시), 인성교육 및 품성계발 지원체계 강화\_청소년대상 선정 및 시상(대구시), 인성교육 및 품성계발 지원체계 강화\_하모니 실천단(인천시), 건강한 또래문화 형성을 위한 또래상담활성화\_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인천시), 인성교육 및 품성계발 지원체계 강화\_품성 계발 프로그램(세종시), 인성교육 및 품성계발 지원체계 강화(세종시), 건강한 또래문화 형성을 위한 또래상담활성화\_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솔리언 또래상담(세종시), 인성교육 및 품성계발 지원체계 강화\_강원도 자랑스러운 청소년 발굴/시상(강원도), 건강한 또래문화 형성을 위한 또래상담활성화\_청소년 또래상담자 한마음 축제(강원도), 건강한 또래문화 형성을 위한 또래상담활성화\_또래상담지도교사 및 또래상담자 양성(강원도), 건강한 또래문화 형성을 위한 또래상담활성화\_학교폭력 예방 또래상담사업(충청남도), 건강한 또래문화 형성을 위한 또래상담활성화\_학교폭력예방 또래상담(전라북도), 건강한 또래문화 형성을 위한 또래상담활성화\_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솔리언 또래상담사업(전라남도), 건강한 또래문화 형성을 위한 또래상담활성화\_학교폭력 예방 또래상담 운영(경상북도), 건강한 또래문화 형성을 위한 또래상담활성화\_또래상담지도교사 교육 등(경상남도)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6a, 2016b).

기타(참여 및 권리증진, 복지 및 자립지원, 친화적 환경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범주 부분에는 소년원 출원 청소년 사회복귀 지원강화\_소년원 자립동기강화 프로그램 운영(대구시), 청소년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경상북도)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6a, 2016b).

리더십(의사결정, 집단활동관리, 추진력) 범주에 관련되는 정책은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범주 부분에서 청소년 마을 리더 육성(대구시), 강원발전 선도 미래인재 육성(강원도), 인성교육 및 품성계발 지원체계 강화\_청년리더 육성 아카데미 운영(전라남도) 정책들이 시행되고(여성가족부, 2016a, 2016b) 있는 반면, 기타(참여 및 권리증진, 복지 및 자립지원, 친화적 환경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범주 부분에는 관련되는 정책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동(집단축진, 팔로워십, 갈등문제 해결) 범주에 관련되는 정책은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범주 부분에도, 기타(참여 및 권리증진, 복지 및 자립지원, 친화적 환경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범주 부분에도 관련되는 정책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청소년 정책에서 협동(집단축진, 팔로워십, 갈등문제 해결) 범주에 관련되는 정책에는 많은 관심을 두지 않아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2013~2017): 2016년도 시행계획(지방자치단체)(여성가족부, 2016a, 2016b)의 정책들이 관계형성(자기 개방성, 친화성,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 범주 부분에 집중되어 있고, 리더십(의사결정, 집단활동관리, 추진력) 범주 부분에는 아주 적은 관심을 두고 있으며, 협동(집단축진, 팔로워십, 갈등문제 해결) 범주 부분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아왔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 연구의 청소년 역량 측정결과를 살펴보면, 대인관계역량의 경우에는 협동 > 관계형성 > 리더십 역량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2015; 장근영, 성은모, 이경상, 진성희, 최효선, 김균희, 2016). 관련 정책이 아주 적게 시행 중인 리더십 범주의 역량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관련 정책이 거의 시행되지 않는 협동 범주의 역량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관련 정책이 시행 중인 관계형성 범주는 중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대인관계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리더십(의사결정, 집단활동관리, 추진력), 관계형성(자기 개방성, 친화성,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 협동(집단축진, 팔로워십, 갈등문제 해결) 범주의 순으로 정책적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구분	제5차 기본계획-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제 5 차 기본계획-기타 (참여 및 권리증진, 복지 및 자립지원, 친화적 환경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글로벌, 다문화 역량 강화	청소년의 인성교육 강화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대인 관계 역량  관계 형성	서울-지방 청소년문화교류 사업(서울시)	한-러 청소년 국제교류(부산시)	인성교육 및 품성계발 지원체계 강화_찾아가는 예절교실(대구시)	소년원 출원 청소년 사회복귀 지원강화_소년원 자립동기강화 프로그램 운영(대구시)
	청소년 자원봉사 및 기부 문화 활성화_청소년재능기부봉사단 운영(대구시)	한-중 청소년 국제교류(부산시)	인성교육 및 품성계발 지원체계 강화_청소년대상 선정 및 시상(대구시)	청소년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경상북도)
	청소년 자원봉사 및 기부 문화 활성화_대구청소년 자원봉사대회(대구시)	한-일 청소년 국제교류(부산시)	인성교육 및 품성계발 지원체계 강화_하모니 실천단(인천시)	-
	청소년 자원봉사 및 기부 문화 활성화_청소년자원봉사활성화 지원(대구시)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다원화_부상-상해 학생교류(부산시)	건강한 또래문화 형성을 위한 또래상담활성화_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인천시)	-
	청소년 자원봉사 및 기부 문화 활성화_동아리봉사단 운영(대구시)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다원화_부상-후쿠오카 학생교류(부산시)	인성교육 및 품성계발 지원체계 강화_품성 계발 프로그램(세종시)	-
	청소년 자원봉사 및 기부 문화 활성화_해외봉사단 활동(대구시)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다원화_해외 자매우호도시 청소년 국제교류(대구시)	인성교육 및 품성계발 지원체계 강화(세종시)	-
	청소년 자원봉사 및 기부 문화 활성화_협력학교 관리,지원(인천시)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다원화_청소년 국제교류 운영(인천시)	건강한 또래문화 형성을 위한 또래상담활성화_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슬리언 또래상담(세종시)	-
	청소년 자원봉사 및 기부 문화 활성화_인천 섬지역 청소년문화교육 지원(인천시)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다원화_청소년 국제교류 기회 확대(광주시)	인성교육 및 품성계발 지원체계 강화_강원도 자랑스러운 청소년 발굴,시상(강원도)	-
	청소년 자원봉사 및 기부 문화 활성화_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광주시)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다원화_광주시-메단시 고등학생 민박 교류(광주시)	건강한 또래문화 형성을 위한 또래상담활성화_청소년 또래상담자 한마음 축제(강원도)	-
	청소년 자원봉사 및 기부 문화 활성화_찾아가는 청소년 자원봉사 교실 운영(광주시)	청소년 글로벌 역량 강화(대전시)	건강한 또래문화 형성을 위한 또래상담활성화_또래상담 지도교사 및 또래상담자 양성(강원도)	-
	청소년 자원봉사 및 기부 문화 활성화_대학생 행복 나눔봉사단 운영(대전시)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다원화_청소년 국제교류(울산시)	건강한 또래문화 형성을 위한 또래상담활성화_학교폭력 예방 또래상담사업(충청남도)	-

구분	제5차 기본계획-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제 5 차 기본계획-기타 (참여 및 권리증진, 복지 및 자립지원, 친화적 환경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	청소년의 인성교육 강화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청소년 자원봉사 및 기부 문화 활성화_청소년 자원 봉사 활성화(세종시)	모든 청소년의 다문화 감수 성 함양_다문화 체험교실 운영(울산시)	건강한 또래문화 형성을 위한 또래상담활성화_ 학교폭력 예방 또래상담(전라북도)	-
	청소년 자원봉사 및 기부 문화 활성화_청소년자원 봉사활동 활성화 지원(강 원도)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다원화(세종시)	건강한 또래문화 형성을 위한 또 래상담활성화_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슬리언 또래상담사업(전라 남도)	-
	청소년 자원봉사 및 기부 문화 활성화_2018동계 올림픽 청소년자원봉사 자 육성(강원도)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다원화_청소년 국제교류 추진(경기도)	건강한 또래문화 형성을 위 한 또래상담활성화_ 학교폭 력 예방 또래상담 운영(경상 북도)	-
	학교-지역사회 협력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_청소 년문화교류추진(충청남 도)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 화_국수산맥 국제어린이바 둑대축제 개최(전라남도)	건강한 또래문화 형성을 위한 또래상담활성화_ 또래상담 지도교사 교육 등(경상남도)	-
	청소년 자원봉사 및 기부 문화 활성화_청소년봉사 활동지원(충청남도)	모든 청소년의 다문화 감수 성 함양_다문화가족 캠프 운영(경상북도)	-	-
	청소년 자원봉사 및 기부 문화 활성화_봉사활동 터 전관리 및 전산망 운영(충 청남도)	-	-	-
	청소년 자원봉사 및 기부 문화 활성화_ 청소년자원 봉사대회(충청남도)	-	-	-
	청소년 자원봉사 및 기부 문화 활성화_ 청소년 자원 봉사시스템 관리(전라북 도)	-	-	-
	청소년 자원봉사 및 기부 문화 활성화_ 전라북도청 소년자원봉사대회 운영 (전라북도)	-	-	-
	청소년 자원봉사 및 기부 문화 활성화_ 청소년자원 봉사교육지원(전라북도)	-	-	-

구분	제5차 기본계획-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제 5 차 기본계획-기타 (참여 및 권리증진, 복지 및 자립지원, 친화적 환경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	청소년의 인성교육 강화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청소년 자원봉사 및 기부 문화 활성화_ 청소년자원 봉사 프로그램 운영(전라 북도)	-	-	-
	청소년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_ 청소년자원봉사동아 리지원(전라남도)	-	-	-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_ 청소년 문화교류 팀방(경상북 도)	-	-	-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 성화_ 서울, 경북청소년 문 화교류(경상북도)	-	-	-
	청소년 자원봉사 및 기부 문화 활성화_ 청소년자원 봉사운영기관 관리(경상 북도)	-	-	-
	청소년 자원봉사 및 기부 문화 활성화_경상북도 청 소년자원봉사대회(경상 북도)	-	-	-
	청소년 자원봉사 및 기부 문화 활성화_ 청소년 자원 봉사 활성화 등(경상남도)	-	-	-
	청소년 자원봉사 및 기부 문화 활성화(제주도)	-	-	-
리더 십	청소년 마을 리더 육성(대 구시)	-	인성교육 및 품성계발 지원체 계 강화_ 청년리더 육성 아카 데미 운영(전라남도)	-
	강원발전 선도 미래인재 육성(강원도)	-	-	-
협동	-	-	-	-

출처 : 여성가족부, 2016a, 2016b를 바탕으로 역량지표에 맞게 재구성한 것임. 역량지표는 성은모, 백해정, 진성희, 2014, pp.198-199, pp. 207-213 참조.

## 5) 사회참여역량 관련

사회참여역량 범주의 하위 범주에는 개인시민성(권리책임의식, 민주적 절차 및 의식, 정치관심 및 정치적 자아효능감), 공동체시민성(공적실천, 사회적 신뢰, 적극적 의견개진, 교실개방성), 세계시민성(성인지, 이민자에 대한 태도, 국가 및 역사의식, 국제관계이해)이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2013~2017): 2016년도 시행계획(지방자치단체) 자료(여성가족부, 2016a, 2016b)에 제시된 지방자치단체들의 역량관련 정책들 중 사회참여역량과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정책들을 추출하여 개인시민성(권리책임의식, 민주적 절차 및 의식, 정치관심 및 정치적 자아효능감), 공동체시민성(공적실천, 사회적 신뢰, 적극적 의견개진, 교실개방성), 세계시민성(성인지, 이민자에 대한 태도, 국가 및 역사의식, 국제관계이해)의 하위 범주에 배치하여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2013~2017): 2016년도 시행계획(지방자치단체)(여성가족부, 2016a, 2016b)의 정책들이 사회참여역량 범주를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개인시민성(권리책임의식, 민주적 절차 및 의식, 정치관심 및 정치적 자아효능감) 범주에 관련되는 정책은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범주에서 청소년 권리증진제도 운영(서울시), 청소년증 발급 및 운영(부산시),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강화\_Busan Global Viliage 운영(부산시), 청소년증 발급(대구시), 청소년 희망카드 도입\_청소년증 발급(울산시),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강화\_학생자치활동과 연합활동 지원(세종시), 학교 내 쓰레기 분리배출 활성화(경기도), 청소년 희망카드 도입\_청소년증 발급 홍보(충청북도), 청소년 희망카드 도입\_청소년증 발급(충청남도), 청소년 희망카드 도입\_청소년증 발급 홍보(전라북도)한민족 청소년 네트워크 구축\_재러 한인4세 모국 연수(경상북도), 어린이날, 성년의 날 기념행사 개최(서울시), 인성교육 및 품성계발 지원체계 강화\_성년의 날 기념 행사(대구시),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강화\_백지위에 그리는 꿈 토크톤서트(대구시), 성년의 날 축하 서한문 발송(대전시), 인성교육 및 품성계발 지원체계 강화\_모범청소년 및 청소년육성유공자 표창(대전시),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_성년의 날 행사(울산시), 인성교육 및 품성계발 지원체계 강화\_울산광역시청소년상 시상(울산시), 인성교육 및 품성계발 지원체계 강화\_청소년의 달 기념행사(충청남도), 인성교육 및 품성계발 지원체계 강화\_청소년예절체험캠프 운영(전라북도), 인성교육 및 품성계발 지원체계 강화\_청소년 효 한마음 축제(충청북도), 인성교육 및 품성계발 지원체계 강화\_도덕성회복교육(충청북도)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6a, 2016b).

기타(참여 및 권리증진, 복지 및 자립지원, 친화적 환경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범주 부분에는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활성화\_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서울시),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활성화\_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서울시), 청소년 참여예산제 도입\_청소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서울시), 청소년 권리에 대한 교육 실시 및 문화조성\_청소년 권리증진제도 운영(서울시),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활성화\_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부산시),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활성화\_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부산시), 온라인, 미디어 매체 활용 참여 확대\_대구자랑 청소년기자단(대구시),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활성화\_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대구시),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활성화\_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대구시), 청소년 권리에 대한 교육실시 및 문화 조성\_청소년과 인권의 어울림(대구시), 온라인,미디어 매체 활용 참여 확대\_청소년웹진 MOO운영(인천시),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활성화\_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인천시), 청소년 참여예산제 도입(인천시),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_청소년참여위원회, 특별회의 운영 지원(광주시),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_청소년시설운영위원회 운영 지원(광주시),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_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운영(광주시), 찾아가는 청소년 인권교실 운영(광주시), 청소년 모의 인권 이사회 개최(광주시), 어린이,청소년 권리 가이드북 제작(광주시), 청년청소년 아르바이트 권익보호증진(광주시),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_공공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운영지원(대전시), 청소년참여기구 운영 활성화(대전시),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활성화\_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울산시),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활성화\_청소년시설 운영위원회 운영(울산시),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활성화\_청소년 참여위원회, 특별회의 운영(세종시),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활성화\_청소년운영위원회(세종시), 학생 인권 보호지원(세종시), 청소년 권리에 대한 교육실시 및 문화조성(세종시),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지원\_남부(경기도),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지원\_북부(경기도), 청소년 차세대위원회 운영지원(경기도), 지역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지원(경기도), 지역사회청소년정책 모니터단 운영(강원도), 청소년 어울림마당 모니터링 운영(강원도),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강원도), 공공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강원도), 아동,청소년 포럼 지원(충청북도), 대학생, 청년 포럼 운영(충청북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충청북도),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운영(충청북도), 충청남도청소년참여위원회(충청남도), 특별회의 충청남도회의(충청남도),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모니터링단 운영(충청남도),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지원(충청남도), 청소년참여예산제 운영(충청남도),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모니터링단 운영(전라북도), 전라북도 청소년참여대회(전라북도),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운영(전라북도), 전라북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전라북도), 청소년특별회의 운영(전라북도),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전라남도),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전라남도),

청소년위원회[시설, 참여] 운영 활성화(경상북도), 경상남도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경상남도),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제주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제주도), 청소년 특별회의 운영(제주도), 청소년인권보호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제주도)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6a, 2016b).

공동체시민성(공적실천, 사회적 신뢰, 적극적 의견개진, 교실개방성) 범주에 관련되는 정책은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범주에서 청소년 소셜픽션 운영(대구시) 정책과 기타(참여 및 권리증진, 복지 및 자립지원, 친화적 환경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범주에서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및 선정\_우리마을 교육나눔 컨설팅 지원(대구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6a, 2016b).

세계시민성(성인지, 이민자에 대한 태도, 국가 및 역사 의식, 국제관계이해) 범주에 관련되는 정책은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범주에서 다문화 프로젝트 추진\_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충청북도),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다원화\_국제야영대회 참가(충청북도),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다원화\_세계주역을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충청북도),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다원화\_국제한,중청소년 무술문화 교류(충청북도),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다원화\_대한민국청소년자원봉사단 운영(충청남도),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다원화\_국제청소년자원봉사지원(충청남도),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다원화\_청소년해외선진문화탐방(충청남도),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다원화\_백제역사탐방(충청남도),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다원화\_청소년 해외문화체험추진(충청남도),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다원화\_대한민국청소년 해외 자원봉사단(전라북도),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다원화\_청소년 국제교류사업(전라북도),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다원화\_한,미 청소년 국제교류(전라남도),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다원화\_재외 호남향우회 초청 모범 청소년 해외견학(전라남도),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다원화\_한,중 청소년 국제교류(전라남도),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다원화\_한,일 청소년 국제교류(전라남도),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_세계 청소년 웅변대회(경상북도),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_해외봉사활동 운영(경상북도),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_청소년 국제교류활동(경상북도),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다원화\_경상남도 청소년 국제교류 등(경상남도)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6a, 2016b).

기타(참여 및 권리증진, 복지 및 자립지원, 친화적 환경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범주에서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 확대\_청소년다문화이해교실 운영(대구시),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 확대\_이웃나라 문화체험 교육(대구시), 다문화가

정 친정 방문 지원(경상남도)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6a, 2016b).

이러한 결과는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2013~2017): 2016년도 시행계획(지방자치단체)(여성가족부, 2016a, 2016b)의 정책들이 개인시민성(권리책임의식, 민주적 절차 및 의식, 정치관심 및 정치적 자아효능감) 범주 부분에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고, 세계시민성(성인지, 이민자에 대한 태도, 국가 및 역사 의식, 국제관계이해) 범주 부분에도 많이 시행되고 있으며, 공동체시민성(공적 실천, 사회적 신뢰, 적극적 의견개진, 교실개방성) 범주 부분에는 적게 시행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 연구의 청소년 역량 측정결과를 살펴보면, 사회참여역량의 경우에는 세계시민성 > 개인시민성 > 공동체시민성 역량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2015; 장근영, 성은모, 이경상, 진성희, 최효선, 김균희, 2016). 시행중인 정책들이 개인시민성과 세계시민성에 집중되어 있고 공동체시민성에는 적은 상황과 비슷한 결과이다. 따라서 향후 청소년의 사회참여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공동체시민성(공적실천, 사회적 신뢰, 적극적 의견개진, 교실개방성) 역량정책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VII-5**      **사회참여역량 관련 정책들**

구분	제5차 기본계획-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제 5 차 기본계획-기타 (참여 및 권리증진, 복지 및 지립지원, 친화적 환경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	청소년의 인성교육 강화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사 회 참 여 역 량	개 인 시 민 성	청소년 권리증진제도 운영(서울시)	한민족 청소년 네트워크 구축_재러 한인4세 모국 연수(경상북도)	어린이날, 성년의 날 기념 행사 개최(서울시)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활성화_이동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서울시)
		청소년증 발급 및 운영(부산시)	-	인성교육 및 품성개발 지원체계 강화_성년의 날 기념 행사(대구시)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활성화_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서울시)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강화_Busan Global Village 운영(부산시)	-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강화_백지위에 그리는 꿈 토크톤서트(대구시)	청소년 참여예산제 도입_청소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서울시)
		청소년증 발급(대구시)	-	성년의 날 축하 서한문 발송(대전시)	청소년 권리에 대한 교육 실시 및 문화조성_청소년 권리증진제도 운영(서울시)
		청소년 희망카드 도입_청소년증 발급(울산시)	-	인성교육 및 품성개발 지원체계 강화_모범청소년 및 청소년육성유공자 표창(대전시)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활성화_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부산시)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강화_학생자치활동과 연합활동 지원(세종시)	-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_성년의 날 행사(울산시)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활성화_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부산시)

구분	제5차 기본계획-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제 5 차 기본계획-기타 (참여 및 권리증진, 복지 및 지립지원, 친화적 환경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	청소년의 인성교육 강화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학교 내 쓰레기 분리배출 활성화(경기도)	-	인성교육 및 품성개발 지 원체계 강화_울산광역시 시청소년상 시상(울산 시)	온라인, 미디어 매체 활용 참여 확대 _대구자랑 청소년기자단(대구시)
	청소년 희망카드 도입_ 청소년증 발급 홍보(충청 북도)	-	인성교육 및 품성개발 지 원체계 강화_청소년의 달 기념행사(충청남도)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활성화_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대구시)
	청소년 희망카드 도입_ 청소년증 발급(충청남 도)	-	인성교육 및 품성개발 지 원체계 강화_청소년예절 체험캠프 운영(전라북도)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활성화_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대구시)
	청소년 희망카드 도입_ 청소년증 발급 홍보(전라 북도)	-	인성교육 및 품성개발 지 원체계 강화_청소년 효 한마음 축제(충청북도)	청소년 권리에 대한 교육 실시 및 문 화 조성_청소년과 인권의 어울림(대 구시)
	-	-	인성교육 및 품성개발 지 원체계 강화_도덕성회 복교육(충청북도)	온라인,미디어 매체 활용 참여 확대_ 청소년웹진MOO운영(인천시)
	-	-	-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활성화_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인천시)
	-	-	-	청소년 참여예산제 도입(인천시)
	-	-	-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_청소년참 여위원회, 특별회의 운영 지원(광주 시)
	-	-	-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_청소년시 설운영위원회 운영 지원(광주시)
	-	-	-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_어린이,청 소년 의회 구성, 운영(광주시)
	-	-	-	찾아가는 청소년 인권교실 운영(광 주시)
	-	-	-	청소년 모의 인권 이사회 개최(광주 시)
	-	-	-	어린이,청소년 권리 가이드북 제작 (광주시)
	-	-	-	청년청소년 아르바이트 권익보호증 진(광주시)
	-	-	-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_공공청소 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운영지원 (대전시)
	-	-	-	청소년참여기구 운영 활성화(대전 시)
	-	-	-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활성화_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울산시)
	-	-	-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활성화_청소년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울산시)

구분	제5차 기본계획-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제 5 차 기본계획-기타 (참여 및 권리증진, 복지 및 지립지원, 친화적 환경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	청소년의 인성교육 강화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	-	-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활성화_청소년 참여위원회, 특별회의 운영(세종시)	
-	-	-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활성화_청소년 운영위원회(세종시)	
-	-	-	학생 인권 보호지원(세종시)	
-	-	-	청소년 권리에 대한 교육실시 및 문화조성(세종시)	
-	-	-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지원_남부(경기도)	
-	-	-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지원_북부(경기도)	
-	-	-	청소년 차세대위원회 운영지원(경기도)	
-	-	-	지역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지원(경기도)	
-	-	-	지역사회청소년정책 모니터단 운영(강원도)	
-	-	-	청소년 어울림마당 모니터링 운영(강원도)	
-	-	-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강원도)	
-	-	-	공공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강원도)	
-	-	-	이동,청소년 포럼 지원(충청북도)	
-	-	-	대학생, 청년 포럼 운영(충청북도)	
-	-	-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충청북도)	
-	-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운영(충청북도)	
-	-	-	충청남도청소년참여위원회(충청남도)	
-	-	-	특별회의 충청남도회의(충청남도)	
-	-	-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모니터링단 운영(충청남도)	
-	-	-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지원(충청남도)	
-	-	-	청소년참여예산제 운영(충청남도)	
-	-	-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모니터링단 운영(전라북도)	
-	-	-	전라북도 청소년참여대회(전라북도)	
-	-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운영(전라북도)	
-	-	-	전라북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전라북도)	
-	-	-	청소년특별회의 운영(전라북도)	

구분	제5차 기본계획-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제 5 차 기본계획-기타 (참여 및 권리증진, 복지 및 지립지원, 친화적 환경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	청소년의 인성교육 강화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	-	-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전라남도)
	-	-	-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전라남도)
	-	-	-	청소년위원회[시설, 참여] 운영 활성화(경상북도)
	-	-	-	경상남도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경상남도)
	-	-	-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제주도)
	-	-	-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제주도)
	-	-	-	청소년 특별회의 운영(제주도)
	-	-	-	청소년인권보호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제주도)
공동체 시민성	청소년 소셜픽션 운영(대구시)	-	-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및 선정, 우리마을 교육나눔 컨설팅 지원(대구시)
세계 시민성	-	다문화 프로젝트 추진 중 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충 청북도)	-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 확대_청소년다문화이해교실 운영(대구시)
	-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다원화_국제야영대회 참가(충청북도)	-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 확대_이웃나라 문화체험교육(대구시)
	-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다원화_세계주역을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충청 북도)	-	다문화가정 친정 방문 지원(경상남도)
	-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다원화_국제 한·중 청소년 미술문화 교류(충청 북도)	-	-
	-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다원화_대한민국청 소년자원봉사단 운영(충청 남도)	-	-
	-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다원화_국제청소년자 원봉사지원(충청남도)	-	-
	-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다원화_청소년해외선 진문화탐방(충청남도)	-	-

구분	제5차 기본계획-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제 5 차 기본계획-기타 (참여 및 권리증진, 복지 및 자립지원, 친화적 환경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	청소년의 인성교육 강화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다원화_백제역사탐방(충청남도)	-	-	
-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다원화_청소년 해외문화체험추진(충청남도)	-	-	
-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다원화_대한민국청소년 해외 자원봉사단(전라북도)	-	-	
-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다원화_청소년 국제교류사업(전라북도)	-	-	
-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다원화_한미 청소년 국제교류(전라남도)	-	-	
-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다원화_재외 호남향우회 초청 모범 청소년 해외 견학(전라남도)	-	-	
-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다원화_한중 청소년 국제교류(전라남도)	-	-	
-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다원화_한일 청소년 국제교류(전라남도)	-	-	
-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_세계 청소년 응변대회(경상북도)	-	-	
-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_해외봉사활동 운영(경상북도)	-	-	
-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_청소년 국제교류활동(경상북도)	-	-	
-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다원화_경상남도 청소년 국제교류 등(경상남도)	-	-	

출처 : 여성가족부, 2016a, 2016b를 바탕으로 역량지표에 맞게 재구성한 것임. 역량지표는 성은모, 백해정, 진성희, 2014, pp.198-199, pp. 207-213 참조.

## 6) 정책적 시사점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들의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2013~2017): 2016년도 시행계획(지방자치단체)(여성가족부, 2016a, 2016b) 정책들에 대한 분석결과와는 전년도에 분석한 중앙부처의 정책들에 대한 분석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역량관련 정책분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생애학습역량 범주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현재 시행중인 정책들이 지적도구활용(언어능력, 수학능력, 과학능력, 정보통신활용능력) 범주 부분에 많고, 학습적응성(변화수용력, 지적호기심, 학습주도성) 범주 부분에는 상대적으로 적고, 사고력(비판적 사고력, 감성적 사고력) 범주 부분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측정된 생애학습역량의 측정결과에서는 사고력 > 학습적응성 > 지적도구활용 역량의 순으로 나타났다(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2015; 장근영, 성은모, 이경상, 진성희, 최효선, 김균희, 2016). 따라서 향후에도 현재와 같이 계속 지적도구활용(언어능력, 수학능력, 과학능력, 정보통신활용능력), 학습적응성(변화수용력, 지적호기심, 학습주도성), 사고력(비판적 사고력, 감성적 사고력) 범주의 순으로 정책적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생활관리역량 범주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현재 시행중인 정책들이 건강관리(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신체관리, 위생관리) 범주 부분에 제일 많고, 상황대처(중독행동, 폭력행동, 중독인식, 폭력회피) 범주 부분에도 많으며, 과제관리(목표 및 계획수립, 수행 및 평가)나 정서조절(감정인식, 분노행동, 감정절제, 조절실패) 범주 부분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측정된 생활관리역량의 측정결과에서는 건강관리 > 상황대처 > 과제관리 > 정서조절 역량의 순으로 나타났다(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2015; 장근영, 성은모, 이경상, 진성희, 최효선, 김균희, 2016). 따라서 향후에 과제관리(목표 및 계획수립, 수행 및 평가)나 정서조절(감정인식, 분노행동, 감정절제, 조절실패) 범주 부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진로개발역량 범주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현재 시행중인 정책들이 진로설계(자기탐색, 직업탐색, 진로준비, 직업가치관)와 여가활용(여가태도, 여가유능감, 여가몰입, 여가만족) 범주 부분에는 많은 반면, 개척정신(차별화태도, 도전정신) 범주 부분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측정된 진로개발역량의 측정결과에서는 여가활용 > 진로설계 > 개척정신 역량의 순으로 나타났다(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2015; 장근영, 성은모, 이경상, 진성희, 최효선, 김균희, 2016). 따라서 향후에는 개척정신(차별화태도, 도전정신) 범주 부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넷째, 대인관계역량 범주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현재 시행중인 정책들이 관계형성(자기 개방성, 친화성,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 범주 부분에 많이 있고, 리더십(의사결정, 집단활동관리, 추진력) 범주 부분에는 아주 적으며, 협동(집단촉진, 팔로워십, 갈등문제 해결) 범주 부분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측정된 대인관계역량의 측정결과에서는 협동 > 관계형성 > 리더십 역량의 순으로 나타났다(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2015; 장근영, 성은모, 이경상, 진성희, 최효선, 김균희, 2016). 시행중인 관련 정책이 아주 적은 리더십 범주의 역량이 가장 적게 나타났으나, 관련 정책이 거의 없는 협동 범주의 역량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에는 리더십(의사결정, 집단활동관리, 추진력), 관계형성(자기 개방성, 친화성,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 협동(집단촉진, 팔로워십, 갈등문제 해결) 범주의 순으로 정책적 관심을 갖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섯째, 사회참여역량 범주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현재 시행중인 정책들이 개인시민성(권리 책임의식, 민주적 절차 및 의식, 정치관심 및 정치적 자아효능감) 범주 부분에 가장 많고, 세계시민성(성인지, 이민자에 대한 태도, 국가 및 역사인식, 국제관계이해) 범주 부분에도 많으며, 공동체시민성(공적실천, 사회적 신뢰, 적극적 의견개진, 교실개방성) 범주 부분에는 아주 적게 시행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측정된 사회참여역량의 측정결과에서는 세계시민성 > 개인시민성 > 공동체시민성 역량의 순으로 나타났다(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2015; 장근영, 성은모, 이경상, 진성희, 최효선, 김균희, 2016). 따라서 향후 공동체시민성(공적실천, 사회적 신뢰, 적극적 의견개진, 교실개방성) 역량 부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정책적 시사점들은 이 연구의 정책적 제언 제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2. 청소년 역량관련 청소년 활동시설 프로그램의 경향적 특성

다음으로, 청소년 보호복지시설은 제외하고, 청소년 활동시설에서 수행 중인 활동프로그램들의 청소년 역량관련 경향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청소년 활동시설이라 함은 청소년활동프로그램들이 수행되고 있는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특화시설, 유스호스텔(야영장과 이용시설은 제외)을 지칭한다. 청소년 역량관련 경향적 특성에 대해 살펴본다 함은 청소년 활동시설에서 수행 중인 활동프로그램들이 참가 청소년들의 어떤 역량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를 전체적으로 정밀하게 살펴보고자

함이 아니라 수행 중인 활동프로그램들이 여러 역량들 중 주로 어떤 역량에 주된 영향을 미칠 것인지의 경향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수만 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전체 청소년 활동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활동프로그램들마다 참가 청소년들에 대한 사전-사후 테스트를 통해 각각의 활동프로그램들이 참가 청소년들의 어떤 역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비용, 시간 등 현실적 여건의 측면에서 매우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다음의 절차를 통해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특화시설, 유스호스텔의 5개 청소년 활동시설을 대상으로 활동프로그램들이 청소년들의 여러 역량들 중 주로 어떤 역량에 주된 영향을 미칠 것인지의 청소년 역량관련 경향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특화시설, 유스호스텔의 5개 청소년 활동시설 중에서 시설수가 많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은 비용 등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전체 시설수의 10%에 해당하는 시설을 표집하였고, 시설수가 많지 않은 특화시설, 유스호스텔은 전체 시설을 대상으로 하여 각 시설의 활동프로그램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각 시설의 활동프로그램 자료는 애초에는 2016년 1년 동안의 활동프로그램 진행내역이 담겨있는 시설별 사업보고서를 수집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일부를 제외한 상당수의 시설에서 사업보고서를 정식으로 발간하지 않아 수집을 중간에 포기하였다. 대신 2017년 현재 각 시설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활동프로그램 내용을 중심으로 활동프로그램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 결과 5개 시설에서 분석대상으로 수집된 활동프로그램의 총 개수는 1,041개였다.

이어 수집된 1,041개의 활동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대학교, 연구기관, 청소년 시설의 관련 전문가들 중 총 30명의 역량관련 활동프로그램 전문가들에게 각 활동프로그램들이 이 연구의 역량체계인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사회참여역량 범주 중의 어떤 역량에 주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평가하게 하였다. 그 결과 여러 이유로 인해 주된 영향에 대한 평가가 불가능한 활동프로그램들을 제외하고, 청소년수련원 145개, 청소년수련관 270개, 문화의집 347개, 특화시설 91개, 유스호스텔 44개의 총 897개 활동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 평가가 시행되었다.

이 평가결과를 정리하여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특화시설, 유스호스텔의 5개 청소년 활동시설별 프로그램들의 청소년 역량관련 경향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울러 청소년 활동프로그램들의 청소년 역량관련 경향적 특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시설의 전문가 4분을 마치고 향후 청소년 역량함양을 위해 어떤 부분을 강화해야 하는 지 등에 대해 전문가 FGI를 실시하였다.

## 1) 청소년 활동시설 프로그램들의 경향적 특성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특화시설, 유스호스텔의 5개 청소년 활동시설별로 활동프로그램들의 청소년 역량관련 경향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각 활동프로그램이 청소년 역량의 하위범주 중 어디에 주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결과를 살펴보았다.

### (1) 청소년수련원

먼저 청소년수련원의 프로그램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역량관련 평가결과부터 살펴보면, 먼저 생애학습역량 범주의 사고력(비판적 사고력, 감성적 사고력) 부분은 3.4%, 지적도구활용(언어능력, 수학능력, 과학능력, 정보통신활용능력) 부분은 6.2%, 학습적응성(변화수용력, 지적호기심, 학습주도성) 부분은 16.6%로 나타났다.

또한 생활관리역량 범주의 건강관리(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신체관리, 위생관리) 부분은 6.2%, 과제관리(목표 및 계획수립, 수행 및 평가) 부분은 5.5%, 상황대처(중독행동, 폭력행동, 중독인식, 폭력회피) 부분은 0.7%, 정서조절(감정인식, 분노행동, 감정절제, 조절실패) 부분은 2.8%로 나타났다. 진로개발역량 범주의 진로설계(자기탐색, 직업탐색, 진로준비, 직업가치관) 부분은 10.4%, 여가활용(여가태도, 여가유능감, 여가몰입, 여가만족) 부분은 16.6%, 개척정신(차별화태도, 도전정신) 부분은 1.4%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인관계역량 범주의 관계형성(자기 개방성, 친화성,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 부분은 8.3%, 리더십(의사결정, 집단활동관리, 추진력) 부분은 4.9%, 협동(집단촉진, 팔로워십, 갈등문제 해결) 부분은 6.9%로 나타났다. 사회참여역량 범주의 개인시민성(권리책임의식, 민주적 절차 및 의식, 정치관심 및 정치적 자아효능감) 부분은 4.2%, 공동체시민성(공적실천, 사회적 신뢰, 적극적 의견개진, 교실개방성) 부분은 1.4%, 세계시민성(성인지, 이민자에 대한 태도, 국가 및 역사인식, 국제관계이해) 부분은 4.8%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청소년수련원의 경우, 생애학습역량 범주에서는 사고력(비판적 사고력, 감성적 사고력)과 지적도구활용(언어능력, 수학능력, 과학능력, 정보통신활용능력) 부분에, 생활관리역량 범주에서는 상황대처(중독행동, 폭력행동, 중독인식, 폭력회피)와 정서조절(감정인식, 분노행동, 감정절제, 조절실패) 부분에, 진로개발역량 범주에서는 개척정신(차별화태도, 도전정신) 부분에, 대인관계역량 범주에서는 리더십(의사결정, 집단활동관리, 추진력) 부분에, 사회참여

역량 범주에서는 공동체시민성(공적실천, 사회적 신뢰, 적극적 의견개진, 교실개방성) 부분에 관련 프로그램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6 청소년수련원 프로그램 평가결과

대분류	중분류	하분류	내용	빈도(%)
생애 학습 역량	사고력	(1)비판적사고력	사물과 현상을 바라볼 때 그것과 다른 부분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면서 사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타당성, 정확성, 신뢰성, 가치성을 평가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추론하는 사고능력	5(3.4)
		(2)감성적사고력	실리를 취하기보다는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하기 위해 감성에 기반하여 사고하는 능력	
	지적도구 활용	(3)언어능력	글과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능력	9(6.2)
		(4)수학능력	개인 및 사회생활에서 수를 사용하여 정량적인 사고를 하는 능력	
		(5)과학능력	개인 및 사회생활에서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여 과학적 사고를 하는 능력	
		(6)정보통신 활용능력	정보를 수집, 분석, 처리, 표현하기 위해 컴퓨터를 포함한 정보통신 기기를 활용하는 능력	
	학습 적응성	(7)변화수용력	외부의 자극이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활용하는 능력	24(16.6)
		(8)지적호기심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	
		(9)학습주도성	자신의 학습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계획, 실행, 성찰하는 능력	
생활 관리 역량	건강관리	(10)안전 및 스트레스관리	안전수칙이나 규칙을 숙지하고 안전사고 발생시 상황에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각종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능력	9(6.2)
		(11)신체관리	운동을 통해 자신의 신체를 단련하고 음식 및 생활습관을 조절함으로써 자신의 신체를 관리하는 능력	
		(12)위생관리	개인위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식사 후 양치질이나 비누로 손씻기 등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능력	
	과제관리	(13)목표 및 계획수립	삶의 과제 단위별(학업, 일, 운동, 시간, 경제, 신체 등)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	8(5.5)
		(14)수행 및 평가	목표달성을 위해 과제 수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자기점검하고 평가하는 능력	
	상황대처	(15)중독행동	휴대폰, 인터넷 또는 컴퓨터 매체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하여 자신이 중독되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함으로써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행동(을 제어하는 능력)	1(0.7)
		(16)폭력행동	힘지람이나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 남을 괴롭히며, 재미나 스트레스 해소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동(을 제어하는 능력)	
		(17)중독인식	휴대폰, 인터넷 또는 컴퓨터 매체를 사용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 중독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제어하는 능력	
(18)폭력회피		자신이나 타인의 신체 및 정신적 위협에 대해 대처방법을 모르고 이를 두려워하여 회피하려는 행동(을 제어하는 능력)		

대분류	중분류	하분류	내용	빈도(%)
	정서조절	(19)감정인식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상태에 주의를 기울여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 상태를 인식하는 능력	4(2.8)
		(20)분노행동	기분이 상하거나 화가나면 욱하거나 소리를 지르고 물건 등을 집어던지는 등 화나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표현하는 행동	
		(21)감정절제	슬프거나 힘든 일을 당해도 잘 이겨내며, 화나거나 기분이 상해도 지나친 표현이나 행동을 자제하는 능력	
		(22)조절실패	주변의 상황에 따라 쉽게 기분이 변하며, 자신의 변화된 기분에 따라 언어나 행동 통제가 어려운 상태	
진로 개발 역량	진로설계	(23)자기탐색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업적 소질, 적성을 파악하고 자신이 처한 사회적 환경적 특징을 이해하는 능력	15(10.4)
		(24)직업탐색	직업 정보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하여 자신이 원하는 직업에 대한 특징을 조사하고 정리하는 능력	
		(25)진로준비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공부를 스스로 찾아서 준비하는 능력	
		(26)직업가치관	직업의 보수나 물질적인 중요도보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위해 도전함으로써 얻는 행복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능력	
	여가활용	(27)여가태도	자신의 요구와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여가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능력	24(16.6)
		(28)여가유능감	여가활동에 있어 능숙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 여가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행동하는 능력	
		(29)여가몰입	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흥미를 느끼고 몰입하는 능력	
		(30)여가만족	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활동에 대한 반성과 성찰활동을 통해 만족을 느끼는 능력	
	개척정신	(32)차별화태도	사물이나 현상을 다르게 분석하고 이해함으로써 독창적이고 차별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려는 사고방식	2(1.4)
		(33)도전정신	불확실성을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고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에 도전하는 실천적 능력	
대인 관계 역량	관계형성	(34)자기개방성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에게 자신의 비밀문제를 이야기하며 상의하는 성향	12(8.3)
		(35)친화성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정당하게 대우해준다고 생각하는 성향	
		(36)의사소통	타인의 감정이나 의도를 정확하게 경청하고, 자신의 감정이나 의사를 타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역량	
		(37)공감 및 배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자신의 행동을 포함한 세계를 바라보며, 다른 사람의 관점과 역할을 수용하는 능력	
	리더십	(38)의사결정	근본적인 가치 및 그와 관련된 요소들을 이해함으로써 집단에서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역량	7(4.9)
		(39)집단활동 관리	집단 관련 업무 전반을 파악하여 구성원들간에 협력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역량	
		(40)추진력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다양한 전략을 구상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역량	

대분류	중분류	하분류	내용	빈도(%)
	협동	(41)집단촉진	구성원을 격려하고 권한을 부여해주며 자신감을 불어넣어 줌으로써 자신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량	10(6.9)
		(42)팔로워십	리더와 함께 집단의 비전과 목적을 공유하는 사람으로서 집단 내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리더와 집단의 성공을 좌우하는 리더의 파트너이자 집단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	
		(43)갈등문제 해결	구성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집단 협동 진행에 관한 최신의 정보를 제공해주고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여 집단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	
사회 참여 역량	개인 시민성	(44)권리, 책임 의식	권리 및 책임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범주를 설정하고 사회적 규범과 도덕적 책임을 지키려는 능력	6(4.2)
		(45)민주적절차 및 의식	사회적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데 있어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사결정을 하려는 능력	
		(46)정치관심 및 정치적 자아효능감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정치적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 또는 설명할 수 있는 능력	
	공동체 시민성	(47)공적실천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하여 인권보호 및 증진, 환경보호 운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공동체 발전을 실천하려는 태도	2(1.4)
		(48)사회적신뢰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공적기관(정부, 국회, 정당, 법원, 경찰, 군대, 학교, 미디어) 등에 대한 신뢰의 정도	
		(49)적극적 의견개진	현재 또는 성인이 된 후에 사회적 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투표 등 정치참여 행동을 통해 개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 또는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갖는 태도	
		(50)교실개방성	수업시간에 정치적, 사회적 이슈를 선생님과 학생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하려는 태도와 능력	
	세계 시민성	(51)성 인지	국제사회에 있어 남녀의 특성을 인지하고 성역할을 구분하는 능력	7(4.8)
		(52)이민자에 대한 태도	우리 민족이 아닌 외국인(빈곤국가)이나 소수민족(고려인, 조선족 등)이 우리나라로 이민해 오는 것에 대한 허용 태도와 국내에서 제공하는 교육 및 투표권 등에 사회참여에 대한 허용 태도	
		(53)국가 및 역사인식	국가의 역사와 정치, 경제 등의 사회제도에 대해 일체감을 가지고 집단 가치에 대해 받아 드릴 수 있는 의식 및 태도	
		(54)국제관계 이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자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고 자국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협력하는 능력	
	<b>합계</b>			

출처 : 역량지표는 성은모, 백혜정, 진성희, 2014, pp.198-199, pp. 207-213 참조.

## (2) 청소년수련관

다음으로 청소년수련관의 프로그램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생애학습역량 범주의 사고력(비판적 사고력, 감성적 사고력) 부분은 3.7%, 지적도구활용(언어능력, 수학능력, 과학능력, 정보통신활용능력) 부분은 2.6%, 학습적응성(변화수용력, 지적호기심, 학습주도성) 부분은 4.5%로 나타났다.

그리고 생활관리역량 범주의 건강관리(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신체관리, 위생관리) 부분은 3.0%, 과제관리(목표 및 계획수립, 수행 및 평가) 부분은 2.2%, 상황대처(중독행동, 폭력행동, 중독인식, 폭력회피) 부분은 0.0%, 정서조절(감정인식, 분노행동, 감정절제, 조절실패) 부분은 0.8%로 나타났다. 청소년수련관의 경우에는 생활관리역량 범주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의 숫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개발역량 범주의 진로설계(자기탐색, 직업탐색, 진로준비, 직업가치관) 부분은 11.9%, 여가활용(여가태도, 여가유능감, 여가몰입, 여가만족) 부분은 25.1%, 개척정신(차별화태도, 도전정신) 부분은 3.3%로 나타났다.

또한 대인관계역량 범주의 관계형성(자기 개방성, 친화성,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 부분은 4.8%, 리더십(의사결정, 집단활동관리, 추진력) 부분은 5.1%, 협동(집단축진, 팔로워십, 갈등문제 해결) 부분은 5.2%로 나타났다. 사회참여역량 범주의 개인시민성(권리책임의식, 민주적 절차 및 의식, 정치관심 및 정치적 자아효능감) 부분은 5.2%, 공동체시민성(공적실천, 사회적 신뢰, 적극적 의견개진, 교실개방성) 부분은 20.4%, 세계시민성(성인지, 이민자에 대한 태도, 국가 및 역사의식, 국제관계이해) 부분은 2.2%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생애학습역량 범주에서는 사고력(비판적 사고력, 감성적 사고력)과 지적도구활용(언어능력, 수학능력, 과학능력, 정보통신활용능력) 부분에, 관련 프로그램 숫자가 많지 않은 생활관리역량 범주에서는 건강관리(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신체관리, 위생관리), 과제관리(목표 및 계획수립, 수행 및 평가), 상황대처(중독행동, 폭력행동, 중독인식, 폭력회피), 정서조절(감정인식, 분노행동, 감정절제, 조절실패) 부분 모두에, 진로개발역량 범주에서는 개척정신(차별화태도, 도전정신) 부분에, 사회참여역량 범주에서는 세계시민성(성인지, 이민자에 대한 태도, 국가 및 역사의식, 국제관계이해) 부분에 상대적으로 프로그램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역량 범주에서는 하위 범주간의 빈도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참여역량 범주에서는 공동체시민성(공적실천, 사회적 신뢰, 적극적 의견개진, 교실개방성) 부분의 비율이 많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7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평가결과

대분류	중분류	하분류	내용	빈도(%)
생애 학습 역량	사고력	(1)비판적사고력	사물과 현상을 바라볼 때 그것과 다른 부분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면서 사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타당성, 정확성, 신뢰성, 가치성을 평가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추론하는 사고능력	10(3.7)
		(2)감성적사고력	실리를 취하기보다는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하기 위해 감성에 기반하여 사고하는 능력	
	지적도구 활용	(3)언어능력	글과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능력	7(2.6)
		(4)수학능력	개인 및 사회생활에서 수를 사용하여 정량적인 사고를 하는 능력	
		(5)과학능력	개인 및 사회생활에서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여 과학적 사고를 하는 능력	
	학습 적응성	(6)정보통신 활용능력	정보를 수집, 분석, 처리, 표현하기 위해 컴퓨터를 포함한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는 능력	12(4.5)
		(7)변화수용력	외부의 자극이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활용하는 능력	
		(8)지적호기심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	
		(9)학습주도성	자신의 학습에 대한 주인 의식을 갖고 계획, 실행, 성찰하는 능력	
생활 관리 역량	건강관리	(10)안전 및 스트레스관리	안전수칙이나 규칙을 숙지하고 안전사고 발생시 상황에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각종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능력	8(3.0)
		(11)신체관리	운동을 통해 자신의 신체를 단련하고 음식 및 생활습관을 조절함으로써 자신의 신체를 관리하는 능력	
		(12)위생관리	개인위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식사 후 양치질이나 비누로 손씻기 등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능력	
	과제관리	(13)목표 및 계획수립	삶의 과제 단위별(학업, 일, 운동, 시간, 경제, 신체 등)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	6(2.2)
		(14)수행 및 평가	목표달성을 위해 과제 수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자기점검하고 평가하는 능력	
	상황대처	(15)중독행동	휴대폰, 인터넷 또는 컴퓨터 매체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하여 자신이 중독되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함으로써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행동(을 제어하는 능력)	0(0.0)
		(16)폭력행동	힘자랑이나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 남을 괴롭히며, 재미나 스트레스 해소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동(을 제어하는 능력)	
		(17)중독인식	휴대폰, 인터넷 또는 컴퓨터 매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중독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제어하는 능력	
(18)폭력회피		자신이나 타인의 신체 및 정신적 위협에 대해 대처방법을 모르고 이를 두려워하여 회피하려는 행동(을 제어하는 능력)		

대분류	중분류	하분류	내용	빈도(%)
	정서조절	(19)감정인식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상태에 주의를 기울여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상태를 인식하는 능력	2(0.8)
		(20)분노행동	기분이 상하거나 화가나면 욱하거나 소리를 지르고 물건 등을 집어던지는 등 화나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표현하는 행동	
		(21)감정절제	슬프거나 힘든 일을 당해도 잘 이겨내며, 화나거나 기분이 상해도 지나친 표현이나 행동을 자제하는 능력	
		(22)조절실패	주변의 상황에 따라 쉽게 기분이 변하며, 자신의 변화된 기분에 따라 언어나 행동 통제가 어려운 상태	
진로 개발 역량	진로설계	(23)자기탐색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업적 소질, 적성을 파악하고 자신이 처한 사회적 환경적 특징을 이해하는 능력	32(11.9)
		(24)직업탐색	직업 정보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하여 자신이 원하는 직업에 대한 특징을 조사하고 정리하는 능력	
		(25)진로준비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공부를 스스로 찾아서 준비하는 능력	
		(26)직업가치관	직업의 보수나 물질적인 중요도보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위해 도전함으로써 얻는 행복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능력	
	여가활용	(27)여가태도	자신의 요구와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여가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능력	68(25.1)
		(28)여가유능감	여가활동에 있어 능숙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 여가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행동하는 능력	
		(29)여가몰입	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흥미를 느끼고 몰입하는 능력	
		(30)여가만족	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활동에 대한 반성과 성찰활동을 통해 만족을 느끼는 능력	
	개척정신	(32)차별화태도	사물이나 현상을 다르게 분석하고 이해함으로써 독창적이고 차별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려는 사고방식	9(3.3)
		(33)도전정신	불확실성을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고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에 도전하는 실천적 능력	
대인 관계 역량	관계형성	(34)자기개방성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에게 자신의 비밀문제를 이야기하며 상의하는 성향	13(4.8)
		(35)친화성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정당하게 대우해준다고 생각하는 성향	
		(36)의사소통	타인의 감정이나 의도를 정확하게 경청하고, 자신의 감정이나 의사를 타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역량	
		(37)공감 및 배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자신의 행동을 포함한 세계를 바라보며, 다른 사람의 관점과 역할을 수용하는 능력	
	리더십	(38)의사결정	근본적인 가치 및 그와 관련된 요소들을 이해함으로써 집단에서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역량	14(5.1)
		(39)집단활동 관리	집단 관련 업무 전반을 파악하여 구성원들간에 협력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역량	
		(40)추진력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다양한 전략을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역량	

대분류	중분류	하분류	내용	빈도(%)
	협동	(41)집단촉진	구성원을 격려하고 권한을 부여해주며 자신감을 불어넣어 줌으로써 자신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량	14(5.2)
		(42)팔로워십	리더와 함께 집단의 비전과 목적을 공유하는 사람으로서 집단 내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리더와 집단의 성공을 좌우하는 리더의 파트너이자 집단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	
		(43)갈등문제 해결	구성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집단 협동 진행에 관한 자신의 정보를 제공해주고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여 집단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	
사회 참여 역량	개인 시민성	(44)권리, 책임 의식	권리 및 책임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범주를 설정하고 사회적 규범과 도덕적 책임을 지키려는 능력	14(5.2)
		(45)민주적절차 및 의식	사회적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데 있어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사결정을 하려는 능력	
		(46)정치관심 및 정치적 자이효능감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정치적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 또는 설명할 수 있는 능력	
	공동체 시민성	(47)공적실천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하여 인권보호 및 증진, 환경보호 운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공동체 발전을 실천하려는 태도	55(20.4)
		(48)사회적신뢰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공적기관(정부, 국회, 정당, 법원, 경찰, 군대, 학교, 미디어) 등에 대한 신뢰의 정도	
		(49)적극적 의견개진	현재 또는 성인이 된 후에 사회적 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투표 등 정치참여 행동을 통해 개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 또는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갖는 태도	
		(50)교실개방성	수업시간에 정치적, 사회적 이슈를 선생님과 학생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하려는 태도와 능력	
	세계 시민성	(51)성 인지	국제사회에 있어 남녀의 특성을 인지하고 성역할을 구분하는 능력	6(2.2)
		(52)이민자에 대한 태도	우리 민족이 아닌 외국인(빈곤국가)이나 소수민족(고려인, 조선족 등)이 우리나라로 이민해 오는 것에 대한 허용 태도와 국내에서 제공하는 교육 및 투표권 등에 사회참여에 대한 허용 태도	
		(53)국가 및 역사의식	국가의 역사와 정치, 경제 등의 사회제도에 대해 일체감을 가지고 집단 가치에 대해 받아 드릴 수 있는 의식 및 태도	
		(54)국제관계 이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자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고 자국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협력하는 능력	
	<b>합계</b>			

출처 : 역량지표는 성은모, 백혜정, 진성희, 2014, pp.198-199, pp. 207-213 참조.

### (3) 문화의집

다음으로 문화의집 프로그램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역량관련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생애학습역량 범주의 사고력(비판적 사고력, 감성적 사고력) 부분은 0.6%, 지적도구활용(언어능력, 수학능력, 과학능력, 정보통신활용능력) 부분은 3.8%, 학습적응성(변화수용력, 지적호기심, 학습주도성) 부분은 6.7%로 나타났다.

또한 생활관리역량 범주의 건강관리(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신체관리, 위생관리) 부분은 1.8%, 과제관리(목표 및 계획수립, 수행 및 평가) 부분은 1.5%, 상황대처(중독행동, 폭력행동, 중독인식, 폭력회피) 부분은 0.0%, 정서조절(감정인식, 분노행동, 감정절제, 조절실패) 부분은 0.3%로 나타났다. 문화의 집에도 앞의 청소년수련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생활관리역량 범주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의 숫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개발역량 범주의 진로설계(자기탐색, 직업탐색, 진로준비, 직업가치관) 부분은 17.8%, 여가활용(여가태도, 여가유능감, 여가몰입, 여가만족) 부분은 31.4%, 개척정신(차별화태도, 도전정신) 부분은 1.5%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인관계역량 범주의 관계형성(자기 개방성, 친화성,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 부분은 6.7%, 리더십(의사결정, 집단활동관리, 추진력) 부분은 8.1%, 협동(집단축진, 팔로워십, 갈등문제 해결) 부분은 3.7%로 나타났다. 사회참여역량 범주의 개인시민성(권리책임의식, 민주적 절차 및 의식, 정치관심 및 정치적 자아효능감) 부분은 4.6%, 공동체시민성(공적실천, 사회적 신뢰, 적극적 의견개진, 교실개방성) 부분은 9.3%, 세계시민성(성인지, 이민자에 대한 태도, 국가 및 역사의식, 국제관계이해) 부분은 2.6%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화의집의 경우, 생애학습역량 범주에서는 사고력(비판적 사고력, 감성적 사고력)과 지적도구활용(언어능력, 수학능력, 과학능력, 정보통신활용능력) 부분에, 관련된 프로그램의 숫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생활관리역량 범주에서는 건강관리(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신체관리, 위생관리), 과제관리(목표 및 계획수립, 수행 및 평가), 상황대처(중독행동, 폭력행동, 중독인식, 폭력회피), 정서조절(감정인식, 분노행동, 감정절제, 조절실패) 부분 모두에, 진로개발역량 범주에서는 개척정신(차별화태도, 도전정신) 부분에, 대인관계역량 범주에서는 협동(집단축진, 팔로워십, 갈등문제 해결) 부분에, 사회참여역량 범주에서는 세계시민성(성인지, 이민자에 대한 태도, 국가 및 역사의식, 국제관계이해) 부분에 프로그램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분류	중분류	하분류	내용	빈도(%)
생애 학습 역량	사고력	(1)비판적사고력	사물과 현상을 바라볼 때 그것과 다른 부분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면서 사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타당성, 정확성, 신뢰성, 가치성을 평가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추론하는 사고능력	2(0.6)
		(2)감성적사고력	실리를 취하기보다는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하기 위해 감성에 기반하여 사고하는 능력	
	지적도구 활용	(3)언어능력	글과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능력	13(3.8)
		(4)수학능력	개인 및 사회생활에서 수를 사용하여 정량적인 사고를 하는 능력	
		(5)과학능력	개인 및 사회생활에서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여 과학적 사고를 하는 능력	
	학습 적응성	(6)정보통신 활용능력	정보를 수집, 분석, 처리, 표현하기 위해 컴퓨터를 포함한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는 능력	23(6.7)
		(7)변화수용력	외부의 자극이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활용하는 능력	
		(8)지적호기심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	
	생활 관리 역량	건강관리	(9)학습주도성	자신의 학습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계획, 실행, 성찰하는 능력
(10)안전 및 스트레스관리			안전수칙이나 규칙을 숙지하고 안전사고 발생시 상황에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각종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능력	
(11)신체관리			운동을 통해 자신의 신체를 단련하고 음식 및 생활습관을 조절함으로써 자신의 신체를 관리하는 능력	
과제관리		(12)위생관리	개인위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식사 후 양치질이나 비누로 손씻기 등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능력	5(1.5)
		(13)목표 및 계획수립	삶의 과제 단위별(학업, 일, 운동, 시간, 경제, 신체 등)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	
상황대처		(14)수행 및 평가	목표달성을 위해 과제 수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자기점검하고 평가하는 능력	0(0.0)
		(15)중독행동	휴대폰, 인터넷 또는 컴퓨터 매체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하여 자신이 중독되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함으로써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행동(을 제어하는 능력)	
		(16)폭력행동	힘자랑이나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 남을 괴롭히며, 재미나 스트레스 해소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동(을 제어하는 능력)	
		(17)중독인식	휴대폰, 인터넷 또는 컴퓨터 매체를 사용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 중독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제어하는 능력	
		(18)폭력회피	자신이나 타인의 신체 및 정신적 위협에 대해 대처방법을 모르고 이를 두려워하여 회피하려는 행동(을 제어하는 능력)	

대분류	중분류	하분류	내용	빈도(%)
	정서조절	(19)감정인식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상태에 주의를 기울여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상태를 인식하는 능력	1(0.3)
		(20)분노행동	기분이 상하거나 화가나면 욱하거나 소리를 지르고 물건 등을 집어던지는 등 화나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표현하는 행동	
		(21)감정절제	슬프거나 힘든 일을 당해도 잘 이겨내며, 화나거나 기분이 상해도 지나친 표현이나 행동을 자제하는 능력	
		(22)조절실패	주변의 상황에 따라 쉽게 기분이 변하며, 자신의 변화된 기분에 따라 언어나 행동 통제가 어려운 상태	
진로 개발 역량	진로설계	(23)자기탐색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업적 소질, 적성을 파악하고 자신이 처한 사회적 환경적 특징을 이해하는 능력	62(17.8)
		(24)직업탐색	직업 정보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하여 자신이 원하는 직업에 대한 특징을 조사하고 정리하는 능력	
		(25)진로준비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공부를 스스로 찾아서 준비하는 능력	
		(26)직업가치관	직업의 보수나 물질적인 중요도보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위해 도전함으로써 얻는 행복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능력	
	여가활용	(27)여가태도	자신의 요구와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여가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능력	109(31.4)
		(28)여가유능감	여가활동에 있어 능숙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 여가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행동하는 능력	
		(29)여가몰입	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흥미를 느끼고 몰입하는 능력	
		(30)여가만족	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활동에 대한 반성과 성찰활동을 통해 만족을 느끼는 능력	
개척정신	(32)차별화태도	사물이나 현상을 다르게 분석하고 이해함으로써 독창적이고 차별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려는 사고방식	5(1.5)	
	(33)도전정신	불확실성을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고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에 도전하는 실천적 능력		
대인 관계 역량	관계형성	(34)자기개방성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에게 자신의 비밀문제를 이야기하며 상의하는 성향	23(6.7)
		(35)친화성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정당하게 대우해준다고 생각하는 성향	
		(36)의사소통	타인의 감정이나 의도를 정확하게 경청하고, 자신의 감정이나 의사를 타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역량	
		(37)공감 및 배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자신의 행동을 포함한 세계를 바라보며, 다른 사람의 관점과 역할을 수용하는 능력	
	리더십	(38)의사결정	근본적인 가치 및 그와 관련된 요소들을 이해함으로써 집단에서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역량	28(8.1)
		(39)집단활동 관리	집단 관련 업무 전반을 파악하여 구성원들간에 협력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역량	
		(40)추진력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다양한 전략을 구상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역량	

대분류	중분류	하분류	내용	빈도(%)
	협동	(41)집단촉진	구성원을 격려하고 권한을 부여해주며 자신감을 불어넣어 줌으로써 자신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량	13(3.7)
		(42)팔로워십	리더와 함께 집단의 비전과 목적을 공유하는 사람으로서 집단 내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리더와 집단의 성공을 좌우하는 리더의 파트너이자 집단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	
		(43)갈등문제 해결	구성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집단 협동 진행에 관한 최신의 정보를 제공해주고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여 집단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	
사회 참여 역량	개인 시민성	(44)권리, 책임 의식	권리 및 책임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범주를 설정하고 사회적 규범과 도덕적 책임을 지키려는 능력	16(4.6)
		(45)민주적절차 및 의식	사회적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데 있어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사결정을 하려는 능력	
		(46)정치관심 및 정치적 자아효능감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정치적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 또는 설명할 수 있는 능력	
	공동체 시민성	(47)공적실천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하여 인권보호 및 증진, 환경보호 운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공동체 발전을 실천하려는 태도	32(9.3)
		(48)사회적신뢰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공적기관(정부, 국회, 정당, 법원, 경찰, 군대, 학교, 미디어) 등에 대한 신뢰의 정도	
		(49)적극적 의견개진	현재 또는 성인이 된 후에 사회적 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투표 등 정치참여 행동을 통해 개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 또는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갖는 태도	
		(50)교실개방성	수업시간에 정치적, 사회적 이슈를 선생님과 학생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하려는 태도와 능력	
	세계 시민성	(51)성 인지	국제사회에 있어 남녀의 특성을 인지하고 성역할을 구분하는 능력	9(2.6)
		(52)이민자에 대한 태도	우리 민족이 아닌 외국인(빈곤국가)이나 소수민족(고려인, 조선족 등)이 우리나라로 이민해 오는 것에 대한 허용 태도와 국내에서 제공하는 교육 및 투표권 등에 사회참여에 대한 허용 태도	
		(53)국가 및 역사인식	국가의 역사와 정치, 경제 등의 사회제도에 대해 일체감을 가지고 집단 가치에 대해 받아 드릴 수 있는 의식 및 태도	
(54)국제관계 이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자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고 자국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협력하는 능력		
<b>합계</b>				347(100.0)

출처 : 역량지표는 성은모, 백혜정, 진성희, 2014. pp.198-199, pp. 207-213 참조.

#### (4) 특화시설

다음으로 특화시설 프로그램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역량관련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생애학습역량 범주의 사고력(비판적 사고력, 감성적 사고력) 부분은 44%, 지적도구활용(언어능력, 수학능력, 과학능력, 정보통신활용능력) 부분은 1.1%, 학습적응성(변화수용력, 지적호기심, 학습주도성) 부분은 1.1%로 나타났다. 특화시설의 경우에는 생애학습역량의 범주에 해당되는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생활관리역량 범주의 건강관리(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신체관리, 위생관리) 부분은 3.3%, 과제관리(목표 및 계획수립, 수행 및 평가) 부분은 2.2%, 상황대처(중독행동, 폭력행동, 중독인식, 폭력회피) 부분은 0.0%, 정서조절(감정인식, 분노행동, 감정절제, 조절실패) 부분은 1.1%로 나타났다. 특화시설의 경우에는 또한 생활관리역량의 범주에 해당되는 프로그램들도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진로개발역량 범주의 진로설계(자기탐색, 직업탐색, 진로준비, 직업가치관) 부분은 41.8%, 여가활용(여가태도, 여가유능감, 여가몰입, 여가만족) 부분은 5.5%, 개척정신(차별화태도, 도전정신) 부분은 3.3%로 나타났다. 진로설계(자기탐색, 직업탐색, 진로준비, 직업가치관) 부분이 41.8%로 높게 나타난 것은 특화시설에 진로직업관련 프로그램의 숫자가 다른 시설유형보다 많기 때문이다.

대인관계역량 범주의 관계형성(자기 개방성, 친화성,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 부분은 8.8%, 리더십(의사결정, 집단활동관리, 추진력) 부분은 2.2%, 협동(집단축진, 팔로워십, 갈등문제 해결) 부분은 3.3%로 나타났다. 사회참여역량 범주의 개인시민성(권리책임의식, 민주적 절차 및 의식, 정치관심 및 정치적 자아효능감) 부분은 3.3%, 공동체시민성(공적실천, 사회적 신뢰, 적극적 의견개진, 교실개방성) 부분은 7.7%, 세계시민성(성인지, 이민자에 대한 태도, 국가 및 역사의식, 국제관계이해) 부분은 11.0%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화시설의 경우, 관련 프로그램의 숫자가 많지 않은 생애학습역량 범주에서는 사고력(비판적 사고력, 감성적 사고력), 지적도구활용(언어능력, 수학능력, 과학능력, 정보통신활용능력), 학습적응성(변화수용력, 지적호기심, 학습주도성) 부분 모두에, 마찬가지로 관련 프로그램의 숫자가 많지 않은 생활관리역량 범주에서도 건강관리(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신체관리, 위생관리), 과제관리(목표 및 계획수립, 수행 및 평가), 상황대처(중독행동, 폭력행동, 중독인식, 폭력회피), 정서조절(감정인식, 분노행동, 감정절제, 조절실패) 부분 모두에, 관련

프로그램의 숫자가 많은 진로개발역량 범주에서는 개척정신(차별화태도, 도전정신) 부분에, 대인관계역량 범주에서는 리더십(의사결정, 집단활동관리, 추진력)과 협동(집단촉진, 팔로워십, 갈등문제 해결) 부분에, 사회참여역량 범주에서는 개인시민성(권리책임의식, 민주적 절차 및 의식, 정치관심 및 정치적 자아효능감) 부분에 상대적으로 프로그램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9 특화시설 프로그램 평가결과

대분류	중분류	하분류	내용	빈도(%)
생애 학습 역량	사고력	(1)비판적사고력	사물과 현상을 바라볼 때 그것과 다른 부분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면서 사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타당성, 정확성, 신뢰성, 가치성을 평가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추론하는 사고능력	4(4.4)
		(2)감성적사고력	실리를 취하기보다는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하기 위해 감성에 기반하여 사고하는 능력	
	지적도구 활용	(3)언어능력	글과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능력	1(1.1)
		(4)수학능력	개인 및 사회생활에서 수를 사용하여 정량적인 사고를 하는 능력	
		(5)과학능력	개인 및 사회생활에서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여 과학적 사고를 하는 능력	
		(6)정보통신 활용능력	정보를 수집, 분석, 처리, 표현하기 위해 컴퓨터를 포함한 정보통신 기기를 활용하는 능력	
	학습 적응성	(7)변화수용력	외부의 자극이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활용하는 능력	1(1.1)
		(8)지적호기심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	
		(9)학습주도성	자신의 학습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계획, 실행, 성찰하는 능력	
생활 관리 역량	건강관리	(10)안전 및 스트레스관리	안전수칙이나 규칙을 숙지하고 안전사고 발생시 상황에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각종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능력	3(3.3)
		(11)신체관리	운동을 통해 자신의 신체를 단련하고 음식 및 생활습관을 조절함으로써 자신의 신체를 관리하는 능력	
		(12)위생관리	개인위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식사 후 양치질이나 비누로 손씻기 등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능력	
	과제관리	(13)목표 및 계획수립	삶의 과제 단위별(학업, 일, 운동, 시간, 경제, 신체 등)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	2(2.2)
		(14)수행 및 평가	목표달성을 위해 과제 수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자기점검하고 평가하는 능력	
	상황대처	(15)중독행동	휴대폰, 인터넷 또는 컴퓨터 매체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하여 자신이 중독되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함으로써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행동(을 제어하는 능력)	0(0.0)
		(16)폭력행동	힘자랑이나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 남을 괴롭히며, 재미나 스트레스 해소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동(을 제어하는 능력)	
		(17)중독인식	휴대폰, 인터넷 또는 컴퓨터 매체를 사용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 중독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제어하는 능력	
(18)폭력회피		자신이나 타인의 신체 및 정신적 위협에 대해 대처방법을 모르고 이를 두려워하여 회피하려는 행동(을 제어하는 능력)		

대분류	중분류	하분류	내용	빈도(%)
	정서조절	(19)감정인식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상태에 주의를 기울여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상태를 인식하는 능력	1(1.1)
		(20)분노행동	기분이 상하거나 화가나면 욕하거나 소리를 지르고 물건 등을 집어던지는 등 화나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표현하는 행동	
		(21)감정절제	슬프거나 힘든 일을 당해도 잘 이겨내며, 화나거나 기분이 상해도 지나친 표현이나 행동을 자제하는 능력	
		(22)조절실패	주변의 상황에 따라 쉽게 기분이 변하며, 자신의 변화된 기분에 따라 언어나 행동 통제가 어려운 상태	
진로 개발 역량	진로설계	(23)자기탐색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업적 소질, 적성을 파악하고 자신이 처한 사회적 환경적 특징을 이해하는 능력	38(41.8)
		(24)직업탐색	직업 정보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하여 자신이 원하는 직업에 대한 특징을 조사하고 정리하는 능력	
		(25)진로준비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공부를 스스로 찾아서 준비하는 능력	
		(26)직업가치관	직업의 보수나 물질적인 중요도보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위해 도전함으로써 얻는 행복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능력	
	여가활용	(27)여가태도	자신의 요구와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여가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능력	5(5.5)
		(28)여가유능감	여가활동에 있어 능숙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 여가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행동하는 능력	
		(29)여가몰입	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흥미를 느끼고 몰입하는 능력	
		(30)여가만족	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활동에 대한 반성과 성찰활동을 통해 만족을 느끼는 능력	
	개척정신	(32)차별태도	사물이나 현상을 다르게 분석하고 이해함으로써 독창적이고 차별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려는 사고방식	3(3.3)
		(33)도전정신	불확실성을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고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에 도전하는 실천적 능력	
대인 관계 역량	관계형성	(34)자기개방성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에게 자신의 비밀문제를 이야기하며 상의하는 성향	8(8.8)
		(35)친화성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정당하게 대우해준다고 생각하는 성향	
		(36)의사소통	타인의 감정이나 의도를 정확하게 경청하고, 자신의 감정이나 의사를 타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역량	
		(37)공감 및 배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자신의 행동을 포함한 세계를 바라보며, 다른 사람의 관점과 역할을 수용하는 능력	
	리더십	(38)의사결정	근본적인 가치 및 그와 관련된 요소들을 이해함으로써 집단에서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역량	2(2.2)
		(39)집단활동 관리	집단 관련 업무 전반을 파악하여 구성원들간에 협력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역량	
		(40)추진력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다양한 전략을 구상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역량	

대분류	중분류	하분류	내용	빈도(%)
	협동	(41)집단촉진	구성원을 격려하고 권한을 부여해주며 자신감을 불어넣어 줌으로써 자신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량	3(3.3)
		(42)팔로워십	리더와 함께 집단의 비전과 목적을 공유하는 사람으로서 집단 내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리더와 집단의 성공을 좌우하는 리더의 파트너이자 집단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	
		(43)갈등문제 해결	구성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집단 협동 진행에 관한 최신의 정보를 제공해주고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여 집단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	
	개인 시민성	(44)권리, 책임 의식	권리 및 책임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범주를 설정하고 사회적 규범과 도덕적 책임을 지키려는 능력	3(3.3)
		(45)민주적절차 및 의식	사회적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데 있어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사결정을 하려는 능력	
		(46)정치관심 및 정치적 자아효능감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정치적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 또는 설명할 수 있는 능력	
사회 참여 역량	공동체 시민성	(47)공적실천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하여 인권보호 및 증진, 환경보호 운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공동체 발전을 실천하려는 태도	7(7.7)
		(48)사회적신뢰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공적기관(정부, 국회, 정당, 법원, 경찰, 군대, 학교, 미디어) 등에 대한 신뢰의 정도	
		(49)적극적 의견개진	현재 또는 성인이 된 후에 사회적 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투표 등 정치참여 행동을 통해 개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 또는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갖는 태도	
		(50)교실개방성	수업시간에 정치적, 사회적 이슈를 선생님과 학생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하려는 태도와 능력	
	세계 시민성	(51)성 인지	국제사회에 있어 남녀의 특성을 인지하고 성역할을 구분하는 능력	10(11.0)
		(52)이민자에 대한 태도	우리 민족이 아닌 외국인(반공국가)이나 소수민족(고려인, 조선족 등)이 우리나라로 이민해 오는 것에 대한 허용 태도와 국내에서 제공하는 교육 및 투표권 등에 사회참여에 대한 허용 태도	
		(53)국가 및 역사인식	국가의 역사와 정치, 경제 등의 사회제도에 대해 일체감을 가지고 집단 가치에 대해 받아 드릴 수 있는 의식 및 태도	
		(54)국제관계 이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자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고 자국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협력하는 능력	
<b>합계</b>				91(100.0)

출처 : 역량지표는 성은모, 백해정, 진성희, 2014. pp.198-199, pp. 207-213 참조.

(5) 유스호스텔

다음으로 유스호스텔 프로그램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생애학습역량 범주의 사고력(비판적 사고력, 감성적 사고력) 부분은 0.0%, 지적도구활용(언어능력, 수학능력, 과학능력, 정보통신활용능력) 부분은 2.3%, 학습적응성(변화수용력, 지적호기심, 학습주도성) 부분은 4.6%로 나타났다. 유스호스텔의 경우 전체적으로 생애학습역량 범주의 프로그램 숫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생활관리역량 범주의 건강관리(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신체관리, 위생관리) 부분은 11.4%, 과제관리(목표 및 계획수립, 수행 및 평가) 부분은 0.0%, 상황대처(중독행동, 폭력행동, 중독인식, 폭력회피) 부분은 0.0%, 정서조절(감정인식, 분노행동, 감정절제, 조절실패) 부분도 0.0%로 나타났다. 진로개발역량 범주의 진로설계(자기탐색, 직업탐색, 진로준비, 직업가치관) 부분은 11.4%, 여가활용(여가태도, 여가유능감, 여가몰입, 여가만족) 부분은 13.5%, 개척정신(차별화태도, 도전정신) 부분은 2.3%로 나타났다.

또한 대인관계역량 범주의 관계형성(자기 개방성, 친화성,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 부분은 0.0%, 리더십(의사결정, 집단활동관리, 추진력) 부분은 15.9%, 협동(집단축진, 팔로워십, 갈등문제 해결) 부분은 6.8%로 나타났다. 사회참여역량 범주의 개인시민성(권리책임의식, 민주적 절차 및 의식, 정치관심 및 정치적 자아효능감) 부분은 0.0%, 공동체시민성(공적실천, 사회적 신뢰, 적극적 의견개진, 교실개방성) 부분은 4.5%, 세계시민성(성인지, 이민자에 대한 태도, 국가 및 역사의식, 국제관계이해) 부분은 27.3%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스호스텔의 경우, 관련 프로그램의 숫자가 많지 않은 생애학습역량 범주에서는 사고력(비판적 사고력, 감성적 사고력), 지적도구활용(언어능력, 수학능력, 과학능력, 정보통신활용능력), 학습적응성(변화수용력, 지적호기심, 학습주도성) 부분 모두에, 생활관리역량 범주에서는 과제관리(목표 및 계획수립, 수행 및 평가), 상황대처(중독행동, 폭력행동, 중독인식, 폭력회피)와 정서조절(감정인식, 분노행동, 감정절제, 조절실패) 부분에, 진로개발역량 범주에서는 개척정신(차별화태도, 도전정신) 부분에, 대인관계역량 범주에서는 관계형성(자기 개방성, 친화성,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 부분에, 사회참여역량 범주에서는 개인시민성(권리책임의식, 민주적 절차 및 의식, 정치관심 및 정치적 자아효능감), 공동체시민성(공적실천, 사회적 신뢰, 적극적 의견개진, 교실개방성) 부분에 상대적으로 프로그램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10

유스호텔 프로그램 평가결과

대분류	중분류	하분류	내용	빈도(%)
생애 학습 역량	사고력	(1)비판적사고력	사물과 현상을 바라볼 때 그것과 다른 부분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면서 사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타당성, 정확성, 신뢰성, 가치성을 평가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추론하는 사고능력	0(0.0)
		(2)감성적사고력	실리를 취하기보다는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하기 위해 감성에 기반하여 사고하는 능력	
	지적도구 활용	(3)언어능력	글과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능력	1(2.3)
		(4)수학능력	개인 및 사회생활에서 수를 사용하여 정량적인 사고를 하는 능력	
		(5)과학능력	개인 및 사회생활에서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여 과학적 사고를 하는 능력	
		(6)정보통신 활용능력	정보를 수집, 분석, 처리, 표현하기 위해 컴퓨터를 포함한 정보통신 기기를 활용하는 능력	
	학습 적응성	(7)변화수용력	외부의 자극이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활용하는 능력	2(4.6)
		(8)지적호기심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	
		(9)학습주도성	자신의 학습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계획, 실행, 성찰하는 능력	
생활 관리 역량	건강관리	(10)안전 및 스트레스관리	안전수칙이나 규칙을 숙지하고 안전사고 발생시 상황에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각종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능력	5(11.4)
		(11)신체관리	운동을 통해 자신의 신체를 단련하고 음식 및 생활습관을 조절함으로써 자신의 신체를 관리하는 능력	
		(12)위생관리	개인위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식사 후 양치질이나 비누로 손씻기 등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능력	
	과제관리	(13)목표 및 계획수립	삶의 과제 단위별(학업, 일, 운동, 시간, 경제, 신체 등)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	0(0.0)
		(14)수행 및 평가	목표달성을 위해 과제 수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자기점검하고 평가하는 능력	
	상황대처	(15)중독행동	휴대폰, 인터넷 또는 컴퓨터 매체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하여 자신이 중독되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함으로써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행동(을 제어하는 능력)	0(0.0)
		(16)폭력행동	힘자랑이나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 남을 괴롭히며, 재미나 스트레스 해소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동(을 제어하는 능력)	
		(17)중독인식	휴대폰, 인터넷 또는 컴퓨터 매체를 사용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 중독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제어하는 능력	
(18)폭력회피		자신이나 타인의 신체 및 정신적 위협에 대해 대처방법을 모르고 이를 두려워하여 회피하려는 행동(을 제어하는 능력)		

대분류	중분류	하분류	내용	빈도(%)
	정서조절	(19)감정인식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상태에 주의를 기울여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상태를 인식하는 능력	0(0.0)
		(20)분노행동	기분이 상하거나 화가나면 욱하거나 소리를 지르고 물건 등을 집어던지는 등 화나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표현하는 행동	
		(21)감정절제	슬프거나 힘든 일을 당해도 잘 이겨내며, 화나거나 기분이 상해도 지나친 표현이나 행동을 자제하는 능력	
		(22)조절실패	주변의 상황에 따라 쉽게 기분이 변하며, 자신의 변화된 기분에 따라 언어나 행동 통제가 어려운 상태	
진로 개발 역량	진로설계	(23)자기탐색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업적 소질, 적성을 파악하고 자신이 처한 사회적 환경적 특징을 이해하는 능력	5(11.4)
		(24)직업탐색	직업 정보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하여 자신이 원하는 직업에 대한 특징을 조사하고 정리하는 능력	
		(25)진로준비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공부를 스스로 찾아서 준비하는 능력	
		(26)직업가치관	직업의 보수나 물질적인 중요도보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위해 도전함으로써 얻는 행복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능력	
	여가활용	(27)여가태도	자신의 요구와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여가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능력	6(13.5)
		(28)여가유능감	여가활동에 있어 능숙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 여가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행동하는 능력	
		(29)여가몰입	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흥미를 느끼고 몰입하는 능력	
		(30)여가만족	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활동에 대한 반성과 성찰활동을 통해 만족을 느끼는 능력	
	개척정신	(32)차별화태도	사물이나 현상을 다르게 분석하고 이해함으로써 독창적이고 차별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려는 사고방식	1(2.3)
		(33)도전정신	불확실성을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고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에 도전하는 실천적 능력	
대인 관계 역량	관계형성	(34)자기개방성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에게 자신의 비밀문제를 이야기하며 상의하는 성향	0(0.0)
		(35)친화성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정당하게 대우해준다고 생각하는 성향	
		(36)의사소통	타인의 감정이나 의도를 정확하게 경청하고, 자신의 감정이나 의사를 타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역량	
		(37)공감 및 배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자신의 행동을 포함한 세계를 바라보며, 다른 사람의 관점과 역할을 수용하는 능력	
	리더십	(38)의사결정	근본적인 가치 및 그와 관련된 요소들을 이해함으로써 집단에서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역량	7(15.9)
		(39)집단활동 관리	집단 관련 업무 전반을 파악하여 구성원들간에 협력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역량	
		(40)추진력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다양한 전략을 구상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역량	

대분류	중분류	하분류	내용	빈도(%)
	협동	(41)집단촉진	구성원을 격려하고 권한을 부여해주며 자신감을 불어넣어 줌으로써 자신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량	3(6.8)
		(42)팔로워십	리더와 함께 집단의 비전과 목적을 공유하는 사람으로서 집단 내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리더와 집단의 성공을 좌우하는 리더의 파트너이자 집단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	
		(43)갈등문제 해결	구성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집단 협동 진행에 관한 최신의 정보를 제공해주고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여 집단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	
사회 참여 역량	개인 시민성	(44)권리, 책임 의식	권리 및 책임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범주를 설정하고 사회적 규범과 도덕적 책임을 지키려는 능력	0(0.0)
		(45)민주적절차 및 의식	사회적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데 있어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사결정을 하려는 능력	
		(46)정치관심 및 정치적 자아효능감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정치적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 또는 설명할 수 있는 능력	
	공동체 시민성	(47)공적실천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하여 인권보호 및 증진, 환경보호 운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공동체 발전을 실천하려는 태도	2(4.5)
		(48)사회적신뢰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공적기관(정부, 국회, 정당, 법원, 경찰, 군대, 학교, 미디어) 등에 대한 신뢰의 정도	
		(49)적극적 의견개진	현재 또는 성인이 된 후에 사회적 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투표 등 정치참여 행동을 통해 개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 또는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갖는 태도	
		(50)교실개방성	수업시간에 정치적, 사회적 이슈를 선생님과 학생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하려는 태도와 능력	
	세계 시민성	(51)성 인지	국제사회에 있어 남녀의 특성을 인지하고 성역할을 구분하는 능력	12(27.3)
		(52)이민자에 대한 태도	우리 민족이 아닌 외국인(빈곤국가)이나 소수민족(고려인, 조선족 등)이 우리나라로 이민해 오는 것에 대한 허용 태도와 국내에서 제공하는 교육 및 투표권 등에 사회참여에 대한 허용 태도	
		(53)국가 및 역사인식	국가의 역사와 정치, 경제 등의 사회제도에 대해 일체감을 가지고 집단 가치에 대해 받아 드릴 수 있는 의식 및 태도	
(54)국제관계 이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자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고 자국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협력하는 능력		
<b>합계</b>				44(100.0)

출처 : 역량지표는 성은모, 백혜경, 진성희, 2014, pp.198-199, pp. 207-213 참조.

## 2) 전문가 FGI

이어 청소년 활동시설 프로그램들의 청소년 역량관련 경향적 특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시설 전문가 4분을 모시고 향후 청소년 역량함양을 위해 어떤 부분의 강화에 힘을 써야 하는 지 등에 대해 전문가 FGI를 실시하였다.

우선 전문가 분들은 청소년 활동시설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 평가결과에 나타난 경향적 특성이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였다.

향후 청소년 역량함양을 위해 어떤 부분의 강화에 힘을 쓰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참여자C 선생님은 대인관계 역량 범주의 관계형성 부분의 공감 및 배려와 같은 역량의 함양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청소년 활동시설에서 또래와의 관계형성 프로그램 같은 것을 실시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참여자C : 진로개발역량이...제일 높게 나타났어요...그 결과를 반영해서 봤을 때에는 청소년인구가 감소하고...또래와의 관계 형성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그런 상황에서 공감 및 배려를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참여자A 선생님은 개인시민성, 공동체시민성 등을 포함하여 사회참여 역량 범주의 전반에 대한 함양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현행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동단위 등의 소규모로 나누고 지역 청소년기관들에서 운영하는 체제로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참여자B 선생님도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역량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참여자A : 저는...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사회참여역량하고...사회참여역량은...아이들이 봉사활동하는 것도 사회참여이고, 아이들이 정책제안을 하는 것도 사회참여인데요...사회참여는 지금 청소년들이...사회문제에 관심을 갖는다든지 수동적인 삶을 능동적인 삶으로 바꿔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량인 것 같아요...이런 부분에 있어서...만약에 사업을 운영한다면 저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지금 하고 있는 참여위원회 같은 경우는...그 지역 안에서도 관심자만...그러니까 골고루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다른 지역에서는 오지 않으니까...저는 이것을 동단위나 소규모로 조금 더 나누고...참여위원회를 지역에 있는 청소년 기관들이나 유관 공공기관들에서 운영하는 체계였으면 좋겠어요...단순히 여성가족부에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지금 하고 있는 특별회의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동단위로 쪼개진 참여위원회로요...실제적으로 청소년들의 사회참여가 다양하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소수에 한정되어있고...어쨌든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면 더 광범위하고 세부적으로 사회참여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죠...

참여자B : 저희도 고민하는 게 사회참여역량을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을까...아무래도 청소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청소년들의 참여권이나 투표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그 방향성에서 사회 시민으로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여자D 선생님은 생활관리역량의 함양이 중요한 것 같다고 하면서, 청소년 활동시설에서 생활관리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실시에 관심을 갖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참여자D : 생활관리역량을 보면 정책적으로나 평소에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이 나와있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의 요구도 없고 해봐야 아이들이 관심도 많이 가져주지도 않고요. 그러나 이 역량이 청소년들의 발달에 있어서 필요한 역량인거죠.

진로직업관련 특화시설에 계시는 참여자B 선생님은 기존의 진로직업관련 프로그램들도 중요하지만 향후 4차산업혁명과 같은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진로직업관련 프로그램들로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진로개발역량과 생애학습역량을 동시에 발달시킬 수 있는 역량의 함양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런 방향에서 프로그램 같은 것은 개발해서 실시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참여자D 선생님도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 진로개발역량과 다른 역량이 수렴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해주었다.

참여자B : 저희는 진로특화시설이다 보니까 진로쪽에서 어떻게 청소년을 만날 것인가 내지는 뭐 요즘 워낙 또 언론이나 이런데서 4차산업혁명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사실 보면 전체적으로 생애학습역량 이 부분은...대부분의 기관들이... 약하더라고요.. 그래서...(진로개발역량하고-연구자 주) 생애학습역량을 같이 동시에 발달시킬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더라고요...

참여자B : 네. 제 생각은 그래요. 왜냐하면 진로개발역량이라는게 그냥 단순한 직업체험을 한다고 해서 확 오르는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인적인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청소년들을 어떻게 발달시킬 것인가, 조금 더 확장시킬 수 있을지 그런 것에 있어서는 몇 가지 결합해서

가야할 것 같고요...

참여자D : 2013년부터 진로센터가 생기면서 센터장 같이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자유학기제를 지원하는 형태로 사업이 시작되었고요. 창의인성센터는 별도로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는...수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미래의 4차산업혁명을 대비하는 것으로...

참여자D : 4차산업혁명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모르는거예요. 얘기만 나오지 뭘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드론체험하고 VR체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4차산업혁명을 대비한 도구를 가지고 했을 때 드론을 할 경우에 드론에 대한 조종법을 익히는게 아니라 드론을 통해서 창의력이 키워지는건지, 복합적인 사고가 생기는 건지 그것을 연구해야하죠.

아울러 참여자A 선생님은 4차 산업혁명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더라도 결과중심적으로 보여주기식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는 안되고 실질적으로 역량향상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참여자A : 저희도 3d프린터로 뭔가를 하는데, 기존에는 저 같은 경우는 3d프린터를 활용한다고 하면 이 프린터만 중요한 것이었거든요. 결과물이 나와야 하니까요. 이걸 막상하다 보니까 뽑는 게 아니고 이걸 뽑기 위해서 설계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내가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접근을 결과중심적으로만 했구나...이렇게만 하다보니까 아이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흥미위주로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진로역량이 향상이 되느냐고 했을 때는 의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여자D 선생님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을 할 때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이 프로그램이 어떠한 역량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부각시켜 제공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해주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사업을 공모할 때도 지금처럼 분야별로 공모하지 않고 역량을 강조하는 형태로 공모하면 역량중심의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될 수도 있다고 얘기해주었다.

참여자D : 저희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내가 이번에 사회참여역량을 위해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아요...그런데 목적목표를 보면 그런 방향으로 가죠...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시대는 급히 변하고 있고 학부모나 학생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이 부분을

집중할 필요는 있겠더라고요. 역량을 좀 더 부각시켜서 내세울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참여자D : (공모에서 역량을 강조하면?-연구자 주) 그럼 굉장히 다양해지죠. 활동안전, 문화예술 이런 분야로만 공모하니깐요. 친편일률적인 사업에서도 그 안에서 뽑아내야하고요.

그리고 참여자A 선생님은 청소년 활동시설 유형별로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역량들을 구분해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방안에도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참여자D 선생님도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함께 피력하였다.

참여자A : 저는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시설이 가지고 있는 목적 자체도 틀리고요. 특화시설이나 수련관, 문화의집은 청소년들의 접근성 자체가 틀린데요. 그렇게 접근성자체가 틀리다는 것은 곧 시설을 방문하는 이용 빈도수 자체도 굉장히 틀리기 때문에 역량자체도 다르게 설정하는 게 앞으로 저희가 준비할 때는 더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수련관에서 만약에 사회참여역량을 강화한다고 하면 문화의집에서는 방과후아카데미를 중심으로 해서 생활관리역량에 더 초점을 맞추어서 할 수도 있고요. 진로개발 역량은 특화시설이나 진로센터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참여자D : 하나 더 덧붙이자면 시설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최근에 수련관이나 문화의집이 규모나 기능적인 이런 게 확실히 좀 쉬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디는 문화의집이 규모가 더 커지고요.

### 3) 정책적 시사점

여기에서는 먼저 이상의 청소년 역량관련 경향적 특성에 대한 분석결과로부터 청소년 역량범주 별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첫째, 생애학습역량 범주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에서는 사고력(비판적 사고력, 감성적 사고력)과 지적도구활용(언어능력, 수학능력, 과학능력, 정보통신활용능력) 부분에, 관련 프로그램의 숫자가 많지 않은 특화시설, 유스호스텔에서는 사고력(비판적 사고력, 감성적 사고력), 지적도구활용(언어능력, 수학능력, 과학능력, 정보통신활용능력), 학습적응성(변화수용력, 지적호기심, 학습주도성) 부분 모두에 관련 프로그램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생애학습역량 측정결과에 따르면, 사고력 > 학습적응성 > 지적도구활용

역량의 순으로 나타났다(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2015; 장근영, 성은모, 이경상, 진성희, 최효선, 김균희, 2016). 따라서 청소년활동시설에서는 향후에도 계속 지적도구활용(언어 능력, 수학능력, 과학능력, 정보통신활용능력), 학습적응성(변화수용력, 지적호기심, 학습주도성), 사고력(비판적 사고력, 감성적 사고력) 범주의 순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생활관리역량 범주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수련원에서는 상황대처(중독행동, 폭력행동, 중독인식, 폭력회피)와 정서조절(감정인식, 분노행동, 감정절제, 조절실패) 부분에, 관련된 프로그램의 수가 많지 않은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특화시설에서는 건강관리(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신체관리, 위생관리), 과제관리(목표 및 계획수립, 수행 및 평가), 상황대처(중독행동, 폭력행동, 중독인식, 폭력회피)와 정서조절(감정인식, 분노행동, 감정절제, 조절실패) 부분 모두에, 유스호스텔에서는 과제관리(목표 및 계획수립, 수행 및 평가), 상황대처(중독행동, 폭력행동, 중독인식, 폭력회피)와 정서조절(감정인식, 분노행동, 감정절제, 조절실패) 부분에 관련 프로그램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생활관리역량 측정결과에 따르면, 건강관리 > 상황대처 > 과제관리 > 정서조절 역량의 순으로 나타났다(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2015; 장근영, 성은모, 이경상, 진성희, 최효선, 김균희, 2016). 따라서 청소년활동시설에서는 향후에 정서조절(감정인식, 분노행동, 감정절제, 조절실패), 과제관리(목표 및 계획수립, 수행 및 평가), 상황대처(중독행동, 폭력행동, 중독인식, 폭력회피), 건강관리(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신체관리, 위생관리) 범주의 순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진로개발역량 범주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특화시설, 유스호스텔 모두 개척정신(차별화태도, 도전정신) 부분에 관련 프로그램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진로개발역량 측정결과에 따르면, 여가활용 > 진로설계 > 개척정신 역량의 순으로 나타났다(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2015; 장근영, 성은모, 이경상, 진성희, 최효선, 김균희, 2016). 따라서 향후 청소년활동시설에서는 개척정신(차별화태도, 도전정신) 부분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넷째, 대인관계역량 범주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수련원에서는 리더십(의사결정, 집단활동관리, 추진력) 부분에, 문화의집에서는 협동(집단축진, 팔로워십, 갈등문제 해결) 부분에, 특화시설에서는 리더십(의사결정, 집단활동관리, 추진력)과 협동(집단축진, 팔로워십, 갈등문제 해결) 부분에, 유스호스텔에서는 관계형성(자기 개방성, 친화성,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 부분에 관련 프로그램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수련관에서는 하위 범주간 빈도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각 시설마다 부족한 프로그램이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대인관계역량 측정결과에 따르면, 협동 > 관계형성 > 리더십 역량의 순으로 나타났다(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2015; 장근영, 성은모, 이경상, 진성희, 최효선, 김균희, 2016). 따라서 향후에는 청소년활동시설에서 리더십(의사결정, 집단활동관리, 추진력), 관계형성(자기 개방성, 친화성,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 협동(집단촉진, 팔로워십, 갈등문제 해결) 범주의 순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섯째, 사회참여역량 범주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수련원에서는 공동체시민성(공적 실천, 사회적 신뢰, 적극적 의견개진, 교실개방성) 부분에,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에서는 세계시민성(성인지, 이민자에 대한 태도, 국가 및 역사인식, 국제관계이해) 부분에, 특화시설에서는 개인시민성(권리책임의식, 민주적 절차 및 의식, 정치관심 및 정치적 자아효능감) 부분에, 유스호스텔에서는 개인시민성(권리책임의식, 민주적 절차 및 의식, 정치관심 및 정치적 자아효능감)과 공동체시민성(공적실천, 사회적 신뢰, 적극적 의견개진, 교실개방성) 부분에 관련 프로그램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사회참여역량 측정결과에 따르면, 세계시민성 > 개인시민성 > 공동체시민성 역량의 순으로 나타났다(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2015; 장근영, 성은모, 이경상, 진성희, 최효선, 김균희, 2016). 따라서 향후 청소년활동시설에서는 공동체시민성(공적실천, 사회적 신뢰, 적극적 의견개진, 교실개방성), 개인시민성(권리책임의식, 민주적 절차 및 의식, 정치관심 및 정치적 자아효능감), 세계시민성(성인지, 이민자에 대한 태도, 국가 및 역사인식, 국제관계이해) 범주의 순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전문가 FGI에 대한 분석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전문가 FGI에서는, 참여자C 선생님이 대인관계 역량 범주의 관계형성 부분의 공감 및 배려와 같은 역량의 함양에 관심을 갖는 것의 중요성을 얘기하였고, 참여자A 선생님은 개인시민성, 공동체시민성 등을 포함하여 사회참여 역량 범주의 전반에 대한 함양에 관심을 갖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개선을 얘기하였다. 참여자D 선생님은 생활관리역량의 함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참여자B 선생님은 향후 4차산업혁명과 같은 미래를 대비해서 진로개발역량과 생애학습역량을 동시에 발달시킬 수 있는 역량의 함양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주었다. 아울러 프로그램을 공고하고 만들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역량을 부각시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고, 청소년 활동시설 유형별로 중점 역량들을 구분해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해주었다.

이상의 정책적 시사점들은 이 연구의 정책적 제언 제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 제 VIII 장

---

# 논의 및 정책제언

1. 청소년 역량지표 측정결과와 정책적 함의
2. ICCS 2016 조사결과의 정책적 함의
3. 청소년활동프로그램 분석결과와 정책적 함의
4. 아시아지역모듈 분석결과와 정책적 함의



## 제 VIII 장

# 논의 및 정책제언

### 1. 청소년 역량지표 측정결과와 정책적 함의<sup>24)</sup>

본 연구는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CCS 2016’의 5개년(2014~2018) 연구과제이며, 2017년도 4차년도 연구과제에 해당된다. 1차 년도(2014년) 연구과제에서는 청소년 역량지수 구조와 측정문항을 개발하였고, 2차 년도(2015) 연구과제는 실제적인 청소년 역량지수를 국가수준에서 측정하였으며, 3차 년도(2016년) 연구과제에서는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사용의 용이성을 위하여 단축문항을 개발하는 일련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4차 년도(2017년) 연구과제인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다양한 통계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점수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해석하고자 하였다.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조사 결과의 자료 분석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진행되었다. 하나는 2017 청소년 역량지수의 수준과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초통계분석과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특성 변인에 따른 차이분석을 실시하였고, 다른 하나는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점수의 성장시기별(학교급별) 차이에 대한 원인을 심층분석을 실시하였다.

2017 청소년 역량지수의 수준과 실태 분석은 청소년 역량군별로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그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때 지난 3개년도(2014~2016)의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결과를 활용하여 청소년 역량의 변화 추이(2014~2017)를 비교분석하였다.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점수의 성장시기별(학교급별) 차이에 대한 심층분석은 청소년 역량지수의 성장시기별(학교급별) 역량점수의 차이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청소년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심리적 요인과 외부환경 요인에 따른 조절효과, 성장시기별 역량지수 측정점수 차이에 대한 문항반응이론(IRT) 분석, 그리고 성별 차이에 대한 차별기능문항(DIF) 분석을 실시하

24) 이 장은 성은모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진성희 교수(한밭대학교), 최호선 박사(서울대학교), 김균희 연구원(인하대학교)이 공동으로 집필하였음.

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과 연구방법을 통해 도출된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전체적인 측정결과를 청소년 역량지수 역량군별(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그리고 대인관계역량)로 논의하고,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점수 차이에 대한 심층분석결과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1) 청소년 역량지표 측정결과의 정책적 의미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에 대한 전체적인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에 따른 측정문항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2016년도에서 개발된 청소년 역량지수 단축문항을 활용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그리고 대인관계역량 측정문항이 정규성(왜도<2, 첨도<7)을 확보하였고, 측정문항간 상관관계계수도 양호하며, 신뢰도 계수도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이 2014년도 개발된 이후 2015년, 2016년, 그리고 2017년도에 이르기 까지 청소년의 역량을 타당하게 측정하고 있으며, 그 측정결과가 일관성 있게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유용한 측정도구임이 재확인되었다.

둘째,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먼저 2017 청소년 역량지수 평균은 299(4점 만점, SD=43)으로 7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도 292(73%), 2016년도 292(73%)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역량군별로는 진로개발역량(SD=.45)과 대인관계역량(SD=.47)이 3.01로써 75% 수준으로 나타났고, 생애학습역량 2.86(SD=.42) 72%, 그리고 생활관리역량이 3.01(SD=.39) 77%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르면, 전체 역량에 따른 성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역량군 별로는 성별차이가 유의미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교급별 성장시기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역량 점수가 대학생의 역량점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성취도 수준과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 역량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로는 서울, 부산, 대전, 인천지역 등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역량이 강원, 제주, 전북, 경북 지역 등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역량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청소년 역량은 남자 청소년이 여자청소년들보다 높으며, 학업성취수준과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이 역량 수준이 높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지역에 따른 역량차이는 그 원인이 다양하게 작동될 수 있기 때문이 이에 대해서는 보다 조심스러운 해석이 요구되며, 그 원인을 심도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 하겠다.

## 2) 청소년 역량영역별 분석결과와 정책적 의미

다음으로 청소년 역량지수 역량군별(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그리고 대인관계역량) 측정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생애학습역량에서는 사고력(2.99)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학습적응성(2.90), 지적도구활용능력(2.78)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서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청소년 보다 높았고, 초등학교생이 중·고·대학생 역량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학업성취수준과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높았고, 지역별로는 부산이 가장 높고, 강원과 전북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생활관리역량에서는 건강관리(3.19)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상황대처(3.12), 정서조절(3.00), 과제관리(2.97)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서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청소년 보다 높았고, 초·중학교생이 고등·대학생 역량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학업성취수준과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높았고, 지역별로는 부산이 가장 높고, 전북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진로개발역량에서는 여가활용(3.16)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진로설계(3.03), 개척정신(2.74)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서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청소년 보다 높았고, 초등학교생이 중·고·대학생 역량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학업성취수준과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높았고, 지역별로는 부산지역이 가장 높고, 강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대인관계역량에서는 관계형성(3.09)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협동(3.04), 리더십(2.88)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서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청소년 보다 높았고, 중·고·대학생이 초등학교생 역량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학업성취수준과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높았고, 지역별로는 부산지역이 가장 높고, 세종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실시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성은모 외, 2014; 장근영 외, 2015; 장근영 외, 2016) 결과와 유사하다. 한편, 학교급에 따라서는 초등학교생이 다른 집단에 비해 대인관계역량이 두드러지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기존의 연구결과(성은모 외, 2014; 장근영 외, 2015; 장근영 외, 2016)와 다른 점으로, 기존연구에서는 학교급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역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출생연도가 늦을수록 대인관계역량이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기도 한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는 출생연도가 늦을수록 대인관계형성역량 중 관계형성역량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2005-2007년도 출생자들(2017년 현재 초등학교 고학년인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대인관계역량이 두드러지게 낮아진 원인에 대해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한편으로는 이들이 타인과 신뢰를 기초로 의견을 주고받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관계형성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VIII-1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차이 종합분석

구분		2017 청소년 역량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성별	남자	N.S.	+	-	+	-
	여자	N.S.	-	+	-	+
학교급	초등학교	+	+	+	+	-
	중학교	-	-	+	-	+
	고등학교	-	-	+	-	+
	대학교	-	-	-	-	+
학업성취수준	상	+	+	+	+	+
	중	-	-	-	-	-
	하	-	-	-	-	-
경제수준	상	+	+	+	+	+
	중	-	-	-	-	-
	하	-	-	-	-	-
지역	서울	+	+	+	+	+
	부산	+	+	-	+	+
	대구	-	-	-	+	+
	인천	+	+	-	+	+
	광주	+	+	-	-	-
	대전	-	+	+	+	+
	울산	+	-	+	+	+
	세종	+	-	+	+	+
	경기	+	+	+	-	-
	강원	-	+	-	-	-
	충북	-	-	+	+	+
	충남	-	-	+	-	-
	전북	-	+	+	-	-
	전남	+	+	+	+	+
	경북	-	-	-	+	-
	경남	+	+	-	+	+
	제주	-	-	-	-	-

### 3) 청소년 역량지표에 대한 시계열 비교결과의 정책적 의미

2014~2017년도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결과를 활용하여 청소년 역량의 변화 추이를 비교분석한 결과에 대한 논의이다.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변화추이(2014~2017)를 살펴본 결과, 청소년 생애학습 역량 지수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점차 증가하다, 2017년 조사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성장시기별(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의 생애학습역량지수는 지속적으로 소폭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었으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2015년이 가장 높고 이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생애학습역량군의 사고력의 경우 2015년 이후 조사 결과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초등학생의 경우 2016년이 가장 높았으나 2017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중학생은 2017년 조사결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은 2016년보다 2017년 사고력 지수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지적도구활용역량은 2015년에 비해 2016년과 2017년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결과 변화추이는 초등학생의 변화와 유사하였으며, 중학생과 학생의 경우도 2015년 보다 이후 점차 낮아진 것으로 확인된다. 학습적응성역량은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초, 중, 고 성장시기별(학교급별) 변화추이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변화추이(2014~2017)를 살펴본 결과,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지수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7년 조사에서는 유지하는 수준이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생활관리역량지수는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으며, 중학생의 경우 소폭 증가하다가 2017년에는 2016년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관리역량군의 건강관리역량, 과제관리역량, 상황대처역량, 정서조절역량에 대한 변화 추이를 각각 살펴보면, 건강관리역량의 경우 2014년에 비해 2015년에 증가하였다가 2016년과 2017년에는 감소한 경향을 보였다. 초등학생의 건강관리역량은 계속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2014년에 비해 2015년에 증가하였다가 2016년과 2017년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과제관리역량은 2014년에 비해 2015년에 급격히 감소하였다가 2016년과 2017년에는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초등학생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중학생은 2014년에 비해 2015년에 급격히 감소하였다가 2016년과 2017년에는 감소폭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경우는 2015년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가 2016년과 2017년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대처역량의 경우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2017년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정서조절역량도 마찬가지로 모든 학교급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변화추이(2014~2017)를 살펴본 결과,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17년에 대폭 상승하였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특히 초등학생의 진로개발역량지수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반면 고등학생은 미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진로설계역량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진로설계역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진로설계역량 점수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등학생의 진로설계역량지수는 해마다 증가 및 감소를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여가활용지수의 변화 추이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17년에 증가하였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여가활용지수가 감소하다가 증가하였다. 반면 고등학생의 여가활용역량지수는 해마다 증가 및 감소를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개척정신역량은 2014년에서 2015년에 감소하다가 이후 2017년까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7년도에 대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2015년에 감소하다가 이후 2017년까지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변화추이(2014~2017)를 살펴본 결과,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학교급별 대인관계역량 변화추이는 다소 다른 경향을 보이는데, 초등학생의 경우, 2014년에 비해 2017년 대인관계역량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경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초등학생에 비해 감소하는 폭이 적었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대인관계역량 중 관계형성역량은 증가하고, 리더십 및 협동역량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역량감소 경향은 대인관계역량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대인관계가 아닌 다른 역량의 변화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개척정신, 여가만족, 도전정신역량 등(진로개발의 세부역량임)은 오히려 2014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출생연도가 늦은 초등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위해 진취적으로 도전하는 개인적인 성향은 강화되었지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협동하고 상호작용하는 대인관계역량은 낮아졌음을 시사한다.

#### 4) 심리적 환경적 요인의 효과분석 결과와 정책적 의미

청소년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심리적 요인과 외부환경 요인에 따른 조절효과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17년도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학교급과 대인관계역량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 때 개인의 심리적 변인(자아개념, 자율성, 자기효능감, 가능한 자기), 외부환경변인(학업스트레스, 부모양육태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에 있어 학교급은 정적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며, 학교급과 생애학습역량을 조절하는 변인은 가능한 자아와 학업스트레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능한 자아 변인은 학교급이 생애학습역량에 미치는 부적 영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점차 진급할수록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차이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스트레스의 경우는 학교급이 생애학습역량에 미치는 정적 영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생애학습역량이 증가하는 폭이 큰 것으로 확인된다.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에 있어 학교급은 정적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며, 학교급과 생활관리역량을 조절하는 변인은 가능한 자아와 학업스트레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능한 자아 변인은 학교급이 생활관리역량에 미치는 부적 영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욱이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점차 진급할수록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차이는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스트레스의 경우는 학교급이 생애학습역량에 미치는 정적 영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생활관리역량이 증가하는 폭이 큰 것으로 확인된다.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에 있어 학교급은 정적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며, 학교급과 생활관리역량을 조절하는 변인은 자율성과 가능한 자아 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율성 변인은 학교급이 생활관리역량에 미치는 정적 영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초등학교에서 대학생으로 진급할수록 자율성이 높은 집단은 진로개발역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가능한 자아 변인은 학교급이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부적 영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중학생,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점차 진급할수록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차이는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능한 자아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진로개발역량을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에 있어 학교급은 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며, 학교급과 대인관계 역량을 조절하는 변인은 자아개념, 가능한 자기, 부모양육태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선, 자아개념이 증가할수록 학교급이 대인관계역량에 미치는 영향은 강화되었는데, 이는 학교급이 높은 집단이 자아개념에 따른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개념은 자신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로 연령에 따라 증가한다(이경화, 고진영, 2003). 자아개념 수준이 낮은 것은 자아개념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의미하므로, 낮은 자아개념의 부정적 효과가 초기 청소년보다 중기 및 후기 청소년에게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능한 자기 및 부모양육태도 점수가 증가할수록 학교급이 대인관계역량에 미치는 영향은 약화되었다. 이는 학교급이 낮은 집단일수록 가능한 자기 및 부모양육태도에 영향을 더 받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학교급이 낮은 집단은 높은 집단에 비해 미래에 대한 모습이 긍정적일수록, 부모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대인관계역량이 높았다.

### 5) 청소년역량지표의 문항분석 (IRT, DIF) 결과와 논의

청소년의 성장시기별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점수 차이에 대한 문항반응이론(IRT) 분석결과에 대한 논의이다. 청소년 역량지수는 청소년의 성장시기별 발달적 특성이 반영되어 측정되었기 때문에 청소년의 발달시기별 청소년 역량측정 문항에 반응이 상이한지를 문항반응이론(Item Response Theory: IRT)을 적용하여 그 실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그리고 대인관계역량 모두에서 요인 구조 동일성 모형의 적합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였다. 즉, 현재의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은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의 영향으로 인하여 동일한 문항이라 다르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교급별 평균 점수를 단순히 비교분석하는 것은 큰 오해의 소지를 가질 수 있다. 학교급별로 비교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에 따른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의 요인 동일성을 확보한 후에 학교급별 비교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보다 심도있게 이해하기 위하여 시점별 요인 동일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시점별 동일성 모형의 적합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였다. 즉, 청소년 역량의 측정문항은 시점에 따라 다른 요인 구조를 가진다고 판단할 수 있고, 시점별 역량 점수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므로 시점별 역량 점수 비교에도 제약이 따른다 하겠다. 결국, 청소년들은 발달 시점에 따른 동일한 문항에 대해 다르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시점별 단순 평균비교는 성격이 다른

영역의 점수를 동일한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요구된다. 따라서 성장시기별 비교분석보다는 동일시점 내에서의 비교분석이 보다 더 타당하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성장시기에 따른 성별 차이에 대한 차별기능문항(DIF)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이다. DIF 분석에서는 여자 또는 남자 청소년의 역량 지수가 상위 학교급으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낮게 또는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탐색적으로 해석하였다. 그 결과, 생애학습역량지수 측정문항에서 초등학교 집단에서는 10개 문항이 여자 청소년에게 더 유리한 반면, 중등학생과 대학생 집단에서는 각각 15개, 17개, 5개 문항이 남자 청소년에게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도구 활용'의 '정보통신활용능력'에 해당하는 2(11)번 문항("나는 컴퓨터(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한글,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 그림판 등을 이용해 문서, 그림, 동영상 등을 작성하거나 편집할 수 있다")은 초, 중, 고등학생과 대학생 집단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차별기능문항으로 선정되어 향후 검사의 목적과 내용 타당도를 고려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생활관리역량지수 측정문항에서 초등학교와 대학생 집단에서는 16개, 12개 문항이 여자 청소년에게 더 유리한 반면, 중학생 집단에서는 23개 문항이 남자 청소년에게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등학생 집단의 경우 여자 청소년에게 유리한 문항은 12개, 남자 청소년에게 유리한 문항은 11개(상황대처 중심)로 여자 청소년에게 약간 유리한 경향을 보였다. '건강관리'의 '신체 관리'에 해당하는 10(4)와 10(5)번 문항, '상황대처' 중 '폭력행동'에 해당하는 13(1), 13(2), 13(3), '정서조절'의 '감정절제'에 해당하는 14(4)과 '조절 실패'에 해당하는 14(5), 14(6) 문항은 초, 중, 고등학생과 대학생 집단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차별기능문항으로 선정되었다. 이들 문항에 대해서는 향후 검사의 목적과 내용 타당도를 고려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진로개발역량지수 측정문항에서 초등학교 집단에서는 4개 문항이 여자 청소년에게 더 유리한 반면, 중등학생과 대학생 집단에서는 각각 11개, 12개, 3개 문항이 남자 청소년에게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진로설계'의 '진로 준비'에 해당하는 4(6)번 문항("나는 자신의 직업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멋있다고 생각한다")은 초, 중, 고등학생과 대학생 집단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차별기능문항으로 선정되었다. 이들 문항에 대해서는 향후 검사의 목적과 내용 타당도를 고려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인관계역량지수 측정문항에선 초, 중, 고등학생 집단에서는 각각 8개, 15개, 14개 문항이 여자 청소년에게 더 유리한 반면, 대학생 집단에서는 3개 문항이 남자 청소년에게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성별에 따른 차별기능문항 분석결과, 학교급에 따라 성별에 따른 차별문항이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차별문항이 학교급별로 중학생용 일부 문항이 남자 청소년에게 유리한 형태로 개발된 반면, 초등학생용, 고등학생용, 대학생용의 경우 여자 청소년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형태로 개발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학교급별로 특정 성별의 청소년에게 더 유리하다고 분석된 문항의 경우 문항에 대한 유·불리가 능력집단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한다면 향후 검사 도구에 대한 결과 해석 및 타당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러한 원인은 현 시점에서 명확하게 단정지을 수는 없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차별기능문항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역량 검사도구에 응답한 학생들과 내용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면담 등을 실시하여 향후 면밀히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차별기능문항이 적게 나타난 것이 학교급별 집단의 표본 크기(예, 대학생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례수를 가지고 있음)에 의해 작용한 것인지 작기 때문인지, 아니면 검사 문항 이외의 다른 요인이 작용해서 기인된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 2. ICCS 2016 조사결과의 정책적 함의<sup>25)</sup>

### 1) 인지적 영역인 시민지식점수 측정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2016년 ICCS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시민지식 점수는 2009년에 비해서 더 높아졌으나 다른 국가들은 그보다 더 많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한국 청소년들의 상대적인 순위는 2009년에 비해 낮아졌다. 이는 한국의 시민교육이 지금까지 상당한 성취를 거두었음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더 발전할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특히 같은 아시아 국가인 대만은 낮은 인간개발지수(HDI)가 보여주듯 비교적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민지식 영역에서 높은 성취를 이루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현재 대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민교육의 내용과 형식을 살펴 볼 가치가 있다. 따라서 다음 해의 추후 연구에서는 대만의 시민교육 사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시민지식 점수에서 가장 뚜렷하게 발견된 차이는 성별에 따른 차이였다. 여자 청소년들의 시민지식 점수가 남자청소년들에 비해서 크게는 38점에서 적게는 1점까지 차이가 있었으며

25) 이 부분은 장근영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성치의 평균은 25점이었다. 그러나 거의 교과목에서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여준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확인된 바 있다. 시민교육 역시 정규 교과목의 일부이므로 본 결과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오히려 벨기에, 네덜란드에서 남녀간의 성차이가 매우 적은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콜롬비아나 페루와 같은 국가에서 시민지식의 남녀차이가 적은 이유는 일종의 바닥효과(floor effect)로 설명할 수 있지만, 시민지식 점수가 비교적 높은 국가인 벨기에와 네덜란드는 그렇지 않다. 특히 벨기에의 시민지식 점수 남녀차이는 1점으로 매우 적었는데, 벨기에의 시민교육 형식과 내용이 비슷한 시민지식 점수를 보인 다른 유럽 국가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2) 정의-행동적 영역 측정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사회적 역량 혹은 시민성의 정의적-행동적 영역의 지표들은 2009년에 비해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자기 효능감은 이전에도 높았으며 2016년 조사에서는 더 높아졌다. 공공기관 및 구성원들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낮지만 2009년의 최하위 수준에서는 벗어났다. 특히 학교 내에서의 시민참여 경험은 2009년에 비해 뚜렷하게 향상되었다. 이는 학생 인권조례의 도입과 같은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직접적인 노력과 함께 자유학기제 도입에 따른 청소년 활동참여 기회의 증가와 같은 여건의 개선이 결합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경험이나 정치적인 의사표현 기회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은 시기상조이지만 청소년들이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하거나 정치적 활동을 하는 단체에 가입하는 것이 비교육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민교육의 실습과정이라고 보는 전환이 필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는 청소년들의 SNS를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활성화 현상이다. 최근 한국의 정치적인 급변 과정에서도 드러났듯,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는 이전에 없었던 실시간의 양방향 소통 기능을 바탕으로 정치적인 의사소통 플랫폼으로 그 위력을 더해가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소셜미디어를 가장 활발히 사용하는 세대이다. 따라서 소셜미디어를 비롯한 새로운 디지털 매체에서의 시민의식과 책임의식에 대한 시민교육 과정이 요구된다.

### 3. 청소년활동프로그램 분석결과와 정책적 함의<sup>26)</sup>

#### 1) 활동프로그램의 역량영역별 분석결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연구에서는 2017년도 한국 청소년들의 역량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전년도에 중앙부처 청소년정책에 대해 살펴본 데에 이어 올해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의 역량관련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울러 청소년 활동시설 프로그램들의 역량관련 경향적 특성은 어떠한 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의 청소년 역량관련 현황 및 특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애학습역량 범주의 경우에는, 정책들이 지적도구활용 부분에 많이 있고, 학습적응성 부분에는 상대적으로 적으며, 사고력 부분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연구의 생애학습 역량 측정결과에서는 사고력 > 학습적응성 > 지적도구활용 역량의 순으로 나타났으므로(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2015; 장근영, 성은모, 이경상, 진성희, 최효선, 김균희, 2016), 향후에도 계속 지적도구활용, 학습적응성, 사고력 부분의 순으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생활관리역량 범주의 경우에는, 정책들이 건강관리 부분에 많고, 상황대처 부분이 그 다음이며, 과제관리나 정서조절 부분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연구의 생활관리역량 측정결과에서는 건강관리 > 상황대처 > 과제관리 > 정서조절 역량의 순으로 나타났으므로(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2015; 장근영, 성은모, 이경상, 진성희, 최효선, 김균희, 2016), 향후에는 과제관리나 정서조절 부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진로개발역량 범주의 경우에는, 정책들이 진로설계와 여가활용 부분에 많고, 개척정신 부분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연구의 진로개발역량 측정결과에서는 여가활용 > 진로설계 > 개척정신 역량의 순으로 나타났으므로(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2015; 장근영, 성은모, 이경상, 진성희, 최효선, 김균희, 2016), 향후에는 개척정신 부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대인관계역량 범주의 경우에는, 정책들이 관계형성 부분에 많이 있고, 리더십 부분에는 아주 적으며, 협동 부분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연구의 대인관계역량의 측정결과에

26) 이 부분은 이경상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서는 관련 정책이 거의 없는 협동 범주의 역량이 좋게 협동 > 관계형성 > 리더십 역량의 순으로 나타났으므로(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2015; 장근영, 성은모, 이경상, 진성희, 최효선, 김균희, 2016), 향후에는 리더십, 관계형성, 협동의 순으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사회참여역량 범주의 경우에는, 정책들이 개인시민성 부분에 가장 많고, 세계시민성 부분에도 많으며, 공동체시민성 부분에는 아주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연구의 사회참여역량의 측정결과에서는 세계시민성 > 개인시민성 > 공동체시민성 역량의 순으로 나타났으므로(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2015; 장근영, 성은모, 이경상, 진성희, 최효선, 김균희, 2016), 향후에는 공동체시민성 부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청소년 활동시설 프로그램들의 역량관련 경향적 특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애학습역량 범주의 경우,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에서는 사고력과 지적도구활용 부분에, 관련 프로그램의 숫자가 많지 않은 특화시설, 유스호스텔에서는 사고력, 지적도구활용, 학습적응성 부분 모두에 관련 프로그램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연구의 생애학습역량 측정결과에서는 사고력 > 학습적응성 > 지적도구활용 역량의 순으로 나타났으므로(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2015; 장근영, 성은모, 이경상, 진성희, 최효선, 김균희, 2016), 향후에도 계속 지적도구활용, 학습적응성, 사고력의 순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생활관리역량 범주의 경우, 청소년수련원에서는 상황대처와 정서조절 부분에, 관련 프로그램 수가 많지 않은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특화시설에서는 건강관리, 과제관리, 상황대처와 정서조절 부분 모두에, 유스호스텔에서는 과제관리, 상황대처와 정서조절 부분에 관련 프로그램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연구의 생활관리역량 측정결과에서는 건강관리 > 상황대처 > 과제관리 > 정서조절 역량의 순으로 나타났으므로(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2015; 장근영, 성은모, 이경상, 진성희, 최효선, 김균희, 2016), 향후 정서조절, 과제관리, 상황대처, 건강관리의 순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진로개발역량 범주의 경우,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특화시설, 유스호스텔 모두 개척정신 부분에 관련 프로그램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연구의 진로개발역량 측정결과에서는 여가활용 > 진로설계 > 개척정신 역량의 순으로 나타났으므로(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2015; 장근영, 성은모, 이경상, 진성희, 최효선, 김균희, 2016), 향후

개척정신 부분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대인관계역량 범주의 경우, 청소년수련원에서는 리더십 부분에, 문화의집에서는 협동 부분에, 특화시설에서는 리더십과 협동 부분에, 유스호스텔에서는 관계형성 부분에 관련 프로그램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청소년수련관에서는 하위 범주간 빈도가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이 연구의 대인관계역량 측정결과에서는 협동 > 관계형성 > 리더십 역량의 순으로 나타났으므로(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근희, 2015; 장근영, 성은모, 이경상, 진성희, 최효선, 김근희, 2016), 향후에는 리더십, 관계형성, 협동의 순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사회참여역량 범주의 경우, 청소년수련원에서는 공동체시민성 부분에,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에서는 세계시민성 부분에, 특화시설에서는 개인시민성 부분에, 유스호스텔에서는 개인시민성과 공동체시민성 부분에 관련 프로그램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연구의 사회참여역량 측정결과에서는 세계시민성 > 개인시민성 > 공동체시민성 역량의 순으로 나타났으므로(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근희, 2015; 장근영, 성은모, 이경상, 진성희, 최효선, 김근희, 2016), 향후 공동체시민성, 개인시민성, 세계시민성의 순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FGI에서는, 참여자C 선생님이 대인관계 역량 범주의 관계형성 부분의 공감 및 배려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였고, 참여자A 선생님은 개인시민성, 공동체시민성 등을 포함하여 사회참여 역량 전체의 함양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동단위로 소규모화해 청소년기관에서 운영하는 체계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주었다. 참여자D 선생님은 생활관리역량의 함양이 중요함을 얘기하였고, 참여자B 선생님은 향후 4차산업 혁명시대를 대비해서 진로개발역량과 생애학습역량을 동시에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주었다. 또한 활동프로그램을 공모하고 만들 때 관련 역량을 부각시켜 청소년과 부모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고, 청소년 활동시설 유형별로 중점 역량들을 구분해서 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해볼 만하다는 의견을 얘기해주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이 연구의 분석결과들은 청소년 역량관련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 2) 활동프로그램 분석결과와 정책적 제언

이 연구과제는 5년에 걸쳐 수행되는 장기 연구로 청소년역량 측정도구 개발을 실시한 2014년에서부터 시작하여 2018년까지 연구를 수행하게끔 계획되어 있다. 구체적인 연구진행 계획은 아래 그림과 같다(성은모, 백혜정, 진성희, 2014; 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2015; 장근영, 성은모, 이경상, 진성희, 최효선, 김균희, 2016).

정책적 제언과 관련해서, 2015년에는 거시적인 시각에서 역량중심 청소년 정책체계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도록 계획되어 수행되었고, 전년도인 2016년에는 역량관련 주요 해외 청소년정책과 국내 중앙부처 청소년정책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청소년 역량증진을 위한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도록 계획되어 수행되었다(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2015; 장근영, 성은모, 이경상, 진성희, 최효선, 김균희, 2016). 그리고 2017년 올해에는, 전년도에 주요 해외 청소년정책과 국내 중앙부처 청소년정책을 분석한 데 이어, 앞에서 살펴 본 국내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과 청소년활동시설 활동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청소년 역량증진을 위한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따라서 2015년에는 역량중심 청소년 정책체계 수립을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 청소년 역량 정책 추진체계 강화, 청소년 역량 증진 및 강화 기반 조성, 청소년 맞춤형 역량 지원체계 강화, 청소년 역량 관련 기관 및 전문 인력 전문성 강화, 청소년 역량관리 및 연계시스템 구축, 청소년 역량지수의 지속적 활용방안 조성의 6가지 정책과제를 아래의 표와 같이 제시하였다(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2015; 장근영, 성은모, 이경상, 진성희, 최효선, 김균희, 2016).

표 VIII-2 청소년 역량 증진 및 강화를 위한 6대 정책과제와 세부추진과제

정책과제	세부추진과제
1. 청소년 역량정책 추진체계 강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청소년역량의 개념과 청소년 활동과의 관계 정립</li> <li>2. 청소년 역량 관련 법·제도의 개정 추진</li> <li>3. 청소년 역량기반 중심의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 정책사업의 성과지표로 활용</li> <li>(2) 역량기반 중심의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방향성 제안</li> </ul> </li> </ol>
2. 청소년 역량 증진 및 강화 기반 조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청소년 역량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li> <li>2. 청소년역량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및 상담</li> <li>3. 청소년역량을 위한 인증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li> <li>4. 여가부 주관 역량기반 청소년 체험활동 프로그램 공모제 실시</li> <li>5. 청소년 체험활동의 효과 및 사업평가를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li> <li>6. 청소년 역량증진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li> </ol>
3. 청소년 맞춤형 역량 지원체계 강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청소년 역량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소년 지원 체계 강화</li> <li>2. 여성 청소년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청소년 역량 강화 지원 체계 마련</li> <li>3. 후기 청소년(대학교 진학 및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 역량 지원 체계 마련</li> </ol>
4. 청소년 역량 관련 기관 및 전문 인력 전문성 강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청소년 역량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인프라 예산 확대</li> <li>2. 청소년역량 관련 기관 전문성 강화</li> <li>3. 청소년 역량 중심의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전환</li> <li>4. 청소년 지도사 전문성 강화</li> <li>5. 현장 실무자 경험 및 정보공유의 장 마련</li> </ol>
5. 청소년 역량 관리 및 연계시스템 구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립 청소년 역량 통합관리센터 설립 제안</li> <li>2. 권역별 학교/기관/행정기관의 공동실무협의회 운영</li> <li>3. 청소년 역량증진을 위한 청소년 시설과 학교와 긴밀한 관리 및 연계시스템 구축</li> <li>4. 초기청소년에서 후기청소년까지 청소년역량의 지속적인 관리</li> </ol>
6. 청소년 역량지수의 지속적 활용 방안 조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자료에 대한 패널 data화</li> <li>2. 청소년 역량지수의 주기적 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li> <li>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의 간소화와 활용 매뉴얼 개발 및 보급</li> </ol>

출처 : 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2015, p.314(장근영, 성은모, 이경상, 진성희, 최효선, 김균희, 2016, p.286에서 재인용).

또한 2016년에는 역량관련 주요 해외 청소년정책과 국내 중앙부처 청소년정책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청소년 역량증진을 위한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적 제언으로 융합창의역량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실시, 정보통신활용역량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실시, 정서조절 강화 프로그램의 실시, 개척도전정신 강화 활동프로그램의 실시, 리더십 강화 활동프로그램의 실시, 인터넷, 모바일 매개 소통합리성 체험 활동프로그램의 실시, 사회적 관계에서의 공감능력 배양프로그램의 실시, 물질기부 체험학습 프로그램의 실시의 8가지 정책과제를 아래의 표와 같이 제시하였다(장근영, 성은모, 이경상, 진성희, 최효선, 김균희, 2016).

표 VIII-3 융합창의역량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 실시 정책제안 개요	
융합창의역량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 실시 정책제안 개요	
1. 사업목적	○ 청소년기관에서 학교 STEAM교육과의 연계협력 강화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융합창의역량관련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중 지적도구활용 관련 융합창의역량을 개발
2. 사업내용	○ 청소년 융합창의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학교-청소년기관간의 지역사회 연계협력체계 구축 ○ 여성가족부, 청소년기관에서 융합창의역량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 개발된 융합창의역량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인 e·청소년(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2016.10.15.)을 통하여 제공 ○ 초중등학교의 방학 등 여가시간, 참여활동 시간, 자유학기제 시간 등을 이용해 융합창의역량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실시
3. 사업주체	○ 여성가족부, 청소년 시설, 단체 등 청소년기관
4. 사업추진체계	○ 여성가족부↔청소년기관(시설,단체)↔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학교, 청소년
5. 사업추진방법	○ 여성가족부에서 현재 청소년 기관을 통해 시행 중인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 사업 중 일부 활동프로그램 사업을 융합창의역량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으로 변경하여 실시 ○ 필요시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기관을 대상으로 융합창의역량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공모사업 실시
6. 사업추진일정	○ 2017~2018년 : 융합창의역량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성 평가 ○ 2019년 이후 : 연중 프로그램 실시
7. 기타	○ 법제개정관련 : 2015년 연구보고서에서 제안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2015)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됨. ○ 예산관련 : 기존 활동프로그램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예산관련 문제는 없을 것임.

출처 : 장근영, 성은모, 이경상, 진성희, 최효선, 김균희, 2016, p.289.

정보통신활용역량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 실시 정책제안 개요	
1. 사업목적	○ 청소년기관에서 학교 정보통신활용 교육과의 연계협력 강화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정보통신활용역량관련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증진 도구활용 관련 정보통신활용능력을 개발
2. 사업내용	○ 청소년 정보통신활용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학교-청소년기관간의 지역사회 연계협력체계 구축 ○ 여성가족부, 청소년기관에서 정보통신활용역량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 개발된 정보통신활용역량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인 e·청소년(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2016.10.15.)을 통하여 제공 ○ 초중등학교의 방학 등 여가시간, 창체활동 시간, 자유학기제 시간 등을 이용해 정보통신활용역량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실시
3. 사업주체	○ 여성가족부, 청소년 시설, 단체 등 청소년기관
4. 사업추진체계	○ 여성가족부↔청소년기관(시설,단체)↔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학교,청소년
5. 사업추진방법	○ 여성가족부에서 현재 청소년 기관을 통해 시행 중인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 사업 중 일부 활동프로그램 사업을 정보통신활용역량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으로 변경하여 실시 ○ 필요시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기관을 대상으로 정보통신활용역량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공모사업 실시
6. 사업추진일정	○ 2017~2018년 : 정보통신활용역량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성 평가 ○ 2019년 이후 : 연중 프로그램 실시
7. 기타	○ 법제개정관련 : 2015년 연구보고서에서 제안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2015)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됨. ○ 예산관련 : 기존 활동프로그램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예산관련 문제는 없을 것임.

출처 : 장근영, 성은모, 이경상, 진성희, 최효선, 김균희, 2016, p.291.

표 VIII-5 정서조절 강화 프로그램 실시 정책제안 개요

정서조절 강화 프로그램 실시 정책제안 개요	
1. 사업목적	○ 학교내에서 생활하는 동안 정서조절 강화 프로그램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자신과 타인의 정서조절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중 정서조절 범주의 역량을 배양
2. 사업내용	○ 학교내 정서조절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강화 ○ 교육부, 교육청 등에서 학교내 정서조절 강화 프로그램의 개발 ○ 개발된 학교내 정서조절 강화 프로그램을 학교내 구성원들에게 적용
3. 사업주체	○ 교육부, 교육청, 학교
4. 사업추진체계	○ 교육부↔교육청↔학교↔청소년
5. 사업추진방법	○ 교육부에서 교육청 등에 요청하여 학교내 정서조절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일부 학교에 시범적용을 실시하여 효과성을 평가한 후,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내 정서조절 강화 프로그램을 실시
6. 사업추진일정	○ 2017~2018년 : 정서조절 강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성 평가 ○ 2019년 이후 : 연중 프로그램 실시
7. 기타	○ 법제개정관련 : 학교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예산관련 : 기존에 없던 사업을 신규로 실시해야 하므로 정서조절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평가에 2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됨.

출처 : 장근영, 성은모, 이경상, 진성희, 최호선, 김균희, 2016, p.294.

개척도전정신 강화 활동프로그램 실시 정책제안 개요	
1. 사업목적	○ 청소년기관에서 청소년들에게 개척도전정신 강화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중 개척정신 범주의 역량을 강화
2. 사업내용	○ 여성가족부, 청소년기관에서 개척도전정신 강화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 개발된 개척도전정신 강화 활동 프로그램을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인 e·청소년(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2016.10.15.)을 통하여 제공 ○ 초중등학교의 방학 등 여가시간, 창체활동 시간, 자유학기제 시간 등을 이용해 개척도전정신 강화 활동 프로그램의 실시
3. 사업주체	○ 여성가족부, 청소년 시설, 단체 등 청소년기관
4. 사업추진체계	○ 여성가족부↔청소년기관(시설,단체)↔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학교,청소년
5. 사업추진방법	○ 여성가족부에서 현재 청소년 기관을 통해 시행 중인 체험활동 강화 사업 중 일부 활동프로그램 사업을 개척도전정신 강화 활동 프로그램으로 변경하여 실시 ○ 필요시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기관을 대상으로 개척도전정신 강화 활동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공모사업 실시
6. 사업추진일정	○ 2017~2018년 : 개척도전정신 강화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성 평가 ○ 2019년 이후 : 연중 프로그램 실시
7. 기타	○ 법제개정관련 : 2015년 연구보고서에서 제안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2015)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됨. ○ 예산관련 : 기존 활동프로그램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예산관련 문제는 없을 것임.

출처 : 장근영, 성은모, 이경상, 진성희, 최호선, 김균희, 2016, p.296.

리더십 강화 활동프로그램 실시 정책제안 개요	
1. 사업목적	○ 청소년기관에서 청소년들에게 리더십 강화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 대인관계 역량 중 리더십 범주의 역량을 강화
2. 사업내용	○ 여성가족부, 청소년기관에서 리더십 강화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 개발된 리더십 강화 활동 프로그램을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인 e·청소년(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2016.10.15.)을 통하여 제공 ○ 초중등학교의 방학 등 여가시간, 창체활동 시간, 자유학기제 시간 등을 이용해 리더십 강화 활동 프로그램의 실시
3. 사업주체	○ 여성가족부, 청소년 시설, 단체 등 청소년기관
4. 사업추진체계	○ 여성가족부→청소년기관(시설,단체)↔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학교, 청소년
5. 사업추진방법	○ 여성가족부에서 현재 청소년 기관을 통해 시행 중인 체험활동 강화 사업 중 일부 활동프로그램 사업을 리더십 강화 활동 프로그램으로 변경하여 실시 ○ 필요시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기관을 대상으로 리더십 강화 활동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공모사업 실시
6. 사업추진일정	○ 2017~2018년 : 리더십 강화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성 평가 ○ 2019년 이후 : 연중 프로그램 실시
7. 기타	○ 법제개정관련 : 2015년 연구보고서에서 제안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2015)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됨. ○ 예산관련 : 기존 활동프로그램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예산관련 문제는 없을 것임.

출처 : 장근영, 성은모, 이경상, 진성희, 최호선, 김균희, 2016, p.298.

표 VIII-8 인터넷, 모바일 매개 소통합리성 체험 활동프로그램의 실시 정책제안 개요

인터넷, 모바일 매개 소통합리성 체험 활동프로그램의 실시 정책제안 개요	
1. 사업목적	○ 청소년기관에서 청소년들에게 인터넷, 모바일 매개 소통합리성 체험 활동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 대인관계 부분의 관계형성 범주 중 의 사소통 역량을 강화
2. 사업내용	○ 여성가족부, 청소년기관에서 인터넷, 모바일 매개 소통합리성 체험 활동프로그램의 개발 ○ 개발된 인터넷, 모바일 매개 소통합리성 체험 활동프로그램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인 e·청소년(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2016.10.15.)을 통하여 제공 ○ 초중등학교의 방학 등 여가시간, 창체활동 시간, 자유학기제 시간 등을 이용해 인터넷, 모바일 매개 소통합리성 체험 활동프로그램의 실시
3. 사업주체	○ 여성가족부, 청소년 시설, 단체 등 청소년기관
4. 사업추진체계	○ 여성가족부 ↔ 청소년기관(시설, 단체) ↔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 학교, 청소년
5. 사업추진방법	○ 여성가족부에서 현재 청소년 기관을 통해 시행 중인 체험활동 강화 사업 중 일부 활동프로그램 사업을 인터넷, 모바일 매개 소통합리성 체험 활동프로그램으로 변경하여 실시 ○ 필요시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기관을 대상으로 소통합리성 체험 활동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공모사업 실시
6. 사업추진일정	○ 2017~2018년 : 인터넷, 모바일 매개 소통합리성 체험 활동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성 평가 ○ 2019년 이후 : 연중 프로그램 실시
7. 기타	○ 법제개정관련 : 2015년 연구보고서에서 제안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2015)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됨. ○ 예산관련 : 기존 활동프로그램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예산관련 문제는 없을 것임.

출처 : 장근영, 성은모, 이경상, 진성희, 최호선, 김균희, 2016, p.300.

사회적 관계에서의 공감능력 배양프로그램의 실시 정책제안 개요	
1. 사업목적	○ 학교내에서 생활하는 동안 사회적 관계에서의 공감능력 배양프로그램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중 관계형성 범주의 공감 및 배려 역량을 배양
2. 사업내용	○ 학교내 공감능력 배양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강화 ○ 교육부, 교육청 등에서 학교내 공감능력 배양프로그램의 개발 ○ 개발된 학교내 공감능력 배양 프로그램을 학교내 구성원들에게 적용
3. 사업주체	○ 교육부, 교육청, 학교
4. 사업추진체계	○ 교육부→교육청↔학교↔청소년
5. 사업추진방법	○ 교육부에서 교육청 등에 요청하여 학교내 공감능력 배양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일부 학교에 시범적용을 실시하여 효과성을 평가한 후,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내 공감능력 배양프로그램을 실시
6. 사업추진일정	○ 2017~2018년 : 학교내 공감능력 배양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성 평가 ○ 2019년 이후 : 연중 프로그램 실시
7. 기타	○ 법제개정관련 : 학교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예산관련 : 기존에 없던 사업을 신규로 실시해야 하므로 공감능력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평가에 2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됨.

출처 : 장근영, 성은모, 이경상, 진성희, 최호선, 김균희, 2016, p.302.

물질기부 체험학습 프로그램의 실시 정책제안 개요	
1. 사업목적	○ 학교 내에서 물질기부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이 물질기부 체험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 사회참여역량 중 공동체시민성 범주의 역량을 배양
2. 사업내용	○ 학교 내 물질기부 체험학습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강화 ○ 교육부, 교육청 등에서 학교 내 물질기부 체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 개발된 학교 내 물질기부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학교 내 구성원들에게 적용
3. 사업주체	○ 교육부, 교육청, 학교
4. 사업추진체계	○ 교육부↔교육청↔학교↔청소년
5. 사업추진방법	○ 교육부에서 교육청 등에 요청하여 학교 내 물질기부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일부 학교에 시범적용을 실시하여 효과성을 평가한 후,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내 물질기부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실시
6. 사업추진일정	○ 2017~2018년 : 물질기부 체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성 평가 ○ 2019년 이후 : 연중 프로그램 실시
7. 기타	○ 법제개정관련 : 학교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예산관련 : 기존에 없던 사업을 신규로 실시해야 하므로 물질기부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평가에 2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됨.

출처 : 장근영, 성은모, 이경상, 진성희, 최효선, 김균희, 2016, p.304.

이처럼 계획에 따라 2015년에 역량중심 청소년 정책체계 수립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고, 2016년에 주요 해외 청소년정책과 국내 중앙부처 청소년정책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청소년 역량증진을 위한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으므로(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2015; 장근영, 성은모, 이경상, 진성희, 최효선, 김균희, 2016), 올해 2017년에는 연구추진계획에 맞춰 2015년부터 수행해 온 청소년 역량에 대한 양적 분석결과, 청소년 역량관련 국내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정책의 현황 및 특성 분석, 청소년 활동기관 활동프로그램들의 역량관련 경향적 특성 분석 등의 정책적 시사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청소년 역량증진을 위해 학교나 청소년기관에서 실시해야 되는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 3) 진로탄력성 강화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첫 번째 정책적 제언은 진로개발역량 범주의 진로설계 역량과 생애학습역량 범주의 학습적응성을 결합한 진로탄력성 강화 교육프로그램의 실시이다.

이 연구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정책의 청소년 역량관련 특성 분석결과를 보면 진로개발역량 범주의 여가활용과 함께 진로설계 부분에 정책들이 많이 있고, 또 청소년활동시설 프로그램의 청소년 역량관련 경향적 특성 분석결과에서도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특화시설, 유스호스텔 모두 여가활용과 함께 진로설계 부분에 많은 프로그램이 있으며, 이 연구의 진로개발역량 측정결과에서도 여가활용 > 진로설계 > 개척정신 역량의 순으로 나타나(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2015; 장근영, 성은모, 이경상, 진성희, 최효선, 김균희, 2016), 여가활용과 함께 진로설계 부분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연구의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정책의 청소년 역량관련 특성 분석결과를 보면 생애학습 역량 범주에서는 지적도구활용에는 관련 정책이 많지만, 학습적응성과 사고력에는 관련 정책이 부족하고, 또 청소년활동시설 프로그램의 청소년 역량관련 경향적 특성 분석결과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에서는 사고력과 지적도구활용에, 특화시설, 유스호스텔에서는 사고력, 지적도구활용, 학습적응성 모두에 관련 프로그램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연구의 생애학습역량 측정결과에서는 사고력 > 학습적응성 > 지적도구활용 역량의 순으로 나타나(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2015; 장근영, 성은모, 이경상, 진성희, 최효선, 김균희, 2016), 향후에도 계속 지적도구활용, 학습적응성, 사고력 부분의 순으로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연구의 전문가 대상의 FGI에서 현재 학교와 청소년활동시설 등의 기관에서 진로직업관련 프로그램들을 많이 시행하고 있지만, 향후의 다가오는 4차산업혁명과 같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재 많이 시행되고 있는 진로개발역량 범주에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생애학습역량 범주를 결합해서 동시에 발달시키는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을 개발해서 실시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4차산업혁명의 직업구조 및 노동과정 변동과정에서 새롭게 변화하거나 새롭게 등장하는 직업들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창의성, 융합성과 함께 진로탄력성에 대한 진로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김진숙, 2017; 이지연, 2017).

참고로 창의성, 융합성과 관련해서는 전년도 보고서에서 생애학습역량 부분의 지적도구활용 범주 중 언어능력, 수학능력, 과학능력과 관련된 융합창의역량 강화형 체험활동프로그램의 실시를 정책제언으로 기 제시한 바가 있다(장근영, 성은모, 이경상, 진성희, 최효선, 김균희, 2016),

따라서 기존에 진로개발역량 범주의 진로설계 부분에 많은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실시되어 오고는 있지만, 다가오는 미래의 4차산업혁명에 맞는 진로개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진로개발역량 중 진로설계 부분과 생애학습역량 중 변화수용력, 지적호기심과 같은 학습적응성이나 비판적 사고력과 같은 사고력 부분을 결합한 진로탄력성 강화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사업목적은 학교 내에서 청소년들에게 진로탄력성 강화 교육프로그램을 실시, 진로탄력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의 4차산업혁명 시대의 요구에 맞는 진로개발역량과 생애학습역량을 결합한 역량을 배양하기 위함으로 설정하면 적절할 것이다.

사업내용은 진로탄력성 강화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학교내 홍보 및 인식 강화, 교육부, 교육청 등에서 학교 내 진로탄력성 강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개발된 진로탄력성 강화 교육프로그램을 청소년들에게 적용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면 적절할 것이다.

사업주체는 교육부, 교육청, 학교로 구성하면 될 것이고, 사업추진체계는 교육부↔교육청↔학교↔청소년으로 설정하면 될 것이다.

사업추진방법은 교육부에서 교육청 등에 요청하여 진로탄력성 강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개발된 교육프로그램을 일부 학교에 시범 적용하여 효과성을 평가한 후, 전체 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탄력성 강화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형태로 구성하여 실시하면 될 것이다.

사업추진일정은 2018~2019년 동안 진로탄력성 강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성을 평가한 후, 2020년 이후 개발된 진로탄력성 강화 교육프로그램을 전체 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타 예산관련 문제는 기존에 없던 교육프로그램을 신규로 개발해야 하므로 진로탄력성 강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평가에 2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개정관련 문제는 학교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항은 없다고 생각된다.

표 VIII-11 진로탄력성 강화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정책제안 개요

진로탄력성 강화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정책제안 개요	
1. 사업목적	○ 학교내에서 청소년에게 진로탄력성 강화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미래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요구에 맞는 진로개발역량과 생애학습역량을 결합한 역량을 배양하기 위함
2. 사업내용	○ 진로탄력성 강화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학교내 홍보 및 인식 강화 ○ 교육부, 교육청 등에서 학교 내 진로탄력성 강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 개발된 진로탄력성 강화 교육프로그램을 청소년들에게 적용
3. 사업주체	○ 교육부, 교육청, 학교
4. 사업추진체계	○ 교육부↔교육청↔학교↔청소년
5. 사업추진방법	○ 교육부에서 교육청 등에 요청 혹은 지원하여 진로탄력성 강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개발된 진로탄력성 강화 교육프로그램을 일부 학교에 시범 적용하여 효과성을 평가한 후, 전체 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탄력성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
6. 사업추진일정	○ 2018~2019년 : 진로탄력성 강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성 평가 ○ 2020년 이후 : 연중 교육프로그램 실시
7. 기타	○ 예산관련 : 기존에 없던 교육프로그램을 신규로 개발해야 하므로, 진로탄력성 강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평가에 2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법제개정관련 : 학교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됨.

#### 4) 과제관리역량 강화프로그램의 실시

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두 번째 정책적 제언은 생활관리역량 범주의 목표 및 계획수립, 수행 및 평가 역량을 포괄하는 과제관리역량 강화프로그램의 실시이다.

우선 이 연구의 전문가대상의 FGI에서 생활관리역량이 청소년들의 발달에 필요하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지 않은 것 같으며 생활관리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실시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이 연구의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정책의 청소년 역량관련 특성을 분석한 결과 관련 정책들이 생활관리역량 범주의 하위범주인 건강관리 부분에 많고, 상황대처 부분에도 정책들이 있으며, 과제관리나 정서조절 부분에는 정책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청소년활동시설 프로그램의 청소년 역량관련 경향적 특성 분석결과에서도 청소년수련원에서는 상황대처와 정서조절에,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특화시설에서는 건강관리, 과제관리, 상황대처, 정서조절 부분 모두에, 유스호스텔에서는 과제관리, 상황대처, 정서조절 부분에 프로그램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연구의 생활관리역량 측정결과에서도 이러한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결과와 비슷하게 건강관리 > 상황대처 > 과제관리 > 정서조절 역량의 순으로 나타났다(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2015; 장근영, 성은모, 이경상, 진성희, 최효선, 김균희, 2016). 이는 향후 정서조절, 과제관리, 상황대처, 건강관리의 순으로 청소년 역량함양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이 중에서 생활관리역량이 제일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정서조절에 대해서는 전년도 보고서에서 정서조절 강화 프로그램의 실시를 정책제언으로 이미 제시한 바가 있다(장근영, 성은모, 이경상, 진성희, 최효선, 김균희, 2016),

따라서 목표 및 계획수립, 수행 및 평가와 같은 청소년들의 과제관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시설, 단체와 같은 청소년 기관에서 과제관리역량 강화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사업목적은 청소년기관에서 과제관리역량 강화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목표 및 계획수립, 수행 및 평가와 같은 과제관리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될 것이다.

사업내용은 첫째,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부, 청소년기관에서 과제관리역량 강화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둘째, 개발된 과제관리역량 강화프로그램을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인 e·청소년(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2017.10.11.)을 통해 제공하며, 셋째, 청소년들의 주말휴일, 방학, 창체활동시간, 자유학년제 시간 등을 이용해 과제관리역량 강화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면 될 것이다.

사업주체는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부, 청소년기관이고, 사업추진체계는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부↔청소년기관(시설,단체)↔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학교, 청소년으로 하면 될 것이다.

사업추진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기관을 통해 시행중인 체험활동 사업 중 일부를 과제관리역량 강화프로그램으로 변경해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나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에 과제관리역량 강화프로그램 사업을 공모주제로 넣어 진행하면 될 것이다.

사업추진일정은 우선 2018~2019년에는 과제관리역량 강화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효과성 평가

까지 마치고, 이후 2020년부터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일정으로 구성하면 될 것이다.

기타 예산관련 문제는 기존 활동프로그램을 대체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법제개정관련 문제는 연속과제인 이 연구의 2015년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2015)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표 VIII-12 과제관리역량 강화프로그램 실시 정책제안 개요**

과제관리역량 강화프로그램 실시 정책제안 개요	
1. 사업목적	○ 청소년기관에서 과제관리역량 강화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목표 및 계획 수립, 수행 및 평가와 같은 과제관리역량을 강화
2. 사업내용	○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부, 청소년기관에서 과제관리역량 강화프로그램을 개발 ○ 개발된 과제관리역량 강화프로그램을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인 e·청소년(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2017.10.11.)을 통해 제공 ○ 청소년들의 주말휴일, 방학, 창체활동시간, 자유학년제 시간 등을 이용해 과제관리역량 강화프로그램을 실시
3. 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부, 청소년 시설, 단체 등 청소년기관
4. 사업추진체계	○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부↔청소년기관(시설,단체)↔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학교,청소년
5. 사업추진방법	○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기관을 통해 시행중인 체험활동 사업 중 일부를 과제관리역량 강화프로그램으로 변경하여 실시 ○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혹은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에 과제관리역량 강화프로그램 관련 사업을 공모주제로 넣어 진행
6. 사업추진일정	○ 2018~2019년 : 과제관리역량 강화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성 평가 ○ 2020년 이후 : 연중 프로그램 실시
7. 기타	○ 예산관련 : 기존 활동프로그램을 대체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큰 문제가 없음. ○ 법제개정관련 : 연속과제인 이 연구의 2015년 연구보고서에서 제안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2015)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됨.

## 5) 상황대처역량 강화프로그램의 실시

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세 번째 정책적 제언은 생활관리역량 범주의 중독행동, 폭력행동, 중독인식, 폭력회피와 같은 상황대처역량 강화프로그램의 실시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연구의 분석결과 중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정책의 청소년 역량관련 특성 분석결과에서 과제관리나 정서조절 부분만큼 정책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지만 건강관리 부분에 비해서는 상황대처 부분에 정책들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활동시설 프로그램의 청소년 역량관련 경향적 특성 분석결과에서도 청소년수련,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특화시설, 유스호스텔 모두에 상황대처 역량관련 프로그램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연구의 생활관리역량 측정결과에서도 건강관리 > 상황대처 > 과제관리 > 정서조절 역량의 순으로 나타나(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2015; 장근영, 성은모, 이경상, 진성희, 최효선, 김균희, 2016) 과제관리나 정서조절만큼은 아니지만 건강관리에 비해서는 상황대처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중에서 상황대처역량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따라서 중독행동, 폭력행동, 중독인식, 폭력회피와 같은 청소년들의 상황대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시설, 단체와 같은 청소년 기관에서 상황대처역량 강화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먼저 사업목적은 청소년기관에서 상황대처역량 강화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중독행동, 폭력행동, 중독인식, 폭력회피와 같은 상황대처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사업내용은 첫째,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부, 청소년시설, 단체와 같은 청소년기관에서 상황대처역량 강화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둘째, 개발된 상황대처역량 강화프로그램을 청소년 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인 e·청소년(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2017.10.11.)을 통해 사람들에게 제공하며, 셋째, 청소년들의 주말휴일, 방학, 창의적 체험활동시간, 자유학년제 시간 등을 이용해 상황대처역량 강화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구성하면 될 것이다.

이어 사업주체는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부, 청소년 시설, 단체 등 청소년기관으로 하면 될 것이고, 사업추진체계는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부↔청소년기관(시설,단체)↔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학교, 청소년의 체계로 구성하여 시행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사업추진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시설, 단체 등 청소년기관을 통해 시행중인 체험활동 강화사업 중 일부를 상황대처역량 강화프로그램으로 변경하여 실시하거나,

혹은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에 공모주제의 하나로 상황대처역량 강화프로그램 관련 사업을 넣어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사업추진일정은 우선 2018~2019년에는 상황대처역량 강화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고, 이후 2020년부터 프로그램을 연중 실시하는 일정으로 구성하면 될 것이다.

기타 예산관련 문제는 기존 활동프로그램 사업을 대체해서 실시하는 사업이므로 예산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법제개정관련 문제는 연속과제인 이 연구의 2015년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2015)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표 VIII-13**      **상황대처역량 강화프로그램 실시 정책제안 개요**

상황대처역량 강화프로그램 실시 정책제안 개요	
1. 사업목적	○ 청소년기관에서 상황대처역량 강화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중독행동, 폭력 행동, 중독인식, 폭력희피와 같은 상황대처역량을 강화
2. 사업내용	○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부, 청소년기관에서 상황대처역량 강화프로그램을 개발 ○ 개발된 상황대처역량 강화프로그램을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인 e·청소년(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2017.10.11.)을 통해 제공 ○ 청소년들의 주말휴일, 방학, 창체시간, 자유학년제시간 등을 이용해 상황대처역량 강화프로그램을 실시
3. 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부, 청소년 시설, 단체 등 청소년기관
4. 사업추진체계	○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부→청소년기관(시설,단체)→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학교, 청소년
5. 사업추진방법	○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기관을 통해 시행중인 체험활동 강화사업 중 일부를 상황대처역량 강화프로그램으로 변경하여 실시 ○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혹은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에 공모주제의 하나로 상황대처역량 강화프로그램 관련 사업을 넣어 진행
6. 사업추진일정	○ 2018~2019년 : 상황대처역량 강화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성 평가 ○ 2020년 이후 : 연중 프로그램 실시
7. 기타	○ 예산관련 : 기존 활동프로그램을 대체해서 실시하는 것이므로 큰 문제가 없음. ○ 법제개정관련 : 연속과제인 이 연구의 2015년 연구보고서에서 제안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2015)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됨.

## 6) 친구관계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실시

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네 번째 정책적 제언은 대인관계역량 범주의 관계형성 범주 중 자기개방성, 친화성,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 역량과 관련된 청소년 기관에서의 친구관계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실시이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 중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정책의 청소년 역량관련 특성을 분석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계형성 범주의 정책들을 많이 수행하고 있고, 또 청소년활동시설 프로그램의 청소년 역량관련 경향적 특성 분석결과에서도 청소년수련원에서는 리더십, 문화의집에서는 협동, 특화시설에서는 리더십과 협동, 유스호스텔에서는 관계형성 부분에 관련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관계형성 범주의 프로그램들을 많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연구의 대인관계역량의 측정결과에서는 협동 > 관계형성 > 리더십 역량의 순으로 나타났다(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2015; 장근영, 성은모, 이경상, 진성희, 최효선, 김균희, 2016). 이러한 결과는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이나 청소년활동시설 프로그램에서 관계형성 범주의 정책들을 많이 시행하고는 있으나 지금 시행중인 정책들이 자기개방성, 친화성,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와 같은 관계형성 범주의 역량 함양에는 크게 성공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향후 자기개방성, 친화성,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와 같은 관계형성 범주의 역량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참고로 역량이 제일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리더십에 대해서는 전년도 보고서에서 리더십 강화 활동프로그램의 실시를 정책제언으로 이미 제시한 바가 있다(장근영, 성은모, 이경상, 진성희, 최효선, 김균희, 2016),

또한 이 연구의 전문가 FGI에서도 대인관계 역량 범주의 자기개방성, 친화성,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와 같은 관계형성 부분 역량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며, 청소년 활동시설에서 또래와의 관계형성 프로그램 같은 것을 실시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따라서 자기개방성, 친화성,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와 같은 청소년들의 대인관계 역량 범주의 관계형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시설, 단체와 같은 청소년기관에서 친구관계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를 들면, 청소년 기관에서 특정한 주제의 체험거리를 주제로 하여 소규모 청소년들이 그룹별로 단기 여행을 하면서 자기개방성, 친화성,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와 같은 관계형성 부분의 역량을 강화하는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업목적은 청소년기관에서 친구관계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대인관계역량 중 자기개방성, 친화성,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와 같은 관계형성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될 것이다.

사업내용은 첫째,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부, 청소년기관에서 친구관계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둘째, 개발된 친구관계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인 e·청소년(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2017.10.11.)을 통하여 제공하며, 셋째, 청소년들의 주말휴일, 방학, 창체활동시간, 자유학년제 시간 등을 이용해 친구관계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실시하면 될 것이다.

사업주체는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부, 청소년 시설, 단체 등 청소년기관이 될 것이며, 사업추진 체계는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부↔청소년기관(시설,단체)↔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학교, 청소년의 체계로 구성하여 실시하면 될 것이다.

사업추진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부에서 현재 청소년 기관을 통해 시행 중인 체험활동 강화 사업 중 일부 사업을 친구관계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으로 변경하여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나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에 친구관계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 관련 사업을 공모하는 형태로 진행하면 될 것이다.

사업추진일정은 우선 2018~2019년에는 친구관계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효과성을 평가해본 다음, 2020년 이후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일정으로 구성해서 실시하면 될 것이다.

기타 예산관련 문제는 기존 활동프로그램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법제개정관련 문제는 연속과제인 이 연구의 2015년 연구보고서에서 제안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2015)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친구관계 강화형 체험활동프로그램 실시 정책제안 개요	
1. 사업목적	○ 청소년기관에서 친구관계 강화형 체험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대인관계역량중 자기개방성, 친화성,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와 같은 관계형성 역량을 강화
2. 사업내용	○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부, 청소년기관에서 친구관계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 개발된 친구관계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인 e·청소년(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2017.10.11.)을 통해 제공 ○ 청소년들의 주말휴일, 방학, 창체활동시간, 자유학년제 시간 등을 이용해 친구관계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실시
3. 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부, 청소년 시설, 단체 등 청소년기관
4. 사업추진체계	○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부↔청소년기관(시설,단체)↔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학교, 청소년
5. 사업추진방법	○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부에서 현재 청소년 기관을 통해 시행중인 체험활동사업 중 일부 사업을 친구관계 강화형 체험활동프로그램으로 변경하여 실시 ○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기관을 대상으로 친구관계 강화형 체험활동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공모사업 실시
6. 사업추진일정	○ 2018~2019년 : 친구관계 강화형 체험활동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성 평가 ○ 2020년 이후 : 연중 프로그램 실시
7. 기타	○ 예산관련 : 기존 활동프로그램을 대체하여 진행하면 되는 것이므로 예산관련 문제는 없을 것임. ○ 법제개정관련 : 연속과제인 이 연구의 2015년 연구보고서에서 제안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2015)정도면 충분할 것임.

### 7) 사회참여역량 강화를 위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정책적 개선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다섯 번째 정책적 제언은 개인시민성, 공동체시민성, 세계시민성과 같은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역량 강화를 위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정책적 개선이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 중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정책의 청소년 역량관련 특성을 분석한 결과 사회참여역량 범주에서는 관련 정책들이 개인시민성 부분에 가장 많고, 세계시민성 부분에도

많으며, 공동체시민성 부분에는 아주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또 청소년활동시설 프로그램의 청소년 역량관련 경향적 특성 분석결과 청소년수련원에서는 공동체시민성 부분에,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에서는 세계시민성 부분에, 특화시설에서는 개인시민성 부분에, 유스호스텔에서는 개인시민성과 공동체시민성 부분에 관련 프로그램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연구의 청소년 사회참여역량 측정결과에서는 세계시민성 > 개인시민성 > 공동체시민성 역량의 순으로 나타나(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2015; 장근영, 성은모, 이경상, 진성희, 최효선, 김균희, 2016), 향후 공동체시민성, 개인시민성, 세계시민성의 순으로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역량 전반에 대한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연구의 전문가 대상의 FGI에서는 공동체시민성, 개인시민성, 세계시민성과 같은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역량 전반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청소년참여위원회 제도의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참여자A : 저는...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사회참여역량하고...사회참여는 지금 청소년들이...사회문제에 관심을 갖는다든지 수동적인 삶을 능동적인 삶으로 바꿔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량인 것 같아요...이런 부분에 있어서...만약에 사업을 운영한다면 저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지금 하고 있는 참여위원회 같은 경우는...그 지역 안에서도 관심자만...그러니까 골고루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다른 지역에서는 오지 않으니까...저는 이것을 동단위나 소규모로 조금 더 나누고... 참여위원회를 지역에 있는 청소년 기관들이나 유관 공공기관들에서 운영하는 체계였으면 좋겠어요...단순히 여성가족부에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즉, 공동체시민성, 개인시민성, 세계시민성을 포함하여 사회참여 역량 전반에 대한 함양이 중요한데,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현행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지금보다 소규모인 동 단위 등으로 세분화하고,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것보다는 지역의 청소년기관들에서 운영하는 형태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청소년들의 참여위원회 참여단위가 지금보다 세분화되어 훨씬 더 많은 청소년들이 청소년들을 대표하여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역량이 지금보다 훨씬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여성가족부에서도 현재와 크게 다를 바 없이 필요시 이들 참여위원회가 설치되어 관리되고 있는 청소년기관에 연락하여 여러 가지 사안에 청소년들을 참여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공동체시민성, 개인시민성, 세계시민성과 같은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역량 전반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청소년참여위원회 제도를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훨씬 적은 규모로 세분화하여 지금보다 훨씬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하도록 정책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 8)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제공시 역량관련 정보의 제공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여섯 번째 정책적 제언은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제공시 역량관련 정보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이 연구의 전문가 대상 FGI에서는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을 만들고 실시할 때 청소년들과 부모님들에게 이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이수하면 청소년들의 어떠한 역량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부각시켜 제공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참여자D : 저희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내가 이번에 사회참여역량을 위해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아요...그런데 목적목표를 보면 그런 방향으로 가죠...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시대는 급히 변하고 있고 학부모나 학생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이 부분을 집중할 필요는 있겠더라고요. 역량을 좀 더 부각시켜서 내세울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참여자D : (공모에서 역량을 강조하면?-연구자 주) 그럼 굉장히 다양해지죠. 활동안전, 문화예술 이런 분야로만 공모하니깐요. 천편일률적인 사업에서도 그 안에서 뽑아내야하고요.

현재는 여성가족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을 공모할 때 문화예술분야, 안전분야 등 역량위주가 아니고 프로그램이 속하는 영역 분야 위주로 공모를 하는데, 현재의 이런 방식보다는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사회참여역량과 같은 역량 분야 위주로 공모를 하든지 혹은 현재처럼 프로그램이 속하는 영역 분야 위주로 공모를 하더라도 관련 역량을 부가적으로 기입하게 하든지 등의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을 참여대상 청소년들과 부모님께 제공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프로그램이 어떠한 역량의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예산과 시간이 허락된다면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사후 테스트를 통해 각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역량관련 효과를 검증한 후에 타당하게 제시하면 더 좋을 것이고, 현실적으로 예산과 시간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관련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예상되는 주된 역량관련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추정적 정보를 추상적으로라도 제공해도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나 부모들이 프로그램의 청소년 역량함양 가능성에 대한 훨씬 많은 정보를 아는 상태에서 참여하게 되므로, 각 프로그램에 지금보다 훨씬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지금보다 훨씬 진지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제공시 역량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 9) 활동시설 유형별 중점 추진역량의 특화에 대한 정책적 검토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일곱 번째 정책적 제언은, 향후 청소년 역량 중심의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시행할 때, 청소년 활동시설 유형별로 중점 추진역량을 특화시키는 것에 대한 정책적 고려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의 전문가 대상 FGI에서는 현재의 특화시설처럼 완전한 특화는 아니더라도, 청소년 활동시설에서 청소년 역량 전반에 관한 활동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가운데, 청소년 활동시설 유형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역량들을 특화해서 강화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참여자A : 저는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시설이 가지고 있는 목적 자체도 틀리고요. 특화시설이나 수련관, 문화의집은 청소년들의 접근성 자체가 틀린데요. 그렇게 접근성 자체가 틀리다는 것은 곧 시설을 방문하는 이용 빈도수 자체도 굉장히 틀리기 때문에 역량자체도 다르게 설정하는 게 앞으로 저희가 준비할 때는 더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수련관에서 만약에 사회참여역량을 강화한다고 하면 문화의집에서는 방과후아카데미를 중심으로 해서 생활관리역량에 더 초점을 맞추어서 할 수도 있고요. 진로개발 역량은 특화시설이나 진로센터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참여자D : 하나 더 덧붙이자면 시설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최근에 수련관이나 문화의집이 규모나 기능적인 이런 게 확실히 좀 섞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디는 문화의집이 규모가 더 커지고요.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특화시설, 유스호스텔 등 청소년 활동시설 유형별로 중점을 두어야 할 역량을 정해서 그 역량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다른 시설 유형보다 더 많이 시행하는 것이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시행해야 하는 청소년 활동시설에도 좋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도 더 좋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이러한 의견에는 한 유형의 활동시설에서 역량 전반에 관한 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보다는 역량 전반에 관한 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가운데서 중점 역량을 정해 중점 역량에 관한 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훨씬 더 프로그램을 잘 구성할 수 있고 훨씬 더 잘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따라서 향후 청소년 역량 중심의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시행할 경우, 청소년 활동시설 유형별로 중점 추진역량을 정해서 실시해보는 것에 대해 정책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4. 아시아지역모듈 분석결과와 정책적 함의<sup>27)</sup>

##### 1) ARM 분석결과 논의

첫째, ICCS에 포함되어 있는 아시아지역모듈(Asian Regional Module, ARM)을 통해 측정되었는데, 통계분석 결과와 ARM의 개념적 구성틀(3개의 개념범주와 2개의 개념준거)에 입각하여 8요인 모형을 설정하였다. 아시아 청소년 시민의식을 구성하는 8개의 하위요인은 각각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권위예의 복종적 태도',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 '법체계에 대한 신뢰',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 '아시안 정체성',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으로 명명되었다. 이상의 8개 요인이 통합되어 아시아 청소년 시민의식이라는 개념을 형성한다.

둘째, 2016년도 한국 청소년의 아시아 시민의식 수준이 배경요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확인하였다. 우선, 시민의식 전체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시민의식 수준이 높았으며, 기타 배경요인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시민의식의 수준이 높아졌다. 학교 밖 정치사회적 이슈

27) 이 부분은 한국교육개발원 협동연구진(김태준 외)이 집필하였음

공유활동 수준이 높아질수록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시민의식 수준의 상승폭이 더 컸다. 이는 학교 밖 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이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에게서 시민의식을 향상시키는 데 더 큰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시민의식의 하위요인별로 결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의 경우에는 응답자의 기대학력 수준, 부모의 학력 수준, 교실개방성이 높을수록 정부의 민주적, 합법적 역할수행에 대한 필요성 인식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위주의의 복종적 태도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기대학력 수준, 부모의 학력 수준,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요인수준이 높아질수록 권위주의의 복종적 태도가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기대학력 수준, 부모의 학력 수준, 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도, 학교 밖 이슈 공유활동, 학교 밖 집단 참여활동, 교실개방성,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 요인의 주효과가 나타났다. 법체계에 대한 신뢰 수준은 응답자의 기대학력 수준과 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도가 높을수록 낮아지고, 교실개방성,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 수준이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의 경우, 응답자의 기대학력 수준, 부모의 학력 수준, 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도, 학교 밖 이슈 공유활동, 학교 밖 집단 참여활동, 교실개방성,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요인의 주효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 밖 이슈 공유활동은 성별 요인과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교 밖 이슈 공유활동 정도가 큰 여학생일수록 공공관련 부정행위를 남학생보다 덜 용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은 응답자의 기대학력 수준, 부모의 학력 수준, 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도, 학교 밖 이슈 공유활동, 학교 밖 집단 참여활동, 교실개방성,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안 정체성의 경우, 응답자의 기대학력 수준, 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도, 학교 밖 이슈 공유활동, 학교 밖 집단 참여활동, 교실개방성,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 학교활동에의 학생 참여 인식의 주효과가 확인되었다. 한편 학교 밖 이슈 공유활동, 학교 밖 집단 참여활동의 경우, 상위 집단으로 갈수록 아시안 정체성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의 경우, 부모의 학력 수준, 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도, 학교 밖 이슈 공유활동, 학교 밖 집단 참여활동, 교실개방성,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의 주효과가 확인되었다. 한편 교실개방성 수준이 높아질수록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2009년도와 2016년도 아시아 청소년 시민의식 수준간의 시계열적 차이를 배경요인에 따라 분석하였다. 우선, 2009년도와 2016년도간의 아시아 청소년 시민의식 수준을 단순 비교하면,

전체 시민의식은 2016년이 높게 나타났다. 하위요인 수준에서 살펴보면, 이전(2009년)에 비해 오늘날(2016년)의 한국 청소년들은 정부의 민주적, 합법적 역할 수행의 필요성을 더 요구하고 있고, 권위에 덜 복종적이며,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필요성을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전에 비해 법체계에 대한 낮은 신뢰 수준을 보였고, 정치인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수준이 낮으며, 아시아 지역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고, 바람직한 시민의 핵심요건으로서의 도덕성에 대한 중요성을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히 시간이 흐름에 따른 변화라기보다는 정치, 사회, 문화적, 교육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시민의식 상의 차이에 대한 영향요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배경요인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2009년도와 2016년도 간에 존재하는 아시아 청소년 시민의식 수준의 차이를 개인특성요인, 가정환경요인, 학교 밖/내 요인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우선, 개인특성요인으로 성별과 기대학력 수준을 설정하였는데, 성별요인은 시민의식의 시계열적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의 기대학력 수준의 경우, 권위에의 복종적 태도의 시계열적 차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오늘날의 청소년이 본인이 기대하는 최종 학력수준이 이전에 비해 높아졌으며 이러한 변화가 최소한 권위에의 복종적 태도를 약화시켰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가정환경적 요인으로 부모의 학력 수준과 부모의 정치사회적 관심도를 설정하였는데, 두 가지 요인은 시민의식의 시계열적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 활동요인으로 학교 밖 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 학교 밖 집단 참여활동을 학교 내 활동요인으로 교실개방성,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을 설정하였는데, 이중 학교 밖 정치사회적 이슈 공유활동을 제외한 모든 요인이 시민의식의 시계열적 차이를 부분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 집단 참여활동은 권위에의 복종적 태도상의 시계열적 차이에 영향을 주었는데,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다양한 사회문화적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가 증가함으로써 이전에 비해 학생들의 탈권위 경향성이 강해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교실개방성 또한, 학생들의 탈권위 경향성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에 비해 교실 내에서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개방적인 토론이 증가하고 학생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고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는 분위기는 자신의 의견이나 의지에 대한 존중감을 키우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교사의 학생지지 및 지원은 아시안 정체성과 바람직한 시민상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시계열적 차이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전에 비해 교사가 학생들을 더 공정하고 지원적으로 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학생들로 하여금 아시아인으로서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시민의 요건으로

서의 도덕성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느끼도록 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활동에의 학생참여 인식이 시민의식 전체의 시계열적 차이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활동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이 이전에 비해 높아졌으며, 이러한 변화가 시민의식 향상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 2) ARM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제언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학문적인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시사점을 반영하여 정책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의 전반적인 결과는 시민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적 노력이 그 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Schulz et al.(2010)은 학교 내에서 여러 활동들을 경험하고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한다면 청소년은 그들의 시민적 역할에 대한 인지적 정보를 얻고 의식수준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본 연구의 결과도 이러한 점을 지지하고 있다. 학교 내 활동, 즉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개방적인 교실 분위기, 교사의 학생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원적 태도, 그리고 학생이 느끼는 학교활동 참여의 유의성은 전반적으로 시민의식 향상에 기여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이 주체적 시민의식을 가진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차원에서는 민주주의 시민성과 관련한 학습 프로그램과 사회적 상호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하며, 교사차원에서는 교실 내에서 학생들이 탈권위적이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민주주의 시민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의식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해야 한다.

둘째, 학교 내 활동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환경 및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학교의 교육적 노력 범위를 넘어서서 민주주의 시민성에 대한 사회문화적 학습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청소년이 학교 밖에서도 다양한 채널과 형태로 사회적 참여활동을 한다면 그러한 경험을 통해 자신들의 시민의식 수준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며, 선순환적으로 보다 적극적인 시민적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청소년의 시민의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영향요인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시계열적 비교를 통해 제한적인 수준에서 청소년 시민의식의

영향요인을 탐색하였다. 일부 요인이 청소년의 시민의식 형성에 유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이는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의 결과이다. 생애발달적 관점에서, 정치사회적 관점에서, 문화적 관점에서, 교육환경적 관점에서 탐색적, 검증적인 연구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청소년 시민의식의 영향요인에 대한 경험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ICCS 2016 ARM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한계점이 있다. 즉, 현재 ICCS 2016의 전체 국가 조사 자료는 IEA 본부에서 수합하였지만, 본 조사 항목과는 별도로 아시아 지역 모듈에서 조사한 자료는 아직 이 조사에 참여한 아시아 국가들(한국, 대만, 홍콩)의 완전한 자료 통합이 2017년 말에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가 간 비교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향후 3개국 자료 통합이 이뤄질 경우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 국가들 간 비교분석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특히 아시안 경제성과 같은 하위 요인의 경우 연도별 비교 등을 통해 변화 정도 및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향후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더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참 고 문 헌

- 강다겸, 장재홍 (2013). 여중생의 시샘, 질투 및 분노가 또래관계에서의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능력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9(3), 449-470.
- 강종구. (1986). **자아개념, 진로의식성숙 및 도가 직업포부수준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태훈, 김명연 (2012). 모의실험 연구를 통한 등급반응모형과 일반화부분점수모형 비교. **교육평가연구**, 25(3), 479-496.
- 고요한(2007). 현대 청소년 교육의 현실적 과제와 미래지향적 정향: 청소년의 학습문화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학부모들의 교육 자조권(自助權) 연구. **한국청소년문화학회**, 10, 203-235.
- 고항자. (1992). **한국 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상담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공운정 (2005). 진로장벽: 이론적 고찰 및 상담 실제에서의 적용. **상담학 연구**, 6(3), 861-874.
- 관계부처합동 (2012).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 서울: 여성가족부.
- 교육부 (2016a). **2016년 인성교육 시행계획**. 세종: 교육부.
- 교육부 (2016b). **2016년 교육부 업무계획**. 세종: 교육부.
- 김경미, 백사인 (2011). 대학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Holland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진로의식 및 진로의사결정능력에 미치는 효과. **취업진로연구**, 1(2), 19-39.
- 김계현. (1996). 불안에 관한 교육인간학적 연구. **교육철학**, 14(단일호), 1-17.
- 김기현, 장근영, 조광수, 박현준 (2010).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I: 총괄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동일, 오헌석, 송영숙, 고은영, 박상민, 정은혜 (2009). 미래 한국인의 핵심 역량 증진을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비전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0(2), 195-214.
- 김동호, 라종민 (2015). 청소년기 자아개념의 학년별, 성별 차이와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분석.

- 인문사회과학연구, 48, 49-73.
- 김명숙(2009). **중등학생의 가족체계 지각, 완벽주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 간의 관계**.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미경, 김양희, 황사라, 정익중 (2012). 고등학생의 성적이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성별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4(4), 165-187.
- 김민정, 김봉환 (2014). 대학생 진로자기조절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상담학연구**, 15(6), 2311-2325
- 김봉환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승희, 한기순 (2011). 초등 영재아와 일반아의 '가능한 자기' 비교 연구 : '기대하는 자기'와 '두려운 자기'. **영재와 영재교육**, 10(2), 127-160.
- 김아영 (2008). 한국 청소년의 학업동기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4(1), 111-134.
- 김아영(2010). 자기결정성이론과 현장 적용 연구. **교육심리연구** 24(3), 583-609.
- 김안나, 김남희, 김태준, 이석재, 정희욱 (2003). **국가수준의 생애능력 표준설정 및 학습체제 질 관리 방안 연구(II)**.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영인(2010). 청소년 시민 역량 개념과 강화 방안 탐색. **시민청소년학연구**, 1(2), 29-60.
- 김요셉, 김성천, 유서구, 신애원 (2011). 청소년기 스트레스의 영향요인: 긍정적 자아개념과 자기신뢰감의 영향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8(3), 103-126.
- 김은주, 김민규(2014). 대학신입생의 자율성과 유능성 및 대학생활 만족도 간의 시간에 따른 변화와 상호 연관성에 대한 잠재성장모형의 검증. **청소년학연구**, 21(5), 29-56.
- 김정미. (2010). 아동, 청소년상담: 남녀 청소년의 학교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 완벽주의와 자기존중감의 매개효과 및 성별차이 검증. **상담학연구**, 11(2), 809-829.
- 김정현, 김성벽, 정인경 (2014).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정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5(4), 241-269.
- 김정호, 오수성, 오상우, 김상훈, 김학렬, 박상학 (2005). KEDI-WISC와 K-WISC-III의 구조 및 측정 동일성 검증: 임상표본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2), 413-426.
- 김종민, 이문수, 안성훈 (2016). 2015년도 국가수준 초·중학생 ICT 리터러시 검사의 성별에 따른 차별기능분석. **교육평가연구**, 29(2), 301-324.
- 김지혜(2014). 부모양육태도와 또래애착이 휴대전화의존을 매개로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능력

- 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문화포럼**, 39, 42-61.
- 김진경, 신미연, 현명호 (2016). 가능한 자기의 균형이 우울 성향 대학생의 학습동기 수준에 미치는 영향.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4(4), 277~284.
- 김진숙 (2017). 4차 산업혁명 대응 미래교육 방향. 2017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현안대응세미나.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의 청소년정책 자료집**.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창환, 엄문영, 김기현, 김종민, 박종효, 박현정, 이광현, 이상돈(2013). **한국의 교육지표 · 지수 개발 연구 II: 학생역량지수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김태준, 박인영, 이호경, 오민아 (2016).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II: IEA ICCS 2016 - 사회참여역량 측정 및 분석 연구**. 연구보고 16-R18-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현주, 이병훈(2007).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가족배경, 사회자본 및 문화자본의 영향. **한국인구학**, 30(1), 125-148.
- 김현철, 김은정, 민경석(2007).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I: 부모자녀관계, 교사학생관계, 또래관계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혜자 (2006). **고등학생의 학업 스트레스, 자아존중감과 사회문제해결력의 관계**.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나일주, 성은모, 박소영 (2010). 초등학생의 시각화 경향성이 문제해결력 및 문제해결과정에 미치는 효과. **초등교육연구**, 23(4), 509-534.
- 라운정, 서용원(2000). 긍정적 및 부정적 가능한 자기의 균형이 과제 수행에 미치는 동기적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13(1), 91-113.
- 문선희(2013).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지배형 양육태도와 학업성취도의 구조적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6), 11-21.
- 문주희, 백지숙(201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 또래관계, 교사관계가 학업효능감과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초기 청소년과 중기 청소년 비교연구. **청소년시설환경**, 10(3), -50.
- 문화체육관광부 (2015a). **2015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정보**.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5). **2015 한국인터넷백서**.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 박경희. (2000). **여중생의 학업성적과 학업자아개념 및 학업스트레스와의 관계**. 건국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 박성준, 김주일(2015).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의 발달과정과 예측요인. **청소년복지연구**, 17(3),

263-288.

- 박은총(2016). **청소년의 자아개념이 일상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조절능력의 조절효과**.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일경, 이상민, 최보영, Yuan Ying Jin, 이자영 (2010). 5요인 성격특성과 학업 소진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1), 81-93.
- 배정숙(1998). **자아개념 및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적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 (2015a). **2014 보건복지백서**.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5b). **2015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세종: 보건복지부.
- 산업통상자원부 (2015). **2013-2014 산업통상자원백서**. 세종: 산업통상자원부.
- 성은모, 백혜정, 진성희, 허선영, 정민주, 김균희(201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 IEA ICCS 2016 총괄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성은모, 임정훈 (2012). **학습과학 원리와 실천적 적용**.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성은모, 진성희, 김혜경 (2016). **미래사회를 대비한 청소년의 생애학습역량지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1), 445-458.
- 성은모, 최창욱(2013).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성은모, 최창욱, 김혜경, 오석영, 진성희 (2015). **청소년 역량지수 구성체제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6(2), 117-144.
- 성은모, 최효선 (2016). **대학교육에서 성적 우수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능력 요인 탐색**. **교육공학연구**. 32(2), 253-278.
- 손원숙 (2005). **선다형과 구성형 문항의 구인동일성**. **교육평가연구**, 18(3), 59-74.
- 송인섭(1997). **자아개념의 차원 위계간의 변량원 분석**. **교육심리연구**, 11(2), 99-125.
- 안혜진, 정미경(2015). **청소년의 자아개념, 사회적지지가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적 분석**. **한국교육학연구**, 21(3), 279-303.
- 여성가족부 (2015a). **제 5차 청소년기본계획(2013~2017): 2015년도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5b). **2015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6a). **제 5차 청소년기본계획(2013~2017): 2016년도 시행계획(I)(지방자치단체)**.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6b). **제 5차 청소년기본계획(2013~2017): 2016년도 시행계획(II)(지방자치단체)**.

- 서울: 여성가족부.
- 오미향, 천성문 (1994).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 요인 및 증상 분석과 그 감소를 위한 명상훈련의 효과. **인간이해**, 15, 63-96 . 서강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 오정희, 선혜연 (2013).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 관련 변인 연구: 성별 및 학교급, 지각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4(3), 1981-1994.
- 원상숙, 최용민(2015). 청소년의 가족건강성이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정체감, 대인관계의 매개효과.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15, 21-50.
- 유명진, 손강숙(2015). 중학생의 대인관계와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에서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또래지지의 조절효과. **발달지원연구**, 4(2), 131-159.
- 유지영, 김춘경(2014).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이 초등학생의 학습된 무기력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장애연구**, 30(1), 83-102.
- 유현숙, 김태준, 이석재, 송선영(2004). **국가수준의 생애능력 표준설정 및 학습체제 질관리 방안 연구 III**.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윤명희, 장아름(2008).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의 생활역량 비교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5(4), 49-66.
- 윤여진, 정인경 (2014). 경기 일부 지역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소진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5(2), 219-232.
- 윤정일, 김민성, 윤순경, 박민정(2007). 인간 능력으로서의 역량에 대한 고찰: 역량의 특성과 차원. **교육학연구**, 45(3), 233-260.
- 윤현진, 김영준, 이광우, 전제철(2007). **미래 한국인의 핵심 역량 증진을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비전 연구 I: 핵심 역량 준거와 영역 설정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경아, 신혜린, 유나현, 이기학(2008). 간편 대학생활적응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상담학연구**, 9(2), 739-754.
- 이경화, & 고진영. (2003). 유아기에서 성인초기의 자아개념 특성에 관한 탐색 연구. **교육심리연구**, 17(1), 257-279.
- 이경희. (1995).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광우, 민용성, 전제철, 김미영, 김혜진(2008). **미래 한국인의 핵심 역량 증진을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비전 연구 II: 핵심 역량 영역별 하위 요소 설정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규미, 김명식(2008). 중학생 학교적응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5(1), 27-40.
- 이근호, 곽영순, 이승미, 최정순(2012). **미래 사회 대비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국가 교육과정 구상**.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대용, 김석우, 길임주 (2014). 성별에 따른 디자인 진로적성 검사의 차별기능분향군 탐색. **교육평가연구**, 27(4), 945-964.
- 이명숙, & 이규민. (2009). 전문계 고등학생의 학업성취, 자아개념, 학교적응 및 학교부적응행동 간의 관계. **교육과학연구**, 40(1), 167-193.
- 이명희, 김아영 (2008). 자기결정성이론에 근거한 한국형 기본 심리 욕구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4), 157-174.
- 이상희(2005). **대학생의 진로장애와 진로태도성숙의 관계: 진로자기효능감과 사회적지지의 효과**.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석재, 장유경, 이현남, 박광엽 (2003). **생애능력 측정도구 개발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순목, 김한조 (2011). 구조방정식 모형의 일반화 또는 집단차 연구를 위한 다집단 분석의 관행과 문제점. **사회과학**, 43(1), 63-112.
- 이종원, 김준홍(2012).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I: 연구총괄·2012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지연 (2017).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청소년 진로교육의 방향**. 제44차 한국진로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4차 산업혁명과 진로교육 자료집. 서울: 한국진로교육학회.
- 이지영(2017).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정하, 김정민, 송지은, 나운경, Tan Mei Xin (2014). 청소년의 기본심리욕구와 희망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5(1), 29-57.
- 임효진, 이지은(2015).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지각된 부모의 성취압력에 의해 조절된 대인관계능력의 매개효과. **교육학연구**, 53(4), 1-33.
- 장경수(2014). **청소년 스트레스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자아개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2015).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I: IEA ICCS 2016 총괄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장근영, 성은모, 이경상, 진성희, 최효선, 김균희 (2016).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II: IEA ICCS 2016-총괄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장선영 (2005). 웹 기반 문제해결학습 환경에서 스캐폴딩 유형이 문제해결단계에 미치는 효과.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성숙(1989). 동기에 미치는 Possible Selves 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8(1), 97-101.
- 장혜림, 정익중(2013).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40,(6), 33-61.
- 전운정(2004). **중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 및 대처방식과의 관계**.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병삼(2011). 초기 청소년들이 교사와의 관계에서 지각하는 신뢰와 친밀감의 발달과정. **한국청소년연구**, 22(4), 63~89.
- 정수정, 오익수(2010). 초등학생을 위한 학교부적응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초등상담연구**, 9(2), 163-173.
- 정애경. (2007). **진로미결정 요인에 관한 국내연구 메타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강래(2007). **고 3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원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증상과 대처방식**.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명실, 최경숙 (2007). 후기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모형 검증. **상담학연구**, 8(3), 1085-1099.
- 주인중, 박동열, 진미석 (2010). **직업기초능력 영역 및 성취기준 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천민필 (1994). **국민학교 아동의 스트레스 요인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청소년기본법[법제처시행2016.3.2.] (2016.5.2.). <http://www.law.go.kr> 에서 2016.5.2. 인출.
- 청소년기본법 (2017.9.12.). <http://www.law.go.kr> 에서 2017.9.12. 인출.
- 청소년기본법시행령[법제처시행2015.5.4.] (2016.5.2.). <http://www.law.go.kr> 에서 2016.5.2. 인출.
- 청소년기본법시행령 (2017.9.12.). <http://www.law.go.kr> 에서 2017.9.12. 인출.
-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2017.10.11.).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 홈페이지 <http://www.youth.go.kr/newportal/index.do> 에서 2017.10.11. 인출.
- 최수정 (2007). 중등단계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사회경제적 수준 및 학업성과와 진로성숙변화의 관계에 대한 구조방정식 변화모형. **한국청소년연구**, 18(3), 31-57.
- 최연재, 정연택, 강병일 (2013). 체육수업에 참가한 중학생들의 학년과 성별에 따른 생활스트레스

- 및 운동정서와 긍정적, 부정적 정서.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7(4), 95-106.
- 최인재, 김봉환, 황매향, 허은영 (2009).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 IV: 청소년 진로 직업 지표*. 연구보고 09-R12.
- 통계청 (2014). *사회조사: 청소년이 고민하는 문제*. 서울: 통계청.
- 통계청, 여성가족부(2016.5.3 보도자료). **2016 청소년 통계**.
- 통일부 (2015). **2015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 하영숙, 염동문 (2013).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34, 154-174.
- 하정, 홍지영, (2013).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 수준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몰입의 매개효과. *아시아교육연구*, 14(1), 353-374.
- 한국교육평가학회(2004). *교육평가 용어사전*. 학지사.
- 한국청소년데이터아카이브 홈페이지. [http://archive.nypi.re.kr/brdartcl/boardarticleView.do?menu\\_nix=qZc474Ak&brd\\_id=BDIDX\\_k9Fd9oFi29nooCcJ7kX1I4&srch\\_ctgry\\_idx=CTIDX00043](http://archive.nypi.re.kr/brdartcl/boardarticleView.do?menu_nix=qZc474Ak&brd_id=BDIDX_k9Fd9oFi29nooCcJ7kX1I4&srch_ctgry_idx=CTIDX00043) 에서 2016.5.25.에 인출함.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4개국 청소년 건강실태 국제비교조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승희 (2010). *평생학습사회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 한종혜 (1996). *아동의 사회적 관계망에 따른 역량 지각 및 자아 존중감*.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행정자치부 (2015). **2014 행정자치백서**. 서울: 행정자치부.
- 허균(2013). 일반고 학생들의 부모애착 및 교사에착, 진로탐색 효능감, 진로탐색 행동의 구조적 관계. *직업교육연구*, 32(5), 189-203.
- 홍명희 (1990). *자아개념과 학업성취의 관계에 대한 메타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환경부 (2015). **2015 환경백서**. 세종: 환경부.
- Acarli, D. S., & Kasap, M. Y. (2015). Explanation of high school students' smoking behavior: A structural equation model approach with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Journal of Baltic Science Education*, 14(2), 172-182.
-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 179-211.
- Ajzen, I., & Fishbein, F. (2008). Scaling and testing multiplicative combinations in the

- expectancy-value model of attitude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8, 2222-2247.
- Ajzen, I., & Fishbein, M. (1980). *Understanding attitudes and predicting social behaviour*. Prentice-Hall, New Jersey.
- Albarracin, D., Blair, T. J., Fishbein, M., & Muellereile, P. A. (2001). Theories of reasoned action and planned behavior as models of condom use: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27, 142-161.
- Amireault, S., Godin, G., Vohl, M-C., & Perusse, L. (2008). Moderators of the intention-behaviour and perceived behavioural control-behaviour relationships for leisure-time physical activit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Nutrition and Physical Activity*, 5(7), 5868-5879.
- Anderson, J. C., & Kim, E. Y. (2009). Youth leadership development: Perceptions and preferences of urban students enrolled in a comprehensive agriculture program.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50(1), 8-20.
- Armitage C. J., & Conner, M. T. (1999). Distinguishing perceptions of control from self-efficacy: Predicting consumption of a low fat diet us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9, 72-90.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andura, A. (1993). Perceived self-efficacy in cognitive development and functioning. *Educational Psychologist*, 28, 117-148.
- Bandura, A.(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Bebetsoi, E., & Antoniou, P. (2009). Gender differences on attitudes, computer use and physical activity among Greek University students. *The Turkish Online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8, 63 - 68.
- Bellanca, J., & Brandt, R. (2010). *21st century skills*. Bloomington, IN: Solution Tree Press.
- Berge, J.M., Wall, M., Loth, K., & Neumark-Sztainer, D.(2010). Parenting style as a predictor of adolescent weight and weight-related Behavior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6, 331 - 338.
- Betz, N. E., & Luzzo, D. A.(1996). Career assessment and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 313-328.
- Boer, H., & Mashamba, M. T. (2007). Gender power imbalance and differential psychosocial

- correlates of intended condom use among male and female adolescents from Venda, South Africa. *British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2, 51 - 63.
- Branscum, P., & Sharma, M. (2011). Us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o predict two types of snack food consumption among midwestern upper elementary children: implications for practice. *International Quarterly of Community Health Education*, 32(1), 41 - 55.
- Branscum, P., & Sharma, M. (2014). Comparing the utility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between boys and girls for predicting snack food consumption: implications for practice. *Health Promotion Practice*, 15(1), 134-140.
- Brunsting, S., & Postmes, T. (2002). Social movement participation in the digital age: Predicting offline and online collective action. *Small Group Research*, 33, 525 - 554.
- Bryan, A., Kagee, A., & Broaddus, M. R. (2006). Condom use among South African adolescents: Developing and testing theoretical models of intentions and behavior. *AIDS and Behavior*, 10, 387 - 397.
- Byrne, B. M. and D. A. Worth Gavin. (1996). The Shavelson model revisited: Testing for the Structure of Academic Self-concept across Pre-, Early, and Late Adolescent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8(2), 215-228.
- Byrne, B. M. (1989). Multigroup Comparisons and the Assumption of Equivalent Construct Validity Across Groups: Methodological and Substantive Issue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24(4), 503-523.
- Camilli, G., & Shepard, L. A. (1994). *Methods for identifying biased test items.*(Vol. 4)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Cha, E. S., Kim, K. H., & Patrick, T. E. (2008). Predictors of intention to practice safer sex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Archives of Sexual Behavior*, 37, 641 - 651.
- Clauser, B. E., & Mazor, K. M. (1998). Using statistical procedures to identify differentially functioning test items. *Educational Measurement: Issues and Practice*, 17(1), 31-44.
- Cohen, A. S., & Kim, S-H. (1993). A comparison of Lord's  $\chi^2$  and Raju's area measures in detection of DIF.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7(1).
- Conner, M., Norman, P., & Bell, R. (2002).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nd healthy eating. *Health Psychology*, 21, 194-201.

- Darling, N.(1999). Parenting style and its correlates. ERIC Digest.<https://www.ericdigests.org/1999-4/parenting.htm/> 에서 2017년 4월 26일 인출.
- Deci, E.L., & Ryan, R.M. (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4), 227-268,
- Deci, E.L., & Ryan, R.M. (2008). Self-determination theory: A macrotheory of human motivation, development, and health. *Canadian Psychology*, 49(3), 182 - 185.
- Downs D. S., & Hausenblas, H. A. (2005). The theories of reasoned action and planned behavior applied to exercise: a meta-analytic update. *J Phys Act Health*, 2, 76-97.
- Dubois, D. D.(1993). *Competency-based performance improvement: A strategy for organizational change*. MA: HRD Press.
- Dunn, K. I., Mohr, P. B., Wilson, C. J., & Wittert, G. A. (2008). Beliefs about fast food in Australia: a qualitative analysis. *Appetite*, 51(2), 331 - 334.
- Dunn, K. I., Mohr, P. B., Wilson, C. J., & Wittert, G. A. (2011). Determinants of fast-food consumption. An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Appetite*, 57(2), 349 - 357.
- Einar M. Skalvik. (1997). Issues in research on self-concept. *Advances in Motivation and Achievement* 10, 51-97.
- Engels, R.C.M.E., Dekovic, M., & Meeus, W. (2002). Parenting practices, social skills and peer relationships in adolescence.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30, 3 - 18.
- Eurydice European Unit(2002). *Key Competencies*.
- Fisher, R. (1990). *Teaching children to think*. Oxford. Basic Blackwell Ltd.
- Gagne, R. M. (1985). *The condition of learning and theory of instruction(4th Ed.)*.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Gattuso, S. M., Litt, M. D., & Fitzgerald, T. E. (1992). Coping with gastrointestinal endoscopy: self-efficacy. *Psychology*, 60, 133-139.
- Godin, G., & Kok, G. (1996).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 review of its applications to health-related behaviors. *Am J Health Promot*, 11(2), 87-98.
- Godin, G., Shephard, R. J., & Colantonio, A. (1986). The cognitive profile of those who intend to exercise but do not. *Public Health Rep*, 101(5), 521-526.
- Gregory, C. E. (1962). *The management of intelligence*. NU: McGraw-Hill.

- Grolnick, W. S., & Ryan, R. M. (1989). Parent styles associated with children's self-regulation and competence in school.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1*, 143 - 154.
- Grolnick, W. S., Ryan, R. M., & Deci, E. L. (1991). Inner resources for school achievement: Motivational mediators of children's perceptions of their parent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3*, 508 - 517.
- Guglielmino, L. M. (1977). *Development of the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Georgia, USA.
- Guo, R., McAleese, W. J., Appleby, K. M., Guo, J., Zhang, W., Huang, Y., & Peterson, T. (2014). Predictors of intention to use condoms among Chines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mmunity Health, 39*, 712-718.
- Hagger, M. S., Chatzisarantis, N. L. D., Biddle, S. J. H. (2002). A meta-analytic review of the theories of reasoned action and planned behavior in physical activity: predictive validity and the contribution of additional variables. *J Sport Exerc Psychol, 24*, 3-32.
- Harris, J. R. (1995). Where is the child's environment? A group socialization theory of development. *Psychological review, 102*(3), 458 - 489.
- Haycraft, E., & Blissett, J. (2010). Eating disorder symptoms and parenting styles. *Appetite, 54*, 221 - 224.
- Higgins, J. M. (1994). *101 creative problem solving techniques*. NY: The NEW Management Publishing Company.
- Horn, J. L., & McArdle, J. J. (1992). A practical and theoretical guide to measurement invariance. *Experimental Aging Research, 18*, 117-144.
- Kepner, C., & Tregoe, B. (1967). *The rational manager*. NY: McGraw-Hill.
- Kerka, S. (2000). Parenting and career development. ERIC digest. <https://www.ericdigests.org/2001-1/career.html> 에서 2017년 5월 24일 인출.
- King, L. A. (2001). The health benefits of writing about life goals. *Pers. Soc. Psychol. Bull., 27*(7), 798-807.
- Knowles, M. (1975). *Self-directed learning: A guide for learners and teachers*. New York: Cambridge Books.
- Kracke, B. (1997). Parental behaviors and adolescents' career exploration. *Career Development*

- Quarterly*, 45(4), 341-350.
- Lai, J. S., Teresi, J., & Gershon, R. (2005). Procedures for the analysis of differential item functioning (DIF) for small sample sizes. *Evaluation & the Health Professions*, 28(3), 283-294.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2002).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In D. Brown & Associates (Ed.),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pp.255-311). New York: John Wiley & Sons.
- Markus, H, & Nurius, P. (1986). Possible selves. *American Psychologist*, 41, 954-969.
- Marsh, H. W. (1986). Age and Sex Effects in Multiple Dimensions of Self-concept: Preadolescence to Early-adulthood.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1(3), 417-430.
- McClelland, D. C.(1973). Testing for competence rather than for "intelligence.". *American Psychologist*, 28(1), 1-14.
- McElwee, R. O., & Dunning, D.(2005). A broader view of "self" in egocentric Social judgment: Current and possible selves. *Self and Identity*, 4, 113-130.
- Meade, A. W., & Wright, N. A. (2012). Solving the measurement invariance anchor item problem in item response theory.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7(5), 1016.
- Mirabile, R. J. (1997). Everything you wanted to know about competency modeling. *Training & Development*, 51, 73-77.
- Moore, D. R., Cheng, M. I., & Dainty, A. R. (2002). Competence, competency and competencies: Performance assessment in organisations. *Work study*, 51(6), 314-319.
- Newell, A. & Simon, H. A. (1972). *Human Problem Solving*. NJ: Englewood Cliff.
- Niemiec, C.P., & Ryan, R.M. (2009) Autonomy, competence, and relatedness in the classroom: Applying self-determination theory to educational practice. *Theory and Research in Education*, 7(2), 133 - 144.
- Norman, P., Conner, M., & Bell, R. (1999).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nd smoking cessation. *Health Psychology*, 18, 89- 94.
- Osipow, S. H., Carney, C. G., & Barak, A. (1976). A scale of educational-vocational undecidedness: A typological approa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9(2), 233-243.
- Oyserman, D., & Markus, H. R.(1990). Possible Selves and Delinqu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112-125.

- Peace, A. G., Galletta, D. & Thong, J., (2003). Software piracy in the workplace: A model and empirical test. *Journal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20(1), 153 - 177.
- Peitz, M. & Waelbroeck, P. (2006). Why the music industry may gain from free downloading— The role of sampling.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rganization*, 24(5), 907 - 913.
- Piaget, J. (1963). *Origin of intelligence in children*. NY: Norton.
- Pomerantz, E.M., Grolnick, W.S., & Price, C.E. (2005). *The role of parents in how children approach school: A dynamic process perspective*. In A. J. Elliot & C. S. Dweck (Eds.), *The handbook of competence and motivation* (pp. 259 - 278). New York: Guilford
- Pomerantz, E.M., Moorman, E.A., & Litwack, S.D. (2007). The how, whom, and why of parents' involvement in children's academic lives: More is not always better.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77(3), 373 - 410.
- Radziszewska, B., Richardson, J.L., Dent, C.W., & Flay, B.R.(1996). Parenting Style and Adolescent Depressive Symptoms, Smoking, and Academic Achievement: Ethnic, Gender, and SES Differences.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19(3), 289 - 305.
- Raju, N. S., Kim, W., Morris, S. B., Nering, M. L., & Oshima, T. C. (2009). The item parameter replication method for detecting differential functioning in the polytomous DFIT framework.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33(2), 133-147.
- Raju, N. S., Van der Linden, W. J., & Fleer, P. F. (1995). IRT-based internal measures of differential functioning of items and tests.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9(4), 353-368.
- Reckase, M. D. (1979). Unifactor latent trait models applied to multifactor tests: Results and implications. *Journal of educational statistics*, 4(3), 207-230.
- Rensvold, R. B., & Cheung, G. W. (1998). Testing measurement models for factorial invariance: A systematic approach.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58(6), 1017-1034.
- Ruvolo, A. P., Markus, H. R. (1992). Possible selves and performance: The power of self-relevant imagery. *Social Cognition*, 10(1), 95-124.
- Rychen, D. S. & Slganik, L. H. (2003a). *Key Competencies for a successful life and a well-functioning society*. Cambridge: Hogrefe & Huber Publishers.
- Rychen, D. S. and Salganik, L. H. (2003b). *Highlights from the OECD Project Definition and Selection Competencies: Theoretical and Conceptual Foundations (DeSeCo)*. Annual Meeting

-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in Chicago.
- Rychen, D. S., & Salganik, L. H.(2001a). *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 Cambridge: Hogrefe & Huber Publishers.
- Rychen, D. S., & Salganik, L. H.(2002b). *DeSeCo Symposium: Discussion Paper*. OECD.
- Schifter, D. B., & Ajzen, I. (1985). Intention, perceived control, and weight loss: An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 843-851.
- Schunk, D. H., & Pajares, F.(2001). *The development of academic self-efficacy*. In A. Wigfield & Eccles (Eds), *Development of achievement motivation* (pp. 15-31). San Diego, C. A.: Academic Press.
- Schwarzer, R., & Luszczynska, A. (2008). *Self-Efficacy*. Available from [http://cancercontrol.cancer.gov/brp/research/constructs/self\\_efficacy.html](http://cancercontrol.cancer.gov/brp/research/constructs/self_efficacy.html)
- Seo, H.-S., Lee, S.-K., & Nam, S. (2011). Factors influencing fast food consumption behaviors of middle-school students in Seoul: an application of theory of planned behaviors. *Nutrition Research and Practice*, 5(2), 169 - 178.
- Shaffer, D. R. (2008). *사회성격발달*, 송길연, 이지연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 Sheeran P: Intention-behavior relations: a conceptual and empirical review.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12(1), 1-36.
- Snyder, M. G. (2005). *Cyberethics & Internet downloads: An age-by-age guide to teaching children what they need to know*. PARENTGUIDE News. Available from [http://www.twensandteennews.com/archives/2005/editorial\\_oct05/ CyberEthics.php](http://www.twensandteennews.com/archives/2005/editorial_oct05/ CyberEthics.php)
- Solberg, V. S.(1998). Assessing career search self-efficacy: Construct evidence and development antecedent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6(2), 181-194.
- Spencer, L. M. Jr., & Spencer, S. M.(1993). *Competence at Work: Models for Superior Performance*. New York: John Wiley & Sons.
- Taub, G. E., & McGrew, K. S. (2004).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Cattell-Horn-Carroll Theory and Cross-Age Invariance of the Woodcock-Johnson Tests of Cognitive Abilities III. *School Psychology Quarterly*, 19(1), 72.
- Thissen D. (2001). *IRTLRDIF v.2.0b: Software for the Computation of the Statistics Involved in Item Response Theory Likelihood-Ratio Tests for Differential Item Functioning*. Retrieved October 1, 2017,

from <http://www.unc.edu/~dthissen/dl.html>.

- Thissen, D., Steinberg, L., & Gerrard, M. (1986). Beyond group-mean differences: The concept of item bias. *Psychological Bulletin*, 99(1), 118.
- Thissen, D., Steinberg, L., & Wainer, H. (1993). *Detection of differential item functioning using the parameters of item response models*. In P. W. Holland & H. Wainer (Eds.), *Differential item functioning* (pp. 67-113).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 Center for Universal Education at the Brookings Institution. (2013). *Toward Universal Learning: Recommendations from the Learning Metrics Task Force*.
- Vandenberg, R. J. & Lance, C. E. (2000). A Review and Synthesis of the Measurement Invariance Literature: Suggestions, Practices, and Recommendations for Organizational Research.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3(1), 4-70.
- Vignoli, E., Croity-Belz, S., Chapeland, V., de Fillipis, A., & Martine, G. (2005). Career exploration in adolescents: The role of anxiety, attachment, and parenting styl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7, 153-168.
- Wanberg, C. R., & Muchinsky, P. M. (1992). A typology of career decision status: Validity extension of the vocational decision status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1), 71.
- Wigfield, A., & Eccles, J. (2002). *The development of competence beliefs, expectancies for success, and achievement values from childhood through adolescence*. In A. Wigfield, A., & Eccles, J. *Development of achievement motivation* (pp. 91-120). San Diego, C. A.: Academic Press.
- Wu, T., Snider, J. B., Floyd, M. R., Florence, J. E., Stoots, J. M., Makamey, M. I. (2009). Intention for healthy eating among southern appalacian teens. *Am J Health Behav.* 33(2), 115-124.
- Zimmerman, B. J., & Shunk, D. H. (1989). *Self-regulated learning and academic achievement: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New York: Springer-Verlag.

---

# 부 록

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를 위한 선행문헌 분석
2. 2017 청소년(초·중·고등학생) 모집단  
분석 및 표본설계
3. 2017 후기 청소년(대학생) 모집단 분석  
및 표본설계
4.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설문문항-초등학생용
5.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설문문항-중고등학생용
6.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설문문항-대학생용



# 부 록

## 【부록 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를 위한 선행문헌 분석

### 1. 청소년의 역량 개념 및 구성체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2014년부터 청소년 역량지수를 개발하였다. 청소년 역량지수의 구성체계는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그리고 사회참여역량 등과 같이 5영역으로 구성되어있다(성은모, 최창욱, 김혜경, 오석영, 진성희, 2013;2014;2015). 성은모 외(2015, pp.132-135)는 청소년 역량지수 구성체계의 개념과 하위구성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그들에 의하면, 생애학습역량은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자신의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역량을 의미하며, 하위구성요소로는 사고력, 지적도구활용, 학습적응성을 제시하였다. 생활관리역량은 자신이 삶속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여 자신과 자신의 삶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하며, 하위구성요소로는 건강관리, 과제관리, 상황대처, 정서조절을 제시하였다. 진로개발역량은 일생에 걸쳐 한 개인의 생애 역할, 경험, 관계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개인의 흥미와 적성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는 독특성을 개발하고 인생의 경험의 폭을 넓혀가며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역량을 의미하고, 하위구성요소로는 진로설계, 여가활용, 개척정신을 제시하였다. 대인관계역량은 개인 또는 집단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타인들과 개방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주도적으로 협력하여 의사소통하는 역량을 의미하며, 하위구성요소로는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을 제시하였다. 사회참여역량은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적 선을 위하여 타인과 협력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역량을 의미하며, 하위구성요소로는 개인 시민성, 공동체 시민성, 세계 시민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청소년 역량지수의 구성체계를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부록표 1-1 청소년 역량지수의 구성체제

대분류	중분류	하분류
생애학습역량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감성적 사고력
	지적도구활용	언어능력
		수학 능력
		과학능력
		정보통신활용능력
	학습 적응성	변화수용력
		지적호기심
		학습주도성
생활관리역량	건강관리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신체관리
		위생관리
	과제관리	목표 및 계획수립
		수행 및 평가
	상황대처	중독행동
		폭력행동
		중독인식
		폭력회피
	정서조절	감정인식
		분노행동
		감정절제
조절실패		
진로개발역량	진로설계	자기탐색
		직업탐색
		직로준비
		진입가치관
	여기활용	여가태도
		여가유능감
		여기몰입
		여가만족 (경험)
	개척정신	차별화태도
		도전정신
대인관계역량	관계형성	자기 개방성
		친화성
		의사소통
	리더십	공감 및 배려
		의사결정
		집단활동관리
		추진력
	협동	집단촉진
		팔로워십
		갈등문제 해결

대분류	중분류	하분류
사회참여역량	개인 시민성	권리·책임의식
		민주적 절차 및 의식
		정치 관심 및 정치적 자아 효능감
	공동체 시민성	공적실천
		사회적 신뢰
		적극적 의견개진
		교실 개방성
	세계 시민성	성 인지
		이민자에 대한 태도
		국가 및 역사인식
		국제관계이해

※ 출처: 성은모, 백혜정, 진성희 (2014, pp.198-199 재인용)

## 2.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의 현황 및 실태

### 1) 청소년 역량지수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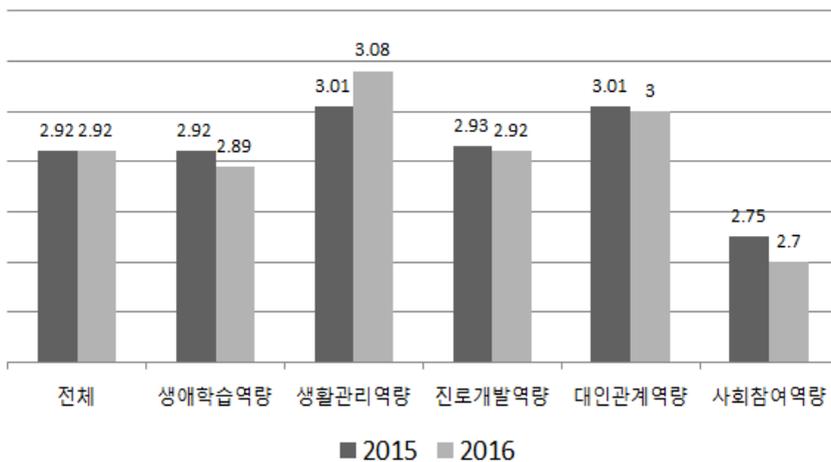
2016 청소년 역량지수의 실태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의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모집단으로 선정하고 초·중·고등학생 10,319명 대학생 1,000명 등 총 11,319명이 참여하였다.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을 위한 도구는 청소년 역량지수를 구성하는 5개 역량 역량군(생애학습역량 24문항, 생활관리 역량 35문항, 진로개발역량 25문항, 대인관계역량 29문항, 사회참여역량 47문항)을 중심으로 16개의 하위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160문항으로 단축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1) 청소년 역량지표의 타당성 분석 결과

2014년도 1차년도 연구를 통해 청소년 역량지수 5개 역량군에 대해 234문항이 개발되어, 이에 대한 자료의 정규성과 측정문항의 신뢰도 및 타당도 등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2015년도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6년도에 축약문항으로 재검증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은 검증되었다.

## (2) 청소년 역량 실태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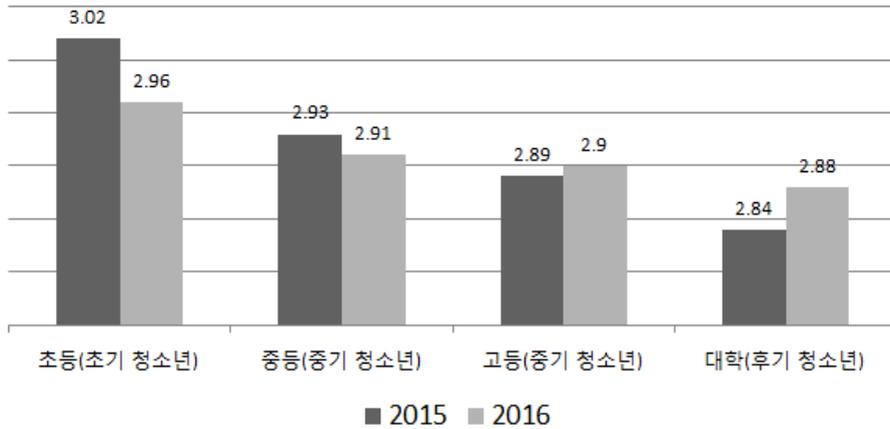
2016년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의 전체 평균은 2.92(SD=.31)로 2015년도 조사와 동일하였다. 청소년 역량군별로 살펴보면, 생애학습역량 평균은 2.89(SD=.37), .72, 생활관리역량 평균은 3.08(SD=.38), .77 진로개발역량 평균은 2.92(SD=.40), .73, 대인관계역량 평균은 3.00(SD=.45), .75 그리고 사회참여역량 평균은 2.70(SD=.35), .67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조사결과 대비 일부 변화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유사하였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생활관리역량 지수가 가장 높고, 대인관계역량, 진로개발역량, 생애학습역량 순으로 높았으며 사회참여역량이 가장 뚜렷하게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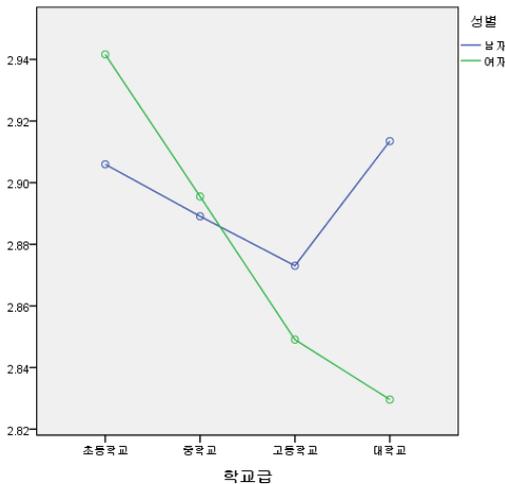
### ○ 발달단계에 따른 청소년 역량 저하 현상

2016년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지수를 청소년 시기별로 살펴본 결과, 초등(초기 청소년) 평균은 2.96(SD=.36), 74%, 중등(중기 청소년) 평균은 2.91(SD=.28), 72.75% 고등(중기 청소년) 평균은 2.90(SD=.28), 72.50%, 대학(후기 청소년) 평균은 2.88(SD=.24), 72%로 나타났다. 이는 초기 청소년들의 역량이 가장 높고 후기청소년의 역량이 가장 낮았던 2015년 결과와 유사한 패턴이었으나, 2016년 조사에서는 2015년 조사 대비 초기청소년들의 역량 지수가 낮아지면서 격차가 많이 줄어들어 발달 시기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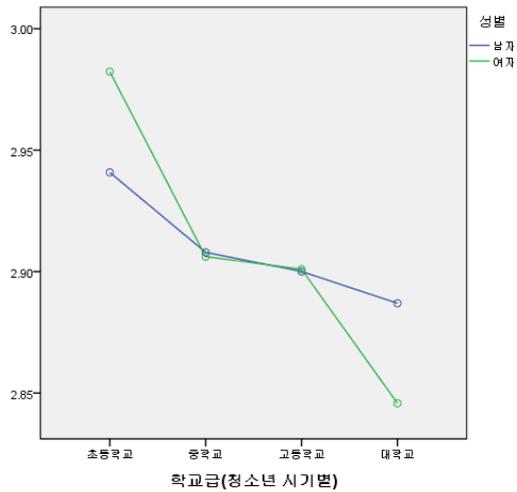


○ 발달단계에 따른 청소년 역량 저하 현상의 성차이

2016년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지수를 청소년 시기에 따른 성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른 청소년 역량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여자청소년들이 초등(초기 청소년)에서는 남자 청소년보다 역량이 높았으나, 중등과 고등(중기 청소년)을 지나고 대학(후기 청소년)으로 갈수록 급격하게 낮아지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2015년에도 확인된 것으로 한국의 청소년 역량 관련 환경이 여자청소년들에게 특별히 불리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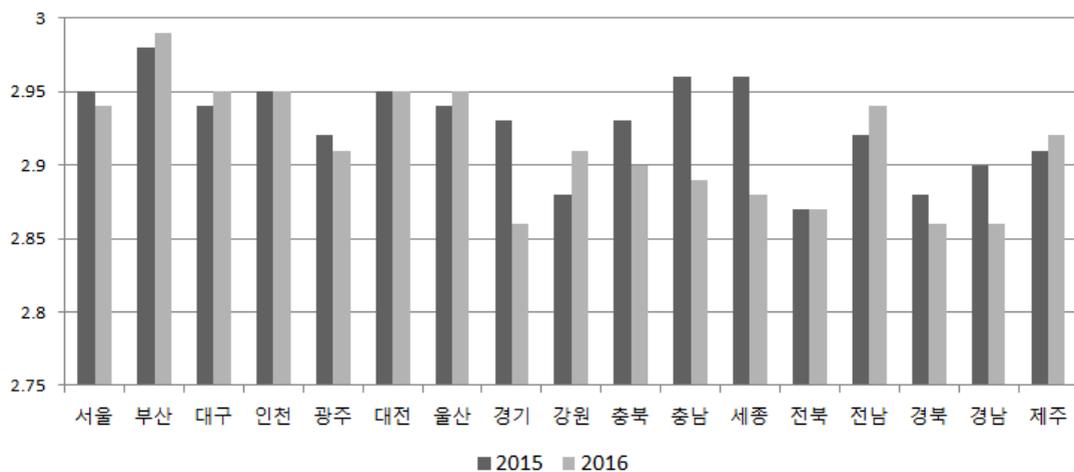
2015년 결과



2016년 결과

### ○ 청소년 역량지수의 지역별 차이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지수는 부산지역 청소년이 2.9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구, 대전, 인천, 그리고 울산이 2.95, 서울과 전남이 2.94 순으로 나타났고, 전북이 2.87, 세종, 경북과 경남이 2.86으로 낮게 나타났다. 2015년 조사결과와 비교했을 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전북, 제주 등은 전년도와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경기, 충남, 세종, 경남 지역은 전년대비 낮아지는 등 지역별 역량지수의 분포는 연속성이 낮아서 이의 해석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 ○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의 준거타당도와 예측타당도

청소년 역량지수의 각 역량군에 따른 변인들은 해당 역량과 관련된 변인들과의 상관관계분석에 있어 정적상관관계와 회귀분석을 통한 인과관계에 있어서는 정적관계를 나타내어, 연구에서 제안한 청소년 역량지표들이 각 역량이 지향하는 개념적 특성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각 역량군에 따른 수행변인과의 상관관계분석과 회귀분석에 있어서도 유의한 정적관계가 확인되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가 해당 변인들의 수행변인을 반영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가 높다는 것이 관련 역량에서 나타나는 행동지표의 양적 횟수가 높고 질적 수준도 높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 (3) 청소년 역량지수의 측정결과에 대한 논의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청소년 역량지수의 측정문항 수를 축소하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측정문항을 개발하려는 연구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생애학습역량은 37문항에서 24문항으로, 생활관리역량은 48문항에서 35문항으로, 진로개발역량은 41문항에서 25문항으로, 대인관계역량은 46문항에서 29문항으로, 사회참여역량은 63문항에서 47문항으로 축소되어 234문항에서 총 160문항으로 축소되어 수정·보완하였다. 축소된 청소년 역량지수 문항을 통해 청소년 역량을 측정한 결과, 측정문항에 대한 신뢰도와 적합도가 1, 2차 년도에 개발된 문항과 유사하거나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보다 더 정교화 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측정결과 또한 1-2차년도와 유사하게 나타남으로써 측정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확인되었다. 아울러 청소년 역량지수의 단축문항들은 해당 역량군의 관련 변인들과 유사한 측정결과가 나타났고, 해당 역량군을 대표하는 행동지표들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연구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의 예언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후속연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우선 각종 청소년 역량지수의 개발과 활용에 관하여 발달단계에 따른 면밀한 해석에 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예컨대, DIF 분석과 같은 통계학적 분석방법에 더하여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각 문항에 대한 심도 있는 해석을 통해 청소년 발달단계에 따른 사회참여역량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적합한 측정도구의 지속적인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2015년도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여성 청소년의 역량이 초등학생 시기에는 남자 청소년 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중·고등학생시기를 지나 대학생이 되면, 여자 청소년들의 역량이 현격하게 낮아지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현상이 개인적 특성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사회구조적으로 여자 청소년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거나 역량개발에 장애요인들이 보다 더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여자 청소년 역량의 감소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으며, 인재를 곧 국가의 경쟁력임을 감안할 때 여자 청소년에 대한 역량관리 및 개발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환경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조치가 요구된다.

또한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의 지역별 차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해결책이 필요하다. 2016년도 연구결과에서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지수는 지역별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다.

2차년도 연구결과에서도 지역별 차이가 존재하였는데, 부산지역 청소년이 역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인천, 대전, 울산, 서울 등이 그 다음으로 높으며, 전북과 경북의 역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 역량지수의 차이에 있어 여러 가지 원인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중소도시나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 보다 높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산지역 청소년이 수도권 중심의 대도시 청소년 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부산지역 청소년의 역량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이유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고, 전북이나 경북의 경우도 2년 연속 낮은 역량지수를 보였는데 이에 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

### 3. 청소년 역량지수 국제비교를 위한 ICCS 2016 본 조사 개요

#### 1) 국제시민성 및 시민의식조사(ICCS)의 개요

국제 시민성 및 시민의식 비교조사(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Study, 이하 ICCS 2009)는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이하 IEA)에서 조직한 청소년대상 국제 비교조사 중의 하나이다. 이 조사의 목적은 2010년대에 살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의 청소년들이 시민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현재 한국을 포함해 총 28개국이 예비조사(Field Trial)에 참여했으며 남반구 국가에서는 2015년에, 한국을 포함한 북반구 국가들은 올해에 본조사(Main Survey)를 실시하였다. 올해 실시한 ICCS 2016 조사는 2009년 조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새로 추가된 영역과 2009년 결과를 바탕으로 삭제한 문항을 제외하고는 조사문항을 2009년의 그것과 완전히 동일하게 구성함으로써 시계열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부록표 1-2 2016년 ICCS의 민주시민역량 개념구성

	차원		상동		상동		상동		상동	
			핵심	측면	핵심	측면	핵심	측면	핵심	측면
2016	인지 차원	지식	시민들 정부기관 시민기관		평등, 자유 공동체의식 법질서		의사결정 영향력 행사 공동체 참여		시민의 자아상 시민 유대감	
		추론과 분석								
	정의/ 행동 차원	태도	정부기관 및 체계에 대한 태도		민주시민사회의 원리에 대한 태도		시민참여에 대한 태도		공동체와 개인들에 대한 태도 등	
		행동 의도	정치적 주제에 대한 향의와 표현을 위한 시민참여 의도 성인으로서의 미래 시민참여 의도 학생으로서 학교에 대한 시민참여 의도 등							

## 2) ICCS 2016 조사 및 참여대상 개요

ICCS 2009와 마찬가지로 ICCS 2016 조사 역시 해당국가의 정규교육을 받는 13.5세 학생들을 조사대상 모집단으로 한다. 대다수의 국가에서 8학년의 평균 연령이 만 13.5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8학년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중학교 2학년이 여기에 해당한다.

표본추출을 위하여 2015년도를 기준으로 전국 중학교 명단과 학생수 자료를 IEA 본부에 보냈고, IEA의 통계처리 본부에서 이 자료를 바탕으로 2차 대체표본과 3차 대체표본을 포함한 150학교의 표집 계획을 제공했다. 본 연구진은 이렇게 제공받은 표본 학교들을 대상으로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조사에 참여를 요청하였다. 1차 표집학교가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해당학교의 2차 혹은 3차 대체 학교를 섭외하였으며, 3차 대체 학교까지 응하지 않는 경우는 결측으로 처리하였다. 조사는 표본으로 선정된 학교의 교장(혹은 교감) 1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조사 대상 학년을 가르치고 있으며, 학년 초부터 해당 학교에 재직된 교사 전원, 그리고 IEA에서 제공한 표본추출 프로그램에 의해서 무작위로 선정된 1개 학급 학생 전원이다.

## 3) ICCS 2016 측정조사를 위한 도구의 특징

ICCS 2016은 다음과 같은 측정도구들로 구성되어 있다.

① 학생용 조사지 (검사지와 설문지)

- 학생용 인지능력 검사지: 인지능력 검사지는 학생의 시민지식과 분석 및 추리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검사지는 능력검사로서 정답과 채점기준이 있는 시험지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 검사는 학생들이 45분이라는 제한시간 내에 응답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검사지의 전체 문항 수는 88문항이지만 한 학생에게 주어지는 문항 수는 33문항이다. 문항들은 각각 11개 씩 8개의 하위유목(cluster)으로 분류되어 있고, 이 하위유목 3개를 하나로 묶어서 실제 학생용 소검사지(test booklet)를 구성한다. 결과적으로 총 8유형의 학생용 검사지가 만들어지며, 조사대상 학급마다 IEA에서 제공한 조사지 배포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 8유형의 검사지 중 하나가 해당학생에게 배분된다. 학생용 인지능력 검사지의 구성방식은 아래 표와 같다. 이렇게 전체 문항을 8개의 소검사지로 나누어 측정함으로써 개별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응답시간을 단축하면서도 다양한 인지능력을 포괄할 수 있고, 응답시 학생들이 다른 학생의 응답을 참조하기 어렵도록 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 단, 이렇게 서로 다른 조사지에 응답한 결과를 종합하기 위해서 인지능력 검사지의 배부와 취합은 모두 사전에 계획된 대로 정확히 이루어져야 하며, 결과 분석 역시 IEA 본부에서 종합한 이후에나 가능하다.

**부록표 1-3** ICCS 2016 학생용 인지능력 검사지의 구성 방식

검사지 번호 Test Booklet	공통사항	1영역	2영역	3영역	비고
1	주의사항 및 연습문제	Cluster 1	Cluster 2	Cluster 4	각 Cluster는 총 11개 문항으로 구성
2		Cluster 2	Cluster 3	Cluster 5	
3		Cluster 3	Cluster 4	Cluster 6	
4		Cluster 4	Cluster 5	Cluster 7	
5		Cluster 5	Cluster 6	Cluster 8	
6		Cluster 6	Cluster 7	Cluster 1	
7		Cluster 7	Cluster 8	Cluster 2	
8		Cluster 8	Cluster 1	Cluster 3	

- 학생용 설문지: 이 조사지는 학생의 배경 요인 및 학생의 인식을 측정하는 35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능력검사가 아닌 설문조사지에 해당하며 정답이 없고 특정한 사안에 대한 개별 학생의 의견이나 현황을 묻는 설문조사지이다. 학생들은 1교시에 인지능력 검사에 응한 뒤에 2교시에는 학생용 설문지에 응답한다.
- 아시아지역 모듈조사 학생용 설문지: 설문조사 방식의 8개 문항(하위항목 59개)으로 구성되며, 아시아 국가에서만 시행되는 설문지이다.

## ② 교사용 설문지

- 교사용 설문지는 조사대상 학년에서 정규과목을 가르치는 교사 중에서 선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조사지로, 교사의 배경 요인 및 해당 학교에서 실시하는 시민의식과 시민성 교육의 맥락에 관한 요인에 대한 교사의 의견을 묻는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③ 학교(장)용 설문지

- 학교용 설문지는 학교의 특성과 시민의식과 시민성 교육 참여와 관련된 학교의 환경변인들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사대상 학교의 학교장(혹은 교감)에게 실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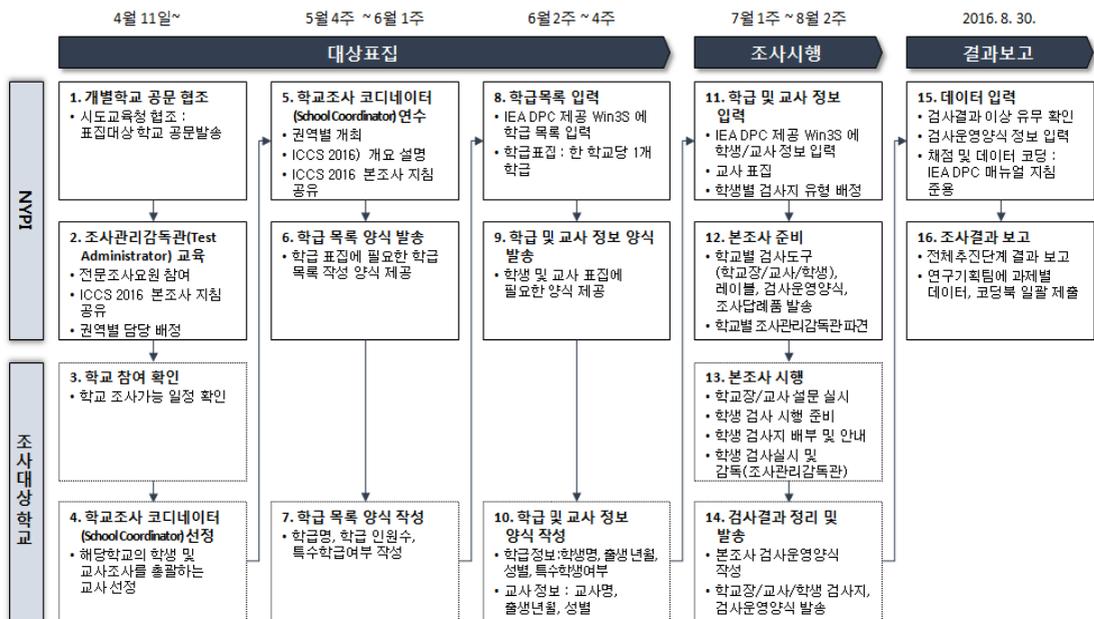
## ④ 국가맥락조사

- 이 조사는 국가별 연구책임자(National Research Coordinator)가 온라인으로 작성하며, 해당 국가의 교육시스템, 시민의식과 시민성 교육이 국가교육과정에서 차지하는 위치 및 최근 동향 등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가맥락조사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는 기존에 발간되어 있는 국가와 교육시스템에 관한 정보를 보완하여 학생용, 학교용, 교사용 설문조사 결과를 해석하고 시민의식과 시민성 교육에 관련된 국가 맥락을 기술하는데 사용된다.

#### 4) ICCS 2016 본 조사를 위한 단계 및 절차

ICCS 2016 본조사 절차는 조사실시 기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위탁 회사)과 조사에 참여하는 학교로 나누어서 진행되었다.

조사실시기관은 조사지 준비, 조사대상학교 섭외, 학교별 조사를 담당하는 조사관리감독관(Test Administrator) 교육, 학교조사 코디네이터(School Coordinator) 교육 연수, 학교정보 입력 및 학생별 조사지 배부계획 출력, 조사지 발송 및 회수, 조사 결과 채점 및 입력, 최종 데이터를 IEA에 제출하는 작업을 담당하였다. 학교조사 코디네이터 교육연수는 3개 권역별로 2016년 5월 17일과 6월 1일, 2일 3회에 걸쳐서 진행하였다. 조사대상 학교는 2학년 담당 교사 중에서 학교조사 코디네이터(School Coordinator)를 임명하고 학교조사 코디네이터는 자기 학교의 2학년 학급 전체의 정보(학급별 학생이름, 출생년월, 담임교사명, 성별 등)를 입력하여 제출하며, 전달받은 조사지를 가지고 조사를 실시하고 응답이 기재된 조사지를 조사담당기관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부록그림 1-1】ICCS 2016 세부 시행 절차

전체 절차는 위 그림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ICCS 2016 본조사는 2016년 4월 11일부터 8월 30일까지 약 18주간 진행되었다.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의 협조를 얻어 표본학교들의 참여를 요청한 결과, 최종적으로 조사에 참여한 학교는 총 106개 중학교였으며, 해당 학교의 중학교 2학년 학생 2,998명(학교당 1개 학급 표집)과 2학년 담당 교사 1369명 및 교장 106명의 조사결과가 수집되었다. 그러나 이 데이터가 전부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 IEA 본부에서 검증작업을 거쳐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데이터만 사용될 예정이다.

**부록표 1-4** ICCS 2016 조사참여학교 현황 (괄호 안은 전체학교수)

구분	중학교 전체	국립	공립	사립
서울	17 (384)	0 (2)	11 (273)	6 (109)
경기	28 (619)	0 (0)	24 (532)	4 (87)
인천	2 (134)	0 (0)	1 (123)	1 (11)
강원	2 (162)	0 (0)	2 (147)	0 (15)
충북	5 (128)	0 (2)	4 (107)	1 (19)
충남	3 (186)	0 (1)	3 (141)	0 (44)
대전	4 (88)	0 (0)	4 (72)	0 (16)
경북	7 (271)	0 (0)	5 (198)	2 (73)
경남	11 (265)	0 (1)	8 (188)	3 (76)
부산	6 (172)	0 (0)	5 (135)	1 (37)
대구	6 (125)	0 (1)	5 (90)	1 (34)
울산	0 (63)	0 (0)	0 (59)	0 (4)
전북	4 (209)	0 (0)	3 (160)	1 (49)
전남	6 (250)	0 (0)	6 (215)	0 (35)
광주	4 (90)	0 (1)	3 (64)	1 (25)
제주	1 (45)	0 (1)	1 (38)	0 (6)
합계	106 (3,209)	0 (9)	85 (2,560)	21 (640)

## 4. 청소년 역량관련 국내 정책현황에 대한 분석

청소년 역량에 관련된 국내 정책 분석 결과, 현행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청소년 역량 개발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은 정책목표로 청소년의 역량 함양 및 미래 핵심인재를 선정하고,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 청소년의 인성 및 민주시민교육 강화와 같은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를 정책범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역량정책 범주인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사회참여역량을 세부적으로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의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는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다 세밀한 역량정책 범주를 정책범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수행 중인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에서는 비슷한 정책들을 여러 부처에서 동시에 작게 진행하고 있다. 청소년 정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비슷한 작은 정책들을 한 부처에서 모아 규모를 크게 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또 매년 청소년 정책들 중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진행해야 할 정책을 지정해서 청소년 정책수행의 과급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 1) 청소년 역량지수 영역별 정책현황 분석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서 생애학습역량의 하위범주인 사고력, 지적도구활용, 학습적응성들과 관련된 정책은 거의 없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생애학습역량 측정결과가 사고력 > 학습적응성 > 지적도구활용 역량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적도구활용(언어능력, 수학능력, 과학능력, 정보통신활용능력), 학습적응성(변화수용력, 지적호기심, 학습주도성), 사고력(비판적 사고력, 감성적 사고력)의 순으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서 생활관리역량의 하위범주인 건강관리, 과제관리, 상황대처, 정서조절 중에서 건강관리, 상황대처 관련 정책들은 시행하고 있으나 과제관리, 정서조절 관련 정책들은 없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측정결과가 건강관리 > 상황대처 > 과제관리 > 정서조절 역량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정서조절(감정인식, 분노행동, 감정절제, 조절실패)과 과제관리(목표 및 계획수립, 수행 및 평가) 부분의 정책에 대한 우선적 관심이 필요하다.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서 진로개발역량의 하위범주인 진로설계, 여가활용 관련 정책들

은 상대적으로 많이 시행하고 있었던 반면, 개척정신 관련 정책들은 없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진로개발역량 측정결과가 여가활용 > 진로설계 > 개척정신 역량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개척정신(차별화태도, 도전정신) 역량 부분의 정책에 대한 우선적 관심이 필요하다.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서 대인관계역량의 하위범주인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과 관련된 정책들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대인관계역량 측정결과는 협동 > 관계형성 > 리더십 역량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하위 범주 중 리더십(의사결정, 집단활동관리, 추진력), 관계형성(자기 개방성, 친화성,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 협동(집단축진, 팔로워십, 갈등문제 해결) 역량의 순으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서 사회참여역량의 하위범주인 개인시민성, 공동체시민성, 세계시민성과 관련된 정책들은 비교적 적은 편이었으며, 특히 개인시민성과 세계시민성에 비해 공동체시민성의 정책이 가장 적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사회참여역량 측정결과 세계시민성 > 개인시민성 > 공동체시민성 역량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공동체시민성(공적실천, 사회적 신뢰, 적극적 의견개진, 교실개방성) 역량 부분의 정책에 대한 우선적 관심이 필요하다.

## 2) 청소년 역량관련 해외 정책현황 분석 결과 요약

### (1) 영국의 청소년 역량정책 사례

STEM교육 사례는 현대사회에서 융합창조능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 제시한 생애학습역량의 하위분야인 지적도구활용 분야의 언어능력, 수학능력, 과학능력을 신장시키는 부분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ICT교육 사례는 현재 사회에서 ICT활용능력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 제시한 생애학습역량의 하위분야인 지적도구활용 분야의 정보통신활용능력을 배양하는 부분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했다.

### (2) 미국의 청소년 역량정책 사례

미국의 ASELA(The Collaborative for Academic, Social, Emotional Learning) 사례는 청소년들의 정서조절 역량부분에 정책적 관심을 두지 않아왔던 한국적 현실에서 이 연구에서 제시한 생활관리역량의 하위분야인 정서조절 역량을 배양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 (3) 뉴질랜드의 역량중심 교육정책 사례

뉴질랜드는 사고하기(thinking), 언어·상징·텍스트 사용하기(using language·symbols·texts), 자기 관리하기(managing self), 대인관계(relating to others), 참여와 공헌(participation and contributing)과 같은 여러 핵심역량 중심으로 교육체계를 개편하였다. 여기서 제시한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대인관계역량, 사회참여역량과 같은 여러 하위범주의 청소년 역량발전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했다.

## 5. 청소년 역량지수의 측정결과 해석을 위한 청소년의 개인심리 및 외부환경 변인 분석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가 2014년부터 2017년 지금까지 4차년도에 걸쳐 수행되면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에 대해 가장 큰 논의 사항은 청소년들의 역량 점수가 학교급, 즉 청소년의 성장시기에 따라 낮아지는 현상과 더불어 성별차이에 대한 격차가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해석이었다.

2015, 2016년 청소년 역량지수를 국가수준에서 측정한 결과, 초기 청소년들(초등학생)의 역량 점수가 가장 높고 후기청소년(대학생)의 역량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자청소년들의 역량 점수가 초등시기(초기 청소년)에서는 남자 청소년보다 역량이 높았으나, 중등과 고등(중기 청소년)을 지나고 대학(후기 청소년)으로 갈수록 역량 점수가 급격하게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이 청소년이 성장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외부환경 요인에 대한 개인심리적 요인의 발달과 변화에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며,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이 청소년의 특정시기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역량지수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그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2017년 4차년도 연구의 핵심문제라 할 수 있다.

이에 청소년이 성장하면서 역량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수 있는 청소년의 개인심리적 핵심요인과 외부환경의 핵심요인에 대해 선행문헌을 우선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개인심리적 요인은 자아개념, 자율성, 자기효능감, 그리고 가능한

자아 등의 요인이 확인되었고, 외부환경 요인으로는 학업스트레스와 부모의 양육태도 등의 요인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청소년의 성장 및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심리적 요인에 대한 분석

### (1)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대한 특징

자아개념은 한 인간의 그 자신에 대한 지각을 의미하는 것으로 LeBenne와 Greene(1969)는 “자아개념은 관찰된 행동으로 추리될 수 있는 일련의 감정과 인지적 과정으로서, 인간이 그 자신의 외모, 배경, 기원, 능력과 재능, 그리고 감정에 관해 내리는 전체적인 평가이며 이것은 행위의 방향을 결정짓게 하는 힘을 낳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자아개념은 학생들의 학년이 높아질수록 구체화된다(Woolfolk, 1995). 이에 근거하여 일반적 자아개념의 하위분야로 학문적 자아개념, 사회적 자아개념, 정서적 자아개념, 신체 자아개념을 제안한 바 있고(Einar, 1997),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한국교육중단연구를 위해 2006년도에 사회, 가족, 신체, 학업자아개념으로 구성된 검사도구를 개발하였다(김동호, 라종민, 2015). 송인섭(1987)의 연구에서는 이들 학위 자아개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사회 자아개념은 중요타인인 부모, 교사, 또래 집단의 평가를 통해 형성되는 지각으로 사회적 상황에 적응하는 정도에 대한 지각이다. 가족 자아개념은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가족의 평가를 통해 형성되는 개인의 가정에서의 적응에 대한 자아지각을 말한다. 신체 자아개념은 신체 및 외모에 관한 자아, 즉 몸집, 생김새 등에 관한 지각과 근력, 원력과 같이 신체 능력 및 기능에 관한 지각을 의미한다. 학업자아개념은 학업에 대한 느낌으로 학업성취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지각을 말한다.

자신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의미하는 자아개념은 청소년 역량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 수행되는 청소년 역량에 대한 평가가 대체로 자기보고식(self-report) 문항으로 구성되어 청소년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자아개념의 수준이 청소년 역량의 평가 결과와도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아에서 대학생까지 3500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이경화, 고진영 (2003)의 연구결과에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아개념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즉 학년이 높아질수록 자아개념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자아개념과 학업성취간의 관계 분석을 위한 메타 연구를 실시한 홍명희(1990)의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75편 중 최종으로 분석에 사용된 29편의 연구들 중에서 23편의 연구가 자아개념과

학업성취도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일반적으로 학업적 자아개념과 학업성취는 .446 정도의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학교급별로 봤을 때 초등학생은 .534, 중학생은 .361, 고등학생은 .462로 초등학생이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인다고 밝혔다. 자아개념 하위요소 중 일부는 학업성취와 관계가 없다는 연구도 있다. 이명숙과 이규민(2009)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아개념과 정서 자아개념은 학업성취에 영향이 없다고 제안하였고 Byrne 과 Worth (1996)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자아개념과 신체적 자아개념은 학업성취와는 관련이 없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중1, 중3, 고3을 대상으로 한 김동호, 라종민(2015)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자아개념이 학업성취에 부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아개념 및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간의 관계를 밝힌 배정숙(1998)의 연구에서는 자아개념과 자기효능감간의 관계가 .67의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의 인지적 능력을 포함한 전체적인 측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할수록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도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아개념 및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간의 상관은 .40으로 나타났고 이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밝혔듯이 자아개념 및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이 학업성취도도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자아개념과 일상적 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박은총(2016)의 연구에서는 두 관계에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하였다. 즉,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은 낮아지고, 자신에 대한 열등한 자아개념은 일반적으로 많은 부적응에 대한 민감성을 증가시켜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였다(김요셉, 김성천, 유서구, 신애원, 2011; 장경수, 2014)

## (2) 청소년의 자율성에 대한 특징

Deci와 Ryan의 자기결정성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SDT)은 인간의 동기(motivation), 발달(development), 신체적 및 심리적 건강(wellness)과 관련된 이론으로(Deci & Ryan, 2008), 인간을 자율성을 가진 존재로 인식하고, 인간의 행동, 안녕, 내재적 동기를 결정하는 요인이 자기결정성에 있음을 강조하는 이론이다(Deci & Ryan, 2000; Deci & Ryan, 2008).

자기결정성이론에서는 인간의 지속적인 심리적 성장(psychological growth), 통합(integrity), 주관적 안녕감(wellbeing)을 유지하는 데 자율성(autonomy), 유능성(competence), 관계성(relatedness) 등 기본심리욕구 충족이 필수적이라고 본다(Deci & Ryan, 2000). 즉, 인간이 제대로

가능하고 성장, 발달하기 위해서는 기본심리욕구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심리욕구는 다음과 같은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청소년역량과도 관련된다고 예측된다. 첫째, 자율성과 유능성은 인간이 효과적으로 행동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우선, 자율성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Niemiec & Ryan, 2009), 자율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욕구와 역량을 잘 파악하여 자신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며, 자기 유지를 위해 우선순위를 적절히 정한다(Deci & Ryan, 2000). 한편, 유능성은 자신의 행동 및 능력에 대한 지각을 의미하는 것(이명희, 김아영, 2008)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잘 수행할 때 유능하다고 느낀다(Deci & Ryan, 2000). 이와 같이 자율성과 유능성이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청소년의 자율성과 유능성은 “현재와 미래(성인기)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요구되는 핵심행동특성(성은모 외, 2013, p.53; 성은모 외, 2015, p. 126., 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2015, p16에서 재인용)”으로 정의되는 청소년의 역량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많지는 않지만 기존연구들에 의하면, 기본심리욕구 충족이 아동, 청소년들의 학업성취, 학교생활적응, 의사소통능력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보고되고 있다. 예컨대, 임정하, 김경민, 송지은, 나운경, Tan Mei Xin(2014)의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기본심리욕구 충족은 학교적응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유사하게 김은주와 김민규(2014)의 연구에서도 대학신입생들의 자율성과 유능성은 대학생활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본심리욕구와 청소년역량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특히, 기본심리욕구 중 자율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첫째, 자율성은 자기결정성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Deci와 Ryan의 연구에 의하면, 자율성이 충족되어야 유능성이 발휘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김아영, 2010에서 재인용). 둘째, 기본심리욕구 중 유능성은 “자신의 과제에 대한 능력과 판단으로 정의되는 자기효능감과 유사한 개념이므로(김아영, 2008)”, 유능성은 자기효능감으로 대체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셋째, 국내 연구를 검토하여 한국청소년의 학업동기 발달양상을 종합한 김아영(2008)의 연구에 따르면, 학교급이 증가할수록 자율적 동기수준이 낮아지고, 무동기 경향이 증가했다. 장근영 외(2015)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역량 수준이 학교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율성이 청소년 연령에 따른 역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함으로써, 청소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역량이 감소하는 원인을 밝히고자 한다.

### (3) 청소년의 자아효능감에 대한 이해

자아효능감은 학습자가 과제수행에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지, 성공에 대해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를 의미하며(Bandura, 1977), 개인의 과업 수행을 시작하고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안혜진, 정미경, 2015). 자아효능감은 유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심리적 변인과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청소년부터 후기청소년까지 걸쳐 청소년 시기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지금까지의 자아효능감 연구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초등학생의 자아효능감은 높은 편이었으며, 중학생 혹은 고등학교 초기까지 높은 편이다가 이후에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여러 종단연구를 통해 자아효능감의 발달연구가 보고되었는데, 최수정(2007)은 패널자료를 통해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의 자기효능감의 변화추이를 분석한 결과,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기효능감의 수준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김명숙(2009)의 연구에서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횡단연구를 통해 진로결정에 있어 자아효능감을 분석한 결과,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높은 진로결정 자아효능감을 보였으며, 중·고등학교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높은 자아효능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안혜진과 정미경(2015)은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종단조사로 수집된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자아효능감이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증가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에 다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학년이 높아지면서 자기효능감이 낮아지는 이유에 대해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신의 능력에 대해 평가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다른 학생의 수행과 자신의 수행결과를 비교할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Schunk & Pajares, 2001; Wigfield & Eccles, 2002).

이러한 자아효능감은 다양한 변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유지영과 김춘경(2014)의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자아효능감은 학습된 무기력과 부적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효능감의 하위변인인 자신감과 자기조절 효능감 역시 초등학생의 학습된 무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개념과 사회적지지 초기치가 자기효능감 초기치에 영향을 미치고, 자아개념의 초기치와 자아개념의 변화율과 사회적지지의 변화율이 자기효능감의 변화율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안혜진, 정미경, 2015).

특히, 자아효능감은 진로 관련 변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청소년의 진로선택 및 발달과정을 설명하는 데에 있어 가장 많이 거론, 설명되는 변인이 자아효능감이라는 것이다(하정, 홍지영, 2013). 여러 연구에서 자아효능감이 인간의 행동과 관련된 다양한 심리적 변인을 예언하는 데 유용한 변인이라는 데에 착안하여 자아효능감 이론을 진로와 직업분야에 적용하기 시작하였다(공운정, 2005; 이상희, 2005). 결국 높은 자아효능감을 가진 학생이 진로선택과 진로탐색행동을 할 때 성숙한 태도로 임하게 된다는 것이다(공운정, 2005; 이상희, 2005; 안혜진, 정미경, 2015). 또한, 하영숙과 염동문(2013), 이상희(2006)는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가 자아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허균(2013)은 고등학생의 부모 및 교사애착이 자아효능감을 매개로 진로탐색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즉, 자아효능감은 진로 결정 과정에서의 인지적 능력과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etz & Luzzo, 1996; Lent, Brown & Hackett, 2002; Solberg, 1998).

이러한 현상은 대학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결과가 보고되고 있는데, 조명실과 최경숙(2007)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정체감과 사회적지지가 진로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자아효능감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렇듯 자아효능감은 청소년 시기 전체와 다양한 심리적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몇몇 변인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매개변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자신의 역량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 자아효능감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 (4) 청소년의 가능자아(Possible Selves)의 특징

최근 여러 연령대 혹은 대상에 따라 ‘가능 자아’(Possible Selves) 개념이 주목을 받고 있다. ‘가능자아’ 혹은 ‘가능한 자아’는 자신이 될 수 있거나 되고 싶거나, 되기 두려워하는 미래 상태를 표상화한 것이다(Markus & Nurius, 1986). 미래의 자신이 어떤 모습이 될지를 그려보는 것이다. 그 모습은 원하는 직업을 가지거나, 부유해지거나, 건강한 모습이거나, 정신적으로 안정감 있는 상태일 수도 있고, 이와 반대로 원하는 직업을 가지지 못하거나, 병약하거나, 가난하거나 불안정 혹은 우울한 상태일 수도 있다.

청소년이 자신의 역량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데에 있어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자명하다. Markus와 Nurius(1986)가 주장하였듯이, ‘가능자아’는

‘미래의 모습’에 대해 응답하지만, 자신의 현재 상태를 반영하고 있으며, 미래의 가능한 자아와 관련하여 기대차원(like-to-be), 가능성의 차원(probable), 중요 정도의 차원(important)을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이다. 즉, ‘가능자아’는 미래 행동에 대한 동기로서 기능하고, 현재의 자기에 대해 평가하고 해석하게 한다(Markus & Nurius, 1986). ‘자아개념’이 현재의 상태만을 살펴보는 것에 비해 ‘가능자아’는 개인의 과거, 미래의 자아개념까지 포함하여 확장된 자아개념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McElwee & Dunning, 2005).

이렇듯 미래의 자신의 상태가 어떠할지 고려하는 것은 자신이 목표로 삼는 것과 관련된 수행을 향상시키는 데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Ruvolo & Markus, 1992). 아울러 자신의 ‘가능한 자아’를 어떤 상태로 상정하는지에 따라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어떠한 정보처리를 촉진시키는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동기가 달라진다는 것이다(Markus & Nurius, 1986). 예를 들어, 미래의 자신의 상태를 성공적인 상태로 상상하는 것은 신체적 건강과 심리적 안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King, 2001), 과제 수행을 향상시키게 된다(Ruvolo & Markus, 1992). 반면에 자신의 미래 모습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면, 목표를 향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자아’를 동기와 관련된 중요한 변인으로 평가한다(김진경, 신미연, 현명호, 2016).

그러나 ‘부정적 자기’를 인식하는 것이 반드시 청소년의 수행 문제나 심리적 안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학업을 제때 끝마치지 못할 경우의 부정적 미래 모습과 좋은 성적으로 제때 끝내는 긍정적 미래 모습을 함께 생각할 때, 졸업과 성적을 위한 수행이 동기화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성숙(1989), 라운정과 서용원(2000), Oyserman과 Markus(1990) 등은 ‘가능한 자아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하나의 영역에 대해 긍정적인 가능한 자아와 부정적인 가능한 자아가 함께 공존하는 것이 가장 동기화시키는 변인이라는 것이다. 영재 초등학생과 일반 초등학생의 가능한 자아 모습을 비교한 김승희와 한기순(2011)의 연구에서도 영재 초등학생과 일반 초등학생이 그리는 긍정적 자기와 부정적 자기의 모습이 다르지만, 양쪽이 균형감 있게 그려지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김진경, 신미연, 현명호(2016)의 연구에서도 대학생의 경우 부정적 가능한 자아가 긍정적인 가능한 자아에 비해 많은 경우, 우울감이 높아지고, 학습동기가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가능한 자아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청소년이 자신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기대와 목표, 동기를 반영한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는지가 현재 자신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알 수 있는 단초가 된다는 점에서 '가능한 자아'는 청소년 시기에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변인이라 할 수 있다.

## 2)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환경 요인에 대한 분석

### (1)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특징

학업스트레스란 학교 공부와 성적으로 인하여 공부가 너무 힘겹고 하기 싫거나 귀찮다고 생각되어 겪게 되는 정신적 부담과 긴장, 근심, 공포, 우울, 초조함 등과 같은 편하지 못한 심리상태를 의미한다(오미향, 천성문, 1994). 학업스트레스의 원인과 유형은 다양하나 김계현(1996)의 연구에서는 학업스트레스의 유형을 성적저하, 시험불안, 학업능력저하, 공부에 대한 회의와 동기저하, 학업과 관련하여 유발되는 다른 문제들로 원인을 구분하여 제시한 바 있다. 학업과 관련하여 유발되는 문제들로는 학업으로 인한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교우관계 문제와 부모와 자녀와의 갈등 등이 있다(김혜자, 2006).

청소년들의 학업스트레스 관련 선행연구를 보면,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서양보다, 동양이 그 중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통계청(2014)의 조사에서도 고등학교 재학생 중 80.9%가 공부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크다고 응답하였고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경희, 1995; 천민필, 1994).

그러나 모든 청소년들이 동일한 수준으로 학업스트레스를 경험하지 않는다는 선행연구들이 있다. 청소년들의 성별과 관련해서는 남학생이 경험하는 학업스트레스 정도가 여학생보다 높다고 보고한 연구(김정미, 2010)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고 보고한 연구(김미경, 2012; 조강래, 2007; 이지영, 2017), 성별은 학업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오정희, 선혜연, 2013) 등 다양한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또한 성적과 학업스트레스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박경희(2000)의 연구에서는 학업성적이 좋을수록 자아개념이 높고 학업스트레스를 적게 받는다고 하였으며 김미경(2012)의 연구에서도 청소년들의 성적수준에 따라 학업스트레스를 받는 정도가 다르다고 제안하였다.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도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많은 연구에서 제안해 왔다. Bandura(1993)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Gattuso, Litt와 Fitzgerald(1992)의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이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효과를 감소시켜 심리적 건강을 촉진시킨다고 하였다. 국내 전운정(2004)이 수행한 연구에서도 중학생들의 일반적인 효능감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학교급별 학업스트레스 정도를 비교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으나, 대체로 학년이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의 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김정현, 김성벽, 정인경, 2014; 최연재, 정연택, 강병일, 2013; 윤여진, 정인경, 2014). 또한 박일경 외(2010)의 연구에서도 고등학교나 대학교로의 진학을 위한 과도한 입시 경쟁 체제 속에서 고교 진학을 앞둔 고학년들이 저학년에 비해 학업 및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청소년들의 학업스트레스에 경험에 대한 정도가 성별, 성적, 학년별 차이가 있다는 것은 청소년들의 역량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학업스트레스가 학교급별 차이가 있는지 이러한 차이가 청소년들의 역량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고자 한다.

## (2) 청소년의 부모 양육태도에 대한 특징

부모는 인간의 성장 및 발달과 관련된 주요한 외적 환경으로, 특히 부모양육태도는 아동 및 청소년의 안녕(well-being)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꼽힌다(Darling, 1999).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화과정에 있어 부모보다 또래그룹의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크고, 부모의 영향력이 거의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Harris, 1995), 대체적으로 발달학자들은 부모양육태도가 아동, 청소년의 행복(well-being), 사회적 유능감, 학업성취, 심리사회적 발달, 문제행동 등에 영향을 주는 등 아동, 청소년의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에 기초가 된다는 데에 동의한다(Darling, 1999; Shaffer,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역량과 관련된 주요 변인으로 부모양육태도를 다루고자 한다.

청소년 역량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양육태도는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등 청소년역량과 관련된 요인으로 지적된다. 우선, 가정은 생애학습(life-long learning)의 출발점으로, 많은 연구들에서 부모양육태도는 생애학습역량과 관련 있음을 밝히고 있다. 예컨대, 부모양육태도는 아동 및 청소년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촉진 혹은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히는데(Pomerantz, Grolnick, & Price, 2005;

Pomerantz, Moorman, & Litwack, 2007), 부모의 자율성 지지는 아동 및 청소년의 과제수행능력 및 학업적 유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안도희, 유지현, 2008; Grolnick & Ryan, 1989; Grolnick, Ryan, & Deci, 1991), 부모의 통제적 태도는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선희, 2013). 이러한 맥락에서 아동 및 청소년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 스스로 탐구하고, 학습할 수 있는 학습문화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음이 강조된다(고요한, 2007).

한편, 부모의 양육태도는 식습관, 체중, 수면습관 등 청소년의 건강과 관련된다. 예컨대, 애정적이고 자녀의 자율성과 독립심을 인정하는 권위있는(authoritative)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건강한 식이섭취 습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녀의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고 BMI지수를 낮추는 등의 신체적 건강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Berge, Wall, Loth, & Neumark-Sztainer, 2010). 반면, 부모의 허용적(permissive)이고 권위주의적인(authoritarian) 태도는 자녀의 섭식장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Haycraft & Blissett, 2010).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휴대폰 사용, 음주 등 매체사용 및 유해물질 사용과 관련된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휴대폰 의존정도는 낮추는 요인으로(김지혜, 2014), 부모의 낮은 통제 및 관리감독 수준은 청소년의 음주수준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용석, 김정우, 김성천, 2001; 김용석, 박명숙, 2000; 류나미, 윤혜미, 2006, 김지경, 김근희, 2013에서 재인용). 한편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우울, 공격성 등 정서 및 행동조절 문제 등과 관련되는 요인으로 밝혀진 바 있다(장혜림, 정인중, 2013; Radziszewska, Richardson, Dent, & Flay, 1996).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생활관리역량과 관련됨을 보여준다.

아동 및 청소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또래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강조되지만, 진로선택과 관련된 부분은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Shaffer, 2008). 즉, 진로개발역량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이 있다. 부모가 권위있는(authoritative) 양육태도를 보이고, 자녀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용하는 개방적인 태도(openness)를 보일수록 아동 및 청소년의 직업 탐구 행동이 활발해진 반면(Kracker 1997), 부모의 방임적(neglectful) 양육태도는 여자 청소년의 직업 탐구 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Vignoli, Croity-Belz, Chapeland, de Fillipis, & Martine, 2005). 즉, 청소년들에게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 부모의 양육태도와 적절한 지원은 중요하며, 부모의 지원이 뒷받침 되지 않을 경우 청소년들이 진로 탐색할 때 방황할 가능성이 높다(Kerka, 2000).

부모는 아동이 일차적으로 관계를 맺는 대상으로 사회성 발달에 기초가 되며, 따라서 부모의

양육태도 또한 청소년의 대인관계역량에 영향을 미친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밝히고 있는데,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한 여태철(2014)의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 중 돌봄은 아동의 사회적 역량과 정적 상관이, 과보호는 아동의 사회적 역량에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하게 Engels, Dekovic와 Meeus(2002)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사회적 기술 중 분노 표현은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부적 상관이 있으며, 부모의 엄격한 태도(strictness)와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연중(2014)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대인커뮤니케이션 능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혔다.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볼 때,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들의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역량에 대한 부모양육태도의 영향력은 청소년 시기별로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하위역량에 따라서도 부모양육태도의 영향력은 다를 수 있다. 예컨대, 김현주와 이병훈(2007)의 연구에서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중·고등학생의 학업성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영향력은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청소년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청소년역량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이 낮아질 수는 있으나, 진로와 관련된 문제 등에서는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Shaffer, 2008) 특정 역량에서는 나이가 들어도 그 영향력이 여전히 중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시기별로 청소년역량에 미치는 부모양육태도의 영향력이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부록 2】 2017 청소년(초·중·고등학생) 모집단 분석 및 표본설계

### 1. 모집단 분석

#### 1) 모집단

본 조사의 모집단은 조사시점 기준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 2) 모집단 분석

먼저 16개 광역 시도별, 학교급별, 학년별 학생수를 <표 1>과 <표 2>에 정리하였다. 전체 조사대상 학생수는 4,480,064명이며 각 학교급별 학생수는 초등학교 1,294,448명(28.9%), 중학교 1,446,158명(32.3%), 고등학교 1,739,458명(38.8%)이다. 지역×학교급×학년별 학교수 및 학생수 분포는 <표 2>~<표 8>에 정리되어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 고교유형과 학제를 기준으로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고등학교의 유형 구분은 다음과 같다.

- 유형 1(일반고): 일반고 중 일반, 종합고등학교
- 유형 2(자율고): 자율고 중 일반고등학교
- 유형 3(특성화고): 가사, 공업, 농림업, 상업, 수산, 실업, 해양고등학교, 특성화고(대안교육), 특수목적고 중 예술, 체육고등학교
- 유형 4(특수목적고): 과학, 국제, 외국어고등학교

부록표 2-1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학년별 학생수, 학교수

구분	학생수						학교수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70,708	68,129	75,042	77,246	75,825	85,351	599	599	599	383	383	384
경기	117,953	111,629	120,864	124,017	119,626	134,501	1,225	1,231	1,232	619	618	618
인천	24,759	23,893	25,559	26,894	25,846	29,436	245	243	246	134	134	133
강원	12,224	12,375	13,245	13,750	14,040	15,835	330	331	335	162	162	162
충북	13,393	13,089	14,157	14,476	14,579	16,753	268	262	262	126	128	128
충남	21,409	20,216	21,543	21,889	21,068	23,989	434	432	433	205	205	205
대전	13,919	13,371	14,729	15,259	15,058	16,896	147	147	147	88	88	88
경북	20,205	19,814	21,068	22,220	22,086	25,577	395	395	411	280	282	281
경남	29,448	28,328	30,630	31,552	31,187	35,826	482	489	491	268	267	267
부산	24,101	23,670	25,849	27,529	27,047	31,404	308	308	308	172	172	172
대구	20,117	20,241	21,816	23,721	22,937	26,789	224	224	224	125	123	123
울산	10,406	10,027	10,744	11,277	10,851	12,946	118	118	118	63	62	62
전북	15,576	15,669	16,841	17,856	18,128	20,542	386	385	392	209	209	209
전남	14,906	14,445	15,781	16,490	16,833	19,323	416	417	415	252	247	253
광주	14,462	13,949	15,455	16,483	16,067	18,639	154	154	154	90	90	89
제주	6,293	6,071	6,330	6,729	6,467	7,318	114	112	114	45	45	44
합계	429,879	414,916	449,653	467,388	457,645	521,125	5,845	5,847	5,881	3,221	3,215	3,218

주) 세종은 충남에 포함

부록표 2-2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학생수

구분	유형 1(일반고)			유형 2(자율고)			유형 3(특성화고)			유형 4(특수목적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65,860	63,802	67,413	13,841	13,484	12,487	18,608	18,041	18,029	2,012	2,120	2,116
경기	122,431	117,272	117,980	3,888	3,732	4,047	19,812	19,665	20,195	2,589	2,551	2,459
인천	21,917	21,580	22,015	2,058	1,971	1,723	7,524	7,271	7,407	829	756	713
강원	13,893	13,806	14,277	155	151	155	3,560	3,207	3,378	185	214	173
충북	11,284	10,838	11,187	1,576	1,528	1,586	5,209	5,108	5,368	243	240	200
충남	18,465	17,414	17,060	2,160	2,216	2,184	6,170	5,873	6,017	438	438	316
대전	12,261	11,895	12,563	2,673	2,599	2,590	3,709	3,490	3,618	431	427	398
경북	20,163	19,817	19,592	2,741	2,699	2,600	6,664	6,383	6,467	223	224	176
경남	30,401	29,858	30,404	2,793	2,703	2,707	5,436	5,338	5,568	521	548	449
부산	21,563	21,173	22,202	3,518	3,515	3,566	8,763	8,668	8,666	1,137	1,174	1,126
대구	17,926	18,184	18,413	5,542	5,491	5,698	6,627	6,295	6,269	326	321	277
울산	10,398	10,331	10,608	1,022	1,047	939	3,027	2,956	3,243	239	253	214
전북	17,211	16,686	17,227	1,029	966	950	5,174	5,011	5,169	225	207	189
전남	13,655	13,374	13,514	2,228	2,176	2,234	6,226	6,133	6,246	212	208	165
광주	15,478	14,948	15,370	1,114	1,105	1,094	4,174	4,110	4,262	95	93	94
제주	5,294	4,967	4,927	232	231	225	2,235	2,153	2,129	142	136	119
합계	418,200	405,945	414,752	46,570	45,614	44,785	112,918	109,702	112,031	9,847	9,910	9,184

주) 세종은 충남에 포함

**부록표 2-3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학교수**

구분	유형 1(일반고)			유형 2(자율고)			유형 3(특성화고)			유형 4(특수목적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186	186	186	41	41	41	81	81	81	10	10	10
경기	362	353	344	13	13	13	82	82	82	13	13	13
인천	80	79	79	8	8	7	31	31	31	6	5	5
강원	86	86	86	1	1	1	28	28	27	2	2	2
충북	46	46	46	6	6	6	29	29	29	2	2	2
충남	67	67	67	9	9	9	38	38	38	2	2	2
대전	38	38	38	7	7	7	14	14	14	3	3	3
경북	9	9	5	1	1	1	1	1	1	2	2	1
경남	117	117	118	12	12	11	56	56	58	3	3	3
부산	138	138	137	10	10	10	39	39	39	4	4	4
대구	81	81	80	14	14	14	41	42	42	7	7	7
울산	50	50	50	17	17	17	22	22	22	3	3	3
전북	37	36	35	4	4	4	13	13	13	2	2	2
전남	94	94	93	3	3	3	34	34	34	2	2	2
광주	78	78	78	8	8	8	55	55	55	2	2	2
제주	46	46	46	4	4	4	16	16	16	1	1	1
합계	17	17	17	1	1	1	10	10	10	2	2	2

주) 세종은 충남에 포함

**부록표 2-4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학년별×성별 학생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남학생수			여학생수			남학생수			여학생수		
	4학년	5학년	6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36,396	35,147	38,612	34,312	32,982	36,430	40,135	39,515	44,429	37,111	36,310	40,922
경기	60,571	57,454	62,084	57,382	54,175	58,780	64,107	62,074	69,775	59,910	57,552	64,726
인천	12,788	12,233	13,141	11,971	11,660	12,418	13,803	13,348	15,172	13,091	12,498	14,264
강원	6,305	6,407	6,900	5,919	5,968	6,345	7,113	7,335	8,290	6,637	6,705	7,545
충북	6,836	6,803	7,415	6,557	6,286	6,742	7,538	7,666	8,714	6,938	6,913	8,039
충남	11,050	10,340	11,054	10,359	9,876	10,489	11,302	11,019	12,301	10,587	10,049	11,688
대전	7,204	6,945	7,603	6,715	6,426	7,126	7,864	7,874	8,858	7,395	7,184	8,038
경북	10,564	10,273	11,126	9,641	9,541	9,942	11,700	11,720	13,468	10,520	10,366	12,109
경남	15,260	14,733	16,166	14,188	13,595	14,464	16,679	16,437	18,937	14,873	14,750	16,889
부산	12,404	12,269	13,275	11,697	11,401	12,574	14,385	14,110	16,370	13,144	12,937	15,034
대구	10,430	10,625	11,432	9,687	9,616	10,384	12,484	12,307	14,103	11,237	10,630	12,686
울산	5,433	5,283	5,665	4,973	4,744	5,079	5,996	5,700	6,901	5,281	5,151	6,045
전북	8,000	8,231	8,691	7,576	7,438	8,150	9,185	9,585	10,513	8,671	8,543	10,029
전남	7,608	7,390	8,232	7,298	7,055	7,549	8,548	8,771	10,097	7,942	8,062	9,226
광주	7,486	7,224	8,022	6,976	6,725	7,433	8,648	8,372	9,655	7,835	7,695	8,984
제주	3,299	3,226	3,356	2,994	2,845	2,974	3,541	3,489	3,861	3,188	2,978	3,457
합계	221,634	214,583	232,774	208,245	200,333	216,879	243,028	239,322	271,444	224,360	218,323	249,681

주) 세종은 충남에 포함

부  
록

부록표 2-5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남학생수

구분	유형 1(일반고)			유형 2(자율고)			유형 3(특성화고)			유형 4(특수목적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32,923	31,620	33,808	9,561	9,340	8,639	8,564	8,333	8,192	755	811	749
경기	63,537	60,497	60,980	1,865	1,768	1,977	10,821	10,732	10,774	837	832	869
인천	11,271	11,256	11,437	1,205	1,206	1,026	3,882	3,765	3,828	391	338	289
강원	6,981	6,792	7,114	86	80	86	2,372	2,119	2,225	81	104	84
충북	5,634	5,363	5,559	911	889	929	2,939	2,878	3,001	89	88	79
충남	9,263	8,800	8,594	1,224	1,282	1,223	3,629	3,456	3,461	190	187	106
대전	5,717	5,660	5,904	1,909	1,853	1,836	2,093	1,979	2,105	176	185	171
경북	9,836	9,538	9,418	1,730	1,767	1,694	4,339	4,185	4,148	99	116	84
경남	14,801	14,336	14,558	2,200	2,167	2,225	3,553	3,439	3,577	228	218	151
부산	10,740	10,510	11,262	1,967	1,929	2,028	5,339	5,357	5,262	459	505	459
대구	8,886	8,779	9,235	2,959	3,009	3,183	4,161	3,988	3,865	182	166	157
울산	5,299	5,209	5,509	564	574	481	1,847	1,844	1,964	89	102	81
전북	8,229	7,949	8,307	897	837	822	3,149	3,041	3,121	78	81	54
전남	6,372	6,205	6,175	1,659	1,620	1,653	3,592	3,586	3,609	91	88	61
광주	7,785	7,411	7,746	699	679	657	2,314	2,236	2,266	82	80	73
제주	2,774	2,615	2,611	0	0	0	1,226	1,215	1,181	53	57	49
합계	210,048	202,540	208,217	29,436	29,000	28,459	63,820	62,153	62,579	3,880	3,958	3,516

주) 세종은 충남에 포함

부록표 2-6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여학생수

구분	유형 1(일반고)			유형 2(자율고)			유형 3(특성화고)			유형 4(특수목적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32,937	32,182	33,605	4,280	4,144	3,848	10,044	9,708	9,837	1,257	1,309	1,367
경기	58,894	56,775	57,000	2,023	1,964	2,070	8,991	8,933	9,421	1,752	1,719	1,590
인천	10,646	10,324	10,578	853	765	697	3,642	3,506	3,579	438	418	424
강원	6,912	7,014	7,163	69	71	69	1,188	1,088	1,153	104	110	89
충북	5,650	5,475	5,628	665	639	657	2,270	2,230	2,367	154	152	121
충남	9,202	8,614	8,466	936	934	961	2,541	2,417	2,556	248	251	210
대전	6,544	6,235	6,659	764	746	754	1,616	1,511	1,513	255	242	227
경북	10,327	10,279	10,174	1,011	932	906	2,325	2,198	2,319	124	108	92
경남	15,600	15,522	15,846	593	536	482	1,883	1,899	1,991	293	330	298
부산	10,823	10,663	10,940	1,551	1,586	1,538	3,424	3,311	3,404	678	669	667
대구	9,040	9,405	9,178	2,583	2,482	2,515	2,466	2,307	2,404	144	155	120
울산	5,099	5,122	5,099	458	473	458	1,180	1,112	1,279	150	151	133
전북	8,982	8,737	8,920	132	129	128	2,025	1,970	2,048	147	126	135
전남	7,283	7,169	7,339	569	556	581	2,634	2,547	2,637	121	120	104
광주	7,693	7,537	7,624	415	426	437	1,860	1,874	1,996	13	13	21
제주	2,520	2,352	2,316	232	231	225	1,009	938	948	89	79	70
합계	208,152	203,405	206,535	17,134	16,614	16,326	49,098	47,549	49,452	5,967	5,952	5,668

주) 세종은 충남에 포함

## II. 표본설계

### 1) 표본크기

표본크기는 표본추출방법과 모집단의 특성 및 층화방법 등의 영향을 받지만, 단순임의추출의 상황 하에서 통계분석 단위별로 평균 추정치의 목표오차  $d$ 를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통제할 것인가에 따라서 아래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n = \frac{N(zs)^2}{Nd^2 + (zs)^2}$$

여기에서  $N$ 은 모집단의 크기이고,  $s$ 는 관심변수의 표준편차이며,  $z$ 은 신뢰계수이다(신뢰수준 95% 하에서  $z = 1.96$ 이다).

조사내용이 비율인 경우에 모비율 추정에 대한 표본크기는 아래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n = \frac{Nz^2pq}{Nd^2 + z^2pq}$$

여기에서  $p$ 는 비율의 값이며  $q = 1 - p$ 이다. 본 연구에서는 1차 표본추출 단위가 학교이고 추출된 학교에서 표본학급을 선정하여 해당 학급의 모든 학생을 조사하는 일종의 층화집락추출방법을 사용할 것이므로, 목표오차를 실제로  $d$  이하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산출한 값보다 표본크기를 더 크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조사에 따른 소요비용과 조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표본크기를 결정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적용되기도 한다.

본 연구의 전체 목표 표본크기는 조사의 비용 및 시간을 고려하여 9,000명(초등학교: 2,600명, 중학교: 2,905명, 고등학교: 3,494명)으로 결정되었다. 이때 모비율의 추정에 대하여 예상되는 표본오차는 단순임의추출을 가정하는 경우 95% 신뢰수준 하에서 약  $\pm 1.0\%$ 이다. 층화집락추출의 상황 하에서의 실제 표본오차는 이보다 조금 더 크게 되겠지만 일반적인 기준에서 볼 때 충분히 허용할만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 2) 총화

조사내용의 특성과 모집단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모집단을 2016년 12월 교육통계DB 기주의 전국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현황을 기초로 지역구분과 학교구분을 층화변수로 고려한다. 즉, 층화변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구분 : 광역 시도 (16개, 세종은 충남에 포함)
- 학교구분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6개)
- 학년 (3개)

단, 고등학교 중 유형 2(자율고)와 유형 3(특성화고)은 광역시도별로 층화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지역을 5개 권역으로 묶어서 층화한다. 또한 유형 4(특수목적고)는 지역별 층화를 수행하지 않는다.

**부록표 2-7 학교급×학년별 모집단 크기, 목표 표본크기**

학교급		학년	모집단크기		단순비례배분 목표 표본크기		변형비례배분 예상 표본크기		
초등 학교	초등학교	4	429,879	1,294,448 (28.9%)	2,600 (28.9%)	2,520 (28.0%)			
		5	414,916						
		6	449,653						
중학 교	중학교	1	467,388	1,446,158 (32.3%)	2,905 (32.3%)	2,772 (30.7%)			
		2	457,645						
		3	521,125						
고등 학교	유형 1 (일반고)	1	418,200	1,238,897 (27.7%)	2,489 (27.7%)	2,511 (27.9%)			
		2	405,945						
		3	414,752						
	유형 2 (자율고)	1	46,570	136,969 (3.1%)	275 (3.1%)	3,494 (38.8%)	450 (5.0%)		
		2	45,614						
		3	44,785						
	유형 3 (특성화고)	1	112,918	334,651 (7.5%)	672 (7.5%)		624 (6.9%)		
		2	109,702						
		3	112,031						
	유형 4 (특수 목적고)	1	9,847	28,941 (0.6%)	58 (0.6%)		138 (1.5%)		
		2	9,910						
		3	9,184						
합계			4,480,064 (100.0%)	9,000 (100.0%)	9,015 (100.0%)				

**부록표 2-8**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학생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서울	430	479	396	45	195	59
경기	704	760	719	67	85	
인천	149	165	132			
강원	76	88	84	45	96	
충북	82	92	67			
충남	126	135	107			
대전	84	95	74			
경북	123	140	120	74	229	
경남	178	198	182			
부산	148	173	130			
대구	125	148	110			
울산	63	70	63	44	67	
전북	97	114	103			
전남	91	106	81			
광주	88	103	92			
제주	38	41	31			
합계	2,600	2,905	2,489	275	672	59

\* 총계: 9,000명

**부록표 2-9**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학교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서울	17.9	17.1	12.8	1.5	7.5	2.6
경기	29.3	27.1	23.2	2.2	3.3	
인천	6.2	5.9	4.3			
강원	3.2	3.1	2.7	1.5	3.7	
충북	3.4	3.3	2.2			
충남	5.3	4.8	3.5			
대전	3.5	3.4	2.4			
경북	5.1	5.0	3.9	2.5	8.8	
경남	7.4	7.1	5.9			
부산	6.2	6.2	4.2			
대구	5.2	5.3	3.5			
울산	2.6	2.5	2.0	1.5	2.6	
전북	4.0	4.1	3.3			
전남	3.8	3.8	2.6			
광주	3.7	3.7	3.0			
제주	1.6	1.5	1.0			
합계	108.3	103.8	80.3	9.2	25.8	2.6

\* 총계: 330.0개

**부록표 2-10**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크기, 학교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서울	15(5)	15(5)	12(4)	3(1)	6(2)	6(2)
경기	30(10)	27(9)	24(8)	3(1)	3(1)	
인천	6(2)	6(2)	3(1)			
강원	3(1)	3(1)	3(1)	3(1)	3(1)	
충북	3(1)	3(1)	3(1)			
충남	6(2)	3(1)	3(1)			
대전	3(1)	3(1)	3(1)			
경북	6(2)	6(2)	3(1)	3(1)	9(3)	
경남	6(2)	6(2)	6(2)			
부산	6(2)	6(2)	3(1)			
대구	6(2)	6(2)	3(1)			
울산	3(1)	3(1)	3(1)	3(1)	3(1)	
전북	3(1)	3(1)	3(1)			
전남	3(1)	3(1)	3(1)			
광주	3(1)	3(1)	3(1)			
제주	3(1)	3(1)	3(1)			
합계	105(35)	99(33)	81(27)	15(5)	24(8)	6(2)

\* ( ) 안의 수치는 학년별 학교수임. 총계: 330(110)개

**부록표 2-11**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크기, 학생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서울	360	420	372	90	156	138
경기	720	756	744	90	78	
인천	144	168	93			
강원	72	84	93	90	78	
충북	72	84	93			
충남	144	84	93			
대전	72	84	93			
경북	144	168	93	90	234	
경남	144	168	186			
부산	144	168	93			
대구	144	168	93			
울산	72	84	93	90	78	
전북	72	84	93			
전남	72	84	93			
광주	72	84	93			
제주	72	84	93			
합계	2,520	2,772	2,511	450	624	138

\* 총계: 9,015명

### 3) 표본배분

학생수에 단순비례하도록 지역구분×학교급=59개 각 층에 표본크기를 할당하면 <표 8>과 같다. 표본으로 선정된 학교에서 한 학년, 한 학급을 선정하여 조사하되 선정된 학급에 속한 학생들을 모두 조사할 것이므로, 각 층에 할당된 표본크기를 각 층의 학급당 평균 학생수로 나누면 <표 9>와 같이 조사될 학교수가 할당된다. 결론적으로 총 330개 정도의 학교가 조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각 층에 단순비례배분으로 표본을 할당할 경우 특정한 층에 너무 작은 표본크기가 배당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전라 지역의 자율고 고등학교에 44명(학년당 약 15명)의 표본이 배당되는데, 이 경우 한 학교를 방문하여 이렇게 소수의 표본만 조사한다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선정된 한 학급 전체를 조사할 계획이므로 실제로는 학년당 약 30명의 학생이 조사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표본크기가 목표한 것보다 커지게 된다. 아니면 전라 지역의 자율고에 대해서는 한 학급에서 15명만 조사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 즉, 목표보다 표본크기가 커지는 것을 허용하든가 아니면, 다른 층에서 일부 표본크기를 줄여서 변형비례배분 형태의 표본설계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변형비례배분을 수행하여도 단순비례배분에 비하여 각 층의 표본크기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 하에 학교수 및 표본크기를 결정하는 변형비례배분을 수행하도록 한다.

- 각 학년별로 지역구분×학교급=59개 각 층에 최소 한 개 이상의 학교가 할당되도록 한다.
- 각 학년별로 층별 모집단 크기에 비례하도록 학교수를 할당하되 조사될 예상 학생수가 9,000명을 넘도록 한다.

조사모집단의 전국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대략 초등학교 24명, 중학교 28명, 고등학교 일반고(유형 1) 31명, 자율고(유형 2) 30명, 특성화고(유형 3) 26명, 특수목적고(유형 4) 23명이다. 따라서 지역구분×학교급별 모집단크기에 비례하도록 표본크기를 배분하되, 위의 원칙과 상황을 고려하여 보완함으로써 각 층별 조사될 학교수를 결정하고 예상되는 조사 학생수를 계산하면 <표 10> 및 <표 11>과 같다.

#### 4) 표본추출

각 학교구분과 지역구분별로 할당된 표본학교의 추출은 <표 10>에 주어진 표본배분 결과를 이용하여 확률비례추출법으로 선정한다. 즉, 각 학년별로 지역구분×학급=59개 층 내에서 조사대상 학생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추출법으로 표본학교를 선정하되, 각 학년별 학급수가 2개 이상인 학교가 추출되도록 조정한다. 또한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20명 이상인 학교가 추출되도록 한다. 그리고 선정된 표본학교 내에서 각 학년별 1개의 표본학급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그 학급의 모든 학생들을 조사한다.

추출된 학교 층의 조사협조 거절로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동일한 층 내의 학교 리스트에서 무작위로 대체한다. 또한 사전 학교 섭외과정에서 우열반, 특수반 등 특별편성이 되어 있는 학급은 제외하며, 지역별 성별 구성비율도 고려하여 최종 조사될 학교 및 학급을 선정한다.

#### (5) 성별 사후층화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및 학급을 추출하여 조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조사 시에는 성별 비율을 맞추기가 어렵다. 즉, 성별은 매우 중요한 변수이지만 표본설계 및 표본추출 시 성별을 고려하기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성별 분포가 모집단 분포와 다르게 조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후층화 가중치를 통해 표본에서의 성별 분포의 편향을 조정하고자 한다.

### III. 가중치와 모수추정

#### 1) 가중치

본 조사의 표본추출은 일종의 층화집락추출법이라 할 수 있으며 학교구분과 지역구분을 층으로 간주할 수 있다. 각 층에서 일차추출단위인 학교는 학생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추출법으로 선정하고 추출된 표본학교에서는 학급을 랜덤하게 선정한 후에 학생을 조사하므로 추출된 표본학교에서 학생을 랜덤하게 선정하여 조사하는 이단집락추출법으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표본추출률을 아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f_{hij} = n_h \frac{B_{hi}}{\sum_{i=1}^{N_h} B_{hi}} \cdot \frac{n_{hi}}{B_{hi}} = n_h \frac{n_{hi}}{\sum_{i=1}^{N_h} B_{hi}}$$

여기에서  $N_h$ 는  $h$  층에 속한 전체 학교의 수이고,  $n_h$ 는  $h$  층의 표본 학교수이며,  $B_{hi}$ 는  $h$  층에서  $i$  번째 학교의 학생수를 나타내고,  $n_{hi}$ 는 추출된 표본학교에서 조사에 착수한 학생수를 나타낸다.

표본추출률에 대한 가중치(설계 가중치)는 추출률의 역수이므로 아래와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W_{hij} = \frac{\sum_{i=1}^{N_h} B_{hi}}{n_h n_{hi}}$$

그리고 최초 표본단위가 단위무응답인 경우 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최초 목표 표본크기( $n_{hi}$ )를 유효 표본크기( $r_{hi}$ )로 나누어 조정하였다. 즉, 기본 가중치는 설계 가중치와 무응답 조정 가중치를 곱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W_{hij}^a = \frac{\sum_{i=1}^{N_h} B_{hi}}{n_h n_{hi}} \times \frac{n_{hi}}{r_{hi}} = \frac{\sum_{i=1}^{N_h} B_{hi}}{n_h r_{hi}}$$

여기에서  $r_{hi}$ 는 추출된 표본학교에서 조사가 완료된 학생수를 나타낸다.

또한 각 세부 층의 성별( $k=1,2$ ) 모집단 크기를 반영하여 사후층화 가중치를 산출한다. 즉, 사후층화 가중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W_{h(k)j}^b = \frac{N_{h(k)}}{n_{h(k)}} \frac{1}{\sum_{l=1}^2 W_{h(k)j}^a}$$

여기에서  $N_{h(1)}$  과  $N_{h(2)}$  는 각 세부 층에 속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모집단 크기이고  $\sum W_{h(k)j}^a$  는 각 세부 층의 성별 기본 가중치의 합계이다.

최종 가중치는 기본 가중치와 사후층화 가중치를 곱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W_{h(k)ij}^f = W_{hij}^a \times W_{h(k)j}^b$$

## (2) 모수추정

### ① 용어 정의

- $Y_{hij}$  : 관측치 (각 조사항목에 대한 응답)
  - $h$  : 층의 번호 ( $h = 1, 2, \dots, H$ ). 학교구분×지역구분에 따른 번호.
  - $i$  : 각 층 내에서의 집락(학교)의 번호 ( $i = 1, 2, \dots, n_h$ ).
  - $j$  : 각 집락 내의 학생의 번호 ( $j = 1, 2, \dots, m_{hi}$ ).
  - $m_{hi}$  :  $h$  번째 층의  $i$  번째 집락으로부터 추출된 학생수.
- $w_{hij}$  : 표본 가중치
  - $h$  번째 층,  $i$  번째 집락,  $j$  번째 학생에 대한 표본 가중치
- $n = \sum_{h=1}^H \sum_{i=1}^{n_h} m_{hi}$  : 전체 표본크기.

### ② 모평균에 대한 추정

- 관찰값  $Y_{hij}$ 가 수치형(numerical) 변수인 경우, 모평균에 대한 추정치는 다음과 같이 표본 가중치를 고려한 가중평균(Ratio estimator)으로 계산됨.
- $\bar{Y} = \left( \sum_{h=1}^H \sum_{i=1}^{n_h} \sum_{j=1}^{m_{hi}} w_{hij} Y_{hij} \right) / w \dots$  : 모평균에 대한 추정치
  - $w \dots = \sum_{h=1}^H \sum_{i=1}^{n_h} \sum_{j=1}^{m_{hi}} w_{hij}$  : 표본 가중치의 합계

### ③ 모비율에 대한 추정

- 관찰값  $Y_{hij}$ 가 범주형(categorical) 변수인 경우, 각 범주  $c_k$ 에 대하여 먼저 다음과 같이 지시변수(indicator variable)를 생성함.
- $Y_{hij}^{(c_k)} = I(Y_{hij} = c_k) = \begin{cases} 1, & \text{if } Y_{hij} = c_k \\ 0, & \text{otherwise} \end{cases}$ 
  - $c_k$  :  $Y_{hij}$ 가 가질 수 있는 범주의 값 ( $k = 1, \dots, l$ )

- 이러한 지시변수  $Y_{hij}^{(c_k)}$ 로부터 모평균의 경우와 동일하게 가중평균을 계산하여 범주  $c_k$ 의 모비율에 대한 추정치를 계산함

④ 분산의 추정

- $\hat{V}(\bar{Y}) = \sum_{h=1}^H \hat{V}_h(\bar{Y})$  : 분산의 추정치
  - $N_h$  : 층  $h$ 의 총 집락의 수
  - $f_h$  :  $h$ 번째 층의 표본추출율,  $n_h/N_h$ .
  - $n_h > 1$ 일 때,

$$\hat{V}_h(\bar{Y}) = \frac{n_h(1-f_h)}{n_h-1} \sum_{i=1}^{n_h} (e_{hi\cdot} - \bar{e}_{h\cdot\cdot})^2$$

$$e_{hi\cdot} = \left( \sum_{j=1}^{m_{hi}} w_{hij} (Y_{hij} - \bar{Y}) \right) / w_{\dots}$$

$$\bar{e}_{h\cdot\cdot} = \left( \sum_{i=1}^{n_h} e_{hi\cdot} \right) / n_h$$

- $n_h = 1$ 일 때,

$$\hat{V}_h(\bar{Y}) = \begin{cases} \text{missing, if } n_{h'} = 1 \text{ for } h' = 1, 2, \dots, H \\ 0, & \text{if } n_{h'} > 0 \text{ for some } 1 \leq h' \leq H \end{cases}$$

⑤ 표준오차, 오차한계(표본오차)의 추정

- $\text{StdErr}(\bar{Y}) = \sqrt{\hat{V}(\bar{Y})}$  : 표준오차의 추정치
- $z_{\alpha/2} \times \text{StdErr}(\bar{Y})$  : 오차한계(표본오차)의 추정치,  
95% 신뢰수준의 경우( $\alpha=0.05$ )  $z_{\alpha/2}=1.96$ 임.

### 【부록 3】 2017 후기 청소년(대학생) 모집단 분석 및 표본설계

#### 1. 모집단 정의

본 조사의 대학생조사 모집단은 2017학년 1학기에 등록한 학생을 모집단으로 정의한다.

#### 2. 모집단 분석

먼저 2016년 4월 기준 17개 광역 시도별, 계열별(대계열), 학제별(대학교/전문대학) 학생 수, 및 학교 수를 <부록표 3- 1>에 정리하였다.

전체 조사 대상 학생수는 2,831,169명이며, 이중 각 학교급별 학생수는 대학교가 2,133,955명, 전문대가 697,214명이다. 이때 학교급별 학교 수는, 대학교가 총 201개교, 전문대가 138개교이다.

**부록표 3-1** 시도별, 계열별, 학교급별 학생 수 및 학교수

시도	재적 학생 수								학교급별 학생수		학교급별 학교수	
	전체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약	예체능	대학교	전문대	대학교	전문대
전체	2,831,169	276,733	755,591	133,899	786,385	302,360	246,116	330,085	2,133,955	697,214	201	138
서울	562,690	88,379	164,664	21,834	143,749	62,373	17,792	63,899	504,301	58,389	39	9
부산	258,579	27,899	72,204	9,595	78,542	24,711	18,518	27,110	205,026	53,553	13	9
대구	123,536	8,994	28,130	6,400	36,839	14,343	16,112	12,718	67,530	56,006	4	7
인천	70,023	4,353	17,131	4,765	29,377	6,699	1,996	5,702	46,615	23,408	4	3
광주	113,624	10,973	26,276	8,111	28,489	12,466	16,067	11,242	87,712	25,912	11	6
대전	147,795	14,490	37,543	5,859	42,559	17,921	15,542	13,881	118,180	29,615	11	4
울산	34,540	2,292	6,602	398	14,016	3,840	4,222	3,170	23,194	11,346	2	2
세종	24,247	2,077	7,071	255	6,340	1,502	140	6,862	19,249	4,998	1	1
경기	461,255	37,063	123,133	16,568	138,549	39,590	27,738	78,614	247,092	214,163	29	31
강원	132,608	9,862	38,510	6,420	29,461	19,259	18,163	10,933	108,199	24,409	9	9
충북	129,138	9,223	34,288	10,482	33,190	15,331	13,174	13,450	106,054	23,084	11	5
충남	202,721	20,065	57,252	9,130	51,641	19,256	17,413	27,964	176,915	25,806	15	6
전북	126,832	10,457	28,608	8,016	30,726	16,102	16,845	16,078	101,193	25,639	11	9
전남	79,167	3,916	18,364	4,979	21,381	6,948	16,199	7,380	50,569	28,598	10	9
경북	211,544	15,638	57,595	10,870	56,794	21,743	27,604	21,300	165,700	45,844	18	16
경남	122,471	8,194	28,802	8,235	40,230	15,239	15,146	6,625	88,471	34,000	11	10
제주	30,399	2,858	9,418	1,982	4,502	5,037	3,445	3,157	17,955	12,444	2	2

### 3. 표본 크기 및 표본 배분

2017년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V’의 대학생 목표 표본 크기는 조사의 비용 및 시간을 고려하여 1,000명으로 하였다. 이때 예상되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하에서 약  $\pm 3.1\%P$ 로 계산된다.

본 조사의 표본 배분은, 본 조사가 2016년에 이은 연속과제라는 점을 고려하여 조사 결과의 안정성을 위해 이전 조사 시 표본 배분과 유사하게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목표 표본수를 학교급별 학생수에 비례하여 배분할 경우, 4년제 대학생이 754명, 전문대 학생이 246명이다. 이를 기준으로 1차 추출단위인 학교를 추출하되, 학교급별 학생 수의 차이를 고려하여, 전문대는 1개 학교당 15명, 4년제 대학교는 30명을 조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이와 같이 계산할 경우, 4년제 대학은 26개교, 전문대학은 17개교를 추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총 1,035명이 조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43개 표본학교의 배분은 8개 권역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전체 17개 지역별로 배분할 경우 학교 수나 계열별 학생 수가 너무 적은 지역이 존재하며, 전체 목표 표본수가 1,000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학교 당 조사학생 수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8개 권역으로 구분하되, 이는 2016년 조사와 동일하게 서울, 경인(경기도, 인천), 충청(대전, 세종, 충북, 충남), 전라(광주, 전북, 전남), 경북(대구, 경북), 경남(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로 한다.

표본 배분은 먼저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배분은 학생 수를 기준으로 비례배분법으로 할당하고, 이후 8개 권역별로 1개교를 우선할당한 후에 학교수를 기준으로 비례배분한다.

이를 통해 배분된 전체 표본 할당 학교 수는 아래와 같다.

**부록표 3-2 권역별 학생수, 학교수와 할당 표본학교수 및 예상 표본수**

시도	학생 수			학교수		할당표본학교수			예상 표본수		
	전체	대학교	전문대	대학교	전문대	전체	대학교	전문대	전체	대학교	전문대
전체	2,831,169	2,133,955	697,214	201	138	43	26	17	1,035	780	255
서울	562,690	504,301	58,389	39	9	7	5	2	180	150	30
경인	531,278	293,707	237,571	33	34	8	4	4	180	120	60
충청	503,901	420,398	83,503	38	16	6	4	2	150	120	30
전라	319,623	239,474	80,149	32	24	5	3	2	120	90	30
경북	335,080	233,230	101,850	22	23	6	3	3	135	90	45
경남	415,590	316,691	98,899	26	21	6	4	2	150	120	30
강원	132,608	108,199	24,409	9	9	3	2	1	75	60	15
제주	30,399	17,955	12,444	2	2	2	1	1	45	30	15

<부록표 3-2>에 주어진 권역별 할당표본학교수를 학생수로 계산한 후에 권역별·계열별로 조사해야 할 표본학생수를 비례배분한다. 배분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부록표 3-3 권역별 계열별 할당된 표본학생 수**

	전체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약	예체능
전체	1,035	100	275	51	283	113	94	119
서울	180	28	53	7	46	20	6	20
경인	180	14	47	7	57	16	10	29
충청	150	14	40	8	40	15	14	19
전라	120	10	28	8	30	13	18	13
경북	135	10	34	7	38	15	17	14
경남	150	14	38	7	48	16	14	13
강원	75	6	21	4	17	11	10	6
제주	45	4	14	3	7	7	5	5

#### 4. 표본 추출

대학교의 모집단과 할당된 표본학교의 선정은 권역별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별 층에서 학생수를 기준으로 학교급과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렬한 후 확률비례추출법으로 선정한다.

## [부록 4]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설문문항-초등학생용

<b>통계법 제 33조(비밀의 보호 등)</b>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b>조사학교ID (기록하지 마세요)</b> _____
---	-----------------------------------

# 4 2017 청소년 역량 측정 조사

### 초등학생용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청소년의 인성 함양과 잠재력 개발, 디지털·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동안 우리나라 청소년의 역량과 세계 청소년의 역량을 비교분석하기 위한 **‘청소년 역량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를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2017년도**는 **4년차 연구**로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의 변화를 조사 분석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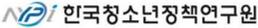
여러분께서 응답해 주신 조사내용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아동·청소년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모든 질문에는 맞고 틀린 것이 없습니다. 아울러 본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는 본 조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응답에 대한 내용은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 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7년 5월

※ 이 설문지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b>주관기관</b>  ※ 담당자: 정근영 연구위원, 성은모 연구위원, 이경상 연구위원	<b>수행기관</b>  ※ 담당자: 박종경 과장 ※ 문의전화: 080-674-1000
---	--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 동의       비동의

※ 성별을 꼭 표시한 후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 주세요.

<b>성별</b>	① 남자	② 여자
-----------	------	------

## 설문 응답 방법 안내문

- ※ 설문지에는 여러분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대로 대답해야 하는 질문도 있고, 여러분의 생각을 밝혀야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 ※ 만일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앞에 계신 면접원께 손을 들고 질문해도 좋습니다.

### 01 표시하는 방법

질문 다음에는 대개 ①에서 ④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문장을 읽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면 ①에, '별로 그렇지 않다'면 ②에, '그렇다'면 ③에, '매우 그렇다'면 ④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일의 세부사항과 최종 목표와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 02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보기와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지우개 또는 수정액 등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일의 세부사항과 최종 목표와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①	②	<del>③</del>	④

### 03 참고 사항 읽기

“※” 표시가 되어 있는 문장을 주의 깊게 읽은 후 문항에 응답해 주세요.

**2**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도 모두 ○표시를 해주십시오.  
(단,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 가족은 제외)

※ 가족구성원 중에서 결혼을 해 따로 살고 있는 가족(예 : 시집간 언니)은 제외하고, 함께 살고 있거나,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은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예) 시집가서 따로 사는 언니, 삼촌 집에서 사는 사촌형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예) (같이 살다가) 직장이 지방에 있어서 내려가 있는 큰형은 표시합니다.

① (외)할아버지                      ② (외)할머니                      ③ 아버지  
④ 어머니                                  ⑤ 형제 또는 자매                      ⑥ 친척  
⑦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⑧ 없음



**I. 생애학습**

**1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일에 대한 목표와 자세한 내용이 잘 관련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어떤 상황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모두 인정할 만한 정확한 근거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평가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어떤 주장을 판단할 때 다양한 방향(관점)에서 생각해 본다	①	②	③	④
4) 같은 물건(품질)이라면, 나는 상표(브랜드)와 상관없이 장애인들이 만든 상품을 사겠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다른 사람의 표정이나 말투만으로도 그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을 잘 알아차린다	①	②	③	④
6) 나는 보람 있다고 믿는 일을 할 때 합리적인 생각보다는 감정과 느낌에 따라 판단한다	①	②	③	④

**2 각 문항마다 본인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글의 중심내용을 찾아 글쓴이의 의도나 숨겨진 주제를 파악하며 읽는다	①	②	③	④
2) 나의 의견이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나는 다양한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글을 쓸 수 있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다양한 언어(한국어 및 외국어: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등)를 배우는 것에 흥미가 있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수학의 기본적인 개념, 원리, 법칙을 활용하여 다양한 계산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신문, 잡지, 또는 인터넷 등 우리 주위에서 흔히 관찰할 수 있는 자료를 표나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수학 공부에 대해 흥미가 있다	①	②	③	④
7) 나는 흥미와 호기심으로 자연이나 과학적 현상에 대한 관찰, 실험, 조사 등 다양한 탐구활동을 한다	①	②	③	④
8) 나는 자연현상에 대해 과학지식을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9) 나는 과학 공부에 흥미가 있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컴퓨터(스마트기기)나 인터넷상의 다양한 학습자료(인터넷 강의, 유튜브·TED 동영상, 웹문서 등)를 활용하여 학습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컴퓨터(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한글,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포토샵, 그림판 등을 이용해 문서, 그림, 동영상 등을 작성하거나 편집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컴퓨터(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SNS(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를 통해 공유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부  
록

**3**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학습할 때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변화(예, 환경의 변화, 다양한 학습자료의 변화, 교수자의 변화)를 스스로 잘 받아들인다	①	②	③	④
2) 새로 나온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더라도, 나는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무언가를 새롭게 배우거나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궁금한 것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끝낸 다음에도 왜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찾아본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어떤 일을 성공하지 못 하였을 때 왜 실패했는지 그 이유를 찾아본다	①	②	③	④

**II. 진로개발**

**4**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에게 대하여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나의 성격에서 좋은 점이 무엇인지 안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의 성공한 삶을 소개한 책을 읽어본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나의 장래희망과 관련된 직업에는 무엇이 있는지 조사해 본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해 본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자신의 직업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멋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7) 나는 현실이 어렵더라도 하고 싶은 일을 위해 도전하는 삶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8)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전공)을 갖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9) 나는 나의 할 일을 스스로 해내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5**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여가(취미)활동은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다	①	②	③	④
2) 여가(취미)활동은 내게 즐거운 경험들을 하게 해준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여가(취미)활동을 배우고 준비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싶다	①	②	③	④
4) 여가시간에 친구들과끼리 모여 여가(취미)활동을 할 때, 나는 내가 그 무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내가 특별히 여가(취미)활동시간에 즐겨 할 만한 운동이 있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친구들과끼리 여가(취미)활동으로서 스포츠 경기를 하게 되면 나는 보통 이기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7) 내가 하고 있는 여가(취미)활동은 매우 흥미롭다	①	②	③	④
8) 나는 여가(취미)활동을 통해 무엇인가 이루어졌다는 마음을 가지게 한다	①	②	③	④
9) 나는 여가(취미)활동을 하는 동안 내 생각과 행동이 일치되는 것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여가(취미)활동을 하는 동안 상당히 집중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6**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면 독특하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못 하는 것을 찾아낼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말을 쉽게 따라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내가 경험을 하지 않았더라도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계속적으로 변화하거나 새롭게 시작하는 일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6) 나는 변화가 별로 없는 환경은 지루해서 좋아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 III. 대인관계

#### 7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친한 친구에게 나의 고민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친한 친구에게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친한 친구에게 내 행동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망설임 없이 소개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관심 있는 새로운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기도 한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새로운 사람을 알아 가는 것이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7) 나는 상대방의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정확하게 알기 위해 질문을 한다	①	②	③	④
8) 나는 상대방의 몸짓이나 표정을 살피며 듣는다	①	②	③	④
9) 나는 상대방과 의견차이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다른 사람이 문제를 겪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상대방이 나의 발과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선택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 8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우리 모둠의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방법이 좋은지 기준을 정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우리 모둠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먼저 할 것을 생각하여 의사결정을 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우리 모둠의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방법이 더 좋은 지 비교해 본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여러 친구들을 모아서 모인 또는 활동을 할 때, 주로 이끌어 나간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모둠친구들의 다양한 의견을 잘 들어 의견이 충돌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6) 나는 모둠활동을 할 때, 활동을 하는 까닭을 이해하고 친구들을 이끌 수 있다	①	②	③	④
7) 나는 내가 속한 모둠 활동을 끝내는 데 필요한 단계를 생각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8) 나는 우리 모둠의 계획을 실천할 때,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밀고 나간다	①	②	③	④
9) 나는 모둠활동을 할 때 친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생각하고 진행한다	①	②	③	④

**9**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모둠활동을 할 때, 친구의 장점이나 능력을 적극적으로 알려준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모둠활동을 할 때 쓰일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모둠활동을 할 때, 친구가 여러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모둠 활동을 할 때, 나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우리 모둠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	①	②	③	④
6) 나는 모둠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거나 친구들과 내용을 나눌 수 있다	①	②	③	④
7) 나는 모둠에서 발생한 문제를 친구들과 자주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8) 나는 모둠 활동을 할 때 중요한 사항이나 문제점이 생기면 친구들과 함께 해결한다	①	②	③	④



**IV. 건강관리**

**10** 본인의 건강과 관련하여 여러분들의 태도와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식사 전, 외출 후, 화장실에 다녀온 후 비누로 손을 씻는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속옷을 1~2일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갈아입는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식사 후에는 양치질을 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건강을 위해 음식이나 운동, 생활 습관 등을 조절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규칙적으로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거나 걷는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수칙이나 규칙을 잘 지킨다	①	②	③	④
7) 나는 화재 발생 시 대처 요령에 대해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8) 나는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일이나 공부를 하는 중간 중간 적당한 휴식을 취한다	①	②	③	④

부  
록

**11 어떤 일을 할 때에 본인의 행동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목표를 세우기 위해 주변에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해야 할 일에 대한 계획을 스스로 세운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히거나 새로운 목표가 생기면 그에 따라 계획을 수정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일을 하는 중간 중간 목표에 맞게 하고 있는지 진행상황을 점검해 본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어떤 일을 마치고 난 후 내가 세운 계획에 맞게 일을 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본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어떤 일을 마치고 난 후 그 일의 결과에서 부족한 부분을 다음 할 일에 넣는다	①	②	③	④

**12 술, 담배, 금지된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사용에 있어 한 가지 이상 대해 본인의 생각이나 행동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술, 담배,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은 중독성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2) 술, 담배,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3) 술, 담배,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은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4) 술, 담배,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그만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중에도 어쩔 수 없이 계속 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5) 술, 담배,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으로 인해 내 생활(일, 공부, 수면 등)이 방해 받는 경우가 많다	①	②	③	④
6) 술, 담배,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몰래 하곤 한다	①	②	③	④

13

인터넷이나 일상생활 속에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얼마나 되는지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 힘을 자랑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괴롭힌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단지 재미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인터넷에 악플을 달거나 욕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 나는 폭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상대방에게 맞서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내가 피해를 볼까봐 친구가 다른 친구를 괴롭히는 것을 모른 척 하곤 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누군가 나(또는 다른 친구)를 괴롭힐 때 그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두려워 참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6) 나는 누군가 나를 괴롭힐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14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하면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른다	①	②	③	④
2)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하면 물건을 집어 던진다	①	②	③	④
3)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하면 지나친 표현이나 행동을 참을 수가 없다	①	②	③	④
4) 나는 갑자기 슬프거나 힘든 일을 당하면 잘 이겨내기가 힘들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작은 일에도 기분이 쉽게 변한다	①	②	③	④
6) 나는 기분에 따라 행동이 크게 변한다	①	②	③	④
7) 나는 내 기분이나 감정이 상해도 내 말이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8) 나는 내 기분이나 감정을 분명히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9) 나는 내 기분이나 감정 상태에 많은 신경을 쓴다	①	②	③	④

**V. 개인일반**

**15**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친구들과 사이에서 혼자 남겨진 기분이 든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부모님, 형제/자매들과 함께 있으면 즐겁다	①	②	③	④
3) 어떤 일을 할 때 내 생각대로 일하기보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을 따를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5) 나의 친구들이 나보다 모든 일에서 뛰어난 것 같고, 나는 친구들 보다 모든 면에서 못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어려운 일이 생겨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16** 본인이 미래에 대한 자신을 생각하였을 때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미래에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것 같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미래 생활이 우울 할 것 같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미래에 사랑받으며 생활 할 것 같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미래의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 같다	①	②	③	④

**17**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부모님은 내 성적을 다른 아이들과 비교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시험지만 받으면 떨어져 알았던 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 체 공부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내 학교 성적이 참피하다	①	②	③	④

부  
록





## 【부록 5】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설문문항-중·고등학생용

**통계법 제 33조(비밀의 보호 등)**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조사학교ID(기록하지 마세요)**

--	--	--	--	--	--	--	--	--	--

### 4

## 2017 청소년 역량 측정 조사

### 중·고등학생용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청소년의 인생 함양과 잠재력 개발, 디지털·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동안 우리나라 청소년의 역량과 세계 청소년의 역량을 비교분석하기 위한 '청소년 역량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를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2017년도**는 **4년차 연구**로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의 변화를 조사 분석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해 주신 조사내용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아동·청소년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모든 질문에는 맞고 틀린 것이 없습니다. 아울러 본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는 본 조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응답에 대한 내용은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 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7년 5월

※ 이 설문지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담당자 : 정근영 연구위원, 성은모 연구위원, 이경삼 연구위원

수행기관

Hankook Research

※ 담당자 : 박종경 과장  
※ 문의전화 : 080-674-1000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동의

비동의

※ 성별을 꼭 표시한 후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 주세요.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 설문 응답방법 안내문

- ※ 설문지에는 여러분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대로 대답해야 하는 질문도 있고, 여러분의 생각을 밝혀야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 ※ 만일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앞에 계신 면접원께 손을 들고 질문해도 좋습니다.

### 01 표시하는 방법

질문 다음에는 대개 ①에서 ④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문장을 읽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면 ①에, '별로 그렇지 않다'면 ②에, '그렇다'면 ③에, '매우 그렇다'면 ④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일의 세부사항과 최종 목표와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 02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보기와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지우개 또는 수정액 등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일의 세부사항과 최종 목표와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①	②	<del>③</del>	④

### 03 참고 사항 읽기

“※” 표시가 되어 있는 문장을 주의 깊게 읽은 후 문항에 응답해 주세요.

2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도 모두 ○표시를 해주십시오.  
(단,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 가족은 제외)

※ 가족구성원 중에서 결혼을 해 따로 살고 있는 가족(예 : 시집간 언니)은 제외하고, 함께 살고 있거나,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은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예) 시집가서 따로 사는 언니, 삼촌 집에서 사는 사촌형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예) (같이 살다가) 직장이 지방에 있어서 내려가 있는 큰형은 표시합니다.

① (외)할아버지                      ② (외)할머니                      ③ 아버지  
④ 어머니                                  ⑤ 형제 또는 자매                      ⑥ 친척  
⑦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⑧ 없음



I. 생애학습

**1**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일의 세부사항과 최종목표와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어떤 상황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평가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어떤 주장을 판단할 때 다양한 방향(관점)에서 생각해 본다	①	②	③	④
4) 같은 물건(품질)이라면, 나는 브랜드와 상관없이 장애인인 만든 상품을 사겠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다른 사람의 표정이나 말투만으로도 그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을 잘 알아차린다	①	②	③	④
6) 나는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논리적 판단보다는 감정과 느낌에 따라 판단한다	①	②	③	④

**2** 각 문항마다 본인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글의 중심내용을 찾아 글쓴이의 의도나 숨겨진 주제를 파악하며 읽는다	①	②	③	④
2) 나의 의견이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나는 다양한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글을 쓸 수 있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다양한 언어(한국어 및 외국어: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등)를 배우는 것에 흥미가 있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수학의 기본적인 개념, 원리, 법칙을 활용하여 다양한 계산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신문, 잡지, 또는 인터넷 등 우리 주위에서 흔히 관찰할 수 있는 자료를 표나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수학 공부에 대해 흥미가 있다	①	②	③	④
7) 나는 흥미와 호기심으로 자연이나 과학적 현상에 대한 관찰, 실험, 조사 등 다양한 탐구활동을 한다	①	②	③	④
8) 나는 자연현상에 대해 과학지식을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9) 나는 과학 공부에 흥미가 있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컴퓨터(스마트기기)나 인터넷상의 다양한 학습자료(인터넷 강의, 유튜브·TED 동영상, 앱(app), 웹문서, 등)를 활용하여 학습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컴퓨터(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한글,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포토샵, 그림판 등을 이용해 문서, 그림, 동영상 등을 작성하거나 편집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컴퓨터(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SNS(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를 통해 공유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부  
록

**3**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학습할 때 내 주변에서 발생하는 변화(예, 환경의 변화, 다양한 학습자료의 변화, 교수자의 변화 등)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	①	②	③	④
2) 새로 출시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더라도, 나는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무언가를 새롭게 배우거나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궁금한 것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도 그 성공의 원인을 찾아낸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 실패했다면, 그 실패 원인을 분석한다	①	②	③	④

**II. 진로개발**

**4**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에 대하여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2) 나의 성격에서 좋은 점이 무엇인지 안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의 성공한 삶을 소개한 책을 읽어본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나의 장래희망과 관련된 직업에는 무엇이 있는지 조사해 본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해 본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자신의 직업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멋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7) 나는 현실이 어렵더라도 하고 싶은 일을 위해 도전하는 삶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8)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천공)을 갖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9) 나는 나의 할 일을 스스로 해내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5**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여가(취미)활동은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다	①	②	③	④
2) 여가(취미)활동은 내게 즐거운 경험들을 제공해준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여가(취미)활동을 배우고 준비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싶다	①	②	③	④
4) 여가시간에 친구들과끼리 모여 여가(취미)활동을 할 때, 나는 내가 그 무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내가 특별히 여가(취미)시간에 즐겨 할 만한 운동이 있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친구들과끼리 여가(취미)활동으로써 스포츠경기를 하게 되면 나는 보통 이기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7) 내가 하고 있는 여가(취미)활동은 매우 흥미롭다	①	②	③	④
8) 나는 여가(취미)활동을 통해 무엇인가 이루어냈다는 마음을 가지게 한다	①	②	③	④
9) 나는 여가(취미)활동을 하는 동안 내 생각과 행동이 일치되는 것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여가(취미)활동을 하는 동안 상당히 집중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6**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면 독특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쉽게 따라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4) 나는 경험이 없는 새로운 과제나 일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계속해서 변화하거나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일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6) 나는 변화가 별로 없는 안정적인 환경은 지루해서 좋아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 III. 대인관계

#### 7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친한 친구에게 나의 고민에 대해 의논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친한 친구에게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친한 친구에게 내 행동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망설임 없이 소개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관심 있는 새로운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기도 한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새로운 사람을 알아 가는 것이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7) 나는 상대방의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정확하게 알기 위해 질문을 한다	①	②	③	④
8) 나는 상대방의 몸짓이나 표정을 살피며 듣는다	①	②	③	④
9) 나는 상대방과 의견차이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다른 사람이 문제를 겪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상대방이 나의 발과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선택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 8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속한 집단의 의사결정을 위한 여러 방법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 기준을 정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내가 속한 그룹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우선순위를 생각하여 의사결정을 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내가 속한 집단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방법이 더 좋은지 비교해본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모인 또는 활동을 할 때, 주로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효과적으로 조화롭게 조정한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집단활동을 할 때, 활동목표를 제시하고 친구들을 이끌 수 있다	①	②	③	④
7) 나는 내가 속한 집단의 목표를 완수하는 데 필요한 단계를 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8) 나는 내가 속한 집단의 계획을 실행할 때,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밀고 나간다	①	②	③	④
9) 나는 집단활동을 할 때, 친구들의 능력과 의지를 생각하며 일을 추진한다	①	②	③	④

**9**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집단활동을 할 때, 친구의 장점이나 능력을 적극적으로 알려 준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집단활동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집단활동을 할 때, 친구가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집단활동을 할 때, 나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내가 속한 집단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집단의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내용을 친구들과 공유한다	①	②	③	④
7) 나는 집단에서 발생한 문제를 친구들과 자주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8) 나는 집단활동을 할 때 중요한 사항이나 문제점이 생기면 친구들과 함께 해결한다	①	②	③	④

**IV. 건강관리**

**10** 본인의 건강과 관련하여 여러분들의 태도와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식사 전, 외출 후, 화장실에 다녀온 후 비누로 손을 씻는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속옷을 1~2일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갈아입는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식사 후에는 양치질을 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건강을 위해 음식이나 운동, 생활 습관 등을 조절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규칙적으로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거나 걷는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수칙이나 규칙을 잘 지킨다	①	②	③	④
7) 나는 화재 발생 시 대처 요령에 대해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8) 나는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일이나 공부를 하는 중간중간 적당한 휴식을 취한다	①	②	③	④

부  
록



### III. 대인관계

#### 7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친한 친구에게 나의 고민에 대해 의논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친한 친구에게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친한 친구에게 내 행동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망설임 없이 소개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관심 있는 새로운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기도 한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새로운 사람을 알아 가는 것이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7) 나는 상대방의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정확하게 알기 위해 질문을 한다	①	②	③	④
8) 나는 상대방의 몸짓이나 표정을 살피며 듣는다	①	②	③	④
9) 나는 상대방과 의견차이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다른 사람이 문제를 겪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상대방이 나의 발과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선택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 8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속한 집단의 의사결정을 위한 여러 방법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 기준을 정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내가 속한 그룹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우선순위를 생각하여 의사결정을 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내가 속한 집단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방법이 더 좋은지 비교해본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모인 또는 활동을 할 때, 주로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효과적으로 조화롭게 조정한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집단활동을 할 때, 활동목표를 제시하고 친구들을 이끌 수 있다	①	②	③	④
7) 나는 내가 속한 집단의 목표를 완수하는 데 필요한 단계를 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8) 나는 내가 속한 집단의 계획을 실행할 때,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밀고 나간다	①	②	③	④
9) 나는 집단활동을 할 때, 친구들의 능력과 의지를 생각하며 일을 추진한다	①	②	③	④

**5**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여가(취미)활동은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다	①	②	③	④
2) 여가(취미)활동은 내게 즐거운 경험들을 제공해준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여가(취미)활동을 배우고 준비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싶다	①	②	③	④
4) 여가시간에 친구들과끼리 모여 여가(취미)활동을 할 때, 나는 내가 그 무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내가 특별히 여가(취미)시간에 즐겨 할 만한 운동이 있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친구들과끼리 여가(취미)활동으로써 스포츠경기를 하게 되면 나는 보통 이기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7) 내가 하고 있는 여가(취미)활동은 매우 흥미롭다	①	②	③	④
8) 나는 여가(취미)활동을 통해 무엇인가 이루어냈다는 마음을 가지게 한다	①	②	③	④
9) 나는 여가(취미)활동을 하는 동안 내 생각과 행동이 일치되는 것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여가(취미)활동을 하는 동안 상당히 집중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6**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면 독특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쉽게 따라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4) 나는 경험이 없는 새로운 과제나 일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계속해서 변하거나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일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6) 나는 변화가 별로 없는 안정적인 환경은 지루해서 좋아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1 어떤 일을 할 때에 본인의 행동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목표를 세우기 위해 주변의 다양한 정보를 참고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해야 할 일에 대한 계획을 스스로 세운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목표를 위해 할 일을 하다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히거나 새로운 목표가 생기면 그에 따라 계획을 수정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일을 하는 중간 중간 목표에 맞게 하고 있는지 진행상황을 점검해 본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어떤 일을 마치고 난 후 내가 세운 계획에 맞게 일을 했는지 스스로 평가해 본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어떤 일을 마치고 난 후 그 일의 결과에서 부족한 부분을 다음 할 일에 반영한다	①	②	③	④

**12 술, 담배, 금지된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사용에 있어 한 가지 이상 대해 본인의 생각이나 행동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술, 담배,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은 중독성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2) 술, 담배,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3) 술, 담배,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은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4) 술, 담배,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그만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중에도 아쩔 수 없이 계속 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5) 술, 담배,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으로 인해 내 생활(일, 공부, 수면 등)이 방해 받는 경우가 많다	①	②	③	④
6) 술, 담배,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몰래 하곤 한다	①	②	③	④

13

인터넷이나 일상생활 속에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얼마나 되는지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 힘을 자랑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괴롭힌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단지 재미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인터넷에 악플을 달고 욕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 나는 폭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상대방에게 똑같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내가 피해를 볼까봐 친구가 다른 친구를 괴롭히는 것을 모른 척 하곤 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누군가 나(또는 다른 친구)를 괴롭힐 때 그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두려워 참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6) 나는 누군가 나를 괴롭힐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14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하면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른다	①	②	③	④
2)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하면 물건을 집어 던진다	①	②	③	④
3)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하면 지나친 표현이나 행동을 자제할 수가 없다	①	②	③	④
4) 나는 갑자기 슬프거나 힘든 일을 당하면 잘 이겨내기가 힘들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작은 일에도 기분이 쉽게 변한다	①	②	③	④
6) 나는 기분에 따라 행동이 크게 변한다	①	②	③	④
7) 나는 내 기분이나 감정이 상해도 내 말이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8) 나는 내 기분이나 감정을 분명히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9) 나는 내 기분이나 감정 상태에 주의를 기울인다	①	②	③	④



V. 개인일반

15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친구들과 사이에서 혼자 남겨진 기분이 든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부모님, 형제/자매들과 함께 있으면 즐겁다	①	②	③	④
3) 어떤 일을 할 때 내 생각대로 일하기보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을 따를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5) 나의 친구들이 나보다 모든 일에서 뛰어난 것 같고, 나는 친구들 보다 모든 면에서 못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어려운 일이 생겨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16 본인이 미래에 대한 자신을 생각하였을 때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미래에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것 같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미래 생활이 우울 할 것 같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미래에 사랑받으며 생활 할 것 같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미래의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 같다	①	②	③	④

17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부모님은 내 성적을 다른 아이들과 비교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시험지만 받으면 떨어져 알았던 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 채 공부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내 학교 성적이 참피하다	①	②	③	④





## [부록 6] 2017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설문문항-대학생용

**통계법 제 33조(비밀의 보호 등)**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사학교ID (기록하지 마세요)**

--	--	--	--	--	--	--	--

# 4 2017 청소년 역량 측정 조사

대학생용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청소년의 인성 함양과 잠재력 개발, 디지털·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동안 우리나라 청소년의 역량과 세계 청소년의 역량을 비교분석하기 위한 **'청소년 역량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를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2017년도는 4년차 연구**로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의 변화를 조사 분석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해 주신 조사내용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아동·청소년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모든 질문에는 맞고 틀린 것이 없습니다. 아울러 본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는 본 조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응답에 대한 내용은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 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7년 5월

※ 이 설문지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p><b>주관기관</b></p>  <p>※ 담당자 : 장근영 연구위원, 성은모 연구위원, 이경상 연구위원</p>	<p><b>수행기관</b></p>  <p>※ 담당자 : 박종경 과장              ※ 문의전화 : 080-674-1000</p>
--	--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동의       비동의

※ 성별을 꼭 표시한 후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 주세요.

<b>성별</b>	① 남자	② 여자
-----------	------	------

## 설문 응답방법 안내문

※ 설문지에는 여러분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대로 대답해야 하는 질문도 있고, 여러분의 생각을 밝혀야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 01 표시하는 방법

질문 다음에는 대개 ①에서 ④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문장을 읽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면 ①에, '별로 그렇지 않다'면 ②에, '그렇다'면 ③에, '매우 그렇다'면 ④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일의 세부사항과 최종 목표와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 02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보기와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지우개 또는 수정액 등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일의 세부사항과 최종 목표와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①	②	<del>③</del>	④

### 03 참고 사항 읽기

“※” 표시가 되어 있는 문장을 주의 깊게 읽은 후 문항에 응답해 주세요.

**2**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도 모두 ○표시를 해주십시오.  
(단,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 가족은 제외)

※ 가족구성원 중에서 결혼을 해 따로 살고 있는 가족(예 : 시집간 언니)은 제외하고, 함께 살고 있거나,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은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예) 시집가서 따로 사는 언니, 삼촌 집에서 사는 사촌형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예) (같이 살다가) 직장이 지방에 있어서 내려가 있는 큰형은 표시합니다.

① (외)할아버지                      ② (외)할머니                      ③ 아버지  
④ 어머니                              ⑤ 형제 또는 자매                      ⑥ 친척  
⑦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⑧ 없음



I. 생애학습

1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일의 세부사항과 최종 목표와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어떤 상황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평가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어떤 주장을 판단할 때 다양한 방향(관점)에서 생각해 본다	①	②	③	④
4) 같은 물건(품질)이라면, 나는 브랜드와 상관없이 장애인이나 만든 상품을 사겠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다른 사람의 표정이나 말투만으로도 그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을 잘 알아차린다	①	②	③	④
6) 나는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논리적 판단보다는 감정과 느낌에 따라 판단한다	①	②	③	④

2 각 문항마다 본인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글의 중심내용을 찾아 글쓴이의 의도나 숨겨진 주제를 파악하며 읽는다	①	②	③	④
2) 나의 의견이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나는 다양한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글을 쓸 수 있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다양한 언어(한국어 및 외국어: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등)를 배우는 것에 흥미가 있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수학의 기본적인 개념, 원리, 법칙을 활용하여 다양한 계산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신문, 잡지, 또는 인터넷 등 우리 주위에서 흔히 관찰할 수 있는 자료를 표나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수학 공부에 대해 흥미가 있다	①	②	③	④
7) 나는 흥미와 호기심으로 자연이나 과학적 현상에 대한 관찰, 실험, 조사 등 다양한 탐구활동을 한다	①	②	③	④
8) 나는 자연현상에 대해 과학지식을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9) 나는 과학 공부에 흥미가 있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컴퓨터(스마트기기)나 인터넷상의 다양한 학습자료(인터넷 강의, 유튜브·TED 동영상, 앱(app), 웹문서, 등)를 활용하여 학습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컴퓨터(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한글,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포토샵, 그림판 등을 이용해 문서, 그림, 동영상 등을 작성하거나 편집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컴퓨터(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SNS(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를 통해 공유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부  
록

**3**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학습할 때 내 주변에서 발생하는 변화(예, 환경의 변화, 다양한 학습자료의 변화, 교수자의 변화 등)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	①	②	③	④
2) 새로 출시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더라도, 나는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무언가를 새롭게 배우거나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궁금한 것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도 그 성공의 원인을 찾아낸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 실패했다면, 그 실패 원인을 분석한다	①	②	③	④

**II. 진로개발**

**4**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에 대하여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2) 나의 성격에서 좋은 점이 무엇인지 안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의 성공한 삶을 소개한 책을 읽어본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나의 장래희망과 관련된 직업에는 무엇이 있는지 조사해 본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해 본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자신의 직업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멋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7) 나는 현실이 어렵더라도 하고 싶은 일을 위해 도전하는 삶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8)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전공)을 갖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9) 나는 나의 할 일을 스스로 해내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5**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여가(취미)활동은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다	①	②	③	④
2) 여가(취미)활동은 내게 즐거운 경험들을 제공해준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여가(취미)활동을 배우고 준비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싶다	①	②	③	④
4) 여가시간에 친구들과끼리 모여 여가(취미)활동을 할 때, 나는 내가 그 무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내가 특별히 여가(취미)시간에 즐겨 할 만한 운동이 있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친구들과끼리 여가(취미)활동으로써 스포츠경기를 하게 되면 나는 보통 이기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7) 내가 하고 있는 여가(취미)활동은 매우 흥미롭다	①	②	③	④
8) 나는 여가(취미)활동을 통해 무엇인가 이루어졌다는 마음을 가지게 한다	①	②	③	④
9) 나는 여가(취미)활동을 하는 동안 내 생각과 행동이 일치되는 것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여가(취미)활동을 하는 동안 상당히 집중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6**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면 독특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쉽게 따라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4) 나는 경험이 없는 새로운 과제나 일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계속적으로 변화거나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일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6) 나는 변화가 별로 없는 안정적인 환경은 지루해서 좋아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 III. 대인관계

#### 7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친한 친구에게 나의 고민에 대해 의논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친한 친구에게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친한 친구에게 내 행동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망설임 없이 소개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관심 있는 새로운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기도 한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새로운 사람을 알아 가는 것이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7) 나는 상대방의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정확하게 알기 위해 질문을 한다	①	②	③	④
8) 나는 상대방의 몸짓이나 표정을 살피며 듣는다	①	②	③	④
9) 나는 상대방과 의견차이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다른 사람이 문제를 겪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상대방이 나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선택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 8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속한 집단의 의사결정을 위한 여러 방법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 기준을 정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내가 속한 그룹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우선순위를 생각하여 의사결정을 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내가 속한 집단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방법이 더 좋은 지 비교해 본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모임 또는 활동을 할 때, 주로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효과적으로 조화롭게 조정한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집단활동을 할 때, 활동목표를 제시하고 친구들을 이끌 수 있다	①	②	③	④
7) 나는 내가 속한 집단의 목표를 완수하는 데 필요한 단계를 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8) 나는 내가 속한 집단의 계획을 실행할 때,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밀고 나간다	①	②	③	④
9) 나는 집단활동을 할 때, 친구들의 능력과 의지를 생각하며 일을 추진한다	①	②	③	④

**9**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집단활동을 할 때, 친구의 장점이나 능력을 적극적으로 알려 준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집단활동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집단활동을 할 때, 친구가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집단활동을 할 때, 나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내가 속한 집단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집단의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내용을 친구들과 공유한다	①	②	③	④
7) 나는 집단에서 발생한 문제를 친구들과 자주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8) 나는 집단활동을 할 때 중요한 사항이나 문제점이 생기면 친구들과 함께 해결한다	①	②	③	④

**IV. 건강관리**

**10** 본인의 건강과 관련하여 여러분들의 태도와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식사 전, 외출 후, 화장실에 다녀온 후 비누로 손을 씻는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속옷을 1~2일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갈아입는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식사 후에는 양치질을 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건강을 위해 음식이나 운동, 생활 습관 등을 조절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규칙적으로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거나 걷는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수칙이나 규칙을 잘 지킨다	①	②	③	④
7) 나는 화재 발생 시 대처 요령에 대해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8) 나는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일이나 공부를 하는 중간 중간 적당한 휴식을 취한다	①	②	③	④

부  
록

**11 어떤 일을 할 때에 본인의 행동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목표를 세우기 위해 주변의 다양한 정보를 참고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해야 할 일에 대한 계획을 스스로 세운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목표를 위해 할 일을 하다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히거나 새로운 목표가 생기면 그에 따라 계획을 수정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일을 하는 중간 중간 목표에 맞게 하고 있는지 진행상황을 점검해 본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어떤 일을 마치고 난 후 내가 세운 계획에 맞게 일을 했는지 스스로 평가해 본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어떤 일을 마치고 난 후 그 일의 결과에서 부족한 부분을 다음 할 일에 반영한다	①	②	③	④

**12 술, 담배, 금지된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사용에 있어 한 가지 이상 대해 본인의 생각이나 행동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술, 담배,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은 중독성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2) 술, 담배,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3) 술, 담배,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은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4) 술, 담배,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그만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중에도 어쩔 수 없이 계속 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5) 술, 담배,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으로 인해 내 생활(일, 공부, 수면 등)이 방해를 받는 경우가 많다	①	②	③	④
6) 술, 담배,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몰래하곤 한다	①	②	③	④

13

인터넷이나 일상생활 속에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얼마나 되는지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 힘을 자랑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괴롭힌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단지 재미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인터넷에 악플을 달고 욕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 나는 폭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상대방에게 똑같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내가 피해를 볼까봐 친구가 다른 친구를 괴롭히는 것을 모른 척 하곤 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누군가 나(또는 다른 친구)를 괴롭힐 때 그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두려워 참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6) 나는 누군가 나를 괴롭힐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14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하면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른다	①	②	③	④
2)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하면 물건을 집어 던진다	①	②	③	④
3)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하면 지나친 표현이나 행동을 자제할 수가 없다	①	②	③	④
4) 나는 갑자기 슬프거나 힘든 일을 당하면 잘 이겨내기가 힘들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작은 일에도 기분이 쉽게 변한다	①	②	③	④
6) 나는 기분에 따라 행동이 크게 변한다	①	②	③	④
7) 나는 내 기분이나 감정이 상해도 내 말이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8) 나는 내 기분이나 감정을 분명히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9) 나는 내 기분이나 감정 상태에 주의를 기울인다	①	②	③	④



V.개인일반

15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친구들 사이에서 혼자 남겨진 기분이 든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부모님, 형제/자매들과 함께 있으면 즐겁다	①	②	③	④
3) 어떤 일을 할 때 내 생각대로 일하기보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을 따를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5) 나의 친구들이 나보다 모든 일에서 뛰어난 것 같고, 나는 친구들 보다 모든 면에서 못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어려운 일이 생겨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16 본인이 미래에 대한 자신을 생각하였을 때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미래에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것 같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미래 생활이 우울 할 것 같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미래에 사랑받으며 생활 할 것 같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미래의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 같다	①	②	③	④

17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부모님은 내 성적을 다른 아이들과 비교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시험지만 받으면 떨어져 알았던 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 체 공부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내 학교 성적이 참피하다	①	②	③	④



**배문3** 1학년에서부터 현재까지 본인의 취득 평균학점은 어느 정도에 해당합니까?

- ① 3.0 미만
- ② 3.0 이상~3.5미만
- ③ 3.5이상~4.0미만
- ④ 4.0 이상

**배문4** 본인 가정의 형편(경제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배문5** 부모님(보호자)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부모님(보호자)께서 학교를 완전히 마치신(졸업하신) 학교를 표시해 주십시오.

※ 보호자는 부모님 이외 현재 여러분을 보살펴 주시는 분을 말합니다.  
 중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둔 경우 초등학교 졸업(②)에 표시합니다.

	부모님 (보호자) 안 계심	학교 안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석사·박사)	잘 모르겠음
1)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3) 보호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설문에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Abstract

### A Study on Measurement of Korean Youth Competency and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IV: ICCS 2016

The conversion from 'knowledge and skill'-centered to 'competencies'-centered education system is one of the core keywords of policy for future generation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OECD and UNESCO. This trend is reflected in the development and promotion of this research.

This is the fourth year of "A Study on Measurement of Korean Youth Competency and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 IEA ICCS 2016". This year's research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Korean youth competencies measured through past research and explained the outline of IEA ICCS 2016 findings for international comparison of democratic competencies.

2016 Survey on youth competencies index consists of 2836 elementary school students, 2,710 junior high school students, 2,510 high school students (total 9,046 people) and 1,041 college students, from the students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and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as a population. For a total of 10,087 specimens. The summary of the survey results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 all, we reconfirmed the consistency of youth competencies abbreviations for compressed measurement tool, along with the normality and reliability of the questions of measurement results of life-long learning competencies, life management competencies, career development competencies,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mpetencies.

As a result of comparative analysis by year for the youth's competencies index measurements from 2015 to 2017, the same pattern was confirmed overall. However, in the competencies of adolescents in 2017, the overall average score rose slightly compared

to 2015 and 2016, whereas the youth's lifelong learning competencies decreased.

We also confirmed differences in youth's competencies index measurement results by gender. Especially, gender difference was significant among the competency groups. Life-long learning competencies and career development competencies were higher in males and life - management competencie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competencies were higher in females.

We confirmed the decline of competencies scores again according to the time of youth's growth and development, but it turned out that the disparity by age decreased compared with the previous year. Especially the score of lifelong learning competencies, living management competencies, and career development competencies tended to be low, but it was confirmed that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mpetencies tended to be high. Regional differences in youth capacities have also been discovered, but the causes can be diversified, so for this, a more careful interpretation is neede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trends by year for the Youth Competencies Index, the lifelong learning competencies scores are gradually increased from 2014 to 2016, but it decreased in the 2017. As a result of item response theory (IRT) analysis of youth competencies scale, we confirmed that the responses to items of youth competencies measurement by age were different. Since the youth competencies index was measured reflecting the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by the growth period of the youth, it seems that the response to the question of the youth competencies measurement by the time of adolescence development differs. Therefore, rather than merely comparing the average score by school class, it was confirmed the necessity of prioritizing the work to ensure factor identity of the youth's competencies index measurement question by school grade. Especially the items confirmed that the response by school class is different.

As a result of Differential Item Functioning(DIF) analysis by gender of youth competencies index, we confirmed gender discrimination question at youth lifelong learning competencies items. An advantageous question was found for each gender area for elementary school, junior high school, high school time sexes and young people

respectively. It seems that it will be necessary to review in consideration of the content validity. Both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and college student groups were commonly confirmed by the discrimination function question.

The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study in 2016 (ICCS 2016) participating in 25 countries worldwide In Korea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the second graders 3,004 students and 1,368 teachers, 106 principals 106 junior high schools. In this research, outlining the main contents of the primary analysis result report within the range permitted to publish the result based on the regulation of the IEA. In particular the 2016 ICCS provided a little more suggestion that it included a time series comparison with the same survey conducted in 2009. As a result of the 2016 survey, the "citizen's knowledge score" corresponding to the cognitive domain of Korean youth (junior high school second grader) competence of democratic citizens improved slightly as compared with 2009, but the figure improved more It was less than the recorded countries such as Sweden, Hong Kong and Taiwan. In particular, Taiwan is judged to need Taiwan case analysis in the future as an exceptional case showing the achievement of the knowledge score of a very high level of citizens although HDI is low as Taiwan as a country in Asia. In addition, Belgium has a high knowledge score of citizens, and the sex difference between males and females is extremely small in one point and outside, and it will be noticed as a case of achieving the training equality of citizen education in future research.

As a result of the attitude- behavioral domain analysis of youth democratic citizen competencies, political participation phenomena through young people 's SNS have been discovered in common by the participating countries, and they are intention to become candidates for election and become aggressive as adults The intention of political participation was more pronounced from boys. The level of citizen participation among young people has improved significantly compared to 2009, whereas the experience of citizen participation outside the school was found to be more improved. Overall, as the level of citizen 's knowledge level was lower, the tendency to actively participate

in political participation was discovered, but suggested the results and suggested the necessity of policy response.

Results of analysis of youth policy and activity program situation. In the case of lifelong learning competencies, many policies were biased towards "ability to utilize intellectual tools", and in the case of life management competencies, we found that biased toward the field of "health care" and "ability to deal with situations" . In the case of career development capability, policies in the pioneering spirit area were sought, biased towards the "course design" and "leisure utilization" areas. In the case of interpersonal skills abilities, policies on the competencies of 'leadership' and 'collaboration' that are the most deficient are urgent, while policies are biased in the 'formation of relations' area . In the case of social participation abilities, while policies were biased towards "personal citizenship" and "global citizenship", we also demanded policy attention on "community citizenship" which is the shortage of current young people It was done.

As a result of the current situation analysis of the activity program by the competencies area of the youth facility, in the case of lifelong learning competencies, a program of part utilizing thinking power and intellectual tool is needed, and in case of life management competencies, coping with the situation Programs related to emotion regulation commonly lacked. In the case of career development abilities, pioneering spirit-related programs are the shortest. In the case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mpetencies category, it was estimated that development of activity program of leadership area, in particular, can make the greatest effect in youth competencies development. In the case of social participation competencies, it was appreciated that development of community citizenship-related activity program is urgent. After discussion of the survey results, policy suggestions on this were presented.

## 2017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 17-R01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모형개발 연구 / 황여정
- 17-R02 청소년보호정책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김지연·정소연
- 17-R02-1 청소년보호정책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기초분석보고서 / 김지연·정소연
- 17-R03 아동·청소년을 위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기업-아동·청소년 NPO-정부의 파트너십 구축 / 임지연·김한별
- 17-R04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김정숙·강영배
- 17-R05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 황세영·최정원
- 17-R06 청소년 사이버일탈 유형별 대책 연구 / 배상률·박남수·백강희
- 17-R07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제고를 통한 운영 활성화 지원방안 연구 / 김형주·김정주·김혁진
- 17-R08 아동·청소년·가족 보호 통합게이트웨이 구축·운영 모형 개발 연구 / 서정아
- 17-R09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 김기현·이윤주·유설희
- 17-R09-1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 기초분석 보고서 - / 김기현·이윤주·유설희
- 17-R10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Ⅳ / 임희진·문호영·조남억
- 17-R10-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Ⅳ - 기초분석 보고서 / 임희진·문호영
- 17-R1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Ⅴ / 오해섭·최인재·염유식·김세광
- 17-R12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Ⅴ - 총괄보고서 - / 양계민·강경균
- 17-R12-1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Ⅴ -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추이 분석 - / 연보라
- 17-R12-2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Ⅴ - 정책제언 - / 양계민
- 17-R13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Ⅲ / 김경준·정은주
- 17-R14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Ⅱ / 윤철경·성운숙·최홍일·유성렬·김강호
- 17-R15 아동·청소년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 2017 : 총괄보고서 / 김영지·김희진·이민희·김진호
- 17-R15-1 아동·청소년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 2017 : 심화분석보고서 -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관련 정보접근성과 인권의식 / 김진석
- 17-R15-2 아동·청소년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 2017 통계 / 김영지·김희진
- 17-R16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Ⅷ : 사업보고서 / 하형석·최용환·정은진·정유미·한지형
- 17-R16-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Ⅷ : 연구성과분석보고서 / 최용환·박상현·한지형
- 17-R16-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Ⅷ : 데이터분석보고서 - 청소년 수면시간의 긍정적 효과 - / 정은진·하형석·고강혁·정유미
- 17-R16-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Ⅷ : 한국청소년패널조사 2018 기초연구 / 하형석·정은진·최승주

##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39-0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Ⅳ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7-R17)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39-0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Ⅳ : IEA ICCS 2016 - 초·중·고등학생용 기초통계보고서 -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7-R17-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39-0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Ⅳ : IEA ICCS 2016 - 대학생용 기초통계보고서 -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7-R17-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39-0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Ⅳ : IEA ICCS 2016 - 사회참여역량 분석 - / 김태준·홍영란·김홍민 (자체번호 17-R17-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39-05 IEA ICCS 2016 조사틀(Assessment framework) / Schulz, W·Airley, J·Losito, B·Agrustii, G (자체번호 17-R17-4)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40-01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 연구Ⅱ / 김현철·백혜정·이지연 (자체번호 17-R18)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40-01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 연구Ⅱ -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운영사례집 / 김현철·백혜정 (자체번호 17-R18-1)

## 연구개발적립금

- 17-R19 청소년의 노동기본권 보장방안연구(2018년 4월 발간) / 황진구·유민상
- 17-R20 인구절벽 현상과 청소년정책의 과제(2018년 4월 발간) / 이유진·김영한·윤옥경

## 수시과제

- 17-R21 고등학생들의 정치참여욕구 및 실태 연구 / 이창호
- 17-R22 지방자치단체 청년참여기구 실태 및 체계 연구 / 조진우·이윤주
- 17-R23 인터넷사회의 부모와 자녀관계에 관한 한·중·일 비교 : 한국사례분석 / 이창호·김기현
- 17-R24 현장적용 제고를 위한 자유학기제 학교-청소년시설의 협업지침 분석 / 임지연
- 17-R25 지역별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특성 연구 / 이윤주
- 17-R26 청소년 분야 SDGs 이행을 위한 국내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방안 연구 / 황세영·김기현
- 17-R27 청소년동반자 활성화 방안 연구 / 장근영·진은설
- 17-R28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사업 실태조사 연구 / 황진구

## 수탁과제

- 17-R29 2017년 4개국(한일중미) 청소년 의식조사 / 김기현
- 17-R30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운영계획 수립연구 / 장근영 · 황진구
- 17-R31 2016 학교 내 대안교실 우수사례집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7-R32 2016년도 청소년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관련 평가 / 배상률 · 김동일 · 유홍식
- 17-R33 화랑마을 운영관리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김영한 · 서정아 · 임지연 · 좌동훈 · 한상철 · 신상구 · 박시현
- 17-R34 다문화 교육 종합 발전방안 / 양계민
- 17-R35 SDGs 시대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환경교육 활동 개발 및 활용 방안 / 황세영 · 이윤주 · 조성화
- 17-R35-1 SDGs 시대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환경교육 활동 개발 및 활용 방안 - 세미나 자료집 / 황세영 · 이윤주 · 조성화
- 17-R35-2 SDGs 시대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환경교육 활동 개발 및 활용 방안 - 국내외 사례요약집 / 황세영 · 이윤주 · 조성화
- 17-R35-3 SDGs 시대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환경교육 활동 개발 및 활용 방안 - 정책리포트 / 황세영 · 이윤주 · 조성화
- 17-R36 지식협력단지 초 · 중학생 기업가정신 교육 모듈 교재 개발 / 강경균
- 17-R36-1 (초등학생) 기업가처럼 생각하기(학생용 워크북) / 강경균
- 17-R36-2 (초등학생) 기업가처럼 생각하기(교사용 매뉴얼) / 강경균
- 17-R36-3 (중학생) 기업가처럼 생각하기(학생용 워크북) / 강경균
- 17-R36-4 (중학생) 기업가처럼 생각하기(교사용 매뉴얼) / 강경균
- 17-R37 청소년의 디지털 역량 예방 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초 · 중 · 고등학생과 학교밖 청소년을 중심으로 / 성윤숙 · 김경준 · 최정원
- 17-R37-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매뉴얼 / 정제영 · 김성기 · 선미숙
- 17-R37-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매뉴얼 개발 연구 / 정제영 · 김성기 · 선미숙
- 17-R37-3 국내외 청소년 사이버 범죄 실태와 예방 대책 연구 / 안동근 · 박병식 · 김영욱
- 17-R38 청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청년 정책 방향과 과제 : 2017년 청년정책포럼 / 김기현 · 한지형
- 17-R39 청년정책 추진체계 발전방안 연구 / 이윤주 · 김기현 · 하형식
- 17-R40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백혜정 · 임희진 · 김현철 · 유성렬
- 17-R41 2017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 · 최인재 · 정은주 · 김영지
- 17-R42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모형 개발 연구 / 김지연 · 백혜정
- 17-R43 제5 · 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 연구 / 김영지 · 이윤주 · 유설희
- 17-R44 시립청소년시설 적정 위탁운영비 배분을 위한 모형개발 연구 / 최용환 · 이재완 · 박정배
- 17-R45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2017 / 김희진 · 정윤미
- 17-R46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사회 · 문화적응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배상률 · 이경상 · 이창호
- 17-R47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성과측정 체계연구 / 황세영 · 강경균
- 17-R48 청소년용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성은모 · 이성혜
- 17-R49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매뉴얼 개발 연구 / 김지연 · 유민상 · 이상정
- 17-R49-1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매뉴얼 개발 연구 -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매뉴얼 - / 김지연 · 유민상 · 이상정
- 17-R49-2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매뉴얼 개발 연구 - 기초분석보고서 / 김지연 · 유민상 · 이상정

- 17-R50 2017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 / 이윤주·하형석·한지형
- 17-R51 국립강진청소년문화예술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 김영한·이유진·정은진·강동영
- 17-R52 2017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연구사업 / 서정아·연보라
- 17-R53 청소년 자기주도형 봉사활동 시범사업 운영/ 장근영
- 17-R54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강화를 위한 평가체계 개편 연구 / 김형주·김정주
- 17-R55 2017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기관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7-R55-1 학업중단 숙려제 특화 프로그램집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7-R56 2017년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 컨설팅 결과보고서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7-S01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의 의미 및 과제 (2/9)
- 17-S02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역기능 예방 프로그램 교육 심화 워크숍 (2/13~14)
- 17-S03 제7차 청년정책포럼 (2/23)
- 17-S04 제8차 청년정책포럼 (4/20)
- 17-S05 유엔아동권리협약 5·6차 국가보고서 공청회 (3/7)
- 17-S06 2016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발표회 (3/31)
- 17-S07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담당자 연수 : 제1권역 (4/4)
- 17-S08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담당자 연수 : 제2권역 (4/7)
- 17-S09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담당자 연수 : 제3권역 (4/11)
- 17-S10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담당자 연수 : 제4권역 (4/12)
- 17-S11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관리자 연수 : 제1권역 (4/14)
- 17-S12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관리자 연수 : 제2권역 (4/18)
- 17-S13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역기능 예방 프로그램 교육 2차 심화 워크숍 (3/31)
- 17-S14 2017년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 컨설팅 위원 워크숍 (4/21)
- 17-S15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4/13)
- 17-S16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기초 연수(1권역) (4/20)
- 17-S17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기초 연수(2권역) (4/28)
- 17-S18 2017년 제1회 대안학교장 협의회 (5/12)
- 17-S19 2017 NYPI & ARACD INTERNATIONAL CONFERENCE – Career Education and VET(Vocational Education & Trainig) for Youth in Asia : 청소년 진로교육 국제학술회의 아시아 청소년 진로교육과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5/17)
- 17-S20 2017 NYPI & ARACD INTERNATIONAL CONFERENCE – Career Education and VET(Vocational Education & Trainig) for Youth in Asia : Special Roundtable for Comparing career educ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5/18)
- 17-S21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1권역 (5/22)
- 17-S22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2권역 (5/24)
- 17-S23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3권역 (5/29)
- 17-S24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4권역 (5/30)
- 17-S25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의 청소년정책 (5/31)

- 17-S26 세계시민교육 사례 공유를 통한 청소년 활동 활성화 방안 논의 (5/26)
- 17-S27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Ⅴ 콜로키움 (6/22)
- 17-S28 SDGs 청소년 역량 환경교육 (6/26)
- 17-S29 2017 13th citizED International Conference Global citizenship and youth work: educational meanings, possibilities and practices (6.29~7.1)
- 17-S30 다문화 청소년의 효율적 지원 방안(통합과 선별) (9.22)
- 17-S31 청소년활동 중심 행복마을 운영 모형 및 지원방안 (7.28)
- 17-S32 2017년 한·러 차세대 전문가 세미나 - 한국과 러시아의 성인기 이행 : 청년 자립 '결혼 출산 현황 및 정책' (7.27)
- 17-S33 2017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기관 모니터링 위원 워크숍 (8.18)
- 17-S34 청소년정치참여확대 및 활성화 방안 (8.28)
- 17-S35 2017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담당자 연수 (8.29)
- 17-S36 2017년 「대안학교(각종학교 및 특성화중·고교) 담당교원 협의회」 (9.1)
- 17-S37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9.14)
- 17-S38 다문화청소년패널 학술대회 (9.15)
- 17-S39 지역별 청소년운영위원회 토론회 세미나 (9.9, 9.16)
- 17-S40 4차 산업혁명 및 인구절벽 현상과 청소년역량증진의 방향 (9.13)
- 17-S41 국제심포지엄 2017 [무업청소년(NEET) : 국제적 동향과 대응] (9.25)
- 17-S42 한-중 국제세미나 (10/31)
- 17-S43 청소년의 디지털 역기능(사이버범죄) 예방과 대책수립을 위한 전문가 포럼 (11.3)
- 17-S4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성과발표 및 우수사례발표 워크숍 (11.17)
- 17-S45 청소년의 노동권 관련 법제 현황과 주요 입법 과제 (11.28)

##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8권 제1호(통권 제84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8권 제2호(통권 제85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8권 제3호(통권 제86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8권 제4호(통권 제87호)

## 기 타 발 간 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77호 : 청소년정책평가제도 체계화 방안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78호 :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79호 :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Ⅱ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0호 :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1호 : 지방자치단체 청년참여기구 실태 및 체계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2호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2013-2016)' 의 성과와 향후 연구방향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3호 : 고등학생들의 정치참여욕구 및 정치참여 활성화방안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4호 : 중도입국 청소년의 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5호 : 탈북청소년 지원 체계화 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6호 :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V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7호 : 청소년 분야 SDGs 이행을 위한 국내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8호 : 청소년 동반자 활동 효율화 방안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9호 : 지역별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 운영 특성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0호 : 인터넷사회의 부모와 자녀관계에 관한 한·중·일 비교: 한국사례 분석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1호 : 아동·청소년을 위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실태와 과제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2호 :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연구 I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3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연구성과분석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4호 : 자유학기제 등 학교-청소년시설의 협업지침 활용방안

NYPI Bluenote 통계 33호 : 청소년 차별 실태 연구  
NYPI Bluenote 통계 34호 :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NYPI Bluenote 통계 35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NYPI Bluenote 통계 36호 : 청소년 수면과 비만의 종단적 변화  
NYPI Bluenote 통계 37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자료로 살펴본 청소년 관련 국정과제  
NYPI Bluenote 통계 38호 : 청소년의 학습습관 통제능력, 성적 만족도, 삶에 대한 만족도의 종단적 변화 -KCYPs 초 4패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39-01  
연구보고 17-R17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V: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인 쇄 2017년 12월 23일

발 행 2017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송병국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참기획 전화 (042-861-6380)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176-9 94330  
979-11-5654-148-6 (세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7-39-01  
연구보고 17-R17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Ⅳ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www.nypi.re.kr

  9 4330  
9 791156 541769  
ISBN 979-11-5654-176-9  
ISBN 979-11-5654-148-6 (세트)